

2021년도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자료**

- ▣ 회의일시 : 2021.4.8.(목) 14: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참석위원 : 신승운(위원장), 고연석, 권오영, 김문식,  
김창준, 김태영(덕문), 박은경, 박정혜,  
오용섭, 이종민, 이혜은, 장경희, 정은우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b>【심의사항】 3건</b>		<b>비 고</b>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1	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 및 복장유물	공개
2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	공개
3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	공개
<b>【검토사항】 13건</b>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4	보물 남원 실상사 철조여래좌상	공개
5	보물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공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6	완주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소조십육나한상 일괄	공개
7	울진 불영사 불연	공개
8	문원영화 권231~232, 234	공개
9	송조명현오백가과방대전문수 권5상	공개
10	고성이씨 임청각 가전 고문서 일괄	공개
11	도산서원 유가경서 언해	공개
12	남명천화상송증도가	공개
13	박동량 전별첩	공개
14	송시열 초상	공개
15	권상하 초상 및 초본	공개
16	김해 대성동 91호분 출토 마구장식 일괄	공개



심 의 사 항



## 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안건번호 동산 2021-02-001

### 1.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 및 복장유물 (長城 白羊寺 阿彌陀如來說法圖 및 腹藏遺物)

#### 가. 심의사항

‘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 및 복장유물’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 및 복장유물’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8.8.20.)이 있어 관계 전문가 조사(’20.7.28./8.21.) 및 과학적 조사(’20.8.19.~8.21.)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 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2021년도 본 위원회 제1차 회의(’21.2.4.)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1.2.25.~’21.3.25.)하고, 보물 지정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91호(2008.4.11.지정)
- 명 칭 : 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 및 복장유물  
(長城 白羊寺 阿彌陀如來說法圖 및 腹藏遺物)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불갑사성보박물관)
- 소재지 :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불갑사로 450, 불갑사성보박물관
- 수 량 : 불화 1폭, 복장유물 6건 10점
- 규 격 : 전체 338.7×234.2cm
- 재 질 : 비단에 채색
- 조성연대 : 1775년(영조 51)
- 제작자 : 색민(齋敏), 우은(祐隱), 계헌(戒憲), 정은(淨崙), 유한(宥閑), 기정(斯定), 영심(永心), 만성(萬成), 천성(千成), 교윤(皎閔), 달연(達蓮)



<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백양사 극락보전 아미타여래설법도는 조선후기 1775년에 수화승 색민을 비롯한 총 11명의 화승들이 참여하여 제작한 것이다. 조성목적은 대시주 겸 화주인 환월당 민숙(喚月堂 旻肅)이 외조모 유씨 부부와 어머니 봉씨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한 것이다. 이 불화는 1775년 극락전 아미타불상을 중수하면서 새롭게 제작된 불화로, 복장발원문에 의하면 ‘佛像改金白月堂大師 齋旻比丘, 上壇幀都畫員 戒憲比丘’라고 밝히고 있어, 색민이 불상개금 및 불화조성을 주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수화승 색민은 18세기 중반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당대의 탁월한 화사의 겸의 제자로 참여하였고, 스승 의겸의 화풍을 이어받아 자신의 기량을 펼친 것



으로 보인다. 특히 이 불화는 1994년 9월에 도난당하였으나, 2006년 9월에 회수된 사례이다. 게다가 원래의 복장낭과 복장발원문이 남아 있고, 근대기에 추가 납입된 복장유물도 함께 전하고 있다.

따라서 본 불화는 작품성은 물론 제작시기, 제작자, 조성목적을 확실하게 알 수 있으며, 조성 당시의 복장물이 남아있어 자료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 이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 (지정 가치 있음)

백양사 극락보전 아미타불회도는 1775년에 대시주 겸 화주인 喚月堂 旻肅이 외조모 劉氏 부부와 돌아가신 어머니 奉氏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단독으로 시주하여 조성한 것으로, 수화승 색민을 비롯하여 11명의 화승들이 함께 제작하였다.

아미타불회도의 화기에는 金魚 齋旻과 祐隱, 片手 戒憲, 淨崙, 有閑, 斯定, 永心, 萬成, 千成, 皎閏, 達蓮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금어인 색민과 우은, 편수인 계헌 등이 조성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복장발원문에는 ‘佛像改金白月堂大師 齋旻比丘, 上壇幀都畫員 戒憲比丘’라고 기록되어 있어 색민이 불상개금 및 불화조성의 총책임을 맡았으며, 아미타불회도의 조성은 계헌을 중심으로 우은 등 여러 화승들이 맡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양사 극락보전의 아미타불회도의 조성불사를 총괄한 색민은 18세기 호남지역 불화의 대표화승인 의겸의 제자로서, 의겸의 화풍을 잘 계승하면서도 35년간 20여 점의 작품을 제작하면서 나름대로의 화풍을 수립하였다. 즉 본존인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8대보살과 6위의 제자, 사천왕, 2위의 팔부중을 배치한 간략한 화면구성, 본존의 두광에서부터 제자상과 팔대보살 등 권속들을 따라가며 화면을 꽉 채우는 큰 원형구도, 세로로 긴 화면, 화면을 압도하는 본존불, 늘씬한 협시보살의 모습 등에서 전체적으로 장중함과 상승감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특징은 색민이 제작한 화엄사 삼신불도(1757년)과 대흥사 괘불도(1764년)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백양사 극락보전 아미타불회도는 호남지역의 대표적인 화승 색민의 마지막 작품으로, 그의 화승으로서의 역량이 집약된 작품이자 18세기 후기 호남지역 불화를 대표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1994년에 도난당했다가 2006년에 환수되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조성 당시의 복장물이 그대로 남아있어 불화의 정확한 조성연대와 조성화원 등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선후기 불화의 불화복장형식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이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이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는 1994년 도난당하여 제자리를 떠났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온 문화재이다. 이 불화는 1775년 극락전 아미타불상을 중수하면서 새롭게 제작된 불화이다. 특히 조선후기 불화로서는 드물게 제작 동기가 분명한 불화이다. 즉 大宗師 旻肅이 돌아가신 조모와 모친의 극락왕생을 위해 발원 제작한 불화로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불화의 제작에는 색민, 우현, 계현 등 여러 명의 불화승들이 가담하였다. 불화의 화기에는 색민이 첫 번째로 화승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불상에서 발견된 「불상개금후불탱조성시왕개채연화」(1775년)와 불화복장 발원문(1775년)에는 색민은 개금장으로 戒憲이 공히 불화의 도화승으로 등장한다. 따라서 불화의 제작은 색민의 지도 아래 그의 제자인 계현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색민은 불상의 개금과 개채, 불화의 조성 등을 총괄 지도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기록을 통해 불화승들이 불화뿐만 아니라 불상의 중수 개금, 개채 작업에도 그들의 재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실질적인 사례여서, 이 시기 불교미술을 이해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1775년 백양사 불사를 이끈 색민은 18세기 전반의 대화승 의겸의 문하에서 그림을 배운 인물로, 그 역시 뛰어난 필력으로 대형 괘불도부터 下壇 칠성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불화를 그려내었던 18세기를 대표하는 畫僧 중 한명이다. 색민의 활동상 이 작품은 만년기에 해당하지만, 계현의 입장에서는 첫 수화승으로 그린 작품이자 초기 또는 중반기의 작품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작품은 의겸에서 색민, 색민에서 다시 계현으로 이어지는 의겸 화풍의 전승과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상황은 일부 개장되었으나 본 화면은 제작 당시의 원형을 큰 손상 없이 간직하고 있다. 특히 제작 당시의 불화 복장이 망실되지 않고 남아 있어 18세기 후반경의 불화 복장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며, 백양사에서 이루어진 불복장 전통은 蓮潭有一(1720-1799), 華潭法璘(1843-1902), 錦海瓘英(1856-1937), 默潭聲祐(1896-1981), 도월수진(1948-현재)으로 이어지고 있어 더욱 귀중하다.

‘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는 안정되고 짜임새 있는 구도와 구성력을 갖추었으며, 간결한 필치와 안정되고 중후한 색감, 원만한 인물의 표현 등에서도 18세기 후반의 시대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불화로 평가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 조사보고서



### ○ 조사내용

백양사는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백암산에 위치하며,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이다. 창건시기는 백제무왕 33년(632)에 여환(如幻) 선사가 창건하였고, 고려시대에 사찰의 면모를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덕종 3년(1034)에 중연선사(中延禪師)가 중창하였고, 충정왕 2년(1350)에 각진국사(覺眞國師)가 중창을 주도하였다. 조선시대에 소요태능(逍遙太能), 설과상언(雪坡尙言), 연담유일(蓮潭有一), 백파궁선(白坡巨璇), 근대에 환응탄영(幻應坦泳), 만암종헌(曼庵宗憲) 등과 같은 고승 대덕들이 주석하였다. 백양사의 사명은 창건시에는 백암사(白巖寺)였으나, 고려시대에 정토선원(淨土禪院)으로 바꾸었고, 조선시대에 다시 백암사와 정토사로 변경되었다가 19세기 후반에 백양사로 불리었다고 한다.

이 아미타여래설법도는 백양사 극락보전의 목조아미타불상의 뒤쪽 후불벽에 걸렸던 후불탱이었다. 1994년 9월 29일에 도난당하였으나(『불교문화재도난백서』 참조), 2006년 9월에 회수되었다. 2008년 4월에 전라남도 유형문화재(제291호)로 지정되었고, 현재 백양사 고불정보관에 소장되어 있다. 게다가 원래의 복장낭은 물론 근대기에 추가 납입된 복장유물도 함께 전하고 있다.

아미타여래설법도는 세로 338.7cm, 가로 234.2cm에 이르는 크기로, 화폭은 비단 5폭(각폭 23.8~58.4cm)을 옆으로 이어 만들었다. 제작시기와 제작자는 화면 하단에 마련된 화기란에 1775년(乾隆40)에 수화승 색민(靑旻)을 비롯한 총 11명의 화승이 참여하여 제작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화면은 장방형으로, 상단 중앙에 서방극락정토의 교주인 본존 아미타여래를 크게 그리고, 하단 중앙에 좌우협시보살을 전신을 드러내어 비중있게 그려, 본존과 협시보살로 구성된 위격과 상승감을 느끼게 한다. 이들 주변으로는 보살과 사천왕, 제자, 팔부중 도상 등이 타원형으로 에워싸고 있다. 먼저, 본존 아미타불은 정면을 향해 방형수미좌 위의 청련화좌에 걸가부좌를 하고 있다. 왼손은 무릎에 두고 오른손을 어깨부위까지 들어올려 제1지와 3·4지를 맞댄 설법인을 취하고 있다.

두부와 신부에는 연판형 광배(기존에 키형광배라고 일컫음)를 각각 갖추었다. 두부의 지발과 육계는 삼각형에 가까운 표현으로 반타원형의 중간계주와 둥근 정상계주가 표현되었다. 얼굴과 육신에는 황색을 바르고 담묵선으로 윤곽을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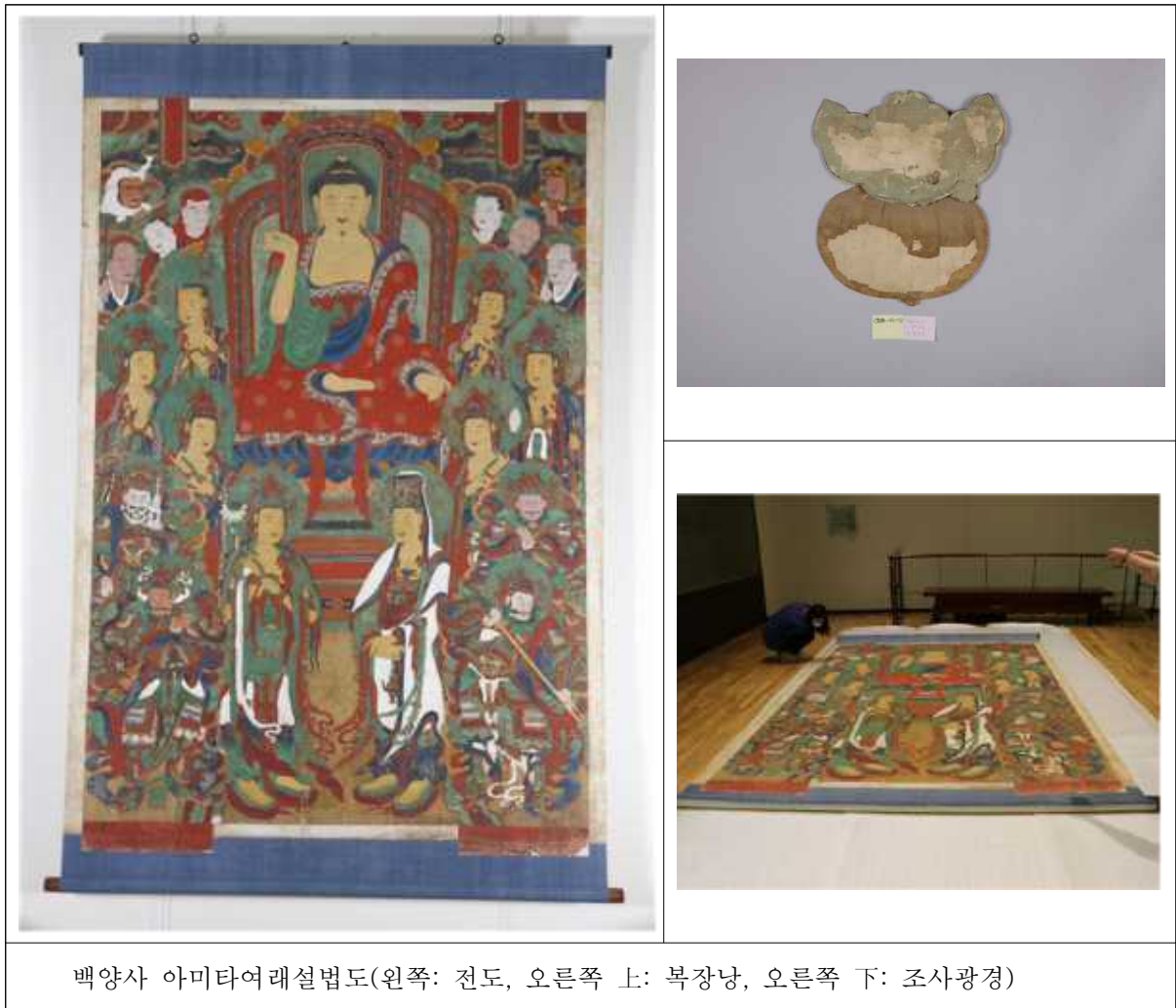
상호는 이마와 미간이 넓은데 반해 턱부분이 좁아 역삼각형에 가까운 모양이다. 양 눈썹은 거리가 있으며 약간 아래로 처지게 표현하였고, 중간에 백호를 동그란 점으로 처리하였다. 양 눈은 눈머리에 비해 눈꼬리가 살짝 올라갔으나, 일자상에 가깝다. 콧등에서 코끝으로 내려올수록 넓게 처리하였으며, 콧방울은 이중으로 겹쳐 표현하였다. 반면 인중은 좁고 입술은 가늘고 작은 편인데, 입술을 붉게 칠하고 먹선으로 상하입술의 경계를 구분하였으며, 윗입술의 도톰한 부분에는 살짝 육색을 드러내었다. 육신은 넓은 어깨와 가슴, 무릎의 폭도 넓어 건장한 신체를 보여주고 있다.

법의는 승각기와 복건의에 대의를 양어깨를 감싸며 걸쳤다. 가슴에 드러난 승각기는 보주 삽입의 삼각 거치문 형태의 연속문양띠가 보이며, 그 위로 붉은 색의 매듭 끈이 연화좌 아래로 길게 흘러내렸다. 붉은 색 대의바탕에는 백선으로 연화원문을 일정한 간격으로 흘뜨려 장식하였고, 가장자리에는 흑색 바탕에 보주와 보상화 조합문을 연속으로 둘러 마감하였으며, 대의 이면자락은 청색을 발라 붉은색 표면과 보색 대비를 강조하였다. 오른쪽 팔에는 녹색 편삼을 걸쳤는데 백색을 활용하여 짙고 옅은 녹색 톤으로 음영의 변화를 주었다.

화면 하단 본존의 방형좌 전면에는 좌우협시인 관음과 세지보살이 시립하고, 그 위쪽으로 보살 6위를 배치하여 전체 팔대보살로 구성하였다. 보살들의 상호는 긴 얼굴에 비교적 통통한 뺨, 치켜올라간 눈, 긴 코와 작은 입술 등이 특징적이다. 전신을 드러낸 좌우협시의 경우 전체적으로 신체가 날씬하며, 어깨는 좁고 아래로 처졌으며, 연화족좌와 발 부분은 신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그렸다. 좌협시 관음은 입상 화불이 배치된 고관을 착용하고 정병을 든 양손은 복부 앞에서 교차하였으며, 보관에서부터 백의를 걸쳐 몸을 감싸고 있어 눈길을 끈다. 우협시 세지보살은 양손에 백련을 잡고 있으며, 백련 위에 옥인으로 추정되는 지물이 놓여있다. 좌우협시 모두 몸에 걸친 띠 자락이 나무끼거나 구불구불 흘러내렸다. 하단 양쪽에는 갑주를 착용한 사천왕상이 외호하고 있다. 사천왕의 배치와 명칭에는 이견이 있으나, 이 아미타불화는 조선시대의 특수사례가 아닌 보편적인 남향법 배치법을 따르고 있다고 본다. 본존의 좌측(향우측)에는 합장형(동방)과 장도를 든 천왕(남방)이, 향좌측에는 보탑(북방)과 용과 여의주를 든 천왕(서방)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

화면 상단 본존의 양쪽에는 십대제자 가운데 6위만 배치하였고, 구름으로 경계를 지어 바깥쪽에 팔부중 가운데 2위만 배치하였는데, 향우측에 머리에 사자관을 쓴 건달바, 향좌측에는 흰 코끼리관을 쓴 야차로 추정된다. 천공은 검은색 바탕에 황색과 적색, 녹색의 채운을 장식하였다. 도상들의 위계 구분에도 채운을 활용하여 구분 지었다. 그리고 화면 하단의 양쪽에는 묵서로 장문의 화기를 적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 불화는 화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며, 부분적으로 변색이 확인되고 보채흔도 제한적으로 보이나, 대체로 원래의 색을 잘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설채법은 주조색을 적색과 녹색을 사용하고, 부분적으로 백색, 청색, 황색 등을 활용하였다. 아울러 녹색에 백색을 적절하게 배합하여 채도는 낮은 반면 명도는 밝은 녹색을 사용한 것이 특징적이다. 본존을 중심으로 좌우에 권속들을 좌우대칭으로 배치하여 조선불화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본존을 비롯하여 보살상의 온화하고 단정한 이미지는 이 불화를 주도한 수화승 색민(齋旻)의 인물표현에 있어서 화풍상의 특징이다. 색민은 18세기 후반 호남지역의 화승 의겸(義謙)의 화풍을 잇고 있다. 특히 좌협시 관음보살의 이미지는 18세기 전반 의겸 제작 호남지역의 불화인 갑사 아미타설법도(1730년), 개암사 괘불(1749년)에서도 유사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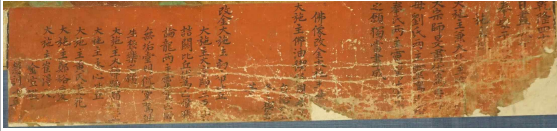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왼쪽: 전도, 오른쪽 上: 복장낭, 오른쪽 下: 조사광경)

○ 목서화기 / 복장발원문 및 복장유물 일괄

화면 하단의 양쪽에는 붉은색 바탕에 먹선으로 화기란을 마련하고, 그 안에 목서로 화기를 적고 있다. 향좌측 화기는 일부 박락이 되어 전독이 불가능하나, 제작시기, 봉안처, 시주질 등이 적혀있다. 원래의 복장유물 북서 발원문에서 건륭 40년(1775)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있다.

불화를 제작한 화승은 금어 색민(齋旻), 우은(祐隱), 편수 계헌(戒憲), 정은(淨崑), 유한(宥閑), 기정(斯定), 영심(永心), 만성(萬成), 천성(千成), 교운(皎閏), 달연(達蓮) 등 총 11명이 관여하였다. 수화승 색민은 18세기 중반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당대의 탁월한 화사 의겸의 제자로 1741년에 보조화승으로 참여하였고, 이후 1775년까지 불화와 불상 제작에 지속적으로 활동하였다. 색민은 1740년대에 의겸과 회밀의 주도하에 보조화승으로 참여하였다. 이후 수화승으로서 1757년 화엄사 삼신불도(석가여래도), 1764년 대흥사 영산회괘불탱 등을 주도하였다. 색민은 의겸의 화풍을 이어받아 자신의 기량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이 불화는 화기에 의해 대시주 겸 화주인 환월당(喚月堂) 민숙(旻肅)이 외조모 유씨(劉氏)와 돌아가신 어머니 봉씨(奉氏)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시주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게다가 불화 대시주에 이어 불상개금시주질도 기록하고 있어 불화조성 시 불상개금도 함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화기 사진 및 목서 내용	
	
향좌측 화기(위)	향우측 화기(위)
主上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齊年 世子邸下壽千秋 長城府使金公恒柱 幼學金秀祖 大施主妙圓比丘 房應大兩主 金得柱 悟禪靈駕 姜弼碩兩主	乾隆四十 [剝落] 日畫成于 [剝落] 奉安于 [剝落] 施主秩 大施主兼大化主喚月堂 大宗師旻肅伏爲亡外祖 母劉氏兩主靈駕亡母 奉氏兩主靈駕往生極樂 之願獨當畫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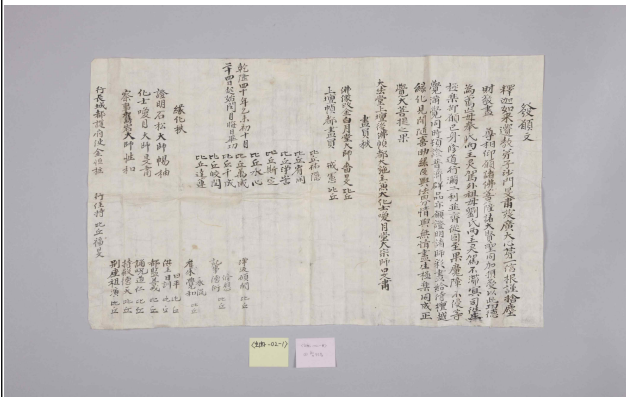
화기 사진 및 목서 내용

<p>             金奉仁              盧萬世兩主              田世業單身              中得比丘              金魚秩              白月大宗師 齋敏              祐隱              片手戒憲              淨嘗              宥閑              斯定              永心              萬成              千成              皎閨              達蓮              山中大禪師              鶴峰明坦              本師秩              時任住持              福旻              三綱 戒性              瑞修              性隱              記事 宇心              緣化秩              證師石松大宗              師暢柚              察事鷹岩              大宗師性和              持殿比丘 德天              誦呪 道人              供養 日訓              曰平         </p>	<p>             佛像改金大施主秩              大施主佛油稷任周再昌              自浩比丘              各各稷員              等              改金大施主初希比丘              喆關比丘伏爲亡母張              論龍兩主靈駕亡師              無垢堂明侃靈駕往              生極樂之願              大施主大禪師智幻比丘              大施主永心比丘              大施主黃氏蓮花              大施主鄭裕慶              大施主崔得天              金宣鑑              慧訓比丘         </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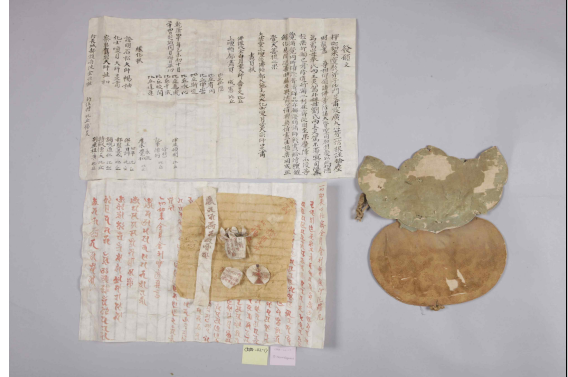
화기 사진 및 목서 내용

耆社 德衍  
 修隱  
 來往 德華  
 淨桶 碩閑  
 看床 覺和  
 永侃  
 負木 錦禪  
 別座 祖○(演)  
 都監善戒  
 都化士喚月大禪師旻肅比丘

복장 발원문 및 복장유물



복장발원문 사진(위)



복장유물 일괄 사진(위)

發願文  
 釋迦如來遺教弟子沙門旻肅發廣大心第一信根謹捨塵  
 財敬畫 尊相仰願諸佛菩薩諸大賢聖同加攝受以此  
 功德  
 爲薦亡母奉氏兩主靈駕外祖母劉氏兩主靈駕不滯冥  
 司往生  
 極樂仰願己身修道行滿二利並齊從因至果魔障不侵等  
 覺蒲覺同時頓證普濟群品亦願證明諸師彩畫給侍檀越  
 緣化見聞隨喜助緣及與法界情與無情盡生極樂同成正  
 覺大菩提之果  
 大法堂上壇後佛幘都大施主兼大畫士喚月堂大宗師  
 旻肅



**복장 발원문 및 복장유물**

畫員秩

佛像改金白月堂大師 喬旻比丘

上壇幀都畫員 戒憲比丘

比丘祐隱

比丘淨嘗

比丘斯定

比丘永心

比丘萬咸

比丘千成

比丘皎閏

比丘達蓮

乾隆四十年乙未初十月

二十四日起始閏月晦日畢功

緣化秩

證明石松大師暢柚

化士喚月大師旻肅

察事鷲岩大師性和

淨汲碩閑比丘

記事 修愨

德衍 比丘

看床 永侃

覺和 比丘

供養 曰平 比丘

日訓 比丘

都監 善戒 比丘

誦呪 道仁 比丘

持殿 德天 比丘

別座 祖演 比丘

行長城都護府使金恒柱 行住持 比丘 福旻

복장유물 목록						
no	명칭	시기	재질	크기cm	수량	사진
1	복장주머니	1775	비단 종이	33.9x31.0	1점	
2	발원문	1775	종이	35.8x59.3	1점	
3	후령통 일괄 (후령통, 오륜종자, 출 실지, 양면원경 2점)	1775	종이	7.5x4.9	5점	 *후령통 오보병 잔존
4	보협진언	1775	종이	26.5x2.7	1점	
5	일체여래심비밀전신 사리보협인다라니니	1775	종이	34.2x23.2	1점	
6	근봉지	1775	종이	23.2x23.2	1점	
계					10점	

## ○ 참고문헌

박도화, 「백양사 극락보전 아미타여래설법도의 특징과 의의」, 『古佛叢林 白羊寺 정보문화재 국가문화재 지정을 위한 학술세미나 자료집』, 2018.

『한국의 불화 화기집』, 정보문화재연구원, 2011.



## 1. 내용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백암산에 위치한 백양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로 632년(무왕33)에 如幻이 창건하여 백양사라고 하였다. 1034년(덕종 3) 中延이 중창하면서 淨土寺라 개칭하였고, 1350년(충정왕2) 覺眞國師가 3창하였다. 1574년(선조7) 喚羊이 중건하면서 다시 백양사가 되었으며, 1786년(정조10)에 喚惺, 1864년(고종1)에 道巖, 1917년에 宋曼庵이 중건하여 오늘에 이른다. 현재 백양사에는 주불전인 대웅전을 비롯하여 극락보전·명부전·칠성각·진영각 등 불전을 비롯하여 천왕문·선실·범종각 등이 남아있다.

백양사 극락보전 아미타불회도는 1775년에 齋旻 등 모두 11명의 화승이 함께 조성하였다. 폭 23.8~58.4cm의 비단 5폭을 이어 만들었으며, 화면크기는 가로 234.2cm, 세로 338.7cm에 이른다. 이 불화는 원래 극락보전의 주존불인 목조아미타불좌상 뒤에 후불탱으로 봉안되어 있었으나, 1994년 9월 29일에 도난당했다가 20여년 만인 2006년에 회수되었으며, 2008년 4월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화면 윗부분에는 본존 아미타불이 비중있고 크게 표현되었으며, 아미타불의 주위에는 8대보살과 사천왕, 10대제자 중 6위, 팔부중 중 2위의 신중이 배치되어 있다. 조선 후기의 후불화는 대부분 보살, 범천·제석천, 10대제자, 사천왕, 팔부중 등이 본존을 둘러싸고 있는 군도형식을 이루는데, 백양사 아미타불회도 역시 군도형식이지만 화면의 폭이 넓지 않고 존상이 비교적 크게 그려졌으며, 권속 일부가 생략되어 있다.

아미타불은 키[箕] 모양의 두광과 신광을 배경으로 왼손은 가부좌한 왼쪽 무릎에 얹고 오른손은 어깨 높이로 들어 첫째와 셋째손가락을 맞대고 수미대좌 위 청련대좌에 걸가부좌하였다. 큰 연판형 신광 안에 작은 연판형 두광을 포개놓은 소위 ‘키형 광배’는 17~18세기 불화에서 가장 보편적인 광배의 형태로, 두광 내부는 짙은 녹색, 신광 내부는 밝은 옥색으로 칠하고 그 안에 화문과 거치문을 차례로 둘러싼 후 화염문으로 마무리하였다. 구불구불한 나발의 머리에는 뽕족한 육계가 높이 솟아 있으며, 원형의 정상계주와 넓적한 중간계주가 표현되었다. 얼굴은 이마

와 미간이 넓은 편이며, 턱이 가름한 역삼각형의 얼굴에 약간 밑으로 쳐진 눈썹, 수평에 가까운 가는 눈, 콧망울이 넓고 곧은 코, 좁은 인중, 작은 입술 등이 전체적으로 단정한 인상을 준다. 이러한 얼굴 모습은 수화승 齋旻의 인물표현의 특징이자 義謙으로 부터 이어지는 18세기 후반 호남지역 불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얼굴에 비해 신체는 장중하며 어깨와 무릎 폭이 넓어 건장하면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착의법은 통견식으로, 넓게 트인 가슴 아래에는 녹색의 군의를 입고 그 위에 적색의 대의를 걸쳤는데, 어깨 위로 들어 올린 오른손으로 인해 녹색의 군의자락이 드러나 보인다. 군의 윗부분은 곡선적으로 처리되었으며, 적색의 衣帶가 청련대좌 아래까지 길게 늘어져 있다. 두 어깨를 덮은 대의에는 만개한 연화문을 새긴 작은 蓮花圓文이 시문되었고, 끝단에는 검정 바탕에 작고 무성한 꽃잎이 벌어진 모란문이 둘러져 있다.

본존의 아래에는 협시인 관음과 세지보살을 비롯하여 8대보살이 배치되었다. 다소 긴 얼굴에 도톰하게 부푼 뺨과 통통한 볼, 높은 코, 작은 입술 등 보살들의 얼굴은 가름하면서도 이목구비가 작으며, 어깨는 좁고 아래로 쳐져서 체구가 늘씬해 보인다. 본존의 대좌 아래 향우측에 서있는 관음보살은 입상의 化佛이 새겨진 높은 보관을 쓰고 보관 위에서부터 무릎 아래까지 백의를 둘렀는데, 양손을 배 앞에서 교차하여 손가락으로 정병을 살짝 잡고 아미타불을 향해 서 있다. 이러한 관음보살의 모습은 18세기 전반 의겸이 즐겨 사용하던 것으로 이후 그의 유파에 의해 주로 호남지역의 불화에서 자주 사용되었으며, 의겸이 조성한 갑사 아미타불회도(1730년), 개암사 괘불도(1749년)에서도 유사한 모습을 찾을 수 있다. 관음보살과 상대하여 서있는 대세지보살은 두 손을 가슴 부근으로 들어 올려 백련을 잡고 있으며, 대세지보살의 상징인 보관 위의 정병표현은 없지만 백련 위에 黻이 올려 있어 대세지보살임을 알 수 있다.



도1. 장성 백양사 극락보전 아미타불회도

아미타불의 좌우로는 8대보살 중 여섯 보살이 시립하였다. 아미타불회도에 배치되는 여덟 보살의 명칭과 지물은 경전마다 다소 다르지만, 백양사 아미타불회도보다 1년 후에 제작되었고 각 존상에 명칭이 적혀있는 구례 천은사 아미타불회도(1776년)와 비교해볼 때, 향우측에는 아래부터 위로 백련을 든 문수보살, 합장한 금강장보살, 금강저를 든 미륵보살, 향좌측에는 아래로부터 위로 여의를 든 보현보살, 합장한 제장애보살, 보주와 석장을 든 지장보살이 배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아미타불회도에 배치된 8대보살 중에서 금강저를 들고 있는 보살은 대부분 금강장보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장보살과 상대하여 금강저를 든 보살은 금강장보살, 제장애보살과 상대하여 합장한 보살은 미륵보살일 가능성도 있다.

화면의 하단부 양쪽에는 사천왕이 배치되어 있다. 향우측에는 북방 다문천왕이 합장을 하고 서있으며, 그 아래에 동방 지국천왕이 칼을 비스듬히 내려 잡고 있다. 향좌측에는 남방 증장천왕이 용과 여의주를 잡고 서있으며, 그 위로 서방 광목천왕이 탑을 받쳐 들고 서있다. 조선시대 후기 불화에서 북방천왕은 대부분 비파를 들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합장을 하였는데, 의겸이 수화사로 제작한 갑사 대웅전 석가모니불회도(1730년)와 색민이 제작한 보성 대원사 명부전 지장보살도(1766년)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어, 이와 같은 도상이 18세기 호남지역 불화의 한 특징임을 알 수 있다.

8대보살의 위로는 10대 제자 중 여섯 제자가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제자들은 각각 합장을 하거나 지물을 들고 있다. 조선 후기 불화에서 10대제자가 배치될 때는 열명의 제자가 모두 표현되기도 하고 8위 또는 6위, 4위의 제자가 표현되지만, 제자들의 숫자에 상관없이 아난존자는 오른쪽, 가섭존자는 왼쪽에 서로 마주보게 묘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향우측의 세 존자 중 중앙의 如意를 든 노비구와 향좌측의 중앙에 있는 젊은 비구가 각각 가섭존자와 아난존자로 추정되지만, 두 비구는 서로 마주보지 않고 화면 바깥을 쳐다보고 있는 등 일반적인 배치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 이 불화에서처럼 아난존자와 가섭존자를 상대하여 배치하지 않는 것은 조선후기 불화에서는 매우 드물다. 다만 의겸의 제자인 彩仁이 제작한 곡성 도림사 아미타불회도(1730년)에는 아난존자와 가섭존자가 화면 바깥을 쳐다보고 있고, 의겸이 제작한 갑사 삼세불도 중 아미타불회도(1730년)에는 백양사 아미타불회도처럼 가섭존자가 여의를 들고 있어, 색민과 의겸 불화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화면 상부의 채운 속에는 2위의 신중이 배치되어 있다. 이들은 팔부중 가운데 일부를 표현한 것으로, 향우측의 머리에 사자관을 쓰고 합장한 신중은 乾達婆, 향좌측의 흰 코끼리관을 쓰고 합장한 신중은 夜叉로 추정된다.

채색은 녹색과 청색부분에 일부 補彩가 이루어졌으나 조성 당시의 색이 잘 남아있다. 즉 적색과 녹색, 황색, 청색, 백색을 주조색으로 하면서 본존불과 보살의 광배 및 구름, 복식 등에 전반적으로 옅은 녹색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처럼 호분을 섞은 옅은 녹색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의겸과 화승들의 특징이자 18세기 호남 지역 불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녹색에 호분을 많이 섞어 좀 더 탁해 보인다. 본존의 오른쪽 팔에 걸쳐진 옷자락, 보살과 사천왕의 두광 등에 가해진 녹색과 본존의 법의와 연화대좌에 칠해진 청색, 신중의 코끼리 탈, 보살의 천의자락 등의 흰색 부분은 일부 보채되었다.

한편, 화면 하단의 좌우에는 붉은 바탕에 먹으로 적은 화기가 남아 있다.

[향우측]



乾隆四十...

日畫成于...

奉安于...

施主秩

大施主兼大化主喚月堂

大宗師旻肅伏爲亡外祖

母劉氏兩主靈駕亡母

奉氏兩主靈駕往生極樂

之願獨當畫成

佛像改金大施主秩

大施主佛油稷任周再昌

自浩比丘

各各稷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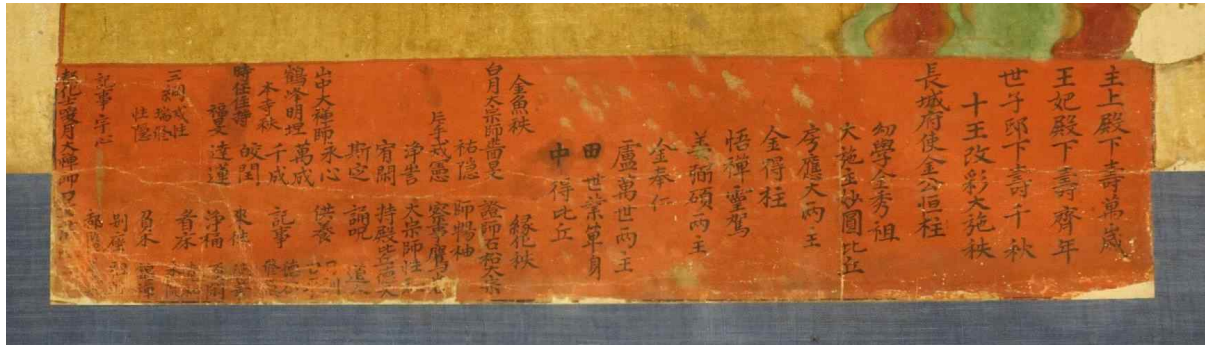
等

改金大施主初希比丘

喆關比丘伏爲亡母張

論龍兩主靈駕亡師  
 無垢堂明侃靈駕往  
 生極樂之願  
 大施主大禪師智幻比丘  
 大施主永心比丘  
 大施主黃氏蓮花  
 大施主鄭裕慶  
 大施主崔得天  
     金宣鑑  
     慧訓比丘

[향좌측]



主上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齊年  
 世子邸下壽千秋  
 長城府使金公恒柱  
     幼學金秀祖  
     大施主妙圓比丘  
     房應大兩主  
     金得柱  
     悟禪靈駕  
     姜弼碩兩主  
     金奉仁  
     盧萬世兩主  
         田世業單身  
         中得比丘  
 金魚秩  
 白月大宗師齋敏

祐隱  
片手戒憲  
淨豈  
宥閑  
斯定  
永心  
萬成  
千成  
皎閏  
達蓮

山中大禪師

鶴峰明坦

本師秩

時任住持

福旻

三綱 戒性

瑞修

性隱

記事 宇心

緣化秩

證師石松大宗

師暢柚

察事鷹岩

大宗師性和

持殿比丘 德天

誦呪 道人

供養 日訓

日平

耆社 德衍

修隱

來往 德華

淨桶 碩閑

看床 覺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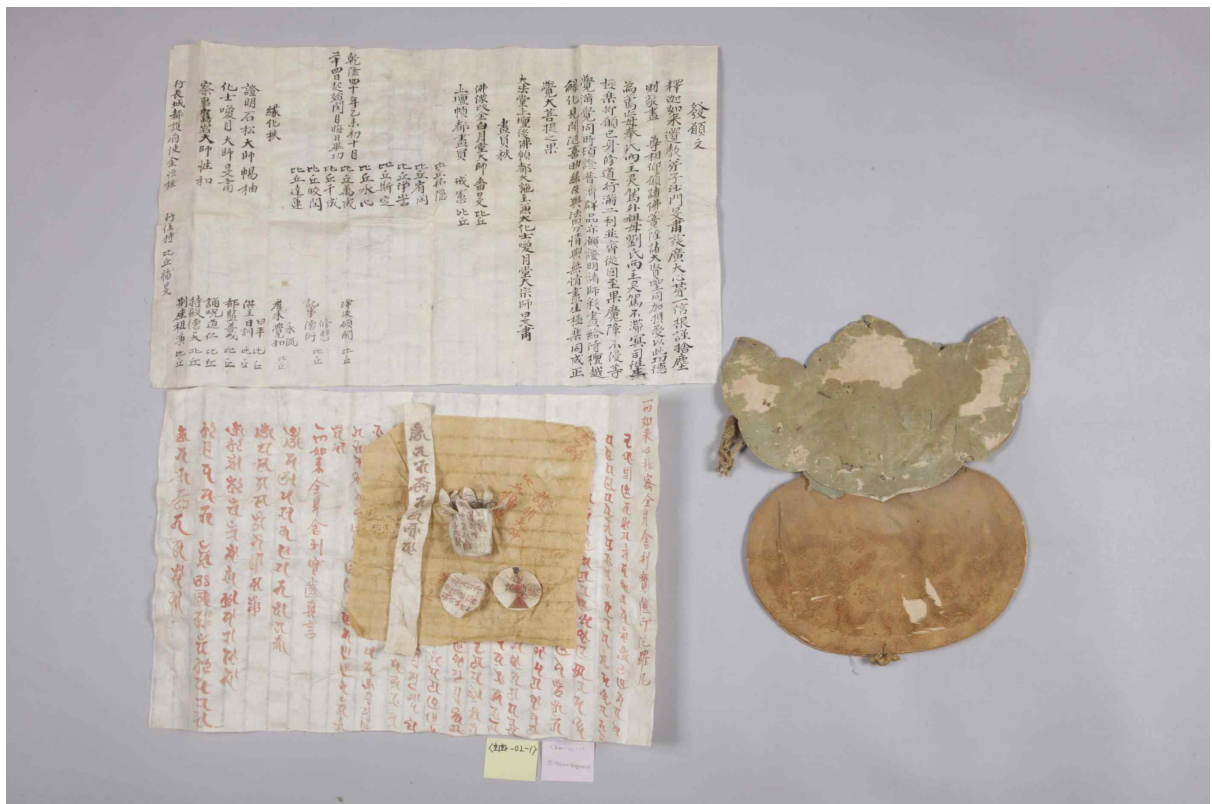
永侃  
 負木 錦禪  
 別座 祖○(演)  
 都監善戒  
 都化士喚月大禪師旻肅比丘

먼저 향우측 화기에는 조성연대와 봉안처, 시주질이 적혀있다. 향우측 화기는 앞부분의 하단부가 일부 훼손되어 ‘乾隆四十…」日畫成于…」奉安于大…」’ 정도만 남아있어 정확한 조성연대와 봉안처를 알 수 없다. 조성연대인 건륭40...은 1775년~1784년까지 해당되는데, 다행스럽게도 腹藏囊 안에 들어있던 발원문과 불상에서 발견된 <佛像改金後佛頓造成十王改彩緣化>(1775년)에 건륭4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1775년임을 알 수 있다. 이어 대시주 겸 화주인 喚月堂 旻肅이 외조모 劉氏와 돌아가신 어머니 奉氏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단독으로 시주하였음이 적혀있다. 환월당 민숙은 慕雲 三省의 문손으로 白坡 震秀의 제자로 알려져 있다. 대시주에 이어 불상개금시주질이 열거되어 있어 불화조성 시 불상개금이 함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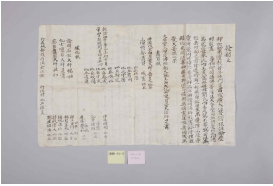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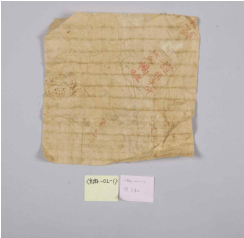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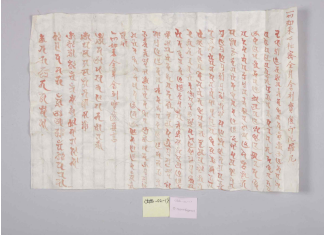
향좌측 화기에는 삼전하축원문과 施主秩, 金魚秩, 本師秩, 緣化秩이 적혀있다. 보통 화원은 연화질에 기록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기에서는 따로 적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불화의 조성화원은 白月大宗師 齋旻을 비롯하여 祐隱, 片手 戒憲, 淨崑, 宥閑, 斯定, 永心, 萬成, 千成, 皎閨, 達蓮 등 모두 11명이다. 수화승 색민[色敏, 色旻]은 의겸의 제자로 8세기 중반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1741년에 처음 보조화승으로 불화를 제작한 이후 1775년까지 35년간 활동하면서 불화와 불상조성 및 개금화원으로 활동하였다. 색민은 20여 점의 불화를 제작하였는데, 1741년부터 10년 간은 의겸과 회밀 아래서 보조화승으로 활동하였으며, 수화승이 되어 화엄사 삼신불화(1757년) 중 석가모니불회도와 대흥사 영산회괘불도(1764년) 등을 제작하면서 기량을 닦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스승인 의겸의 화풍, 즉 안정감있는 구도, 주제를 극대화시키는 짜임새있는 구성, 정치한 細線을 사용한 섬세한 인물묘사, 淡彩기법을 활용한 부드러운 채색, 선홍색과 녹색, 황토색의 따뜻하고 격조있는 색감 등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화풍을 이루었다. 색민의 말년작인 백양사 아미타불회도에는 신체 형태와 비례에 있어 넓은 어깨에 날씬하면서 다소 긴 하체와 건장하고 세련된 불신, 10제자 중 6제자만 배치하고 제석천과 범천 및 팔금강, 용왕·용녀 등 권속을 생략하여 본존불을 강조한 구도, 다소 탁한 적색과 옥색에 가까운 녹색, 청색을 주조로 한 채색 등 색민의 화풍이 잘 드러나 있다. 색민에 이어 금어로 기록된 祐隱은 개암사 괘불도(1749)를 비롯하여 화엄사 석가모니불회도(1757년), 대흥사 괘불도(1764년), 영국사 삼장보살도(1764년), 백양

사 아미타불회도(1775년), 불갑사 칠성도(18세기) 등을 색민과 함께 제작하였다. 편수 戒憲은 백양사 아미타불회도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의 畫員秩에 ‘佛像改金白月堂大師 齋旻比丘 上壇幀都畫院 戒憲比丘’, <佛像改金後佛幀造成十王改彩緣化>(1775년)에 ‘畫所秩 改金白月大師 齋旻比丘 淨崙 上壇都畫 戒憲’이라고 적혀있어 색민, 우운과 함께 불화조성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색민, 우운과 함께 백양사 아미타불회도 외에 감로사 지장보살도(1762년, 구 천은사소장)를 제작하였는데, 인물표현과 채색, 간단한 화면 구성 등이 백양사 아미타불회도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1762년에 감로사 지장보살도(구 천은사소장)를 제작하면서 같이 활동하기 시작하여 1775년 백양사 아미타불회도를 제작할 때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宥閑과 斯定은 선운사 시왕도(제2 초강대왕도, 1762년), 千成과 達蓮은 경북 안동 모운사 지장도(1770)와 봉정사 감로도(1765) 제작에 참여하였으나, 백양사 아미타불회도 외에 색민과 함께 활동한 작품은 없는 것으로 보아 색민의 제자는 아니었던 듯 하다.

한편, 백양사 아미타불회도에서는 복장낭 속에서 복장물이 발견되었는데, 발원문을 비롯하여 후령통, 다라니 등이 잘 남아있어 18세기 후반 불화의 복장물 납입 형태를 잘 볼 수 있다.



도2. 복장물

	유물명	재료	전체(cm) (세로×가로)	수량	시기
1	腹藏囊 	종이, 비단	33.9x31.0	1	1775년
2	發願文 	종이	35.6x60.2	1	1775년
3	喉鈴筒	종이	7.5x4.9	1	1775년
4	五輪種字		지름 4.9	1	1775년
5	出悉地 等		지름 4.8	1	1775년
6	全身舍利寶篋 印陀羅尼		26.5x2.7	1	1775년
7	謹封紙 	종이	23.2x23.2	1	1775년
8	一切如來心秘密全身舍利寶篋印陀羅 尼經 	종이	34.0x52.2	1	1775년

[복장발원문]

發願文

釋迦如來遺教弟子沙門旻肅發廣大心第一信根謹捨塵  
財敬畫 尊相仰願諸佛菩薩諸大賢聖同加攝受以此功德  
爲薦亡母奉氏兩主灵駕外祖母劉氏兩主灵駕不滯冥司往生  
極樂仰願己身修道行蒲二利並齊從因至果魔障不侵等  
覺蒲覺同時頓證普濟群品亦願證明諸師彩畫給侍檀越  
緣化見聞隨喜助緣及與法界情與無情盡生極樂同成正  
覺大菩提之果

大法堂上壇後佛幘都大施主兼大畫士喚月堂大宗師旻肅

畫員秩

佛像改金白月堂大師 齋旻比丘

上壇幘都畫員 戒憲比丘

比丘祐隱

比丘淨豈

比丘斯定

比丘永心

比丘萬咸

比丘千成

比丘皎閏

比丘達蓮

乾隆四十年乙未初十月

二十四日起始閏月晦日畢功

緣化秩

證明石松大師暢柚

化士喚月大師旻肅

察事鷲岩大師性和

淨汲碩閑比丘

記事 修愍

德衍 比丘

看床 永侃

覺和 比丘  
 供養 曰平 比丘  
 日訓 比丘  
 都監 善戒 比丘  
 誦呪 道仁 比丘  
 持殿 德天 比丘  
 別座 祖演 比丘  
 行長城都護府使金恒柱 行住持 比丘 福旻



### ○ 조사내용

백양사는 장성군 북하면 백암산 동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는 사찰로, 三峰 鄭道傳(1337-1398)이 지은 「白巖山 淨土寺 橋樓記」에는 신라시대 때 어떤 이승이 처음 절을 짓고 백암이라고 한데서부터 비롯되었고, 이후 宋 景平年間에 淨土禪寺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그 문도 가운데 선사 中延이 절을 중창하고 중연의 문도 一麟이 뒤를 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다른 기록인 李能和(1869-1943)의 『朝鮮佛敎通史』上, ‘朝鮮寺刹禪敎兩宗三十本寺并寄屬末寺 白羊寺’條에는 백제무왕 33년(632)에 신라 고승 如幻 선사가 절을 개창한 이래 고려 덕종 3년(1034) 갑술에 중연선가가 정토사로 이름을 바꾸었고, 고려 충정왕 2년(1350)경인에 왕사 覺儼尊者 復丘(1270-1355)가 머문 이래 조선시대에는 淸虛休靜(1520-1604)의 제자인 逍遙太能(1562-1649)이 이곳에서 출가한 계기로 이후로도 계속해서 휴정 4세 법손인 환성지안의 법손들이 법맥을 이어 오다 사찰 이름을 지금의 이름인 白羊寺로 고쳐 불렀다고 한다.

이 불화는 원래 백양사 극락전(화기에는 대법당)의 후불화로 봉안되어 있었으나 1994년 9월 29일 도난당하였다. 『불교문화재도난백서』에 따르면 “1994년 9월 29일 새벽에 자물쇠를 부수고 족자형 탕화를 칼로 오려 절취해 갔다”라고 되어 있다. 도난 된지 12년이 지난 2006년 9월에 다시 회수되었고, 이어 2008년 4월 11일에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91호로 지정되었다.

화면은 폭 23.8cm~58.4cm의 비단 5폭을 이어 화면을 마련하였다. 화면의 전체 크기는 세로 338.7cm, 가로 234.2cm이다. 상·하측과 회장은 고쳐졌다. 화면 상단 좌우측에는 수술이 달려있는 규형의 낙영이 드리워졌고, 화면 하단 좌우측 두 곳에는 붉은 바탕에 먹 글씨로 적은 畵記가 남아 있다. 복장주머니도 남아 있는데, 불화가 도난 될 때 도난 되지 않고 현장에서 별도 수습되어 보관되어 왔다고 전한다. 종이 바탕에 비단을 덧대어 만든 것으로 덮개와 주머니로 구성되어 있다. 주머니 안에는 발원문을 비롯하여 후령통(내부 오보병 납입), 오류종자, 출실지,

양면원경 2점, 일체여래심비밀진신사리보협인다라니, 소보협진언 등 제작 당시의 복장유물(표2 참조)과 함께 근대기 중수 때 추가 납입된 복장유물도 확인되었다. 근대기 복장유물은 대한불교 조계종 2대 교정(현재 종정)을 역임했던 만암종헌(曼庵宗憲, 1876-1957)이 證師로 참여하여 封하였다.

불화를 발원하고 주도한 인물은 민숙이다. 그는 돌아가신 조모와 모친을 위해 불화를 발원하고 재원을 모았다. 그림을 그린 화원은 색민과 계현 등 다수의 화원들이 참여하였다. 불화의 화기에는 색민이 수화사로 등장하지만, 복장 발원문에는 색민은 불상개금, 계현은 도화원으로 등장한다. 따라서 이 그림은 색민 보다는 계현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된다. 도화승으로 기록된 계현은 많은 작품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수화승 색민의 작품에서 보조로 참여한 것이 확인되므로 색민의 화품을 계승한 색민화파의 일원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계현은 의견에서 색민, 색민에서 다시 계현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의 도상과 양식 등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화면의 구성은 극락세계의 주존인 아미타여래를 가운데 크게 두고, 이를 권속들이 위아래에서 둥글게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다. 등장하는 인물은 좌우 협시보살을 비롯한 8대 보살, 사천왕상 4위, 10대 제자 6위, 팔부중 2위인데, 사천왕과 보살을 제외한 나머지 존상들은 화면의 제한으로 일부만을 선택하여 회상에 등장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인물의 구성은 화면의 중심을 잡고 있는 본존불을 제외한 나머지 존상들만 원근법이 작용하고 있다. 즉 상하 폭이 긴 후불벽면의 특징을 잘 고려하여 아래쪽 인물은 크게, 위쪽 인물은 그 보다 작게 묘사하여 상승효과를 극대화하였고, 물론 예배자의 시선은 본존불에 집중되게끔 구도와 배치가 짜여졌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인물 간에는 서로 중첩되지 않게 지그재그로 배치하여 화면의 구성력을 높였다.

주불인 아미타여래는 꽃잎 두 장을 겹쳐 만든 키모양의 거신 광배를 등지고, 방형의 높은 수미단 위 2빛 청색 연화좌에 결가부좌하였다. 머리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봉긋한 육계를 갖추고 있으며, 머리의 정상에는 구슬모양의 정상계주를 표현하였고 중간에는 눈썹모양의 중앙계주를 나타내었다. 정상계주에서 발한 세 줄기 빛은 오색구름 가득한 하늘로 흘러가고 있다. 이목구비는 반듯하며 큰 콧날에 비해 눈과 입을 작게 그리고, 양 입술이 맞닿는 윗입술 가장자리를 하얗게 여백처리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표현 양상은 의견이 수화승으로 참여한 작품에서도 드러나는 것으로, 이 불화의 전통이 義謙에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록색 上衣 위에 붉은색 大衣를 변형 편단우견으로 걸쳐 입었는데, 대의 밖으로 드러난 초록색 上衣은 2빛으로 음영을 주었고, 大衣의 안감은 청색 2빛으로 음영을 주었다.

원손은 무릎에 두고 오른손을 어깨 바깥쪽으로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대어 설법인을 지었다. 어깨 밖으로 들어 보이는 설법인은 아미타여래설법도상에서 특이

한 점인데, 이와 함께 너풀거리며 왼쪽 팔뚝에 걸친 상의의 표현 방식은 안성 청룡사 영산회괘불도(보물 제1257호, 1658년)에서 똑 같은 선행 도상을 찾을 수 있다. 본존의 무릎 바로 아래에는 좌우협시인 관음과 대세지보살을 배치하였다. 좌우협시 중 관음보살은 백의관음보살로, 보관에는 입상의 화불이 표현되었고, 두 손을 허리춤에 가지런히 포개고 한 손으로 정병의 끈을 잡았다. 대세지보살은 보관에 정병을 안치하는 일반적인 도상을 따르지 않고 두 손으로 활짝 핀 白蓮 줄기를 쥐고 일반적인 보관을 쓴 형식이다. 백의관음과 부정확한 도상의 대세지보살을 배치한 것은 1730년 의겸이 수화승으로 그린 갑사 삼세불도 중 <아미타여래설법도>에서도 확인된다. 관음과 대세지보살을 제외한 나머지 아미타 팔대보살은 방제가 있는 구례 천은사 극락전 아미타후불탱화(1776년)과 같은 배치법을 따랐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토대로 보면 문수(연봉, 좌)·보현보살(여의, 우), 금강장(좌)·제장애보살(합장, 우), 미륵(금강저, 좌)·지장보살(석장과 보주, 우)로 추정된다.<sup>1)</sup> 이들은 화면의 좌측과 우측에 서로 겹쳐지지 않게 지그재그로 상승하며 각각 3위씩 배치되었다.

모임을 옹호하고 있는 사천왕상은 화면의 하단 가장자리 위아래에 2구씩 배치하였다. 화면의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북방 다문천(합장)→동방 지국천(보검)→남방 증장천(용과 여의주)→서방 광목천(당과 보탑)을 든 사천왕 순으로 배열하였다. 대개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 북방 다문천왕은 비파를 연주하는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이곳에서는 합장인을 취한 것이 특징이다. 사천왕상의 지물과 자세뿐만 아니라 합장인의 북방 다문천왕은 義謙이 수화승으로 그린 해인사 영산회상도(1729년)와 갑사 삼세불도(영산회상도, 1730년) 등<sup>2)</sup>과 任閑이 수화승으로 그린 통도사 영산전 영산회상도(1734년) 등 18세기 전반기 불화에서 확인되며, 이후 색민이 1766년 수화승으로 그린 보성 대원사 지장보살도에도 같은 경향성을 확인되고 있다. 18세기 주요 畫派를 형성했던 의겸과 임한 유파 화승들 간의 초본과 도상이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전승되었음을 말해주는 부분이다.

그림의 전체적인 구도는 ‘方形(□)’에서 ‘圭形(△)’으로, 다시 ‘圓形(○)’으로 외연에서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점차 각을 줄여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인물을 안정되고 짜임새 있게 구성할 수 있는 탁월한 구도법이다. 색채는 짙은 적색과 녹색의 대비를 기반으로 황토색, 백색, 살색, 분홍색, 갈색, 자주색 등 여러 가지 중간 색조를 사용하여 아미타설법 장면을 장중하게 연출하였다. 선묘는 피부 윤곽을 제외한 신체와 옷 주름, 장신구 등은 일정한 두께의 선을 사용하였고, 面色 보다 짙은 같은 계통의 色線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강조 선은 밝은 흰색 선을 사용하였다. 문양은 본존불의 가사 표면과 깃, 보살의 천의 깃에만 사용하였다.

1) 일반적으로 미륵과 지장은 여래의 회상도에서 서로 대칭으로 등장한다. 금강저를 든 미륵보살과 석장을 든 지장보살은 1688년 김천 고방사 아미타여래설법도에서도 확인된다.

2) 1725년에 그린 송광사 영산전 영산회상도에서는 동방 지국천왕이 합장인으로 등장한다.

보살의 장신구는 귀걸이, 목걸이, 팔찌로 이루어져 있다. 전반적으로 18세기 전반기에 제작된 불화에 비해 색의 명도와 채도가 낮아져 탁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시문된 문양의 종류와 밀도도 대폭 줄었고, 사용된 선의 내용도 단순하고 간결해 졌다. 이는 18세기 후반의 미감을 담아 낸 것으로 이해된다.

상호는 대체로 의겸 화풍을 이어받아서 이마는 넓고 코가 크며 얼굴이 길고 살집이 있어 중후한 느낌이다. 그러나 의겸에 비해 양감과 건장함이 줄어들었고, 입술이 맞닿은 윗입술 부분을 색을 넣지 않고 하얗게 처리한 점은 동일 화파인 화승인 平三, 咸湜 등의 작품에도 확인된다.

1775년 백양사 불사를 총괄한 色旻(또는 齋旻, 色敏)은 의겸의 제자로 충청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화사로 1741년 ‘곡성 도림사 신덕암 지장시왕도’(首 穎案, 6위, 선암사 소장), 1745년 나주 다보사 영산회괘불도(首 義謙, 9위), 1747년 ‘부여 무량사 극락전 아미타여래삼존도와 삼장보살도’(首 廻密, 5위), 1747년 천은사 龍鶴庵 치성광여래도(首 義兼, 2위), 1749년 아미타여래설법도(首 義兼, 3위), 1749년 ‘부안 개암사 영산회괘불도’(首 義謙, 8위), 1749년 ‘구례 천은사 칠성각 칠성도’(首 義謙, 2위, 소장처 미상), 1750년 ‘○泉寺 현왕도(首, 동국대학교 소장), 1750년 ‘용화암 목조관음보살좌상’(首, 석왕사 소장), 1755년 順懷世子上諭封園都監儀軌(碑石所 畫僧 色敏), 1757년 ‘구례 화엄사 대웅전 비로자나삼신불도’(석가, 首), 1759년 보림사 대제석천도(색민 등 16인), 1762년 ‘구례 천은사 명부전 지장보살도’(1위, 소장처 미상), 1766년 ‘보성 대원사 아미타여래삼존도와 관음보살도(首, 일본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그리고 ‘명부전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 일괄’(首), 나주 불회사 칠성암 제석도(首), 1775년 영광 불갑사 치성광여래도(首, 원광대 소장), 李毅敬 肖像(18세기 후반, 강진종가 소장) 제작과 1787년 선운사 대웅전 불상 개금 등에 참여하였다.

색민은 1750년 무렵부터 수화승이 되어 구례 화엄사 대웅전 비로자나삼신불도(영산회상도)를 비롯하여 대흥사 영산회괘불도(1764년), 보성 대원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 일괄 등 18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또한 불화뿐만 아니라 단청, 초상화 제작과 조선왕실 의궤제작에도 참여하여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였고, 불상 개금에도 소질이 있어 앞선 시대 선배 조각승들이 만든 불상의 개금 중수에서도 솜씨를 발휘하였다.

실제 이 그림을 주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도화원 계현의 현전 작품은 1766년 색민과 함께 그린 ‘불회사 칠성암 신중도’(순천 송광사 소장, 수화승 色敏, 2위) 뿐이어서 그의 작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역시 대체로 의겸과 색민의 화풍을 계승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 畫僧들의 활동상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그림 24 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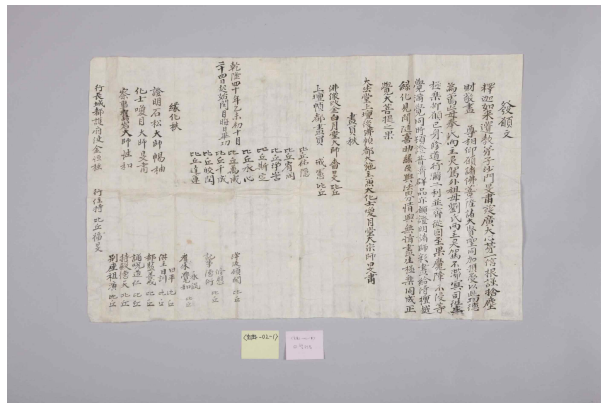


그림 25 복장 발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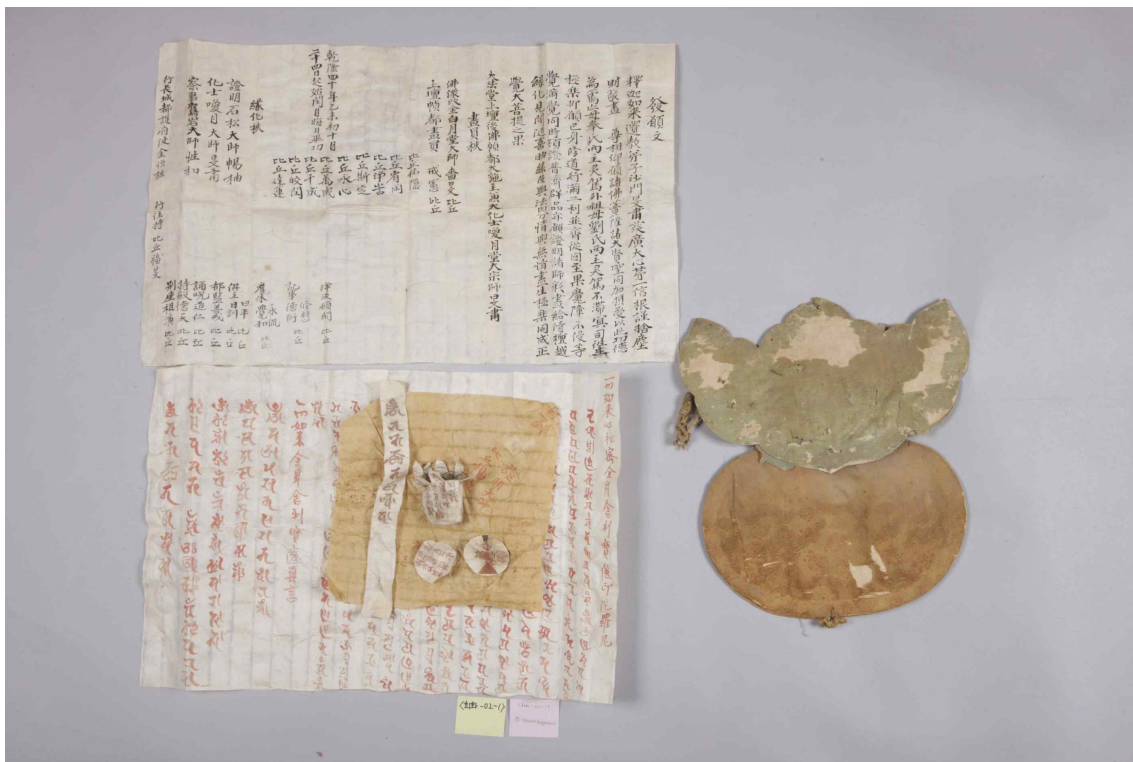


그림 26 복장유물 일괄

<표1>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 畫僧들의 활동

이름	불화 화기	복장 발원문	참여작품			
	순위		작품명	시대	수화원	순위
祐隱	2위	2위	개암사 영산회괘불도	1749	義謙	13위(宇恩)
			화엄사 삼신불도(석가)	1767	齋旻	3위(祐耑)
			대흥사 영산회괘불도	1764	色旻	9위(佑耑)
戒憲	3위	1위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	1775	-	-
淨耑	4위	3위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	1775	戒憲	
有閑	5위	-	영광 불갑사 칠성도	18세기	色敏	2위(有閒)
			선운사 시왕도(초강)	1770년경	有閑	1위
斯定	6위	4위	선운사 시왕도(초강)	1770년경	有閑	4위(思正)
永心	7위	5위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	1775	-	-
萬成	8위	6위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	1775	-	-
千成	9위	7위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	1775	-	-
皎閨	10위	8위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	1775	-	-
達蓮	11위	9위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	1775	-	-

<표2> 복장유물 목록

	명칭	시대	재질	크기cm	수량	사진/비고
1	복장주머니	1775년	비단 + 종이	33.9x31.0	1점	
2	일행문	1775	종이	35.3x19.3	1점	
3	후행문 일행	1775년	종이	7.3x4.9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행문, 오촌공가 - 종 실지, 양면원경 2점</li> <li>• 후행문 - 내지는 오촌공 간본</li> </ul>
4	보첩단면	1775년	종이	28.3x12.7	1점	
5	일제어휘집비밀전신사 리보합된다라니	1775년	종이	34.2x23.1	1점	
6	근봉지	1775년	종이	28.2x23.1	1점	 <p>• “경의 공위大臣, 北五轉 圖” 조공</p>
계					10점	

○ 화기

좌측(향우측)

乾隆四十…

日晝成于…

奉安于…

施主秩

大施主兼大化主喚月堂

大宗師旻肅伏爲亡外祖

母劉氏兩主靈駕亡母

奉氏兩主靈駕往生極樂

之願獨當晝成

佛像改金大施主秩

大施主佛油稷任周再昌

自浩比丘

各各稷員

等

改金大施主初希比丘

喆關比丘伏爲亡母張

論龍兩主靈駕亡師

無垢堂明侃靈駕往

生極樂之願

大施主大禪師智幻比丘

大施主永心比丘

大施主黃氏蓮花

大施主鄭裕慶

大施主崔得天

金宣鑑

慧訓比丘

主上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齊年

世子邸下壽千秋

長城府使金公恒柱

幼學金秀祖

大施主妙圓比丘

房應大兩主

金得柱

悟禪靈駕

姜弼碩兩主

金奉仁

盧萬世兩主

田世業單身

中得比丘

金魚秩

白月大宗師齋敏

祐隱

片手戒憲

淨豈

宥閑

斯定

永心

萬成

千成

皎閏

達蓮

山中大禪師

鶴峰明坦

本師秩

時任住持

福旻

三綱 戒性

瑞修

性隱

記事 宇心

緣化秩

證師石松大宗

師暢袖  
察事鷹岩  
大宗師性和  
持殿比丘德天  
誦呪 道人  
供養 日訓  
        曰平  
耆社 德衍  
        修隱  
來往 德華  
淨桶 碩閑  
看床 覺和  
        永侃  
負木 錦禪  
別座 祖○(演)  
都監善戒  
都化士喚月大禪師旻肅比丘

○ 복장발원문

發願文

釋迦如來遺教弟子沙門旻肅發廣大心第一信根謹捨塵  
財敬畫 尊相仰願諸佛菩薩諸大賢聖同加攝受以此功德  
爲薦亡母奉氏兩主灵駕外祖母劉氏兩主灵駕不滯冥司往生  
極樂仰願己身修道行蒲二利並齊從因至果魔障不侵等  
覺蒲覺同時頓證普濟群品亦願證明諸師彩畫給侍檀越  
緣化見聞隨喜助緣及與法界情與無情盡生極樂同成正  
覺大菩提之果

大法堂上壇後佛幀都大施主兼大畫士喚月堂大宗師旻肅

畫員秩

佛像改金白月堂大師 喬旻比丘

上壇幀都畫員 戒憲比丘

        比丘祐隱

        比丘淨豈

比丘斯定

比丘永心

比丘萬咸

比丘千成

比丘皎閏

比丘達蓮

乾隆四十年乙未初十月

二十四日起始閏月晦日畢功

緣化秩

證明石松大師暢袖

化士喚月大師旻肅

察事鷲岩大師性和

淨汲碩閑比丘

記事 修慇

德衍 比丘

看床 永侃

覺和 比丘

供養 曰平 比丘

日訓 比丘

都監 善戒 比丘

誦呪 道仁 比丘

持殿 德天 比丘

別座 祖演 比丘

行長城都護府使金恒柱 行住持 比丘 福旻

#### ○ 참고문헌

『한국의 불화 화기집』, 정보문화재연구원, 2011

박도화, 「백양사 극락보전 아미타여래설법도의 특징과 의의」, 『古佛叢林 白羊寺 정보문화재 국가문화재 지정을 위한 학술세미나 자료집』, 2018

수암, 「백양사 불복장(佛腹藏) 계보와 목담대종사의 불복장 중흥」, 『남도문화연구』 38,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9.

## 2.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 (高敞 鳳德里 一號墳 出土 金銅飾履)

### 가. 심의사항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협약」(’13.8.9.)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부터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0.4.21.)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0.7.1.)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에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2021년도 본 위원회 제1차 회의(’21.2.4.)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1.2.25.~’21.3.25.)하고, 보물 지정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高敞 鳳德里 一號墳 出土 金銅飾履)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전주박물관)
-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죽고개로 249, 국립전주박물관
- 수 량 : 1쌍
- 규 격 : ① 우측신발 : 길이 32.4cm. 최대 너비 10.7cm. 최대 높이 11.9cm.  
② 좌측신발 : 길이 32.7cm. 최대 너비 10.7cm. 최대 높이 11.6cm.
- 재 질 : 금동
- 조성연대 : 백제 5세기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고창에는 많은 고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봉덕리의 분구묘가 이 지역 최고 위계의 지배집단들이 묻힌 무덤으로 추정된다. 특히 봉덕리고분에서는 복수의 석실이 순차적으로 축조되면서 누세대에 걸쳐 수장층이 매장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4호 석실에서 금동신발 1벌, 장식대도, 청동제 잔과 탁잔, 중국 남조산 청자반구호, 일본 스에키로 추정되는 기대와 모자 유공소호 등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유물은 고창지역 정치체의 발전과정을 보여주며 백제 중앙, 중국 남조, 일본 왜 등지에서 유래한 물품이 집중 부장되어서 매우 국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모든 유물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압권은 거의 완벽한 상태로 출토된 금동제 신발 1벌이다. 전형적인 백제계 신발 제작방식, 즉 저판과 좌우 측판을 결합하였다. 각 판은 금동제이며 투조 문양이 베풀어져 있는데 그 종류는 스페이드문·조문·용문·화염문·귀문·인면조신문·연화문·인면문 등 매우 다양하다. 문양의 시문 수준은 매우 높아서 투조 이외에 축조·음각·어자문 등 당시의 금속 가공 기술이 총망라되어 있다. 이 신발은 형태, 보존상태에서는 나주 정촌고분 출토품과 쌍벽을 이루며, 문양의 화려함에서는 바닥만 남아 있어 아쉬움을 주는 경주 식리총 출토품에 비견된다.

따라서 이 신발은 학술적 가치나 조형적 완성도, 보존상태 등에서 삼국시대 금속제 신발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의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

### ○ (지정 가치 있음)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출토 금동신발은 2008년에서 마한백제연구소에서 도굴을 당하지 않아 유구가 훼손되지 않은 무덤에서 중국제 청자반구호나 소호장식 유공호와 기대 등과 공반 출토되면서 무덤의 제작시기와 함께 유물의 제작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또 원형에 가까운 상태로 발굴되어 피장자의 사후 발에 신겨진 채 매장되어 백제시대 장례 문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

금동신발은 순동에 수은아말감기법으로 도금을 하였고, 얇은 금동판 4장으로 바닥판과 좌우 측면판 및 발목깃판을 만들어 리벳으로 연결하는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전체 문양을 투각하고 축조기법으로 세부를 묘사하는 기법 등 고대 금속공예의 뛰어난 기술적 수준을 엿볼 수 있다.

또 이 금동신발에 새겨진 다종다양한 문양은 하늘을 상징하는 육각문을 비롯하여 용문, 인면조신, 쌍조문, 괴수문, 연화문 등 피장자를 천상으로 이끌거나 사후에도 천수 만세를 누리길 기원하는 의미를 지니는 등 불교와 도교에 의해 피장자의 영혼 불멸을 기원하는 사후관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사상적으로 주목되며, 이것들을 정교하고 세련되게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조형적으로도 매우 우수하다. 더욱이 이러한 문양들은 같은 시기 중국이나 고구려의 미술과 도상적인 연원이나 변천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 백제지역에서 출토된 금동신발 16점과의 관련을 통해 백제 금속공예의 독자성을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중요하다.

이처럼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출토 금동신발은 여러 면에서 5세기 백제를 대표하는 금속공예품으로서 보물로서 지정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 ○ (지정 가치 있음)

- 1) 이 금동신발 1쌍은 분구묘인 고창 봉덕리1호분 4호석실에서 출토된 유물로, 수혈식 석실의 바닥에서 출토되었다. 도굴의 피해를 입지 않아 다른 유물들과 함께 매장원상을 알 수 있어 고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유물이다.
- 2) 석실의 규모는 길이 280cm, 너비 179cm, 높이 180cm의 장방형 석실에 바닥에서 출토되었다.
- 3) 이 금동신발 1쌍은 전체길이 (좌)32.7cm, (우)32.4cm, 너비 (발등)10.7cm, 높이 (좌)11.8cm, (우)11.9cm 이다.

- 4) 투조문양은 스페이드문·조문·용문·화염문·귀면문·원숭이문·인면조신문·연화문·인면문 등 매우 다양한 문양이 서로 어울려 화려하게 장식하였고, 바닥에는 스파이크 18개를 부착하였다.
- 5) 위의 문양들은 투조·축조·음각·어자문 등 다양한 기법을 구사하였다. 이 금동신발에는 당시의 다양한 새김 기법과 문양이 배치되어 있다.
- 6) 이 금동신발 1쌍은 지금까지 출토된 백제 금동신발 중 나주 정촌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과 함께 가장 화려하고 완벽한 유물이다. 백제고분에서 출토되는 금동신발을 대표할 만한 유물이며, 조형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매우 우수한 형태이며, 고고학 학술자료로도 높은 가치가 있어 국가지정유물(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 ○ (지정 가치 있음)

전북 고창군 봉덕리 1호분 4호석실에서 출토된 <봉덕리 1호분 금동신발>은 삼국시대 백제 양식의 장송의례용 금동신발로서, 보기도물계 보존상태가 양호하게 출토된 중요한 고대의 금속공예품이다. 투각기법, 축조기법, 어자문기법, 파새김기법, 수은아말감도금기법 등 다양하고 뛰어난 금속공예기법을 이용해서 제작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복잡하고 뛰어난 문양 배치와 표현을 보여주는 훌륭한 작품이다. 여기에 표현된 금속공예기법 중에서 어자문기법이나 파새김기법은 삼국시대 금속공예품들 중에서는 비교적 이른 예로서, 5세기 중후반경 발달한 백제 금속공예 기술을 대표하는 예로서 주목된다. 또한 인면조, 용, 쌍조문, 괴수문, 연화문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양의 표현은 당시 북위나 고구려 미술이나 도상과 관계를 가지면서도 백제적으로 변화된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5세기 백제 및 전라북도 지역의 미술과 사상을 알려주는 중요한 시각적 자료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이 금동신발은 5세기 백제 미술을 대표하는 금속공예품으로서 보물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

### ○ (지정 가치 있음)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출토 금동신발 1쌍에는 스페이드문·조문·용문·화염문·귀면문·원숭이문·인면조신문·연화문·인면문 등 매우 다양한 문양이 서로 어울려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위의 문양들은 투조·축조·음각·어자문 등 다양한 기법을 구사하였다. 이 금동신발에는 당시의 다양한 새김 기법과 문양이 배치되어 나주 정촌고분 1호 석실과 경주 식리총 출토 금동신발과 더불어 동아시아의 금동신발중에서 가장 화려하다. 신발에 장식된 여러 종류의 문양은 불교와 도교 등이 습합되어 죽은 피장자의 영혼이 불멸하기를 기원하는 당시의 사후관을 표방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에는 금동신발을 포함해 청동탁잔과 중국의 청자반구호, 일본의 스에키인 소호장식유공호와 기대, 그리고 장식대도·칠기 화살통·마구류 등이 출토되어 고창만을 무대로 서해안을 통해 백제 중앙과 연계한 중국 남조 및 일본열도의 왜와의 교류에 적극 참여한 지역의 수장 고분으로 추정된다.

이 고분에서 출토된 금동신발 1쌍은 삼국시대 금공품의 제작기법과 장식을 보여주는 秀作일 뿐만 아니라 고창만 일대의 수장 권력과 사후관은 물론 백제 중앙과의 관계 등을 구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공예품으로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의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 조사보고서



#### ○ 현 상

고창 봉덕리 1호분은 고창지역 최대급 고분으로서 길이가 70m를 넘는 장방형 평면을 취하고 있다. 먼저 분구를 축조한 후, 매장 주체 부가 마련되는 분구식 고분에 속한다. 매장 주체 부의 종류는 석곽, 옹관, 횡혈식석실 등이며, 복수의 인원이 매장된 다장묘이다. 그 중에서 중심이 되는 매장 주체 부는 5기의 횡혈식석실인데 시간의 차이를 두고 순차적으로 축조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시기는 5세기 무렵으로 보인다. 도굴의 피해를 입었지만, 평면 장방형의 4호 석실에서 매장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다수의 부장품이 출토되면서, 고창지역 마한 잔여 세력과 백제의 상호 관계를 연구하는 데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였고, 당시 최고급 금속공예 기술의 진수를 보여준다.

1호분 4호 석실에서 출토된 유물은 고창지역 고유의 토기류, 일본에서 생산된 스에키, 청동제 완과 탁잔, 은과 금으로 장식한 대도, 화살통과 철촉 등의 무기류, 등자와 재갈 등의 마구류, 금제 귀걸이, 유리구슬로 이루어진 장신구류 등 아주 풍부하다. 모든 유물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국 남조산 청자 반구호, 일본산 스에키(須惠器), 청동 완과 탁잔, 그리고 금동제 신발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금동제 신발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보존상태를 보여줌으로써 삼국시대 금속공예 기술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백제계 금동 신발은 발굽품과 수습품을 합쳐서 많

은 사례가 알려져 있으며 신라와 일본에서 발견된 신발 중에도 분명히 백제계라고 볼 수 있는 예들이 많다.



<그림 1>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내부 금동제 신발 출토 상태

고구려와 신라와 백제의 신발은 형태만이 아니라 제작 방법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백제계 신발은 저판 1장, 측판 2장을 리벳으로 결합하는 것이 공통적이며 봉덕리의 유물도 전형적인 백제계 신발에 속한다. 특히 그동안 그 존재 및 용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던 발목의 금속판이 신에 부착된 상태로 발견되어서 당시 신발의 완전한 복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백제 고분에서 출토된 금속제 신발은 20점 정도인데, 시문 방법에 따라 투조문과 타출문으로 나뉜다. 투조문은 T자문과 귀갑문으로 구분되는데 후자에는 그 내부에 다양한 동물을 배치하는 특징을 보인다. 타출문은 마름모나 귀갑문이 배풀어진다. 한성기에는 투조문이 많고, 웅진기에는 타출문이 많아진다. 투조문의 경우에도 공주 수촌리고분군의 변화 양상을 볼 때, T자문이 시기적으로 이르고, 귀갑문

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봉덕의 사례는 귀감문이 타출된 것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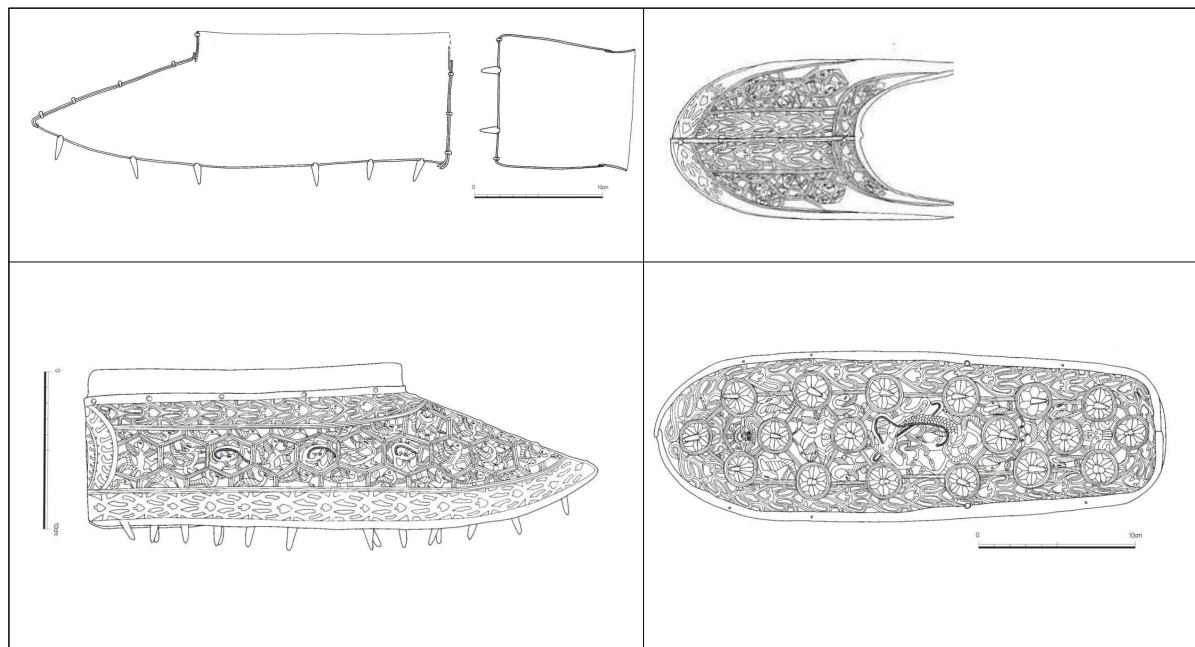
<그림 2> 고창 봉덕리고분 출토 중요 유물

### ○ 내용 및 특징

왼쪽과 오른쪽 모두 3개의 금동판을 결합하고 발목 부분에 다양한 투조가 베풀어진 저판과 좌우 측판을 리벳을 이용하여 결합하였는데 좌우 측판이 저판을 감싸는 형태이다. 판의 두께는 대개 0.6mm 정도이다. 저판에는 18개의 스파이크가 달려 있는데 스파이크가 부착된 부위의 저판은 모두 원형 구획 안에 6엽의 연화문이 시문된 공통점을 보인다. 18개의 스파이크는 저판 바닥에 골고루 배치되었지만, 중앙을 경계로 절반은 콧등 쪽을, 절반은 뒤꿈치 쪽을 향하는 물을 따르고 있다. 스파이크의 단면은 모두 원형이어서 방형인 고구려 신발과 차이를 보인다.

코 부분은 평면적으로는 둥글지만, 옆에서 보았을 때 약간 들린 형태인데 이것도 백제 신발의 특징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저판과 좌우 측판의 결합부, 좌우 측판이 겹치는 콧등과 뒤꿈치 부분 모두 리벳 접합하였는데 좌우 신발의 리벳 수에 차이가

있다. 뒤꿈치 부분에 약간의 결실 및 파손부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존상태는 완벽에 가깝다. 찌그러진 부분도 거의 없으며 표면에는 녹이 고르게 붙어 있다.



<그림 3> 봉덕리고분 우측 금동신발

저판 문양의 중심은 원 내에 연화문이 배치된 단위인데 이와 비교되는 자료는 나주 정촌고분 및 경주 식리총 출토품이다. 정촌과 봉덕리가 타출문인데 비해 식리총 출토품은 타출이란 점이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상통한다. 식리총 출토품은 백제 공인이 제작하였다는 설이 유력하므로 이런 문양을 백제의 고유한 것으로 볼 수 있을 터인데 시간적으로는 식리총 신발이 상대적으로 늦다.



<그림 4> 백제계 금동신발의 저판 문양 비교(좌: 식리총, 중: 봉덕리, 우: 정촌)

일본에서 출토된 백제계 신발들은 투조문이 없고 타출문이 주류를 이루는 점에서 웅진기 이후로 보인다. 저판과 좌우 측판을 결합하는 방식은 같지만 문양이 귀

갑문을 타출하는 것 일색이란 점에서 간략화한 모습을 보인다.



<그림 5> 일본 출토 백제계 금동 신발(좌상: 구마모토 에다후나야마고분, 우상: 오사카 이치스카고분, 좌하: 시가 카모이나리야마고분, 우하: 나라 후지노키고분)

### ○ 문헌자료

이문형·유수화, 2015, 「고창 봉덕리1호분 출토 금동신발의 제작방법과 문양-4호 석실 출토품을 중심으로-」, 『馬韓·百濟文化』 25,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이문형, 2015, 「제작기법과 문양을 통해 본 백제 금동신발의 편년」, 『중앙고고연구』 18, 중앙문화재연구원.

馬韓百濟文化研究所·高敞郡, 2016, 『高敞 鳳德里 1號墳-종합보고서-』.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국립나주박물관, 2019, 『고대 동아시아의 금동신발과 금동관』.

고창군·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9, 『고창의 마한문화유산 - 고창, 마한문화유산의 정수를 말하다』.

주경미, 2020, 「무령왕릉 출토 금속공예품의 현황과 특징」, 『무령왕릉 새로운 반세기기를 준비하며』, 공주시·국립공주박물관·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성윤길, 2020, 「고창 봉덕리 고분 출토 금동신발의 문양 특징과 의미」, 『사적 제531호 高敞 봉덕리 고분군의 가치와 사적 확대지정 방안』, 고창 마한고분군 사적(확대)지정을 위한 학술심포지움.

### ○ 기 타

이 금동신발 1쌍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한 고창 봉덕리 1호분 발굴조사의



4호 석실에서 출토되었고, 국가귀속 대상 매장문화재임.

□

○ 형 식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출토 금동신발

고창 봉덕리에 위치한 4기의 대형 분구묘 중 가장 규모가 큰 봉덕리 1호분 제4호 석실이 2008년 도굴되지 않은 채 발굴되었으며, 여기에서 무덤 주인공의 양쪽 발에 신겨져 거의 훼손되지 않고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금동신발이 출토되었다. 이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은 장례 때 의례용으로 사용된 신발로서 백제의 전형적인 형태와 문양을 보여주는 금속공예품이다.

금동신발은 왼쪽 신발은 길이 32.7cm, 높이 11.6cm이고, 오른쪽 신발은 길이 32.4cm, 높이 11.9cm로 오른쪽 신발이 약간 길고 크며, 너비는 10.7cm로 둘 다 같다. 재료는 순동이고 표면에 약간 녹색을 띄고 있는데 도금층에서 구리(Cu), 은(Ag), 수은(Hg)이 검출되어 아말감 도금법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동신발은 기본적으로 금동판 4장을 잘라 0.6-0.8mm 두께의 바닥판과 좌우측판을 만들어 붙이고, 그 위에 0.3-0.6mm 두께로 약간 얇은 발목깃판[발목덧개]을 만들어 붙인다. 이것들을 접합할 때에는 각각의 가장자리를 약간 겹친 다음 구멍을 뚫고 리벳을 박아 접합한 것이다. 신발의 바닥에는 1.7cm 높이의 뾰족한 스파이크 18개를 별도로 만들어 규칙적으로 붙였고, 내부에는 비단 재질의 주(紬), 능(綾), 금(錦) 및 삼베[麻布] 등 네 종류의 직물을 발라 마감하였다.

금동신발의 전체 형태는 배와 비슷하여 앞쪽은 뾰족하면서 약간 위로 들리고, 중간은 밋밋하면서 바닥이 편평하고, 뒤쪽은 약간 좁아져 둥근 편이다. 이 금동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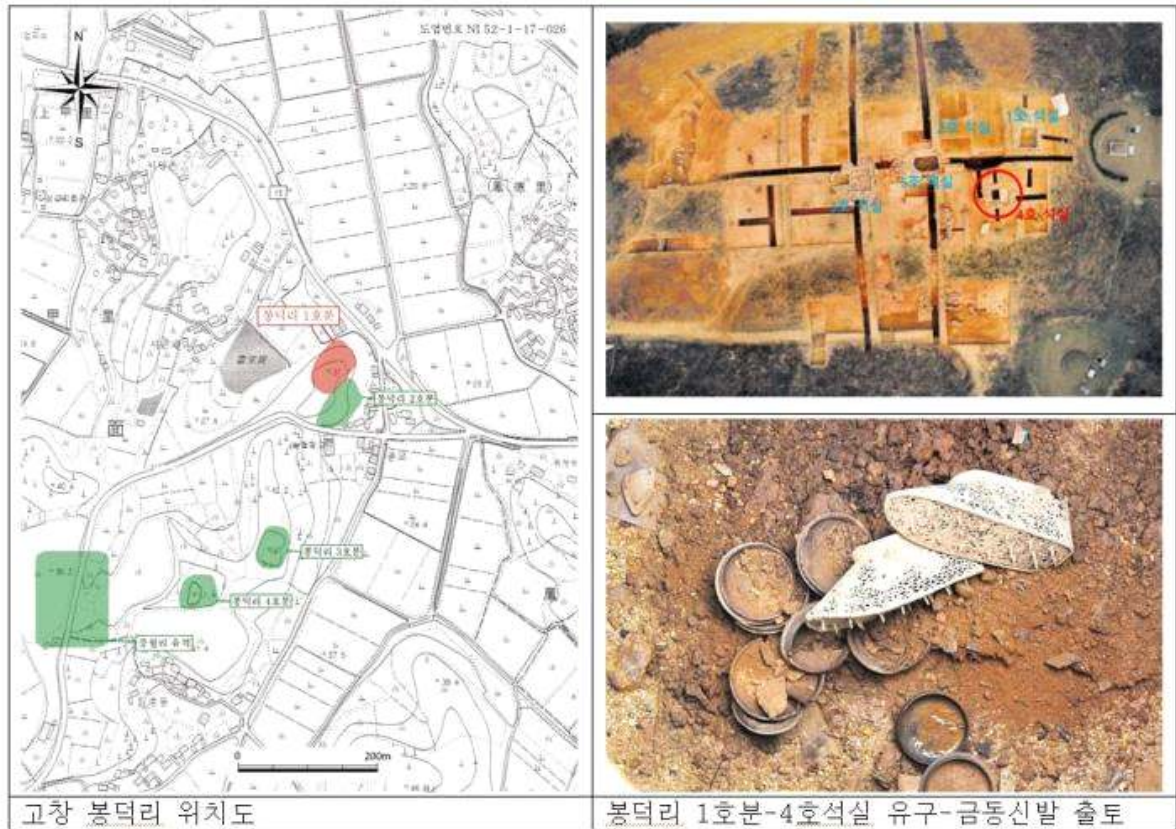
발의 제작기법은 투각기법으로 문양을 뚫고 문양의 세부는 축조기법으로 표현하였다. 문양은 육각형으로 구획된 형태 안에 용, 인면조신(人面鳥身), 쌍조문(雙鳥文), 괴수상, 연화문 등 각종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특히 스페이드형 기하학 문양과 원형 인물상 등의 독특한 문양도 발견되는 등 이 시기 금속공예의 기술적 조형적 수준을 대표하고 있다.

이처럼 고창 봉덕리 1호분 제4호 석실에서 출토된 금동신발은 현재까지 삼국시대의 고분에서 출토된 20여 점의 금동신발 중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이며 2014년 나주 정촌 1호분에서 출토된 금동신발과 비교된다. 특히 무령왕릉의 왕과 왕비의 신발과 마찬가지로 바닥판과 좌우측판 및 발목깃판으로 구성되고 바닥에 스페이크를 박은 신발의 형식은 백제의 전형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어, 백제의 중앙 권력자가 제작하여 지역의 유력 지배층에게 사여한 위세품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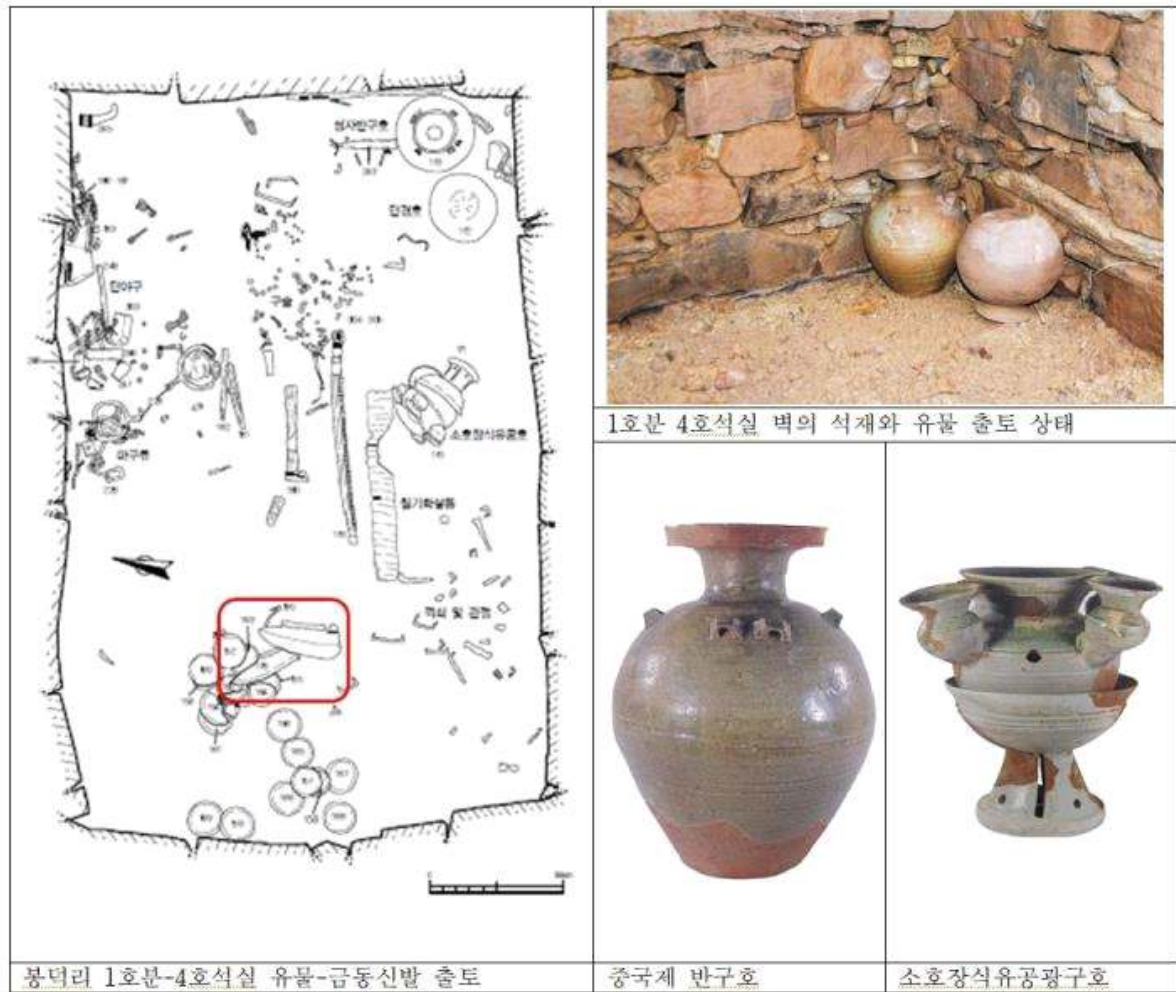
#### ○ 고분의 발굴과 유물의 출토 현황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봉덕리 산 47번지에 위치한 봉덕리에는 4기의 대형 분구묘가 자리 잡고 있어 봉덕리 고분군에 대해서는 1998년부터 학계에 알려졌고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 정밀 측량조사를 했다. 특히 이들 4기의 분구묘 중 가장 잔존상태가 양호한 봉덕리 1호분에 대해서는 2008년 10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굴조사를 하였으며, 분구내 매장시설로 횡혈식 석실 등이 발견되어 2009년에 제2차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봉덕리 고분 1호분에서 출토된 금속유물에 대한 보존처리는 2013년 5월까지 진행되었고, 2015년 9월 24일 봉덕리 고분군은 사적 제531호로 지정되었으며, 봉덕리 1호분 보고서는 2016년에 발간되었다.



고창 봉덕리 1호분은 장방형 분구를 조성하고 분구의 상면에는 삼국시대의 용관 2기와 석실 5기, 분구 사면과 주구에서 통일신라시대의 소형 석곽 9기가 발견되는 등 복수의 석실을 안치한 고분으로 5-6세기 고창지역의 독특한 고분문화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5개의 석실은 토층상태를 고려하여 축조 순서를 파악해보면, 5호-4호-1호-3호 석실 순서이다.

특히 분구 정상의 동남쪽으로 치우친 지점에 위치한 4호는 장방형의 수혈식 석실로서, 한 번도 도굴된 적이 없는 완전한 상태로 유구가 보존된 처녀분(處女墳)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4호분은 다른 석실과 달리 수혈식의 구조로 내부에서는 금동신발을 비롯하여 죽엽형 장신구, 청동 잔탁, 환두대도, 중국제 청자호 등 중요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그중에서도 금동신발은 각종 서수와 봉황이 투조된 채 거의 완벽하게 출토되어, 이 지역을 다스리는 유력한 지배세력의 무덤을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된다.



금동신발이 발견된 4호석실의 묘실은 장방형이고, 규모는 길이 280cm, 너비 179cm, 높이 180cm으로 맨 처음 조성한 5호 석실보다 작은 편이다. 묘실의 축조수법은 석재의 크기도 통일되지 않고, 세부 기법이 조잡하고 거친 편이다. 석실은 도굴되지 않은 완전한 상태로 발견되어 유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유물은 서쪽 중앙부 발치에서 금동신발과 대도 2점이, 가슴 부위에서는 곡옥을 포함한 구슬류가, 동쪽 머리가에서는 대나무잎을 형상화한 은제 장신구와 영락 및 금제 이식이 출토되었다. 피장자의 두향은 동쪽을 중심으로 중국제 청자호와 단경호 1점, 남장벽 중앙부에서는 청동 탁잔, 소호장식유공광구호, 발치인 서벽 중앙부에서는 개배 18점이, 북장벽 중앙부에서는 마구류인 안교, 재갈, 등자 등이 출토되었다.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내부에서는 명문이 써 있는 편년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반 출토 유물인 중국제 청자반구호(靑磁盤口壺)는 광구호(廣口壺)이고 어깨 부분에 6개의紐가 달린 형식으로서, 중국에서는 4세기 중반부터 5세기 전반에 유행하는 유물이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 상대적으로 편년이 가능하다. 또한 구

멍이 뚫린 광구호 형식에 여러 개의 소호가 접합된 광구소호(小壺裝飾有孔廣口小壺)의 경우 그 형식은 중국 남방의 퇴소관(堆塑罐)과 가까운 것인데, 이것이 입넓은 고배형 기대 위에 올려진 채 완형의 한 세트로 출토된 점 또한 주목되었다. 이처럼 중국제 청자 반구호 등 출토품에 의해 해당 고분은 5세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금동신발의 제작시기 또한 5세기경으로 여겨진다.

### ○ 금동신발의 형식과 제작기술

금동신발은 현재 우리나라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 삼국시대의 유적에서 출토되는 한국 고대 금속공예품 중 독특한 사례이다. 같은 시기의 중국 고대 유적에서는 금동신발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일본의 고분에서 간혹 출토되는 금동신발은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것이 전래된 것이어서 금동신발은 한국의 독자적인 금속공예품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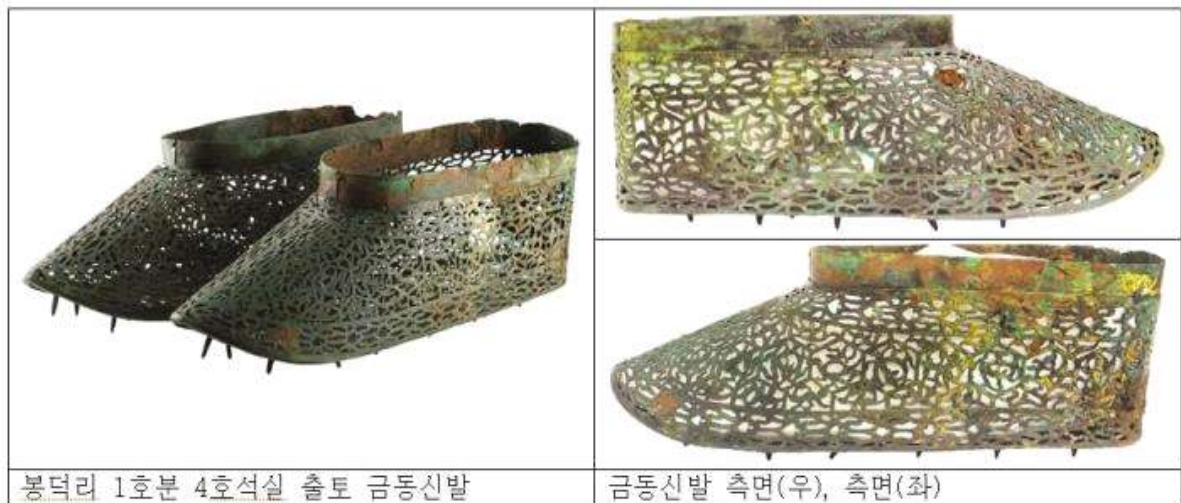
현재까지 마한 백제권에서 확인된 금동신발은 총 16점이다. 화성 요리 목곽1호분, 원주 법천리 석실 4호분, 연기 나성리 토광묘, 전 공주 송산리, 공주 수촌리 목곽 1호분, 공주 수촌리 석관 8호분, 고흥 길두리 안동, 공주 수촌리 석실 3호분, 공주 수촌리 석실 4호분, 고창 봉덕리 석곽 4호분, 나주 정촌 석실 1호분, 익산 입점리 석실 1호분, 나주 신촌리9호-을관, 나주 북암리3호-석실 96, 그리고 공주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왕의 금동신발과 왕비의 금동신발이 있다.

		
화성 요리 1호분, 29.9cm	고령 길두리 안동고분	익산 입점리 1호분, 31.4cm
		
공주 수촌리2-3호분, 31.6cm	공주 무령왕릉(왕), 38cm	공주 무령왕릉(왕비), 36.4cm

이처럼 마한 백제권의 금동신발은 시기적으로 백제의 한성과 웅진 도읍기에서만 확인되는 것이며 시기에 따라 형태와 문양의 변화가 뚜렷하다. 특히 공주 무령왕

릉이 발굴되면서 왕과 왕비의 금동신발 제작시점이 523년과 526년을 넘지 않는다는 절대연대가 확보되었고, 이 금동신발을 기점으로 한성기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시기별 금동신발의 형태적인 변화가 비교적 명확히 확인된다.

특히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에서 출토된 금동신발은 도굴이 되지 않은 처녀분에서 정확한 위치에서 실제 착용례를 파악할 수 있고, 오른쪽 신발은 뒤축 위쪽의 목깃판[발목덮개]이 약간 파손되었을 뿐 훼손이 거의 되지 않은 채 원형을 확인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발굴 결과 피장자의 발 부근에서 살짝 겹친 채 발견되었고, 오른쪽 신발의 내부에서는 인골도 발견되었다고 하여 피장자가 실제 착용한 채로 매장했다는 것을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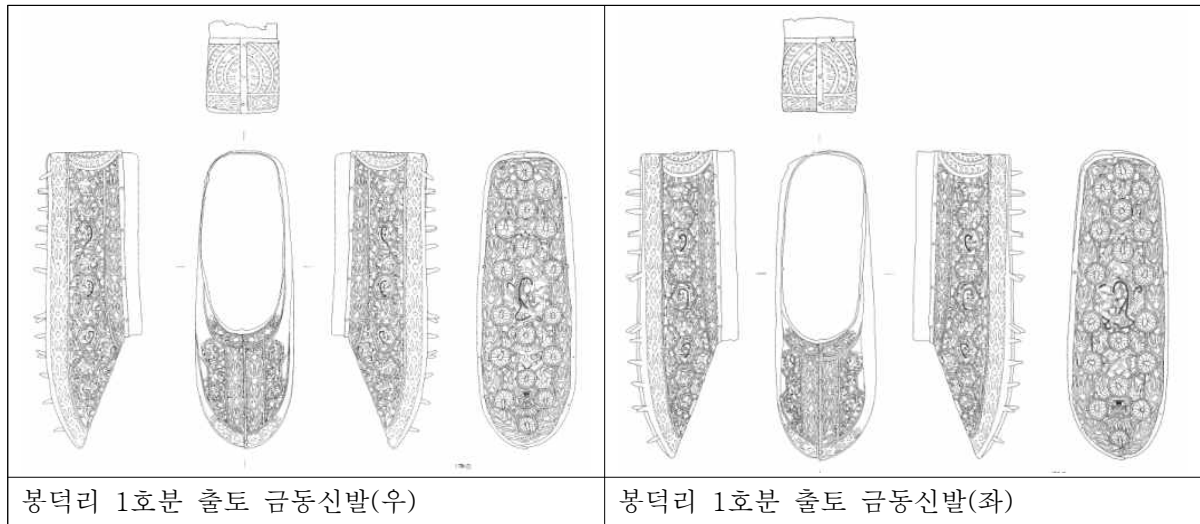


봉덕리 1호분 4호석실 출토 금동신발

금동신발 측면(우), 측면(좌)

발견 당시 이 신발은 형태가 완전하여 원형을 지니고 있었고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하였다. 전체적으로 오랜 세월동안 무덤 속에 매장되어 표면 전체는 구리가 산화되어 초록색 녹이 가득 덮여 있으나 금박의 흔적이 잘 남아 있다. 발굴 뒤 보존처리 과정에서 금속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재료는 순동이고, 금도금층에서 구리(Cu), 은(Ag), 수은(Hg) 성분이 검출되어 수은아말감기법을 사용해서 도금했다고 추정된다.

금동신발의 내부에는 직물을 발랐기 때문인지 그 형태를 잘 보존하고 있었다. 특히 오른쪽 신발 내부의 바닥판과 좌우 측판 및 발목깃판[발목덮개]에 모두 직물을 부착했던 흔적이 발견된다. 이 직물을 분석한 결과 비단 직물 중 평직으로 짠 주(紬)를 비롯하여 능직 조직의 능(綾), 무늬를 넣은 금(錦) 그리고 삼베[麻布]까지 네 종류가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무령왕릉의 왕비 신발에서도 내부에 금(錦)을 붙여 비단 신발의 흔적이 확인되어 비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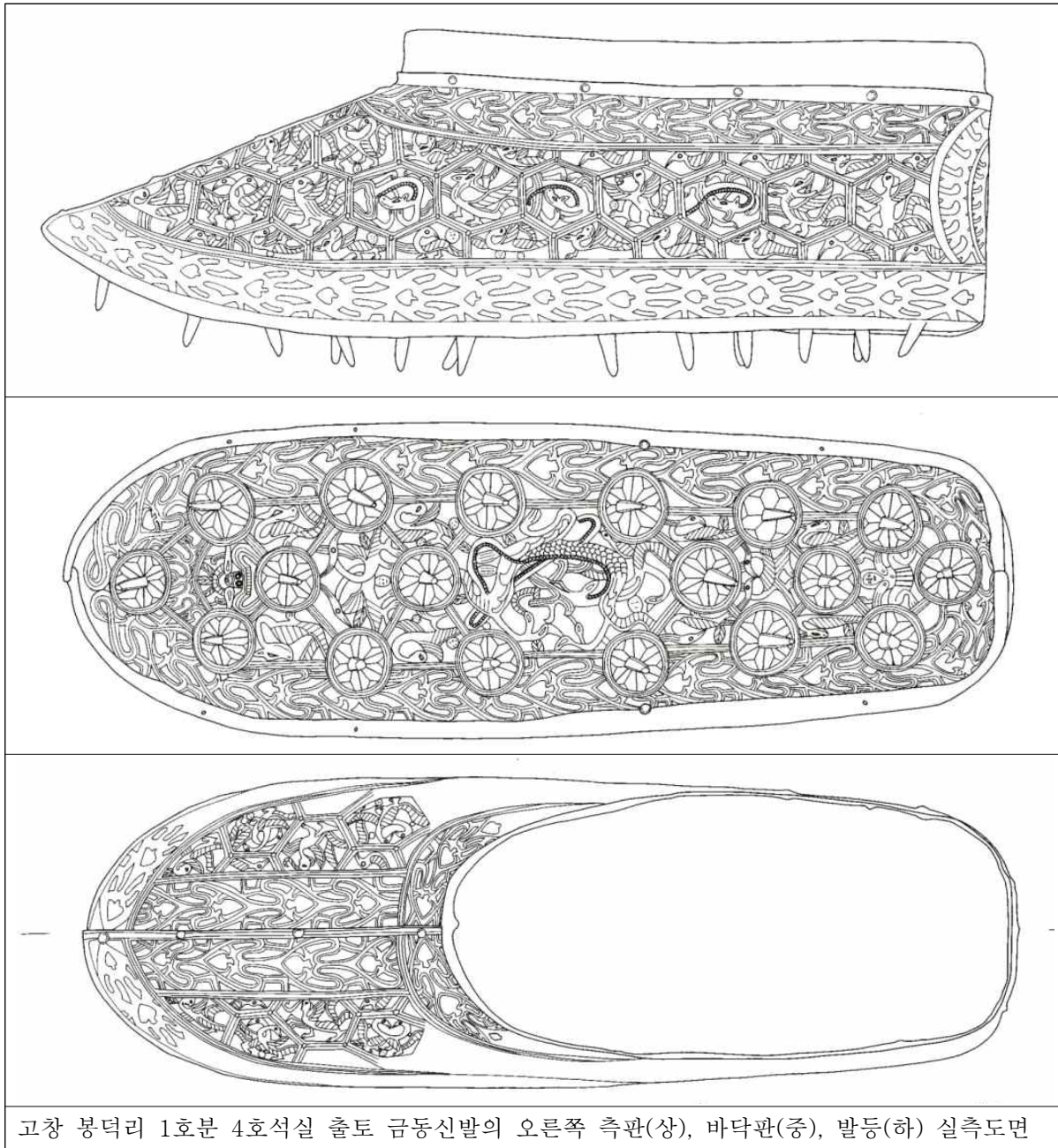


기본적으로 신발의 형태는 금동판 4장을 잘라 붙여 만든 것이 확인된다. 금동판은 2종류여서 0.6-0.8mm 두께의 것으로는 바닥판과 좌측판과 우측판을 3장을 만들고, 0.3-0.6mm의 약간 얇은 두께의 것으로는 신발 위로 올라간 발목깃판을 만들었다. 양쪽 신발은 거의 비슷하여 길이 32.4-32.7cm, 너비 10.7cm, 높이 11.9cm 정도이며 오른쪽이 약간 길고 약간 높고 너비는 같다. 둘다 32cm가 넘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착용하기 보다 사후에 피장자에게 의례용으로 신기고자 만든 신발로 추정된다.

이것들을 접합할 때에는 각각의 가장자리를 약간 겹친 다음 구멍을 뚫고 머리 지름 3.7mm-3.8mm 크기의 리벳을 박아 접합한다. 예컨대 바닥판 위에 좌우측판을 결합할 때에는 좌우측판의 아래쪽을 'L'자로 접고 바닥판을 연결하여 리벳으로 결구하였다. 발등쪽은 좌측판을 위에 두고 4개의 리벳으로, 뒤쪽은 반대로 우측판을 위로 올려 3개의 리벳으로 고정하였다. 여기에 너비 2cm 내외의 높이로 발목깃판을 신발 위쪽에 덧대어 11개의 리벳으로 고정시켜 금동판이 밖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신발의 바닥에는 1.7cm 높이의 뾰족한 스파이크 18개를 별도로 만들어 규칙적으로 붙였고, 내부에는 천을 발라 마감하였다.

#### ○ 금동신발의 문양과 양식 특징

봉덕리 1호분 4호석실 출토 금동신발은 백제 양식의 금동신발 중에서 비교적 이른 예이자 보존상태가 상당히 좋은 삼국시대 금속공예품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양쪽 신발은 모두 금동판을 뚫어서 문양을 새기는 투각기법(透刻技法)을 주요 기법으로 사용하고, 육각문과 육각문을 연결시킨 모서리에는 부분적으로 축조기법(蹴彫技法)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가는 줄무늬를 처리하고 있다.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석실 출토 금동신발의 오른쪽 측판(상), 바닥판(중), 발등(하) 실측도면

먼저 측판의 경우 문양대를 상중하 3단으로 구획하고, 중단은 주문양대를, 상하는 종속문양대를 배치한다. 주문양대의 경우 높이 3.5cm이며, 육각문의 크기는 세로 2.52cm, 가로 2.69cm 내외이다. 각각의 육각문은 크기가 동일하지 않고 각변의 길이도 일정하지 않다. 주문양대를 표현한 기본선의 폭은 대략 3mm 전후이다. 중앙의 완전한 육각문대는 11개이고, 위아래에는 육각문대가 부분적으로 잘려 있는 상태여서 3열로 배열되어 있고, 그 육각문 안에 용, 인면조신(人面鳥身), 쌍조문(雙鳥文) 등이 배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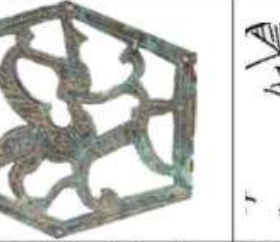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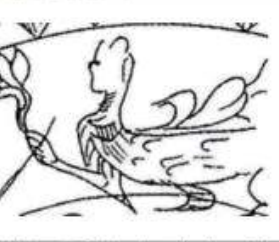




다음 바닥판은 원형 6엽연화문이 3열로 배치되고, 각각 3부분으로 구분된다. 바닥의 가장 중앙 부분에는 ‘ㄱ’형으로 몸통을 구부리고 입을 벌린 용이 크게 배치되고, 그 양옆으로 각각 3개씩 지름 2.9mm의 판으로 된 원형 6엽연화문을 배치되어 있다. 그 양 옆으로는 블록식으로 일정하게 각각 원형 6엽연화문을 6개씩 배치하여, 원형 6엽연화문은 모두 18개이다. 6엽연화문의 원형은 지름 15.9mm이고, 4개의 연화문을 연결하면 마름모꼴이 형성된다. 원형 연화문의 중앙마다 길이 16.0mm, 지름 5.3mm의 뾰족한 뿔모양 스파이크가 박혀 있다. 발등 부분은 양쪽 신발 모두 우측판 위에 좌측판을 겹치게 한 다음, 지름이 0.46cm 크기의 리벳 4개를 일정하게 박아 고정한다. 중앙에는 측판의 상하 종속문양대에 해당되는 스페이드 4개가 배치된다.





이제 문양대 안쪽에 새겨진 세부 문양을 살펴보기로 하자. 각 측판의 주문양대 중에서 가운데의 온전한 육각문대에는 11개의 육각문이 배치되었고, 그 안에는 다시 각각 인면조, 용, 쌍조문 등을 하나씩 표현해 놓았다. 문양 중간 중간에 작은 타원형의 얼굴 장식이 인면문(人面文)처럼 표현되어 있다. 바닥면의 문양은 가장 중앙에는 용문양을 배치하되, 그것을 둘러 가운데와 좌우에 3열 6개씩의 연속 육각문대를 배치하여, 육각의 꼭지점마다 원형의 연화문을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육각문은 귀갑문이라고도 불리며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다.

먼저 인면조신의 경우 사람의 얼굴의 새의 몸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고창 봉덕리 금동신발에서는 측판 문양대에 12개, 바닥판에 2개 등 총 14개가 새겨져 있다. 형태는 거의 동일하며, 모두 얼굴은 측면상이고 날개는 활짝 퍼거나 한쪽만 있기도 하고, 꼬리는 중첩되거나 세 갈래로 나뉜 것도 있다. 이것은 식리총 신발 바닥에서는 인면조신의 인면이 명확하게 확인되며, 정촌 금동신발이나 무령왕릉 동탁은잔 등에서도 발견된다. 이것들은 천추(千秋)와 만세(萬歲)의 의미를 지녀 장수를 상징하고 있다. 금동신발이 부장된 피장자가 영생하길 기원한 것으로 짐작된다.

			
봉덕리 신발 인면조신	봉덕리 인면조신	봉덕리 왼쪽 신발 우측 판 일신쌍두	봉덕리 왼쪽 신발 좌측 판 인신쌍두
			
천왕지신총 지신(地神)	식리총 인면조신	정촌 금동신발 인면조신	무령왕릉 통탁은잔, 인면조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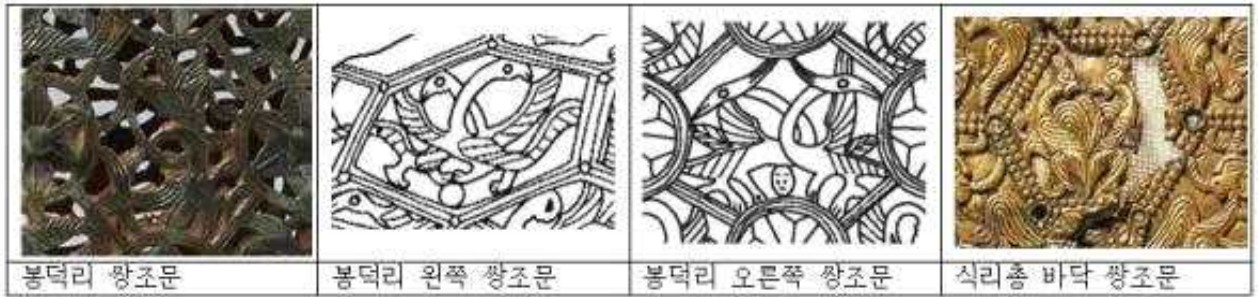
봉덕리 금동신발에서는 여러 부분에서 용을 발견되며, 위치에 따라 크기나 표현이 약간씩 다른데, 날개 달린 용이 7개나 발견된다. 좌측판의 중앙의 용문양은 크게, 바닥 중앙에도 크고 활달하며, 상하의 오각형 속 용은 크기가 작고 보조적이다. 이러한 용문양은 삼국시대의 벽화나 금속공예품에서 확인된다.

특히 봉덕리 금동신발의 용은 입과 코는 정촌 금동신발의 용과 유사하나, 귀와 뿔의 표현은 식리총의 용과도 비슷하다. 봉덕리 금동신발 바닥 중앙은 용은 비늘 표현에서 공주 수촌리 1호분의 것과 비교된다. 용은 선인들의 세계나 신성한 지역으로 인식된 하늘로 가는 이동수단이어서, 피장자를 천상이나 선계로 이동시켜 주길 기원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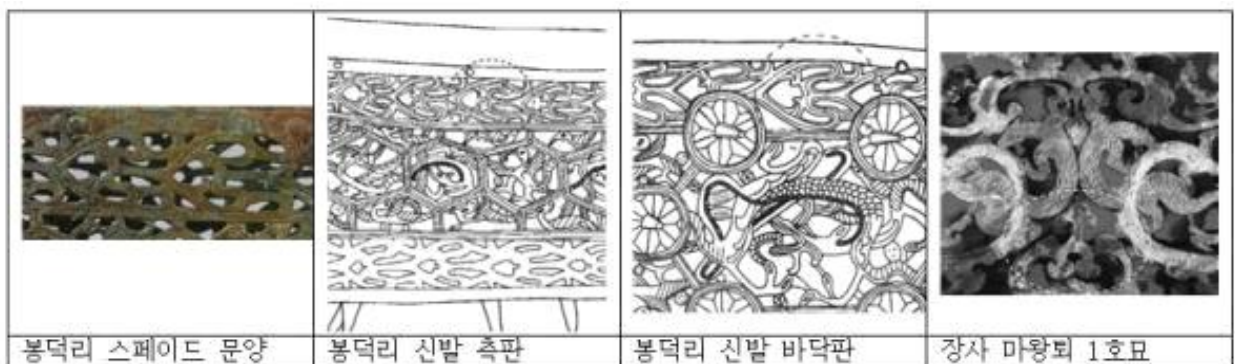
			
봉덕리 신발 용	식리총 용	정촌 금동신발 용문양	무령왕릉 출토 환두대도

고창 봉덕리 금동신발에서 쌍조문의 경우 측판 중앙의 발등쪽 상단에 1개, 좌우 측판에 4개, 바닥판에 2개 등 총7개가 확인된다. 발등쪽과 바닥판의 것은 두 마리 새가 머리를 X자형으로 교차하고 있다. 발등 위쪽의 것은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몸을

X자로 교차하고 있고, 날개를 접고 있기도 하다. 식리총의 쌍조문은 머리를 돌려 부리를 맞대고 있다. 이와 같은 쌍조문은 사신 중 주작으로 보아 무덤을 지키는 수호신이나 방위신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발에 위치한 쌍조문은 용이 천계로 이갈 때 피장자의 승선을 돕는 역할로 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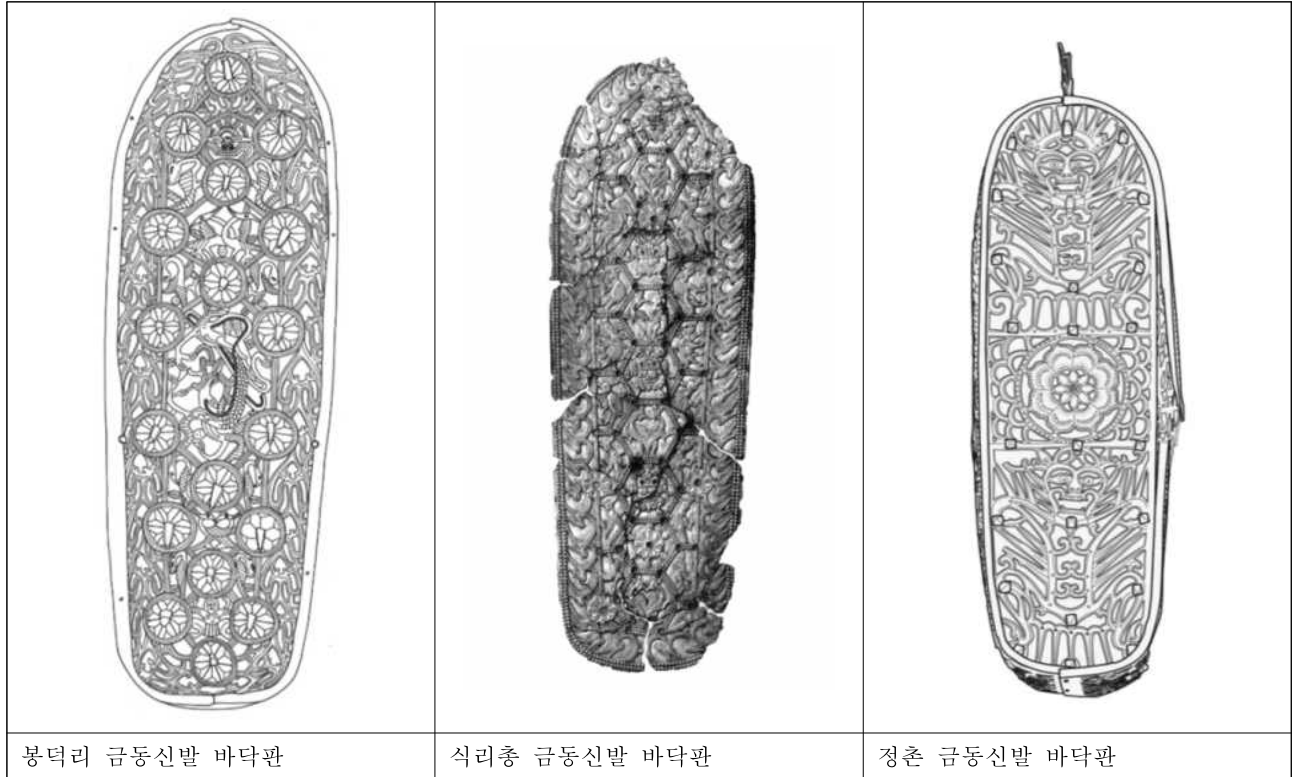


봉덕리 금동신발의 측판 상하단과 발등 그리고 바닥판의 가장자리 부분의 종속문양 대에는 독특한 형태의 문양이 있다. 이것은 화염문보다 패턴화된 기하학적인 형상으로서, 흔히 연속된 스페이드 문양으로 부르고 있다. 기(氣)를 형상화한 것으로도 보이며 이를 통해 피장자가 하늘로 승천하는 데 동력으로 삼길 기원한 것으로 본다.



봉덕리 금동신발의 바닥판은 식리총 금동신발의 바닥판이나 정촌 1호분 금동신발의 바닥판과 비교된다. 봉덕리 금동신발의 바닥판은 왼쪽과 오른쪽 신발의 문양이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동일한 편이다. 가장자리는 측판이나 발등에서 가장자리 문양으로 사용된 기하학적 스페이드 문양이 배치되고, 안쪽에는 안쪽에는 스파이크가 달린 18개의 원형 6엽연화문이 선으로 연결되어 마름모꼴과 육각문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연속육각문대와 스페이드 문양이 대칭적으로 구성되는 배치는 식리총의 금동신발과 친연성을 보이거나 세부적으로 후자는 종속문양이 화염문으로 약간 다르다. 또 전자는 육각문의 꼭지점에 연화문을 배치하고, 후자는 연화문이 육각문의 내부에 배치되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봉덕리 금동

신발의 경우 연속육각문대 안에는 위에서부터 괴면상, 용, 쌍조문, 인면조신, 용, 새(봉황), 쌍조문, 용, 괴수상의 순서로 배치되는데, 식리총에서는 괴수문과 쌍조문 및 연화문이 반복되고 있어 좀더 형식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세 금동신발의 바닥에서 특징적인 것은 괴수상의 표현이다. 봉덕리 금동신발의 경우 바닥면 위쪽에는 얼굴이, 아래쪽에는 전신상이 배치되어 있다. 식리총에는 육각면 안쪽에 괴수상 4개가, 정촌 금동신발의 경우 상하에 괴수 전신상이 선적으로 투각되어 배치되어 있다.



괴수의 얼굴은 고구려 안악 3호분(357년)에서 비롯하여 풍납토성에서 출토된 수막새 등에서도 보이며 눈은 부릅뜨고, 코는 콧구멍이 보이고, 입은 과장되게 벌려 날

카로운 송곳니를 보여주고, 머리는 삐죽삐죽 튀어오른 모습이다. 봉덕리 금동신발에서 보이는 괴수의 얼굴은 전체적으로 정촌리 괴수의 얼굴과 닮아 있다. 두 팔을 양쪽으로 벌리고 가슴을 드러내고 짧은 치마를 입고 두 다리를 내놓은 모습은 식리총 괴수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괴수상은 진한대 이래 승리와 복을 구하는 군신이면서 귀신의 수장인 치우(蚩尤)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봉덕리 금동신발의 바닥판에는 18개의 원형 6엽연화문이 지름 2.4cm 정도로 크기로 배치되어 있다. 식리총 금동신발의 연화문은 지름 1.54cm에 8엽 10개이고, 정촌 금동신발의 연화문은 지름 6cm으로 크지만 1개이며 꽃술까지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연화는 죽은자의 최종 목적지인 천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에서 출토된 금동신발의 좌우측면부터 발등, 바닥면에는 하늘을 상징하는 육각문대를 중심으로 상하에 스페이드문대로 나뉘며, 그 내부에 용문양, 인면조신, 쌍조문, 스페이드문, 연화문 등이 투각기법과 축조기법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것은 중국 전통적인 사후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고구려 고분벽화를 비롯하여 백제 무령왕릉 등의 금속공예품, 신라 식이총 등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양의 형태로 미루어 이것들을 통해 피장자의 영생을 기원하거나 그를 천계로 이끄는 상징적 의미를 지녔다고 여겨진다.

## ○ 참고문헌

- 마한백제문화연구소, 『고창 봉덕리 1호분 (석실·옹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2.
- 마한백제문화연구소, 『고창 봉덕리 1호분 종합보고서』, 고창군·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6.
- 성윤길, 「고창 봉덕리 고분 출토 금동신발의 문양 특징과 의미」, 『마한백제문화』 36, 2020.
- 이문형 · 유수화,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의 제작기법과 문양」, 『마한백제문화』 25, 2015.
- 이문형, 「제작기법과 문양을 통해 본 백제 금동신발의 편년」, 『중앙고고연구』 18, 2015.
- 이한상, 「한성시기 백제 금동신발의 제작기술과 그 특징」, 『역사와 담론』 59, 2011.
- 정상기, 「고창 봉덕리 출토 청자반구호의 제작시기 검토」, 『동원학술논문집』 14, 2013.
- 금동신발의 재원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위의 책(2017), pp. 235-255 참조. 주화정, 「삼국시대 금동신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 현 상

원형의 손상이 적어 비교적 완형에 가까운 금동신발 1쌍으로 발목 덮개·좌우 측판·바닥판의 4개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 ○ 내용 및 특징

금동신발 1쌍 모두 발목 덮개판, 좌우 측판, 바닥판의 3부분으로 이루어졌고, 동판 위에 수은 아말감으로 도금하였다. 발목 덮개판은 장식이 없는 높이 2.5cm, 두께 0.3mm의 금동판 1매를 길게 종타원형으로 만들고, 발등 중앙부에서 양 끝을 꺾친 후 위쪽에 구멍을 뚫어 리벳으로 고정하였다. 발목 덮개판 하단 가장자리를 좌우의 덮개판 상단 가장자리 안쪽에 겹치게 하고 측판 방향에서 안쪽으로 향하도록 머리 지름 3.7mm~3.8mm 크기의 리벳을 일정간격으로 좌·우 측판 각각 4개를 박아 고정하였다. 바닥에는 18개의 스파이크를 부착하였다.

## ○ 문헌자료

馬韓·百濟文化研究所, 2016, 『高敞 鳳德里 1號墳-종합보고서-』, 圓光大學校.



## ○ 형 식

고창 봉덕리 1호분 금동신발은 삼국시대의 전형적인 금동신발이다(도 1). 무덤 피장자의 우측과 좌측 양쪽 발에 신겨지기 위해 만들어진 한 쌍의 장례용 신발로써, 문양을 투각한 얇은 금동판을 연결하여 만든 삼국시대의 독특한 금속공



도1.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

예품이다. 이 신발은 바닥판, 우측판, 좌측판, 목깃판 등 네 장의 금동판을 붙여서 만들었는데, 앞쪽은 약간 뾰족한 첨두형을 이루면서 들어 올려졌으며, 뒤쪽으로 가면서 폭은 점차 좁아지고 바닥은 평평하다. 뒤측은 둥그스름하게 처리되어 있다. 네 장의 금동판들은 서로 겹쳐서 구멍을 뚫은 후 작은 못을 박아서 연결했는데, 연결방식은 전형적인 백제계 금동신발 형식

에 속한다.



도 2. 봉덕리 금동신발 중 좌측신발 좌측면.

바닥판, 우측판, 좌측판은 대체로 0.6-0.8mm 정도의 두께의 금동판을 사용했으며, 목깃판은 다소 얇아서 두께가 0.3-0.6mm 정도이다. 신발의 기본 형태를 이루는

바닥판, 우측판, 좌측판은 전체적으로 모두 투각기법으로 문양을 뚫어서 장식한 후 구부려서 앞쪽이 약간 들어올려진 신발 형태를 형성하였다. 좌측판과 우측판은 발등과 뒤축을 잇는 중앙선을 중심으로 대칭에 가깝게 연결한다. 또한 우측판과 좌측판의 바닥 부분은 “L”자 형태로 구부려져서 바닥판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윗부분도 역시 필요한 부분에서는 약간 구부려서 목깃판을 연결할 수 있도록 했다. 목깃판은 폭 21.9-22.6mm 정도의 좁고 긴 띠 형태의 금속판을 구부려서 만들었으며, 각 바닥판에는 별도로 만든 18개의 뾰족한 스파이크들이 규칙적으로 박혀 있는데 각 스파이크의 높이는 최대 1.7cm 정도이다(도 2).<sup>3)</sup>

현재 삼국시대의 고분에서 출토되는 금동신발들은 그 수가 많지는 않으나 삼국이 각각 형식적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주목된다. 고구려의 금동신발들은 대부분 스파이크가 달린 바닥판 부분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측판이 발견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신라의 경우에는 바닥에 스파이크가 달려지 않은 신발들이 많고, 측면부는 좌측판과 우측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등부와 뒤축부를 별도의 금속판으로 만들어서 발 양측면에서 측판 두 장을 연결하여, 신발의 형태와 측판 연결방식이 백제 신발들과 다소 차이가 있다. 신라에서 출토된 금동신발 중에서 백제식 제작방식으로 제작된 것은 경주 식리총 출토 금동신발이 유일하다.<sup>4)</sup>

형식적인 특징으로 볼 때,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석실에서 출토된 이 금동신발은 백제에서 제작된 금동신발 형식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백제에서 제작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 ○ 조성연대

금동신발이 출토된 고창 봉덕리 1호분은 삼국시대 5세기 중반에서 후반경에 축조된 대형의 분구묘이다. 봉덕리 고분군은 현재 사적 53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한성백제기 이후 마한 지역에서 널리 축조된 분구묘 형식의 고분들로 알려져 있다.<sup>5)</sup>

3)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출토 금동신발에 대한 주요 선행 연구로는 다음 참조. 이문형·유수화, 2015,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의 제작기법과 문양 - 4호석실 출토품을 중심으로」, 『마한백제문화』 25; 성윤길, 2020, 「고창 봉덕리 고분 출토 금동신발의 문양 특징과 의미」, 『마한백제문화』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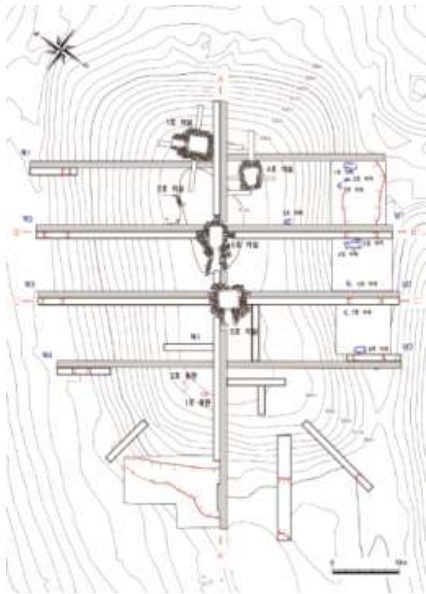
4) 삼국시대 금속제 신발의 형식 분류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선행연구들이 있다. 주요 연구로는 다음 참조. 주화정, 2003, 「삼국시대 금동신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 이한상, 2011a, 「금동식리로 본 삼국시대 장승의례의 한 단면」, 『신라사학보』 2; 이한상, 2011b, 「한성시기 백제 금동신발의 제작기술과 그 특징」, 『역사와 담론』 59; 이한상, 2011c, 『동아시아 고대 금속제 장신구 문화』, 고고; 김낙중, 2013, 「신라 및 가야 고분 출토 백제계 금공품에 대한 일고 - 가야계 환두대도와 경주 식리총 금동신발을 중심으로」, 『영남지역 속에 스며든 마한·백제계 문물의 흔적』, 대한문화재연구원; 이문형, 2015, 「제작기법과 문양을 통해 본 백제 금동신발의 편년」, 『중앙고고연구』 18.

5) 고창 봉덕리 고분군은 1998년 학계에 처음으로 보고되었으며, 이후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 계속 조사 및 발굴해왔다. 특히 봉덕리 1호분의 경우에는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 2008년 처음 발굴조사를 실시했으며, 2009년에 제2차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봉덕리 고분군의 발견과 발굴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노기환, 1998, 「고창 봉덕리고분군」, 『호남고고학보』 8, pp.135-147; 최완규·김종문·조규택, 2000, 『고창의 분구묘 - 분포 및 측량보고서』, 마한백제문화연구소;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2, 『고창 봉덕리 1호분 (석실·옹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6a-c, 『고창 봉덕리 1호분 종합보고서』 본문·도면·사진 (전 3권), 고창군·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이러한 분구묘들은 분구 내에 여러 개의 석실이 함께 조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봉덕리 1호분의 경우에는 분구 내에서 삼국시대의 옹관 2기와 석실 5기가 발견되었으며, 분구 사면과 주구에서 통일신라시대의 소형 석곽 9기가 발견되었다.<sup>6)</sup> 5개의 석실 중에서 토층상태를 고려하여 축조 순서를 파악해보면, 5호석실이 가장 먼저 축조되고 그 다음으로 금동신발이 발견된 4호석실, 그 다음으로 1호 석실과 3호 석실이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도 3).<sup>7)</sup>

금동신발이 발견된 4호석실은 장방형의 수혈식 석실로서, 다른 석실들과는 달리



도 3. 고창 봉덕리 1호분내 유구 배치도.



도 4. 좌: 청자반구호. 높이 36.8cm. 우: 소호장식유공광구소호와 고배형기대. 소호 높이 17.4cm. 기대 높이 15.0cm.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출토.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전혀 도굴되지 않은 완전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연도 없이 2매의 개석이 덮인 수혈식 구조로서, 1호분의 다른 석실들이 모두 중앙에 연도가 설치되어 있는 황혈식 구조인 점과는 다소 형식적 차이가 있다. 4호 석실의 크기는 280x 179x180cm의 규모로서 가장 먼저 축조된 5호석실보다는 약간 작다. 봉덕리 1호분의 분묘들에서는 절대편년이 가능한 문자자료가 전혀 출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분의 축조 연대들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고분과 출토품의 형식으로 볼 때 대체로 5세기 중·후반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동신발이 발견된 4호석실은 1호분의 여러 분묘 중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의 고분에 해당한다. 4호석실 내부에서 함께 발견된 중국제 청자반구호(靑磁盤口壺)는 광구호(廣口壺) 형식에 어깨에 6개의紐가 달린 형식으로, 중국에서는 동진(東晉) 시대 4세기 중반 경에서부터 5세기 전반 경에 유행한 유물로 추정된다(도

6)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6a, 위의 책(본문), p. 240.

7)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6a, 위의 책(본문), pp. 20-22;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6b, 위의 책(도면), p. 9. 도면 5.

4-좌).<sup>8)</sup> 또한 여기에서는 중국 남방의 퇴소관(堆塑罐) 형식 자기들과 가까우면서도 일본 고분시대 토기들과 연결되는 독특한 형태의 소호장식유공광구소호(小壺裝飾有孔廣口小壺)와 고배형기대(高杯形器臺) 세트가 출토되었다(도 4-우). 시유토기인 소호는 독특한 형식과 양식으로 인하여 그 제작지와 제작 연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나, 제작시기는 대체로 5세기로 추정된다.<sup>9)</sup> 이러한 출토 유물 및 유구와의 관계 등으로 볼 때, 금동신발이 발견된 4호석실은 5세기의 고분으로 추정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삼국시대의 금동신발은 생전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장송 의례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 금동신발의 제작 시기는 분묘가 축조된 것과 같은 시기인 5세기 경으로 추정된다.



도 5. 봉덕리 1호분 4호석실 유물 출토 상태. 종합발굴보고서 사진(2016), p. 75, 사진 69-①

8) 정상기, 2013, 「고창 봉덕리 출토 청자반구호의 제작시기 검토: 중국 남경시 출토품과 비교 검토를 통해」, 『동원학술논문집』 14, pp. 123-141.

9) 이 토기는 일본에서 제작한 스에끼로 보는 경우도 있으며, 현지 제작으로 보기도 하는데, 국적과 시기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다.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6a, 위의 책(본문), pp. 250-256 참조.

## ○ 현 상

봉덕리 1호분 금동신발은 삼국시대 금동신발들 중에서는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한 상태이며 완형에 거의 가까운 상태로 발견되었다. 피장자의 발치 부근에서 살짝 겹친 상태로 출토되었으며(도 5), 우측신발 내부에서 뼈가 확인되어 피장자의 발에 착장한 상태로 매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0)</sup> 전체적으로 초록색으로 수착되어 있으나 일부분에는 금박 흔적이 남아 있다. 우측신발은 뒤축 위쪽의 목깃판이 약간 파손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손상이 없다(도 6). 그에 비해 좌측신발은 뒤축 위쪽의 목깃판과 오른쪽 측판의 뒤축 하부 등이 부식으로 인하여 다소 손상된 상태이지만 전체적으로 보존상태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도 7).<sup>11)</sup>



도 6. 고창 봉덕리 1호분 금동신발 우측신발.



도 7. 고창 봉덕리 1호분 금동신발 중 좌측신발 우측면 세부, 뒤축 손상부.



도 8. 봉덕리 금동신발 우측신발 내부 직물흔.

10) 앞의 책, p. 71,

11) 발굴보고서의 도면에서는 양쪽 신발 모두 손상된 상태가 특별히 표시되지는 않았다.

발굴 당시에는 우측신발 내부에서 인골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오른쪽 신발의 경우에는 내부에 전체적으로 직물흔이 남아 있다(도 8). 바닥판과 측판, 목깃판에 모두 직물흔이 수착되어 있는데, 보존처리 결과에 의하면 수착된 직물은 평견직물(平絹織物), 평지문능(平地紋綾), 금직물(錦織物), 마직물(麻織物) 등 네 종류가 확인되었다.<sup>12)</sup> 이는 신발 안쪽에 직물로 만든 양말이나 별도의 신발을 신은 후에 이 금동신발을 신었던 흔적으로 추정된다. 최근 무령왕릉의 왕비 신발에서도 내부에서 금(錦) 직물로 만든 비단 신발의 흔적이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예와 비교되는 사례로서 중요하다. 한편, 직물흔을 비롯한 이물질의 수착흔이 많이 남아 있는 우측신발과는 달리, 좌측신발의 경우에는 일부에 부식물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한 편이다.

금속 성분조사 결과에 의하면, 신발의 바탕 금속판은 순동(純銅)으로 추정되며, 금도금 부분에서는 수은이 다수 확인되었기 때문에 수은아말감도금기법으로 도금했던 것으로 추정된다.<sup>13)</sup> 현재 금도금된 표면은 우측신발보다는 좌측신발 표면에 많이 남아 있는 편이며, 바닥판까지 모두 도금을 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발 내부의 도금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전반적으로 보존 상태가 우수한 편이며, 발굴후 보존처리를 통해 현재의 모습으로 보존되고 있다.

## ○ 내용 및 특징

봉덕리 1호분 4호석실 출토 금동신발은 백제 양식의 금동신발 중에서 비교적 이른 예이자 보존상태가 상당히 좋은 삼국시대 금속공예품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양측 신발의 크기는 대략 길이 32.4-32.7cm. 최대 너비 10.7cm. 최대 높이 11.9cm 정도로, 길이가 32cm 가 넘는 것으로 보아 장송의례용으로 제작된 신발로 추정된다. 금동신발은 현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 삼국시대의 유적에서만 출토되고 있으며, 같은 시기 중국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한국 고대의 독특한 분묘미술품으로서 중요하다. 일본 고분시대에는 한반도 문화의 영향으로 제작된 금동신발이 간혹 출토되기는 하지만, 그 예가 많지는 않은 편이다.

이 금동신발은 바닥판, 좌측판, 우측판, 목깃판 등 네 장의 얇은 금동판을 사용해서 제작했으며, 각 판들을 고정할 때에는 지름 2-3mm 크기의 원두정을 사용했다. 현재 발등 부분 연결에는 4개의 원두정을 사용했고, 뒤축은 3개의 원두정을 사용했다. 바닥판에는 연결을 위한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으나, 실제로 못이 박힌 곳은 좌우 1개씩 뿐이다. 원두정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목깃판의 고정으로, 11개의 원두정이 사용되었다.

12)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6a, 위의 책(본문), p.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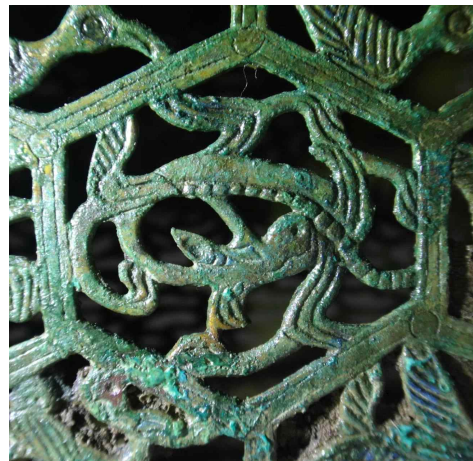
13) 앞의 책, pp. 332-333.

양쪽신발 모두 투각기법으로 문양을 시문했는데, 양쪽 측판은 위쪽과 아래쪽에 폭 1.5cm 정도의 종속문양대를 배치하고, 내부에는 연속육각문대(連續六角文帶)를 중심으로 하는 주문양을 배치했다. 상단과 하단의 종속문양대에는 스페이드 문양, 혹은 심엽형을 연속해서 배치한 독특한 문양대를 표현했다. 연속육각문대를 기본으로 하는 주문양은 중앙의 완전한 육각문 1열을 중심으로 아래와 위에 반으로 잘린 오각형, 혹은 삼각형 모양의 반육각문대(半六角文帶)를 각각 1열씩 배치하여 기본 3열의 문양대로 구성되었다. 육각문과 육각문을 연결한 모서리 부분에는 각각 축조기법(蹴彫技法)으로 표현한 지름 2.2mm 정도의 원문(圓文)을 하나씩 표현해 놓았으며, 기본적인 문양 구획선에는 축조기법으로 가느다란 2줄의 선을 장식해 놓았다(도 9).

한편, 각 측판의 주문양대 중에서 가운데의 온전한 육각문대에는 11개의 육각문이 배치되었고, 그 안에는 다시 각각 인면조(人面鳥, 도 9의 중앙), 용(도 10), 쌍조문(雙鳥文) 등을 하나씩 표현해 놓았다. 문양 중간 중간에 작은 타원형의 얼굴 장식이 인면문(人面文)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이러한 소형의 타원형 인면문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문양이다.



도 9. 봉덕리 금동신발 우측신발 세부 1. 육각형 안의 인면조와 상하 반육각문대. 인면조의 오른발 위에 작고 둥근 인면문 장식이 표현되어 있다. 그 아래 반육각형(오각형) 안의 동물 날개 뒤쪽에도 역시 인면문 장식이 있다.



도 10. 봉덕리 금동신발 우측신발 세부 2. 용.

중앙 육각문대 상하로 배치된 반육각문(半六角文), 즉 오각형문양의 구획 부분에는 새나 인면조 등을 배치했는데, 문양 배치는 네 측판이 서로 비슷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육각문의 크기나 각 문양의 형태나 크기는 다소 자유분방하게 표현된 편이다. 주문양대는 높이 3.5cm이며, 육각문은 내부 기준으로 높이 2.4cm, 폭 2.6cm 내외이다. 주문양대를 표현한 기본선의 폭은 대략 3mm 전후이다.

발등 부분은 양쪽 신발 모두 우측판 위에 좌측판을 올려서 연결하였는데, 중앙



도 11. 봉덕리 우측신발 발등 세부.



도 12. 봉덕리 좌측신발 발등 세부.

연결선 부분을 중심으로 측판의 상하 종속문양대와 같은 스페이드 문양대를 배치하였다. 우측신발은 중앙의 종속문양대 방향이 서로 다르게 표현되었는데(도 11), 좌측신발은 종속문양대 방향이 같게 되어 있다(도 12). 뒤축 부분은 두 신발 모두 발등과는 반대로 우측판이 좌측판 위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으며, 뒤쪽에는 타원형으로 방사하는 화염문 같은 문양이 3단으로 표현되어 있다(도 13).

바닥판도 두 신발의 문양 배치는 상당히 유사한데, 테두리를 따라서 스페이드 문양의 종속문양대를 배치한 후, 주문양은 중앙의 거대한 육각형을 중심으로 상하에 각각 2개의 마름모꼴을 연결하여 문양 구획을 마련했으며, 문양 구획의 모서리 연결부에는 각각 원형의 연화문을 배치하였다. 연화문은 모두 18개가 배치되었으며 연화문 중앙에 뾰족한 원추형의 스파이크를 꽂아서 장식하였다. 주문양은 모두 5칸으로, 맨 위부터 귀면문, 쌍조문, 용문, 쌍조문, 괴수문 등이 배치되었으며, 좌우의 빈 공간에는 각각 새 문양을 배치하였다(도 14). 역시 투각기법으로 문양 구획을 따낸 후, 문양을 투각하고 각종 조금기법으로 장식하였다.

측판부와 바닥판의 문양 표현은 대부분 삼각형의 정을 이용한 축조기법을 사용했는데, 중간 중간의 새 문양 표현에서는 눈동자 부분을 어자문(魚子文) 정을 이용하여 표현한 예들이 확인된다. 어자문이 사용된 곳은 여러 곳인데, 사용된 어자문 정의 크기가 지름 0.9mm, 1.4mm 등 여러 가지이며, 작은 원을 표현할 때에도 어자문정을 사용하지 않고 파새김하거나 축조기법으로 표현한 예들도 있어서 다양한 정을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도 15). 한편, 바닥판에 표현된 연화무들은 모두 6개의 꽃잎을 가진 형태인데, 꽃잎마다 중앙에 양각선이 장식되어 있다. 이 양각선은 날카로운 정을 이용하여 금속판을 파서 새기는 파새김(陰刻, engraving)



도 13. 봉덕리 우측신발 뒤축 세부.

기법으로 표현된 것으로서, 정으로 파낸 흔적이 보인다(도 16). 지금까지의 동아시아 고대 금속공예 기법 연구에서는 어자문기법이나 파새김기법이 대체로 7세기 이후에 발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sup>14)</sup> 봉덕리 금동신발의 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미 백제 5세기 중후반 경에는 이러한 기법들이 모두 백제에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도 14. 봉덕리 좌측신발 바닥판.

봉덕리 금동신발에 사용된 어자문기법과 파새김기법은 삼국시대 금속공예품 중에서는 비교적 이른 예들로서 매우 중요하다.

14) 기존 학계에서의 어자문기법은 수당대 이후 페르시아 금속공예의 전래 이후에 들어온 새로운 기법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연구에서는 몽골의 흉노시대에 이미 북방계 금속공예기법으로서 이러한 기법들이 사용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백제에서는 639년에 봉안된 미륵사지 출토 사리장엄구의 어자문기법이 가장 이른 예라고 알려져 왔으나, 최근에는 백제 무령왕릉의 환두대도에서도 어자문기법이 사용되었던 예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으로 본다면, 봉덕리 금동신발에 보이는 어자문기법은 현존하는 백제 및 삼국시대 금속공예품 중에서 가장 이른 실례가 되는 것으로서 중요하다. 향후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무령왕릉 환두대도의 어자문기법과 어자문에 대한 기존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주경미, 2020, 『무령왕릉 출토 금속공예품의 현황과 특징』, 『무령왕릉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하며』, 무령왕릉 발굴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국립공주박물관, pp. 104-105 참조.



도 15. 봉덕리 금동신발 우측신발 측판 세부. 어자문기법.



도 16. 봉덕리 금동신발 좌측신발 바닥판 연화문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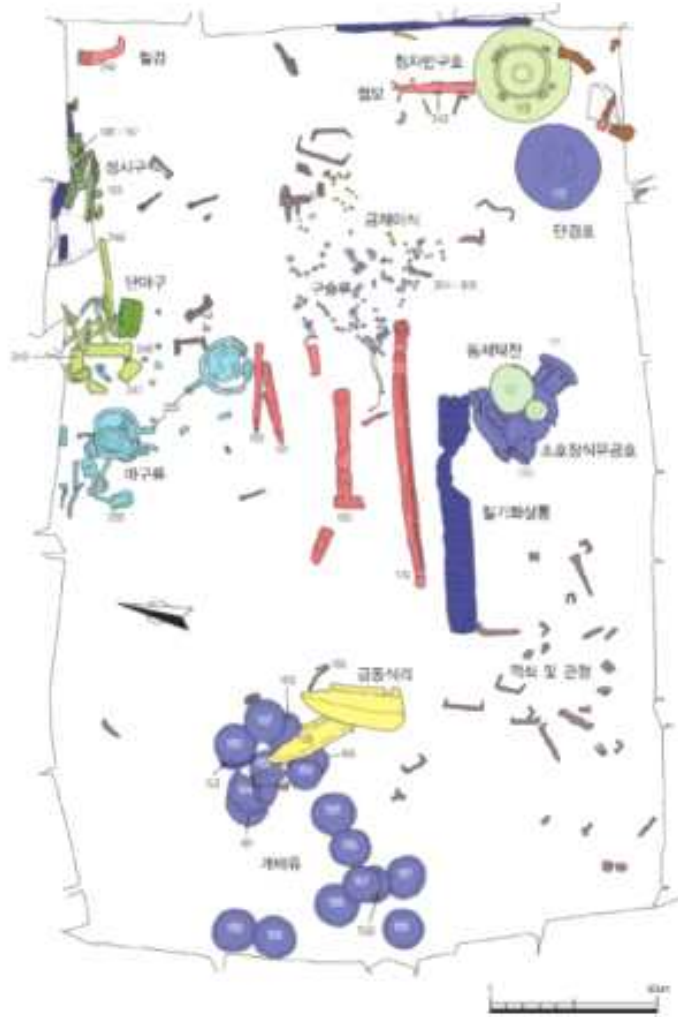
봉덕리 금동신발의 바닥면과 양측판에 새겨진 각종 문양들의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선행연구들이 있는데 대부분 한대(漢代) 이후의 중국 전통적, 혹은 도교적 사후세계관, 혹은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오는 각종 도상들과 관련하여 연구가 이루어진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각종 도상들의 구체적 의미나 전체적인 도상의 의미 파악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인면조의 경우에는 천추 만세와 같은 영생을 상징하는 영물(靈物)로 보고 있지만, 각종 용이나 새, 그리고 연화문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많은 편이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당시 세계관의 변화와 함께 좀 더 연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 기 타

고창 봉덕리 금동신발은 2009년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 진행한 고창 봉덕리 1호분 제 2차 발굴 과정에서 출토되었다. 발굴보고서는 2012년에 1권 발간했고, 2016년에 종합보고서 3권으로 최종간행되었다. 현재는 국립전주박물관으로 국가귀속된 상태이다. 봉덕리 1호분 4호석실에서는 이 신발 이외에 유리를 장식한 은제관식편, 금제이식 2쌍, 각종 장식 및 구슬들, 장식대도 및 녹각병도자, 중국제 청자광구육이호, 철제 마구와 무구, 토기 등 다수의 유물이 발견되었다(도 17). 출토품들은 중국제 청자, 일본계 토기 및 백제계 금속제 장신구 등이 발견되어, 당시 전북 고창 지역 수장들의 독특한 문화적 발달 양상과 국제 교류 양상을 보여준다.

5세기 전북 고창 지역과 백제 중앙정부간의 정치적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나, 이 금동신발의 경우에는 제작기법이나 양식 등으로 볼 때, 백제 금공품 양식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도 17.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유물 출토 상태.  
 종합발굴보고서 도면(2016), p. 56, 도면 38.



○ 현 상



그림 1. 고창 봉덕리 1호 4호 석실 출토 금동신발



그림 2. 오른쪽 금동신발 뒤꿈치 부분 결실 상태



그림 3. 고창 봉덕리 1호 4호 석실 출토 금동신발 앞쪽 모습



그림 4. 왼쪽 금동신발 뒤축 결실 모습

거의 원형에 가까운 금동신발 1쌍으로 발목 덮개·좌우 측판·바닥판의 4개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발목 가리개는 높이 2.0cm 크기의 금동판 1매를 구부려 좌우 측판 안쪽에 대고, 발등부위에서 우측 가장자리를 좌측 가장자리 위로 오게 겹치고, 위쪽 부위에 1개의 리벳으로 고정하고, 좌·우의 측판과는 각각 5개의 리벳으로 고정하였다. 좌우 측판의 발등부 하단 가장자리는 ‘∟’자 형태로 만들고, 뒤꿈치의 하단 가장자리는 ‘┌’ 형태로 만들고, 그 안에 바닥판을 끼우고, 좌·우 각 1개의 리벳을 박아 고정하였다. 하단을 구부린 측판과 바닥판이 겹치는 곳의 좌·우에 각각 1.5mm 크기의 못구멍은 우측이 4개이고, 좌측 신발이 3개로 다르다. 오른쪽 신발은 앞측에서 뒤꿈치 방향으로 3번째 구멍에만 리벳이 박혀 있고, 왼쪽 신발은 2번째 구멍에만 리벳을 박았다. 좌·우 측판과 바닥판에는 투조·축조·음각·어자문 기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문양을 장식하였다.

신발의 형태는 앞코가 약간 뽕족한 침두형이고, 뒷꿈치는 둥글게 처리하였다.

금동신발은 왼쪽 신발의 우측판 하단 뒤꿈치 가까이 일부가 부서졌고, 우측판 하단 가장자리의 발뒤꿈치 가까이의 바닥판을 받치는 부분이 일부 결실되었다. 발목 덮개의 뒤꿈치 일부가 파손된 것을 복원한 것 외는 보존상태는 매우 양호하고, 찌그러진 부분도 거의 없다. 금동 녹이 표면에 수착되었고, 오른쪽 신발의 발목 덮개판 일부가 결실되었다.

### ○ 내용 및 특징

왼쪽과 오른쪽 신발 모두 발목 덮개판, 좌우 측판, 바닥판의 3부분으로 이루어졌고, 판의 두께는 0.6mm이다. 동판 위에 수은 아말감으로 도금하였다. 발목 덮개판은 장식이 없는 높이 2.5cm, 두께 0.3mm의 금동판 1매를 길게 종타원형으로 만들고, 발등 중앙부에서 양 끝을 꺾친 후 위쪽에 구멍을 뚫어 리벳으로 고정하였다. 발목 덮개판 하단 가장자리를 좌우의 덮개판 상단 가장자리 안쪽에 겹치게 하고 측판 방향에서 안쪽으로 향하도록 머리 지름 3.7mm~3.8mm 크기의 리벳을 일정간격으로 좌·우 측판 각각 4개를 박아 고정하였다(馬韓·百濟文化研究所·高敞郡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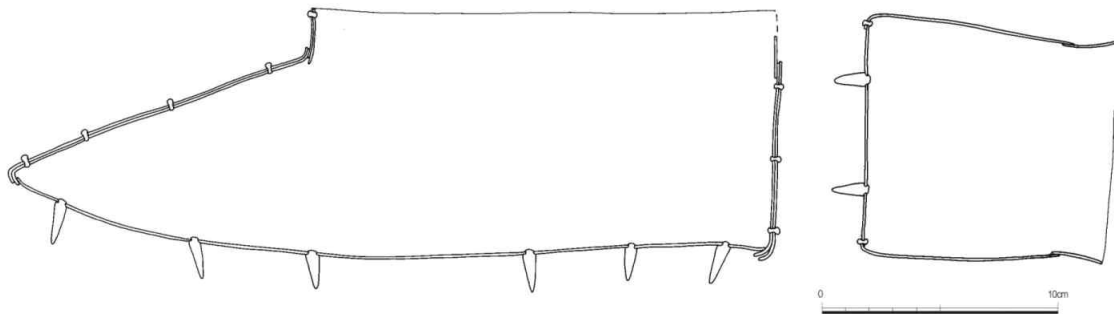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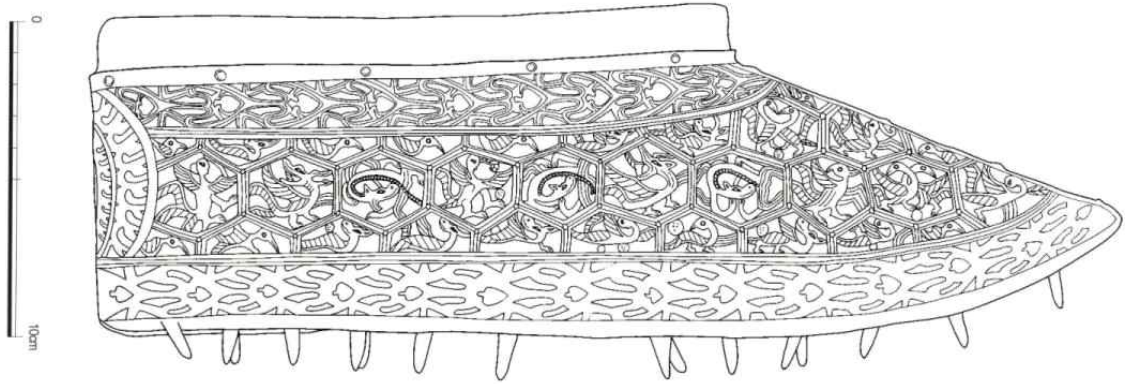


그림 85.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우측 금동신발 이음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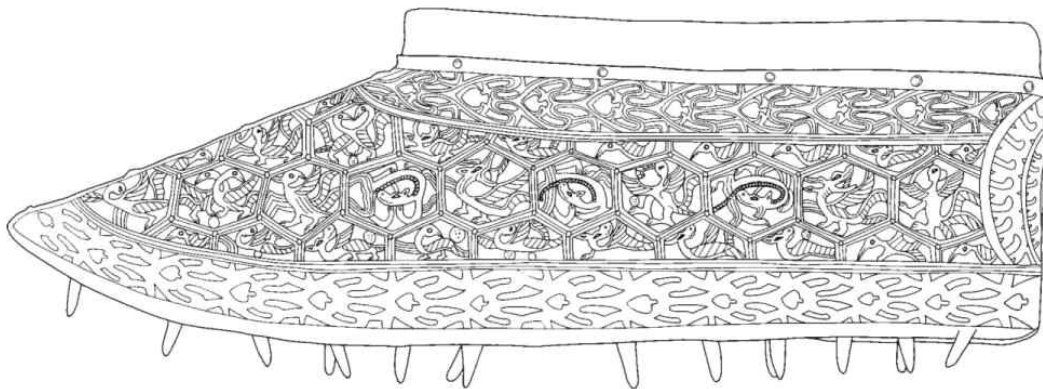
오른쪽 신발은 좌·우 측판을 3부분으로 구획하였다. 발목에서 바닥으로 향해 위에서 아래로 14.5mm(좌측), 15.6mm(우측)까지에 해당하는 상단은 위쪽 가장자리의 높이 3.4mm는 발목 가리개와 겹치도록 하였다. 상단의 스페이드문은 발등방향으로 향하도록 모두 9개를 투조와 축조기법으로 장식하였다. 상단과 중단 사이는 2.54mm 너비로 세로방향으로 발등에서 뒤꿈치까지 장식을 하지 않아 구분하였다.

중단은 높이가 뒤꿈치에서 34.8mm이나 에서 발등 방향으로 가면서 높아져 43.0mm 이고, 발등 중앙부의 사선을 이루는 높이는 73.0mm 내외이다. 가운데에 해당하는 부위에는 가로로 육갑문을 10개 일렬로 배치하였는데, 발등과 뒤꿈치 가까이에 위치한 육갑문은 테두리가 완전하게 표현되지 않았다. 가운데의 육갑문 위와 아래쪽에 위치한 육갑문은 일부만 표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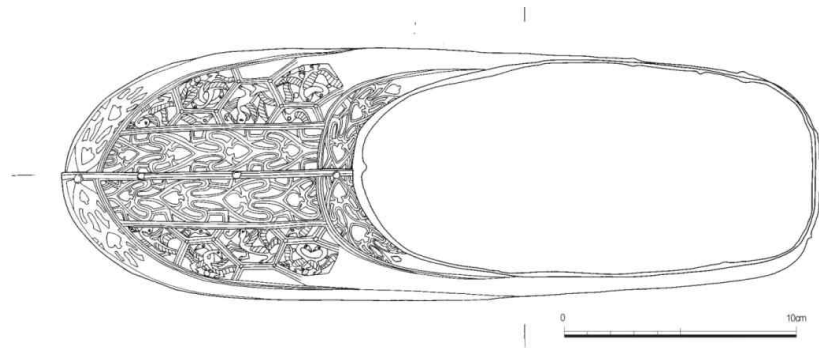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우측 금동신발 우측판

위쪽의 육갑문은 모두 9개이며, 내부에는 발등에서 뒤꿈치 방향으로 향해, 얼굴이 정면을 바라보는 새→얼굴을 꼬리쪽으로 바라보는 새→두마리가 서로 마주보고 부리를 맞대고 있는 쌍조(쌍조)와 쌍조의 다리 사이에 인면(人面)→얼굴을 꼬리쪽으로 바라보는 빨달린 용(?)→얼굴을 꼬리쪽으로 바라보는 용→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새→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새→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새→얼굴을 꼬리쪽으로 바라보는 용→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새 순서로 배치하였다.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우측 금동신발 좌측판 문양

가운데의 육갑문의 크기는 세로 25.2mm, 가로 26.9mm이며, 동일하지는 않고, 각 변의 길이가 동일한 것과 동일하지 않는 것도 있다. 내부에는 발등에서 뒤꿈치 방향으로 향해 얼굴을 꼬리 쪽으로 바라보는 새→목을 교차시켜 얼굴을 서로 반대로 보는 쌍조와 쌍조 다리 아래의 인면→얼굴을 꼬리 쪽으로 바라보는 새→목을 'ㄴ'자 모양으로 구부리고 앞을 향해 응시하는 입을 다문 용→목을 'C'자 모양으로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우측 금동신발 발등 문양

구부리고 얼굴이 뒤로 향해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목을 ‘ㄷ’자 모양으로 구부리고 앞을 향해 응시하면서 입을 다물고 있는 용→앞쪽으로 보고 있는 인면조신과 날개와 오른쪽 다리 사이의 인면→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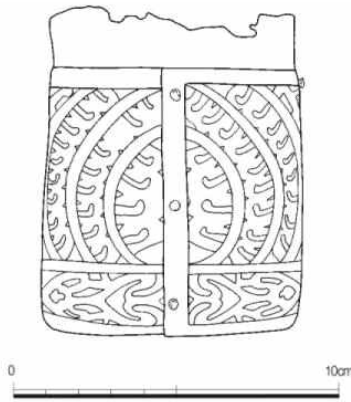
‘ㄷ’자 모양으로 구부리고 앞을 향해 응시하는 입을 다물고 있는 용→목을 ‘C’자 모양으로 구부리고 얼굴이 뒤로 향해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앞쪽으로 보고 있는 인면조신 순으로 배치하였다.

아래쪽의 육갑문 내부에는 발등에서 뒤꿈치 방향으로 향해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새→얼굴을 꼬리 쪽으로 바라보는 새→얼굴을 뒤로 돌리고 위를 바라보는 새와 날개 위쪽의 인면→얼굴을 꼬리 쪽으로 바라보는 새와 엉덩이 위쪽의 인면→얼굴을 뒤로 돌리고 위를 바라보는 새와 가슴 아래의 인면→얼굴을 뒤로 돌리고 위를 바라보는 새→얼굴을 뒤로 돌리고 위를 바라보는 새→얼굴을 뒤로 돌리고 위를 바라보는 새와 날개 위쪽의 인면→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새→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새 순으로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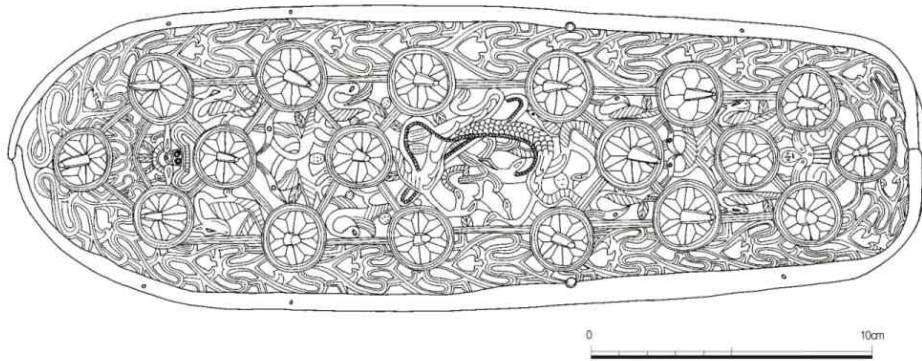
하단은 높이가 17.4mm이고, 화염문이 투조되었고, 모두 14개의 단위로 이루어졌다.

발등은 가운데에 좌측 측판이 아래, 우측 측판이 위로 겹치게 하고, 머리 지름이 4.6mm 크기인 리벳 4개를 일정 간격으로 박아 고정하였다. 발등의 이음부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로 각각 앞꿈치에서 15.3mm, 발등 위쪽에서 17.9mm 너비의 방패 모양의 구획을 하였다. 좌측 구획 내부에는 4개의 스페이드문을 앞꿈치 방향으로 배치하고, 우측 구획 내부에는 발등 위쪽 방향으로 4개의 스페이드문을 배치하였다. 발등 상단에는 양 측판의 이음부위 방향으로 향해 좌·우에서 각각 3개의 스페이드문을 배치하였다.

뒤꿈치는 좌·우측판을 발등과 반대로 좌측판이 우측판 위로 겹치게 하고, 리벳 3개를 일정간격으로 박아 고정하였다. 화염문이 장식된 상단과 스페이드문이 장식된 하단으로 나뉜다. 상단의 화염문은 투조로 3겹이다. 하단은 이음부를 기준으로 좌·우 방향으로 배치되었다.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우측 금  
동신발 뒤꿈치 문양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우측 금동신발 바닥판 문양

바닥판은 연화문을 3열로 배치하여 3부분으로 구분하였다. 바닥 한 가운데에 머리와 몸통을 ‘ㄷ’모양으로 구부리고 머리를 앞꿈치 방향으로 입을 벌려 바라보는 용을 배치하고, 앞쪽과 뒤쪽에 각각 3개의 연화문을 배치하였다. 가운데의 연화문 열의 좌우에도 일정간격으로 각각 6개의 연화문을 배치하였으며, 모두 18개이다. 연화문의 크기는 15.9mm이고, 화판은 6엽이고, 자방 부위에 스파이크가 박혀있다. 스파이크는 뿔 모양이고, 길이 16.0mm, 지름은 5.3mm이다. 연화문과 연화문은 2.9mm의 판으로 이어져 있다. 4개의 연화문을 연결하면 능형문(◇)이 되고, 6개를 연결하면 육갑문이 된다. 가운데의 문양은 앞꿈치부터 뒤꿈치 방향으로 향해 연화문→귀면문과 그 위의 화염문→연화문과 아래 위의 조문→목을 엇갈리게 하여 머리가 반대방향으로 배치한 쌍조문과 쌍조의 가슴 사이의 인면→연화문과 아래 위의 조문→용문과 용의 목 아래 위, 뒤의 새 머리와 용 목 뒤의 인면 →연화문과 아래 위의 조문→부리를 맞대고 있는 쌍조문→연화문과 위 아래의 조문→양 팔을 벌리고 쪼그려 앉아 있는 원숭이문→연화문 순으로 배치되었다. 좌·우측 가장자리에는 앞꿈치 방향으로 스페이드문을 배치하였다.



그림 9.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좌측 금동신발 측판의 스페이드문



그림 11.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좌측 금동신발 측판의 용문 인면조신문 용문



그림 10.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좌측 금동신발 측판의 쌍조문



그림 10.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좌측 금동신발 발등 문양



그림 11.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좌측 금동신발 뒤꿈치 문양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좌측 금동신발 바닥판의 귀면문과 연화문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좌측 금동신발 바닥판 연화문

상단의 화염문에는 축조, 새와 용의 눈은 어자문, 새 날개와 용 날개는 음각기법으로 표현하였다. 오른쪽 신발의 좌·우 측판 문양의 수와 배치 순서는 동일하다.

왼쪽 신발의 좌·우 측판은 오른쪽 신발의 좌·우측판과 동일한 3단 구도와 동일한 문양을 동일한 수만큼 배치하였다. 우측 신발 발등부의 방패모양으로 구획된 내부의 좌우 스페이드문양은 방향이 반대이지만, 좌측 신발 발등부의 방패모양으로 구획된 좌·우측 내부 스페이드문양은 발등 위쪽 방향으로 배치하였다. 뒤꿈치의 문양 구도와 종류 및 배치는 좌·우 신발 동일하다. 바닥판의 문양중 앞꿈치에서 뒤꿈치 방향으로 귀면문 다음의 쌍조문 발 사이에 인면이 오른쪽 신발에는 있으나 왼쪽 신발에는 표현되지 않은 차이가 있고, 그 외의 문양 구도와 배치는 동일하다.

금동신발은 피장자의 발치 부위에 발등이 피장자의 두부 방향으로 보게 90° 놓여 있고, 오른쪽 신발 바닥면은 바닥에 닿여 있고, 왼쪽 신발은 서쪽 벽을 향해 놓여 있다. 출토 당시 오른쪽 신발 내부에서 뼈가 확인되었고, 피장자의 발치에 양쪽 신발이 가까이에 놓여 있는 출토 상태를 볼 때, 피장자가 착용한 상태로 매장되었음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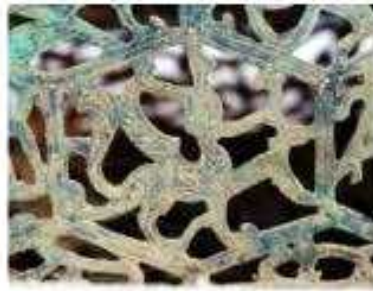
지금까지 백제문화권에서 출토한 금동신발은 무령왕릉과 왕비의 것을 포함해 16점 출토되었다. 16점은 좌우측판의 문양 구성에 의해 투조기법의 T자문, 육각문 내부에 동물문, 타출기법의 능형 또는 육각문으로 크게 구분된다(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7). T자문이 장식된 금동신발로는 공주 수촌리 토광 1호묘, 고흥 안동, 연기 나성리, 공주 수촌리 석곽 8호묘 등이 있다. 투조기법의 육각문 내부에 여러 종류의 동물문양을 한 사례로는 공주 수촌리 석곽 3호와 석실 4호, 고창 봉덕 1호분 4호 석실, 나주 북암리 정촌고분 출토품이 있다. 타출기법의 능형 또는 육각문의 사례로는 익산 입점리 1호 석실, 공주 무령왕릉 왕과 왕비, 나주 북암리 3호분



96석실 4호 옹관 출토품이 있다. 무령왕릉 출토 왕 신발은 은제 내판 위에 금동제 투각 외판을 겹쳐서 만들었고, 왕비 신발은 내외판이 모두 금동제이다. 왕과 왕비 신발 모두 육각문 내부에 각각 꽃과 새 문양을 투각했다.(주경미 2020).



朝陽 十二台88 M1호묘 안창



나주 정촌고분 금동신발



고창 봉덕리 1-4호 석실 금동신발

<동아시아의 육각문>

육각문은 금동신발을 포함해서 환두대도의 병두부, 장식 마구 중 안교, 태환이식의 태환, 무령왕릉 출토 두침과 족대 등에 장식문으로 표현되었다. 육각문의 형태는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의 1.5 이상인 형태, 1.2 내외인 형태, 1 내외인 형태로 구분된다.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좌측 금동신발 바닥판 원숭이문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좌측 금동신발 바닥판 용문

1.5 내외인 형태의 것으로는 朝陽 十二台88 M1호묘 안교에 장식된 육각문이 해당하며, 1.2 내외인 것으로는 나주 정촌고분 1호 석실 출토 금동신발과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출토 금동신발이 해당한다. 1 내외인 것으로는 무령왕릉 출토 금동신발, 경주 식리총 출토 금동신발, 경주 보문리 합장분 출토 금제 태환이식이 해당한다.

朝陽 十二台88 M1호묘는 三燕의 前燕期の 것으로서 그 시기는 4세기 중엽 또는 후반으로 편년된다. 무령왕릉과 식리총은 6세기 전반으로 편년되고, 보문리 합

장분은 6세기 중엽으로 편년된다. 위의 편년을 고려하면,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과 고창 봉덕리 1-4호 석실 출토 금동신발은 무령왕릉과 식리총 출토 금동신발보다 형태적으로 앞선다. 육각문의 형태로 보았을 때,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과 고창 봉덕리 1-4호 석실 출토 금동신발의 육각문은 무령왕릉과 식리총 출토 금동신발의 육각문에 더 가까우므로 그 시기는 무령왕릉 출토품보다 앞선 5세기 후반으로 볼 수 있다.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과 고창 봉덕리 1-4호 석실 출토 금동신발의 육각문은 5세기 후반의 육각문의 형태를 알려주는 점에서 중요하다.



광주 무녕왕릉 왕 금동신발



경주 식리총 금동신발



경주 보문리 합장분 태환이식

나주 정촌고분 1호 석실과 고창 봉덕리 1-4호 석실, 경주 식리총 출토 금동신발 측판과 바닥판에 장식된 문양으로 연화문과 쌍조문이 있고, 나주 정촌고분 1호 석실과 경주 식리총 출토 금동신발 바닥판에는 귀면문이 표현되어 있다.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은 바닥판 중앙에 1개의 연화문만 배치되었고,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금동신발 바닥판에 모두 18개의 연화문이 배치되었다.



나주 정촌고분 바닥판

경주 식리총 출토 금동신발 바닥판에는 11개의 연화문이 배치되었다. 연화문의 배치 방식과 형태, 연화문 중앙에 스파이크를 박은 점 등에서 고창 봉덕리 금동신발과 경주 식리총 출토 금동신발이 유사하다.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출토 금동신발 바닥판의 연화문은 중앙과 좌·우 각각 6개의 연화문이 배치되었으나 경주 식리총 출토 금동신발에는 앞쪽에 6개를, 뒤쪽에 5개의 연화문을 배치하였다. 연화문의 형태는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금동신발에는 6엽이고, 경주 식리총 출토 금동신발의 연화문은 8엽으로 다르다.



정촌고분



식리총

<정촌고분 1호 석실과 식리총 출토 금동신발의 귀면문>



고창 봉덕리 1-4호 바닥판



경주 식리총 바닥판

<금동신발 바닥판의 연화문>

귀면문의 경우, 나주 정촌고분 1호 석실 출토품은 투조기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되었으나 경주 식리총 출토품은 도식적으로 표현되었다.

육각문의 형태와 더불어 연화문과 귀면문의 형태 등을 비교하였을 때,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과 나주 정촌고분 1호 석실 출토품이 경주 식리총 출토 금동신발보다 시기적으로 빠른 것은 분명하다. 나주 정촌고분 1호 석실 출토품과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출토품간의 선후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공반한 유물, 특히 토기를 비교하면, 고창 봉덕리 1호 석실이 나주 정촌고분 1호 석실의 2차 추가매장보다 다소 빠를 가능성은 있으나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 ○ 문헌자료

馬韓·百濟文化研究所·高敞郡 2016, 『高敞 鳳德里 1號墳-종합보고서-』

성운길 2020, 「고창 봉덕리 고분 출토 금동신발의 문양 특징과 의미」 『사적 제 531호 高敞 봉덕리 고분군의 가치와 사적 확대지정 방안』 고창 마한고분군 사적(확대)지정을 위한 학술심포지움,

이문형 2015, 「제작기법과 문양을 통해 본 백제 금동신발의 편년」 『중앙고고연구』 18, 재)중앙문화재연구원

이문형·유수화 2015, 「고창 봉덕리1호분 출토 금동신발의 제작방법과 문양-4호석실 출토품을 중심으로-」 『馬韓·百濟文化』 25

### ○ 기 타

이 금동신발 1쌍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한 고창 봉덕리 1호분 발굴조사의 4호 석실에서 출토되었고, 국가귀속 대상 매장문화재임

### 3.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 (羅州 丁村古墳 出土 金銅飾履)

#### 가. 심의사항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된('20.4.21.)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과 관련하여, 동종문화재인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의 비교조사 필요성이 제시되어 관계전문가 조사('20.7.27.)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2021년도 본 위원회 제1차 회의('21.2.4.)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1.2.25.~'21.3.25.)하였으나, 지정명칭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었음.
- 이에, 조사자 및 지자체, 소장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 검토 및 보물 지정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 [지정명칭에 대한 의견]

문화재명		변경 요청 사유
예고 명칭	변경 요청 명칭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	나주 <u>낭동고분</u> 출토 금동신발	금동신발이 출토된 고분은 현 행정구역상 북암리 ‘낭동마을’로 분류된 지역이므로 행정구역명과 일치시켜 ‘낭동고분’으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명칭변경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조사자·나주시·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검토 결과	사 유
<p style="text-align: center;"><b>현행 유지</b>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촌고분’은 수습 동안 고유명사화되어 학계에서 널리 알려진 명칭으로, ‘낭동고분’으로 변경한다면, 혼란이 가중될 뿐 아니라 고고학적으로도 다른 시기 고분을 의미하게 됨</li> <li>● ‘정촌고분’이 나주시 향토문화유적(제13호)으로 지정되어 있어, 나주시에서는 용어와 행정상 일치를 위해 향후 행정구역을 변경할 예정임 (*복암리 낭동 --&gt; 회진리 정촌)</li> </ul>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羅州 丁村古墳 出土 金銅飾履)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포로 263-23,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수 량 : 1쌍
- 규 격 : ① 우측신발 : 길이 31.83cm. 최대 너비 9.35cm. 최대 높이 14cm.  
② 좌측신발 : 길이 31.09cm. 최대 너비 9.2cm. 최대 높이 14cm.
- 재 질 : 금동
- 조성연대 : 백제 5세기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5~6세기 무렵 영산강유역에는 나주 반남면과 다시면, 영암 시종면에 자리잡은 세력이 가장 강성하였다. 그 중 다시면에서는 북암리고분군, 정촌고분, 영동리고분군 등이 축조되면서 내부적 권력의 이동과 계승 양상을 보여주며 최종적으로는 웅진기 백제 중앙의 통치력이 침투하면서 독자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백제의 지방으로 편제된다.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주는 무덤이 정촌고분이다.

이 무덤은 분구의 한변이 30m, 정지면의 한변이 50m에 달하는 거대 고분이다. 인근의 북암리 고분군이 평지에 축조된 점과 달리 구릉 사면에 축조되어 있다. 북암리 3호분에 매장된 세력과 정촌고분에 매장된 세력의 관계가 동시 병존인지 계승 관계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양자 모두 영산강유역 최강자였음은 분명하다.

정촌고분도 이 지역의 분구묘 전통을 계승하였기 때문에 분구의 수직적 확장과 함께 다수의 매장 주체가 만들어진다. 그 순서는 합구식 옹관에서 횡혈식석실로 전환하는데 중심이 되는 매장 주체 부는 후자이다. 특히 1호 횡혈식석실 3호 목관에서는 완벽한 형태의 금동 신발 1벌이 출토되었다. 좌측 신발 내부에서 인간의 발뻐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시신에 착장한 채 안치되었음이 분명하다.

이 신발은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문양이 화려하며 피장자가 착장한 상태로 출토된 점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발견된 백제계 금동 신발은 국내와 일본을 합하여 20점 정도 되는데 정촌고분 출토품이 가장 화려하다. 인접한 북암리 3호분 96호 석실에서도 금동 신발이 출토되었지만 정교함과 화려함, 보존상태 등에서 정촌고분 출토품과 비교할 수 없다. 문양에서 보이는 상상 속의 동물들은 당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추측하게 해준다. 이 신발은 고대 신발에서 최초로 확인된 발등 부위의 용 장식으로 인하여 용신이란 명칭을 얻게 되었는데, 용에 타고 죽은 자의 영혼이 저승세계로 간다는 내세관을 엿볼 수 있다.

삼국시대 금동 신발 중 유례가 없을 정도로 양호한 보존상태, 화려한 문양과 형태, 그리고 사상적 의미까지 갖추고 있는 이 유물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의 지정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 ○ (지정 가치 있음)

정촌 1호 석실 3목곽 출토 금동신발은 전남 나주시 북암리에 위치한 백제시대 분구묘를 발굴하여 무덤의 구조와 공반유물을 통해 5세기 후반 백제에서 제작하였음을 밝혔다는 점, 또 금동신발이 원형에 가까운 상태로 발굴되어 피장자의 사후 발에 신겨진 채 매장되어 백제시대 장례 문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금동신발은 순동에 수은아말감기법으로 도금하였고, 얇은 금동판 4장으로 바닥판과 좌우 측면판 및 발목깃판을 만들어 리벳으로 연결하였으며, 전체 문양을 투각하고 세부를 선으로 묘사하는 축조기법 등 고대 금속공예의 뛰어난 기술적 수준을 엿볼 수 있어 공예기술적으로도 가치가 있다.

또 이 금동신발에는 육각문, 용문, 인면조신, 괴수문, 연화문 등 다종다양한 문양이 표현되는데, 이것들은 하늘을 상징하고 피장자를 천상으로 이끌며 불교나 도교에 의해 사후 영생을 기원하는 당시인들의 사후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 이것을 정교하고 세밀하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조형적인 가치 또한 우수하다. 더욱이 이 금동신발의 형태나 문양의 양식적 특징들은 같은 시기 중국이나 고구려의 미술품과 비교하여 도상적인 연원이나 변천 및 상징적 의미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 그동안 백제지역에서 출토된 16점 금동신발과 비교하여 백제 공예문화의 독자성을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

이처럼 나주 북암리 정촌 1호 석실 3목곽 출토 금동신발은 5세기 후반 백제를 대표하는 금속공예품으로서 보물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 ○ (지정 가치 있음)

- 1) 이 금동신발 1쌍은 황혈식석실묘인 나주 북암리 정촌1호분 석실에서 출토된 유물로 3, 4회의 추가장이 이루어진 석실의 바닥에서 출토되었다. 도굴의 피해를 입지 않아 다른 유물들과 함께 매장원상을 알 수 있어 고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유물이다.
- 2) 석실의 규모는 길이 480cm, 너비 365cm, 높이 310cm의 장방형 석실에 피장장의 발치부근에서 출토되었다.
- 3) 이 금동신발 1쌍은 각각 전체길이 32cm, 너비 11.5cm, 높이 13.5cm 이다.
- 4) 투조문양은 육각형을 연속적으로 배치하고, 그 안에 동물 등 다양한 문양을 연결하여 채워 넣었다. 발등에는 용머리 장식을 부착하였는데, 오른쪽 발의 용머리장식은 머리부분이 부러져 결실되었다.
- 5) 발목에는 덮개를 추가로 부착하였는데, 이것도 왼쪽발은 탈착되어 있다. 바닥판에는 연꽃과 용을 표현하였고, 24개의 스파이크를 부착하였다.
- 6) 이 금동신발 1쌍은 지금까지 출토된 백제 금동신발 중 가장 화려하고 완벽한 유물이다. 백제고분에서 출토되는 금동신발을 대표할 만한 유물이며, 조형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매우 우수한 형태이며, 고고학 학술자료로도 높은 가치가 있어 국가지정유물(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 ○ (지정 가치 있음)

전남 나주시 북암리 정촌고분 1호석실 제3목관에서 출토된 <나주 정촌고분 금



동신발>은 삼국시대 백제식 장송의례용 금동신발로서, 보기드물게 보존상태가 양호하게 출토된 중요한 고대의 금속공예품이다. 현존하는 삼국시대의 금동신발 중에서는 유일하게 발등 부분에 용머리 장식이 부착된 보기 드문 예이며, 측판에 표현된 각종 서수문들의 도상도 독특한 예들로서 주목된다. 이 금동신발은 고창 봉덕리 금동신발보다는 조금 늦은 5세기 후반경에 제작된 금동신발로서, 봉덕리 금동신발과는 다른 도상 배치와 구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중요한 작품이며, 이후 6세기 전반의 백제 무령왕릉 출토 금동신발로 이어지는 과도기적 단계로 볼 수 있어서, 5세기에서 6세기로 넘어가는 백제 미술과 사상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금동신발은 백제 미술을 대표하는 금속공예품으로서 보물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

### ○ (지정 가치 있음)

나주 정촌고분은 분형이 방형이고, 분구 직경이 50m인 거대 고분으로서 인근의 복암리 고분군과 더불어 삼국시대 마한사회의 최고 지배세력의 존재를 나타낸다. 이 고분의 중심 매장주체시설인 1호 횡혈식석실의 현실 중앙부의 관대석 사이에서 금동신발 1쌍이 출토되었다. 1쌍 모두 발등이 서쪽으로 향하고, 왼쪽 신발은 바닥이 지면을 향하여 놓였고, 오른쪽 신발은 바닥이 연도 방향으로 향해 있었다. 왼쪽 금동신발 뒤꿈치에서는 발 뼈가 확인되어 금동신발을 신은 상태로 매장하였음을 알 수 있어 삼국시대 마한의 최고지배세력뿐만 아니라 삼국의 최고 지배층의 매장풍습과 관념을 복원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리고 백제 중앙과 마한 지배세력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정촌고분 1호 석실 출토 금동신발 1쌍은 고창 봉덕리 4호 석실과 경주 식리총 출토 금동신발과 함께 문양 장식이 화려할 뿐만 아니라 금동신발의 제작기술, 신발에 장식된 다양한 문양의 특징과 의미 등은 삼국시대 백제(마한) 지배층의 신앙관, 사후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 금동신발은 지금까지 출토한 삼국시대 금동신발중에서 유존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삼국시대 금동신발의 원형과 장식문양, 제작기술의 특징과 의미, 발등의 용문장식, 매장시의 착용 여부와 착용 모습 등을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서 국가지정 문화재(보물)로의 지정 가치가 매우 높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 조사보고서



### ○ 현 상

금동제 신발의 왼쪽과 오른쪽 1벌로 구성된 유물이다. 투조한 3매의 금동판을 이용하여 만들었는데, 저판과 좌우 측판을 결구하고 발등 부위에 용이 머리를 들고 입을 벌린 형태의 장식을 리벳으로 고정하였다. 발목 윗부분에는 금동제 판을 감아서 발목 윗부분을 덮는 발목 덮개를 추가하였다. 금동판의 두께는 0.5~1.0mm 정도이다. 좌측판과 우측판의 하단을 구부려 저판을 넣어서 고정하고, 발등과 뒤꿈치 부분에서 좌우 측판을 겹쳐 리벳으로 고정하는 정형적인 백제식 신발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림 1> 나주 정촌 금동신발(좌) 및 우측 신발 세부(우)

전체적으로 상태는 양호하지만, 오른쪽 신발의 발목 덮개는 찌그러지고 일부 결실된 상태이다. 좌우 측판을 겹친 부분에 S자 모양의 얇은 금속판을 리벳으로 결합하고 그 끝에 용머리를 고정하였는데 왼쪽 발은 완전하고, 오른발의 것은 머리 부위가 결실되었다. 저판에는 각각 24개의 스파이크가 박혀 있다. 군데군데 청동 녹이 퍼져 있지만, 보존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 ○ 내용 및 특징

백제유적에서 발견된 금동제 신발은 20점 정도이고 여기에 일본에서 발견된 백제계 신발을 합하면 25점 정도가 된다. 이 신발들의 특징은 3매의 판을 이용하여 한 장은 저판으로, 나머지 2판은 좌우 측판으로 이용하여 3자를 결합하는 방식이란 점이다. 이는 평평한 저판만 금속으로 사용한 고구려와 다르고, 발등 부분을 별도로 만들어 삽입시키는 신라식과도 다르다.



<그림 2> 백제계 금동신발 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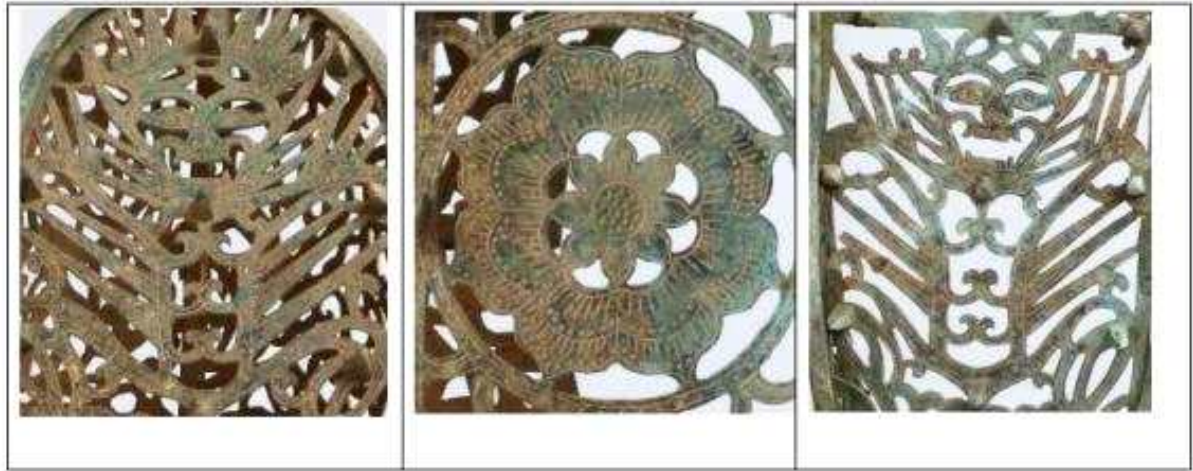
백제의 금동제 신발은 한성기부터 출현하여 용진기까지 사용되었다. 초기에는 T자 모양의 문양을 연속 투조하는 비교적 단순한 문양을 취하지만 점차 복잡한 동물, 식물문을 투조로 표현하는데, 귀갑문(육각형)이 기본을 이룬다. 점차 단순화 되어 투조가 아닌 타출로 문양을 표현하게 되는데 일본에서 발견된 백제계 신발은 모두 타출 문양이다. 이러한 신발들은 백제 중앙만이 아닌 지방의 수장급 고분에서 금동관모, 중국제 도자기와 세트를 이루고 발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 의미는 중앙 정부가 새로 접수하거나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지방 세력을 포섭하기 위한 일종의 위세품으로 사용하였다는 견해가 정설이다.

지금까지 출토된 신발 중에서는 공주 무령왕 부부의 것이 가장 화려하지만, 보존상태는 그다지 좋지 않다. 반면 정촌고분 출토품의 보존상태는 용머리, 발목 덮개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완벽한 상태이다.

좌우 측판은 귀갑문을 기본으로 하고 그 내부에 각종 무늬를 베푼 형태이다. 귀갑문은 4단이지만 최상단과 최하단은 불완전하고 내부의 2, 3단은 완전하다. 귀갑문은 백제의 금동관모, 환두대도 등 금속공예품은 물론이고 무령왕 부부의 목제 두침과 족좌에서도 확인된다.

정촌 신발 좌우 측판의 귀갑문 내부에는 새가 날아가고 착지하는 모습, 봉황, 용, 두 귀 달린 짐승, 일신쌍두, 불꽃무늬 등 다양한 무늬가 시문되는데 그 종류

및 의미에 대해서는 고구려 벽화, 중국의 문양 및 설화와 연결 지어 설명할 부분이 많다.



<그림 3> 정촌 금동 신발 저판의 문양(좌: 발등 쪽, 중: 중앙, 우: 뒤꿈치 쪽)

저판의 문양은 3단으로 나뉘어 있다. 중앙은 연화문, 앞과 뒤는 동일한 형태의 귀문이다. 이 점에서 18개의 원과 연화문이 단위로서 바닥을 가득 채운 봉덕리 신발과 다른 점이 있다. 중앙의 연화문은 중앙에 8엽의 연화를 배치하고 그 바깥에 중판 연화문을 이중으로 배치한 형태인데 바깥의 연화문에는 타출로 어자문을 표현하였다. 연화문의 직경은 5.70cm이다. 연화문의 앞쪽과 뒤쪽에는 전신이 투조로 표현된 도깨비가 모두 발등 쪽을 향하여 배치되어 있다. 입을 벌린 우스꽝스러운 얼굴, 다리를 벌리고 팔을 들고 있는 형태이다. 스파이크는 저판의 안에서 바깥으로 관통시켜 안에서 리벳으로 고정하였는데 단면은 사각형이다. 발목 덮개는 폭 5cm, 길이 24.3cm, 30.6cm 정도가 되는 금동판 2매를 측판의 안에서 고정시키고 발등과 뒤꿈치 부분에서 리벳으로 결구하였다.

좌·우 측판이 겹치는 발등에 긴 금동판을 고정한 후 끝 부분에 리벳을 이용하여 용의 머리를 표현하였다. 결국 긴 금동판은 용의 몸통처럼 표현되었다. 오른쪽 신발의 용 머리는 결실된 상태인데 남아 있는 왼쪽의 경우 용 머리 크기는 길이 5.11cm, 높이 2.68cm 정도이다.

금동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동판은 구리 100%이고, 도금층은 금 70~80%, 수은 10~16%로 확인되며 아말감 기법을 이용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림 4> 고창 봉덕리와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 신발의 비교

정촌 신발과 가장 유사한 비교 대상은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출토 신발이다. 저판과 좌우 측판을 리벳으로 고정하는 전형적인 백제식 결구 방식을, 귀갑문을 기초로 하고 그 안과 바깥에 다양한 동물과 식물 무늬를 베푸는 문양, 금동판을 감아서 발목 덮개를 추가하는 형태, 스파이크를 고정하는 방법 등이 그러하다. 특히 양자는 저판에 연화문을 시문한 것이 공통적인데 그 형태와 배치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다.

정촌고분의 연대는 공주 무령왕릉보다는 앞선 것으로서 한성기 말이나 웅진기 초에 해당된다. 고창 봉덕과는 거의 비슷한 시기로, 경주 식리총보다는 앞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연대관은 출토된 신발의 구조와 문양에서도 뒷받침된다. 정촌고분과 봉덕고분 출토 금동 신발로 인하여 그동안 제작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던 경주 식리총 출토 신발이 백제산일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큰 성과이다.

정촌고분이 지닌 고고학적, 역사학적 의미 못지않게 이 고분에서 출토된 금동 신발은 삼국시대 금속공예품의 걸작으로서 무령왕릉 출토 유물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조형적인 완성도가 높다. 귀갑문 안팎에 표현된 다양한 문양은 중국 및 고구려와 교류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고대인들의 사상적인 모습을 반영한다. 게다가 다른 신발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발등의 용 장식으로 인해 고대인들의 저승세계와 내세관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이 유물의 의미는 매우 크다.

○ 문헌자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국립나주박물관, 2015, 『마한의 수장, 용신을 신다』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5, 『삼국시대 북암리 세력의 위상과 주변지역의 동향』 ,  
 개소1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7, 『羅州 丁村古墳』 .  
 이현상·이혜연·오동선·강민정, 2018, 「나주 북암리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의  
 제작기술과 복원」, 『문화재』 51-2,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국립나주박물관, 2019, 『고대 동아시아의 금동신발과 금동관』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국립나주박물관, 2019, 『나주 북암리 정촌고분 -마한 사  
 람들, 큰 무덤에 함께 잠들다-』 .  
 주경미, 2020, 「무령왕릉 출토 금속공예품의 현황과 특징」, 『무령왕릉 새로운 반세  
 기를 준비하며』 , 공주시·국립공주박물관·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기 타

금동 신발 1벌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총 422일)에 걸친 나주 정촌고분  
 발굴조사에서 출토되었고, 국가귀속 대상 매장문화재임



나주 정촌 1호분 출토 금동신발

○ 형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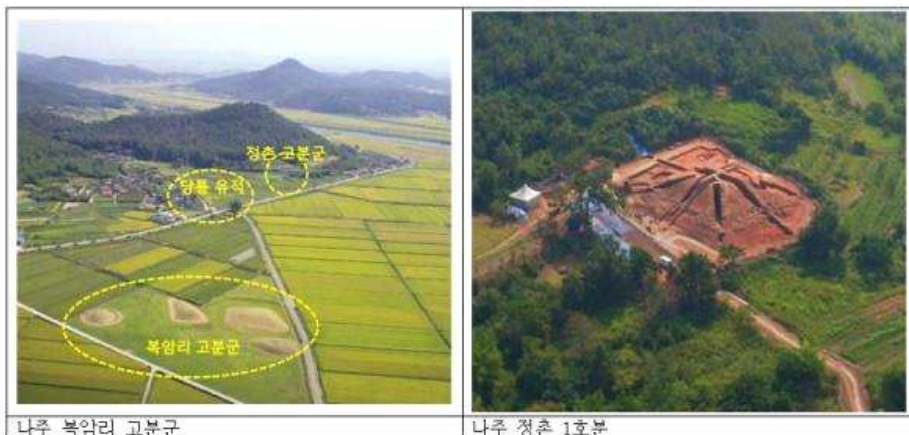
나주 북암리에 위치한 정촌 1호분은 삼국시대의 대형 분구묘로서, 2014년 이중 3호  
 목관의 하단부에서 좌우 1쌍의 금동신발이 출토되었다. 이 정촌 1호분 3호 석실에  
 서 출토된 금동신발은 얇은 금동판에 각종 문양을 투각한 몸체와 발목깃판 및 용

문양의 발등장식으로 구성된 백제의 장송의례용 금속공예품으로서, 그동안 발견된 금동신발 16점 중 원형을 잘 보여주고 보존상태도 좋은 편이다.

금동신발 중 왼쪽 신발은 길이 31.09cm, 최대 너비 9.2cm, 최대 높이 14cm이고, 오른쪽 신발은 길이 31.83cm, 최대 너비 9.35cm, 최대 높이 14cm이다. 금속의 성분 분석 결과 재료는 순동이고 표면의 도금층에서 은(Ag)이 검출되어 수은아말감 도금법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동신발의 몸체는 0.5-1.0mm 두께의 얇은 금속판으로 바닥판, 우측판, 좌측판의 3장을 만들되 그 안에 각종 문양을 투각하고, 이것들은 판을 겹친 후 리벳으로 고정하여 만들었다. 좌우 신발의 바닥판에는 길이 11mm, 너비 5mm의 뾰족한 스파이크 24개를 바닥판에 뚫린 구멍에 꽂아서 위로 두드려 박혀 있다. 발목깃판은 0.5-0.6mm의 조금 얇은 판으로 만들되, 높이 5cm로 측판 위쪽에 붙이고, 좌우측판이 맞물린 발등 위에는 별도의 용문양 장식판을 두드려서 만들어 덧대서 장식하고 있다. 특히 용문양 장식판을 금동신발 위에 장식한 신발은 지금까지 출토된 20점의 삼국시대 금동신발 중 유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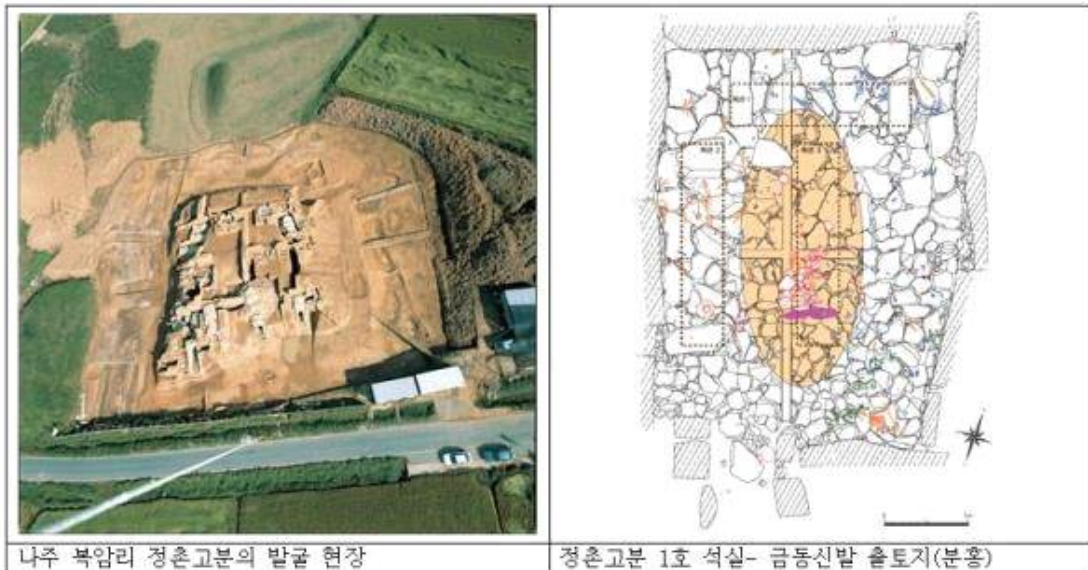
금동신발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배와 비슷하여 앞쪽은 뾰족하면서 약간 위로 들리고 중간 발바닥은 편평하고 뒤쪽은 약간 좁아지며 둥근 편이다. 이 금동신발의 제작기법은 투각기법으로 문양을 뚫고 문양의 세부는 축조기법으로 표현하였다. 문양은 육각형으로 구획된 형태 안에 용, 인면조신(人面鳥身), 쌍조문(雙鳥文), 괴수문 등 각종 문양이 새겨져 이 시기 금속공예의 우수성을 반영한다.

이와 같이 나주 정촌리 1호분 3호 석실 출토 금동신발은 현재까지 출토된 백제시대 16점의 금동신발 중에서도 거의 훼손되지 않고 원형에 가까워 고창 봉덕리 1호분 제4호 석실 출토 금동신발과 비교된다. 즉 무령왕릉의 왕과 왕비의 신발과 마찬가지로 바닥판과 좌우측판 및 발목깃판으로 구성되고 바닥에 스파이크를 박은 백제의 전형적인 금동신발의 특징을 지녀 지역의 유력 지배층의 존재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이 금동신발 위 발등 위 용문양 장식판은 다른 곳에서는 출토되지 않는 특이한 형식으로서 주목된다.



### ○ 고분의 발굴과 유물의 특징

나주시 다시면 북암리에서 1996년 전남대학교 박물관에서 북암리 3호분을 조사하던 중 정촌고분의 존재가 알려졌다. 2009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정밀분포조사를 거쳐 2013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발굴하였는데, 1호 돌방을 중심으로 고분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독널, 돌덧널, 돌방이 추가로 매장되어 최종적으로 총 14기의 매장시설이 위치한다. 이렇게 나주 북암리 정촌고분은 삼국시대의 대형 분구묘로서, 분구 내에서 3기의 석실과 4기의 석곽, 그리고 6기의 옹관과 1기의 목관 등이 발견되었다. 나주 북암리 정촌고분에서는 절대편년이 가능한 문자자료가 전혀 출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분의 축조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5세기 후반부터 7세기경까지 오랜 기간 추가 매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편년이 다소 어려운 편이다.



나주 북암리 정촌고분의 발굴 현장

정촌고분 1호 석실- 금동신발 출토지(분홍)

나주 북암리 정촌고분 1호 석실은 길이 4.8m, 폭 3.6m, 높이 3m의 현실과 연도로 구성되었으며, 현실 내에는 3기의 목관이 부장되어 있었다. 금동신발은 이중 3호 목관 하단부에서 천장의 벽석이 떨어지면 약간씩 손상되었고, 오른쪽 신발이 왼쪽 신발 아래에 놓여 있어 왼쪽 신발의 상태가 조금 더 좋은 편이다. 왼쪽 신발의 경우 발등 장식이 떨어지고 발목덧개가 훼손되었고, 오른쪽 신발은 발등장식은 온전하지만 용머리 장식은 떨어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 금동신발은 20점의 삼국시대 금동신발, 그중에서도 16점의 백제지역에서 출토된 금동신발 중에서도 훼손이 많이 되지 않아 대체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속한다. 발굴 당시 왼쪽 신발 뒤꿈치에서 인골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피장자의 발에 신겨진 상태로 부장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여러 면에서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과 유사하다.





발굴 결과 정촌 1호분 고분은 여러 개의 고분이 복합적으로 매장되어 있었는데, 그중 3호 목관이 석실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이곳에 무덤의 피장자가 매장되었다고 여겨진다. 그것은 이곳에서 금동신발과 금귀걸이를 비롯하여 환두대도, 말재갈 등 장신구나 마구처럼 금속공예품과 함께 굽다리 장경호, 넓은입 광구호, 넓은입 구멍단지 등 토기까지 다종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정촌 1호분 내부에서는 절대연대를 판단할 명문 자료 등이 출토되지 않았으나 무덤의 조성 방식과 출토된 유물의 종별 특징으로 미루어 무덤의 축조 시기는 5세기 후반경 백제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금동신발의 제작시기 또한 5세기 후반 백제 것으로 여긴다.

### ○ 금동신발의 형식과 문양의 양식 특징

나주 정촌 1호 석실 3호 목곽 출토 금동신발 금동신발은 금속 성분을 분석한 결과 재료는 순동이고, 도금한 표면에 은이 포함되어 있어서 수은아말감기법으로 도금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금동신발 중 왼쪽의 것은 길이 31.09cm, 최대 너비 9.2cm, 최대 높이 14cm이고, 오른쪽의 것은 길이 31.83cm, 최대 너비 9.35cm, 최대 높이 14cm이다. 신발의 크기는 대략 길이 31cm, 폭 9cm 정도이며, 목깃이 다소 높은 편

이다. 일반적인 사람의 발보다 상당히 큰 편이며 피장자의 인골이 신발 안에서 발견된 것으로 볼 때, 장송의례용으로 제작하여 부장된 신발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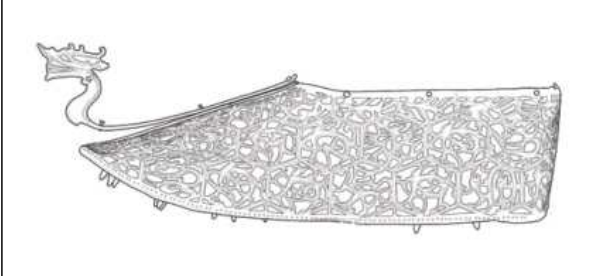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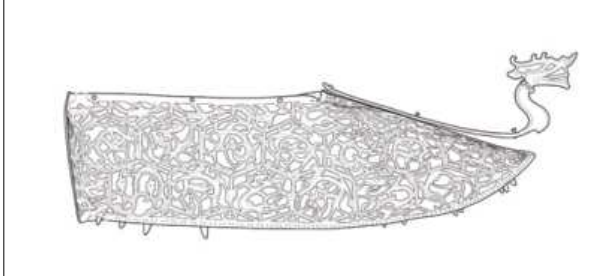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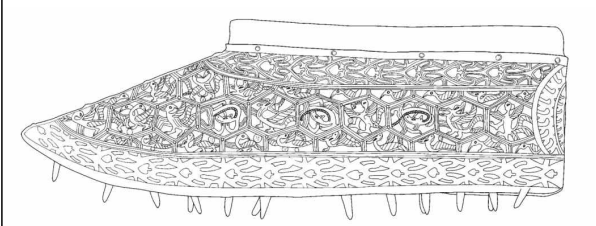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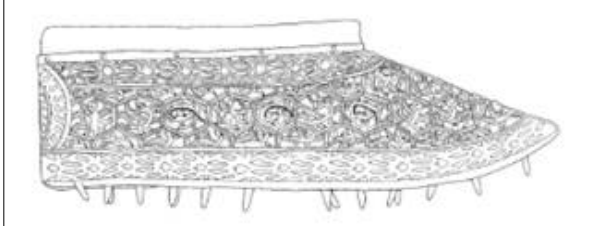
이와 같은 금동신발은 같은 시기 중국 유적이나 일본의 고분에서도 발견례가 거의 없다. 우리나라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 삼국시대 유적에서는 20점의 금동신발이 출토되어, 한국의 독자적인 금속공예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마한 백제권에서 확인된 금동신발은 16점이다. 화성 요리 목곽1호분, 원주 범천리 석실 4호분, 연기 나성리 토광묘, 전 공주 송산리, 공주 수촌리 목곽 1호분, 공주 수촌리 석관 8호분, 고흥 길두리 안동, 공주 수촌리 석실 3호분, 공주 수촌리 석실 4호분, 고창 봉덕리 1호분, 고창 봉덕리 석곽 4호분, 익산 입점리 석실 1호분, 나주 신촌리9호-을관, 나주 북암리3호-석실 96, 그리고 공주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왕의 금동신발과 왕비의 금동신발이 있다.

정촌 1호분 출토 금동신발의 형태는 얇은 금동판을 겹쳐서 리벳으로 고정시켜 결합하는 방식이다. 좌우 금동신발의 형태는 모두 바닥판을 내부에 놓고 좌우측판의 끝을 4mm정도 구부려 ‘L’자 형태로 만들고, 발등 가운데 부분은 우측판이 좌측판 위로 겹치게 한 후 일정 간격을 따라 3개의 리벳으로 고정하고, 발뒤꿈치의 경우 좌측판이 우측판 위로 오게 포개고 일정한 간격에 따라 3개의 리벳으로 고정하여 만들고 있다.






정촌 1호 석실 3호 목곽 출토 금동신발의 문양은 동판을 뚫어새기는 투각기법과 선적으로 처리하는 축조기법 등 단순한 기법을 사용되었다.

금동신발의 문양 중 좌우측판의 경우 기본적으로 연속육각문대를 배치한 것인데, 이것은 무령왕릉 출토 왕과 왕비의 금동신발을 비롯하여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과 마찬가지로이다. 다만, 나주 정촌고분 금동신발의 경우 무령왕릉 출토 왕과 왕비의 금동신발과 마찬가지로 연속육각문대만 있고,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의 경우에는 상하단에 종속문양대를 배치하여 스페이드 문양을 배치한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정촌 왼쪽 금동신발의 좌측면	정촌 왼쪽 금동신발의 우측면
	
고창 봉덕리 1호분 금동신발의 좌측면	고창 봉덕리 1호분 금동신발의 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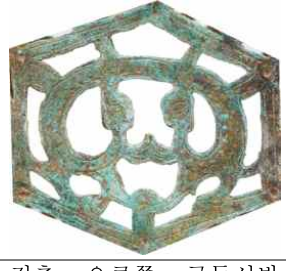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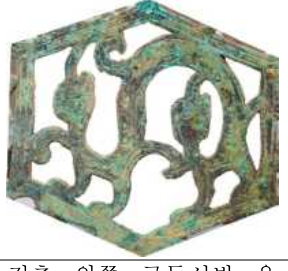


정촌고분 금동신발의 문양 배치는 양쪽 발의 양쪽 측판 문양 배열과 형태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 왼쪽 신발의 좌측판에 완전한 형태의 육각문은 14개이고, 그 크기는 가로 39.8mm, 세로 37.0mm이며 약간씩 차이가 있다. 우측판에 완전한 형태의 육각문은 12개이고, 그 크기는 가로 39.3mm, 세로 36.6mm이며 각각은 조금씩 다르다. 오른쪽 신발의 좌측판에 완전한 형태의 육각문은 13개이고, 우측판에 완전한 형태의 육각문은 12개이다. 좌우 신발의 좌우측판에는 2단으로 연속육각문대가 배치되며 그 안에는 용, 인면조신(人面鳥身), 쌍두괴수(雙頭怪獸) 등이 배치되어 있다. 인면조신의 경우 사람의 얼굴의 새의 몸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정촌고분의 것은 얼굴 표현이 애매하지만 고창 봉덕리 1호분과 경주 식리총에서는 인물의 얼굴이 확실하게 확인된다. 금동신발은 아니지만 무령왕릉의 동탁은잔에서도 새겨져 있다. 이것들은 천추(千秋)와 만세(萬歲)의 의미를 지녀 장수를 상징하고 있다. 금동신발이 부장된 피장자가 영생하길 기원한 것으로 짐작된다.

		
정촌 1호분 금동신발 육각문 내 인면조신	봉덕리 1호분 금동신발 육각문 내 인면조신	식리총 금동신발 육각문 내 인면조신

정촌 1호분 금동신발 중 가장 독특한 것은 발등을 장식한 장식판으로 사용된 옆모습의 용문양인데, 이것은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의 좌우측판에 육각형 안에 배치된 용의 옆모습과 유사하다. 이러한 용문양은 이미 고구려 무용총에 그려진 벽화나 무령왕릉 출토 환두대도 속 용문양에서 뿔이나 입을 벌린 모습 등도 비슷하여 삼국시대 용문양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용은 선인들이 하늘로 가는 이동수단이어서, 피장자를 천상이나 선계로 이동시켜주는 것을 상징한다.

			
정촌 금동신발 용문양	봉덕리 금동신발 용	무용총 현실 천장 청룡	무령왕릉 출토 환두대도

정촌 1호분 출토 금동신발의 문양으로는 일신쌍두(一身雙頭)의 형상이 다수 발견되는데, 이것은 그동안 삼국시대 금동신발에서는 발견되지 않던 유일한 사례이다. 이것은 덕흥리 고분에 그려진 도교신인 지신(地神)과 지축(地軸)을 상징하며, 성인과 신선이 사는 신성한 세계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정촌 오른쪽 금동신발 일신쌍두 문양	정촌 왼쪽 금동신발 우측판의 일신쌍두 문양	정촌 왼쪽 금동신발 좌측판의 일신쌍두 문양	고구려 덕흥리고분의 지축(地軸), 35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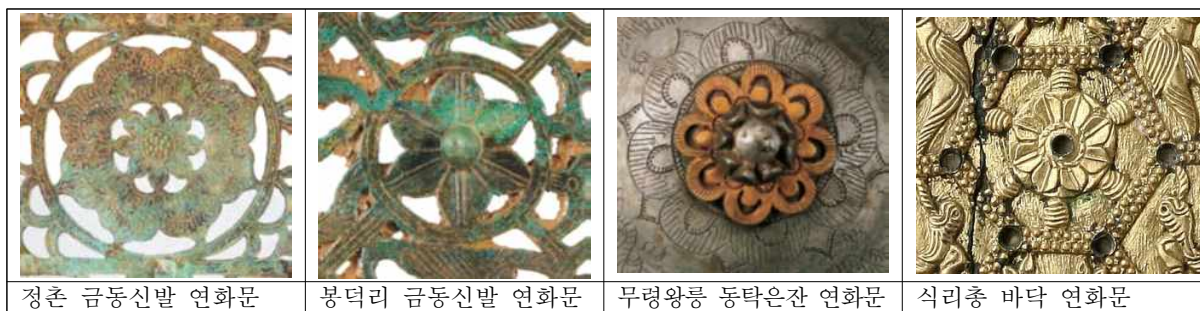
정촌 1호분 출토 금동신발의 좌우측판에는 부리가 날카롭고 한쪽 방향으로 날아가는 새문양이 새겨져 있다. 이러한 새문양은 이미 고구려 고분벽화나 무령왕릉 출토의 동탁은잔에서도 발견되며, 피장자를 사후의 세계로 인도한다고 여겼다.

			
정촌 오른쪽 새문	정촌 왼쪽 새문	무용총 현실 새문	무령왕릉 동탁은잔 새문

정촌고분 금동신발의 바닥면은 문양 구조가 상중하 3단으로 구분된다. 중앙에는 커다란 연화문과 레이스형 무늬를 배치하고, 그 위쪽과 아래쪽으로는 양팔과 다리를 벌리고 앉아있는 괴수문을 선적으로 새겨 넣고 있다. 이것은 고창 봉덕리 1호분의 바닥면의 문양과 비교된다. 후자는 원형연화문을 연속육각문대로 3열 18개로 배치하고, 맨 위쪽 육각문에는 괴수의 얼굴을, 가장 아래쪽 육각문에는 괴수의 전신상을 배치한 것과 비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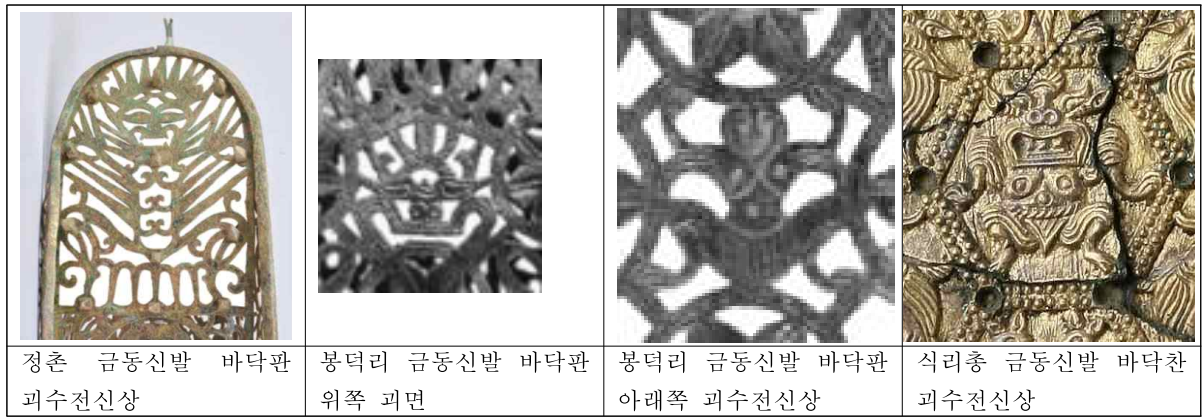


정촌 1호분 출토 금동신발의 연화문은 1개이지만 지름 5.7cm로 비교적 크며, 꽃잎은 8엽을 3중으로 배치하였다. 연화문의 한 가운데에는 지름 8.3cm의 원형의 자방을 구획한 후 지름 1.2mm의 원점문을 여러 개 찍어서 장식하였다. 이와 비교되는 봉덕리 금동신발의 연화문은 18개이지만 지름 2.4cm 정도로 크기가 작고, 꽃잎은 6엽인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반면 무령왕릉의 동탁은잔의 연화문은 8엽이고, 볼록한 자방부터 안쪽에서 금색 손잡이 부분에서 은잔의 선각까지 3중으로 되고 여기에 원점문이 새겨지거나 빗금으로 선을 새긴 점도 일치한다. 이것은 경주 식리총 출토 금동신발의 바닥면에 새겨진 연화문도 8엽인 점에서는 공통된다. 이러한 연꽃은 불교적 세계관을 반영하여 죽은 자의 최종 목적지인 천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다.



정촌 1호분 출토 금동신발에는 바닥면의 상하의 크게 괴면의 정면상이 선적으로 투각되어 배치되어 있다. 괴수의 얼굴은 고구려 안악 3호분에서와 비슷하게 눈은 부릅뜨고, 코는 콧구멍이 보이고, 입은 과장되게 벌려 날카로운 송곳니를 보여주고, 머리는 삐죽삐죽 튀어오른 모습이다. 이러한 괴수의 얼굴은 봉덕리 금동신발의 바

다면 위쪽에 있는 얼굴과도 유사하며, 식리총 금동신발의 바닥판에 위치한 괴수의 얼굴과도 비슷하다. 정촌리 금동신발의 괴수전신상은 두 팔을 양쪽으로 벌리고 가슴을 드러내고 짧은 치마를 입고 두 다리를 내놓은 모습인데, 이것은 봉덕리나 식리총의 괴수전신상과 유사하다. 이러한 괴수의 전신상은 고구려 고분벽화 중 삼실총에 그려진 괴수의 형상에서도 찾을 수 있다. 진한대 이래 승리와 복을 구하는 군신이면서 귀신의 수장인 치우(蚩尤)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주 정촌고분 금동신발의 바닥면과 양측판에 새겨진 각종 문양들의 성격에 대해서는 고창 봉덕리 금동신발이나 경주 식리총 금동신발 등의 도상 및 고구려 고분벽화의 도상들과 비교하여 여러 선행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아직까지 이 도상들의 해석과 사상적 배경에 대해서는 한대(漢代) 이후의 중국 전통적, 혹은 도교적 사후세계관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 세 신발들 중에서 특히 나주 정촌고분의 금동신발에는 백제 불교미술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연화문이 표현된 예로서, 향후 바닥의 연화문 도상과 다른 도상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나주 정촌리 1호 석실 3호 목곽에서 출토된 금동신발의 문양은 좌우측판에는 하늘을 상징하는 육각문대 내부에 용문양, 인면조신, 새문양을, 바닥판에는 연화문과 괴수전신상을 투각기법과 축조기법으로 새기고 있다. 이러한 문양은 중국에서 유래된 불교나 도교의 전통적인 사후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이며, 그 도상은 고구려 고분벽화를 비롯하여 백제 무령왕릉 등의 금속공예품, 신라 식리총 등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피장자를 사후세계로 인도하는 상징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 참고문헌

『나주 북암리 정촌고분』,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4.

- 『마한의 수장, 용신을 신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국립나주박물관, 2015.
- 『羅州 伏岩里 丁村古墳』,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7.
- 이훈, 「금동신발로 본 북암리 세력과 주변지역의 동향」, 『삼국시대 북암리 세력의 위상과 주변지역의 동향』,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5.
- 『나주 북암리 정촌고분 - 마한 사람들, 큰 무덤과 함께 잠들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국립나주박물관, 2019.
- 『고대 동아시아의 금동신발과 금동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국립나주박물관, 2019.
- 『고창 봉덕리 1호분 (석실·옹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2.
- 『고창 봉덕리 1호분 종합보고서』, 고창군·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6.
- 성윤길, 「나주 북암리 정촌고분 금동신발의 문양 분석과 의미」, 『고대 동아시아의 금동신발과 금동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국립나주박물관, 2019.
- 성윤길, 「고창 봉덕리 고분 출토 금동신발의 문양 특징과 의미」, 『마한백제문화』 36, 2020.
- 이문형 · 유수화,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의 제작기법과 문양」, 『마한백제문화』 25, 2015.
- 이문형, 「제작기법과 문양을 통해 본 백제 금동신발의 편년」, 『중앙고고연구』 18, 2015.
- 이한상, 「한성시기 백제 금동신발의 제작기술과 그 특징」, 『역사와 담론』 59, 2011.
- 정상기, 「고창 봉덕리 출토 청자반구호의 제작시기 검토」, 『동원학술논문집』 14, 2013.
- 주화정, 「삼국시대 금동신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 현 상

비교적 완형에 가까운 금동신발 1쌍으로 발목덮개·좌우 측판·바닥판의 4개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 ○ 내용 및 특징

이 금동신발 1쌍은 지금까지 출토된 백제금동신발 중 가장 화려하고 완벽한 유물이다. 투조문양은 육각형을 연속적으로 배치하고, 그 안에 동물 등 다양한 문양을 연결하여 채워 넣었다. 발등에는 용머리 장식을 부착하였는데, 오른쪽 발의 용머리장식은 머리부분이 부러져 결실되었다. 발목에는 덮개를 추가로 부착하였는데, 이것도 왼쪽 발은 탈착되어 있다. 바닥판에는 연꽃과 용을 표현하였고, 24개의 스파이크를 부착하였다.

## ○ 문헌자료

國立羅州文化財研究所, 2017, 『羅州 伏岩里 丁村古墳』.

□

### ○ 형 식

나주 정촌고분 금동신발은 삼국시대의 전형적인 금동신발로서, 문양을 투각한 얇은 금동판을 연결하여 만든 금속공예품이자 한 쌍의 장송의례용 신발이다(도 1). 바닥판, 우측판, 좌측판, 목깃판, 그리고 별도의 용문양 금속판 등 여러 장의 금속판을 연결하여 만든 전형적인 백제식 금동신발이다. 앞쪽이 약간 뾰족한 침두형이고, 뒤쪽으로 가면서 점차 좁아지며 뒤축은 둥그스름하게 만들어진 형태인데, 다른 금동신발들과는 달리, 발등 위쪽에 용머리 모양의 좁고 긴 금속판을 덧대어 장식한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용문 장식판이 달린 신발은 지금까지 출토된 삼국시대 금동신발 중에서는 유일한 예이다.

신발의 기본 형태는 문양을 투각한 금속판을 잘라 만든 바닥판, 우측판, 좌측판 등 세 장의 금속판을 연결해서 만들었으며, 각 금속판들은 두께가 조금씩 다른데



도 1. 나주 정촌고분 금동신발. 국립나주박물관연구소 소장.

대략 0.6-0.8mm 정도이다. 신발 위쪽에 덧붙인 목깃판은 한장의 금속판으로 만들어졌는데, 두께가 신발 기본형 제작에 사용된 판들보다 얇아서 0.5-0.6mm 정도이다. 목깃판은 높이도 약 5cm 내외로서 일반적인 삼국시대의 금동제 신발들에 비해서 다소 높은 편이다. 한편 발등 중앙에 덧붙인 용머리 모양의 장식판은 긴 금속봉

을 두드려서 만든 단조품으로, 용의 머리와 몸체가 되는 봉 부분을 따로 만들어서 목 부분에서 못으로 연결한 것이다. 용 머리 부분은 앞쪽 두께가 1.5mm 이지만 목부분의 연결부는 두께가 좀 더 얇아져서 머리 부분과 몸체 부분판 모두 1.1mm 정도의 두께이다. 한편 용의 목부분 아래로 이어지는 금속판은 점차 두꺼워져서 두께 5.8mm의 둥그스름하면서도 납작한 막대기 형태가 된다(도 2). 이것은 금속봉을 두드려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목 부분과 몸체 부분의 두께가 달라진 것으로, 상당히 뛰어난 단조 솜씨를 보여준다.





도 2. 나주 정촌고분 금동신발 좌측신발 발등 용머리 장식 세부



도 3. 나주 정촌고분 금동신발 우측신발 측면하단부 원공(圓孔)



도 4. 나주 정촌고분 금동신발 좌측신발 바닥판 세부, 스파이크와 연결상태

신발의 좌측판과 우측판의 결합 방식은 양쪽 신발이 같다. 발등 부분에서는 오른쪽 측판이 위로 올라와서 왼쪽 측판을 덮고, 뒤꿈치 부분에서는 왼쪽 판이 측위로 올라와서 오른쪽 측판을 덮도록 되어 있다. 겹친 부분에는 구멍을 뚫고 작은 원두정으로 연결했는데, 발등 부분에서는 용머리 장식도 함께 고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발등과 뒤꿈치 모두 각각 3개의 못을 등간격으로 배치하여 결합했다. 한편 양쪽 측판의 바닥 부분은 “ㄴ”자 형태로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바닥판을 얹어 놓았는데, 바닥판과 양쪽 측판을 고정시킨 못이나 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 그 대신 양쪽 측판의 맨 아래쪽에는 직경 1mm 내외의 작은 구멍들을 2-6mm 간격으로 조밀하게 일렬로 뚫어 놓았기 때문에(도 3), 백여 개에 달하는 이러한 원공(圓孔)들을 통하여 신발 안쪽에 넣었던 유기물질과 연결하여 바닥판을 고정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현재 신발 내부의 유기물질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바닥판과 측판의 고정방식은 단정하기 어렵다. 문양을 투각한 바닥판 아래에는 방추형의 뾰족한 스파이크를 3개씩 8줄로 배치하여 한 짝마다 24개씩의 스파이크가 달려 있다. 스파이크는 바닥판에 뚫린 구멍에 꽂아서 위를 두드려서 박아 넣었으며, 각 스파이크의 길이는 11mm, 폭은 5mm 정도이다(도 4).<sup>15)</sup>

현재 삼국시대의 고분에서 출토되는 금동신발들은 그 수가 많지는 않으나 삼국이 각각 형식적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주목된다. 고구려의 금동신발들은 대부분 스파이크가 달린 바닥판 부분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측판이 발견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신라의 경우에는 바닥에 스파이크가 달리지 않은 신발들이 많고, 측면부는 좌측판과 우측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등부와 뒤축부를 별도의 금속판으로 만들어서 발 양측면에서 측판 두 장을 연결하여, 신발의 형태와 측판 연결방식이 백제 신발들과 다소 차이가 있다. 신라에서 출토된 금동신발 중에서 백제식 제작방식으로 제작된 것은 경주 식리총 출토 금동신발이 유일하다.<sup>16)</sup>

형식적인 특징으로 볼 때,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1호석실에서 출토된 금동신발은 백제계 금동신발의 형식에 속한다. 그러나, 목깃판이 높고 발등 부분에 독특한 용머리 장식이 부착되어 있는 점은 일반적인 삼국시대의 금동신발들과는 다소 다른 특이한 형식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주목된다.

## ○ 조성연대

금동신발이 출토된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은 삼국시대의 대형 분구묘로서, 분구 내에서 3기의 석실과 4기의 석곽, 그리고 6기의 옹관과 1기의 목관 등이 발견되었다(도 5). 정촌고분에서는 절대편년이 가능한 문자자료가 전혀 출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분의 축조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5세기 후반부터 7세기경까지 오랜 기간 추가 매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편년이 다소 어려운 편이다.

금동신발은 정촌고분 1호석실 3호목관 하단부에서 피장자의 발에 신겨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발굴 당시 금동신발 내부에서는 뼈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정촌고분 1호석실은 길이 4.8m, 폭 3.6m, 높이 3m의 현실과 연도로 구성되었으며, 현실 내에는 3기의 목관이 부장되어 있었다. 금동신발은 이 3기의 목관 중에서 가장

15) 정촌고분 금동신발에 대한 발굴보고 및 선행연구로는 다음 참조.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4,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국립나주박물관, 2015, 『마한의 수장, 용신을 신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국립나주박물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7, 『羅州 伏岩里 丁村古墳』,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이훈, 2015, 「금동신발로 본 복암리 세력과 주변지역의 동향」, 『삼국시대 복암리 세력의 위상과 주변지역의 동향』,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국립나주박물관, 2019a,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 마한 사람들, 큰 무덤과 함께 잠들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국립나주박물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국립나주박물관, 2019b, 『고대 동아시아의 금동신발과 금동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국립나주박물관. 금동신발의 크지 재원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위의 책(2017), pp. 235-255 참조.

16) 삼국시대 금속제 신발의 형식 분류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선행연구들이 있다. 주요 연구로는 다음 참조. 주화정, 2003, 「삼국시대 금동신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 이한상, 2011a, 「금동식리로 본 삼국시대 장송의례의 한 단면」, 『신라사학보』 2; 이한상, 2011b, 「한성시기 백제 금동신발의 제작기술과 그 특징」, 『역사와 담론 59』; 이한상, 2011c, 『동아시아 고대 금속제 장신구 문화』, 고고; 김낙중, 2013, 「신라 및 가야 고분 출토 백제계 금공품에 대한 일고 - 가야계 환두대도와 경주 식리총 금동신발을 중심으로」, 『영남지역 속에 스며든 마한·백제계 문물의 흔적』, 대한문화재연구원; 이문형, 2015, 「제작기법과 문양을 통해 본 백제 금동신발의 편년」, 『중앙고고연구』 18.

중심이자 먼저 매장된 제3목관부 근처에서 출토되었다(도 6). 금동신발이 발견된 정촌고분 1호석실 3호목관은 석실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동신발과 금귀걸이를 비롯한 각종 유물들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1호석실의 주인공으로 추정된다. 정촌고분의 발굴 결과를 통해서 보면, 여러 개의 고분이 복합적으로 매장된 정촌고분 유적에서 가장 먼저 축조된 것이 이 금동신발의 주인공 무덤이었으며, 축조시기는 삼국시대 5세기 후반 경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sup>17)</sup>

이러한 출토 고분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이 금동신발은 무덤이 축조된 삼국시대 5세기 후반 경에 제작되었으며, 형식적 특징으로 볼 때 백제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 ○ 현 상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은 삼국시대 금동신발들 중에서는 보존상태가 상당히 우수한 편에 속한다. 발굴 당시 오른쪽 신발이 왼쪽 신발 아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왼쪽 신발이 좀 더 상태가 좋아서 발등의 용머리가 원상에 가깝게 복원되었다. 오른쪽 신발은 발등의 용머리가 부러진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접합이 불가능하여 별도로 보관되고 있다. 발굴 당시에 금동신발들은 다소 부서진 상태였으며, 특히 목깃관의 훼손이 심한 편이었다. 현재는 양쪽 신발 모두 보존처리를 통해서 원형에 가깝게 접합된 상태인데, 양측 신발의 상태가 다소 다르다. 발등의 용머리가 완전하게 복원된 왼쪽신발은 목깃부가 복원되지 않아서 따로 보관하고 있으며(도 7), 발등의 용머리가 복원되지 못한 우측신발의 경우에는 목깃부가 원형에 가깝게 잘 남아 있는 상태이고 용머리는 별도로 보관되고 있다(도 9). 표면의 금동피막은 오른쪽 신발이 좀 더 잘 남아 있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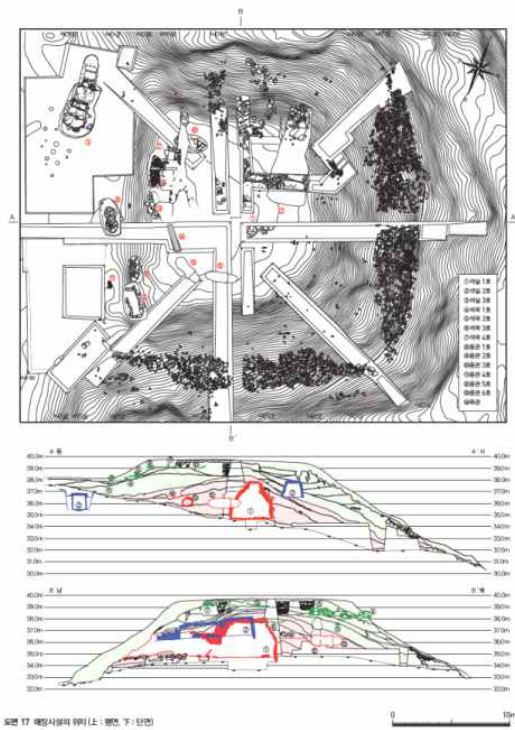


도 7. 정촌고분 금동신발 좌측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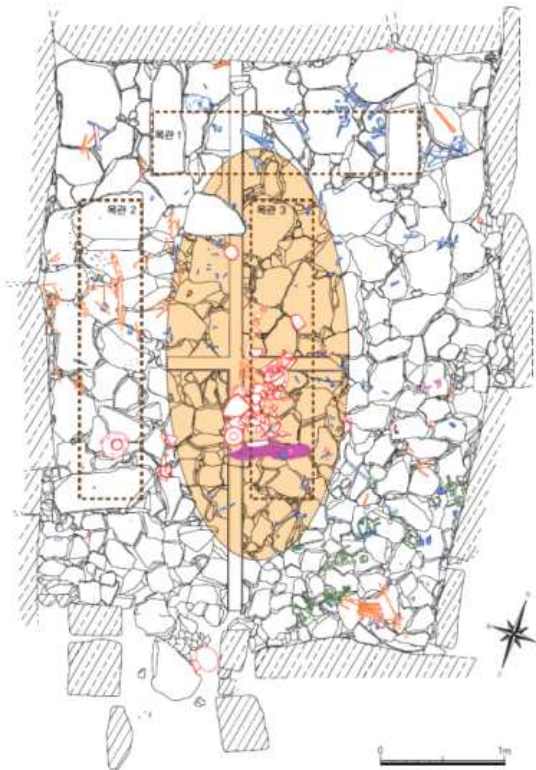


도 8. 정촌고분 금동신발 우측신발.

17)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7, 위의 책, pp. 513-519.



도 5. 정촌고분 유구 배치도.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2017), p. 67.



도 6. 정촌고분 1호석실 내 배치도.  
분홍색 부분 : 금동신발 출토 위치.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2017), p. 213.



도 9. 쌍두괴수 세부,  
나주 정촌고분 금동신발 우측신발 세부.



도 10. 쌍두괴수 세부,  
나주 정촌고분 금동신발 좌측신발 세부.

발굴 당시 왼쪽 신발 뒤꿈치에서 인골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피장자의 발에 신겨진 상태로 부장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인골과 함께 파리 유체가 부착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분석을 통해 검정파리와 파리의 유충으로 확인되었다. 이 파리의 주 활동시기는 9월이지만, 5월부터 11월까지 활동을 한다. 유충의 상태로 볼 때, 피장자는 파리가 활동하던 시기에 1주일 정도의 빈례를 치르고 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18)</sup>

금속의 성분 분석에 의하면, 이 금동신발은 순동판으로 제작한 후 수은아말감도금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sup>19)</sup> 다만 일부 분석자료 중에서는 은(Ag)이 포함된 분석 결과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한편, 이 신발의 내부에서는 인골과 파리유충 이외의 별다른 유기물질이 발견되지 않아서, 직물흔등을 확인할 수는 없다.

### ○ 내용 및 특징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은 백제 양식의 금동신발 중에서는 유일하게 발등에 용머리 장식이 부착된 독특한 예로서 중요하다. 신발의 크기는 대략 길이 31cm, 폭 9cm 정도이며, 목깃이 다소 높은 편이다. 일반적인 사람의 발보다 상당히 큰 편이며 피장자의 인골이 신발 안에서 발견된 것으로 볼 때, 장송의례용으로 제작하여 부장된 신발로 추정된다. 금동신발은 현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 삼국시대의 유적에서만 출토되고 있으며, 같은 시기 중국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한국 고대의 독특한 분묘미술품으로서 중요하다. 일본 고분시대에는 한반도 문화의 영향으로 제작된 금동신발이 간혹 출토되기는 하지만, 그 예가 많지는 않은 편이다.

현존하는 삼국시대의 금동신발 중에서 유일하게 용머리가 장식된 이 금동신발은 동판을 투각하여 문양을 장식했으며, 장식기법은 다소 단순하여 점선조기법과 축조기법 등이 사용되었다. 문양의 기본 형태는 무령왕릉 출토 금동신발이나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과 마찬가지로 연속육각문대를 좌우측판에 배치하였다. 다만,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의 경우에는 상하단에 종속문양대를 배치했지만, 나주 정촌고분 금동신발과 무령왕릉 출토 금동신발들에는 종속문양대가 없다.

정촌고분 금동신발의 문양 배치는 양쪽 발의 양쪽 측판 문양 배열과 형태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네 측판 모두 2단으로 배치된 육각문을 중심으로 각 육각문 안에 여러 가지 문양들을 표현하였다. 기본적으로는 용과 새가 중심이며, 그 외에 인면조(人面鳥)와 쌍두괴수(雙頭怪獸) 등이 있어서 각종 서수(瑞獸)를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sup>20)</sup>

이중에서 쌍두괴수의 경우에는 삼국시대 금동신발에 표현된 도상 중에서는 처음

18)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위의 책(2017), pp. 626-637.

19) 앞의 책, pp. 588-601.

20) 정촌고분 금동신발의 도상에 대해서는 성윤길, 2019, 「나주 북암리 정촌고분 금동신발의 문양 분석과 의미」, 『고대 동아시아의 금동신발과 금동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국립나주박물관, pp. 65-117 참조.

이자 유일하게 확인된 예로서 주목된다(도 9, 10). 이 쌍두괴수는 고구려 고분벽화의 도상들과 비교하여 지신(地神)과 지축(地軸)으로 추정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연구될 필요가 있다.<sup>21)</sup>

기본적인 문양은 투각기법으로 문양의 바탕 부분을 따내기한 후, 기본 육각문의 테두리 부분에는 축조기법(蹴彫技法)으로 2줄의 가는 선을 새겨서 장식하고, 육각문의 모서리 부분에는 뾰족한 정으로 작은 음각의 원문을 찍어서 장식하였다. 일부 동물문양들의 몸에는 이렇게 뾰족한 정으로 원점(圓點)을 찍거나 점열문을 새기기도 하고, 축조기법으로 눈이나 세부를 표현하거나 장식하기도 한다. 금속세공기법적 측면에서는 축조기법과 점열문기법이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제작기법적 측면에서는 다소 단순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도 11 정촌고분 금동신발 좌측신발 뒤축부.



도 12 정촌고분 금동신발 우측신발 뒤축부.

양측판을 연결한 뒤축 부분의 문양은 방사형의 화염문을 표현했는데, 고창 봉덕리 금동신발의 뒤축 문양보다 훨씬 화려하고 장식적인 문양으로 발전해 있다(도 11, 12).

정촌고분 금동신발의 바닥면 문양은 전체를 3단으로 나눈 후, 중앙에 커다란 연화문을 배치하고, 그 아래와 위에 양팔과 다리를 벌리고 앉아있는 괴수문을 표현해

21) 위의 논문 참조.

놓았다(도 13). 연화문의 지름은 5.7cm이며, 내부에는 팔엽의 연화를 3중으로 배치하였다. 연화문의 한 가운데에는 지름 8.3cm의 원형 자방을 구획한 후 지름 1.2mm의 원점문을 여러 개 찍어서 장식하였다. 연화문의 아래와 위에 배치된 괴수는 두 개의 뿔을 가지고 입을 벌린 형태인데, 도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나주 정촌고분 금동신발의 바닥면과 양측판에 새겨진 각종 문양들의 성격에 대해서는 고창 봉덕리 금동신발이나 경주 식리총 금동신발 등의 도상 및 고구려 고분벽화의 도상들과 비교하여 여러 선행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아직까지 이 도상들의 해석과 사상적 배경에 대해서는 한대(漢代) 이후의 중국 전통적, 혹은 도교적 사후세계관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 세 신발들 중에서 특히 나주 정촌고분의 금동신발에는 백제 불교미술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연화문이 표현된 예로서, 향후 바닥의 연화문 도상과 다른 도상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심도깊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도 13. 나주 정촌고분 금동신발 좌측신발 바닥판.

## ○ 기 타

나주 정촌고분 금동신발은 2014년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 정촌고분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정촌고분 1호석실 제3목관부 하단에서 출토되었다. 이후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와 국립나주박물관에서 여러 차례 전시 및 학술대회를 통해서 소개를 했으며, 비교적 자세한 보존처리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정촌고분 1호석실 내에는 3기의 목관이 있었는데, 제1목관과 제2목관은 추가장된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석실 내에서 발견된 인골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3목관의 인골 중 두개

골은 제1목관 근처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이는데, 인골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1목관과 제3목관의 인골은 모두 40대의 여성 인골로 확인되었다.<sup>22)</sup> 그러므로 정촌고분 금동신발의 주인은 40대 여성이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신발을 신은 피장자의 성별이 밝혀진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정촌고분 1호석실 제3목관의 피장자는 금동신발 이외에도 금제이식, 소환두도, 각종 구슬류, 토기류 등을 가진 상태로 부장되었으며, 제2목관의 피장자는 각종 철제화살촉과 화살통, 금제이식, 토기 등을 가지고 있었다. 여성으로 밝혀진 제1목관의 피장자는 철모, 철준, 철제도자, 숫돌 및 토기 등을 가지고 있어서 피장자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향후 좀 더 연구될 필요가 있다.

## □

### ○ 현 상

왼쪽과 오른쪽 신발 모두 몸체, 발목 덮개, 발등 장식의 3부분으로 이루어졌다. 몸체는 두께 0.5~1.0mm의 얇은 금동판을 투조하여 장식한 좌우 측판과 바닥판 등 3개의 판으로 이루어졌고, 좌우 측판은 발등 가운데와 발뒷꿈치 가운데 부위에 판을 겹치고 리벳으로 고정하였다. 좌우 측판 하단 끝을 4mm 정도 구부려 바닥판 가장자리를 그 안에 걸리도록 하여 고정하였다.



그림 4. 정촌고분  
우측 금동신발 상  
태



그림 2. 정촌고분 좌측 금동신발 장식



그림 3. 정촌고분 우측 금동신발 장식

바닥에는 길이 10mm, 너비 5mm의 단면 방형의 스파이크 24개를 박았다.

발목 덮개는 장식이 없는 금동판 2개를 리벳으로 연결하여 금동신발의 발목 안쪽 둘레에 맞췄는데, 왼쪽 신발의 것은 상태가 좋으나 측판에서 분리된 상태이고, 오른쪽 신발의 것은 찌그러지고, 부분적으로 결실된 모습이다. 발등 가운데의 좌우 측판을 고정한 부위에 너비가 좁은 금동판을 S자 형태로 구부리고 끝에 용머리 장식을 부착하였는데, 왼발 것은 완전하고, 오른발의 것은 용머리 부위가 부러졌다.

22)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위의 책(2017), p. 654.



○ 내용 및 특징

금동신발의 오른쪽 신발은 용머리 장식 끝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이 매우 양호한 상태이고, 왼쪽 신발은 발목 덮개 일부분이 결실되었으나 원 모습을 파악하는데 문제가 없다.

금동신발은 육각문 내부에 다양한 문양을 투조기법으로 장식한 좌·우 측판 하단 끝을 4mm정도 구부려 ‘∟’자 형태로 만들고, 바닥판을 내부에 놓아 받치도록 한 후, 발등 가운데에서 우측판이 좌측판 위로 겹치게 한 후 일정 간격으로 3개의 리벳으로 고정하고, 발뒤꿈치 가운데에는 좌측판이 우측판 위로 오게 포개고 일정 간격으로 3개의 리벳으로 고정하여 만들었다.



그림 3. 정촌고분 1호 석실 금동신발 옆면 모습

좌·우 측판은 육각문을 상하로 4단 배치하고, 각 육각문 내부에 여러 형태의 무늬를 장식하였다. 위의 1단은 육각문이 절반 표현되었고, 2단과 3단은 완전하고, 아래의 4단은 육각문의 ‘∩’형태만 표현되었다. 육각문을 이루는 각 변의 길이가 동일하여 육각문의 형태는 세로보다 가로로 길다.



그림 4. 정촌고분 1호 석실 금동신발 앞면 모습

왼쪽 신발의 좌측판에는 완전한 형태의 육각문이 14개이고, 1/2 이상 표현된 것이 3개, 일부만 표현된 것이 13개이다. 완전한 형태의 육각문 크기는 가로 39.8mm, 세로 37.0mm이며, 각각의 육각문 크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육각문에 표현된 문양은 새가 날아가는 모습 6마리, 착지하는 모습 1마리, 봉황 1마리이고, 용머리 4개, 두 귀가 달린 짐승머리 10개, 앞뒤로 나란하게 배치된 쌍두 1개, 발등 아래쪽과 뒤꿈치에는 불꽃무늬 각 1개가 있다.



그림 4. 정촌고분 금동신발 결합 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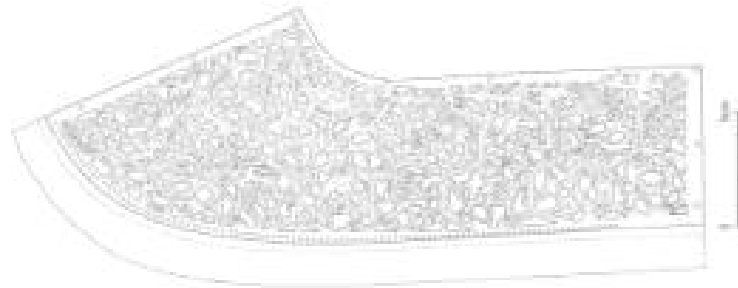


그림 5. 정촌고분 좌측 금동신발 좌측판 문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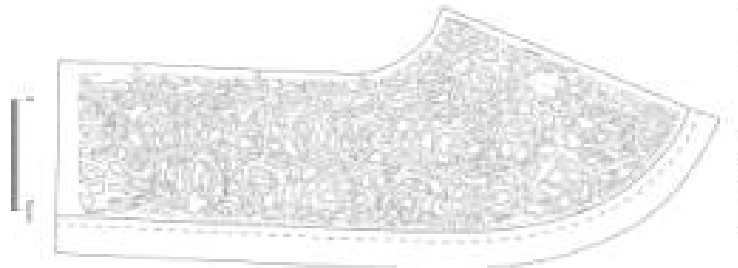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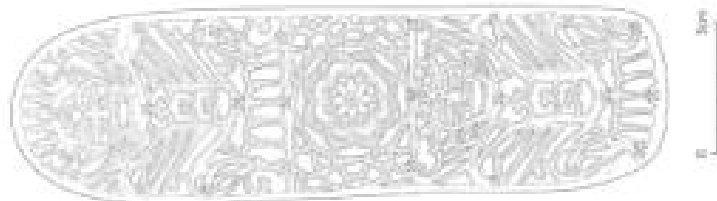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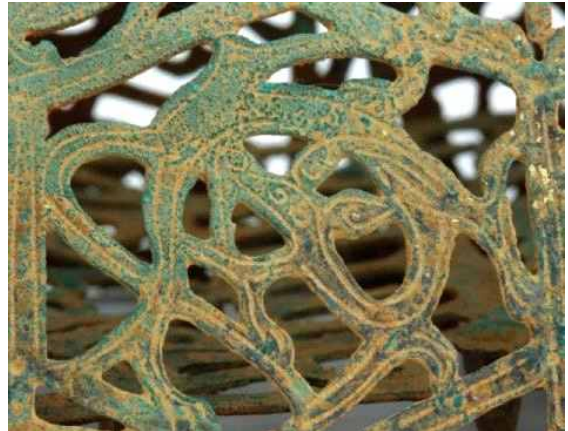
그림 6. 정촌고분 좌측 금동신발 우측판 문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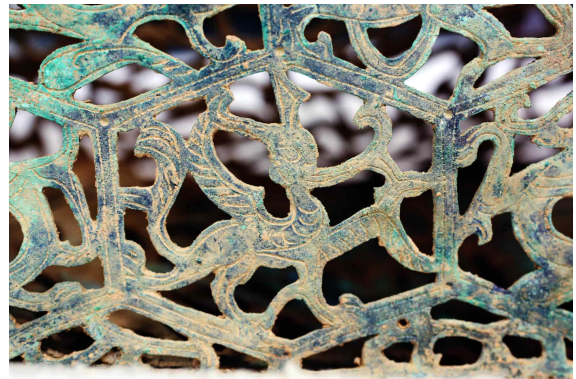
우측판에는 완전한 형태는 12개이고, 1/2 이상 표현된 것이 4개, 일부만 표현된 것이 16개이다. 완전한 형태의 육각문 크기는 가로 39.3mm, 세로 36.6mm이며, 각각의 육각문 크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각 육각문 내부에는 새가 날아가는 모습 6

개, 착지하는 모습 1개, 봉황 1개, 용머리 9개, 두 귀가 달린 짐승머리 6개, 얼굴을 돌리고 있는 모습으로 앞뒤로 나란하게 배치된 쌍두 1개, 발등 아래쪽과 뒤꿈치에는 불꽃무늬 각 1개가 있다.

오른쪽 신발의 좌측판에는 육각문이 모두 32개인데, 완전한 형태가 13개, 1/2 이상 표현된 것이 3개, 일부만 표현된 것이 16개이다. 각각의 육각문 내부에는 새가 날아가는 모습 9개, 착지하는 모습 1개, 봉황 1개, 용머리 7개, 두 귀가 달린 짐승머리 8개, 발등 아래쪽과 뒤꿈치에는 불꽃무늬 각 1개가 있다. 우측판에는 모두 32개인데, 완전한 형태가 12개, 1/2 이상 표현된 것이 3개, 일부만 표현된 것이 16개이다. 각각의 육각문 내부에는 새가 날아가는 모습 6개, 착지하는 모습 2개, 봉황 1개이고, 사람 얼굴 모습 1개, 용머리 11개, 서로 얼굴을 보면서 팔을 잡고 있는 쌍두 1개, 발등 아래쪽과 뒤꿈치에는 불꽃무늬 각 1개가 있다.



짱조문



인면조신문

왼발 좌·우측판의 2단 중앙 육각문에 봉황문이 배치되었고, 오른발은 오른쪽 측판의 발등부 육각문에 봉황문이 배치되어 차이가 있다. 왼쪽과 오른쪽 신발 모두 좌·우 측판의 하단 가장자리에 둥근 구멍을 일정 간격으로 1줄 배치하였다.

바닥판은 가운데에 8엽의 연화문이 배치되었고, 연자는 타출기법으로 표현하였다. 연화문의 직경은 57.0mm이다. 연화문을 중심으로 앞꿈치와 뒤꿈치 방향에 도깨비문을 배치하였다. 스파이크는 단면 사각형이며 바닥판을 관통하여 금동신발 안쪽에서 리벳 형식으로 고정하였다. 횡으로 3개씩 8줄로 총 24개가 부착되었다.

발목 덮개는 높이 50mm, 길이 243, 306mm 크기의 금동판 2매를 신발의 발목 안쪽 둘레에 넣되 좌우 측판이 겹치는 발등 가운데와 발꿈치 가운데에서 겹치게 하고, 좌·우에 각각 3개의 리벳으로 고정하였고, 발등과 뒤꿈치 가운데에서 좌·우 발목판을 겹치게 하고 하단과 상단에 각 1개의 리벳으로 고정하였다. 발목 덮개에는 무늬가 새겨지지 않았다.



경춘고분 좌측 금동신발 뒤꿈치 장식



원숭이문



봉황문



경춘고분 좌측 금동신발 발등 장식



경춘고분 좌측 금동신발 바닥 도면과 사진



바닥판의 앞꿈치 쪽 귀면문



발 바닥판의 뒤꿈치쪽 귀면문

<정촌고분 좌측 금동신발의 발 바닥판 문양>

발등 가운데의 좌·우 측판이 겹치는 부분을 따라 젓가락 형태의 막대 끝을 두드려 납작하게 편 다음 'S'자형태로 구부려 45° 정도의 각도로 치켜 올리고 그 끝에 두 개의 리벳을 이용하여 용머리 장식을 부착하였다. 용머리 장식이 발등에 부착되는 부분은 리벳 3개로 발등 장식과 좌·우 측판을 관통시켜 고정했는데, 좌·우 측판을 결합한 리벳과 엇갈리게 위치한다. 왼쪽 신발의 용머리장식은 완전하나 오른쪽 신발의 용머리 장식은 용머리 부분이 부러졌다. 용머리 크기는 길이 51.1mm, 높이는 26.8mm이다. 발등에 고정된 막대 표면에는 세로로 3줄의 원문이 배치되었고, 용문의 목에 해당하는 뒷부분에는 1줄의 원문이 배치되었다(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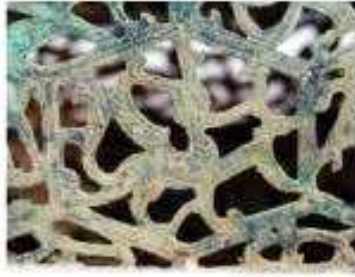
금동신발에 사용된 판은 성분 분석 결과, 동판은 구리 100%이고, 도금층은 금 70~80%, 수은 10~16%로 확인되어 아말감기법을 이용하여 도금하였다(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7).

지금까지 백제문화권에서 출토한 금동신발은 무령왕릉과 왕비의 것을 포함해 16점 출토되었다. 16점은 좌우측판의 문양 구성에 의해 투조기법의 T자문, 육각문 내부에 동물문, 타출기법의 능형 또는 육각문으로 크게 구분된다(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7). T자문이 장식된 금동신발로는 공주 수촌리 토광 1호묘, 고흥 안동, 연기 나성리, 공주 수촌리 석곽 8호묘 등이 있다. 투조기법의 육각문 내부에 여러 종류의 동물문양을 한 사례로는 공주 수촌리 석곽 3호와 석실 4호, 고창 봉덕 1호분 4호 석실, 나주 북암리 정촌고분 출토품이 있다. 타출기법의 능형 또는 육각문의 사례로는 익산 입점리 1호 석실, 공주 무령왕릉 왕과 왕비, 나주 북암리 3호분 96석실 4호 옹관 출토품이 있다. 무령왕릉 출토 왕 신발은 은제 내판 위에 금동제 투각 외판을 겹쳐서 만들었고, 왕비 신발은 내외판이 모두 금동제이다. 왕과 왕비 신발 모두 육각문 내부에 각각 꽃과 새 문양을 투각했다(주경미 2020).

육각문은 금동신발을 포함해서 환두대도의 병두부, 장식 마구 중 안교, 태환이식의 태환, 무령왕릉 출토 두침과 족대 등에 장식문으로 표현되었다. 육각문의 형태는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의 1.5 이상인 형태, 1.2 내외인 형태, 1 내외인 형태로 구분된다. 1.5 내외인 형태의 것으로는 朝陽 十二台88 M1호묘 안교에 장식된 육각문이 해당하며, 1.2 내외인 것으로는 나주 정촌고분 1호 석실 출토 금동신발과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출토 금동신발이 해당한다. 1 내외의 것으로는 무령왕릉 출토 금동신발, 경주 식리총 출토 금동신발, 경주 보문리 합장분 출토 금제 태환이식이 해당한다.



朝陽 十二台88 M1호묘 안장



나주 정촌고분 금동신발



고창 봉덕리 1-4호 석실 금동신발



경주 무녕왕릉 왕 금동신발



경주 식리총 금동신발



경주 보문리 합장분 태환이식

#### <동아시아의 육각문>

朝陽 十二台88 M1호묘는 三燕의 前燕期의 것으로서 그 시기는 4세기 중엽 또는 후반으로 편년된다. 무령왕릉과 식리총은 6세기 전반으로 편년되고, 보문리 합장분은 6세기 중엽으로 편년된다. 위의 편년을 고려하면,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과 고창 봉덕리 1-4호 석실 출토 금동신발은 무령왕릉과 식리총 출토 금동신발보다 형태적으로 앞선다. 육각문의 형태로 보았을 때,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과 고창 봉덕리 1-4호 석실 출토 금동신발의 육각문은 무령왕릉과 식리총 출토 금동신발의 육각문에 더 가까우므로 그 시기는 무령왕릉 출토품보다 앞선 5세기 후반으로 볼 수 있다.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과 고창 봉덕리 1-4호 석실 출토 금동신발의 육각문은 5세기 후반의 육각문의 형태를 알려주는 점에서 중요하다.

나주 정촌고분 1호 석실과 고창 봉덕리 1-4호 석실, 경주 식리총 출토 금동신발 측판과 바닥판에 장식된 문양으로 연화문과 쌍조문이 있고, 나주 정촌고분 1호 석실과 경주 식리총 출토 금동신발 바닥판에는 귀면문이 표현되어 있다.

<금동신발 바닥판의 연화문>



나주 정촌고분 바닥판



고창 봉덕리 1-4호 바닥판



경주 식리총 바닥판



바닥판 중앙부의 연화문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은 바닥판 중앙에 1개의 연화문만 배치되었고,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금동신발 바닥판에 모두 18개의 연화문이 배치되었다. 경주 식리총 출토 금동신발 바닥판에는 11개의 연화문이 배치되었다. 연화문의 배치 방식과 형태, 연화문 중앙에 스파이크를 박은 점 등에서 고창 봉덕리 금동신발과 경주 식리총 출토 금동신발이 유사하다.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출토 금동신발 바닥판의 연화문은 중앙과 좌·우 각각 6개의 연화문이 배치되었으나 경주 식리총 출토 금동신발에는 앞쪽에 6개를, 뒤쪽에 5개의 연화문을 배치하였다. 연화문의 형태는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금동신발에는 6엽이고, 경주 식리총 출토 금동신발의 연화문은 8엽으로 다르다.

귀면문의 경우, 나주 정촌고분 1호 석실 출토품은 투조기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되었으나 경주 식리총 출토품은 도식적으로 표현되었다.





정촌고분

식리총

<정촌고분 1호 석실과 식리총 출토 금동신발의 귀면문>

육각문의 형태와 더불어 연화문과 귀면문의 형태 등을 비교하였을 때,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과 나주 정촌고분 1호 석실 출토품이 경주 식리총 출토 금동신발보다 시기적으로 빠른 것은 분명하다. 나주 정촌고분 1호 석실 출토품과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출토품간의 선후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공반한 유물, 특히 토기를 비교하면, 고창 봉덕리 1호 석실이 나주 정촌고분 1호 석실의 2차 추가매장보다 다소 빠를 가능성은 있으나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주 정촌고분 1호 석실 출토 금동신발은 좌우 측판에 육각문을 배치하고 그 내부에 여러 종류의 문양을 투조한 금동신발은 지금까지 출토한 백제권의 금동신발 중에서 장식성이 돋보이며, 이 중에서도 나주 정촌고분 1호 석실 출토품은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출토품과 함께 가장 화려하고, 보존 상태도 매우 좋다. 특히 정촌고분 1호 석실 출토 신발 발등의 용문장식은 백제지역 뿐만 아니라 삼국시대 금동신발에서도 최초로 확인되어 금동신발 연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최근 영산강수계와 전남 남서해안 일대의 고분에서 금동신발의 출토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백제권에서 출토한 금동신발은 백제 중앙에서 각 지방의 유력자들에게 사여한 위세품으로 논의되고 있다. 마한문화권의 유력자들의 고분에서 출토한 금동신발은 백제 중앙과 영산강 및 전남 해안 세력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주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문헌자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7, 『羅州 定村古墳』

오동선 2019, 「나주 북암리 정촌고분 1호 석실의 매장의례와 금동신발의 특징」

『고대 동아시아의 금동신발과 금동관』

성윤길 2019,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금동신발의 문양 분석과 의미」 『고대 동아시아의 금동신발과 금동관』

주경미 2020, 「무령왕릉 출토 금속공예품의 현황과 특징」 『무령왕릉 새로운 반세기  
기를 준비하며』 공주시·국립공주박물관·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 기 타

이 금동신발 1쌍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에 걸친 나주 정촌고분 발굴조사에서 출토되었고, 국가귀속 대상 매장문화재임

검 토 사 항



## II.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안건번호 동산 2021-02-004

### 4. 보물 남원 실상사 철조여래좌상 (南原 實相寺 鐵造如來坐像)

#### 가. 검토사항

보물 ‘남원 실상사 철조여래좌상’(제41호)의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2017년도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조사 대상으로 추천한('17.7.5.) ‘남원 실상사 철조여래좌상’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조사('21.1.12.)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 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보물 제41호(1963.1.21.지정)
- 명 칭 : 남원 실상사 철조여래좌상(南原 實相寺 鐵造如來坐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실상사
- 소재지 :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입석길 94-129, 실상사 약사전
- 수 량 : 1구
- 규 격 : 높이 273cm, 최대 너비 203cm
- 재 질 : 철조
- 형 식 : 통견착의(通肩着衣) 및 설법인(說法印)을 결한 여래좌상
- 조성연대 : 통일신라 9세기 전반



<남원 실상사 철조여래좌상>(보물 제41호)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미흡)

실상사 철조여래좌상은 통일신라 9세기 선종사찰에 봉안된 대표적인 철불로서 장대한 크기의 대형불상을 봉안하는 종파적인 상징성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나발을 함께 제작하고 분할선이 명료하며 두 손은 따로 만들어 끼운 기법에서 철불이라는 재료적 특징과 명확한 제작기법 등 철조불상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나무로 보수된 부분이 많아 완전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존명이나 제작시기도 명확하지 않다. 즉, 철불의 무릎면과 뒷면, 두 손은 나무로 보수되어 있다. 실상사 철조여래좌상의 존명은 약사불, 아미타불, 노사나불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현재의 전각 명칭에 따라 오랫동안 약사불로 인식되었으나 <사적기>에는 노사나불, 수인 형식으로는 아미타불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상사 철조여래좌상은 통일신라 9세기 선종에서 제작된 철불이라는 희귀성과 제작기법에서의 학술 및 자료적 가치는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불상 무릎과 뒷

면의 파손, 불확실한 제작시기와 존명 그리고 현재 국보로 지정된 철불과의 비교에서 국보로 승격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미흡)

남원 실상사 철조여래좌상은 신라 하대 철불을 대표한다. 9세기 지방에서 처음으로 대형 철불을 조성하기 시작하는 획기적인 사건도 바로 실상사 철불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제작기술 또한 우수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실상사 철불이 차지하는 의미는 매우 크다. 실상사 철불은 분할주조기법으로 주조한 대형 철불임에도 불구하고 분할선을 옷주름에 따라 정교하게 나누어 섬세하게 제작했다. 당시 실상사가 왕실과 관련된 사찰임을 고려할 때 신라 왕경의 장인이 제작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현재 동국대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실상사 좌종의 규모만 보더라도 9세기 당시 실상사의 사세는 충분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실상사 철조여래좌상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철불이며, 신라 철불 가운데 그 크기가 가장 크다는 점만으로도 한국불교미술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다만 보존상태를 고려하면 아쉬움이 있다. 실상사의 철조여래좌상은 佛頭와 佛身의 중요한 부분은 잘 보존되었으나, 아쉽게도 양손, 무릎 전면, 그리고 뒷면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파손이 적잖기 때문이다. 실상사 철조여래좌상은 조형성, 제작 기법, 한국불교조각사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고려하면 국보로서의 가치가 충분하지만, 보존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에서 국보로 승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다.

### ○ (지정 가치 미흡)

- 남원 실상사 철조여래좌상은 압도적인 크기, 수준 높은 조형, 우리나라 불상 중 철을 불상재(佛像材)로 사용하여 만든 첫 번째 불상이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 철조여래좌상은 9세기 중엽 신라 왕실 발원 불상으로서, 당시 중앙양식인 경주 불상의 조형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어서 신라수도 경주 불교 문화의 지방 확산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 철조여래좌상은 약사불과 아미타불 등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9세기 중엽에 조성된 “노사나불”의 명문을 지니고 있는 삼화사 철조불좌상과 수인이 같고, 『지리산실상사사적』에 불상을 “노사나불”로 기록하고 있어서 노사나불상일 가능성이 높다.
- 철조여래좌상은 크기와 조형 면에서 다른 철불에 비해 수준이 훨씬 높은 편이지만, 불상의 앞뒷면에 걸쳐 많이 부서졌다는 점과 불상의 성격과 정확한 조성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명문과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국가지정 문화재 국보로 승격될 만한 가치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미흡)

실상사 철조여래좌상은 미술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지니는 작품이다. 그러나 유사한 사례로서 국보로 지정된 장흥 보림사상의 경우 제작연도가 확실하고, 보존상태가 비교적 완전한 것에 비하여, 실상사상은 제작연도가 실상사 창건시기로 추정되어 거의 확실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 등판 및 오른발에 파손된 부분이 있어 보림사상에 비교하면 국보로서의 완결성에 있어 다소간의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다만 이 불상의 독특한 양식은 당시 경주의 중앙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불상양식과 남원지역의 지방적 양식이 조화되어 이루어진 결과로 생각되며, 이후 통일신라 양식을 계승한 고려시대의 불상양식의 선구적인 조형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보림사상과는 또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추후 실상사 철조여래좌상에서 아쉬움으로 남는 조성연대 확인 및 완결성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국보지정을 보류하고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실상사 철조여래좌상은 파손된 부위를 통해 철불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철불의 제작기법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존명에 있어서도 활발한 논의가 전개 중인만큼 머지 않아 조성연대 및 존명에 대해서도 진전된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지정 가치 미흡)

실상사 철불은 구산선문 중 가장 일찍 개창되어 크게 번창한 사찰로, 사찰에는 철조여래좌상은 처음 이 땅에 처음 발을 내딛은 선종의 신앙과 사상적 경향을 연구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자료임에는 틀림없다. 이미 국보로 지정된 858년의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과 865년의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과 비교해 조형적인 면에서나 규모적인 면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은 불상이다. 다만 이 철불의 제작시기 문제, 봉안 장소 문제, 존명에 대한 문제 등 주요 쟁점이 아직 완벽하게 해소되지 못한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가 우선 해소된 뒤, 국보 승격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 부 결



## 조사보고서



### 1. 내용 및 특징

실상사는 826년 중국에서 귀국한 洪陟이 흥덕왕의 후원을 받아 828년 창건한 유서깊은 선종사찰로서 현재 제17교구 금산사의 말사이다. 실상사 창건 이후 홍척의 제자 秀澈화상(815-893)은 636년 문성왕의 후원을 받으면서 실상사의 2조로서 사세를 본격적으로 확장하게 된다. 수철화상에 대해서는 실상사에 있는 「深源寺秀澈和尚塔과 塔碑」(보물 제33호, 34호)를 통해 그의 생애와 행적이 잘 알려져 있다.

실상사 철조여래좌상은 현재 약사전에 봉안되어 있으며 1680년경 현재의 위치로 이운되어 봉안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도1). 발굴 결과 조선시대에 세워진 약사전 밑에 고려시대의 건물지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철불 밑에는 조선시대로 추정되는 석조대좌가 남아 있다(도2). 1987년 철불 내부에서 원래의 철제수인이 발견되어 약사전에 별도로 봉안되어 있다. 실상사 철조여래좌상이 제작된 배경에는 남원 근처의 야철지와 관련되며 운봉고원은 최대규모의 철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다.

약사전의 철조여래좌상은 길쭉한 신체에 큰 얼굴, 낮은 무릎으로 장대하면서도 위엄있는 모습이다. 좁은 이마에는 하얀 불투명 구슬로 감입된 백호가 있으며, 둥글고 넓적한 큰 방형의 얼굴과 수평으로 이어진 긴 눈에 작은 코와 입이 특징이다. 또한 눈에는 눈동자가 새겨져 생동감이 있으며(도3), 통통한 볼에 오뎅한 콧날, 돌출된 인중에 입술선은 단정하여 근엄함과 위엄이 넘치는 相好를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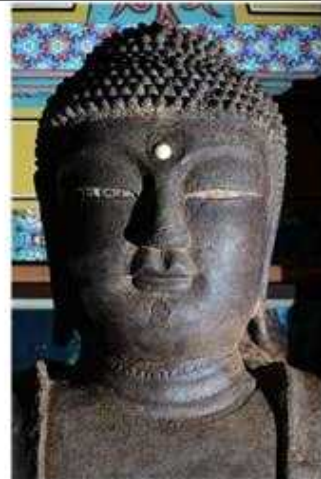


목에는 삼도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다. 전체적인 크기에 비해 어깨는 좁으며 가슴은 편평하다. 오른쪽 어깨에 편삼을 입고 그 위에 편단우견식 대의를 걸쳤으며, 가슴 밑에는 약간 사선으로 가로지르는 내의를 입었다. 내의와 대의는 질감에 차이를 두었는데 대의자락은 좀 더 무겁게 늘어진 느낌을 주며 옷주름 사이에 볼륨을 주어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두 손은 1987년도에 복원한 것으로 시무외인. 여원인에 오른손은 어깨 높이로 들어 엄지를 구부렸으며 왼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역시 엄지와 중지를 맞대어 구부렸다. 후보된 수인은 원래 불상 내부에서 발견된 철제수인을 그대로 다시 만든 것이다.



도2) 석조대좌(2010년 사진)



도3) 얼굴과 눈동자 표현

실상사 철조여래좌상은 현재 많은 부분이 보수된 상태이다(도4). 오른쪽 다리의 앞면과 뒷면 등판의 많은 부분이 파손되어 나무로 보수된 상태이며 두 손 역시 나무로 다시 만든 것이다.



도4) 나무로 보수된 부위

실상사 철조여래좌상은 실상사의 역사인 9세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9세기의 불상들과 재질이나 대의 착의법, 옷주름 등에서 보이는 유사성에서도 확인된다. 즉, 8세기 후반의 백률사 금동여래입상과는 대의 표현이 유사하며 삼화사 철조노사나불좌상(보물 1292호)과는 노사나불이라는 존명을 비롯하여 시무외인과 여원인의 수인 그리고 수직으로 길게 뻗은 눈과 짧은 코등에서 비슷하다. 삼화사 노사나불좌상 역시 손은 후보되었는데 손의 위치가 비슷한 점에서 같은 형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5) 철조여래좌상의 주조분할선

제작기법은 분할주조법으로 분할선이 명료하다(도5). 그러나 앞면에는 분할선을 적게두고, 측면에 분할선을 두어 정면에서 봤을 때 외형적으로 조화롭게 보이도록 노력하였다. 표면에는 안뜰과 바깥뜰을 고정한 형지자국이 잘 남아 있다. 철불의 밑면은 현재 마루에 가리어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밑에는 석조대좌가 받치고 있는데 이는 조선시대에 불상을 봉안하기 위해 다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

실상사 철불은 현재 조선시대에 세워진 약사전에 봉안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오랫동안 약사불로 인식되고 신앙되었다. 그러나 불상 내부에서 발견된 하품중생인의 철제수인이 발견되면서 아미타불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실상사사적기>에는 철불의 존명이 노사나불로 기록되어 있어 노사나불로 보기도 한다. 노사나불은 화엄종의 주존불이다. 859년에 제작된 장흥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국보 제117호)도 <보림사 보조선사탑비>에 노사나불 한 분을 조성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동해 삼화사 철조노사나불좌상 역시 상의 뒷면에 양각된 기록에 의하여 노사나불로 확인되었다. 삼화사 철불과 실상사 철불은 수인 형식도 비슷하다. 따라서 실상사 철조여래좌상은 약사불, 아미타불, 노사나불일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있다.

실상사 철불의 제작시기는 828년 흥척선사에 의해 제작되었을 가능성, 수철화상에 의해 조성되었을 가능성 그리고 장보고와 관련된 문성왕대(840-856) 등이 제기된

바 있다.

□

현재 국보로 지정되어있는 통일신라 9세기의 철불은 858년 장흥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국보 제117호)과 865년 철원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국보제63호)이다. 두 철불은 실상사 철조여래좌상과 같은 9세기에 만들어진 작품으로 보존상태가 좋으며 상과 관련된 명문이 상에 주조되어 있어 제작시기 및 제작배경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철불로 인정되어 국보로 지정되었다.

장흥 보림사 철불은 높이 250cm에 팔뚝에 명문이 주조되어 있으며 858년 무진주 장사현의 부관 김수종이 왕의 허락을 받아 주조했다는 배경과 더불어 철불로 제작된 첫 번째 선종사찰(가지산문)의 주존불로서 의미가 크다. 철원 도피안사 철불은 대좌까지 철로 제작된 유일한 사례로서 불상의 등판에 명문이 주조되어 있어 865년의 제작연대와 지방의 신도 1500명이 참여한 상과 관련된 제작배경이 자세하게 남아 있다.

#### ○ 참고문헌

문명대, 「신라철불 조성문제와 실상사아미타불좌상의 연구」 『불교학보』 37, 2000,  
강건우 「실상사 철불 연구」, 『불교미술사학』 15집, 불교미술사학회, 2013,  
곽장근, 「운봉고원의 제철유적과 그 역동성」, 『백제문화』 52권, 2015,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 ○ 현 상

실상사 약사전에 봉안되어 있는 높이 2.73m의 철조여래좌상이다(도1과 2). 전북 남원에 위치한 실상사는 洪陟선사가 828년 무렵에 창건한 선종 사찰이다. 홍척선사는 흥덕왕이 즉위한 해인 826년 唐에서 귀국하고 햇수로 3년 후에 실상사를 창건했다. 이후 조선시대까지 여러 차례 중창과 폐사를 거듭하며 오늘에 이른다. 현재 보물 제41호로 지정되어 있는 실상사 철조여래좌상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실상사 약사전에 봉안되어 있다(도1). 불상 높이 273cm로, 국보 제117호로 지정되어 있는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251cm)보다도 22cm 더 크다. 신라시대에 조성된 철불 가운데 가장 큰 크기이다.



<도1> 실상사 약사전



<도2> 실상사 철불(사진 오른쪽: 일제강점기 유리건판사진)



<도3> 실상사 철불 상호



<도4> 실상사 철불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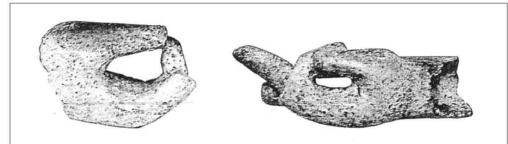


<도5> 실상사 철불 측면과 1987년 복장에서 발견된 철제 손



머리카락은 螺髮이며, 정수리에 솟은 육계는 평퍼짐한 모양이다(도 3). 이마는 좁으며, 눈썹은 활모양으로, 눈은 좌우로 길게 표현했다. 코의 길이와 인중은 얼굴 길이에 비해 짧다. 특히 윗입술을 산 모양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적이다. 턱은 길며, 양 뺨에 살이 있어 양감이 두드러진다. 귀는 귓불이 훼손되었던 것을 보수했으며, 귓바퀴의 가장자리를 띠 모양으로 표현한 것도 특징적이다(도4). 대의는 양쪽 어깨를 덮은 통견 형식으로 걸쳤으며, 가슴에는 비스듬한 승각기[內衣]가 보인다.

오른손은 올리고, 왼손은 내린 채 가부좌를 틀었다. 현재 양손은 모두 새로 조성했지만, 팔목의 위치로 보면 오른손은 올리고 왼손은 내렸음이 분명하다. 지금의 양손은 1987년 북장에서 발견된 철로 만든 손을 그대로 본떠서



<도6> 도5 철제 손의 드로잉

나무로 조성해 끼운 것이다. 철제 손은 36cm, 손목까지는 46.5cm나 되는 큰 크기이며, 엄지와 중지를 맞댄 아미타수인을 하고 있다(도 6). 당시 발견된 철제 손은 약사전 전각 내에 유리장 안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도 5). 실상사 철불은 아쉽게도 보존상태가 좋지 못하다. 양손을 새로 조성했으며, 불상의 뒷면, 그리고 무릎을 비롯해 손상 정도가 적지 않다(도 7,8).



<도7> 실상사 철불 손상 상태



<도8> 실상사 철불 손상 상태 (왼쪽 2010년 촬영)

## ○ 내용 및 특징

### ■ 제작기법 : 분할주조법(piece mold cas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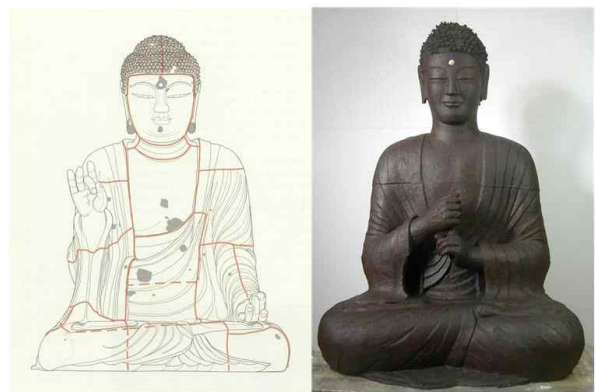
실상사 철조여래좌상은 분할주조법(piece mold casting)으로 제작했다. 분할주조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제작한다. 우선 흙으로 상을 조각(內型)하고 그 위에 점토를 섞워 外형을 만든 후 외형을 적당한 크기로 분할해서 떼어낸다. 그리고 철불의

두께만큼 내형을 깎아 낸 후 떼어두었던 외형을 다시 덮고 고정시킨 후 그 사이에 주물을 부어 완성하는 방법을 말한다. 외형을 분할한다고 해서 ‘분할주조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내형을 깎아냈다고 해서 ‘삭중자(削中子)주조법’이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철불을 주조한 경우 분할했던 외형들 사이로 새어나온 쇳물이 굳어서 철불 표면에 분할선이 나타난다.

실상사 철조여래좌상의 분할면은 머리 부분에 8면, 몸체는 앞면만 최소 22면, 뒷면은 8면으로 나뉘었다(도 9). 분할면이 많을수록 세부를 안정적으로 주조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며, 분할선이 많아져 표면에 이음매가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철은 강도가 높기 때문에 이 이음매를 매끈하게 갈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실상사 철불은 옷주름을 따라 분할면을 나뉘었기 때문에 정면에서 보면 분할선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도9). 통상 분할선이 가슴 위를 가로질러 드러난 것과 차이를 보인다(도9과 10 비교). 이처럼 실상사 철불이 옷주름을 따라 분할면을 나눠 정면에서 보았을 때 이음매가 두드러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처리했다는 점에서 제작 장인의 세심함과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엿볼 수 있다.

## ■ 제작시기 : 신라 하대 9세기

실상사 철불이 9세기에 제작되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9세기 가운데서도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로 나뉜다. 크게는 실상사 창건기(828)~홍척선사의 입적(840) 이전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다른 하나는 문성왕대인 840-856년 사이로 보는 견해이다.<sup>23)</sup> 실상사 철불은 9세기에 제작된 백률사 금동여래입상과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하다. 눈두덩이가 두툽한 점, 옆으로 길게 새겨진 눈, 산 모양의 윗입술 등의 이목구비와 오른손 아래로 떨어지는 U자형 주름, 어깨 뒤 허리에서 자연스럽게 접힌 대의자락 처리, 번파식 옷주름 표현도 백률사 금동여래입상과 유사한데, 철불의 유행시기를 고려해도 9세기 중엽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도9> 실상사 철불의 이음선

<도10> 철원 도피안사 철불

## ■ 手印과 존명, 원봉안처

실상사 철불의 존명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약사불,

23) 828-840년은 崔聖銀(「신라하대 實相寺 철조여래좌상에 대한 고찰」 韓國史學報 54, 2014, pp. 181-185), 840-856년 사이로 보는 견해는 강건우(「實相寺 鐵佛 研究」 불교미술사학 15, 2013, pp. 72-79)가 있다.



아미타불, 노사나불이다. 첫째, 약사불은 현재 약사전 내에 봉안되어 있고, 寺中에서도 약사불이라 부른다. 그러나 철불의 수인, 실상사 약사전이 조선시대에 건립된 전각이라는 점에서 철불의 존명이 약사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아미타불은 1987년 철불의 해체·수리과정에서 엄지와 중지를 맞댄 설법인의 철제 손이 복장에서 발견된 점을 근거로 한다. 셋째, 노사나불이다. 노사나불로 보는 근거는 아래의 20세기 후반에 지어진 『智異山實相寺事蹟』의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다.

“當時九山에서 一般本尊으로 崇奉하든 盧舍那像이니 陽山之鳳巖寺와 迦智山之寶林寺에도 比와 同様の 鑄像을 奉寔하였는데 寶林寺普照碑中에 盧舍那像이라고 하였다. 세속에서 석조상은 통칭 미륵이라 하고 주조상은 통명하여 약사라 하나니 본 불상이 廣野田地 중에 있을 시에 世人이 약사라 칭하였는고로 중창 당시에 忘本從俗하여 名함이로다.” (1970년, 「智異山 實相寺事蹟」 佛像及貴重品 藥師坐佛 鐵鑄 1體)

신라 하대 9세기 제작이라는 점, 선종 사찰이라는 점, 비슷한 시기에 조성한 삼척 삼화사의 노사나불 또한 같은 형식의 손 모양을 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상사 철불의 존명은 노사나불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한편, 1987년 복장에서 발견된 철제 손이 실상사 철불을 처음 조성했을 당시의 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9세기는 엄지와 중지를 정확히 맞댄 아미타수인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曷夏望(1682-1747) 『西州集』의 「實相寺見鐵佛有吟」에 ‘16세기 중엽(실상사) 철불의 손이 훼손되었다’는 기록도 남아있어, 짐작컨대 복장에서 발견된 철제 수인은 17세기 이후 새롭게 조성한 손일 가능성이 높다.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기록도 전한다.

“변도탄(變桃灘) 사정(士貞)이 철불상의 두 팔을 부수었다. 그래서 옛일을 적어서 내 뜻을 밝힌다.”<sup>24)</sup>

변사정(1529-1597)이라는 유생이 실상사의 두 팔을 부수었다는 이야기인데, 변사정은 1529년부터 1597년까지 생존한 인물이어서 16세기 중엽에 실상사 철불의 양손이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0세기 초에 촬영한 일제강점기의 사진에도 같은 손 모양인 것을 보면, 1987년 복장에서 발견된 철제 손은 16세기 중엽 이후 언젠가 새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새로 조성한 철제 손이 또다시 파손되자 철제 손을 복장물로 납입한 것으로 보인다.

24) 曷夏望(1682-1747) 『西州集』의 각주.

끝으로 실상사 철불은 현재 약사전에 봉안되어 있지만, 원 봉안처는 약사전이 아니라 금당(현재의 보광전)일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된 바 있다. 실상사 철불의 크기, 제작 시기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9세기 중엽 실상사의 주존불로 봉안되었을 것이며, 현재 보광전 자리인 금당에 모셔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 ○ 참고문헌

- 강건우, 「남원 실상사 철조여래좌상 재고」, 『한국고대사탐구』 27, 2017, pp. 103-136  
 강건우, 「實相寺 鐵佛 研究」, 『불교미술사학』 15, 2013, pp. 71-100  
 배재훈, 「신라 하대 철불의 수용과 후원 세력」, 『한국고대사탐구』 27, 2017, pp. 7-55  
 조범환, 「신라 하대 洪陟 선사의 實相山門 개창과 鐵佛 조성」, 『新羅史學報』 6, 2006, pp. 41-68  
 진정환, 「신라 하대 선종 미술의 모태, 실상산문의 불교미술품」, 『전북사학』 53, 2018, pp. 5-40  
 최성은, 「신라하대 實相寺 철조여래좌상에 대한 고찰」, 『한국사학보』 54, 2014, pp. 157-190

## □

## ○ 현 상

- 철조여래좌상은 현재 실상사 약사전(藥師殿)에 봉안되어 있는데, 광배와 대좌는 없어진 상태이다.
- 철조여래좌상은 양 손, 오른쪽 다리, 양다리 사이의 법의 자락, 들어 올린 오른팔의 법의 속, 불상 뒷면 등 상당한 부분이 없어져 나무로 만들거나 덧대어 보수된 상태이다.
- 1987년, 불상 속에서 발견된 양 손(철제 불수佛手, 전체 길이 46.5cm)은 현재 약사전 안 좌측 벽(불상을 기준)에 마련된 아크릴 진열대 속에 전시되어 있다. 불상의 왼손으로 추정되는 손은 검지와 소지의 끝부분이 부러져 없어진 상태이며, 오른손으로 추정되는 손도 검지, 약지, 소지의 상당 부분이 부러져 없어진 모습이다.
- 불투명 물체로 만들어진 백호(白毫)도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후보된 것으로 추정되며, 왼쪽 눈동자는 손상된 상태이다.
- 불상의 몸에는 분할 주조로 인해 생긴 분할선(分割線, 여러 판을 이은 거푸집을 사용함으로써 판과 판의 이음새로 쇳물이 흘러나와 생긴 선)과 형지(型持, 안틀과 바깥틀을 고정하는 것) 자국이 남아 있으며(국립중앙박물관, 『남원 지역의 철불-실상사·신원사·대복사 철불 조사 보고-』, 2011, p. 106.), 턱과 입에서는 후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채색의 흔적이 확인된다.

## ○ 내용 및 특징

- 불상에 대해서는 양대박(梁大樸, 1544-1592)이 조선시대 1565년에 폐사되어 있던 실상사에서 노천의 석상(石床) 위에 놓인 철불을 목격한 기록(『청계집靑溪集』권4 『두류산기행록頭流山紀行錄』)과 조선시대 후기에 철불의 손이 훼손되었다는 조하망(曹夏望, 1682-1747)의 『서주집西州集』[실상사견철불유음實相寺見鐵佛有吟]의 기록 등 조선시대 기록이 남아 있다.
- 불상은 통견 방식으로 법의를 입고 설법인을 결한 채 가부좌하고 있다. 오른손은 어깨까지 들어 올려 손바닥을 앞을 향하게 한 채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으며, 왼손은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한 채 오른쪽 발바닥 위에 올려놓은 모습이다.
- 불상은 나발(螺髮)의 머리카락, 백호, 삼도(三道)를 갖추고 있으며, 좁은 어깨, 편평한 가슴, 긴 허리를 가지고 있다.
- 불상은 장방형의 얼굴에 넓고 편평한 육계, 좁은 이마, 가늘고 긴 눈, 짧은 코와 인중, 도톰한 입술, 작은 입, 부은 듯한 눈두덩, 양감이 느껴지는 양 볼을 가지고 있다.
- 불상의 법의는 몸의 굴곡을 따라 자연스럽게 처리되었는데, 어깨와 배 위의 띠 주름과 오른쪽 팔꿈치 옆으로 살짝 흘러내린 갈고리 모양의 법의 주름은 9세기 경주 불상에서도 보이는 특징들이다.
- 불상은 노출된 양발의 발바닥에서 양감을, 손가락의 손톱에서 사실감을 느낄 수 있다.
- 불상의 성격에 대해서는 “약사불”과 “아미타불”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지리산 실상사사적(智異山實相寺事蹟)』에 “노사나불”로 기록되어 있고, “노사나불”의 명문을 지닌 강원도 동해의 삼화사(三和寺) 철조불좌상(9세기 중엽)과 같은 수인을 취하고 있어서 노사나불상으로 추정된다.
- 불상은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철불 중에서 가장 이른 예로서, 흥덕왕(興德王, 826-836 재위)과 그의 동생 선강태자(宣康太子, 김충공金忠恭, 민애왕의 아버지)가 홍척(洪陟, 810년에 입당 유학하여 826년에 귀국함)이 828년 전라북도 남원의 실상산문(實相山門) 실상사(實相寺)를 창건할 때 후원한 것으로 보아 이 무렵 왕실에서 발원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불상에 보이는 8세기 중엽 이후의 경주 불상의 조형적인 특징은 실상사 건물지에서 출토된 포도당초문 암막새와 현 보광전(普光殿) 건물지에서 출토된 단엽중관연화문(單葉重瓣蓮華文) 수막새의 문양, 실상사 동종의 문양 등이 왕경 경주의 출토품에서도 확인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불상은 경주 불상을 조형적으로 계승한 모습과 수준높은 작품성, 압도적인 크기로미루어 보아 9세기 중엽에 실상사가 신라 왕실의 후원을 받아 창건될 때 경주 장인에 의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사진]



실상사 약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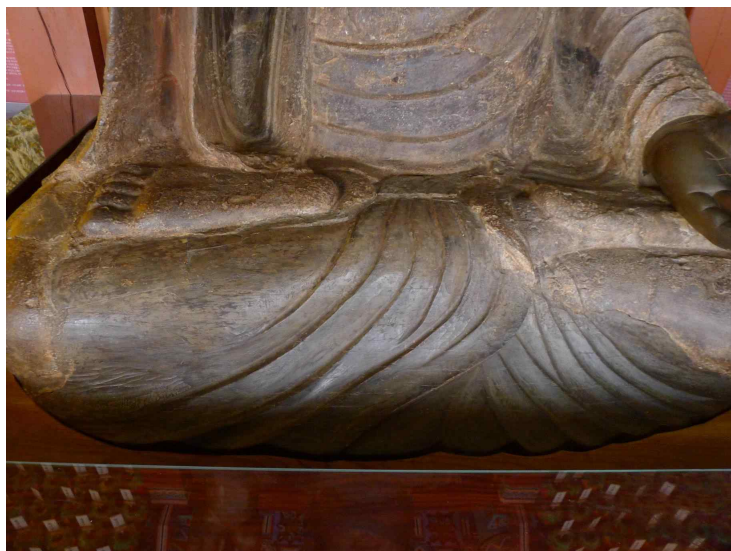
철조여래좌상(보수당시 모습)



철제 佛手



불상의 형지와 분할선



불상 앞쪽 보수 흔적



불상 뒤쪽 보수 흔적



## ○ 현 상

남원 실상사 철조여래좌상은 높이 273.59cm의 대형 철조불상으로서 전형적인 장육상의 규모이다. 좌상은 입상의 절반 높이로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불상이 입상이라면 전체 높이는 547cm가 되는데, 장육상, 즉 16척을 기준으로 하면 1척 34.18cm에 해당하여 대략 고구려척(동위척)으로 알려진 1척=35cm에 근사한 규격이다. 이는 경주 황룡사 건축에 적용되었고, 마찬가지로 황룡사 금당 안에 봉안되었던 장육존상에도 적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척도이며, 일본 아스카데라(비조사)에 봉안되어 있는 청동대불의 크기인 2.7m와 거의 동일한 규모이다. 이 크기는 따라서 당척이 아닌 보다 고식이라고 할 수 있는 삼국시대 신라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을 때의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주 황룡사 장육존상의 규격을 하나의 범본으로 삼고 있을 가능성도 시사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철불좌상의 불두는 신체비례적으로 볼 때 다소 큰 편이며, 팽팽하게 숨을 들이쉬는 듯 전체적으로 얼굴이 둥글다. 정수리의 육계는 높지 않은 편이지만, 정수리 자체가 비교적 낮아서 정수리와 육계의 높이가 서로 유사한 높이로 솟아있기 때문에 육계 자체로만 보면 비교적 분명하게 위로 솟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래쪽의 턱은 각이 진 모습이어서 강건한 인상을 준다. 이목구비의 표현은 일반적인 안면묘사에 비해 눈의 높이는 다소 낮고, 입술의 높이는 다소 높아서 코를 중심으로 이목구비가 중앙으로 몰려있는 느낌이 든다. 때문에 원래는 크고 긴 코이지만 눈의 높이가 코의 아래로 치우쳐있어서 코도 짧아 보인다. 콧날이 높고 날카로우면서도 두터운 것이 반해 입술은 좌우로 좁고, 대신 도톰하게 풍부한 양감으로 강조되어 있어서 관능적이면서도 투박한 인상을 동시에 준다. 이에 반해 눈은 좌우로 길고 가늘게 뜨고 있어 날카로운 인상을 준다. 눈동자는 오른쪽 눈동자는 검은자위의 표현이 아직 남아있으나, 왼쪽 눈동자는 마치 감입되어 있던 것이 떨어져 나간 듯한 자리에 녹이 슨 것이 보인다. 백호는 사라져 없던 것을 비교적 근래에 백옥 혹은 백대리석처럼 보이는 재질의 반구형의 백호를 새로 감입했다. 입술에는 붉은 색으로 채색했던 흔적이 양감이 깊숙한 곳에 아직 남아있다. 입술의 선은 윗입술의 경우 윤곽선이 활모양으로 심하게 굴곡져 있고, 그 위로 인중이 높게 솟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양쪽 볼은 팽팽하게 부풀어오른 것 같지만, 입술과 코 주변만 부풀어오른 표현이 근소하게 표현되어 있을 뿐이어서 전반적으로 경직된 느낌이 든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실상사 철조여래좌상의 안면표현은 중후한 느낌보다는 오히려 청년에게서 풍기는 직설적이면서 강건한 인상을 주고 있고 있다는 점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머리카락은 나발로 되어 있는데, 전체 불두의 크기에 비해 나발 각각의 크기는 작으면서 매우 촘촘하게 자리잡고 있다. 옆으로는 눈의 높이 정도까지 나발이 내려와 있으며, 그 아래로는 안뜰깎기구조법(삭중자구조법)으로 구조할 때의 외형틀의 결합선이 이어져 있다. 불두 뒤쪽으로는 아래로 내려올수록 나발의 크기가 커지며 뒤통수 하단부에 또다른 외형틀 접합선 흔적이 보인다. 귀는 ‘C’를 좌우에서 눌러 위아래로 길게 늘인 형식이며, 굵은 콧볼 윤곽 외에는 콧구멍 주변의 살이 접힌 부분만 작은 ‘?’(물음표) 모양으로 솟아올라있다. 측면에서 보면 턱을 아래로 당긴 듯한 인상에 날카로운 콧날과 팽팽한 볼, 또렷한 눈매가 한층 젊고 강건한 인상을 준다.

착의법은 상의(올다라승)를 통건으로 입고, 그 위에 대의(승가리)를 편단우견으로 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등판의 옷주름이 남아있었다면 조금 더 상세히 파악이 가능하지만, 현재 등판이 상당부분 떨어져나가 등판의 옷자락의 흐름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왼쪽 어깨를 넘어서 뒤로 넘긴 옷자락이 있었던 흔적이 왼쪽 등쪽 상단에 남아있으며, 오른팔 상박의 뒷부분에는 옷자락이 겨드랑이 쪽으로 말려들어가는 듯한 옷주름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아마도 이런 흔적으로 보아서 등 뒤로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옆구리로 흐르는 편단우견의 대의자락이 지나고 그 틈으로 상의의 일부를 안정적으로 말아넣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떨어져 나간 등판 부분은 목재로 일부 옷자락을 추정복원하여 매꿔놓은 상태이다. 한편 등판은 허리 아래로는 잘 남아있어서 대의자락의 옷자락으로 보이는 주름이 일부 확인된다.

정면에서 보면 양쪽 팔의 표면에 전반적으로 옷주름이 잡혀 있지만, 뒤에서 보면 팔의 상박에는 주름이 거의 표현되지 않았다. 특히 측면에서 볼 때 팔의 옆면에 있는 외형틀 분할선을 중심으로 앞쪽으로는 옷주름이 있고 뒤로는 없는 것을 보아서 작업의 능률상 뒷면의 옷주름은 대략 생략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측면 상박에 있는 구조선은 오른쪽 측면은 부드럽게 처리되었지만, 왼쪽은 뚜렷하게 남아있어서 차이가 있다.

대신 정면에서 볼 때 눈에 들어오는 부분의 옷주름은 매우 촘촘하고 유려하게 표현해내고 있다. 양쪽 어깨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통건의 상의는 아래로 올수록 약간 폭이 좁아지는 모습이며, 그 위로 등쪽에서 오른쪽 옆구리를 돌아나와 왼쪽 어깨로 올라가 걸쳐지는 대의 자락이 표현되어 있다. 양쪽 팔을 감고 있는 옷자락은 상박의 경우 몸에 밀착된 것을 표현하듯 파배기처럼 말려있는 것처럼 표현했고, 팔뚝 아래로는 물흐르듯이 부드럽게 감싸고 있는 것으로 표현했다. 그 옆으로는 상의와 대의의 자락이 옷소매처럼 양 옆으로 흘러내리는데 아래로 올수록 점차 부채꼴로 넓게 퍼지면서 앉아있는 다리 아래로 말려들어갔다가 불상의 맨 아래 방석처럼 짧게 펼쳐진 면 위로 물결치듯이 흘러나오는 모습으로 마무리했다.

또한 소매 아래로 펼쳐진 옷자락과 등쪽 허리에서 흘러내린 옷자락이 서로 중간은 끊어질듯 이어진 옷주름으로 표현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불상의 각 신체부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소매에서 흘러내리는 옷자락에는 가로로 분할주조선이 보인다.

상의의 양쪽 깃 사이로 노출된 가슴에는 양쪽 가슴 근육이 묘사되어 있고, 목에는 삼도가 표현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어깨가 넓고 상체가 당당하여 강건한 인상을 준다. 또한 비례적으로 보았을 때 상체가 크고 높아서 전체적으로 불상이 더 커 보이는 효과도 있다.

결가부좌한 두 다리는 발바닥이 위로 향하여 양쪽 허벅지 위에 올라가 있는데, 발바닥이 가사자락에 일부 덮혀 있는 예도 있지만 여기서는 두 발바닥이 모두 훤히 드러나는 형식이어서 양쪽 발가락이 섬세하게 모두 묘사되었고, 발바닥의 양감도 잘 표현되어 있다. 또한 발뒷꿈치를 지나는 균의(안타회) 자락이 한번 반전되어 접혀있는 것으로 표현하여 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

교차한 두 다리는 왼발을 먼저 올리고 그 위에 오른발을 얹은 길상좌의 결가부좌이다. 두 다리 사이로 흘러내리는 옷자락은 오른발 앞쪽 일부가 파손된 것을 복원한 것이지만 원형은 대체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옷자락의 흐름을 보면 오른발의 옷자락이 위로 펼쳐지고, 그 아래로 왼발의 옷자락이 대칭되게 펼쳐지는 방식이다. 상체에 비해 하체의 너비나 높이가 다소 작은 비례이지만 전체적으로 불상이 불안정한 느낌은 들지 않고, 다만 무게 중심이 위로 다소 쏠리면서 압도적인 느낌이 더욱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철불좌상의 수인은 현재 아미타구품인을 결하고 있는데, 원래는 약사불의 수인이었으나 2013년 불상 내부에서 원래의 손인 구품인 양손이 발견됨으로써 이를 근거로 새롭게 손을 만들어 지금과 같은 구품인 수인을 결하게 되었다.

## ○ 내용 및 특징

남원 실상사 철조여래좌상은 통일신라 후기의 선종계 사찰에서 제작된 대형 철조 불상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서 그 규모와 양식에 있어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걸작이다. 특히 통일신라 후기에 지방이 정치·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지방에서도 이러한 대형불상이 조성됨과 동시에 수도 경주와는 다른 독자적인 양식을 형성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도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되는 상이다. 통일신라 후기는 대체로 호족의 득세로 왕권이 약해지고 점차 분열로 나아가는 혼란기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선종이 호족의 후원만 받으며 반중앙정부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지방의 선종사찰들도 왕실의 후원을 받고 있었던 사

실이 강조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 후원세력이 호족이든 왕실이든, 이러한 대형의 불사가 9세기에 이르러 중앙인 경주 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경주 중심의 신라경제가 점차 다각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역시 중요한 변화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대형철불의 존재는 지방사의 시각에서 보면 경주 중심의 경제발전에서 점차 지방 자체의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며, 경주의 왕실도 이러한 지방의 경제를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해볼 수 있다.

나아가 실상사 철조여래좌상은 한편으로는 경주의 세련된 조각양식이 지방화되면서 나타난 경직되고 투박한 양식으로 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슷한 시기 경주 불국사에서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아미타여래좌상과도 비교되어 그 양식적 해석에 있어서 상반된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아마도 이러한 견해를 종합해보면 실상사 철불은 왕실의 후원을 받아 경주의 불상 양식을 바탕으로 두면서도 남원지역 및 선종불교의 사상적 배경이 더해진 새로운 양식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불상에 대해서는 원래 약사불의 수인을 결한 약사여래로 간주되어 약사전에 봉안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2013년도에 아미타구품인의 양손이 불상 내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어 현재는 이를 기초로 복원한 구품인 수인을 결하고 있으며, 원래는 아미타불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원래의 존명을 확인한 것도 의미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처럼 수인을 교체하여 필요에 따라 다른 존명의 불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여기에 더하여 중국의 낙양 용문석굴 봉선사동 마애불좌상이나 일본 나라 도다이지(동대사) 대불의 경우 실상사 철불처럼 시무외·여원인 계통의 수인을 결한 대형불상들이 노사나불상으로 조성되었음을 참고하여 실상사 철불 역시 노사나불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비록 현재의 도다이지 대불은 수인에 있어 모든 손가락을 펴고 있는 모습이지만, 원래의 대불의 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연화대좌에 새겨진 연화장세계의 주불로 묘사된 노사나불은 아미타구품인처럼 엄지와 중지를 맞댄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상사 철조여래좌상이 노사나불일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더불어 만약 노사나불이라면, 현재까지는 실상사의 주불전인 보광전과 철불이 모셔진 약사전의 역사를 별도로 있으나, 이 철불이 실제로는 실상사의 주불전인 보광전의 주불이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해볼 여지가 있는 주장이라 하겠다.

나아가 통일신라 후기의 선종계 사찰에서 봉안된 철불은 그 도상이 지권인을



결한 비로자나불인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보림사의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을 비롯하여 광주 증심사, 철원 도피안사, 예천 한천사 철불을 들 수 있다. 반면 실상사 철불과 같은 노사나불 수인으로는 삼척 삼화사 노사나불이 대표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현존하는 사례로만 보면 장흥 보림사 철불이 통일신라시대 지권인 철조노사나불상을 대표한다면, 실상사 철불은 철조노사나불상을 대표하는 규모의 불상이라 할 수 있다.

### ○ 문헌자료

실상사 사적이 전하며, 과거에는 사적에 기록된 노사나불은 현재의 철불과 별도의 불상으로서 간주되어 왔으나 중국·일본 불상과의 도상학적 비교와 삼척 삼화사 철조노사나불좌상 등의 사례를 통해 노사나불일 가능성이 제기되어 실상사 사적의 노사나불이 현재의 철불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 金映滲, 「지리산 실상사사적」 상·하, 『고고미술』 108, 고고미술동인회, 1970·1971.
2. 문명대, 「신라철불 조성문제와 실상사 철아이타불좌상의 연구」, 『불교학보』 37,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00.
3. 강건우, 「실상사 철불 연구」, 『불교미술사학』 15, 불교미술사학회, 2013.

### □

실상사 약사전에 통일신라 9세기 대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철조여래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철조여래좌상은 분할주조법으로 제작되었으며, 신체에는 분할주조선과 틀을 고정했던 틀잡이 흔적도 남아 있다. 무릎과 뒷면은 파손되어 나무로 수리보강하였고, 양손도 복장에서 발견된 손을 토대로 새로 제작하여 교체한 것이다. 현재의 약사전은 실상사 사적에 의하면 1680년에 중창된 건물이며 당시부터 철조여래좌상이 봉안되어 있었다.

불상의 높이는 약 273이며, 착의는 통견착의 가슴에는 비스듬히 걸쳐 입은 내의가 표현되었다. 상체에 표현된 주름은 요철이 있는 용기선 주름이 이며, 굵은 主 주름과 主 주름 사이에는 사이 주름을 넣어 사실적인 주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현재의 수인은 1987년 복장에서 발견된 수인을 본 따 나무로 제작한 것이며, 이외에도 무릎 쪽과 등 쪽에는 크게 파손되어 나무로 수리하고 색 맞춤을 해 둔 상태이다.

주지하다시피 실상사는 신라하대 중국의 육조혜능-마조도일-서당지당으로 이어지는 중국 남종선의 법맥을 전수 받고 귀국한 홍척이 828년에 개산한 사찰로, 9개의 禪門중 가장 먼저 개창한 가람이다. 실상사는 828년(홍덕왕 3)에 洪陟이 실상산문을 세울 때 興德王(826~836 재위)과 그의 동생 宣康太子(김충공, 민애왕의 아버지)이 후원하였다고 전해지고, 2대조 秀澈 때에도 문성왕을 비롯한 신라 왕실의 후원은 이어졌다. 현재 실상사에는 홍척의 개창 당시 또는 수철의 중창 당시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는 철조약사여래좌상과 동·서 삼층석탑, 석등이 남아 있으며, 실상사를 개창한 홍척의 증각대사탑(보물 제38호)과 증각대사탑비(보물 제39호), 2대조 수철상탑과 수철화상탑비가 남아 있다. 1468년(세조 4) 화재로 모두 소실된 후 200여년 동안 폐허로 남아 있었고, 승려들은 백장암에 기거하면서 그 명맥을 이어왔다고 한다. 그 뒤 1679년(숙종 5)에 벽암이 삼창하였고 1684년 계오가 현재의 극락전과 부도전을 지었다고 한다.

하지만 철조여래좌상은 1920년 金英濬이 찬한 『智異山實相寺史蹟』에는 홍척의 개창때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철불과 석탑은 제작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록과 자료가 남아 있지 않고, 대략 현재까지도 홍척의 개창기 내지 수철의 중창기에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상사는 홍척의 개창 이래 신라 왕실의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발전한 사찰이다. 당시 신라 왕실은 지방의 중요 지역이나 소요나 분쟁이 있었던 지역에 왕실과 가까운 스님을 파견하거나 그곳에 있는 사찰을 원함으로써, 지역의 민심을 수습하고 아울러 효율적으로 통치, 관리하고자 하였다.

실상사가 개창되던 9세기 신라는 왕위쟁탈과 반란으로 정치·사회적으로 크게 혼란한 시기였다. 즉 헌덕왕 14년(822)년 김헌창은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국호를 長安으로, 연호를 경운으로 정하고 난을 일으켰고, 그의 아들 범문은 헌덕왕 17년(827) 고달산의 適徒 壽神등과 함께 평양을 도읍으로 세우고 북한산주를 공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혼란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신라 왕실은 중국으로부터 기존의 불교와 다른 새로운 불교를 배우고 귀국한 선종 승려들을 극진히 예우하였다. 반란이 일어났거나 반정부 정서가 강하게 감지되는 지역에 선종 승려들을 보내어 기존에 있던 사찰을 크게 중창하거나 새롭게 창건케 하여 머물게 하고, 지역민심을 수습토록 한 것이다.

실상사 철조약사여래좌상도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탄생한 신앙적 결과

물이자, 9세기 당대가 낳은 시대의 걸작품이다. 한편 구산선문 사찰 중 실상사, 보림사, 봉암사, 성주사, 태안사 등에서도 철불이 봉안되었는데 이들 산문 중 가장 먼저 개창된 곳에 봉안된 철불로서의 상징성도 의미 깊다. 그래서 실상사 철불의 조성과 봉안은 다른 선종 사찰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신라하대 철불 유행을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실상사 철불은 양식적으로 858년의 장흥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이나 865년에 제작된 철원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보다도 표정이나 양감, 세밀하게 표현된 탄력 넘치는 옷주름 등에서 이들 불상보다 자연스럽고 생동적인 면모를 보인다. 실상사 철불은 내의를 비스듬히 걸쳐 입은 통견착의형식, 번파식 주름이 가미된 세밀한 옷주름, 살이 통통하게 오른 얼굴, 굽은 띠모양의 이륜과 열쇠 구멍같이 자리잡은 상·하 갑강, 듬직한 신체의 굴곡을 잘 구현한 조형감각 등은 766년작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상, 경주 남산 미륵굴 석조여래좌상, 그리고 백률사 금동여래입상 등 8세기 후반의 불상의 전통과 여운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제작시기도 기존 학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르면 홍척이 중국으로부터 귀국하여 실상사를 개창한 직후이거나 늦어도 2대조 수철이 문성왕의 지원을 받아 중창하던 시기에는 반드시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철불이 지니고 있는 양식과 실상산문의 개창과 중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철불의 제작 시기는 850년 이전에 조성된 것은 분명해 보이므로 우리나라 철불을 시원작일 가능성이 높다.



도1 철조여래좌상



도 2 약사전 해체 후, 2010년 촬영



도3 철조여래좌상,  
일제강점기촬영



도4 안압지 금동판불



그림 5 감산사 아미타여래  
입상, 719년

실상사 철불의 조성 연대는 차치하더라도 존명에 대한 논의도 분분하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이 불상의 존명에 대해 약사불로 보는 견해와 아미타여래로 보는 견해, 그리고 노사나불로 보는 등 3가지 견해가 상존한다. 당시 선종사찰의 신앙적 경향과 다른 구산선문에 봉안된 주불 존명을 근거로 노사나불로 보는 견해가 있다. 첫 번째 견해는 현재 봉안된 전각이 약사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sup>25)</sup> 두 번째는 견해는 복장에서 발견된 수인이 아미타구품인중 하품중생인을 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며, 세 번째 노사나불은 당시 비슷한 시기에 개창된 선종사찰의 신

25) <지리산실상사적>六 堂宇條에 “藥師殿 李朝 孝宗10年 己亥(1659, 淸 順治16年) 枕虛祖師 重勸前二十一年에 建設한 바로서 梁在穆等의 火災에 幸히 完전함을 得하였는데 本殿에는 藥師鑄像을 奉寘하였다.”라는 기록을 통해 약사여래의 봉안 기록이 보인다.

양적 경향과 주불의 존명이 대체로 노사나불이었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현재 노사나불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견해이기는 하지만, 1920년 金映遂가 찬한 『智異山實相寺史蹟』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철불의 조성연대와 사적기의 편찬연대 간의 시간적 차이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sup>26)</sup> 일단 『지리산실상사적』에서 근거로 들고 있는 보림사 철불과 봉암사 철불과 실상사 철불과는 도상적으로 유사성이 없고, 비슷한 시기 선종사찰에 봉안된 동해 삼화사 철조노사나불과 일본 도다이지(東大寺) 노사나대불과 비교해서 실상사 철불의 수인이 유사하므로 노사나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사는 정확한 설법인을 짓고 있지만 삼화사 노사나불은 시무외여원인에 가깝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한 사항이다.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엄지와 중지를 맞댄 설법인은 이미 안압지 출토 금동관불이라든지 감산사 석조아미타여래입상 등에서 출현하기 때문에, 실상사 복장에서 발견된 수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물론 현재의 수인은 曹夏望(1682-1747)이 지은 『西州集』의 ‘實相寺見鐵佛有吟’에 16세기 중엽 철불의 손이 훼손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어 16세기 이후 새롭게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훼손된 채로 사용해 오다 근래 수리 때 복장으로 납입되었을 가능성도 공히 존재하므로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sup>27)</sup>

존명문제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가 봉안장소 문제이다. 이 불상이 애초부터 실상산문의 주불로 봉안되었다면 당연 지금의 장소가 아닌 보광전일 것이다. 추후 보광전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철불을 봉안했던 유구도 확보될 가능성이 높다.

26) <지리산실상사사적> 佛像及貴重品條에 “新羅 興德王 3年 開山 當時에 鑄造한 坐像인데 九山에서 一般 本尊으로 崇奉하든 盧舍那佛이니 陽山之鳳巖寺와 迦智山之寶林寺에도 此와 同様の 鑄像을 奉安하였는데 寶林寺 普照碑 중에 盧舍那佛이라하였다. 世俗에서 石造像은 通稱 彌勒이라하고 鑄造像은 通名 藥師라고 하나니 本佛像이 廣野田地中에 在할 時에 世人이 藥師라 칭하였는고로 重棚當時에 忘本從俗하여 名함이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노사나불의 근거로 보림사 보조비의 내용을 들고 있다. <지리산실상사사적> 1920년 김영수가 편찬한 것인데, 6.25후까지도 실상사에 보관하고 있었으나 佛敎紛糾를 전후하여 해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마침 정영호 교수의 촬영본을 토대로 황수영 박사께서 석문하여 『고고미술』 108에 전문을 소개하였다.

27) 김리나교수는 “대좌와 광배를 잃었으며 양 손도 없어진 것을 近來에 다시 만들어 붙였는데, 원래는 왼손에 藥盒을 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복장에서 수인이 확인되기 전에 기술한 글이지만, 이 글을 적을 당시 이미 손은 교체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국보』 4(금동불·마애불II), 예경산업사, 1986, p.216



도6 장흥 보림사 철조비로  
자나불좌상, 858년



그림 7 문경 봉암사 철불,  
1900년경 촬영



도8 동해 삼화사 철조노사  
나불좌상

○ 참고문헌

- 김영수·황수영 편, 「지리산실상사사적」, 『고고미술』 108, 한국미술사학회, 1970  
 강건우, 「실상사 철불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강건우, 「실상사 철불 연구」, 『불교미술사학』 15, 2013  
 최성은, 「신라하대 實相寺 철조여래좌상에 대한 고찰」, 『한국사학보』 54, 高麗史學會, 2014

## 5. 보물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求禮 華嚴寺 木造毘盧遮那三身佛坐像)

### 가. 검토사항

‘보물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제1548호)의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2017년도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조사 대상으로 추천한(’17.7.5.)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조사(’21.2.19/3.10./3.25.)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 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보물 제1548호(2008.3.12. 지정)
- 명 칭 :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求禮 華嚴寺 木造毘盧遮那三身佛坐像)
- 소유자(관리자) : ①삼신불 : 대한불교조계종 화엄사  
②복장유물 : 대한불교조계종 화엄사(화엄사정보박물관)
- 소재지 : ①삼신불: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번지, 화엄사 대웅전  
②복장유물 :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번지, 화엄사정보박물관
- 수 량 : 불상 3구, 후령통 2건 일괄, 시주질 2건
- 규 격 : ① 비로자나불(본존): 전체높이 378.4cm, 불상높이 277.7cm, 무릎폭181.9cm, 무릎높이 47.5cm, 대좌 전체 높이 102.3cm 최대 폭 235.8x201.1cm  
② 노사나불(좌) : 전체높이 367.9cm 불상높이 268.2cm, 무릎폭 175.2cm 무릎높이 40.9cm, 대좌 전체높이 99.7cm, 최대폭 221.7x196.2cm  
③ 석가여래(우) : 전체높이 349.7cm, 불상높이 248.6cm, 무릎폭 172.8cm,

무릎높이 39.8cm, 대좌 전체높이 101.1cm, 최대폭 226.3cm×197.3cm

④ 복장유물 : 노사나불 시주질 254×246(19장), 석가여래 시주질 255×250(11장)

⑤ 후령통1(석가) 후신높이 11.0cm, 폭 6.4cm, 후개높이 3.5cm 폭 6.5 두께 0.1cm

⑥ 후령통2(노사나) 전체높이 15.0cm 폭 6.5cm ※사방경 등 수습유물은 본문참조

- 재 질 : 목조, 금속
- 조성연대 : 1635년(인조 13)
- 제작자 : 淸軒(淸憲), 應元, 印均, 法玄, 省根, 英蹟(英頤), 員澤, 善允, 天曉, 印熙, 尙義, 尙一, 智學, 雲密, 法密, 學浩, 懶欽, 善堅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보물 제1548호)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화엄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올림과 내림연꽃을 갖춘 연화좌와 팔각의 목조대좌에 결가부좌의 자세로 앉아 있다. 삼신불은 범신 비로사나, 보신 노사나, 화신 석가불을 말하며 화엄사상에 근원을 둔 매우 귀중한 예로서 변상도나 사경, 불화에서는 많이 보이나 조각으로는 유일한 사례이다. 특히 보관을 쓴 노사나불이 조각으로 제작된 예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상에 대해서는 <화엄사사적>, 복장물에서 발견된 2건의 <시주질>, 목조대좌 내부에 쓰여진 <묵서기>를 통해 정확한 제작시기와 상을 만든 조각승 그리고 시



주자 명단이 알려졌다. 이에 의하면 불사를 주도한 승려는 벽암각성이며 시주자에는 당시 왕실의 인물인 의창군 이광과 신익성이 참여하였음이 밝혀졌다. 이외에 승려 580여명을 포함한 1320명이 시주하였음이 밝혀졌다. 또한, 조각승은 청헌, 응원, 인균 등을 비롯한 18명이며 1634년에 시작하여 같은 해 8월 법당에 봉안되었음이 밝혀졌다. 이는 그동안 <화엄사사적>(1636년과 1697년 간행)을 토대로 1636년 조각승 청헌, 영이, 인균, 응원 등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승려장인들이 공동으로 제작하였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더욱 구체적이고 정확한 제작시기와 조각승, 시주자들이 밝혀진 점에서 중요성과 의미를 가진다.

화엄사 대웅전의 삼신불좌상은 거대한 상의 크기와 더불어 단순하면서도 굵게 표현된 옷주름 표현 등의 조각솜씨가 상의 중후한 느낌을 더해 준다. 삼신불상은 조각표현에서 특징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를 쓰여진 조각승들의 표현기법과 대조해 보면 비로자나불과 석가모니상의 근엄하고 경직된 표현은 하동 쌍계사의 목조삼세불상과(1639) 비슷한 점에서 청헌이 제작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노사나불상의 부드러운 얼굴에 작은 눈과 눈두덩의 밑이 좁 두터운 점 등은 인균과 응원의 작품으로 보인다.

당시 불사를 주관한 벽암각성은 임진왜란 이후 완주 송광사, 법주사, 화엄사, 쌍계사 등 전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사찰의 중창 불사를 주도한 승려로 유명하다. 또한, 중창불사시 당대 최고의 조각승을 협업으로 대형불상을 제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화엄사 대웅전의 목조비로자나삼신불상으로 청헌과 응원, 인균을 중심으로 특색있는 불상을 완성하였다. 이후 벽암각성은 1639년 하동 쌍계사의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과 사보살입상을 청헌, 승일, 법현, 회장 등 역시 당대 최고의 조각승들과 협업하여 제작하는 등 17세기 대불사를 이끈 당대의 최고 승려라고 할 수 있다.

화엄사 대웅전 불상 제작에 참여한 당대의 최고 수조각승인 청헌과 응원, 인균은 서로의 최고적 기량을 발휘하여 완성하였고 이로 인해 이 시대 최고의 작품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삼신불이라는 새로운 도상과 280cm에 이르는 장대한 크기에서 17세기 목조불상 중 거대한 기념비적인 대작을 남긴 것이다. 이는 우수한 기술을 가진 조각승들의 협업, 이를 주관한 벽암각성, 의창군 등 왕실의 후원이 합쳐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화엄사 대웅전의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내부에서 발견된 시주질 2건, 후령통 2건과 함께 국보로 승격하여 보존할 필요가 높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화엄사 대웅전의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2008년에 보물 제1548호로 지정되었다.

당시에는 1697년에 간행된 『화엄사사적기』에 의거하여 ‘1636년 조각승 청헌, 영이, 인균, 응원 등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17세기의 대표적인 승려장인들이 공동으로 제작한 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17세기 전반의 중요한 기준작으로 평가받아 보물로 지정되었다. 보물 지정 이후 2015년과 2020년 노사나불과 석가불의 시주질을 비롯해 후령통, 각종 전적이 풍부하게 발견되었다. 특히 석가불좌상에서는 11매, 노사나불좌상은 20매의 종어로 엮은 책 형태의 시주질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의 조성을 위해 모인 시주자 1320명의 명단이 빼곡이 적혀있어, 당시 이 삼신불을 조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았는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화엄사 대웅전의 삼신불상은 제작 시기, 조각승, 후원자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상이나 양식적으로도 17세기의 기준이 되는 불상으로 그 의미는 매우 크다.

### ■ 17세기 대표화승인 청헌파와 응원·인균파의 합동작품

시주질을 통해 청헌파 6명, 응원·인균파 5명 등 총 18명이 참여한 작품이며, 수조각승인 청헌의 양식특징이 두드러져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청헌의 대표작이다. 2미터가 훨씬 넘는 큰 크기의 상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손상된 곳 없이 온전하게 잘 남아있다.

### ■ ‘보관을 쓴 노사나불좌상’이라는 특이한 사례

화엄사 불상은 조선 후기 삼신불 조각 가운데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석가불의 확실한 삼신불 형식이며, 유일한 보관형 노사나불좌상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 풍부한 문자 자료와 왕실의 후원

석가불좌상과 노사나불좌상에서 발견된 시주질은 내용은 거의 동일하며 불상복장 연구의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시주질에는 시주자들의 명단과 조성에 참여한 승려들의 명단과 직책이 기록되어있어 중요한 연구 자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대좌묵서명과 시주질을 통해 『화엄사사적기』와 현판의 제작시기로 추측한 1636년이라는 제작시기와 달리 노사나불좌상은 1634년, 비로자나불좌상과 석가불좌상은 1635년에 순차적으로 제작했음이 분명히 밝혀졌다. 의창군 이광과 동양위 신익성 및 상궁들이 참여한 불사로 특히 의창군 이광이 불상대시주자로 나오는 것을 보아 화엄사의 중건이 왕실 후원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밝혀져 조선 후기 불교와 왕실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화엄사 대웅전의 삼신불상은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청헌파와 응원·인균파가 동시에 참여하여 제작한 불상으로 조선 후기 불상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불상이다. 또한 정확한 편년과 참여 조각승들의 명단이 밝혀져 조선 후기 조각승 연구에 귀중한 시각 자료가 될 것이다.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화엄사사적기』의 기록 및 복장 시주질 등 문자 자료가 잘 구비되어 있고, 작품의 완성도도 뛰어나며, 조각승 유파와 작품 양식 연구에 매우 중요한 학술 자료이므로, 국보로 승격하여 보존·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 ○ (지정 가치 있음)

- 화엄사 대웅전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상당량의 복장 유물이 이미 산실되어 불복장의 원래 상태를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삼신불상은 모두 1634년과 1635년에 걸쳐 조성된 후 중수된 적이 거의 없어서 17세기 전반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노사나불상의 대좌 밑면에 적힌 묵서명, 노사나불상과 석가모니불상에서 수습된 시주질을 통하여 조선시대 1634년부터 1635년 사이에 조각승 청현, 응원, 인균, 법현 등에 의해 조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불상들은 임진왜란 때 소실된 화엄사를 재건(1630-1636)하면서 대웅전에 봉안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서, 17세기 전반에 화엄사에서 이루어진 재건 불사의 분위기를 잘 보여 주고 있다.
-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조선 후기 불상을 주도했던 당시 최고의 조각승들이 협업과 분업에 의해 만든 것으로, 목조불상으로는 압도적인 크기와 수준 높은 조형을 갖추고 있어서 우리나라 불상 연구의 기준작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다.
- 조선시대에 조성된 삼신불상 중에서 가장 분명한 “삼신불”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예이자 노사나불상이 보살형으로 표현된 유일한 예라는 점에서 매우 희소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노사나불상의 대좌 묵서명에 기록된 “상주불(常住佛)”로서의 비로자나불상, 노사나불상, 석가모니불상을 화엄사 주불전인 대웅전에 봉안한 것은 조선 전기의 폐불 정책과 임진왜란 등 국난을 겪으면서 당시 불교계가 직면했던 위기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위축된 조선의 불교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붓다가 항상 인간 세상에 머무르고 계신다는 것을 화엄 사상의 관점에서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고 하겠다.
-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현존하는 17세기 목조 불상 중에서 가장 큰 예로서, 조성 배경을 알려 주는 다양한 기록과 수준높은 조형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불교계가 직면한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승격하는데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한국불교미술사상 조각상으로 구현된 삼신불의 가장 완전한 사례로서 특히 삼신개념과 연관이 있는 화엄사에서 이러한 삼신불상이 조성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근래에 노사나불상 및 석가모니불상에서 복장물이 발견되었고, 대좌 안쪽에서 묵서명이 발견되어 그간 사적기의 기록에 의해 확인된 조각승 및 조성연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화엄사 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청헌을 필두로 영이, 인균, 응원 외에 여러 조각승이 참여한 사실과 이렇게 많은 조각승들이 참여한 덕분에 삼신불상의 조성이 승정7년 즉 1634년 3월~8월의 5개월 동안 비교적 빠른 시간에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대좌 안쪽 묵서명에는 청헌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응원(應圓)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공동작업에 참여한 청헌과 응원·인균은 서로 다른 조각유파에 속하는 조각승으로서 이처럼 서로 다른 유파가 한 작업에 참여한 독특한 이력을 지닌 불상이 조성된 것인데, 사적기에는 청헌이 먼저 기록되고, 묵서명에는 사적기의 응원(應元)과 한자는 다르지만 같은 인물로 추정되는 응원(應圓)이 먼저 기록된 것이 흥미롭다.

이러한 유파를 초월한 공동작업으로 인하여 화엄사 비로자나삼신불은 양식적으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존 비로자나불상 및 석가모니불상은 청헌의 스승인 현진의 작품이 엿보이며, 노사나불상은 응원의 작품이 배어있다. 특히 대좌 묵서명은 노사불상의 아래에 쓰여진 것이어서 전체 작업은 청헌이 주도했지만, 노사나불상은 응원이 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아래에는 응원이 맨 앞에 등장하는 묵서가 남겨진 것이 아닌가도 추정해볼 수 있겠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조각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것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조각상으로는 유일하게 완전한 삼신불의 도상을 갖추고 있고, 이러한 점이 화엄사의 사상적 성격을 더욱 부각시켜줄 뿐 아니라, 새롭게 조성 관련 묵서 및 시주질이 발견되어 조각승 및 제작연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점 등은 이 삼신불상의 의미를 더욱 증대시켜주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서로 다른 유파가 동원될 정도로 신속한 작업이 요구되었음에도 각각의 조각유파의 성격이 개성을 지니면서도 조화롭게 조각상에 반영된 점, 그리고 삼신불상의 위엄과 엄숙함이 효과적으로 드러난 뛰어난 예술성 등을 고려하여 국보로 승격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복장에서 수습된 시주질과 대좌의 묵서명은 <화엄사사적기> 내용을 한층 보완해

줄 뿐만 아니라 화엄사 삼신불상 조성에 참여한 수많은 인원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중요하다. 이는 조선후기 가장 중요한 사찰 불사 중 하나였던 화엄사 불상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자료가 확보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세히 기록된 시주물목을 통해 당시 불상 제작에 사용되었던 재료, 개금, 안료, 복장 관련 용어 등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조선 후기 불상 제작 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정보를 제공한다.

화엄사 삼신불상은 불교조각 작품으로 남아 있는 삼신불상 중 현재까지 신앙되고 있는 유일한 사례이다. 특히 시주질과 대좌의 목서를 통해, 비로, 노사나, 석가라는 존상명칭이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삼신불 도상연구에 절대적인 자료이다.

화엄사 삼신불상은 청현과 응원이라는 두 유파가 협력하여 제작한 불상이다. 청현유파는 역시 벽암각성이 주관한 보은 법주사 대웅보전 비로자나삼불상을 현진유파와 함께 조성하였고, 응원유파는 순천 송광사를 근거로 전라도 지역에서 크게 활동했던 조각유파이다. 특히 응원의 동료였던 인균은 벽암각성의 문도로서 벽암각성의 승군체계 속에 몸담고 있던 인물로 파악된다.

시주질 등장하는 주요인물로는 선조와 인빈김씨 사이의 소생인 의창군 이광 부부와 정숙옹주와 동양위 신익성 부부, 다수의 왕실 상궁들이다. 이들이 시주질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은 소소하게는 벽암각성과의 두터운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이 화엄사 불상 조성을 통해 국태민안과 왕실의 안녕, 선왕선후의 극락왕생, 모든 백성의 평온한 삶과 성불도를 왕실과 불교계가 합심하여 발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불상의 역사적 의의가 크다.

화엄사 삼신불상은 17세기 제작된 목불상 중에는 가장 규모가 크고, 삼신불의 도상도 대형조각으로는 드물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교조각사상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크고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불상이 보여주는 예술적, 조형적 감성도 조선 후기 불상 중에서 단연 돋보인다. 또한 조선후기 가장 중요한 불사 중 하나였던 자수사인수사의 도상복원에도 근거를 제공한다.

화엄사 삼신불상은 일습으로 조성된 불상 중에서는 조각유파의 개성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점도 조선후기 조각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다. 간혹 중간에 결실되어 후대에 보강하는 경우는 있지만 조성당시부터 불교조각계의 두 거장을 집단을 초청하여 일관되고 통일된 양상을 보여줘야 할 주불전의 존상을 유파의 조각색깔을 마음껏 발휘하여 조성한 예로서는 유례가 없다. 이는 벽암각성이 추구했던 화엄사상이 삼신불상을 통해 발현된 것이 아닌가 생각 들기 때문에 불교미술사 해석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청현파의 강직함과 응원파의 부드러움의 조화 통해 圓融無礙한 화엄사상을 구현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는 불상이라는

조형을 통해 모든 중생을 불교가 추구하는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 상이 갖는 의미는 불교사상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사유로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시주질 2점, 후령통 2점 포함)은 예술적인 측면, 역사적인 측면, 학술적인 측면 모든 방면에서 탁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국보로 승격할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녔다고 판단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국보로 지정예고함.

### 조사보고서



구례 화엄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로서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대웅전에 주존불로 봉안되어 있다. 대웅전은 화엄사의 주불전으로 보물 299호이며 내부에 봉안된 삼신불상은 보물 1548호로 지정되어 있다. 대웅전의 원 명칭은 <大雄常寂光殿>이었으며 현관은 義昌君 李珖(1588-1645)이 쓴 것이다. 대웅전 및 불상과 관련된 문헌기록은 <화엄사사적기>(栢庵性聰,1697년)와 필사본, 삼신불상에서 나온 <시주질>과 목조대좌 내부에 쓰여 있는 <묵서명> 등이 있다.

#### 1. 문헌자료: 화엄사 사적과 시주질, 대좌 묵서

대웅전의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과 관련된 기록물은 『湖南道求禮縣智異山大華嚴寺事蹟』, 복장물로 발견된 <施主秩> 그리고 대좌 안쪽에 쓰여진 <묵서명> 등이다 (표1, 도1).

##### 1) 화엄사사적

<화엄사사적>은 화엄사에 여러권이 전한다. 즉, 1636년 中觀海眼의 저본을 토대로 1697년에 栢庵性聰이 저술한 <화엄사사적기>와 필사본 『湖南道求禮縣智異山大華嚴寺事蹟』으로 대웅전 불상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오년 벽암대사가 화엄사에 오신 뒤로 6,7년 사이에 법당은 대화사 인해, 덕일, 지영, 사인이....불상은 대화사 나목과 희보가 청헌,영이,인균,응원을 청하니 전해받

은 불상은 전단상을 뛰어난 재능으로 되살려 칠하여 삼십이상호에서 빠진 것이 없더라...(“庚午大師之來六七年之間法堂大化士印海與德日智英思印等邀諸方木客普元善美杜峇靈惠天元等月斧風斤山鳴谷應像佛大化士懶默與希寶邀請清憲英頤印均應元等傳得栴檀像手才蘇之塗之圓滿三十二相燔瓦大化士靈照與杜熙敬悟彥信邀請毘吾氏之後裔以爲蓋覆鑄鍾大化士應照與太玄邀請智安太嚴以成鳧鍾吼沏寥龍鉢飫香積畫佛大化士印和與寶元邀請守安天機戒祐性惠等丹青化士思順勝安雪寒妙嚴等傳得虎頭將軍妙手或緝懿縑緗或黝堊丹青...“)

## 2) 복장물에서 발견된 시주질

복장물은 2015년 수습되었으며 책으로 묶인 원문 2건이 발견되었다. 원문의 앞에는 시주질이라 적혀있으며 불상 제작에 관여하여 시주한 재가신도 및 승려들의 이름약 1320명이 적혀있다(승려 580명) 시주질은 책 형식으로 묶여 있으며, 석가불은 11장이며(크기: 25.5cmx25.0cm), 노사나불은 총19장(25.4cmx24.6cm)으로 구성되어 있다. 2건의 시주질은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시주자의 이름과 마지막 장에는 불상을 제작한 시기와 화원질과 연화질 즉 소임질 명단이 적혀있다. 특히 대덕질의 가장 앞에 覺性과 太能이 쓰여 있다. 벽암각성과 소요태능(逍遙太能, 1562-1649)은 서산 휴정의 전범제자로서 화엄사 대웅전 불상의 불사를 담당하였다. 시주질의 마지막에 쓰여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敬造智異山華嚴寺法堂常住 佛 毘盧佛 盧舍那佛釋迦文佛始役 於 大明崇禎甲戌三月訖 工於0明年秋八安于大雄殿者... 畫員秩 清憲 應圓 印均 法玄 省根 英蹟 圓澤 善元 天曉 印熙 尙一 尙儀 智學 雲密 法密 學浩 喇欽 善堅...”

## 3) 대좌 목서명: 석가불과 노사나불

<노사나불좌상>에 쓰여진 목서명은 시주질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며 조각승의 경우 17명으로 善元이 빠져 있다. 그리고 제작시기에서 목서명 부분은 다음과 같다.

“敬造智異山華嚴寺法堂常住佛 毘盧佛 舍那佛釋迦文佛始役 於 大明崇禎七年甲戌三月日訖 工於同年八月日安于大雄殿者... 畫員秩 應圓 清憲 印均 法玄 省根 英頤 圓澤 天曉 印熙 尙日 尙儀 智學 雲密 法密 學浩 喇欽 善堅...”

이상 대웅전의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과 관련된 기록물인 『湖南道求禮縣智異山大華嚴寺事蹟』, <施主秩>, <목서명>의 기록은 거의 비슷하다. 즉 화엄사 법당의 상주불로 비로자나, 석가불, 노사나불을 봉안하였으며 1634년 3월에 시작하여

가을 또는 8월에 완성하였음을 밝혔지만 석가불 시주질에는 1634년에 시작하여 다음해인 1635년(乙亥)에 마쳤다고 하였다. 또한 조각승들의 이름도 정확하게 기입하였는데 응원과 청헌, 인균을 비롯한 총 18명이 참여하여 협업하였음도 알 수 있다. 불사를 주관한 대공덕주는 벽암각성이며 함께 한 소요 태능(逍遙太能, 1562-1649)은 서산 휴정의 전법제자이다.

또한, 시주자 가운데 화엄사의 재건에 義昌君 李珖(1589-1645)과 東陽尉 申翊聖(1588-1644) 등 왕실종친이 참여하였음을 밝혔다. 의창군과 신익성은 처남 매부 사이로서, 의창군은 선조의 4남이며 신익성은 선조와 인빈 김씨 3녀인 貞淑翁主(1587-1627)의 남편으로 선조의 부마이다. 의창군 이광은 화엄사 일주문 편액과 대웅전 현판을 썼는데 특히 글씨에 능하였으며 편액을 쓴 사실이 기록에 전한다. 즉, 『국조보감』 제36권에는 1642년(인조20) 일본에 ‘日光淨界’라는 편액을 써주었으며, 『문곡집』 제18권 義昌君神道碑銘 并序 에는

‘어려서부터 서적을 탐독했는데, 평소 도위(都尉 부마도위(駙馬都尉)) 윤공 신지(尹公新之)·신공 익성(申公翊聖)과 함께 문자를 주고받으며 서로 연마하여 지기(知己)로 인정하였다. 팔법(八法 서법(書法))에 더욱 정밀하였는데, 필력(筆力)이 웅장하고 강건하여 글자가 클수록 더욱 뛰어나, 그 당시 편액과 금석(金石)을 새길 적에 모두 공의 글씨를 얻는 것을 보배로 여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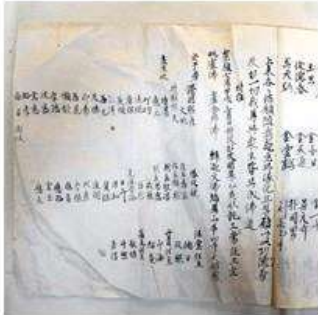

라고 하였다. 특히 매부인 신익성과 깊은 친분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화엄사 대웅전 비로자나삼신불상의 불사에도 주요 시주자로 함께 참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의창군과 신익성은 완주 송광사의 대웅전 현판과 송광사 개창비에도 참여하는 등 당대 많은 불사의 주요 후원자였다.

<표1> 화엄사 대웅전 관련 기록

구분	화엄사사적	시주질(복장물)	대좌목서
존명	毘盧佛 盧舍那佛 釋迦文佛	毘盧佛 盧舍那佛 釋迦文佛	華嚴寺法堂常住佛 毘盧佛 舍那佛 釋迦文佛
제작시기	庚午大師之來六七年之間	始於大明崇禎甲戌三月詔 工於次明年秋安于大雄殿者(노사나) 崇禎甲戌三月日始 次明年乙亥詔工常註三寶(석가불)	大明崇禎七年甲戌三月日詔工於同年八月日安于大雄殿者”
조각승	淸憲 英頤 印均 應元 等	석가불: 18명 淸憲 應圓 印均 法玄 省根 英頤 圓澤 善元 天曉 印熙 善堅 喇欽 學浩 法密 雲密	17명 應圓 淸憲 印均 法玄 省根 英頤 圓澤 天曉



구분	화엄사사적	시주질(복장물)	대좌묵서
		智學 尙日 尙儀 노사나불: 18 淸憲 應圓 印均 法玄 省根 英隨 圓澤 善元 天曉 印熙 尙儀 尙一 智學 雲密 法密 學浩 喇欽 善堅	印熙 尙日 尙儀 智學 雲密 法密 學浩 喇欽 善堅

구분	화엄사사적기(2권)	시주질(노사나와 석가불)	대좌묵서
표지			
내용과 문양			
내용			
도1) 화엄사사적, 시주질 및 묵서명			

### 3.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의 현상 및 특징

화엄사 대응전에는 세구의 불상이 중앙에 봉안되어 있다(도2). 중앙에는 지권인을 결한 비로자나불상이, 그 왼쪽에는 노사나불, 오른쪽에는 석가불로 구성된 삼신불로 구성되어 있다. 삼신불 모두 난간이 있는 팔각대좌와 올림과 내림연꽃으

로 구성된 연화좌에 앉아 있다.

또한, 시주질과 대좌묵서명등에 비로불 노사나불 석가문불로 기록하고 三寶라 명칭하였다. 삼신불상은 크기와 조형성, 얼굴 표현에서 약간의 차별성을 보인다. 즉 노사나불은 보관을 쓴 보살형에 통견의 대의를 입었으며, 비로자나불과 석가불은 여래형으로 수인 등을 제외하면 거의 비슷한 모습이다.



도2) 화엄사 대웅전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먼저 비로자나불은 방형의 얼굴에 둥근 육계와 촘촘하게 조각된 나발에 머리 앞면에는 반원형의 중앙계주를 조각하였다. 통통한 얼굴 형태를 보이며 작고 가는 눈에 폭이 같은 오펝한 콧날, 짝 다문 입술로 사선으로 신체에는 편삼에 변형식 편단우건을 걸쳤으며 배 밑으로 두 개의 옷자락이 겹치면서 흘러내렸다. 오른쪽 어깨에서 흘러내린 자연스러운 옷자락이라든지 같은 간격으로 접혀지면서 걸쳐진 무릎 위의 수평의 옷자락과 대의에서 흘러내린 종선의 옷주름은 같은 간격을 유지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처리하여 조화를 이룬다. 단순하고 직선적인 대의 주름은 한번씩 반전되는 옷주름의 변화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편안한 안정감을 이루고 있어 돋보인다. 수인은 두 손을 맞잡고 오른손으로 왼손을 감싼 지권인이다.

석가불은 변형편단우건식 대의를 입었으며 오른손은 항마촉지인을 왼손은 무릎에 놓고 엄지와 중지를 결하였다. 머리에는 반원형의 중앙계주와 둥글고 높은 정상계주로 장식하였다. 이를 제외하면 비로자나불과 근엄하면서도 생기있는 얼굴 표정에서 매우 비슷한 모습이다.

두 불상에 비해 노사나불상은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썼으며 턱이 넓은 방형의 넓은 얼굴에 가느다랗게 뜬 눈, 부어오른듯한 눈두덩과 볼에 살이 많은 얼굴이 특징이다. 여기에 통견식 대의와 유려하고 부드러운 옷주름은 간결하면서도 묵직한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옷주름은 적게 처리하여 간결하면서도 묵직한 조형미를 드러낸다. 머리에는 위로 솟구치는 관대가 달린 화려한 보관을 썼으며 머리카락은 귀 중간에서 어깨위로 세 가닥으로 갈라져 흘러내렸다. 췌불에는 꽃모양의 작은 귀걸이를, 팔목에는 굵고 장식적인 팔찌를 걸쳤다. 머리에 쓴 보관도 특징적이다. 보관의 재료는 나무로 추정되며 바탕에는 모란당초문을 음각한 다음 배경은 어자문으로 채웠으며 각종 장식을 별도로 만들어 고정하여 정교하고 아름답다. 장식들은 중앙에 꼬리를 접고 밑으로 솟구치는 듯한 자세의 봉황을 두고 그 좌우에 연화문, 운문, 화염문 등을 배치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정교한 표현이 돋보인다.

무엇보다도 노사나불의 가장 큰 특징은 손을 양쪽으로 벌린 다음 엄지와 중지를 맞댄 수인을 결한 독특한 모습이다. 이와 같은 자세와 수인 형식은 중국의 경우 북송 1022년 항주 청림동에 있는 <노사나불회부조상>에 처음 등장하며 이후 1180년 장승온이 그린 <장승온범상도권>, 남송대의 대족 보정산의 노사나보살좌상을 비롯하여 11세기이후 유행하는 형식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보살형노사나불은 고려대장경 화엄경 변상도를 비롯하여 사경 및 불화 등에 그려지는 형식이다. 그러나 조각으로는 화엄사 대웅전의 삼신불의 노사나불좌상이 유일하다.

이와 같이 화엄사 대웅전의 삼신불좌상은 3구가 약간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조각승들이 담당한 불상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인식된다. 즉, 청현은 비로자나불과 석가불을, 응원과 인균은 노사나불을 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응원과 인균은 사제지간으로 볼에 살이 많은 얼굴에 작고 가는 눈의 표현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 4. 복장물

현재 불상의 밑면에서 방형의 복장공과 이를 막은 봉함목이 남아 있으며 복장목 안쪽에 노사나불 등 존명을 정확하게 명기하였다(도3). 불상의 내부에서는 앞서 언급한 시주질 2건을 비롯하여 후령통 2건, 다라니와 전적류 등 100건이 넘는 다수의 복장물이 발견되었다. 이 가운데 불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복장유물은 앞서 언급한 시주질2건과 후령통이다.



도3) 복장공과 봉함목(노사나불상)

후령통은 금속제로서 석가불에서 발견된 것은 개봉된 상태이며 노사나불에서 나온 후령통은 미개봉 상태이다(도4). 개봉된 후령통에서는 오방경과 오보병의 일부가 확인되었다. 후령통은 길쭉한 원통형으로 조선시대에 많이 나오는 일반적인 형태이지만 윗면에는 앞까지 섬세하게 선각한 팔엽을 두고 후혈에는 흰색과 검정색 등의 천으로 짠 다음 오색사로 묶은 상태이다. 석가불에는 방위에 따라 색을 달리 한 사방주가 적혀있으며 황초폭자와 후령통의 외부에 있는 오방경 그리고 내부에 있었던 오보병과 각종 물목들이 별도로 보관되어 있다. 후령통은 원통형의 일반적인 형태이지만 윗면에는 앞까지 선각한 팔엽을 두고 후혈에는 붉은색 천으로 짠 다음 오색사로 묶은 다음 한지로 근봉하였다.

미개봉된 노사나불 후령통 역시 같은 형식이지만 후혈의 장엄된 비단은 붉은색만 남아 있다. 2건의 후령통은 17세기에 발견된 뚜껑에 팔엽과 후혈 장엄을 한 드문 사례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불상에서 발견된 복장물 가운데 후령통 2건과 시주질 2건 그리고 후령통의 내부에서 나온 오방경과 오보병 등은 불상과 함께 지정하여 보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사나불 후령통>

<석가여래 후령통>



○ 참고문헌

장찬, 『구례 화엄사 대웅전 목조비로자나삼산불좌상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논문, 2021.

김은정, 「동양위 신익성의 부마로서의 삶과 문화활동」, 『冽上古典研究』 제26집.

김은정, 『樂全堂 申翊聖의 文學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5.

□

○ 현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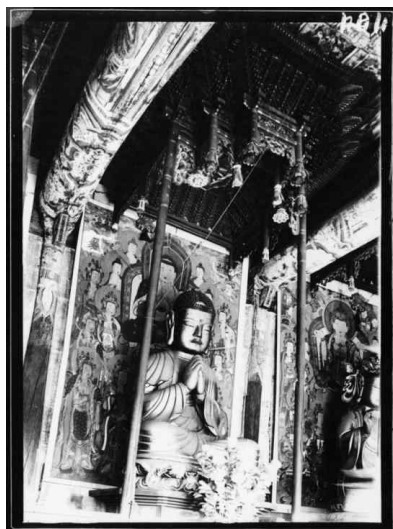


<도 1> 화엄사 대웅전 유리건판사진(20세기 초)



<도 2> 화엄사 대웅전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구례 화엄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3구의 목조불좌상이다(도1,2). 중앙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왼쪽(향우)에 노사나불, 오른쪽(향좌)에 석가불을 봉안한 삼신불좌상이다. 불좌상 3구의 크기는 대체로 비슷하지만, 중앙 비로자나불좌상이 가장 커 280cm이며, 석가불좌상은 245cm, 노사나불좌상 264.5cm이다. 좌우 협시불의 크기는 유사하나 노사나불좌상이 보관을 쓰고 있어 20cm 가량 더 크다. 2015년과 2020년 비로자나불상과 노사나불상에서 책자 형식의 시주질이 발견되었고, 불단 내의 묵서명이 발견되면서 화엄사 대웅전 삼신불좌상의 의미가 더욱 커졌다. 불상을 조각한 조각승은 시주질과 『호남도구례현지리산대화엄사사적(湖南道求禮縣智異山大華嚴寺事蹟)』(이하 『화엄사사적기』)를 통해 청헌, 영이, 응원, 인균으로 알려졌으며 불상의 양식에도 이들의 조각 특징이 나타난다. 『화엄사사적기』는 중관 해안(中觀海眼, 1567-?)이 1636년에 작성한 것이지만(표1의 ①), 현재는 ②와 ③만 남아있다(표1 참조).



<도 3> 화엄사 대웅전 (1910년 촬영)

분류	시 기	저자·간행자	제 목	비 고
① 원본	1636년	中觀海眼	『湖南道求禮縣智異山大華嚴寺事蹟』	1636년 집필, 판본의 저본
② 목판본	1697년	栢庵性聰	『湖南道求禮縣智異山大華嚴寺事蹟』	목판, 開刊 참가자 항목 추가
③ 필사본	1740년 이후	미상	『湖南道求禮縣智異山大華嚴寺事蹟』	최치원 찬 발원문 일부 추가

<표 1> 『화엄사사적기』 간행 내역

불좌상 3구는 손 모양과 가사 형식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유사하다(도4). 노사나불을 제외한 두 구의 공통 특징은 다음과 같다. 육계와 정상계주를 조성하고, 그 아래에 반달 모양의 중심계주를 두었다. 육계는 평퍼짐하여 육계의 모양이 드러나지 않는다. 노사나불 역시 장방형 얼굴에 뺨에 살이 통통하여 비로자나불과 석가불과 얼굴의 기본형은 같다(도5). 이목구비는 뚜렷하며, 눈은 가늘고 길며 눈 두덩이의 양감이 두드러진다. 특히 노사나불좌상은 양감이 더 뚜렷하다. 삼도는 목이 아닌 가슴 쪽으로 내려 음각선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조선 후기 불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다.



<도 4>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도 5> 화엄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상호

이처럼 3구의 상호는 기본적으로 같지만, 노사나불은 화려한 보관을 쓰고, 보관 안에 보살의 머리카락을 틀어 올린 보계(寶髻)가 있는 보살형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도4,5).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조선 후기의 삼신불상 가운데 노사나불을 이처럼 ‘보살형’의 조각상으로 표현한 사례는 화엄사 대웅전이 유일하다. 어깨는 불두에 비해 넓지는 않으며, 상체는 긴 편이다. 가부좌를 튼 다리가 상체보다 넓고 길어 전체적인 비례는 매우 안정적이다. 좌대와 불단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불단 내부로 들어가면 좌대의 밑면을 확인할 수 있다(도8).

1622년 현진조성	1626년 현진조성	1635년 청헌조성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보은 범주사 소조비로자나불좌상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도 6> 현진·청헌과 조성 불상의 지권인

비로자나, 노사나, 석가로 구성된 3구의 불좌상은 손 모양이 모두 다르다. 중앙 비로자나불좌상은 양 손을 모두 가슴까지 올려 오른 손으로 왼손을 감싸 권 지권인을 취했다. 왼손 검지를 오른손이 감싸 권 일 반적인 지권인이 아니라



<도 7> 화엄사 노사나불과 안성 칠장사 노사나불(1628년)

손 전체를 감싼 이와 같은 지권인은 현진·청헌과의 특징이다(도6). 현진·청헌과가 제작한 동일한 모양의 지권인은 1622년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26년 보은 범주사 소조비로자나불좌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도6). 비로자나불좌상 왼쪽의 노사나불좌상은 양 손을 어깨높이까지 올린 설법인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설법인은

1628년 안성 칠장사 오불회괘불탱, 1664년 신원사 노사나불괘불탱 등 조선 후기 불화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조각상의 경우는 화엄사 노사나불좌상이 유일하다(도7). 석가불좌상은 왼손의 중지와 엄지를 살짝 맞대고, 오른손은 무릎 위에 얹은 축지인을 취하고 있다(도4).

대의는 3구 모두 차이가 있다. 중앙의 비로자나불좌상은 2장의 가사를 걸친 이중착의 형식인데, 가슴까지 들어 올린 양팔 안쪽으로 僧祇支(또는 僧脚崎)의 윗단이 보인다. 승기지 위에는 양어깨를 덮은 부견의(覆肩衣)를 착용했으며, 부견의 위에는 대의를 걸쳤다. 대의는 왼쪽 상반신과 팔을 감싸고, 어깨를 돌아 오른쪽 어깨를



살짝 휘감고 오른팔 아래를 지나 다시 왼쪽 어깨 너머로 넘겨졌다. 이러한 대의 형식은 기본적으로 편단우견(偏袒右肩) 형식에 해당하지만, 오른쪽 어깨의 일부를 덮고 있으므로, ‘변형 편단우견’이라고도 한다. 비로자나불좌상의 오른쪽에 앉은 석가모니불좌상은 부견의 없이 변형 편단우견의 대의만 걸쳤다. 노사나불의 대의는 통견 형식으로 대의를 걸치고 있어 앞의 두 불좌상과 차이가 있다.

노사나불좌상의 보관은 화려하게 장식되었는데, 연꽃, 불꽃, 구름 등으로 장식하고 정중앙에는 아래를 향한 봉황을 매달아 두었다. 동일한 봉황은 응원·인균이 조성한 1628년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의 보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봉황 아래에는 연꽃무늬와 구름무늬를, 보관 뒷면에는 넝쿨무늬와 국화꽃으로 화려하게 장식했다. 보관은 장식으로 가려져있는 부분까지 넝쿨무늬, 꽃무늬 등을 음각으로 새기고 빈 곳에는 어자문(魚子文)으로 채웠다.

3구는 유사해 보이지만 착의 형식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제작 집단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비로자나불좌상과 석가불좌상은 청헌과 영이가, 노사나불좌상은 응원, 인균이 주도적으로 조성했는데, 이는 화엄사 대웅전의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을 조성하기 위해 조선 후기 최고의 두 화파가 협업하여 제작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흥미로운 사실이다. 대좌는 양련과 복련이 맞붙어 있는 연화좌인데, 그 아래의 불단과 일체형으로 조성한 것도 매우 특이한 사례이다(도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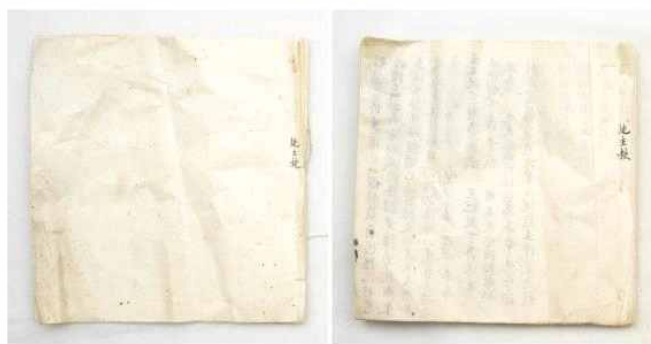
## ■ 복장물 구성



<도 8> 노사나불 불단 내부의 묵서명



<도 9> 노사나불 봉합목



<도 10> 석가모니불(왼쪽), 노사나불(오른쪽) 시주절

2015년과 2020년 5월 불상의 내부 복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석가불좌상과 노사



<도 11> 화엄사 일주문 편액  
의창군 이광 필, 1636년

나불좌상에서 복장 유물이 세상에 드러났다. 노사나불상 바닥의 복장공을 막았던 봉합목에는 불상명이 적혀있으며, 대좌 밑에도 묵서명이 발견되었다(도8과 9). 복장물은 무도 118건 185점이며, 구성은 후령통과 향 조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주질을 비롯한 경전과 다라니 등이 납입되어 있었다. 특히 시주질은 석가불좌상과 노사나불좌상에서 발견되었으며, 석가불좌상에서는 11매, 노사나불좌상은 20매의 종지로 엮은 책 형

태이다(도10). 두 시주질 간의 내용 차이는 크지 않으나, 노사나불의 시주질에는 서문이 있으며 인물들의 기재 순서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화엄사사적기』에서 밝힌 조각승 청현·영이·응원·인균을 포함하여 법현(法玄), 성근(省根), 원택(員澤), 선원(善元), 천효(天曉), 인희(印熙), 상의(尙義), 상일(尙一), 지학(智學), 운밀(雲密), 법밀(法密), 학고(學沽), 나흠(懶欽), 선견(善見) 총 18명의 조각승이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주자 명단에는 약 1320명의 시주자가 기록되어있으며, 책자 형태로 된 것도 매우 특별한 사례이다. 이 가운데 선조의 아들인 의창군 이광(義昌君 李珰, 1589-1645)과 사위인 동양위 신익성(申翊聖, 1588-1644), 상궁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화엄사 불상은 왕실 후원을 기반으로 했음을 알 수 있다. 의창군 이광의 글씨는 화엄사 대웅전과 일주문 편액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도11).

### ○ 내용 및 특징

화엄사 대웅전처럼 삼신불좌상으로 구성되어있는 조선 후기의 불상의 예는 1626년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보물 제1360호), 1633년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보물 제1752호)을 비롯해 정확한 제작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조선 후기로 추정되는 경주 기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보물 제958호), 김제 귀신사 소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보물 제1516호), 삼척 영은사 석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이 있다. 모두 비로자나불이 주존인 삼신불이며, 재질은 화엄사 대웅전 불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흙으로 만든 소조이다.

조선 후기에 하나의 공간에 3구의 불상을 봉안하는 삼불상의 형식이 크게 유행하는데, 가장 보편적인 구성은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하고 약사불과 아미타불을 협시로 두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화엄사 대웅전의 불상은 비로자나삼신불상이며 특히 협시불로 ‘보관형 노사나불’을 둔 경우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화엄사 대웅전의 불상이 유일하다.

上來各各願隨喜施主與緣化丘等願以此功德普  
及於一切我等與衆生皆共成佛道

時維

崇禎七年甲戌三月日始役於次明年乙亥秋訖工常住三宝

毘盧佛 盧舍那佛 釋迦文佛 智異山華嚴寺大雄殿

安于者	證明熙彦		双照
	文悅		丹青化主
	持殿熙天	緣化秩	印海
畫員秩	清憲	化主希宝	智英
	應元	化主懶默	蓋瓦化主
	印均	別坐敬浩	敬悟
	法現	別坐思憲	斗熙
	省根	戒珠	彦信
	英頤	信行	
	元澤	來往學海	
	善元	三印	
	天曉	信和	
	印希	贊珪	
	善見	道閑	
	懶欽	双彦	
	學沾	學根	
	法密	勝善	
	雲密	應哲	
	智學	金玉	
	尙日 尙儀	應立	
		法堂化主	
		德日	

<표 2> 구례 화엄사 목조석가불좌상 복장시주질 발원문

복장시주질은 1320여명의 시주자 이름이 가득 적힌 여러 종이를 묶은 책자 형태이다(도10). 시주질 끝부분에는 제작 시기와 조성에 참여한 승려들의 이름 및 직책이 적혀있다. 시주질에 있는 ‘崇禎甲戌三月訖工於次明年秋安于大雄殿者’라는 내용을 통해 1634년 3월에 시작하여 1635년 가을에 완성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대좌 묵서명에는 석가불좌상은 ‘崇禎八年乙亥六月’, 노사나불좌상은 ‘大明崇禎七年甲戌三月日訖工於同年八月日安于大雄殿者’로 기록하고있어, 노사나불좌상은 1634년, 석가불좌상은 1635년에 완성했음을 알 수 있다(표 2~4 참조).

조각승은 청헌(淸憲), 영이(英頤), 응원(應圓), 인균(印均), 법현(法玄), 성근(省

<p>敬造智異山華嚴寺法堂常主 佛          毘盧佛 盧舍那佛 釋迦文佛始役於大明          崇禎甲戌三月訖工於次明年秋安于大雄          殿者 緣化秩</p> <table border="0"> <tr> <td>證明希彦</td> <td>化主懶默</td> <td>勝善</td> </tr> <tr> <td>文悅</td> <td>化主希宝</td> <td>應哲</td> </tr> <tr> <td>持殿希天</td> <td>別坐敬浩</td> <td>金玉伊</td> </tr> <tr> <td>畫元秩</td> <td>別坐思憲</td> <td>應立</td> </tr> <tr> <td>清軒 尙義</td> <td>戒珠 法堂化主</td> <td></td> </tr> <tr> <td>應元 尙一</td> <td>信行 德日</td> <td></td> </tr> <tr> <td>印均 智學</td> <td>來往學海 雙照</td> <td></td> </tr> <tr> <td>法玄 雲密</td> <td>三印 丹青化主</td> <td></td> </tr> <tr> <td>省根 法密</td> <td>信和 印海</td> <td></td> </tr> <tr> <td>英頤 學沽</td> <td>贊珪 智英</td> <td></td> </tr> <tr> <td>員澤 懶欽</td> <td>道閑 蓋瓦化主</td> <td></td> </tr> <tr> <td>善元 善堅</td> <td>雙彦 敬悟</td> <td></td> </tr> <tr> <td>天曉</td> <td>學根 斗熙</td> <td></td> </tr> <tr> <td>印熙</td> <td>彦信</td> <td></td> </tr> </table>	證明希彦	化主懶默	勝善	文悅	化主希宝	應哲	持殿希天	別坐敬浩	金玉伊	畫元秩	別坐思憲	應立	清軒 尙義	戒珠 法堂化主		應元 尙一	信行 德日		印均 智學	來往學海 雙照		法玄 雲密	三印 丹青化主		省根 法密	信和 印海		英頤 學沽	贊珪 智英		員澤 懶欽	道閑 蓋瓦化主		善元 善堅	雙彦 敬悟		天曉	學根 斗熙		印熙	彦信		<p>敬造智異山          華嚴寺法堂          毘盧佛          舍那佛          釋迦文佛始役          於  <u>大明崇禎七年</u>  <u>甲戌三月日訖</u>  <u>工於同年八月</u>  <u>日安于大雄</u>          殿者          證明 熙彦          文悅          辦舉要覺性          持殿 熙天          畫員秩          應圓          清憲          印均          法玄          省根          英頤          圓澤          善元          天曉          印熙 尙日          尙儀 智學          雲密          法密          學沽          懶欽          善堅          緣化秩          化主熙宝 三印          化主懶默 贊珪          別坐敬浩 道閑 金玉          園頭戒珠 雙彦          信行 學根          學海 信和          侍立 應哲</p>
證明希彦	化主懶默	勝善																																									
文悅	化主希宝	應哲																																									
持殿希天	別坐敬浩	金玉伊																																									
畫元秩	別坐思憲	應立																																									
清軒 尙義	戒珠 法堂化主																																										
應元 尙一	信行 德日																																										
印均 智學	來往學海 雙照																																										
法玄 雲密	三印 丹青化主																																										
省根 法密	信和 印海																																										
英頤 學沽	贊珪 智英																																										
員澤 懶欽	道閑 蓋瓦化主																																										
善元 善堅	雙彦 敬悟																																										
天曉	學根 斗熙																																										
印熙	彦信																																										

<표 3> 화엄사 목조노사나불좌상 복장시주질 발원문 <표 4> 화엄사 목조노사나불좌상 대좌 묵서명  
 根), 원택(員澤), 선원(善元), 천효(天曉), 인희(印熙), 상의(尙義), 상일(尙一), 지학  
 (智學), 운밀(雲密), 법밀(法密), 학고(學沽), 나흠(懶欽), 선견(善見) 총 18명의 조

각승이 제작한 것이 밝혀졌다. 이들은 대부분이 청헌과, 응원·인균과의 조각승들로 화엄사 대웅전 불상 제작에 두 계파의 조각승 집단이 합동작업을 통해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당시 화엄사 불사의 규모가 두 계파가 같이 작업할 정도로 컸으며, 사찰의 위상이 높았음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화엄사 대웅전 불상은 조각승 청헌이 수조각승으로서 처음 조성한 불상이자, 조각승 응원의 마지막 작품이기도하다. 『화엄사사적기』와 시주질에는 청헌이 수조각승으로 기록되어있지만, 노사나불좌상의 목서명에는 응원이 청헌보다 먼저 기록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노사나불좌상은 응원·인균파가 주도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양식에서 공통된 특징이 보이지만 세부적인 차이 또한 존재하는데, 기록이 이를 뒷받침한다.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두 계파가 조성했음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매우 드문 사례이다.

한편 시주질에서는 의창군 이광과 동양위 신익성이라는 왕실 친족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의창군 이광은 불상대시주자로 기록되어있고 동양위 신익성은 상공들과 함께 기록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화엄사 불상 및 화엄사의 중건에는 왕실 후원이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후원은 벽암각성과 인조 왕실의 친분일 수 있으나, 의창군 이광과 동양위 신익성이 인빈김씨의 후손이므로 인빈김씨의 추선을 위한 후원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화엄사 대웅전의 불상은 2미터가 넘는 커다란 크기의 대형불상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손상된 곳 없이 온전하게 남아있다. 3구의 불좌상은 전체적으로 청헌의 양식이 두드러지나 노사나불좌상은 세부적으로 응원·인균의 양식이 나타나 두 조각승 계파간의 차이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상체가 장대하고 무릎 넓이가 넓어 신체 비례가 안정적이며 상호 역시 기본적으로 동일한 양식을 지니고 있어 조각승들은 3구의 상이 유사하게 보이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불상들은 커다란 코와 입, 크고 두툼한 손 등 조선 후기 불상의 특징을 잘 갖추고 있다.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수조각승인 청헌의 수조각승으로의 첫 작품이자 응원의 마지막 작품이다. 두 계파간의 합동작업이 분명하나 전체적인 상이 큰 차이 없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수조각승 청헌의 영향력과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화엄사의 이 삼존상은 문자 자료와 시각 자료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 17세기 전반 한국조각사를 대표하는 귀중한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참고문헌

송은석, 「조선 후기 彫刻僧 流派의 불상 제작 방식과 “代作”의 문제」, 『미술사학연구』 300, 한국미술사학회, 2018.

장찬, 「구례 화엄사 대웅전 木造毘盧遮那三身佛坐像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21.

□

## ○ 현 상

화엄사 대웅전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木造毘盧遮那三身佛坐像, 이하 삼신불상)은 현재 불단(佛壇) 위에 마련된 대좌 위에 봉안되어 있다. 대좌는 따로 만든 팔각대좌와 그 위에 놓인 앙련과 복련이 맞붙은 연화대좌로 이루어져 있다. 팔각대좌는 상판, 동체, 호족형(虎足形) 다리로 구성되었다. 사찰 측의 전언에 의하면, 불상은 1975년에 지금의 모습으로 개금되었다고 한다.

2015년 문화재청 불상기록화 사업-[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불상 및 불단 안전진단] 때 노사나불상의 대좌 밑면 나무판의 묵서명(墨書銘)과 석가모니불상에서 수습된 시주질(施主秩, 25.5×25.0cm, 11장)이 확인되었으며, 2019년에는 노사나불상에서 시주질(25.4×24.6cm, 19장) 1책이 수습되었다. 묵서명에서는 1634년에, 2책의 시주질에서는 1634년 3월에 시작하여 다음 해인 1635년에 불상들이 완성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석가모니불상과 노사나불상에서는 후령통과 많은 경책이 함께 수습되어 현재 화엄사성보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비로자나불상의 복장 유물은 전혀 남아 있지 않으며, 노사나불상과 석가모니불상의 복장 유물도 상당량이 이미 산실된 것으로 추정되어 원래의 복장 상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삼신불상의 밑면에는 방형의 복장공(腹藏孔, 22×15.8×7cm)이 뚫려 있으며, 내부는 현재 비어 있는 상태이다.

『호남도구례현지리산대화엄사사적(湖南道求禮縣智異山大華嚴寺事蹟), 이하 화엄사사적』(1636년 필사본, 1697년 목판본, 화엄사성보박물관 소장)에는 1630년부터 6, 7년간 불상 대화사(佛像大化士)인 나묵(懶默)과 희보(希寶)가 조각승 청헌(淸憲), 영이(英頤), 인균(印均), 응원(應元) 등을 청하여 전단상(梅檀像)을 조성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 책에서는 청헌의 이름이 제일 앞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그가 불상 조성을 주도했던 수조각승으로 추정된다. 다만 노사나불상 대좌의 묵서명, 석가모니불상과 노사나불상의 시주질에서 응원 다음에 인균의 이름을 기록한 것과 달리 여기서는 인균 다음에 응원의 이름이 적혀 있어서 『화엄사사적』의 작성 과정에서 그 순서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책은 벽암각성(碧巖覺性, 1575-1660)에 의해 화엄사 중창 불사가 시작되던 1630년에 화엄사에서 중관해안(中觀海眼, 1567-?)에게 집필을 의뢰하였으며, 불사가 마무리된 1636년에 완성되었다. 중관해안이 집필한 필사본 『화엄사사적』은 1697년(숙종 23)에 성충(性聰)이 발문(跋文)을 붙여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 [노사나불상 대좌 목서명]

敬造智異山華嚴寺法堂常住佛毘盧佛舍那佛釋迦文佛 始役於大明崇禎七年甲戌三月日  
訖工於同年八月日安于大雄殿者 證明 希彥 文悅 辦學事 覺性 持殿 熙天 畫員秩 應  
圓 淸憲 仁均 法玄 省根 英頤 圓澤 天曉 仁熙 尙日 尙儀 智學 雲密 法密 學浩 懶  
鐵 善堅 緣化秩 化主 熙寶 三印 化主 懶默 贊圭

### ○ 내용 및 특징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중앙의 목조비로자나불좌상과 그 좌우의 목조노사나불좌상, 목조석가모니불좌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삼신불상은 몸에 비해 머리가 큰 편이며, 무릎 너비에 비해 어깨가 좁은 편으로, 안정된 자세를 갖추고 있다. 불상들은 어깨가 둥글지만, 가슴과 복부는 밋밋한 편이다. 머리카락의 발제선(髮際線)은 수평에 가까우며, 하관이 넓은 장방형의 얼굴을 하고 있다. 얼굴과 몸은 입체적이지 않고 밋밋한데, 이는 모두 나무로만 조성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1.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불상은 통견(通肩) 방식으로 법의(法衣)를 입고 가부좌하고 있다. 양손을 모두 가슴 중앙에 올린 다음, 오른손으로 왼손 손가락을 감싸 권 무상보리인(無上菩提印)을 결하고 있다. 이 수인은 청헌이 참여한 충청북도 보은 법주사 소조삼신불좌상(1626년)의 비로자나불상, 응원과 인균이 조성에 참여한 목조비로자나불좌상(1622년, 현 국립중앙박물관, 전 서울 지장암 소장)에서도 확인된다.

불상은 머리가 몸에 비해 큰 편이며, 장방형의 얼굴과 둥근 어깨를 갖추고 있다. 머리는 촘촘한 나발(螺髮)로 이루어져 있으며, 반원형의 중앙 계주(髻珠), 원통형의 정상 계주를 가지고 있다.

눈, 코, 입이 아래로 치우쳐 있어서 이마는 넓은 편이다. 살짝 내려 뜬 가늘고 긴 눈, 짙 다문 입, 콧불이 두툼한 귀를 가지고 있다. 얼굴 형태와 표정은 석가모니불상과 같다.

법의 주름은 몸의 굴곡을 따라 유기적으로 표현되었지만, 그다지 입체적이지 않고 밋밋한 편이다. 오른쪽 어깨를 덮고 있는 법의 자락은 어깨선을 따라서 비스듬히 흘러내리고 있으며, 다리 중앙에서 퍼져 나간 주름들은 거의 수평을 이루며 양 무릎에까지 표현되어 있다. 법의 주름의 표현 방식도 석가모니불상과 같다.

#### 2. 목조노사나불좌상

불상은 여래형(如來形)인 아닌 보살형(菩薩形)으로 조성되었는데, 정수리에는 보계(寶髻)가 있으며, 보관, 귀걸이, 팔찌를 착용하고 있다. 가지런히 정돈된 머리카락

은 귓볼 위를 가로질러 귀 뒤쪽에서 흘러내린 머리카락과 어깨 위에서 꼬인 다음 아래로 드리워졌다.

불상은 통견 방식으로 법의를 입고 가부좌하고 있다. 양손은 어깨까지 올린 다음 엄지와 중지, 약지를 살짝 구부리고 있다. 손바닥에는 키모양의 손금이 있는데, 석가모니불상에서도 같은 손금이 확인된다. 양손은 따로 만들어 끼운 상태이다. 나무로 만든 보관(寶冠)에는 당초문양(唐草文樣)이 화려하게 조각되어 있고, 따로 만든 화염보주(火焰寶珠) 장식, 연꽃 장식, 구름 장식, 봉황(鳳凰) 장식을 철사로 보관에 고정하였다.

불상도 비로자나불상과 석가모니불상과 같이 장방형의 얼굴과 둥근 어깨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눈, 코, 입이 아래쪽에 치우쳐 있지 않으며, 양감 있는 양 볼과 눈두덩을 가지고 있다.

법의 주름은 간략하면서도 밋밋하게 처리되었다. 법의는 목 아래쪽에 U자형으로 깊게 파인 모습이다. 다리 중앙의 법의 자락은 넓게 펼쳐져 흘러내리고 있다. 비로자나불상과 석가모니불상의 무릎까지 펼쳐진 수평적인 주름은 보이지 않는다. 대좌 윗면에 닿아 있는 법의 끝단은 물결치는 듯한 모습이다.

불상은 얼굴 오관(五官)의 위치와 양감이 표현된 눈두덩과 양 볼, 다리를 덮고 있는 법의 주름 표현에서 비로자나불상과 석가모니불상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청헌이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로자나불상과 석가모니불상과 달리, 이 불상은 응원과 인균의 주도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 3. 목조석가모니불좌상

불상은 통견 방식으로 법의를 입고 축지인(觸地印)을 결한 채 가부좌하고 있다. 오른손은 축지인을, 왼손은 왼쪽 무릎 위에 둔 채 엄지와 중지가 닿을 듯 오므리고 있다. 왼손은 따로 만들어 끼워서 고정하였다.

불상은 신체 비례, 얼굴 표정, 법의 표현 등이 비로자나불상과 유사하다. 즉 장방형의 얼굴, 둥근 어깨를 가진 신체 조형, 촘촘한 나발, 반원형의 중앙 계주, 원통형의 정상 계주, 넓은 이마, 살짝 내려 뜬 가늘고 긴 눈, 짙 다문 입, 다리 중앙에서 양 무릎까지 거의 수평을 이루며 표현된 법의 주름 등이 그것이다.

### 4.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과 조각승

삼신불상은 장방형의 얼굴, 둥근 어깨, 몸에 비해 큰 듯한 머리, 밋밋하게 처리된 법의 주름, 오른발 발바닥 끝부분을 살짝 덮고 흘러내린 법의 자락 등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얼굴 표정, 오관의 위치, 하체의 법의 자락 등 세부적인 표현에서 노사나불상은 다른 두 불상과 차이를 보인다. 노사나불상의 대좌



목서명에는 응원(應圓), 청헌(淸憲), 인균(印均), 법현(法玄), 성근(省根), 영이(英頤) 순으로 조각승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전체 불사를 주도했던 청헌이 아니라 응원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은 삼존 중에서 노사나불상을 응원과 인균이 주도하였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실제 불상에서도 응원과 인균의 조각품이 확인된다. 결국 비로자나불상과 석가모니불상은 청헌의 주도 하에, 노사나불상은 응원과 인균의 주도 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노사나불상의 대좌 밑면에 있는 목서명에서는 1634년에 불상이 완성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노사나불상과 석가모니불상의 시주질 2책에서는 불상 조성이 1634년에 시작되어 1635년에 완성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불상 완성 시기에 대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기록은 불상들의 조성 시점이 1634년으로 같지만, 응원과 인균이 주도한 노사나불상은 그 해에 이미 완성되었고, 청헌이 주도한 비로자나불상과 석가모니불상은 다음 해인 1635년에 이르러 완성되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아니면 1634년에 불상들을 모두 조각하고, 1635년에 개금과 점안식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삼신불상 조성을 주도한 조각승 중 청헌은 화엄사 대웅전 삼신불상 외에 경상남도 하동 쌍계사 대웅전 목조석가모니불삼존상 및 사보살입상(1639년), 전라남도 고흥 능가사 목조석가모니불삼존상(1639년), 전라북도 완주 송광사 대웅전 소조석가모니불삼존상(1641년), 경상남도 진주 응석사 목조석가모니불삼존상(1643년) 등을 수조각승으로서 조성에 참여하였다. 응원은 전라남도 순천 송광사 광원암 목조아미타불좌상(1624년), 순천 송광사 응진당 목조불삼존상 및 16나한상(1624년), 순천 송광사 천왕문 소조사천왕상(1628년) 등을 수조각승으로서 조성에 참여하였고, 그의 제자 격인 인균은 전라북도 익산 심곡사 아미타불삼존좌상(1630년대), 전라북도 김제 귀신사 소조불삼존좌상 및 16나한상(1633년), 전라남도 해남 미황사 대웅전 목조석가모니불삼존상(1630년대), 전라남도 광양 백운사 대웅전 목조아미타불좌상(1643년), 전라남도 여수 흥국사 무사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권속(1648년) 등을 수조각승으로서 주도하였다.

[사진]



화엄사 대웅전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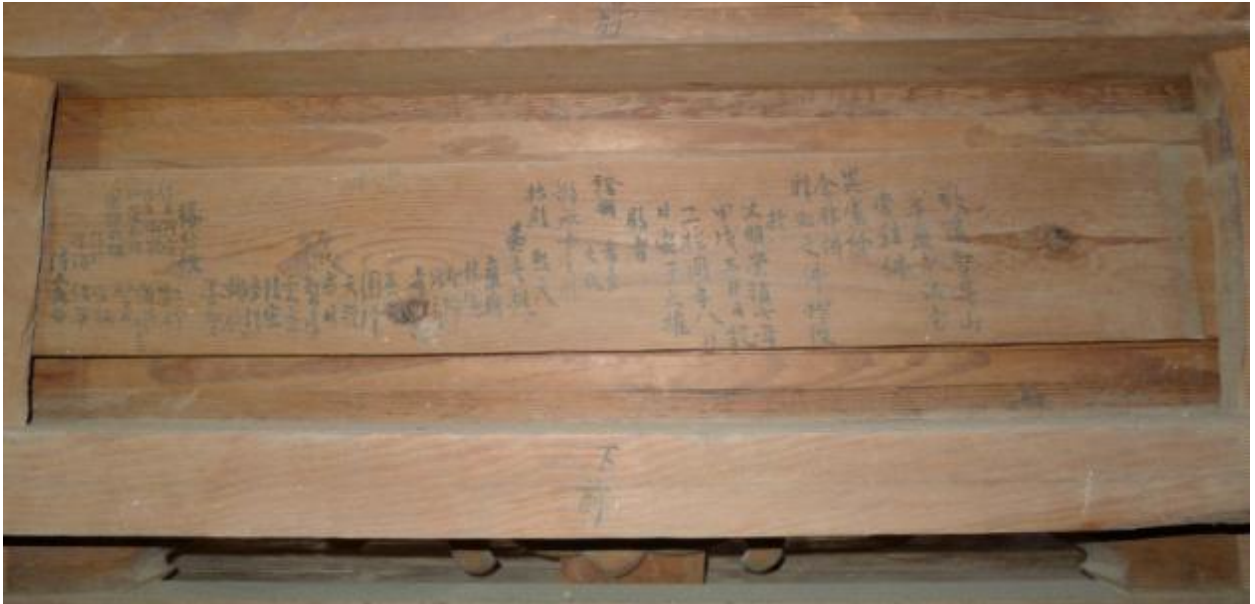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목조노사나불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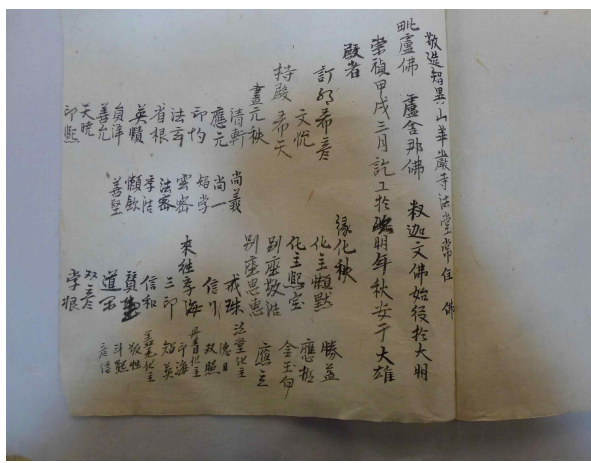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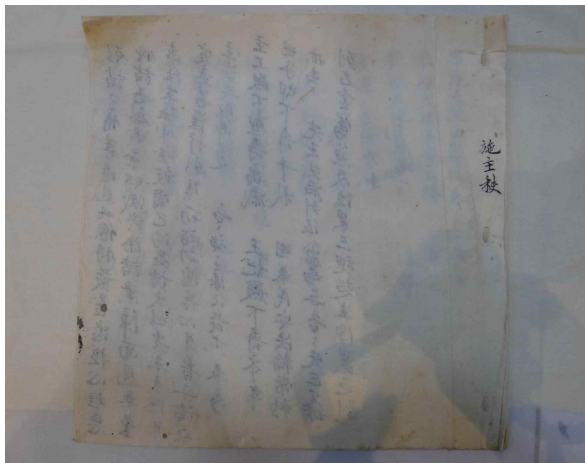
목조석가여래좌상



목조노사나불좌상 대좌 밑면 목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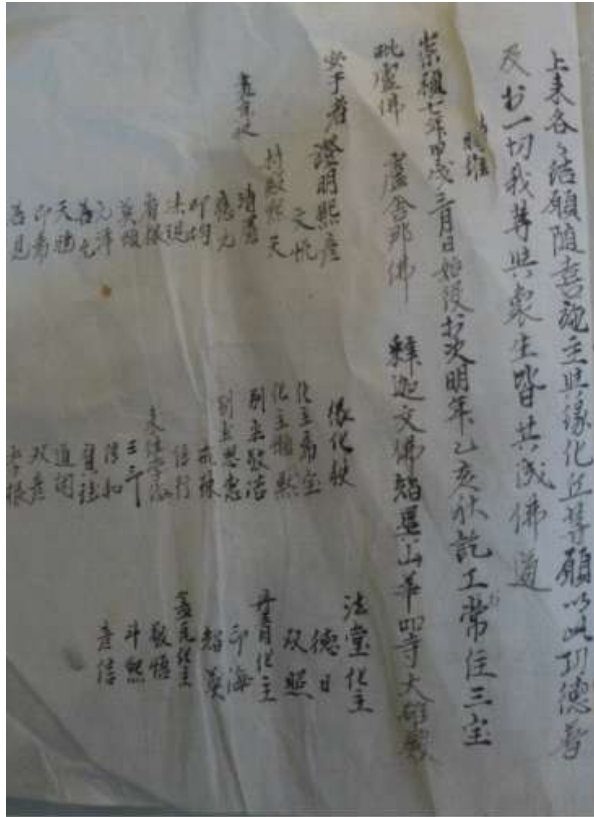
노사나불상과 석가모니불상에서 수습된 전적들



목조노사나불좌상에서 수습된 시주질과 조각승 명단



목조노사나불좌상의 후령통



목조석가모니불좌상의 시주질과 조각승 명단



『호남도구례현지리산대화엄사사적』의 부분(불상 조성 관련 기록)



목조석가모니불좌상의 복장유물 일괄

□

## ○ 현 상

화엄사 대웅전의 3단 불탁 위에 봉안된 비로자나불을 본존으로 하는 삼신불 구성의 목조불좌상이다. 본존불은 지권인을 결한 비로자나불이며, 우측(향좌측)의 불상은 석가모니불, 좌측(향우측) 불상은 노사나불이다. 본존 비로자나불은 지권인을 결하고, 석가모니불은 향마촉지인, 노사나불은 장엄불로서 두 손을 어깨높이로 들어올린 전법륜인을 결하고 있어 전형적인 삼신불 도상 조합을 보이고 있다.

본존 비로자나불은 좌우 불상보다 다소 크게 조성하여 삼신불의 주불로서 강조하고 있다. 육계는 따로 정수리와 구분하지 않고 둥글게 솟았으며 작고 촘촘한 나발 사이로 중간계주와 정상계주를 표현했다. 안면은 각진 턱으로 네모난 윤곽을 보이며, 계슴처럼 뜨개 뜨는 눈이지만 정면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시선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이는 대웅전 불상조각을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청헌의 이후 조각, 예를 들어 하동 쌍계사 대웅전 불상 등에서는 그다지 강조되지 않는 화엄사 대웅전 불상의 독특한 특징이며, 오히려 그에게 영향을 준 현진의 불상에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다. 또한 아랫입술과 턱 끝의 간격이 좁아 이복구비가 더 촘촘하게 모아진 듯한 인상을 준다. 반면 유독 귀가 크고 귓볼 살이 풍만하게 묘사된 것도 이 불상의 특징 중 하나이다.

목에는 삼도가 목의 아래쪽으로 몰려서 표현되었으며, 그 아래의 가슴에는 별다른 인체의 묘사 없이 평면적으로 처리되었다. 지권인을 결한 두 손은 왼손 손가락을 접은 위에 오른손은 엮어 감싼 변형된 지권인이다. 이 경우 청도 운문사 대웅전 소조비로자나불좌상이나 나주 불회사 건칠비로자나불처럼 검지손가락을 다른 손가락들보다 위로 높이 솟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그런 차이가 크지 않고 미세하게 오른손 검지손가락이 들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은 법주사 대웅보전 본존 비로자나불좌상이나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지권인과 같은 계통의 형식으로 볼 수 있다.

통견의 착의형식이며 양쪽 목깃과 소매단의 반전, 오른쪽 어깨에 걸쳐진 대의가 표현되었으며, 가슴을 지나는 옷자락은 주름이 없이 평행하고 복부에서는 비스듬하게 휘감기며 흘러나오는 옷자락을 표현했다. 전반적으로 옷자락은 간략하면서 선이 굵고 평행선을 그리며 잘 정돈된 방식인데, 이러한 옷주름은 자칫 지루하게 보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간격을 바깥이 좁고 안으로 들어오면서 조금씩 넓어지게 배열하여 율동감이 느껴지게 처리했다.

화신 석가여래좌상은 전반적으로 본존 비로자나불좌상과 유사하나 비로자나불의 정수리가 원형인 반면, 석가모니불은 타원형으로 높이 솟은 형식인 것이 차이점이다. 또한 석가모니불의 특성상 편단우견의 촉지인상이라는 차별화된 도상으로

존명을 구분하고 있다. 이때 오른쪽 어깨를 덮는 대의자락의 끝단을 물결모양으로 강조하여 변화를 주었다. 손은 살집이 풍만하고 손톱도 정교하게 묘사되어 섬세함이 느껴진다.

보신 노사나불은 앞의 두 존상과 양식적으로 유사하나 눈두덩과 볼살이 더 강조되고 턱도 각이 지기는 했으나 앞의 두 불상에 비해서는 부드러워져 다소 다른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청현과 불상보다는 인균과 불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양손을 어깨 높이로 들어 올려 결한 설법인은 불화에서는 수직으로 팔뚝을 들어올려 손목도 90°에 가깝게 꺾고 있지만, 조각에서는 오히려 양손 모두 시무외인을 결한 것처럼 앞으로 내민 경향이 강하며, 따라서 손바닥도 불화에서처럼 하늘 방향을 향하지는 않는다. 장엄불로서 보관 이외에는 특별히 다른 장엄을 걸치지 않았으나 다만 손목에는 여의두문 형식의 팔찌, 귀 끝에는 국화문의 귀걸이를 착용하고 있으며, 귀 앞으로 한 가닥 보발이 흘러내려 귀를 타고 목 뒤쪽으로 이동한 뒤 다시 아래로 내려오다가 어깨 위에서 두 가닥으로 나뉘어 구불거리며 흘러내리고 있다.

무엇보다 노사나불로서 화려한 보관이 주목된다. 위로 벌어지는 관대에 모란과 구름 문양을 타출하고 그 위에 화염보주, 구름문양의 장식이 삽입되어 있으며, 특히 보관의 우측에는 연봉, 좌측에는 모란 장식으로 장엄한 것이 주목된다. 또한 보관의 정면에 마치 꿩이 꼬리깃털처럼 긴 깃털장식이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것이 독특하다. 관대 좌우에서는 2줄의 띠가 흘러내려 S자형을 그리며 휘날리고 있다. 관대의 뒷면에는 모란당초문이 타출되어 있지만, 그밖에 입식은 삽입하지 않았다.

## ○ 내용 및 특징

화엄사 대웅전의 삼신불 구성은 삼신불의 도상으로서 가장 전형적인 형식이지만, 이처럼 전형적인 구성을 보이는 사례는 조각상에서는 화엄사대웅전 삼신불상을 거의 유일한 예로 들 수 있다. 대부분 장엄불로서의 노사나불은 단순한 여래형의 노사나불로 조성되었거나 혹은 노사나불 대신 아미타 혹은 약사불로 대체되어 봉안되었기 때문에 화엄사 대웅전처럼 보관불 형식의 노사나불이 원칙에 따라 봉안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이다. 특히 새로이 대좌 안에서 발견된 묵서에서 이들 존상이 실제로 법신, 화신, 보신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그 의미는 더욱 증대되었다 하겠다. 묵서에 의하면 이들 삼신불을 ‘상주불(常住佛)’로 지칭하면서 각각은 비로불(법신), 사나불(보신), 석가문불(화신)로 기술한 것이 주목된다.

더불어 묵서명 및 복장에서 발견된 시주질 및 조성기를 통해 사적기에서 확인된 불상의 조각승인 청현, 응원, 인균과 함께 더 많은 조각승 명단이 확인되어 불상의 조성연대 및 조각승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진전된 성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조성연대를 기존의 대웅전 완공시기인 1636년으로 추정하던 것에서 이보다 이른 승정7년, 즉 1634년으로 확정하게 된 것도 중요한 성과이다. 이는 대웅전이 완공된 후에 불상이 조성된 것이 아니라, 거의 함께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만큼 대웅전의 완공을 서두르기 위해 서로 다른 유파의 협동작업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당시의 정황을 추정해볼 수 있다. 결국 묵서명의 기록에 의하면 대웅전 불단 상주불인 삼신불 조성사업을 3월에 시작하여 같은해 8월에 불단에 안치했다고 되어 있으므로, 공사기간은 5개월 가량이었다. 이와 같은 대규모 불상 3구를 조성하는 기간으로는 비교적 빠른 시간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그만큼 많은 조각승들이 협업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불화로는 비교적 많이 발견되는 이러한 전형적인 삼신불의 사례가 조각으로 구현된 것이 드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마침 그 사례가 화엄사에서 조성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삼신의 개념을 통해 화엄사의 화엄종파적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처럼 이론적으로 충실한 도상을 재현한 것으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 □

화엄사 대웅전은 1634년 벽암각성 스님에 의해 중창된 건물이다. 단층건물이지만 높은 월대 위에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자리 잡아 웅장한 위용을 자랑한다. 대웅전 현판은 선조와 인빈김씨 사이에 태어난 義昌君 李玠(1589-1645)이 썼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화엄사와 왕실과의 관계를 짐작케 한다. 이후로도 효종의 차녀 淑安公主(1636-1673)와 남편 洪得箕(1635-1673)가 화엄사 영산회 괘불탱(1653년)의 시주로 참여하였고, 각황전 중창시 계과당 성능대사와 숙종과의 관계 등에서 화엄사와 왕실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구례 화엄사 대웅전에 봉안된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비로나자나불, 노사나불, 석가여로 구성된 이른바 삼신불상이다. 불상은 높은 수미단 위 팔각연화대좌위에 안치되어 있다. 팔각연화대좌는 불단에서 분리되지만, 불단 아래에서 보면 뿔려 있는 형태이다. 대좌는 부정팔각의 삼단대좌 형식으로, 족대와 마대를 모두 갖추고 있다. 중대와 하대받침대는 각각 3단으로 처리하고 중대 머름판에는 구름모양의 안상을 새겨넣었다. 천판 위에는 양복련이 맞붙은 연화대좌를 올리고, 그 위에 걸가부좌한 불상을 안치하였다.

불상의 배치는 중앙에 지권인을 결한 비로자나불상을, 좌측에 두 팔을 만세를 부르듯 어깨위로 들어 설법인을 결한 노사나불을, 우측에 항마촉지인을 결한 석가모니불을 봉안하였다. 비로자나불은 이중착의법으로 법의를 걸쳤다. 반주먹 권 왼손을 오른손으로 덮은 지권인은 이보다 앞서 제작된 자수사·인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1622년, 현 국립중앙박물관)과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불좌상(1626년),

수중사 탐 봉안 금동비로자나불좌상(1628년)등과 도상적으로 상통한다. 특히 자수사·인수사 목조비로자나불상과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불상 조성시 화엄사 삼신불상을 만들었던 조각승들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도상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협시 석가여래는 변형 편단우견으로 법의를 걸쳤다. 노사나불은 보관을 착용하였다. 머리카락은 땅아 올려 보계를 만들고, 어깨 위에는 보발을 늘어뜨려 멧을 내었다. 팔에는 문양이 없는 굵은 띠모양의 팔찌를 착용하였다. 법의는 통견착의로 걸쳐 입었으나 전반적인 모습은 보살형을 띤다.

이와 같은 삼신불 도상이 정확히 언제부터 확립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홍천 물걸리사지에서 삼불을 봉안했던 흔적이 확인되었고, 사지 내에는 삼신불상으로 추정되는 불상이 확인되지만 그 구성이 화엄사 대웅전 삼신불상과 같은 구성인지는 확실치 않다. 화엄사 삼신불상과 같이 화엄불신관에 의한 도상인데, 이와 같은 삼신도상이 등장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은 982년으로 추정되는 금강사 장안사 삼신불상으로 알려져 있다. 장안사 삼신불상은 화엄사 대웅전 삼신불상과 마찬가지로 비로자나불과 노사나불, 석가여래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해인사 원당암 아미타여래삼존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수진본 <제다리니경 변상도>에서는 비로자나불과 석가, 아미타여래로 구성된 삼신불 도상이 확인되어 고려시대 이전에는 이와 같은 삼신불상도 함께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세기 이후 비로자나불·노사나불·석가여래로 구성된 삼신불상 중 가장 이른 예로는 1622년 광해군비 장열왕후가 발원하고, 벽암각성이 증명하고 팔도 유명 조각승들이 총출동하여 조성한 자수사·인수사 불상에서 찾을 수 있다. 이때 조성한 불상은 모두 11존인데, 이 중 비로자나·석가·노사나로 구성된 삼신불상이 2셋트가 조성되어 자수사와 인수사에 각각 봉안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 조성된 삼신불상 중 비로자나불상 1구(서울지장암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석가여래좌상 1구가 전하고 이외 아미타여래좌상 1구가 안동 선찰사에서 전하고 있다. 자수사인수사 불상을 조성한 조각승 중 청헌, 응원, 인균, 등은 화엄사 불상 조성에도 매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결실된 자수사인수사 노사나불상도 화엄사 대웅전과 같은 모습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 ○ 자수사인수사와 화엄사 대웅전 삼신불상의 조각승 비교

사찰명	증명	조각승
자수사인수사(1622년)	熙彦 覺性	*玄眞 應元 守衍 玉明 法玲 明晝 淸虛 性仁 普熙 印均 敬玄 志修 太鑑 * 治匠 : 性玉 勝一 密衍 義仁
화엄사 대웅전(1634-1636)	希彦 文悅 覺性	* 淸軒, 應元, 印均, 法玄, 省根, 英蹟, 員澤, 善允, 天曉, 印熙, 尙義, 尙一, 智學, 雲密, 法密, 學浩, 懶欽, 善堅

이후 1628년 인목대비가 발원하여 수종사 팔각오층석탑에 납입한 여러 구의 소형 금동불상 중에서도 삼신불상의 실물 존재가 확인되고, 이어서 확인되는 작품이 바로 1636년의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이다. 수종사 불상은 크기가 매우 작은 소형 금동불상으로 화엄사 불상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그 형태와 양식은 자수사인수사 불상을 따르고 있다. 같은 왕실불사였기 때문에 수종사 금동불상을 제작한 성인 역시 자수사·인수사 불상의 양식과 도상을 참조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화엄사 이전 궁중사찰인 향후 자수사인수사의 삼신불상 도상 복원에도 중요한 기준자료로 삼을 수 있다.

화엄사 삼신불상 제작 이후로는 조각에서는 이와 같은 삼신불상이 확인되지 않지만, 불화에서는 지속적으로 제작되어 나타난다. 불화로 가장 앞선 작품은 1628년에 제작된 칠장사 오불회괘불탱이 있다. 칠장사 오불회괘불탱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비로자나삼신불을 중심으로 약사여래와 아미타여래, 그리고 관음과 지장이 추가된 복합적인 신앙양상을 그림화한 것이어서 엄밀히 말하면 정확한 삼신불도상을 그린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 그림 이후에 그려진 1650년의 갑사 비로자나삼신불괘불도(좌상)이라든지, 1690년의 홍천 수타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입상), 1735년의 남양주 봉선사 비로자나삼신불괘불도(입상), 1739년의 서울 학림사 비로자나삼신불괘불도(입상), 1806년 서울 청룡사 비로자나삼신불괘불도(입상) 등은 삼신불마을 대상으로 그린 것으로, 불화에서는 19세기 이후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편 화엄사 대웅전 삼신불상과 마찬가지로 벽암각성이 재건한 보은 법주사 대웅보전에도 선행하는 도상이 나타나지만, 법주사 대웅보전 삼신불상은 화엄사 대웅전 삼신불상과 달리 좌측 보신불의 도상이 여래형이고 아미타나여래와 같은 설법인을 짓고 있어 정확히 노사나불을 의도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 보은 법주사 삼신불상은 오히려 해인사 원당암 아미타여래삼존상의 복장에 납입된 제다라니경 변상도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화엄불신관에 의거하여 제작된 비로자나삼신불상은 불전에 봉안된 사례로는 화엄사 대웅전 삼신불상이 현재까지는 유일하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화엄사 대웅전 삼신불상은 본존불상의 본존불의 높이가 277.7cm이며, 대좌의 높이까지 합치면 378.4cm에 달한다. 대형의 불상은 통일신라시대부터 석불이나 마애불로 등장하지만, 목불로 제작되어 전하는 대형의 불상은 거의 없다. 이 화엄사 삼신불상은 규모면에서 단연 돋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규모면에서 우리나라 3대 목조불상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목불상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화엄사 각황전 삼불상(본존불 높이 359.5cm, 전체높이 481.3cm)이며, 그 다음이 이 화엄사 대웅전 삼신불상이고, 그 다음이 칠곡 송림사 석가여래삼존좌상

(본존 270.7cm, 전체 359.5cm)을 꼽을 수 있다. 규모면에서는 두 번째이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 화엄사 불상은 이들 대형목불 중에서 가장 시기가 앞서고, 도상적인 측면이나 조형적인 측면에서 단연 우수하여 독보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같은 사찰에 봉안중인 화엄사 각황전 삼불사보살상의 크기가 화엄사 대웅전 불상보다 조금 더 큰 규모지만, 임진·정유재란 이후 재건불사가 숨 돌릴 틈 없이 진행될 시기에 제작된 목조불상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특히 17세기 전반기 대작불사의 중심에는 반드시 벽암 각성이 있는데, 당시 벽암각성의 주도아래 제작되는 상징적인 불상은 대체로 소조불이 선택되었기에 화엄사 대웅전 불상이 같은 상징성은 큰 것이라 하겠다.

당시 불상의 조성은 수조각승의 지도아래 여러 보조조각승들이 협력하여 자신의 소질과 솜씨를 발휘하였고, 때로는 여러 유파의 조각승들이 상호 교류하며 조각을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조각 집단 간의 교류와 협력은 아마도 양대 전란을 전후한 시기 승단의 조직을 팔도도총섭 체제로 정비된 것과 관련이 깊다. 도총섭의 진두지휘 아래 승려장인들은 자수사인수사와 같은 왕실 주도의 원당을 짓거나 산성을 수축하는데 참여하였고, 중요 사찰 불사에도 도총섭의 부름을 받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화엄사 대웅전 삼신불상은 그동안 <화엄사사적기>와 불상의 양식을 근거로 1636년 청헌, 영이, 인균, 응원이 조각승으로 참여하여 제작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특히 삼신불 중 비로자나불과 석가여래, 노사나불에서 보이는 양식적 상이함에 주목하여 비로자나불과 석가여래는 청헌·영이파에 의해, 노사나불은 응원·인균파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파악하였다.<sup>28)</sup>

그러다 2014년 문화재청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실시된 불상정밀기록화 및 진단사업에서 이를 한층 더 보강해 주는 발견이 추가되었다. 즉 석가여래의 주변에서 조성 당시에 작성된 복장시주질이 수습되었고, 노사나불과 석가여래의 팔각대좌의 안쪽 면에서는 조성과 관련된 묵서명도 함께 확인하였다.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진행된 2020년 7월 10일 노사나불에 대한 복장수습조사에서도 잔존하는 복장유물과 함께 불상 제작과 관련된 기록인 시주질이 수습되었다. 노사불상의 시주질 말미에는 불상조성과 관련된 승려들이 빠짐없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崇禎 甲戌(1634) 공사를 시작하여 次明年(1635년)<sup>29)</sup> 가을에 대웅전에 안치했다고 기록되어 되어 있는데, 주요 소임으로는 希彦이 증명법사로 등장하고, 淸軒, 應

28) 손영문, 「조각승 인균과 불상연구」, 『강좌미술사』 26-1((사)한국미술사연구소, 2006)

29) 노사나불 시주질에는 ‘次明年秋’라고 적었고, 석가여래시주질에는 ‘次明年乙亥秋’라고 적었다. 그러나 대좌 묵서에는 ‘大明崇禎七年甲戌三月日詔工於同年八月’이라 하여 1년의 시차가 난다. 기록순으로 보면 불상이 완성된 시점에서 묵서명이 쓰여졌고, 그 다음 개금과 개채가 끝나고 복장물이 완성된 시점에서 시주질이 쓰여지고, 마지막으로 불사를 총정리한 사적기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개금과 개채, 복장물이 안치되어 의식까지 마쳤을 때 진정한 완성의 의미가 있으므로 시주질의 기록에 따라 제작시기를 판단하기로 한다.

元, 印均, 法玄, 省根, 英蹟, 員澤, 善允, 天曉, 印熙, 尙義, 尙一, 智學, 雲密, 法密, 學浩, 懶欽, 善堅 순으로 화원질에 등장한다. 사적기에서 大化土로 등장하는 나뭇과 희보는 화주로 표기되어 대화사와 화주와 같은 용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주질의 기록은 노사나불에 기록된 대좌묵서와 거의 비슷하지만, 증명질의 등장인물과 화원의 순서와 한자의 음이 약간 다르게 나열되어 있다. 묵서명에는 증명에 희언 외 文悅과 覺性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고, 시주질에 수조각승으로 등재된 淸軒은 응원 다음 순서에 기재 되어 있다. 그리고 사적기와 석가여래 시주질에 등장하는 英頤는 노사나불 시주질과 노사나불 대좌묵서에는 英蹟으로 등장하고 있다. 아마도 영이와 영색의 한자음은 다르지만, 한자 표기는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동일 인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청헌이 제작한 불상 중에 보조조각승 중 어떤 곳은 영이, 어떤 곳은 영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화엄사 대웅전 불상을 통해서 영색과 영이가 다른 인물이 아닌 동일 인물임이 더욱 분명해 졌다. 한편 시주질과 묵서명의 발견으로 그동안 中觀 海眼이 작성한 <화엄사사적기, 1636년>를 근거로 1636년으로 판단해 왔지만, 묵서명과 시주질을 발견으로 불상의 제작시기를 분명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삼신불상의 증명으로는 부휴계의 대표 고승 고한 희언과 벽암각성이 참여하였다. 고한 희언은 벽암각성과 함께 1622년 광해군이 친히 개최한 청계사 齋會와 광해군비 장열왕후가 발원한 자수사인수사 불사에도 벽암각성과 함께 증명으로 참여한 바 있는 당대의 고승으로, 17세기 전반기 주요 불사를 벽암각성과 함께 선두에 서서 이끈 인물이다. 특히 조선 왕실종친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이들이 불사를 이끌자 이에 의창군 이광, 동양위 신익성 부부, 다수의 상궁, 수많은 승속의 사부대중들이 응해 불사가 완성되었다. 의창군은 이 불사 참여 외에도 대웅전 현판과 일주문 현판을 친히 썼다. 따라서 이 화엄사 삼신불상을 통해 당시 왕실과 불교계와의 관계를 조명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 ○ 후령통

후령통은 두점이 수습되었다. 석가여래 후령통은 뚜껑과 분리되어 있으며, 노사나불후령통은 해포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 두 후령통 모두 몸통 방위색으로 사방주를 적었고, 두경 윗면에 팔엽을 별도로 붙인 모습이다. 석가여래 후령통의 몸통에 부착되었던 사방경과 안립 되있는 팔엽원경은 현재 별도로 수습하여 봉안되어 있다. 석가여래후령통에서 수습된 원경① 지름 3.5cm, 원경② 지름 3.5cm, 반월경 2.8x5.2cm, 삼각경 3.7x3.4cm, 사방경 4.0x3.9cm, 팔엽원경 지름 4.6cm 두께 0.3cm이다. 노사나불 후령통에서 수습된 방경은 3.7x3.5cm이다.



석가여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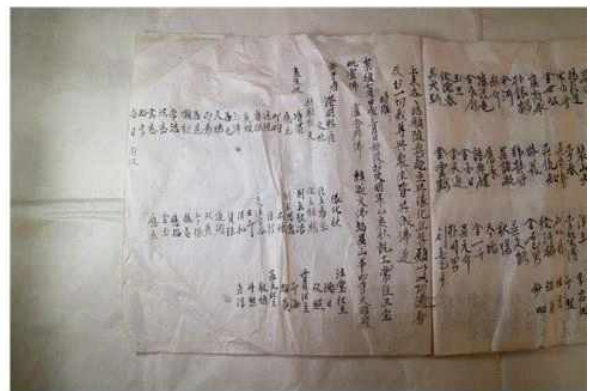
비로자나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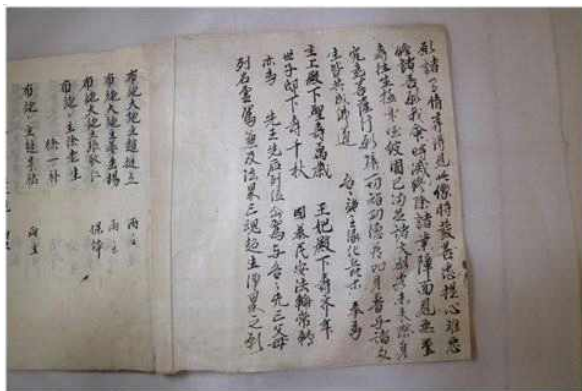
노사나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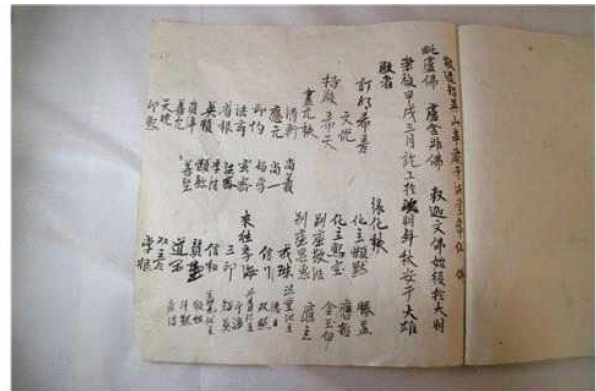
노사나불 대좌 묵서



석가여래 시주질 권말



노사나불 시주질 권두



노사나불 시주질 권말



후령통(석가)



사방경 등(석가)



후령통(노사나)

○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을 만든 조각승들의 활동

조각승	주요활동 (화엄사 삼신불상의 화원순위는 노사나불 시주질 기준)	비고
청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1626년, 2위(현진)</li> <li>- 전남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1635년, 1위, 화엄사 사적기</li> <li>- 경남 하동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39년, 1위</li> <li>- 전북 완주 송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41년, 1위</li> <li>- 경남 진주 응석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43년, 1위</li> </ul>	청헌과
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은 법주사 팔상전 재건공사, 1605년, 緣化秩</li> <li>-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1614년, 2위(자심)</li> <li>- 김제 금산사 칠성각 독성상, 1615년, 2위(태전)</li> <li>-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22, 2위(현진), 현 국립중앙박물관</li> <li>- 순천 송광사 광원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24년, 1위</li> <li>- 순천 송광사 응진당 소조석가여래삼존 및 16나한상, 1624년, 1위</li> <li>-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 1628년, 1위, 비파명문</li> <li>-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1635년, 목서(1위), 시주질(2위) 화엄사사적기(4위)</li> <li>-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1650년, 응매, 시주질</li> </ul>	응원과
인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1614년,</li> <li>- 김제 금산사 칠성각 독성상, 1615년, 5위(태전)</li> <li>-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22년, 10위(현진), 국립중앙박물관</li> <li>- 순천 송광사 광원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24년, 5위(응원)</li> <li>- 김제 귀신사 영산전 소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16나한상, 1633년, 1위</li> <li>- 구례 화엄사 대웅전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1636년, 사적기·목서·시주질 3위</li> <li>- 광양 백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43년, 1위, 발원문</li> <li>- 여수 흥국사 무사전 지장시왕상, 1648년, 1위</li> <li>- 여수 흥국사 응진당 목조석가삼존좌상 및 16나한상, 1655년, 1위</li> <li>- 전주 학소암 자음전 목조약사여래좌상, 1662년, 1위</li> <li>- 구례 화엄사 벽암국일도대선사비, 1663년, 비음 總攝</li> </ul>	응원과
법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광 불갑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35년, 持殿(무염)</li> <li>- 하동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39년, 3위(청헌)</li> <li>- 거창 심우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40년, 2위(청허),</li> <li>- 진주 응석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43년, 2위(청헌)</li> </ul>	청헌, 청허과
성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4위</li> <li>- 칠곡 송림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1657년, 7위(도우)</li> </ul>	



조각승	주요활동 (화엄사 삼신불상의 화원순위는 노사나불 시주질 기준)	비고
영색 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1626년, 7위(현진), 영이</li> <li>- 파주 보광사 목조보살입상, 1633년, 1위, 영색</li> <li>-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1636년, 2위(청헌), 영이/영색</li> <li>- 하동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39년, 4위(청헌), 영이</li> <li>- 경산 경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1644년, 2위(청허), 영색</li> <li>- 상주 남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1645년, 2위(청허), 영이</li> <li>- 울산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1649년, 1위, 영색</li> <li>-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57년, 영규, 시주질, 영색</li> </ul>	청헌과
원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1636년, 7위(청헌)</li> <li>- 원주 송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41년, 6위(청헌)</li> <li>- 진주 응석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43년, 3위(청헌)</li> <li>- 김천 직지사 강원 목조석가여래좌상, 1648년, 2위(현윤)</li> <li>-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1650년, 시주질(응매)</li> </ul>	청헌과
선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1636년, 8위</li> </ul>	
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천 송광사 광원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24년, 9위(응원)</li> </ul>	응원과
인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1636년, 9위</li> </ul>	
상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제 귀신사 영산전 소조석가여래삼존 및 16나한상, 1633년, 11위(인균)</li> <li>-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1636년, 10위</li> <li>- 광양 백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43년, 2위(인균)</li> <li>- 여수 흥국사 무사전 목지장시왕상, 1648년, 2위(인균)</li> </ul>	인균과
상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1636년, 11위</li> </ul>	
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1636년, 12위</li> </ul>	
운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1636년, 13위</li> </ul>	
법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1636년 14위(청헌)</li> <li>- 원주 송광사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41년, 10위(청헌)</li> <li>-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57년, 영규, 시주질</li> </ul>	청헌과
학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1636년, 15위</li> </ul>	
나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1636년, 16위(청헌)</li> <li>- 하동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39년, 10위(청헌)</li> <li>- 진주 응석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43년, 6위(청헌)</li> <li>- 경산 경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1644년, 6위(청허)</li> <li>- 상주 남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1645년, 5위(청허)</li> <li>- 대구 보성선원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1647년, 2위(현욱)</li> <li>- 경남 양산 원효암 석조약사여래좌상, 1648년, 1위</li> </ul>	청헌과
선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1636년, 17위</li> </ul>	

○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주요 소йм 등재 양상

출전	증명	화원	대화사/화주
사적기(1695)		淸憲, 英頤, 印均, 應元 등	대화사 나뭇, 회보
노사나불 시주질	文悅	淸軒, 應元, 印均, 法玄, 省根, 英蹟, 員澤, 善允, 天曉, 印熙, 尙義, 尙一, 智學, 雲密, 法密, 學浩, 懶欽, 善堅	懶默, 熙宝
노사나불대좌 목서	希彦 文悅 辦舉事 覺性	應圓, 淸憲, 印均, 法玄, 省根, 英頤, 圓澤, 天曉, 「印熙/尙日」, 「尙儀/智學」, 雲密, 法密, 學淸, 懶欽, 善堅	熙宝, 懶默
석가여래 시주질	熙彦 文悅	淸憲, 應元, 印均, 法現, 省根, 英頤, 元澤, 善允, 天曉, 印希, 善見, 懶欽, 學浩, 法密, 雲密, 智學, 尙日, 尙儀	希宝, 懶默

○ 노사나불 대좌목서

敬造智異山  
華嚴寺法堂  
常住佛  
毘盧佛  
舍那佛  
釋迦文佛始役  
於  
大明崇禎七年  
甲戌三月日訖  
工於同年八月  
日安于大雄殿者  
證明 希彦  
    文悅  
辦舉事覺性  
持殿 熙天  
畫員秩  
    應圓  
    淸憲

印均  
法玄  
省根  
英頤  
圓澤  
天曉  
印熙 尙日  
尙儀 智學  
雲密  
法密  
學清  
懶欽  
善堅

緣化秩

化主 熙宝  
化主 懶默  
別座 敬浩  
園頭 戒珠  
信行  
學敏

三印  
贊圭  
道閑

金玉

双彦  
學根  
信華  
侍者 應哲

○ 석가여래 대좌목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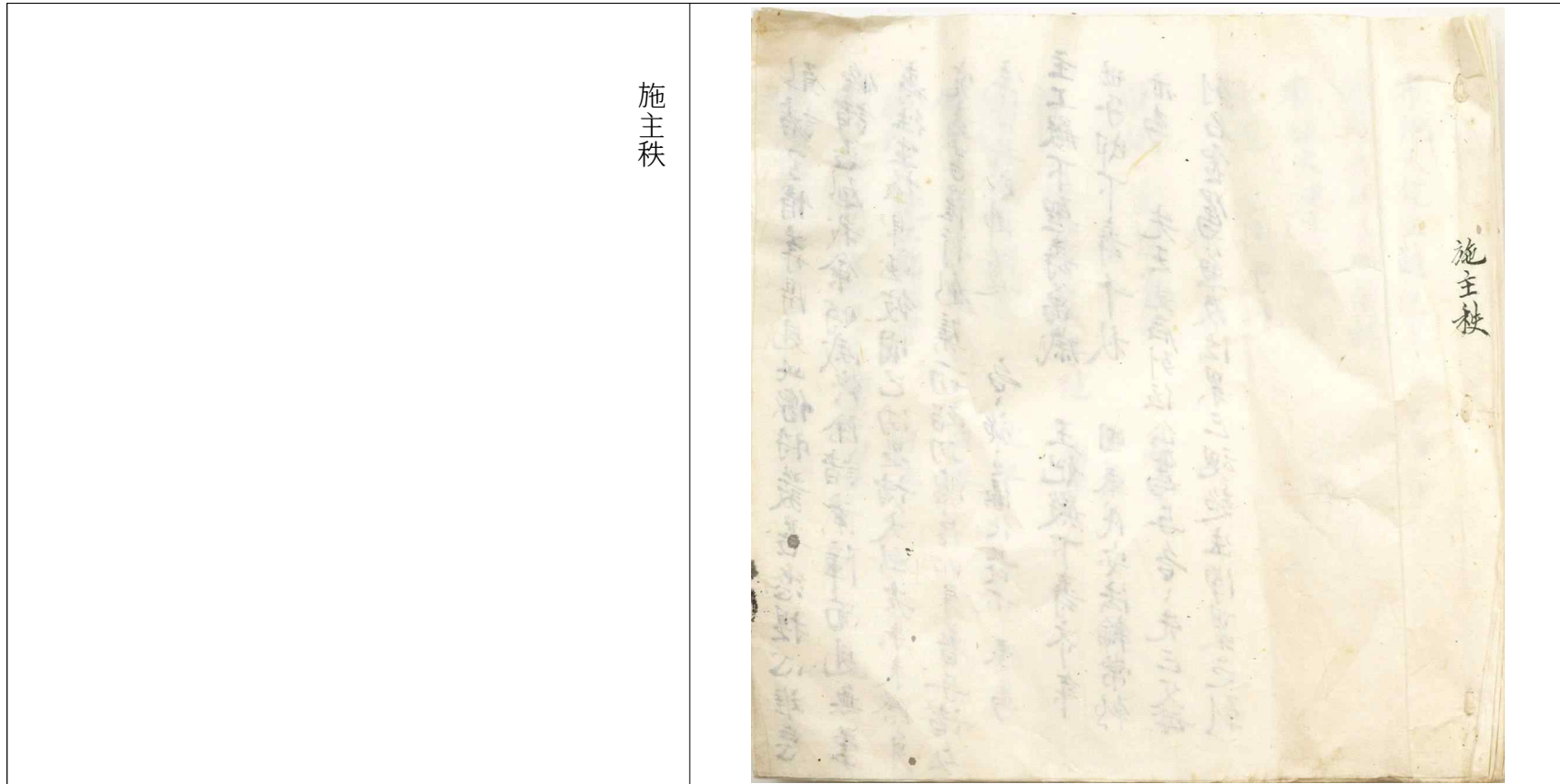
崇禎八年乙亥六月

日畫員

緣化比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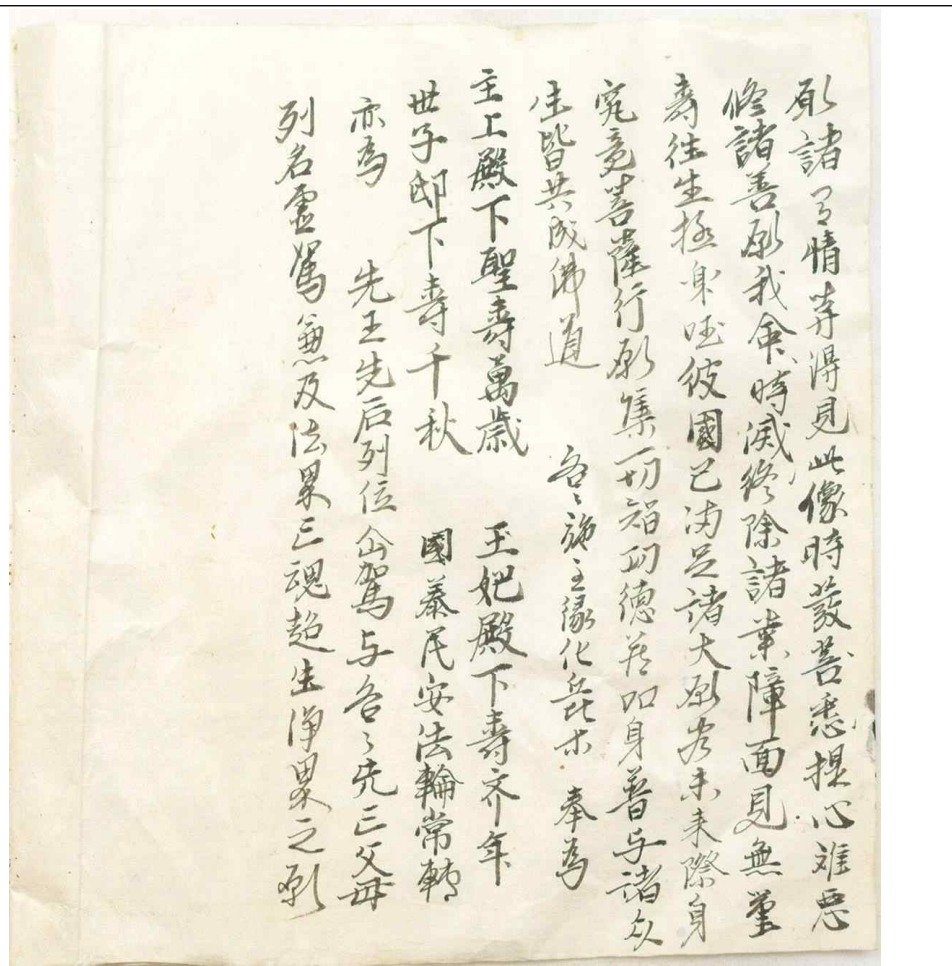
<석문제공 : 사단법인 사찰문화재보존연구소>

1.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표지



2.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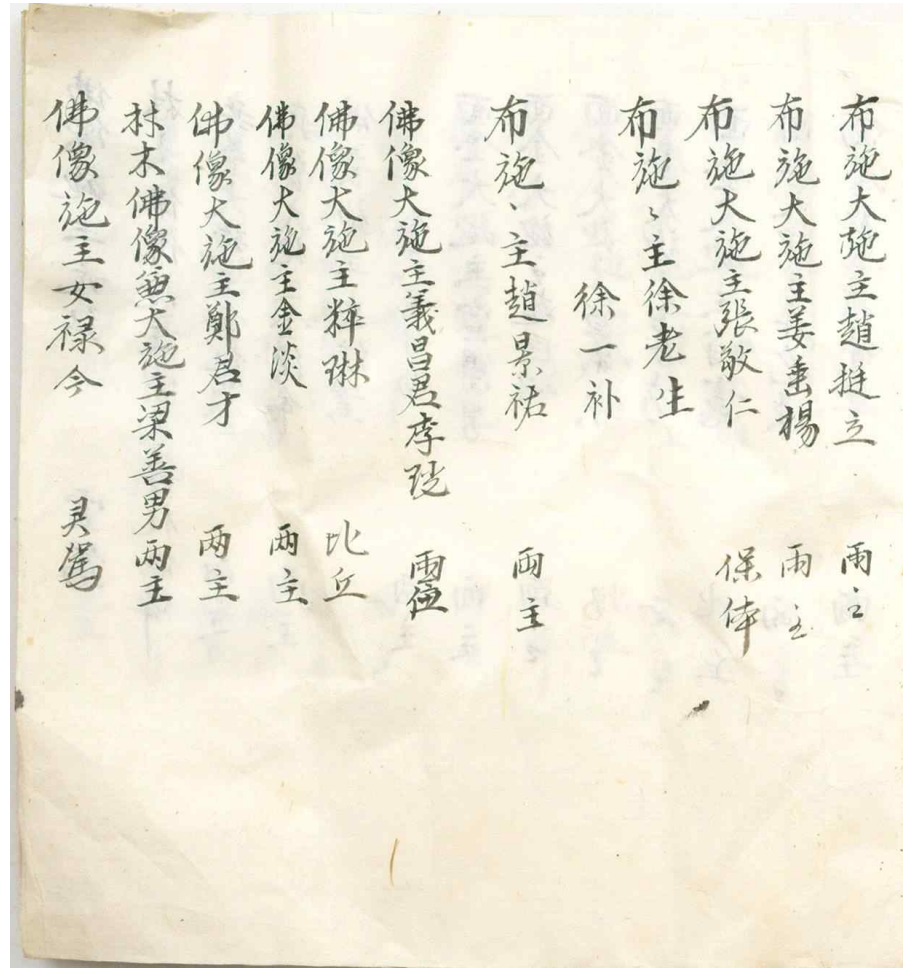
願諸有情等得見此像時發菩提心難惡  
 修諸善願我命時滅修除諸業障面見無量  
 壽往生極樂國彼國已滿是諸大願爲未來際身  
 究竟菩薩行願集一切智功德莊嚴(嚴)身普與諸眾  
 生皆共成佛道 各々施主緣化丘比木(等)奉爲  
 主上殿下聖壽萬歲 王妃殿下壽齊年  
 世子低下壽千秋 國泰民安法輪常轉  
 亦爲 先王先后列位仝駕與各々先亡父母  
 列名靈駕兼及法界亡魂超生淨界之願



死諸有情等得見此像時發菩提心難惡  
 修諸善願我命時滅修除諸業障面見無量  
 壽往生極樂國彼國已滿是諸大願爲未來際身  
 究竟菩薩行願集一切智功德莊嚴(嚴)身普與諸眾  
 生皆共成佛道 各々施主緣化丘比木(等)奉爲  
 主上殿下聖壽萬歲 王妃殿下壽齊年  
 世子低下壽千秋 國泰民安法輪常轉  
 亦爲 先王先后列位仝駕與各々先亡父母  
 列名靈駕兼及法界亡魂超生淨界之願

### 3.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2면

佛像施主 女祿今	灵駕		
材木佛像兼大施主 梁善男	兩主		
佛像大施主 鄭君才	兩主		
佛像大施主 金淡	兩主		
佛像大施主 粹琳	比丘		
佛像大施主 義昌君李玼	兩位		
徐一补			
布施主 趙景祐	兩主		
布施大施主 姜乘楊	兩主		
布施大施主 張敬仁	保体		
布施主 徐老生			
佛像大施主 趙挺立	兩主		
佛像大施主 義昌君李玼	兩主		
佛像大施主 粹琳	比丘		
佛像大施主 金淡	兩主		
佛像大施主 鄭君才	兩主		
材木佛像兼大施主 梁善男	兩主		
佛像施主 女祿今	灵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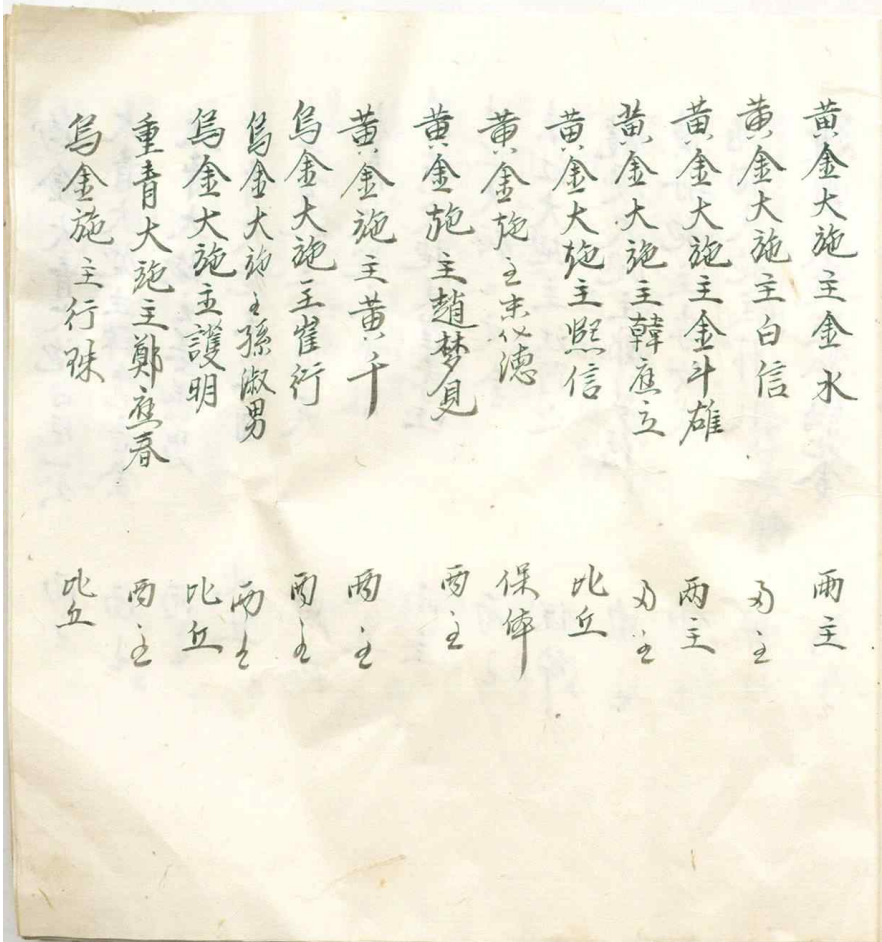


#### 4.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3면

<p>佛像施主 元弘 靈駕</p> <p>材木佛像施主 梁氏善礼 保体</p> <p>共養大施主 金岱金 兩主</p> <p>共養大施主 金德命 兩主</p> <p>供養施主 宋信業</p> <p>金氏主丹尙 兩主</p> <p>面金大施主 宣得男 兩主</p> <p>面金大施主 趙臣同 兩主</p> <p>面金大施主 宣戒宗 兩主</p> <p>面金大施主 李秀 兩主</p> <p>面金大施主 清憲 比丘</p> <p>面金大施主 李芻屎 兩主</p> <p>面金施主 羅希望 兩主</p>	<p>佛像施主元弘 靈駕</p> <p>材木佛像施主梁氏善礼保体</p> <p>共養大施主金岱金 兩主</p> <p>共養大施主金德命 兩主</p> <p>供養施主宋信業</p> <p>金氏主丹尙 兩主</p> <p>面金大施主宣得男 兩主</p> <p>面金大施主趙臣同 兩主</p> <p>面金大施主宣戒宗 兩主</p> <p>面金大施主李秀 兩主</p> <p>面金大施主清憲 比丘</p> <p>面金大施主李芻屎 兩主</p> <p>面金施主羅希望 兩主</p>
--	---

5.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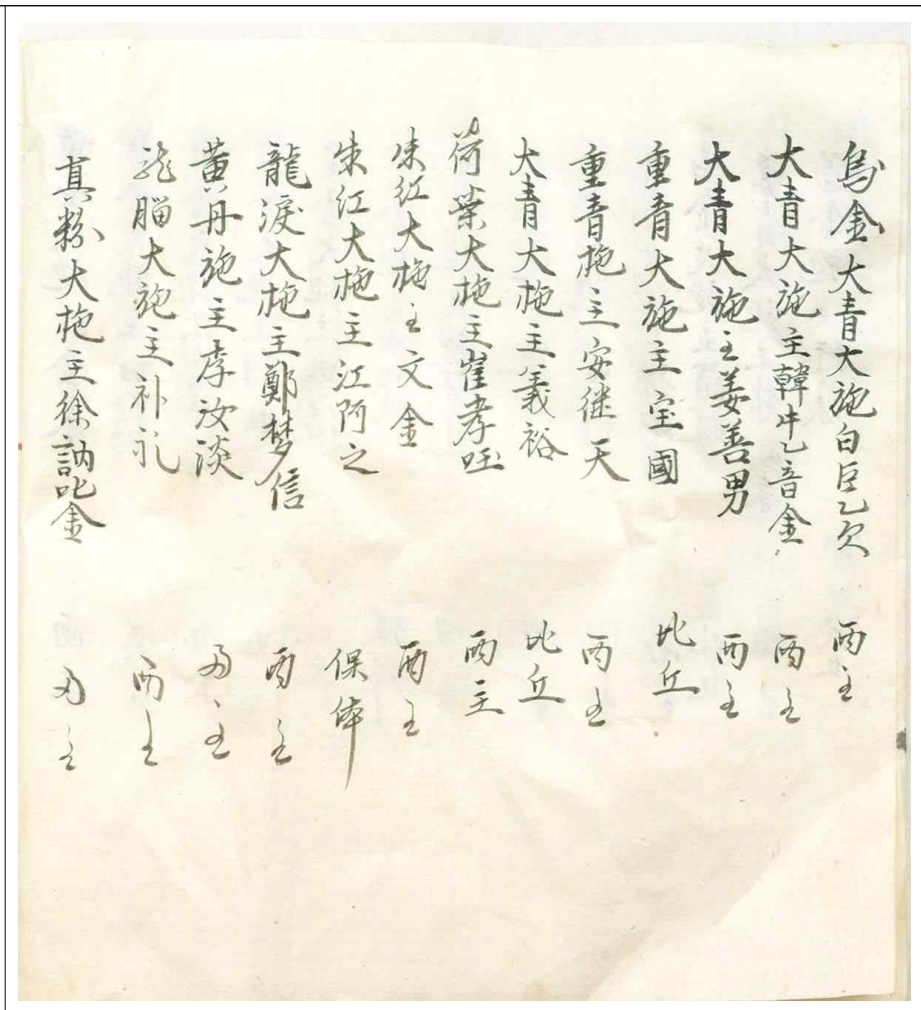
黃金大施主 金水	兩主	黃金大施主 金水	兩主
黃金大施主 白信	力主	黃金大施主 白信	力主
黃金大施主 金斗雄	兩主	黃金大施主 金斗雄	兩主
黃金大施主 韓應立	力主	黃金大施主 韓應立	力主
黃金大施主 熙信	比丘	黃金大施主 熙信	比丘
黃金施主 忞德	保体	黃金施主 忞德	保体
黃金施主 趙夢見	兩主	黃金施主 趙夢見	兩主
黃金施主 黃千	兩主	黃金施主 黃千	兩主
烏金大施主 崔衍	兩主	烏金大施主 崔衍	兩主
烏金大施主 孫淑男	兩主	烏金大施主 孫淑男	兩主
烏金大施主 護明	比丘	烏金大施主 護明	比丘
重青大施主 鄭應春	兩主	重青大施主 鄭應春	兩主
烏金施主 行珠	比丘	烏金施主 行珠	比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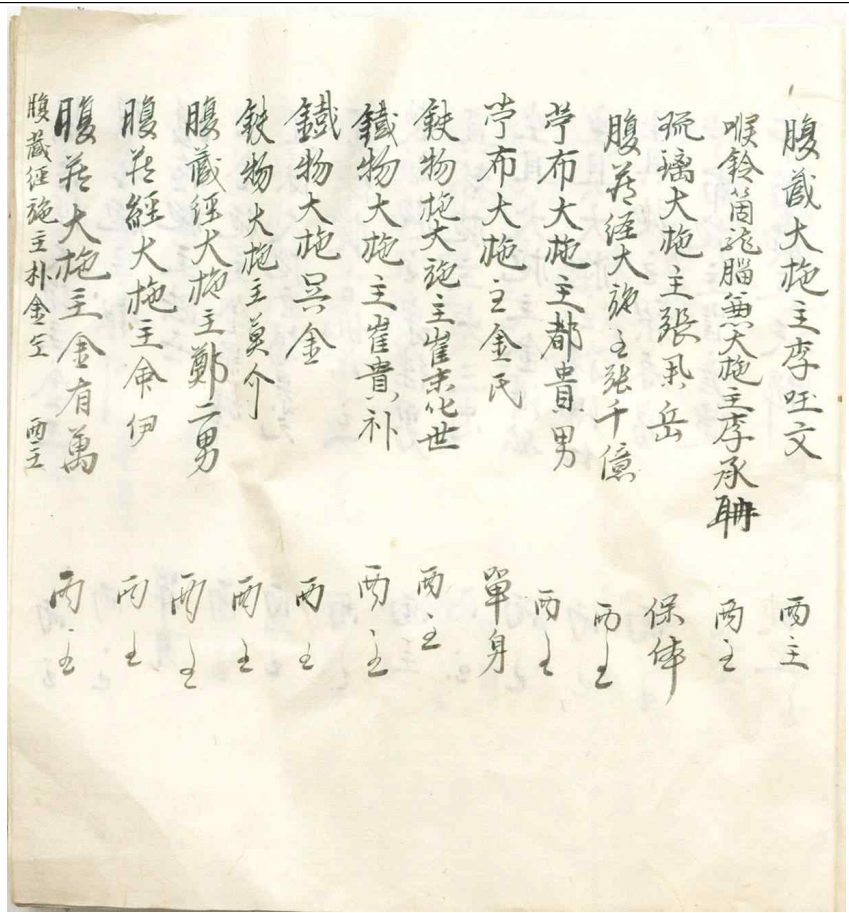
6.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5면

眞粉大施主 徐訥叱金	兩主
龍腦大施主 朴礼	兩主
黃丹施主 李汝淡	兩主
龍淚大施主 鄭夢信	兩主
朱紅大施主 姜阿只	保体
朱紅大施主 文金	兩主
荷葉大施主 崔孝國	兩主
大靑大施主 義裕	比丘
重靑施主 安繼天	兩主
重靑大施主 宝國	比丘
大靑大施主 姜善男	兩主
大靑大施主 韓牛乙音金	兩主
烏金大靑大施 白曇欠	兩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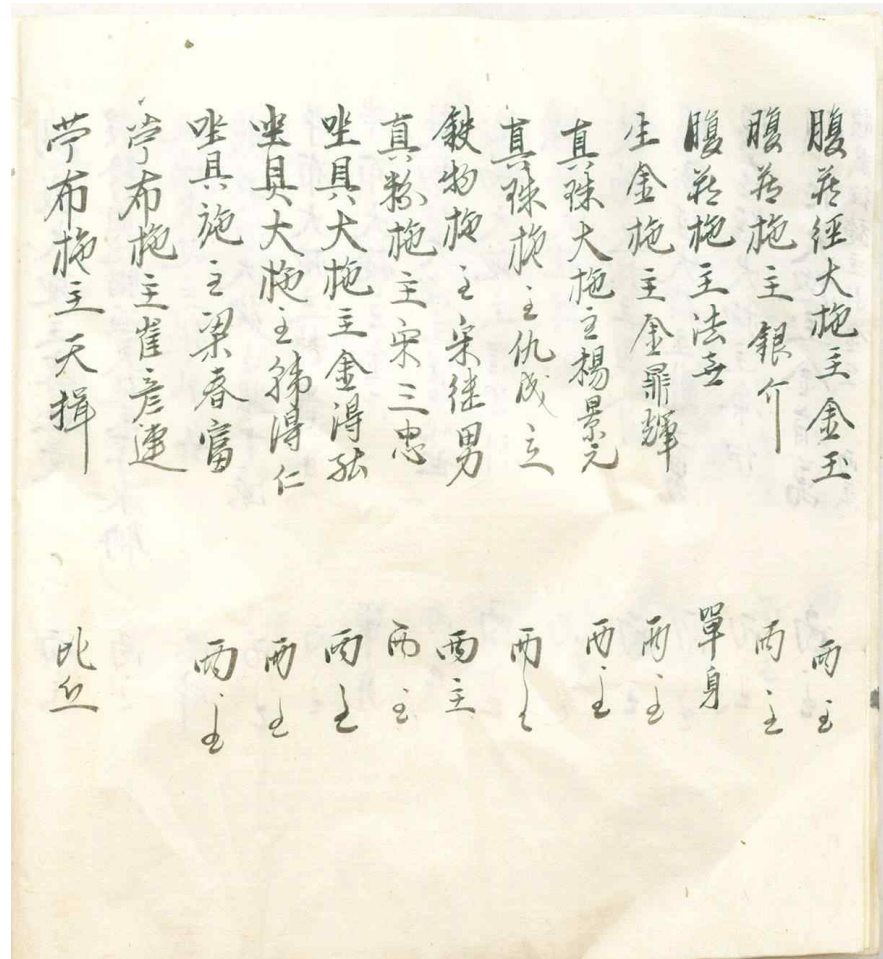
7.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6면

腹藏大施主 李國文	腹藏大施主 李吐文	兩主	腹藏大施主 李吐文
喉鈴箇龍腦兼大施主 李承聘	喉鈴箇龍腦兼大施主 李承聘	兩主	喉鈴箇龍腦兼大施主 李承聘
琉璃大施主 張氣岳	琉璃大施主 張氣岳	保体	琉璃大施主 張氣岳
腹藏經大施主 張千億	腹藏經大施主 張千億	兩主	腹藏經大施主 張千億
苧布大施主 都貴男	苧布大施主 都貴男	兩主	苧布大施主 都貴男
苧布大施主 金氏	苧布大施主 金氏	單身	苧布大施主 金氏
鐵物施大施主 崔忞世	鐵物施大施主 崔忞世	兩主	鐵物施大施主 崔忞世
鐵物大施主 崔貴朴	鐵物大施主 崔貴朴	兩主	鐵物大施主 崔貴朴
鐵物大施主 吳金	鐵物大施主 吳金	兩主	鐵物大施主 吳金
鐵物大施主 莫介	鐵物大施主 莫介	兩主	鐵物大施主 莫介
腹藏經大施主 鄭二男	腹藏經大施主 鄭二男	兩主	腹藏經大施主 鄭二男
腹藏經大施主 命伊	腹藏經大施主 命伊	兩主	腹藏經大施主 命伊
腹藏大施主 金有萬	腹藏大施主 金有萬	兩主	腹藏大施主 金有萬
腹藏經施主 朴金全	腹藏經施主 朴金全	兩主	腹藏經施主 朴金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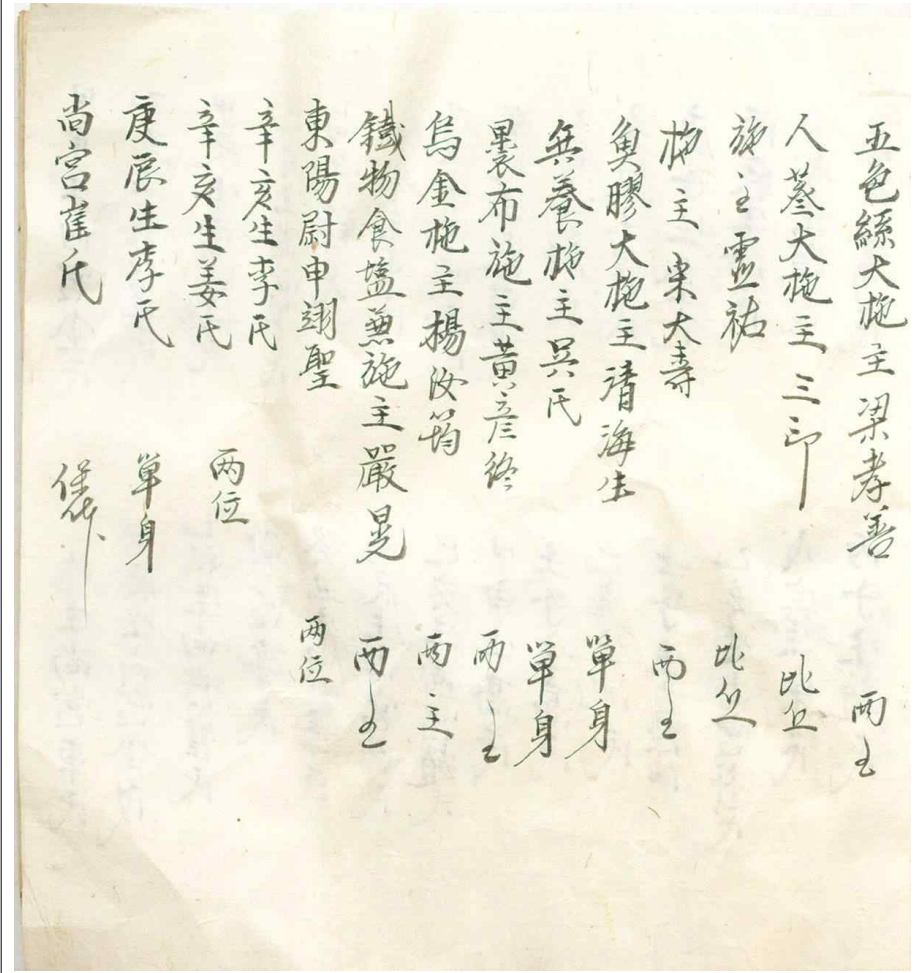


8.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7면

腹藏經大施主 金玉 兩主  
 腹藏施主 銀介 兩主  
 腹藏施主 法世 單身  
 生金施主 金鼎輝 兩主  
 眞珠大施主 楊景元 兩主  
 眞珠施主 仇成立 兩主  
 鉄物施主 宋繼男 兩主  
 眞粉施主 宋三忠 兩主  
 坐具大施主 金得弘 兩主  
 坐具大施主 韓得仁 兩主  
 坐具施主 梁春富 兩主  
 苧布施主 崔彦連  
 苧布施主 天揖 比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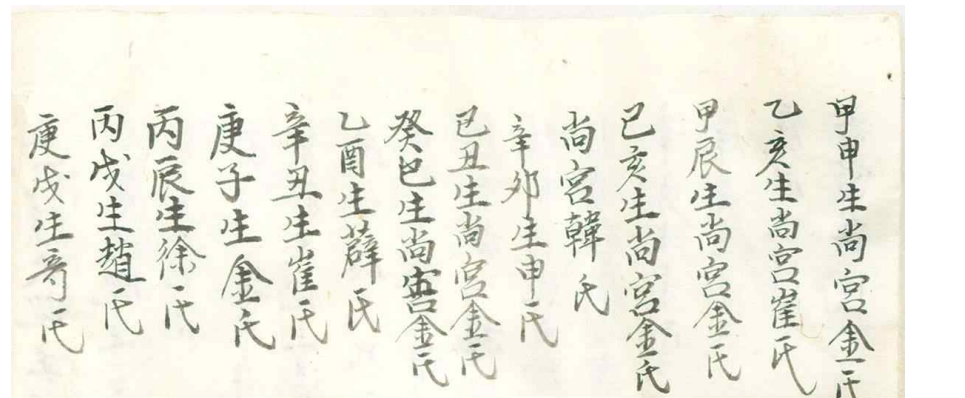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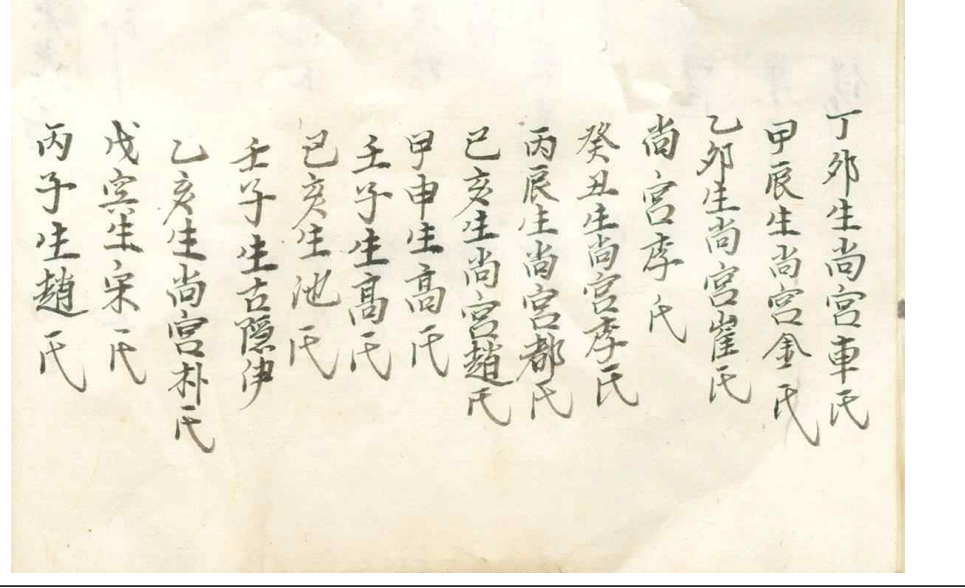


9.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8면



五色絲大施主 梁孝善 兩主  
 人蔘大施主 三印 比丘  
 施主 靈祐 比丘  
 施主 宋大壽 兩主  
 魚膠大施主 清海生 單身  
 供養施主 吳氏 單身  
 裹布施主 黃彥終 兩主  
 烏金施主 楊汝筠 兩主  
 鐵物食塩兼施主 嚴晃 兩主  
 東陽尉 申翊聖 兩位  
 辛亥生 李氏  
 辛亥生 姜氏 兩位  
 庚辰生 李氏 單身  
 尙宮崔氏 保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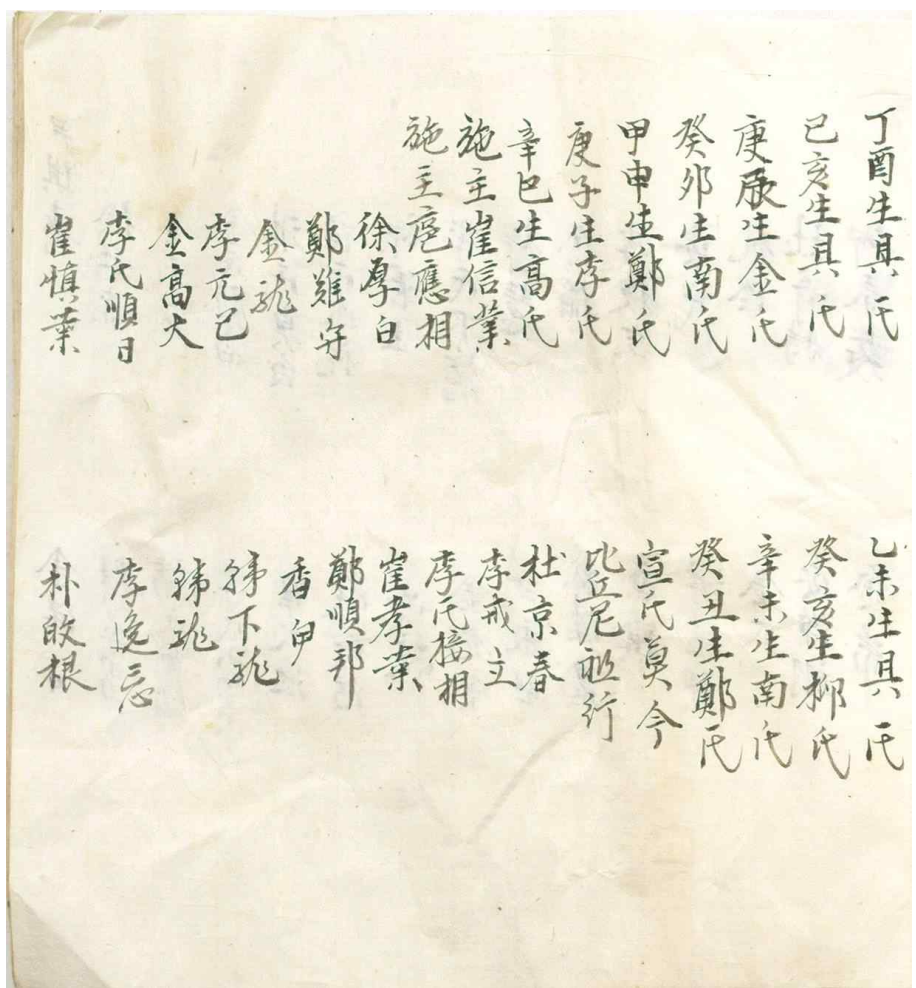
10.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9면

<p>甲申生尙宮金氏 乙亥生尙宮崔氏 甲辰生尙宮金氏 己亥生尙宮金氏 尙宮韓氏 辛卯生申氏 己丑生尙宮金氏 癸巳生尙宮金氏 乙酉生薛氏 辛丑生崔氏 庚子生金氏 丙辰生徐氏 丙戌生趙氏 庚戌生奇氏</p>	 <p>甲申生尙宮金氏 乙亥生尙宮崔氏 甲辰生尙宮金氏 己亥生尙宮金氏 尙宮韓氏 辛卯生申氏 己丑生尙宮金氏 癸巳生尙宮金氏 乙酉生薛氏 辛丑生崔氏 庚子生金氏 丙辰生徐氏 丙戌生趙氏 庚戌生奇氏</p>
<p>丁卯生尙宮車氏 甲辰生尙宮金氏 乙卯生尙宮崔氏 尙宮李氏 癸丑生尙宮李氏 丙辰生尙宮都氏 己亥生尙宮趙氏 甲申生高氏 壬子生高氏 己亥生池氏 壬子生古隱伊 乙亥生尙宮朴氏 戊辰生宋氏 丙子生趙氏</p>	 <p>丁卯生尙宮車氏 甲辰生尙宮金氏 乙卯生尙宮崔氏 尙宮李氏 癸丑生尙宮李氏 丙辰生尙宮都氏 己亥生尙宮趙氏 甲申生高氏 壬子生高氏 己亥生池氏 壬子生古隱伊 乙亥生尙宮朴氏 戊辰生宋氏 丙子生趙氏</p>

11.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10면

丁酉生具氏  
己亥生具氏  
庚辰生金氏  
癸卯生南氏  
甲申生鄭氏  
庚子生李氏  
辛巳生高氏  
施主崔信業  
施主扈應相  
徐厚白  
鄭難守  
金龍  
李元己  
金高大  
李氏順日  
崔愼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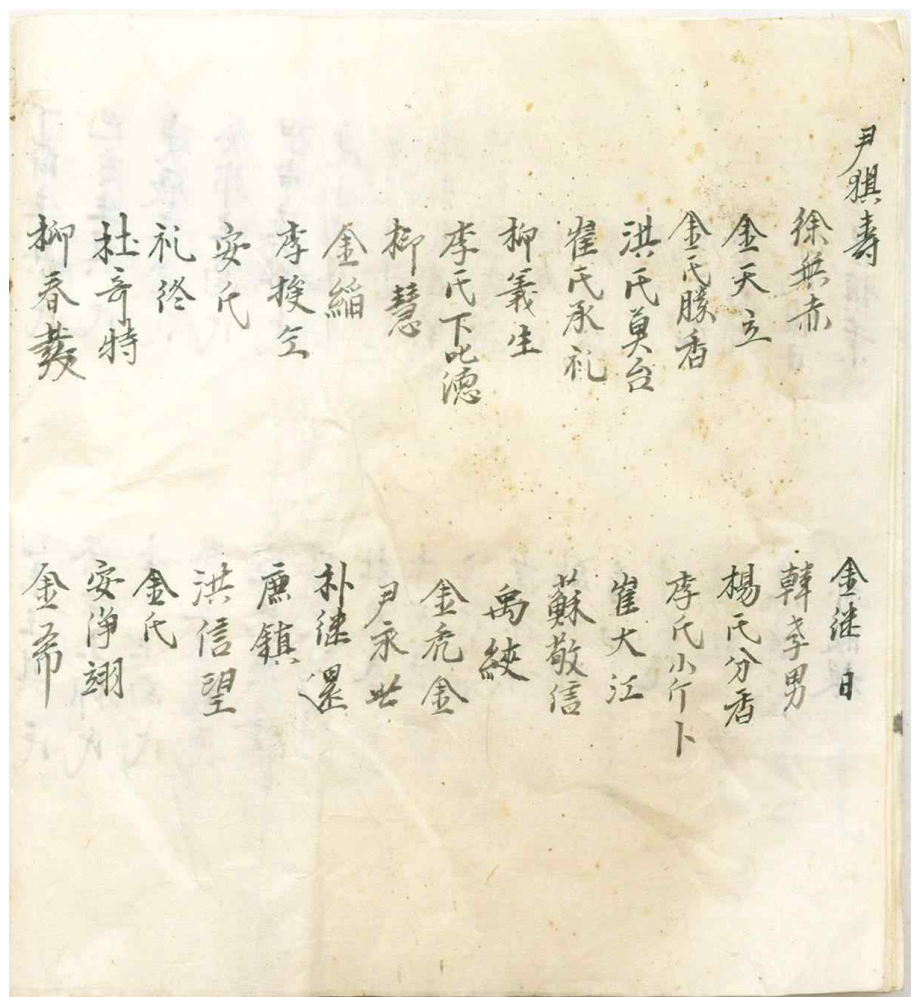
乙未生具氏  
癸亥生柳氏  
辛未生南氏  
癸丑生鄭氏  
宣氏莫今  
比丘尼祖行  
杜京春  
李戒立  
李氏接相  
崔孝業  
鄭順邦  
香伊  
韓下龍  
韓龍  
李逸恩  
朴畝根



12.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11면

尹旗壽  
徐無赤  
金天立  
金氏勝香  
洪氏莫台  
崔氏承礼  
柳義生  
李氏下叱德  
柳慧  
金緇  
李挨全  
安氏  
礼終  
杜奇特  
柳春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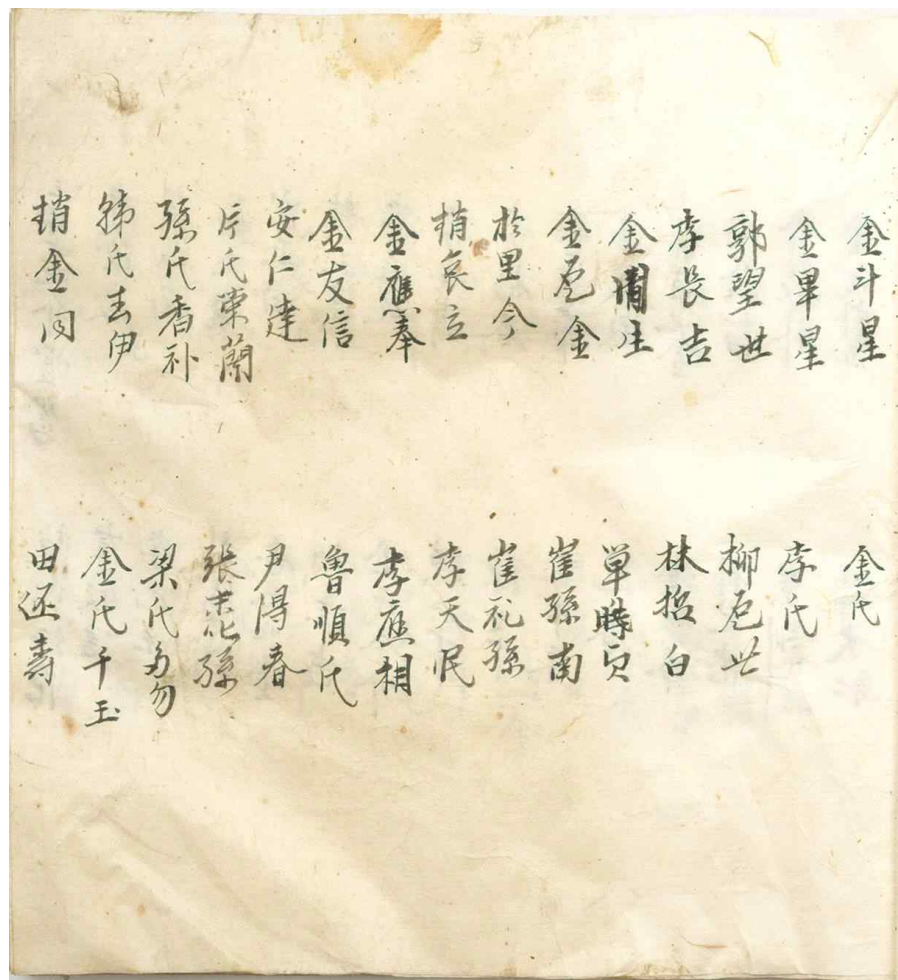
金繼日  
韓孝男  
楊氏分香  
李氏小斤卜  
崔大江  
蘇敬信  
禹紱  
金禿金  
尹永芸  
朴繼還  
廉鎮  
洪信望  
金氏  
安淨翊  
金希



13.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12면

金斗星  
金畢星  
郭望世  
李長吉  
金閒生  
金芻金  
於里今  
趙哀立  
金應奉  
金友信  
安仁達  
片氏榮蘭  
孫氏香朴  
孫氏去伊  
趙金同

金氏  
李氏  
柳芻興  
林哲白  
單時賢  
崔孫南  
崔礼孫  
李天民  
李應相  
魯順代  
尹得春  
張恣孫  
梁氏多勿  
金氏千玉  
田还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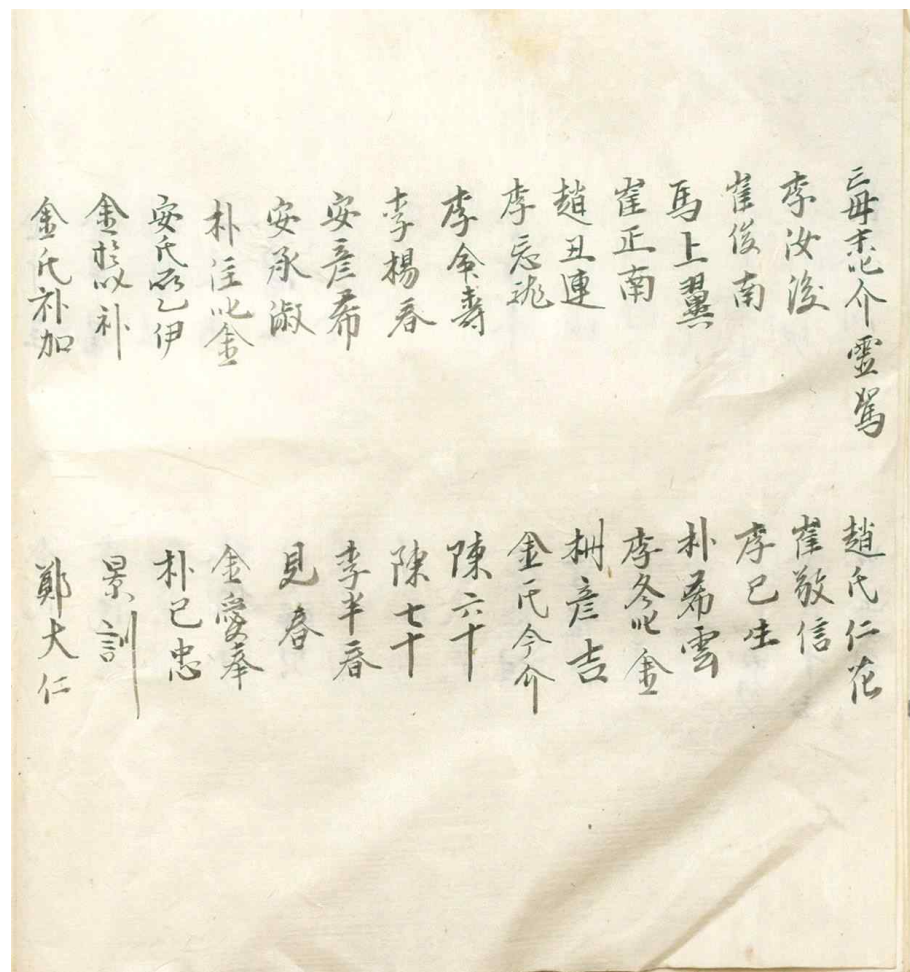




14.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1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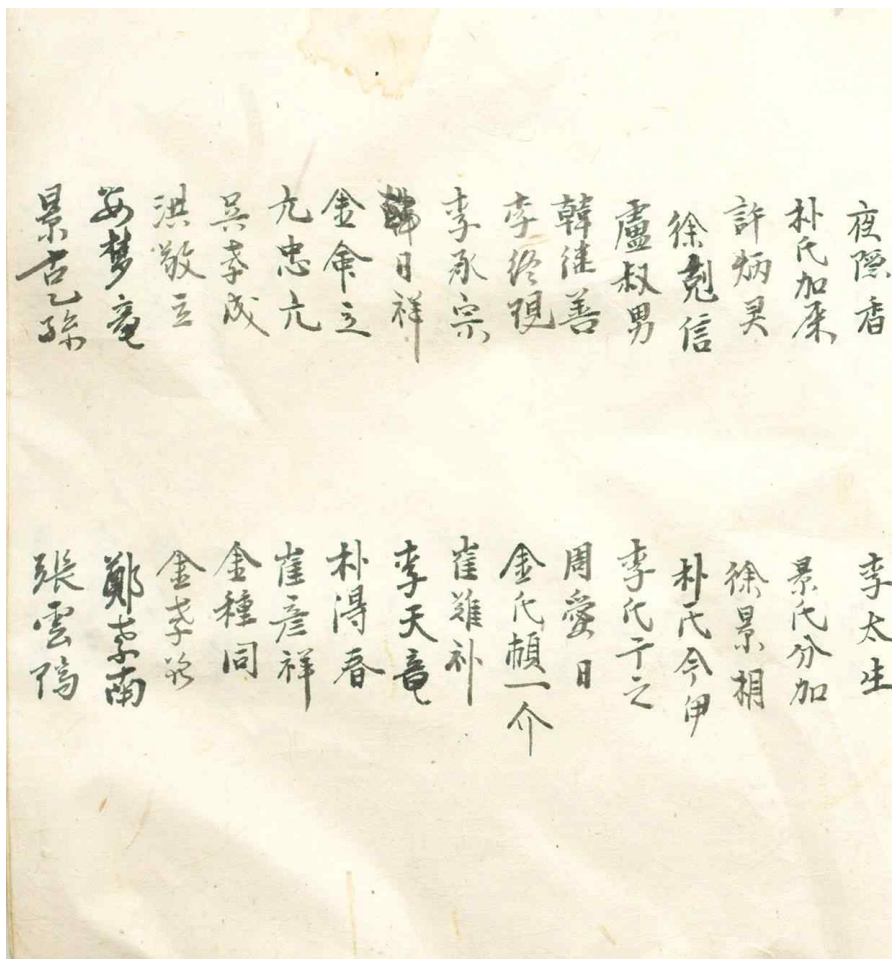
亡母 孟介靈駕  
 李汝浚  
 崔俊南  
 馬上翼  
 崔正南  
 趙丑連  
 李忘龍  
 李命壽  
 李楊春  
 安彦希  
 安承淑  
 朴誌金  
 安氏 亥伊  
 金齡 补  
 金氏 补加

趙氏 仁花  
 崔敬信  
 李己生  
 朴希雲  
 李冬叱金  
 權彦吉  
 金氏 今介  
 陳六十  
 陳七十  
 李半春  
 見春  
 金愛奉  
 朴己忠  
 景訓  
 鄭大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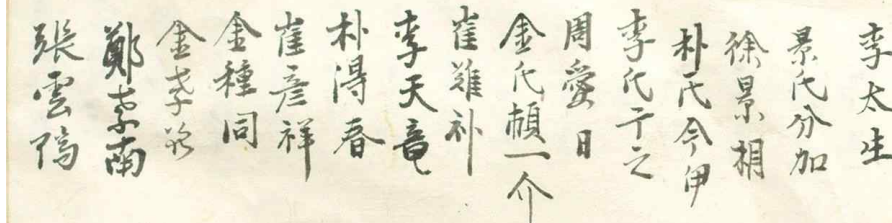


15.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14면

夜隱香  
 朴氏加屎  
 許炳灵  
 徐剋信  
 盧叔男  
 韓繼善  
 李終現  
 李承宗  
 韓日祥  
 金命立  
 元忠元  
 吳孝成  
 洪敬立  
 安夢竜  
 景壹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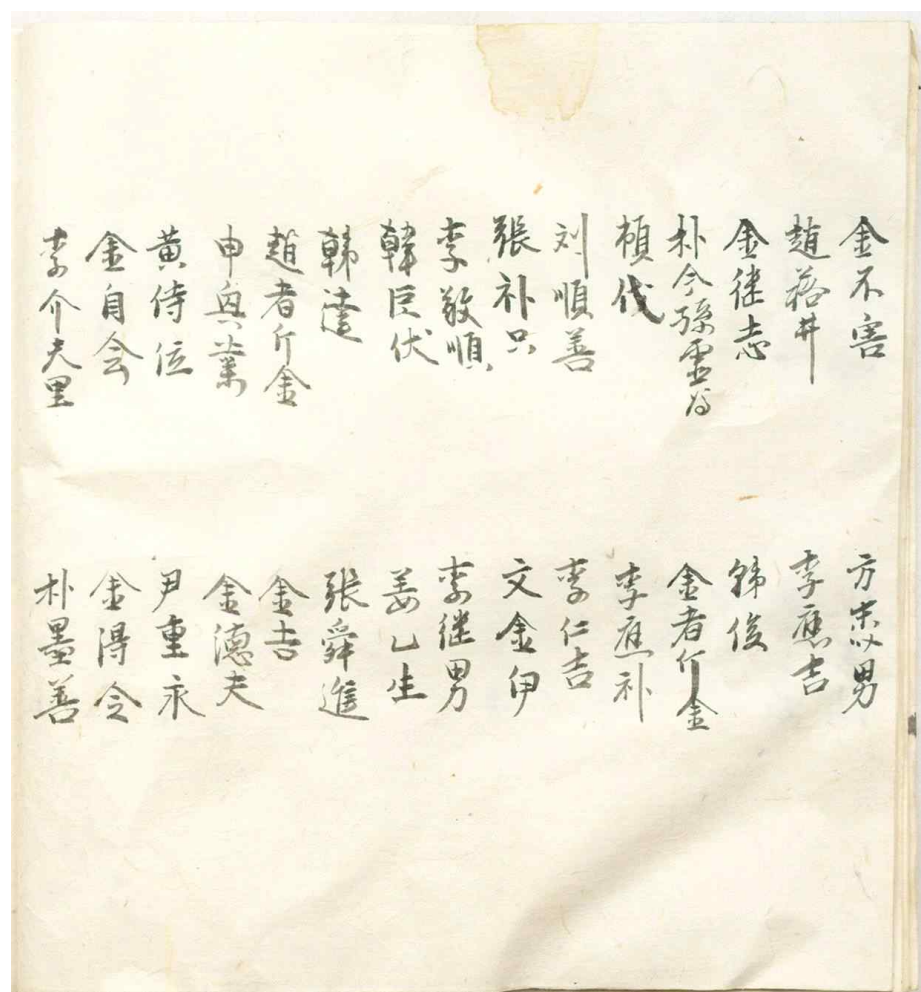
李太生  
 景氏分加  
 徐景相  
 朴氏今伊  
 李氏丁之  
 周愛日  
 金氏賴一介  
 崔難朴  
 李天竜  
 朴得春  
 崔彦祥  
 金種同  
 金孝花  
 鄭孝南  
 張雲陽



16.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15면

金不害  
趙落井  
金繼志  
朴今孫 靈爲  
賴代  
刘順善  
張朴只  
李敬順  
韓巨伏  
韓達  
趙者斤金  
申興業  
黃侍位  
金自会  
李介夫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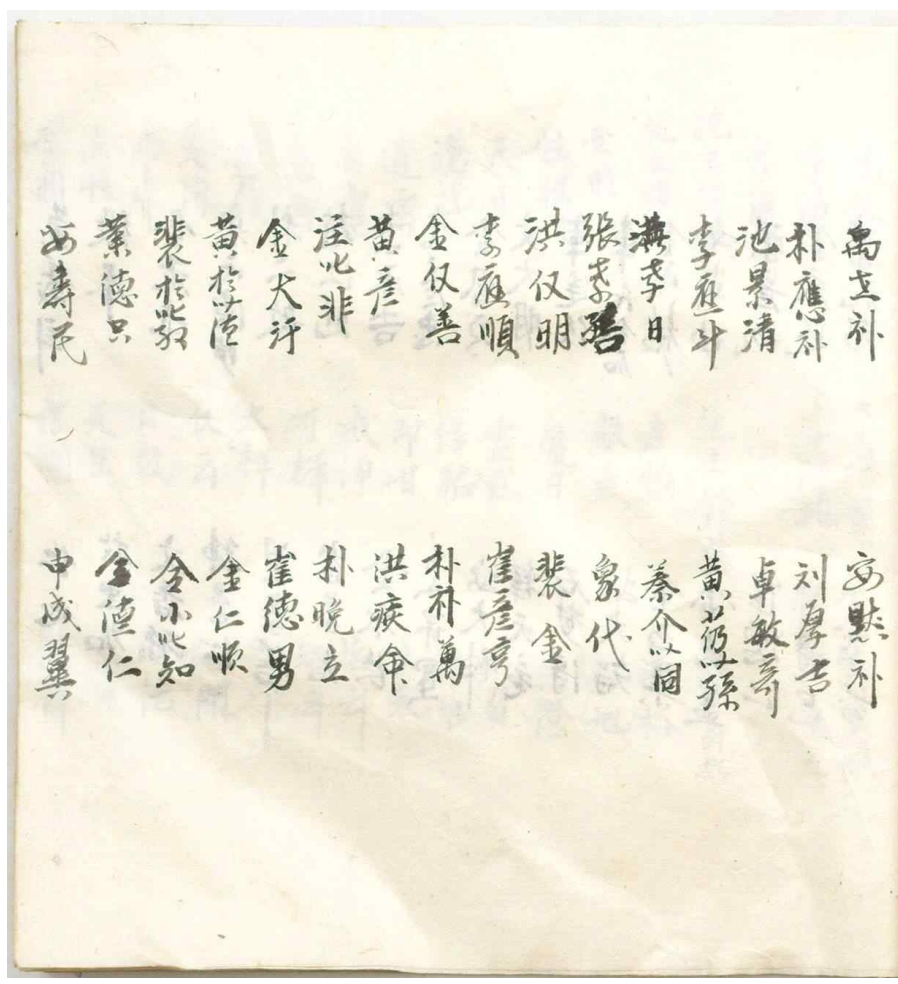
方恠男  
李應吉  
韓俊  
金者斤金  
李應祢  
李仁吉  
文金伊  
李繼男  
姜乙生  
張舜進  
金吉  
金德夫  
尹重永  
金得令  
朴墨善



17.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1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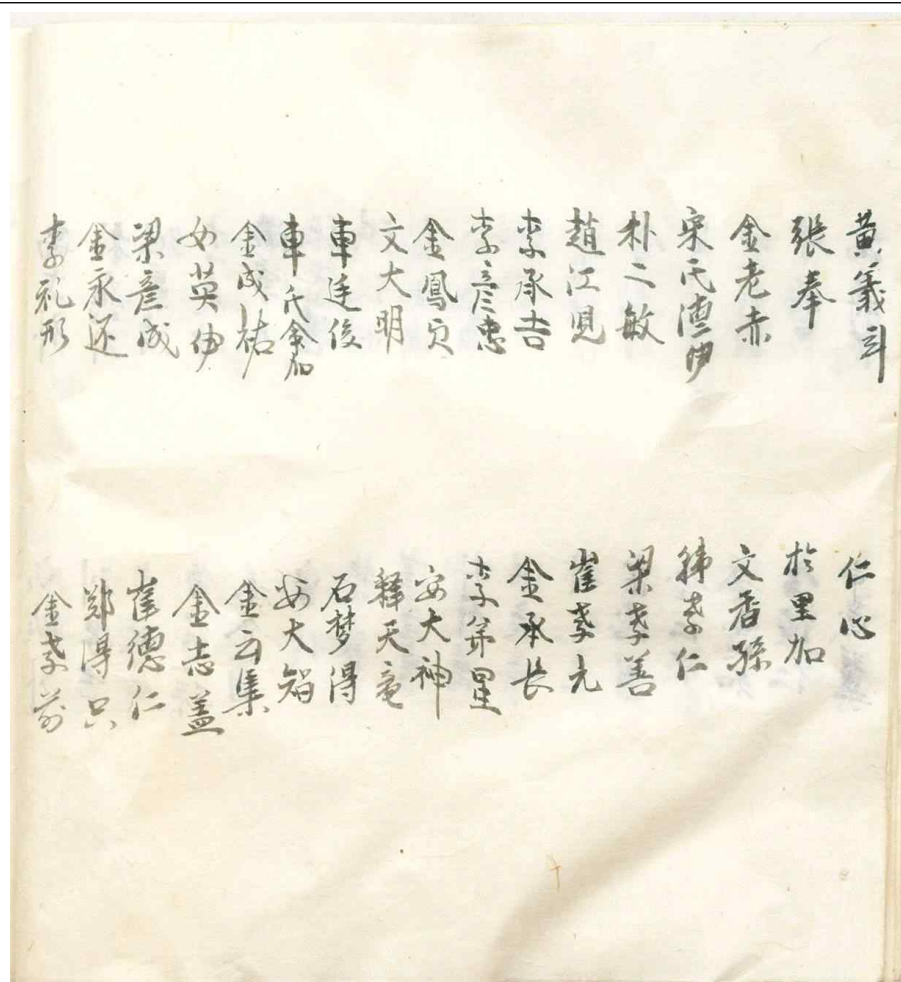
禹安祚 朴應祚 池景淸 李應斗 洪孝日 張孝吉 洪儀明 李應順 金儀善 黃彥 誌非 金大汗 黃齡德 裴齡孫 業德只 安壽民

安默祚 劉厚吉 卓敏奇 黃仍叱孫 秦龕同 象代 裴金 崔彥亨 朴祚萬 洪疾命 朴晚立 崔德男 金仁順 金齡知 金德仁 申成翼



18.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17면

黃義斗  
張奉  
金老赤  
宋氏德伊  
朴二敏  
趙江見  
李承吉  
李彦忠  
金鳳員  
文大明  
車廷俊  
車氏命加  
金成祐  
女英伊  
梁彦成  
金永还  
李礼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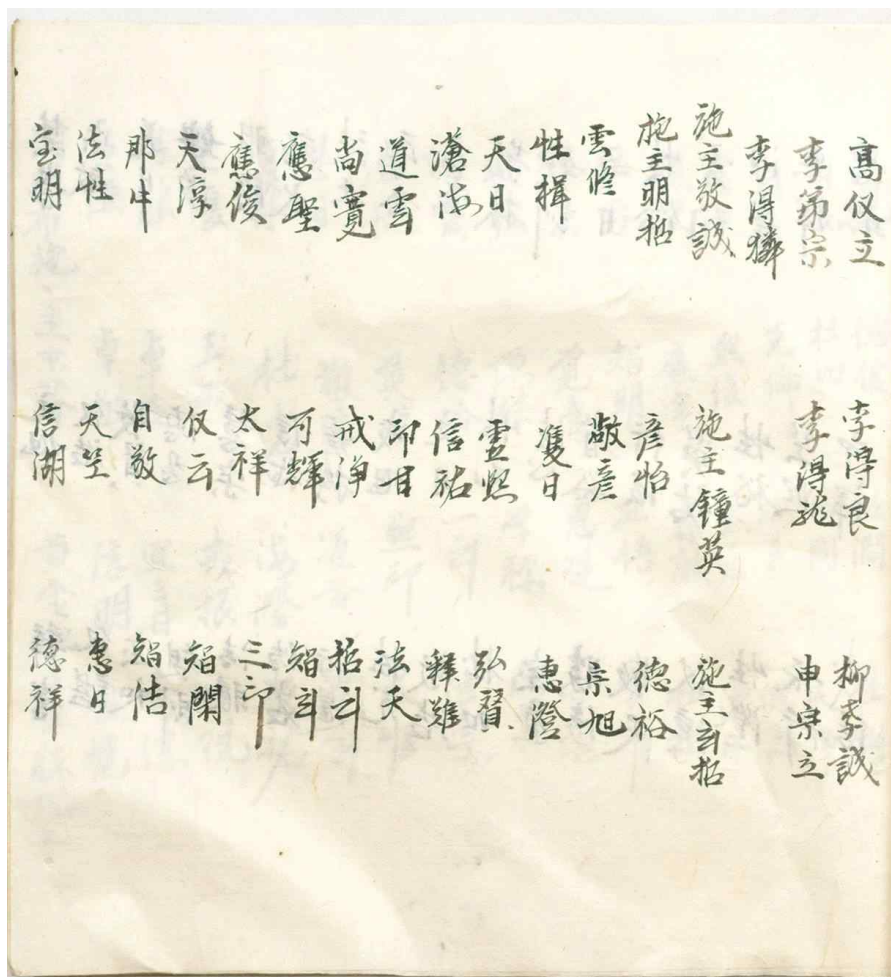
仁心  
於里加  
文香孫  
佛孝仁  
梁孝善  
崔孝元  
李弟星  
安大神  
釋天竜  
石梦得  
安大智  
金云集  
金志益  
崔德仁  
鄭得只  
金孝萬

19.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18면

高仅立 李第宗 李得麟  
 施主 敬誠 施主 明哲  
 雲修 性楫 天日 滄安  
 道雲 尚寬 應聖 應俊  
 天淳 那牛 法性 宝明

李得良 李得龍  
 施主 鐘英 彦怡 敬彦  
 濩日 靈熙 信祐 印甘  
 戒淨 可輝 太祥 仅云  
 自敬 天竺 信湖

柳孝誠 申宗立  
 施主 玄哲 德裕 宗旭  
 惠澄 弘贊 釋難 法天  
 哲玄 智玄 三印 智閑  
 智浩 惠日 德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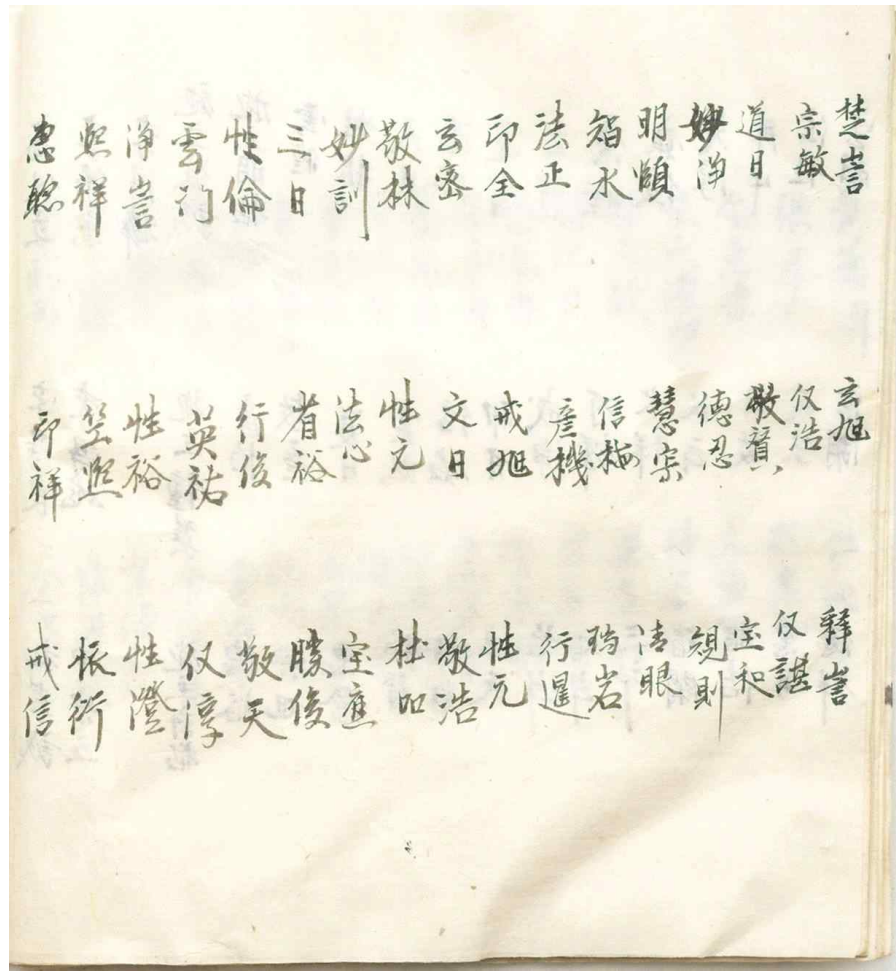


20.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19면

惠熙淨雲性三妙敬玄印法智明妙道宗楚  
聰祥嘗行倫日訓林密全正水頤淨日敏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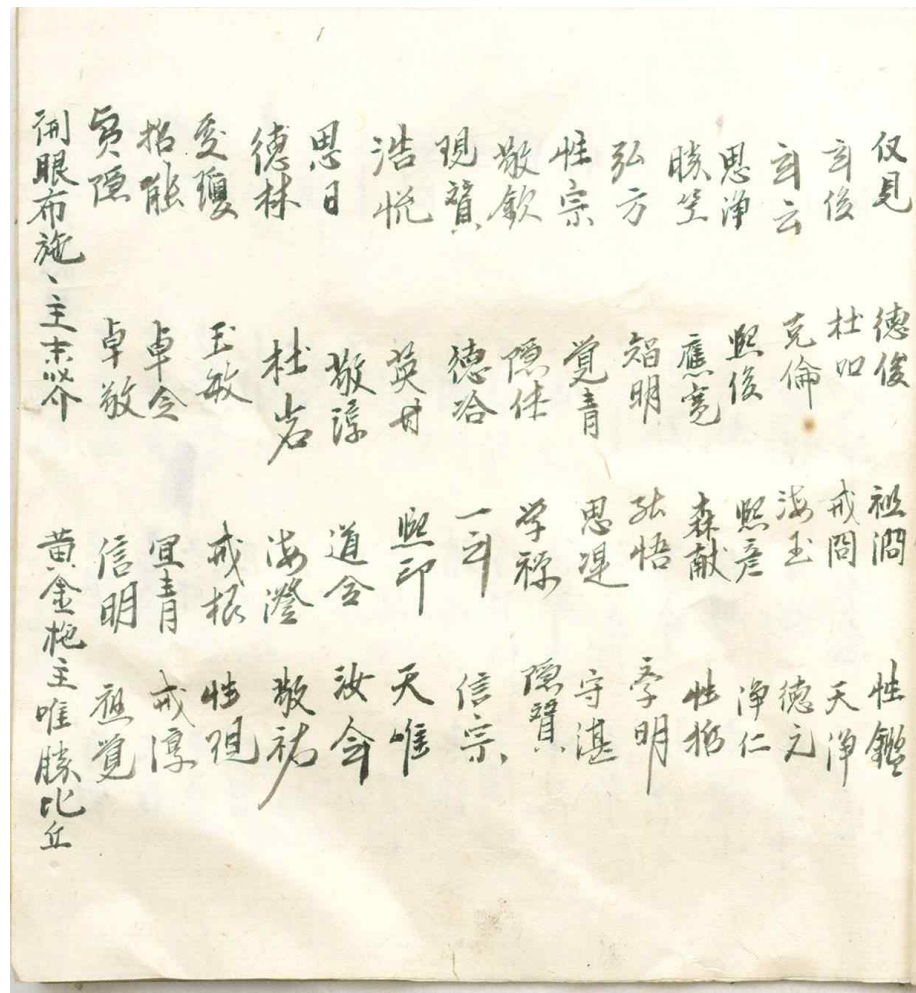
印竺性英行省法性文戒彥信慧德敬仅玄  
祥熙裕祐俊裕心元日旭機梅宗忍贊浩旭

戒依性仅敬勝宝杜敬性行瑞法規則宝仅釋  
信衍澄淳天俊應叩浩元暹岩眼則和諶嘗



21.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20면

開眼布施主	賢隱	哲能	愛瓊	德林	思日	浩悅	現贊	敬欽	性宗	弘方	勝竺	思淨	玄云	玄俊	仅見
主															
忞介	卓敬	卓令	玉敏	杜岩	敬淳	英甘	德洽	隱休	覺青	智明	應寬	熙俊	克倫	杜叩	德俊
黃金施主	信明	宜青	戒根	海澄	道令	熙印	一玄	學禪	思湜	弘悟	森猷	熙彥	海玉	戒罔	祖澗
唯勝比丘															
	祖寬	戒淳	性現	敬祐	汝會	天雄	信宗	隱贊	守湛	孝明	性哲	淨仁	德元	天淨	性鑑





22.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2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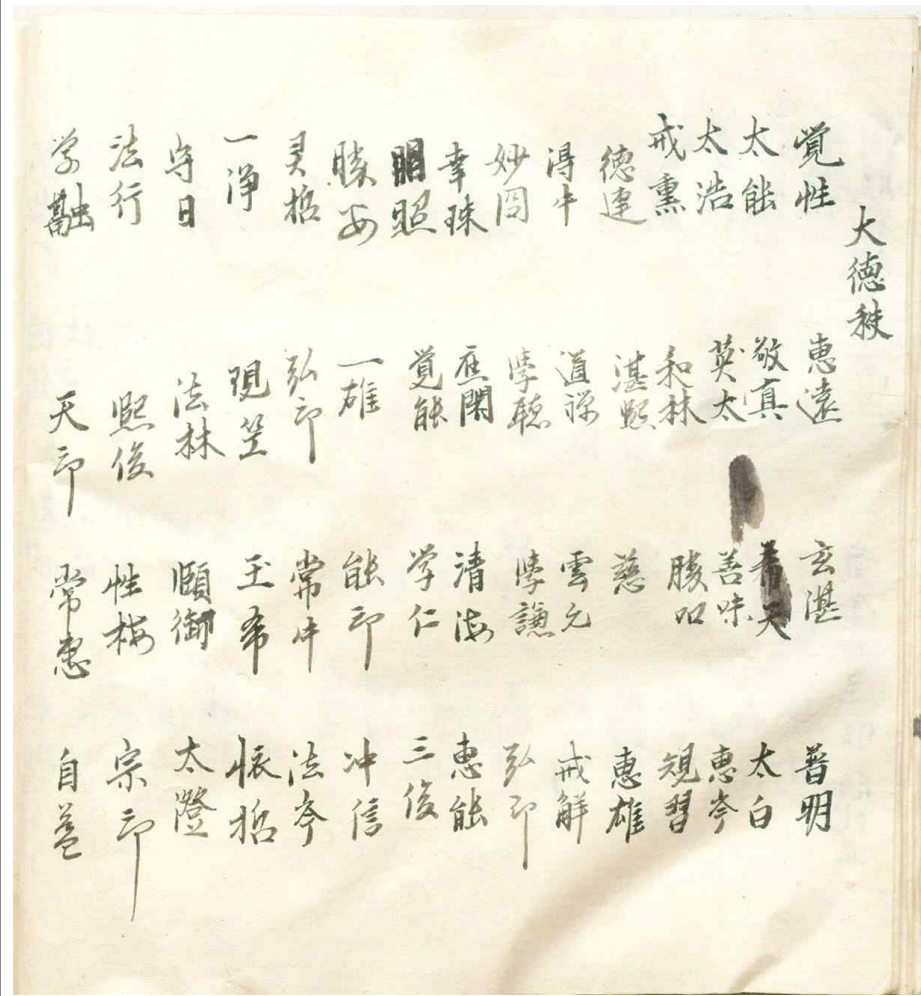
覺性 太能 太浩 戒熏 德連 得牛 妙罔 幸珠 明照 勝安 靈哲 一淨 守日 法行 學融

大德秩

惠遠 敬眞 英太 和林 湛熙 道禪 學聽 應閑 覺能 一雄 弘印 現竺 法林 熙俊 天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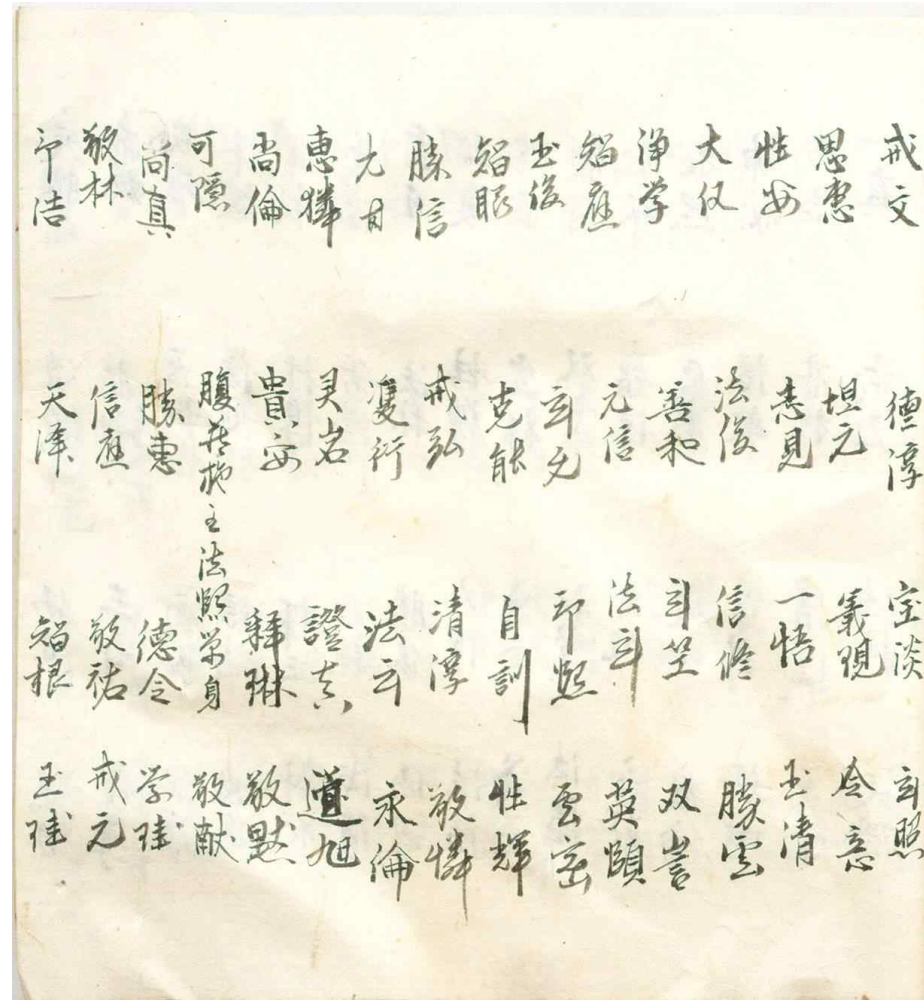
玄湛 希天 善味 勝叩 慈允 雲謙 學謙 清海 學仁 能印 常牛 玉希 頤御 性梅 常惠

普明 太白 惠尙 規習 惠峯 戒解 弘印 惠能 三俊 沖信 法岑 依哲 太澄 宗印 自蒼



23.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22면

戒文	思惠	性安	大仅	淨学	智應	玉俊	智眼	勝信	元日	惠憐	尙倫	可隱	尙眞	敬林	印浩
德淳	坦元	志見	法俊	善和	元信	玄允	克能	戒弘	雙衍	灵岩	貴安	腹藏施主	勝惠	信應	天澤
宝淡	義現	一悟	信修	玄竺	法玄	印熙	自訓	清淳	法云	證志	釋琳	單身	德令	敬祐	智根
玄照	会意	玉清	勝雲	双峯	英頤	雲密	性輝	敬憐	永倫	道旭	敬默	敬獻	学珪	戒元	玉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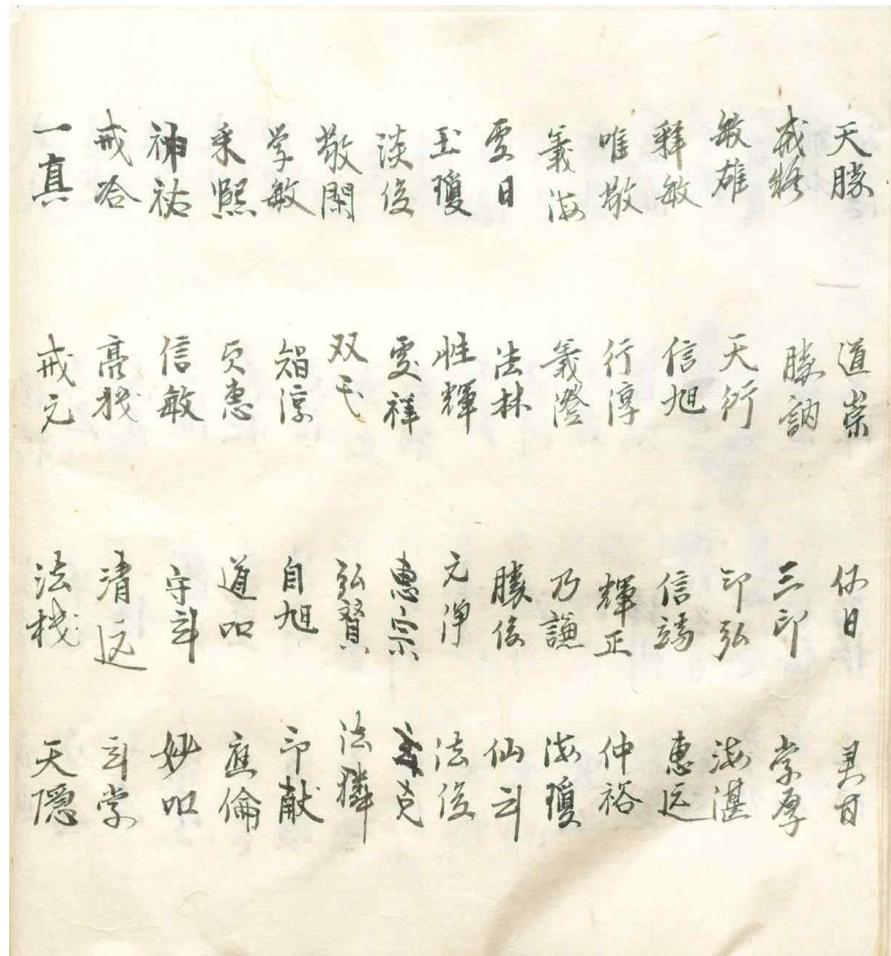
24.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23면

一 戒 神 采 学 敬 淡 玉 雲 義 唯 釋 敏 戒 天  
眞 洽 祐 熙 敏 閑 俊 瓊 日 海 敬 敏 雄 ● 勝

戒 高 信 印 智 双 雪 性 法 義 行 信 天 勝 道  
元 機 敏 惠 淳 式 祥 輝 林 澄 淳 旭 衍 訥 崇

法 清 守 道 自 弘 惠 文 勝 乃 輝 信 印 三 仅  
機 远 玄 叩 旭 贊 宗 淨 俊 謙 正 端 弘 印 日

天 玄 妙 應 印 法 玄 法 仙 海 仲 惠 海 学 灵  
隱 学 叩 倫 献 憐 克 俊 玄 瓊 裕 远 湛 厚 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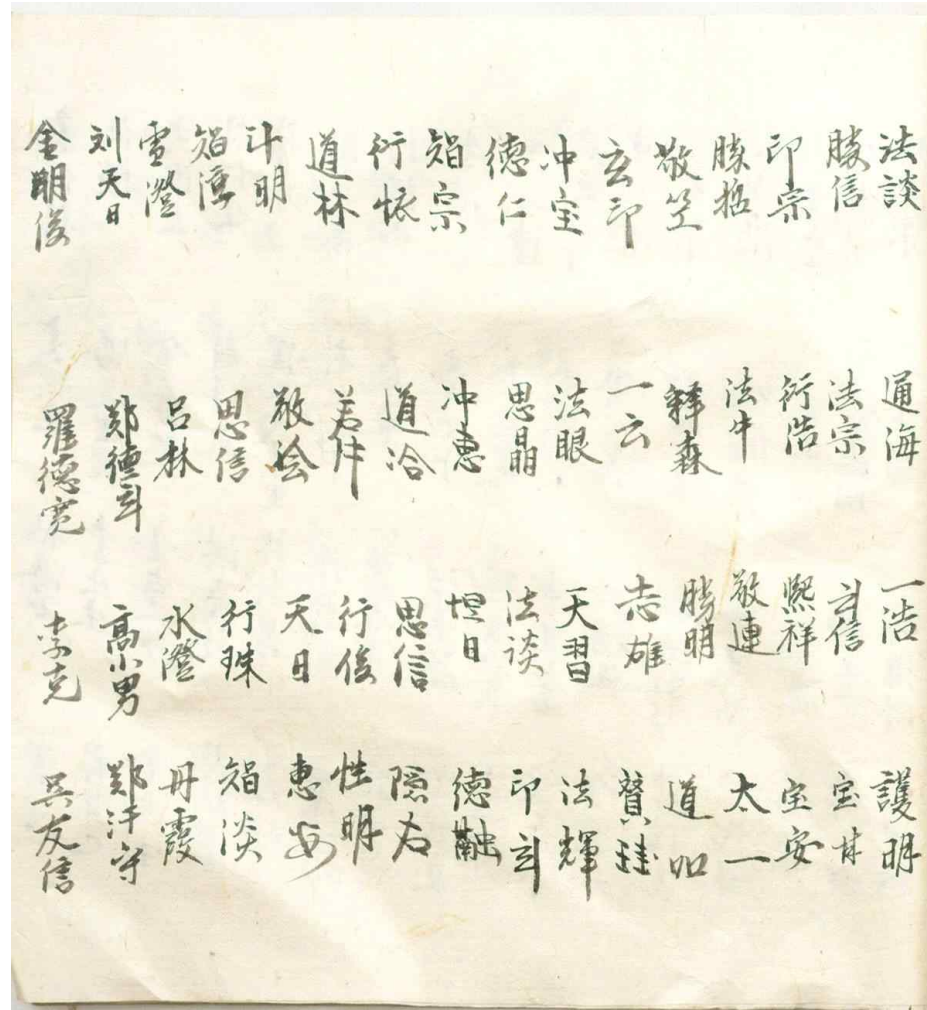
25.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24면

法談 勝信 印宗 勝哲 敬竺 玄印 冲宝 德仁 智宗 衍依 道林 斗明 智淳 雪澄 刘天日 金明俊

通海 法宗 衍浩 法牛 釋森 一云 法眼 思晶 冲惠 道洽 若牛 敬会 思信 吕林 鄭德玄 羅德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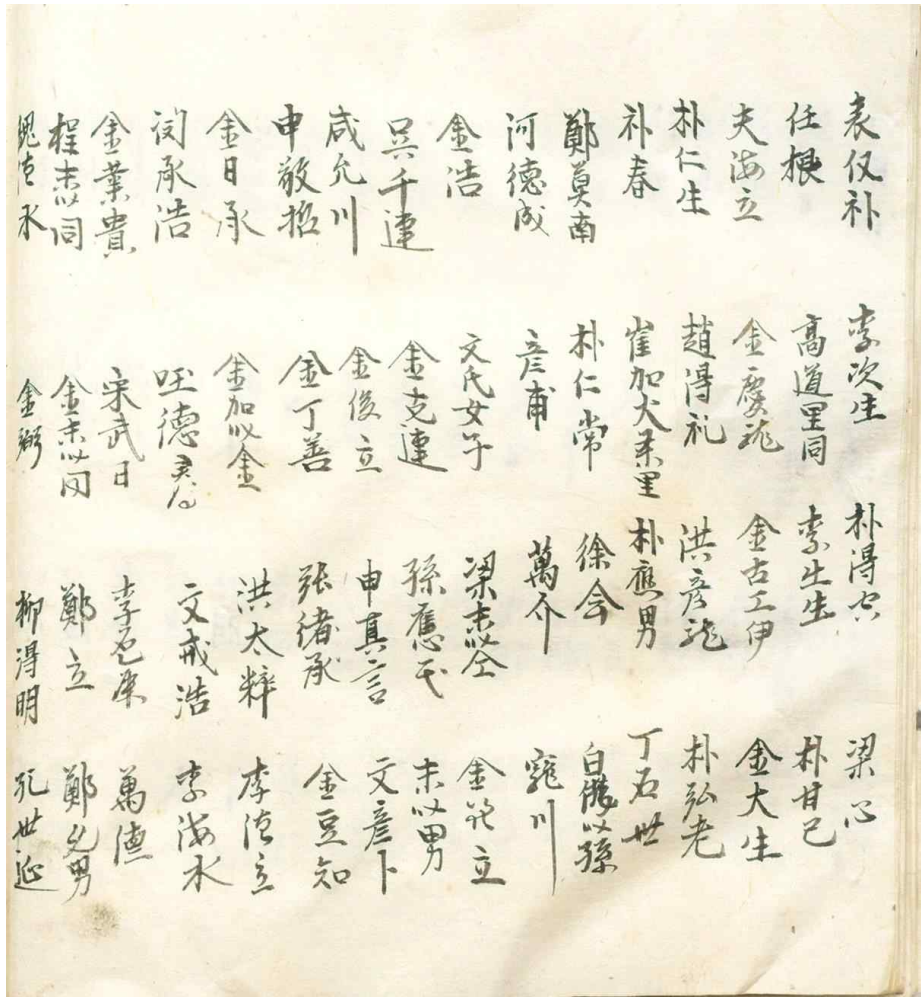
一浩 玄信 熙祥 敬連 勝明 志雄 天習 法淡 坦日 思信 行俊 天日 行珠 水澄 高小男 李克

護明 宝甘 宝安 太一 道叩 贊珪 法輝 印玄 德融 隱右 性明 惠安 智淡 丹霞 鄭汗守 吳友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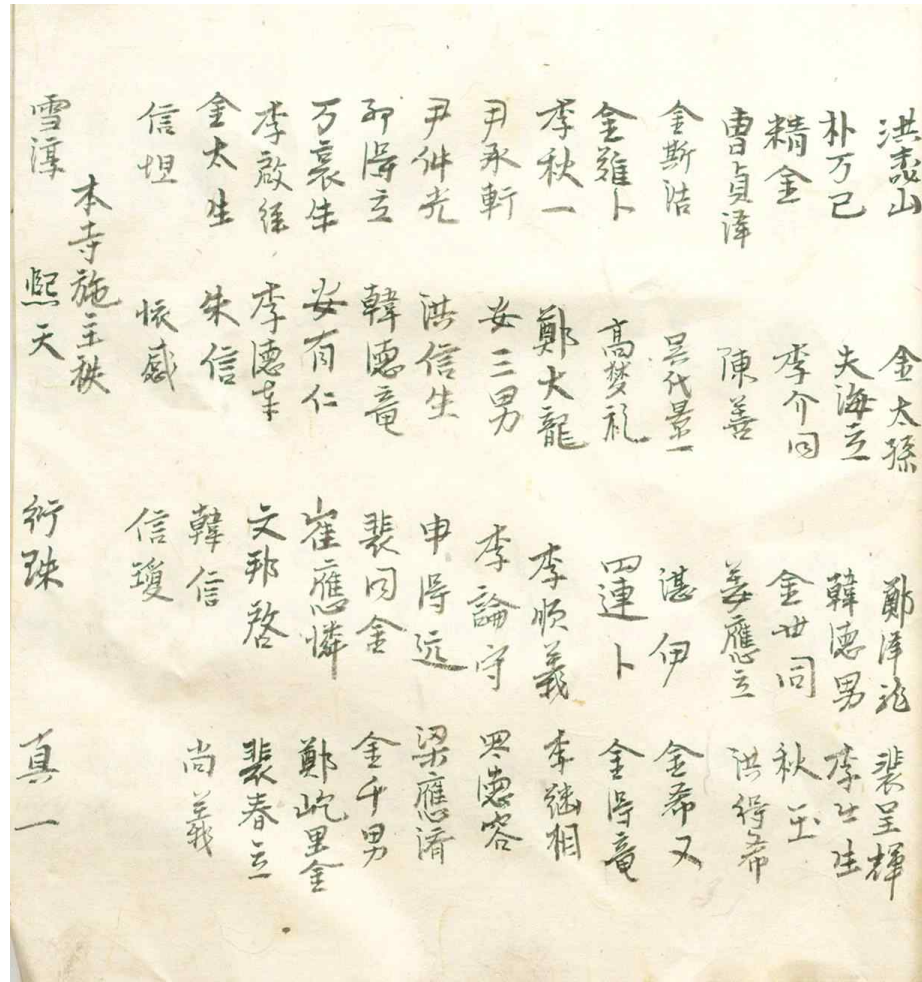
26.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25면

梁德水	程忞同	金業貴	閔承浩	金日承	申敬哲	咸允川	吳千連	金浩	河德成	鄭莫南	朴春	朴仁生	夫海立	任根	表仅补
金弼	金忞同	宋武日	國德灵駕	金韶金	金丁善	金俊立	金支連	文氏女子	彦甫	朴仁常	崔加大泉	趙得礼	金慶龍	高道里同	李次生
柳得明	鄭立	李互屎	文戒浩	洪太粹	孫楮承	申眞言	孫應式	梁忞全	萬介	徐会	朴應男	洪彦龍	金古工伊	李土生	朴得只
孔世延	鄭允男	萬德	李海水	李德立	金豆知	文彦卜	金彦立	龍川	白仍叱孫	丁石世	朴弘老	金大生	朴甘己	梁心	



27.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26면

雪淳	信坦	金太生	李啓徑	万哀生	孫得立	尹件光	尹承軒	李秋一	金難卜	金斯浩	曹貞澤	精金	朴万己	洪恣山
熙天	依感	朱信	李德業	安有仁	韓德竜	洪信生	安三男	鄭大龍	高梦礼	吳代景一	陳善	李介同	夫海立	金太孫
衍珠	信瓊	韓信	文邦啓	崔應憐	裴同金	申得远	李論守	李順義	卍連卜	湛伊	姜應立	金世同	韓德男	鄭澤龍
眞一	尙義	裴春立	鄭屹里金	金千男	梁應濟	羅德容	李繼相	金得竜	金希又	洪得希	秋玉	李壬生	裴呈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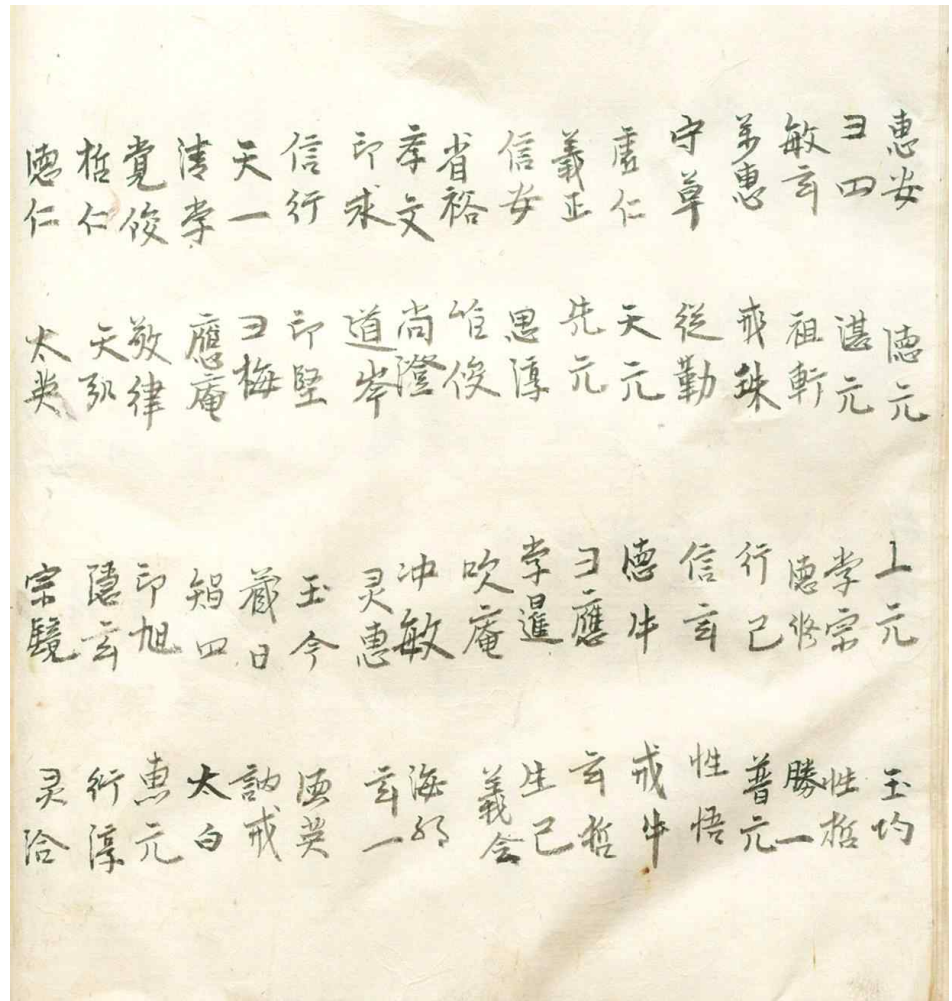
28.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27면

德仁 哲仁 覺俊 法學 天一 信行 印永 孝文 省裕 信安 義正 虛仁 守草 萬惠 敏玄 雪叩 惠安

太英 天弘 敬律 應庵 雪梅 印堅 道岑 尙澄 唯俊 思淳 先元 天元 從勒 戒珠 祖軒 湛元 德元

宗鏡 隱玄 印旭 智叩 藏日 玉今 靈惠 冲敏 吹庵 學遲 雪應 德牛 信玄 行己 德修 學宗 一元

靈洽 衍淳 惠元 太白 訥戒 德英 玄一 海龍 義會 生己 玄哲 戒牛 性悟 普元 勝一 性哲 玉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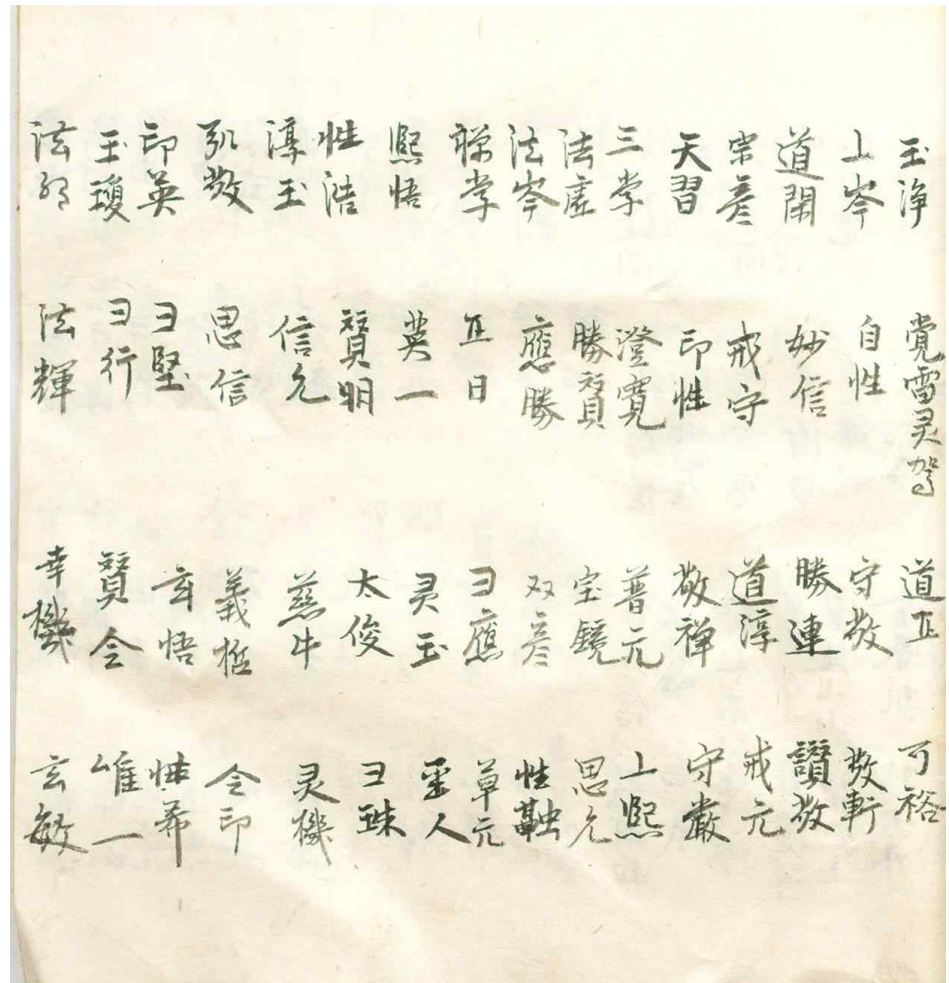
29.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28면

法龍 玉瓊 印英 弘敬 淳玉 性浩 熙悟 禪學 法岑 法虛 三學 天習 宗彥 道閑 一岑 玉淨

法輝 雪行 雪堅 思信 信允 贊明 英一 正日 應勝 勝贊 澄寬 印性 戒守 妙信 自性 覺雷靈駕

幸機 贊令 玄悟 義哲 慈牛 太俊 靈玉 雪應 双彦 宝鏡 普元 敬禪 道淳 勝連 守敬 道正

玄敏 唯一 性希 令印 靈機 雪珠 雲(?)人 草元 性融 思允 一熙 守嚴 戒元 讚敬 敬軒 可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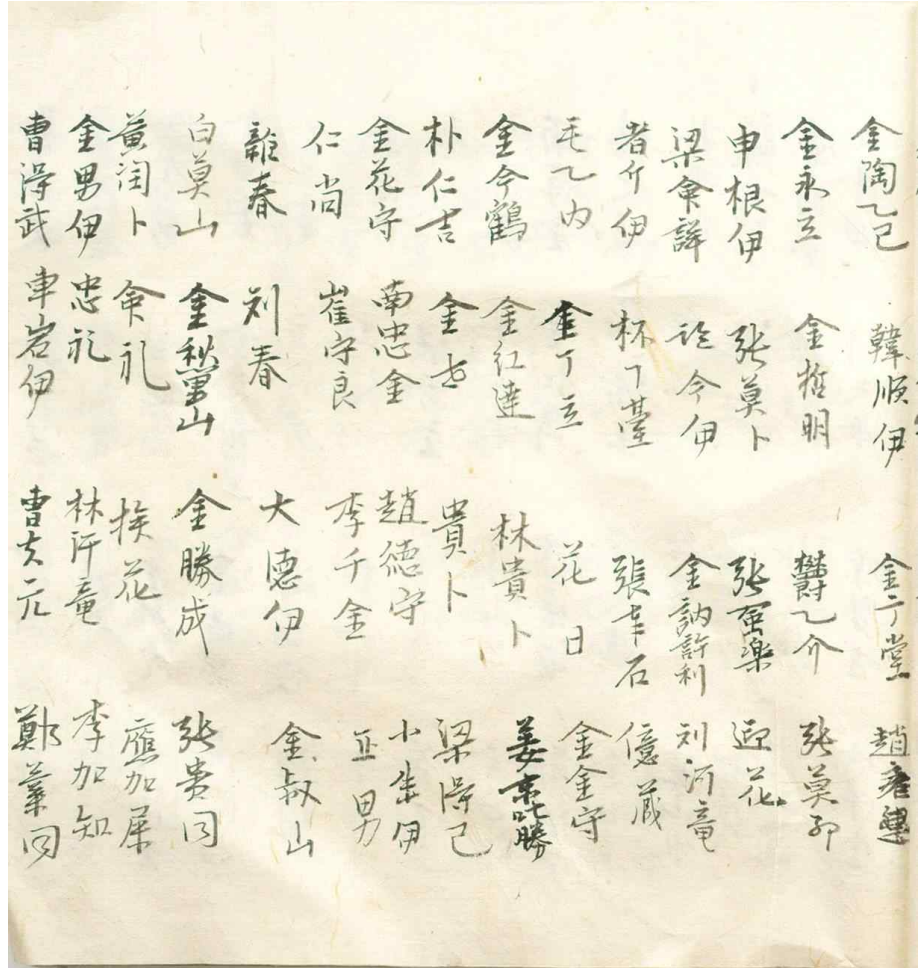
30.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29면

姜俊秀	朴德悅	秋陽	韓古音同	納終	朴種叱同	處文	法川	淳海	敬崐	宗卞	勝悅	熙式	石熏	省圭	法軒	處林
吳夏三	朴德明	金得伊	河一男	孫應住	朴德星	覺心	李宝	哲崐	丑元	灵源	香敏	玄过	信庵	雪淳	日海	戒和
金春弘	崔種叱山	善川	朴仁石	学悲	崔彦信	信宗	義尚	雲哲	印均	允全	弘彦	敬全	法淳	熙玉	坦衍	德雄
孫大承	梁仁卜	朴德輝	金正男	吳氏	鄭明知	禪玉	印祥	先輝	信英	学稔	心一	應照	坦元	印还	戒玉	

處林 戒和 日海 信庵 香敏 灵源 丑元 哲崐 李宝 覺心 朴德星 張應住 河一男 金得伊 朴德明 吳夏三  
 處林 法軒 省圭 石熏 熙式 勝悅 宗卞 敬崐 淳海 法川 秋陽 朴德悅 姜俊秀  
 德雄 坦衍 熙玉 法淳 敬全 弘彦 允全 印均 雲哲 義尚 信宗 崔彦信 学悲 朴仁石 善川 崔種叱山 金春弘  
 戒玉 印还 坦元 應照 心一 学稔 信英 先輝 印祥 禪玉 鄭明知 吳氏 金正男 朴德輝 梁仁卜 孫大承  
 德雄 坦衍 熙玉 法淳 敬全 弘彦 允全 印均 雲哲 義尚 信宗 崔彦信 学悲 朴仁石 善川 崔種叱山 金春弘  
 德雄 坦衍 熙玉 法淳 敬全 弘彦 允全 印均 雲哲 義尚 信宗 崔彦信 学悲 朴仁石 善川 崔種叱山 金春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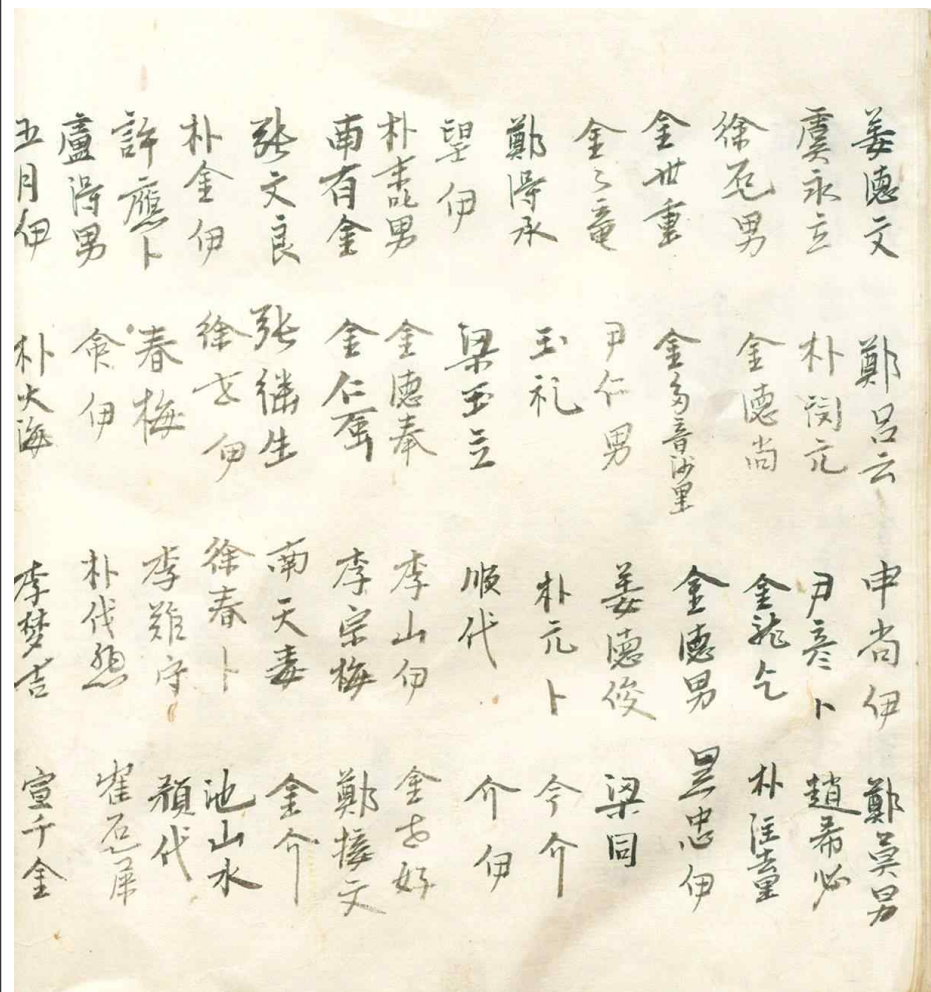
31.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30면

曹得武	金男伊	黃潤卜	白莫山	雜春	仁尙	金花守	朴仁吉	金今鶴	毛乙丙	者斤伊	梁命詳	申根伊	金永立	金陶乙己
車岩伊	忠礼	命礼	金愁里山	刘春	崔守良	南忠金	金式	金紅達	金丁立	杯丁臺	於今伊	張莫卜	金哲明	韓順伊
曹支元	林汗童	挨花	金勝成	大德伊	李千金	趙德守	貴卜	林貴卜	花日	張車石	金訥許利	張蚤樂	鬱乙介	金丁堂
鄭業同	李加知	應加屎	張貴同	金叔山	正男	小生伊	梁得己	姜忞勝	金金守	億藏	刘河竜	迎花	張莫龍	趙彦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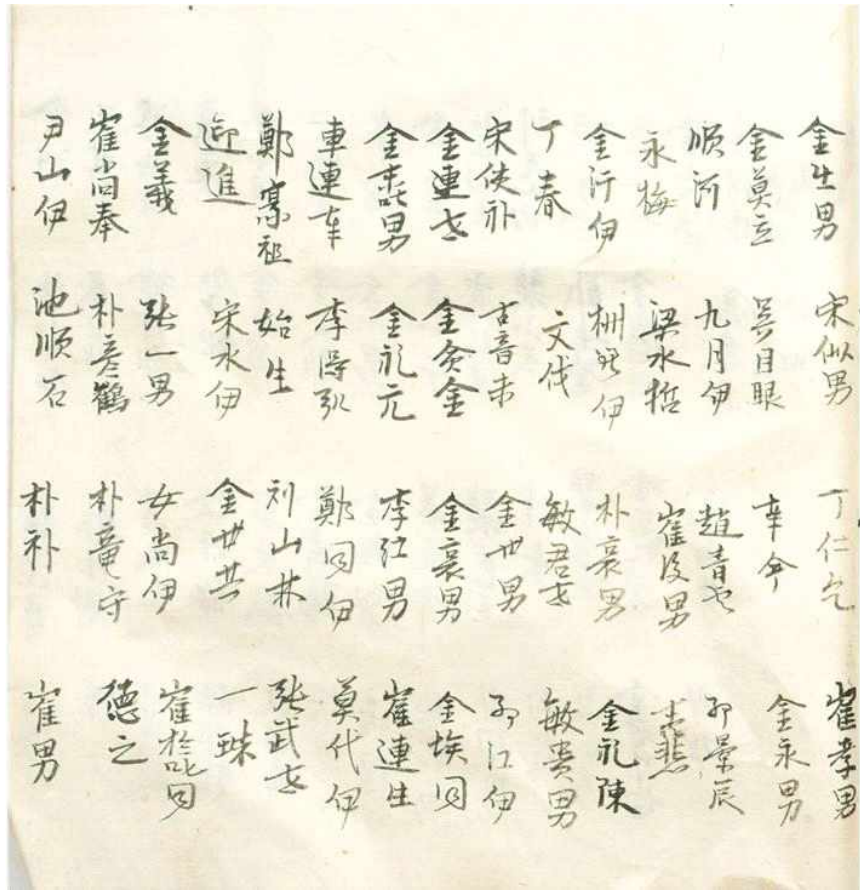
32.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31면

姜德文	鄭呂云	申尙伊	鄭莫男
虞永立	朴潤元	尹彦卜	趙希必
徐奭男	金德尙	金龍乞	朴注臺
金世重	金多音沙里	姜德俊	梁同
金乙竜	尹仁男	朴元卜	吳忠伊
鄭得承	玉礼	姜德俊	梁同
望伊	梁玉立	順代	今介
朴恠男	金德奉	李山伊	介伊
南有金	金仁蚕	李宗梅	金式好
張文良	張繼生	南天毒	鄭接文
朴金伊	徐式伊	徐春卜	金介
許應卜	春梅	李難守	池山水
盧得男	命伊	朴伐然	預代
五月伊	朴大海	李夢吉	崔奭屎
			宣千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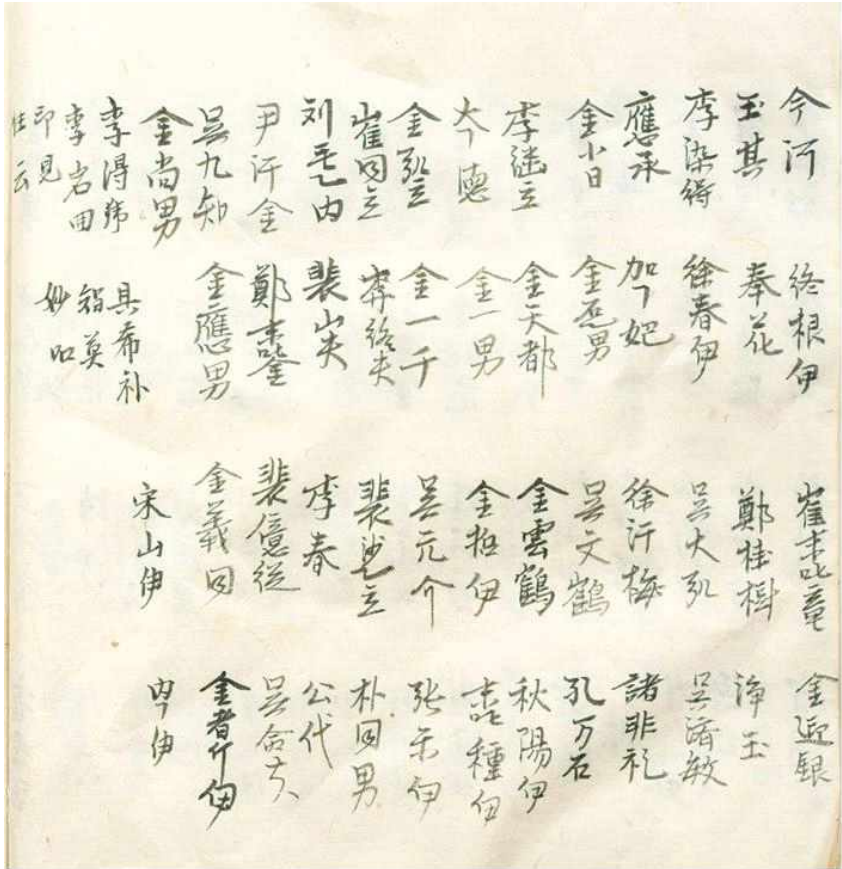
33.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32면

尹山伊	崔尙奉	金義	迎進	鄭高祁	車連車	金忞男	金連弋	宋体补	丁春	金汗伊	永梅	順河	金莫立	金生男
池順石	朴彦鶴	張一男	宋水伊	始生	李得弘	金礼元	金命金	古音未	文伐	權●伊	梁水哲	九月伊	吳目眼	宋似男
朴补	朴竜守	女尙伊	金世共	刘山林	鄭同伊	李紅男	金哀男	金世男	敏君弋	朴哀男	崔俊男	趙青虎	幸今	丁仁乞
崔男	德之	崔忞同	一珠	張武弋	莫代伊	崔連生	金埃同	孫紅伊	敏貴男	金礼陳	忞悲	孫景辰	金永男	崔孝男



34.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33면

性云	印見	李岩回	李得●	金尙男	吳九知	尹汗金	刘毛乙内	崔同立	金弘立	大ㄱ德	李繼立	金小日	應承	李梁得	玉其	今河
	妙卍	智英	具希补	金應男	鄭忞金	裴山夫	李終夫	金一千	金一男	金天都	金彗男	加ㄱ妃	徐春伊	奉花	終根伊	
			宋山伊	金義同	裴億從	李春	裴沙立	吳元介	金哲伊	金雲鶴	吳文鶴	徐汗梅	吳大弘	鄭桂樹	崔忞童	
				金者斤伊	吳命支	公代	朴同男	張示伊	忞種伊	秋陽伊	孔万石	諸非礼	吳濟敏	淨玉	金迎銀	



35. 화엄사 대응전 노사나불 시주질 34면

敬造智異山華嚴寺法堂常住佛  
 毗盧佛 盧舍那佛 釋迦文佛始役於大明  
 崇禎七年甲戌三月日訖工於次明年秋安宇大雄  
 殿者

證明  
 文悅  
 持殿  
 畫員秩  
 清軒  
 應元  
 印均  
 法玄  
 省根  
 英頤  
 員澤  
 善允  
 天曉  
 印熙

緣化秩  
 化主 懶默  
 化主 熙宝  
 別座 敬浩  
 別座 思惠  
 別座 戒珠  
 來往 李海  
 三印 信可  
 信和  
 贊珪  
 道閑  
 雙彦  
 學根

尚義  
 尚一  
 智學  
 雲密  
 法密  
 李浩  
 懶欽  
 善堅

勝益  
 應哲  
 金玉  
 應立  
 法堂 化主  
 德日  
 雙照  
 丹青 化主  
 印海  
 智英  
 蓋瓦 化主  
 敬悟  
 斗熙  
 彦信

敬造智異山華嚴寺法堂常住佛  
 毗盧佛 盧舍那佛 釋迦文佛始役於大明  
 崇禎七年甲戌三月日訖工於次明年秋安宇大雄  
 殿者

證明  
 文悅  
 持殿  
 畫員秩  
 清軒  
 應元  
 印均  
 法玄  
 省根  
 英頤  
 員澤  
 善允  
 天曉  
 印熙

緣化秩  
 化主 懶默  
 化主 熙宝  
 別座 敬浩  
 別座 思惠  
 別座 戒珠  
 來往 李海  
 三印 信可  
 信和  
 贊珪  
 道閑  
 雙彦  
 學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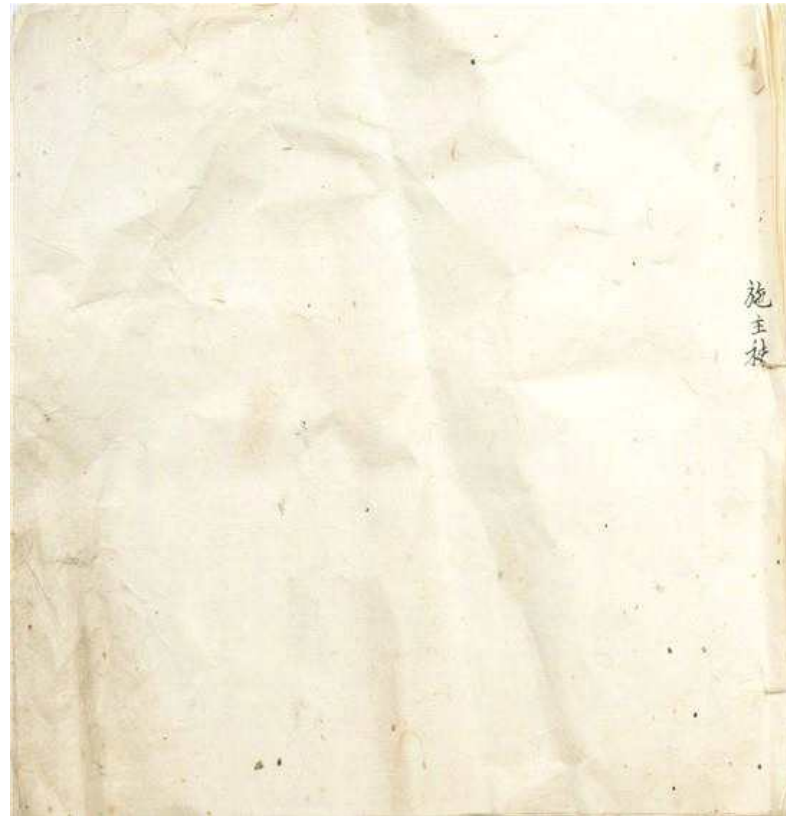
尚義  
 尚一  
 智學  
 雲密  
 法密  
 李浩  
 懶欽  
 善堅

勝益  
 應哲  
 金玉  
 應立  
 法堂 化主  
 德日  
 雙照  
 丹青 化主  
 印海  
 智英  
 蓋瓦 化主  
 敬悟  
 斗熙  
 彦信

<석문제공 : 사단법인 사찰문화재보존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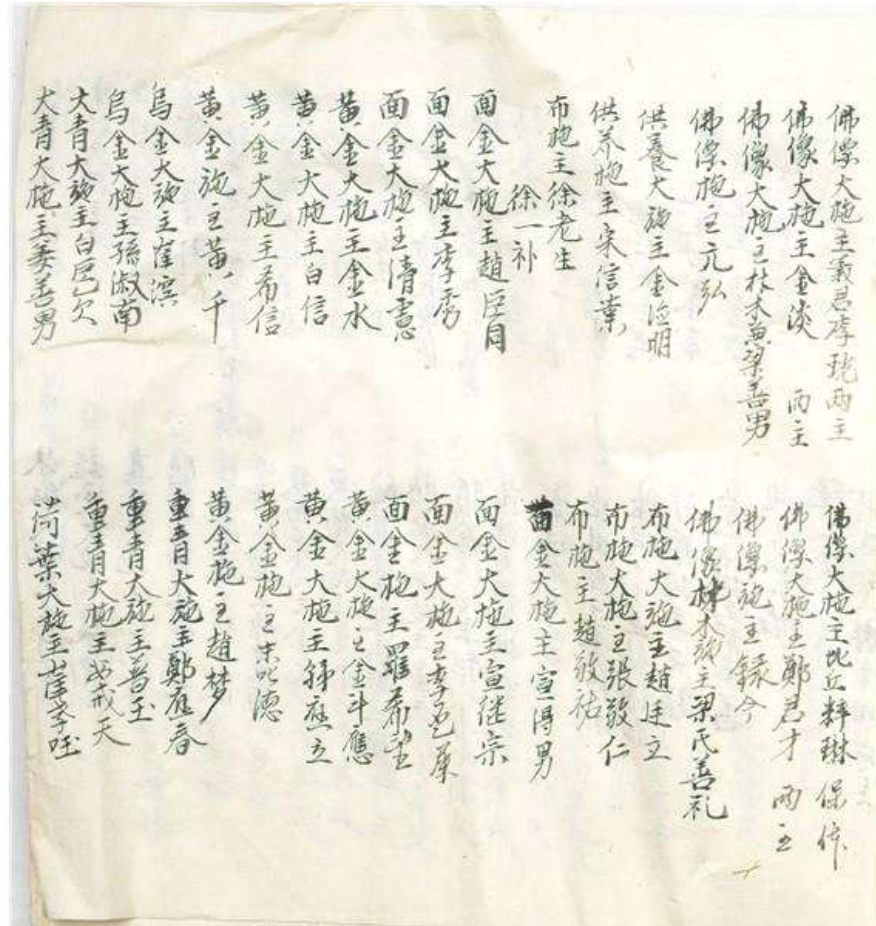
1. 화엄사 대응전 석가모니불 시주질 표지

施  
主  
秩



## 2. 화엄사 대응전 석가모니불 시주질 1면

佛像大施主 義昌君李珖 兩主	佛像大施主 比丘粹琳 保体
佛像大施主 金淡 兩主	佛像大施主 鄭君才 兩主
佛像大施主 材木兼 梁善男	佛像施主 鑄今
佛像施主 元弘	佛像材木施主 梁氏善礼
供養大施主 金應明	布施大施主 趙廷立
供養施主 宋信業	布施大施主 張敬仁
布施主 徐老生	布施主 趙敬祐
徐一补	面金大施主 宣得男
面金大施主 趙臣同	面金大施主 宣繼宗
面金大施主 李秀	面金大施主 李玆屎
面金大施主 清憲	面金施主 羅希望
黃金大施主 金水	黃金大施主 金斗應
黃金大施主 白信	黃金大施主 韓應立
黃金大施主 希信	黃金施主 恣德
黃金施主 黃千	黃金施主 趙夢
烏金大施主 崔濱	重青大施主 鄭應春
烏金大施主 孫淑南	重青大施主 普玉
大青大施主 白玆乞	重青大施主 安戒天
大青大施主 姜善男	荷葉大施主 崔孝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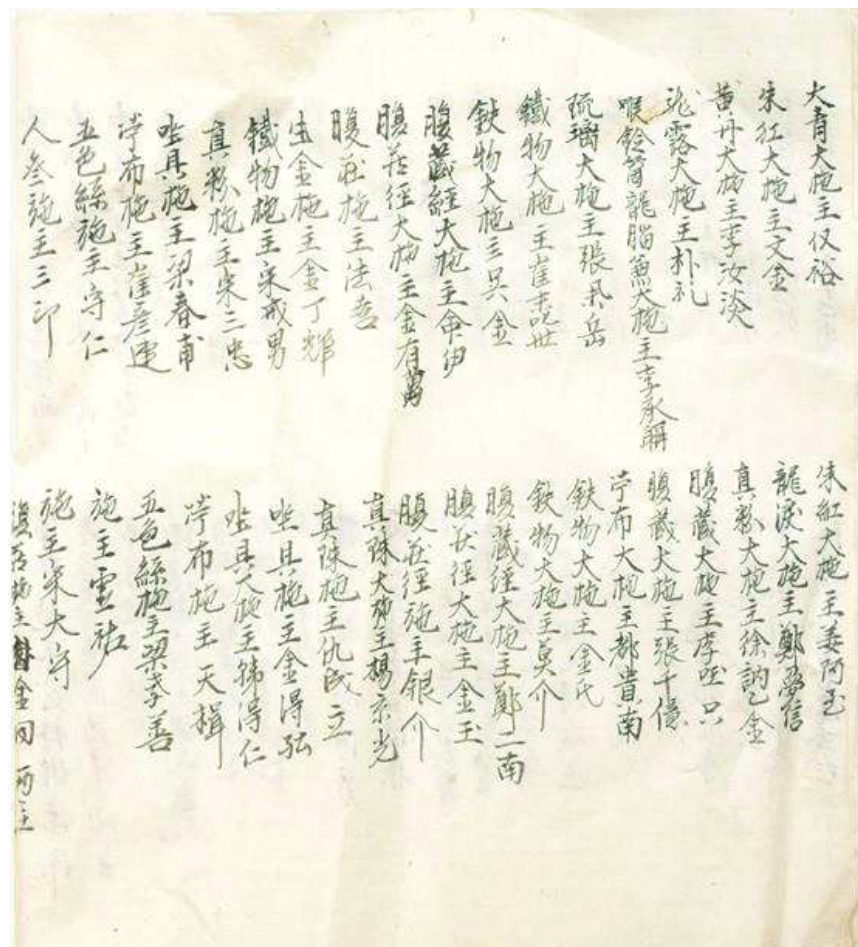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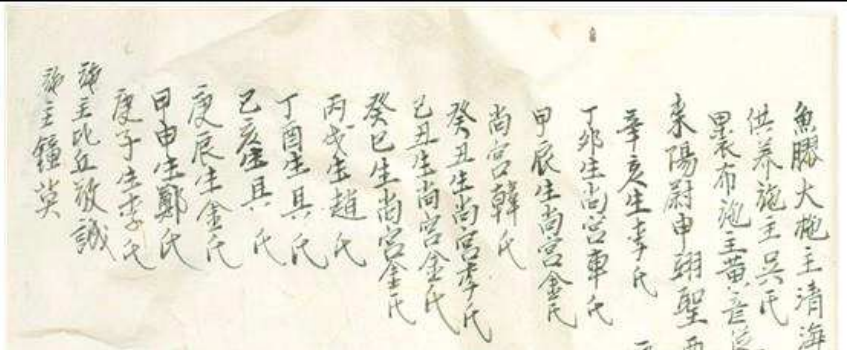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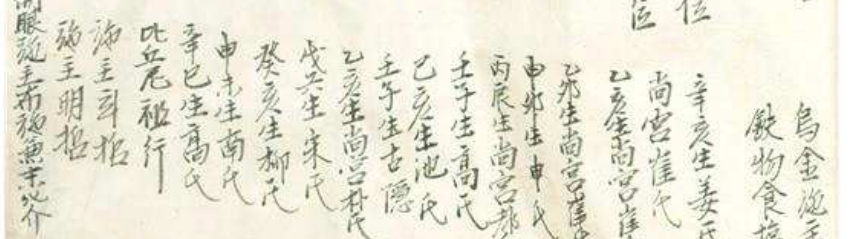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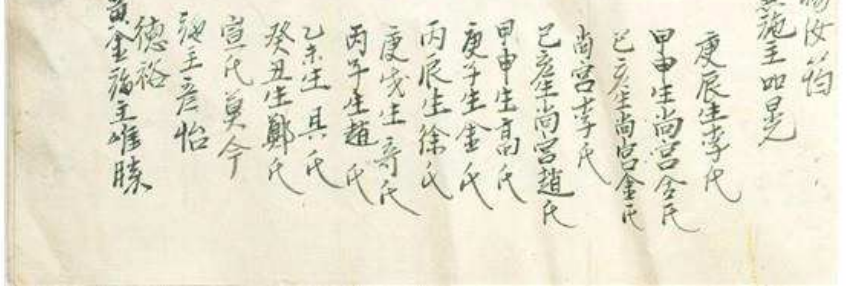
### 3. 화엄사 대웅전 석가모니불 시주질 2면

大靑大施主 仅裕  
 朱紅大施主 文金  
 黃丹大施主 李汝淡  
 龍露大施主 朴礼  
 喉鈴筒龍腦兼大施主 李承聃  
 琉璃大施主 張風岳  
 鐵物大施主 崔恣世  
 鐵物大施主 吳金  
 腹藏經大施主 命伊  
 腹藏經大施主 金有萬  
 腹藏施主 法喜  
 生金施主 金丁輝  
 鐵物施主 宋戒男  
 眞粉施主 宋三忠  
 坐具施主 梁春甫  
 苧布施主 崔彦連  
 五色絲施主 守仁  
 人蔘施主 三印

朱紅大施主 姜阿只  
 龍淚大施主 鄭夢信  
 眞粉大施主 徐訥乙金  
 腹藏大施主 李國只  
 腹藏大施主 張千億  
 苧布大施主 都貴南  
 鐵物大施主 金氏  
 鐵物大施主 莫介  
 腹藏經施主 鄭二南  
 腹藏經施主 金玉  
 腹藏經施主 銀介  
 眞珠大施主 楊京光  
 眞珠施主 仇成立  
 坐具施主 金得弘  
 坐具施主 韓得仁  
 苧布施主 天楫  
 五色絲施主 梁孝善  
 施主 靈祐  
 施主 宋大守  
 腹藏施主 朴金同兩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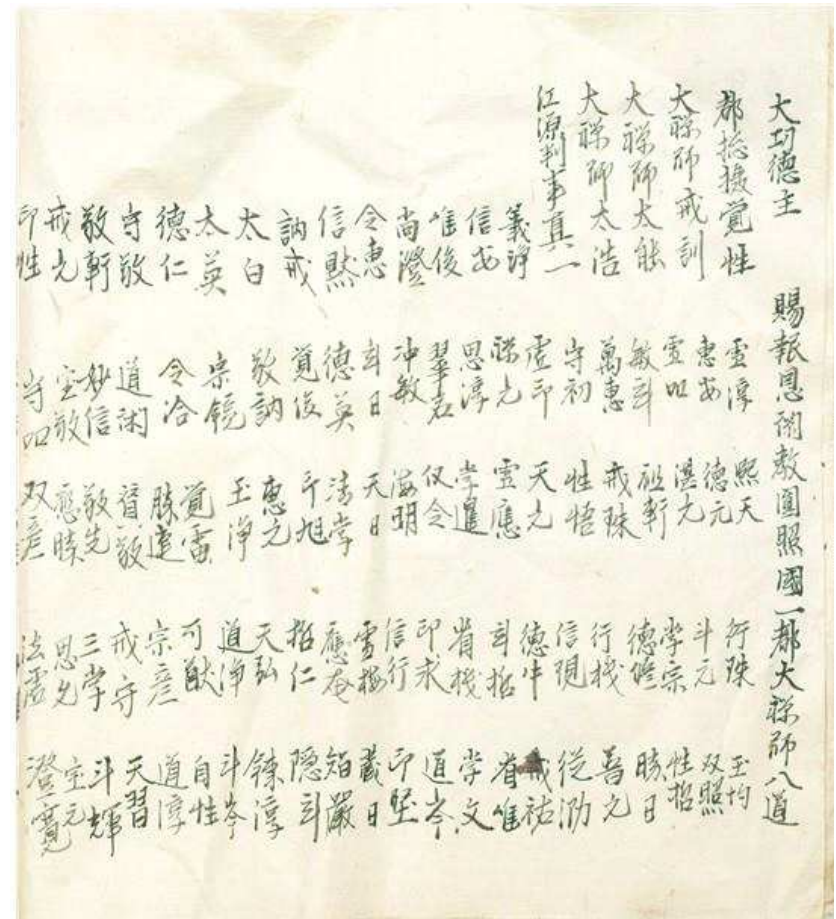


#### 4. 화엄사 대웅전 석가모니불 시주질 3면

<p>魚膠大施主          供養施主 吳氏          曩布施主 黃彥從  <b>東陽尉申翊聖</b>          辛亥生 李氏 兩位          丁卯生 尙宮車氏          甲辰生 尙宮金氏          尙宮韓氏          癸丑生 尙宮李氏          己丑生 尙宮金氏          癸巳生 尙宮金氏</p>	
<p>乙亥生尙宮朴氏</p> <p>烏金施主 楊汝筠          鐵物食鹽兼施主 卍</p> <p>辛亥生 姜氏          尙宮 崔氏          乙亥生尙宮崔氏          乙卯生尙宮崔氏          辛卯生申氏          丙辰生尙宮都氏          壬子生高氏          己亥生池氏          壬子生古隱</p>	
<p>丙戌生 趙氏          丁酉生 具氏          己亥生 具氏          庚辰生 金氏          甲申生 鄭氏          庚子生 李氏          施主 比丘敬誠          施主 鐘莫</p> <p>戊午生 宋氏          癸亥生 柳氏          申未生 南氏          辛巳生 高氏          比丘尼 祖行          施主 玄哲          施主 明哲          開眼施主 布施兼 忝</p> <p>庚辰生 李氏          甲申生 尙宮金氏          己亥生 尙宮金氏          尙宮 李氏          己亥生 尙宮 趙氏          甲申生 高氏          庚子生 金氏          丙辰生 徐氏          庚戌生 奇氏          丙子生 趙氏          乙未生 具氏          癸丑生 鄭氏          宣氏 莫今          施主 彥怡          德裕          黃金施主 唯勝</p>	

### 5. 화엄사 대응전 석가모니불 시주질 4면

大功德主 賜報恩禪教圓照國一都大禪師八道  
 都摠攝覺性  
 大禪師戒訓  
 大禪師太能  
 大禪師太浩  
 江原判事眞一  
 義淨  
 信安  
 唯俊  
 尙澄  
 令惠  
 信默  
 訥戒  
 太白  
 太英  
 德仁  
 守敬  
 敬軒  
 戒元  
 印性  
 雪淳  
 惠安  
 雪卍  
 敏玄  
 萬惠  
 守初  
 虛印  
 禪元  
 思淳  
 聚岩  
 冲敏  
 玄日  
 德英  
 覺俊  
 敬訥  
 宗鏡  
 令洽  
 道閑  
 妙信  
 宝敬  
 守卍  
 熙天  
 德元  
 湛元  
 祖軒  
 戒珠  
 性悟  
 天元  
 雪應  
 學遲  
 僅令  
 海明  
 天日  
 法學  
 印旭  
 惠元  
 玉淨  
 覺雷  
 勝連  
 贊敬  
 敬先  
 應勝  
 双彦  
 衍珠  
 斗元  
 學宗  
 德修  
 行機  
 信現  
 德牛  
 玄哲  
 省機  
 印永  
 信行  
 雪梅  
 應庵  
 哲仁  
 天弘  
 道淨  
 可猷  
 宗彦  
 戒守  
 三學  
 思允  
 法虛  
 玉均  
 雙照  
 性哲  
 勝日  
 普元  
 從渤  
 戒祐  
 省雄  
 學文  
 道岑  
 印堅  
 藏日  
 智嚴  
 隱玄  
 鍊淳  
 斗岑  
 自性  
 道淳  
 天習  
 斗輝  
 宝元  
 澄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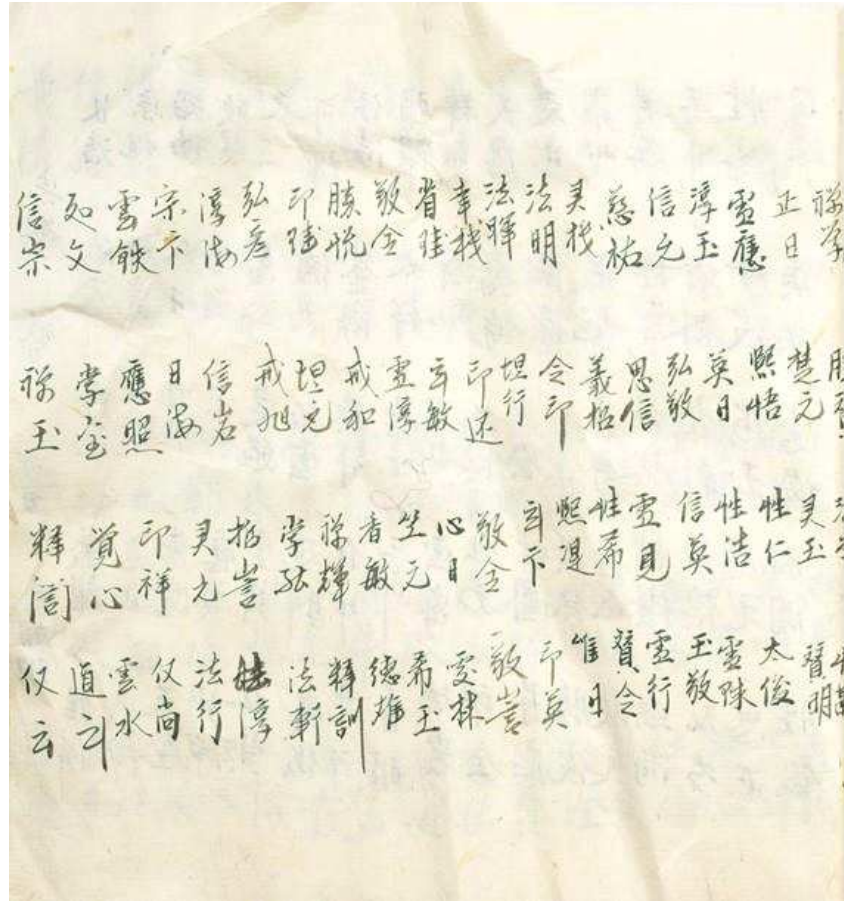
## 6. 화엄사 대응전 석가모니불 시주질 5면

信處雲宗淳弘印勝敬省幸法法灵慈信淳雪正禪  
宗文鉄卞海彦珪悅令珪機暉明機祐允玉應日学

禪学應日信戒坦戒雪玄印坦令義思弘英熙楚明  
玉宝照海岩旭元和淳敏还行印哲信敬日悟元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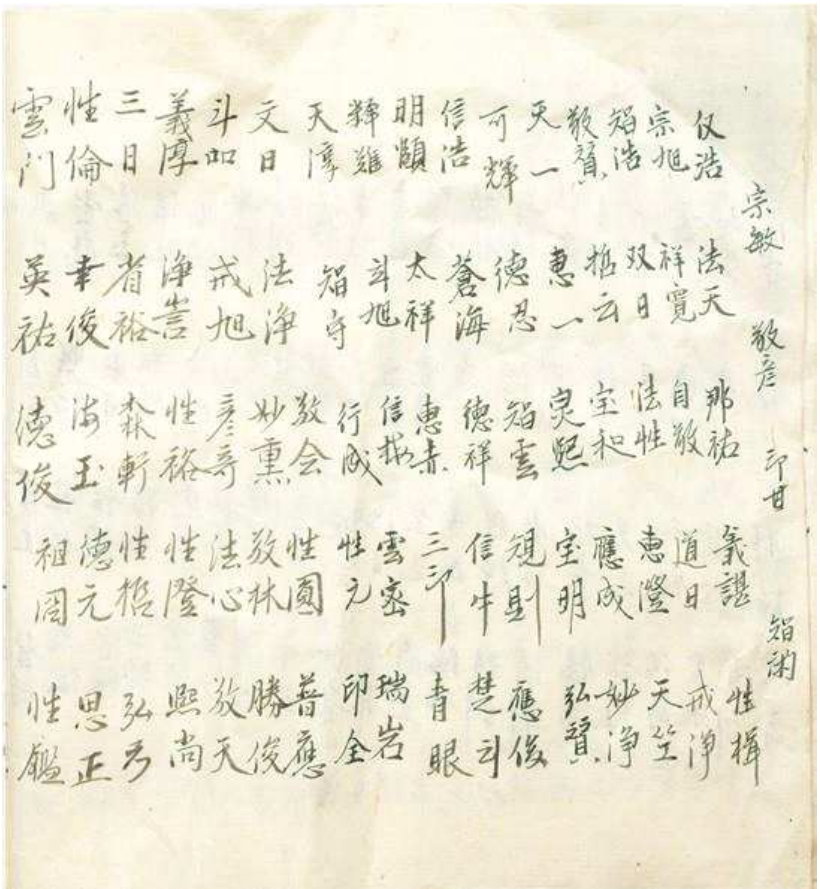
釋覺印灵哲学禪香竺心敬玄熙性雪信性性灵法  
闍心禪元崑弘輝敏元日令卞湜希見英浩仁玉岑

仅道雲仅法法法釋德希愛敬印唯贊雪玉雪太贊  
云玄水尙行淳軒訓雄玉林嘗英日令行敬珠俊明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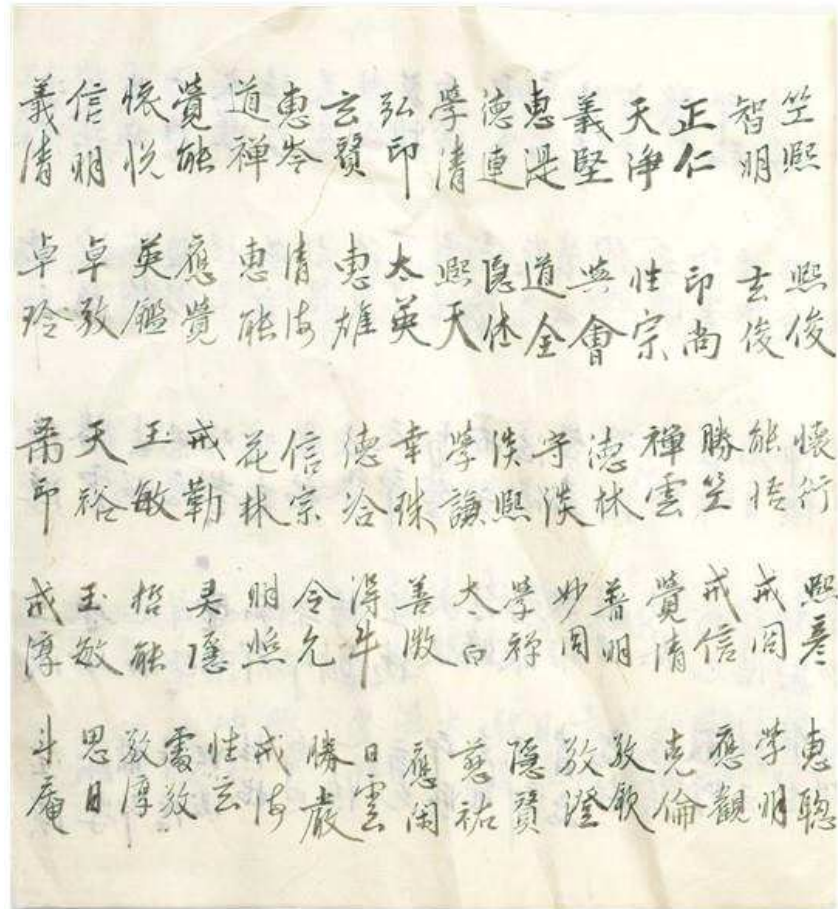
### 7. 화엄사 대응전 석가모니불 시주질 6면

雲門	性倫	三日	義淳	斗叩	文日	天淳	釋難	明頤	信浩	可輝	天一	敬贊	智浩	宗旭	仅浩	宗敏				
英祐	幸俊	省裕	淨嘗	戒旭	法淨	智守	玄旭	太祥	蒼海	德忍	惠一	哲云	双日	祥寬	法天		敬彦			
德俊	海玉	森軒	性裕	彦奇	妙熏	敬会	行成	信梅	惠赤	德祥	智雲	灵熙	宝和	法性	自敬			印甘		
祖罔	德元	性哲	性澄	法心	敬林	性圓	性元	雲密	三印	信牛	規則	宝明	應成	惠澄	道日				智閑	
性鑑	思正	弘彦	熙尙	敬天	勝俊	普應	印全	瑞岩	青眼	楚玄	應俊	弘贊	妙淨	天竺	戒淨					性楫



### 8. 화엄사 대응전 석가모니불 시주질 7면

義清	信明	懷悅	覺能	道禪	惠岑	玄贊	弘印	學清	德連	惠湜	義堅	天淨	正仁	智明	竺熙	
卓玲	卓敬	英鑑	應覺	惠能	清海	惠雄	太英	熙天	隱休	道全	興會	性宗	印尚	玄俊	熙俊	
希印	天裕	玉敏	戒勒	花林	信宗	德洽	幸珠	學謙	淡熙	守淡	德林	禪雲	勝竺	能悟	懷衍	
戒淳	玉敏	哲能	靈隱	明照	令允	得牛	善淑	太白	學禪	妙同	普明	覺清	戒信	戒罔	熙彥	
斗庵	思日	敬淳	處敬	性玄	戒海	勝嚴	日雲	應閑	慈祐	隱贊	敬澄	敬欽	克倫	應觀	學明	惠聰



### 9. 화엄사 대응전 석가모니불 시주질 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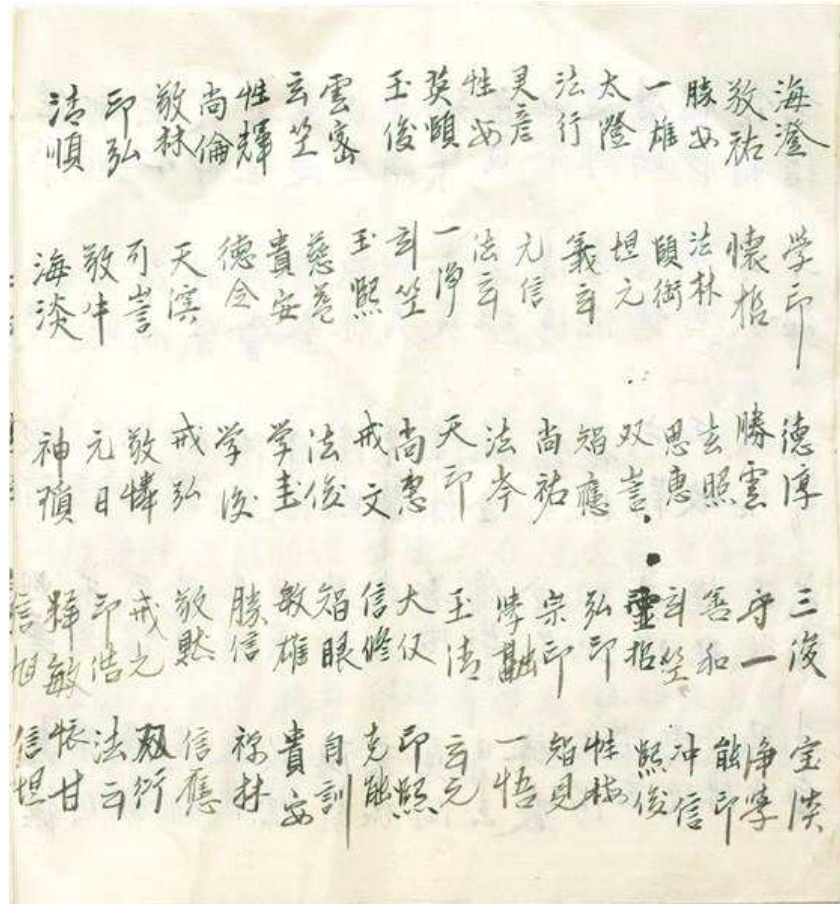
海澄 敬祐 勝安 一雄 太澄 法行 灵彦 性安 英頤 玉俊 雲密 玄竺 性輝 尙倫 敬林 印弘 法順

學印 懷哲 法林 頤衡 坦元 義玄 元信 法玄 一淨 玄竺 玉熙 慈雲 貴安 德令 天濱 可嘗 敬牛 海淡

德淳 勝雲 玄照 思惠 双峯 智應 尙祐 法岑 天印 尙惠 戒文 法俊 學圭 學俊 戒弘 敬憐 元日 神瓊

三俊 守一 善和 玄竺 靈哲 弘印 宗印 學融 玉法 大仅 信修 智眼 敏雄 勝信 敬默 戒元 印浩 釋敏 信旭

寶淡 淨學 能印 冲信 熙俊 性梅 智見 一悟 玄元 印熙 克能 自訓 貴安 禪林 信應 双衍 法云 懷甘 信坦



### 10. 화엄사 대응전 석가모니불 시주질 9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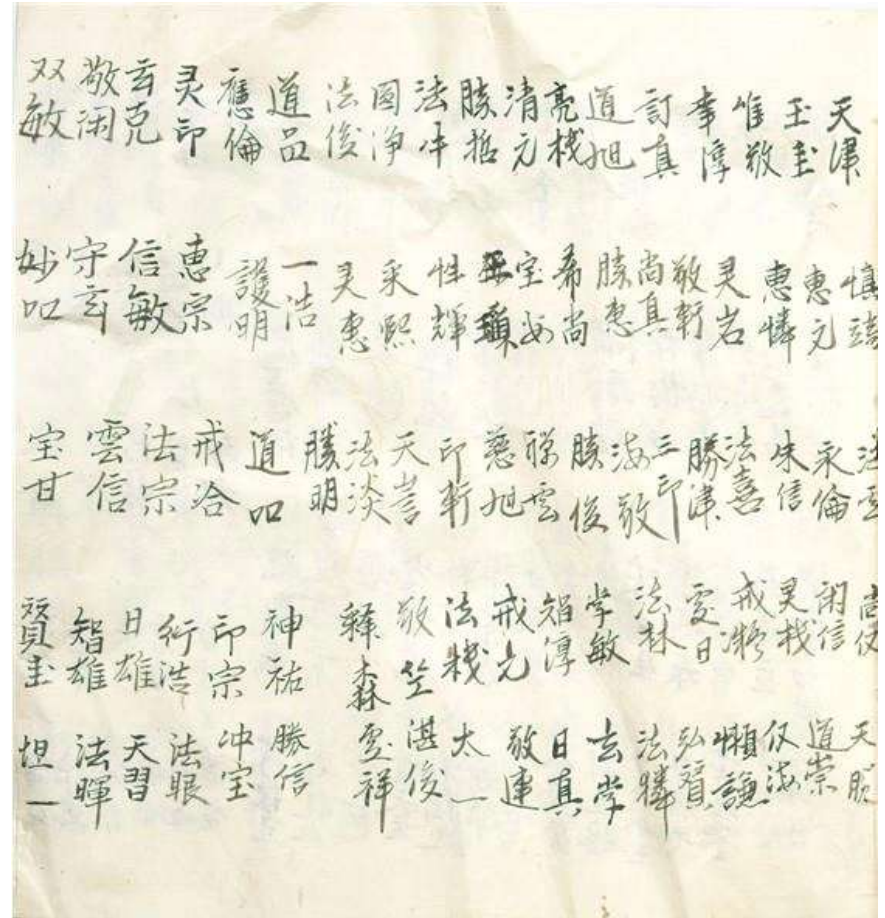
双敬玄灵应道法圆法胜清亮道訂幸唯玉天  
敏閑克印倫品俊淨牛哲元機旭眞淳敬圭律

妙守信惠護一灵采性玉宝希勝尙敬灵惠惠慎  
叩玄敏宗明浩惠熙輝瓊安尙惠軒岩憐元端

宝雲法戒道勝法天印慈禪勝海三勝法朱永法  
甘信宗洽叩明淡嘗軒旭雲俊敬印津喜信倫雲

贊智日衍印神釋敬法戒智学法雲戒灵閑尙  
圭雄雄浩宗祐森竺機元淳敏林日●機信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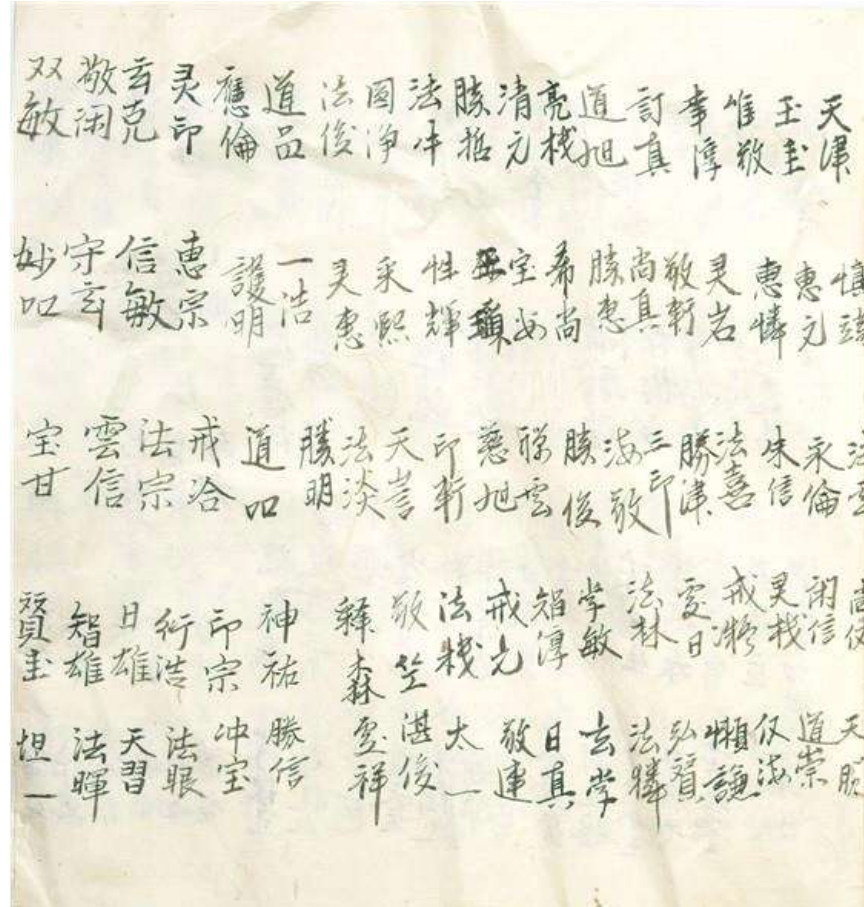
坦法天法冲勝處湛太敬日玄法弘懶仅道天  
一暉習眼宝信祥俊一連眞学憐贊謙海崇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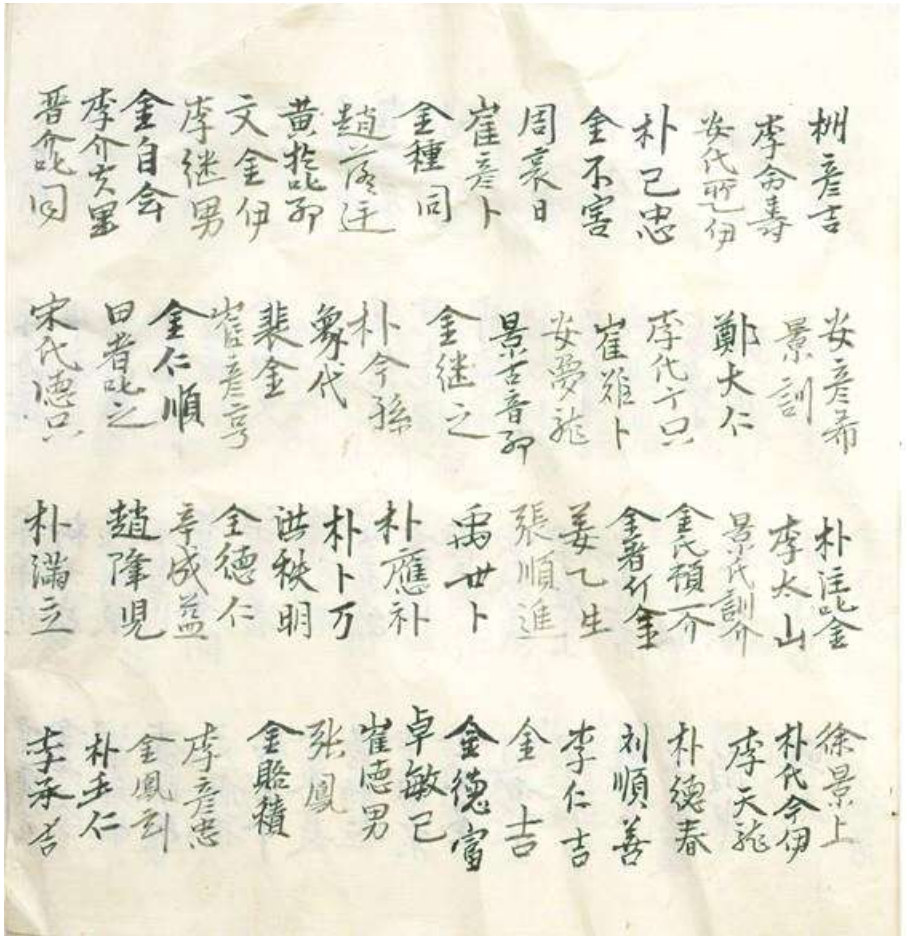
# 11. 화엄사 대응전 석가모니불 시주질 10면

趙氏仁花	田还壽	魯順民	金應東	礼從	崔大江	全氏承享	金高大	韓下龍	鄭順邦	李氏接相	崔愼業	智湛	幸珠	性明	幸俊	德融		
崔敬信	張恣孫	尹得春	單時只	林哲白	林春發	柳仅生	崔氏承礼	李氏順一	韓龍	金龍	徐后白	扈應相	二明	道洽	衍会	思正	德仁	
梁氏多勿伊	趙哀立	崔孫男	李楊春	李己生	尹棋木	金斗星	尹勝戈	李氏恣德	朴貴斤	崔信業	香伊	崔孝業	杜敬春	印玄	法淡	呂林	雪澄	敬会
安承淑	李冬叱金	朴希●	金氏千玉	劉亨●	金畢星	李氏	廉陣	朴繼还	金天立	李元己	鄭乱弘	李繼立	守澄	惠安	天日	隱牛	思信	智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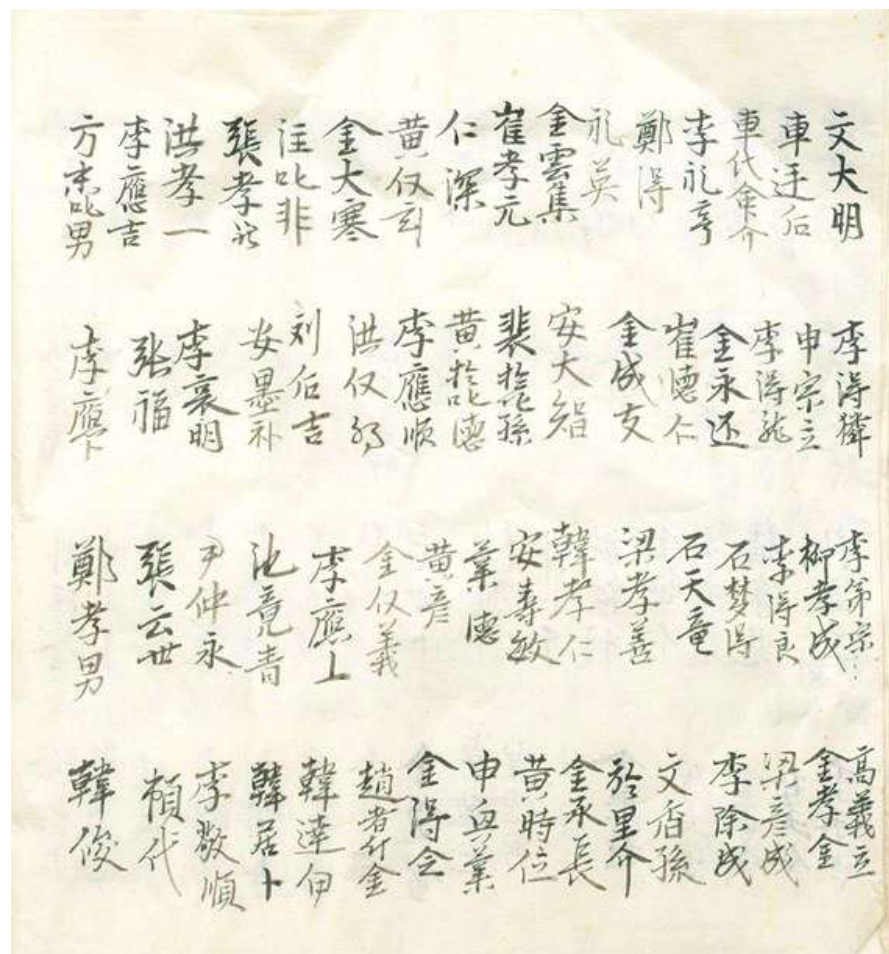
12. 화엄사 대응전 석가모니불 시주질 11면

權彦吉	權彦吉	權彦吉	權彦吉
李命壽	李命壽	李命壽	李命壽
安氏斐伊	安氏斐伊	安氏斐伊	安氏斐伊
朴己忠	朴己忠	朴己忠	朴己忠
金不害	金不害	金不害	金不害
周哀日	周哀日	周哀日	周哀日
崔彦卜	崔彦卜	崔彦卜	崔彦卜
金種同	金種同	金種同	金種同
趙發廷	趙發廷	趙發廷	趙發廷
黃齡孫	黃齡孫	黃齡孫	黃齡孫
文金伊	文金伊	文金伊	文金伊
李繼男	李繼男	李繼男	李繼男
金自會	金自會	金自會	金自會
李介亥里	李介亥里	李介亥里	李介亥里
晉龜同	晉龜同	晉龜同	晉龜同
安彦希	安彦希	安彦希	安彦希
景訓	景訓	景訓	景訓
鄭大仁	鄭大仁	鄭大仁	鄭大仁
李氏丁只	李氏丁只	李氏丁只	李氏丁只
崔難卜	崔難卜	崔難卜	崔難卜
安夢龍	安夢龍	安夢龍	安夢龍
景古音孫	景古音孫	景古音孫	景古音孫
金繼之	金繼之	金繼之	金繼之
朴今孫	朴今孫	朴今孫	朴今孫
象代	象代	象代	象代
裴金	裴金	裴金	裴金
崔彦亨	崔彦亨	崔彦亨	崔彦亨
金仁順	金仁順	金仁順	金仁順
田蓋之	田蓋之	田蓋之	田蓋之
宋氏德只	宋氏德只	宋氏德只	宋氏德只
朴滉金	朴滉金	朴滉金	朴滉金
李太山	李太山	李太山	李太山
景氏訓介	景氏訓介	景氏訓介	景氏訓介
金氏賴一介	金氏賴一介	金氏賴一介	金氏賴一介
金者斤金	金者斤金	金者斤金	金者斤金
姜乙生	姜乙生	姜乙生	姜乙生
張順進	張順進	張順進	張順進
禹世卜	禹世卜	禹世卜	禹世卜
朴應朴	朴應朴	朴應朴	朴應朴
朴卜万	朴卜万	朴卜万	朴卜万
洪秩明	洪秩明	洪秩明	洪秩明
全德仁	全德仁	全德仁	全德仁
幸成益	幸成益	幸成益	幸成益
趙降兒	趙降兒	趙降兒	趙降兒
朴滿立	朴滿立	朴滿立	朴滿立
徐景上	徐景上	徐景上	徐景上
朴氏今伊	朴氏今伊	朴氏今伊	朴氏今伊
李天龍	李天龍	李天龍	李天龍
朴德春	朴德春	朴德春	朴德春
劉順善	劉順善	劉順善	劉順善
李仁吉	李仁吉	李仁吉	李仁吉
金吉	金吉	金吉	金吉
金德富	金德富	金德富	金德富
卓敏己	卓敏己	卓敏己	卓敏己
崔德男	崔德男	崔德男	崔德男
張鳳	張鳳	張鳳	張鳳
金路積	金路積	金路積	金路積
李彥忠	李彥忠	李彥忠	李彥忠
金鳳到	金鳳到	金鳳到	金鳳到
朴壬仁	朴壬仁	朴壬仁	朴壬仁
李承吉	李承吉	李承吉	李承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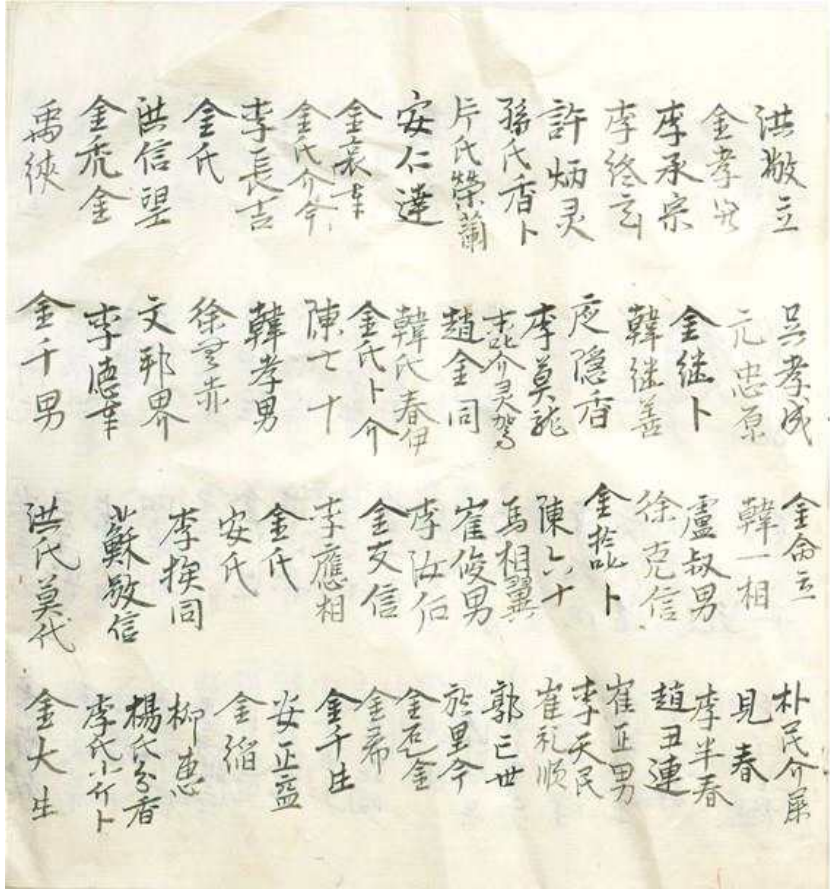
### 13. 화엄사 대웅전 석가모니불 시주질 12면

方恔男	李應吉	洪孝一	張孝龍	澁非	金大寒	黃仅玄	仁深	崔孝元	金雲集	礼英	鄭得	李礼亨	車氏命介	車廷后	文大明
李應卜	張福	李哀明	安墨祢	刘后吉	洪仅孫	李應順	黃齡德	裴齡德	安大智	金成支	崔德仁	金永还	李得龍	申宗立	李得獐
鄭孝男	張云世	尹仲永	池竟靑	李應一	金仅義	黃彦	業德	安壽敏	韓孝仁	梁孝善	石天竜	石梦得	李得良	柳孝成	李第宗
韓俊	賴代	李敬順	韓居卜	韓達伊	趙者斤金	金得令	申興業	黃時位	金承長	於里介	文香孫	李除成	梁彦成	金孝金	高義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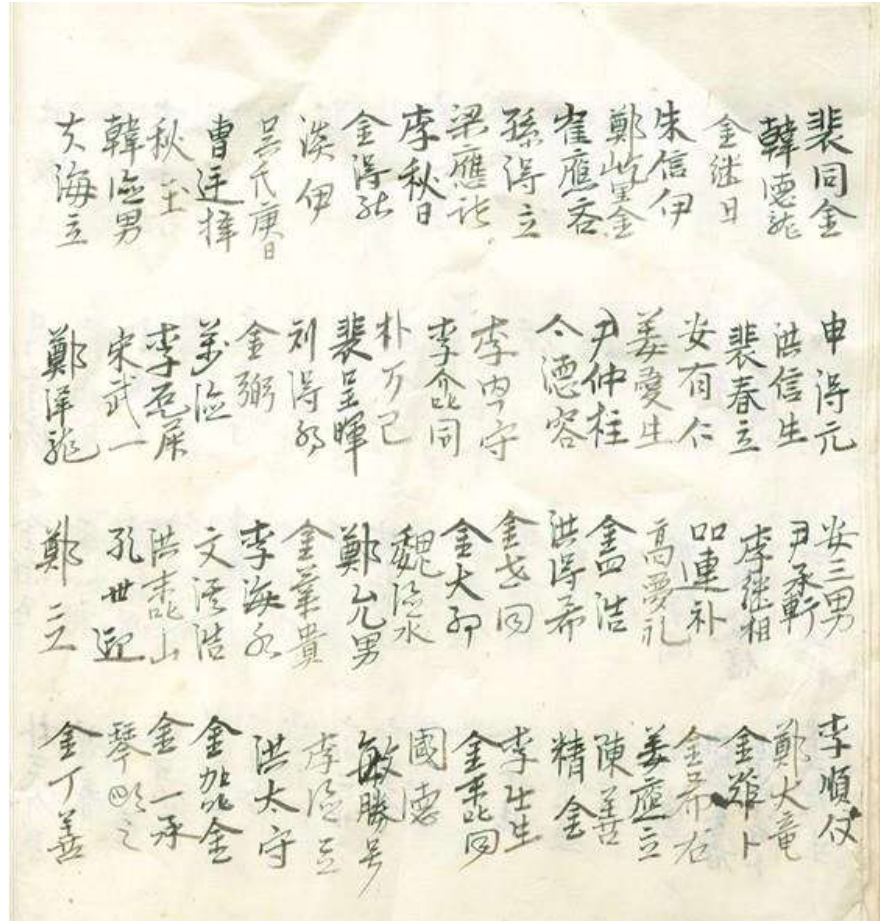
14. 화엄사 대응전 석가모니불 시주질 13면

禹 俠	金禿金	洪信望	金氏	李長吉	金氏介今	金哀東	安仁達	片氏榮蘭	孫氏香卜	許炳灵	李終玄	李承宗	金孝龍	洪敬立
金千男	李德東	文邦界	徐雪赤	韓孝男	陳七十	金氏卜介	韓氏春伊	趙金同	李莫龍	夜隱香	韓繼善	金繼卜	元忠原	吳孝成
洪氏莫代	蘇敬信	李挨同	安氏	金氏	李應相	金友信	李汝后	崔俊男	馬相翼	陣六十	金齡卜	徐克信	盧叔男	金命立
金大生	李氏小斤卜	楊氏分香	柳 惠	金 緜	安正益	金千生	金希	金夏金	於里今	郭亡世	崔禮順	李天民	崔正男	趙丑連
														見 春
														朴民介屏
														見 春
														李半春
														趙丑連
														崔正男
														李天民
														崔禮順
														郭亡世
														於里今
														金希
														金夏金
														金千生
														安正益
														柳 惠
														楊氏分香
														李氏小斤卜
														金大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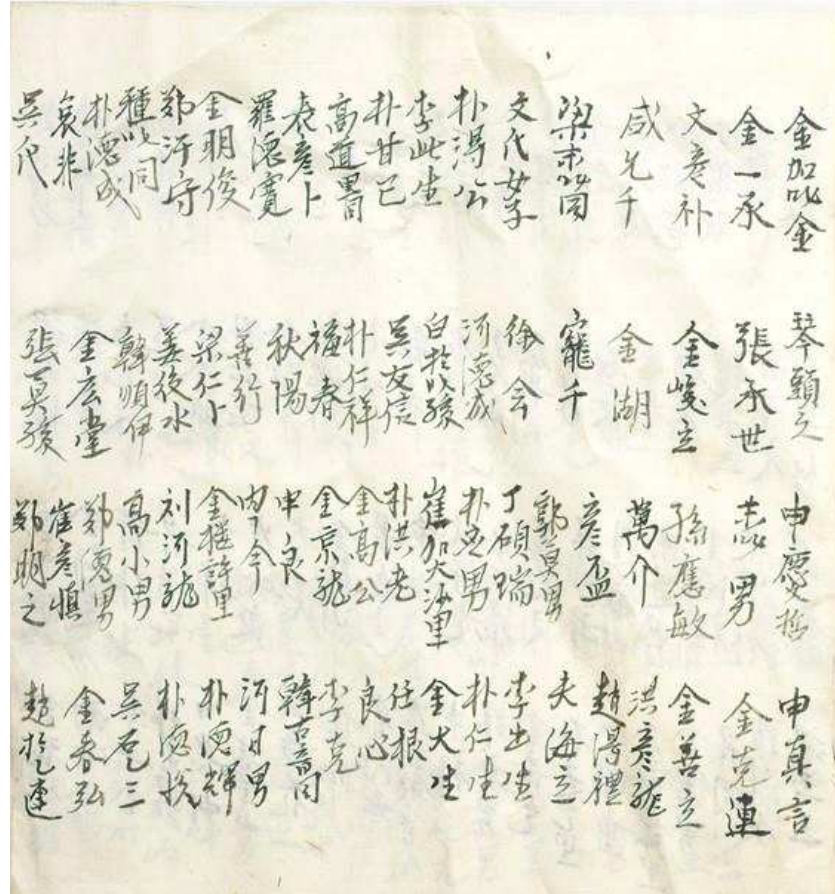
15. 화엄사 대응전 석가모니불 시주질 14면

支海立	韓應男	秋玉	曹廷擇	吳氏庚日	淡伊	金得龍	李秋日	梁應龍	孫得立	崔應齊	鄭屹里金	朱信伊	金繼日	韓德龍	裴同金
鄭澤龍	宋武一	李玄屎	姜險	金弼	刘得龍	裴呈暉	朴万己	李龜同	李內一守	人德容	尹仲柱	姜愛生	安有仁	裴春立	洪信生
鄭立	孔世迎	洪恁山	文●浩	李海龍	金業貴	鄭允男	魏險水	金大龍	金●同	洪得希	金四浩	高夢礼	卍連祚	李繼相	尹承軒
金丁善	琴●云	金一承	金祀金	洪太守	李險立	敏勝号	國德	金恁同	李壬生	精金	陣善	姜應立	金希右	金難卜	鄭大竜
															李順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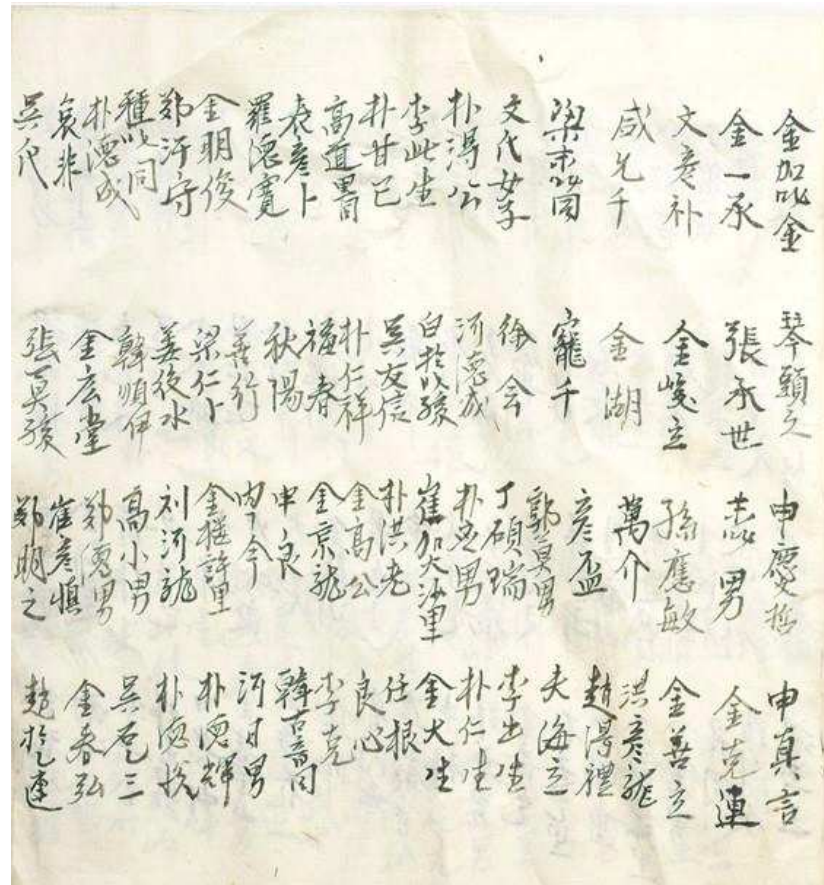
16. 화엄사 대응전 석가모니불 시주질 15면

吳氏	哀非	朴德成	種叱同	鄭汗守	金明俊	羅德寬	表彦卜	高道里同	朴甘己	李此生	朴得公	文氏女子	梁恔同	咸允千	文彦朴	金一承	金韶金	
張莫孫	金彦堂	韓順伊	姜後水	梁仁卜	善行	秋陽	福春	朴仁祥	吳友信	白齡孫	河德成	徐会	寵千	金湖	金峻立	張承世	琴頭文	
鄭明之	崔彦慎	鄭德男	高小男	刘河龍	金樓許里	內一今	申良	金京龍	金高公	朴洪老	崔韶沙里	朴應男	丁碩瑞	郭莫男	彦盃	萬介	孫應敏	申慶哲
趙登連	金春弘	吳亨三	朴德悅	朴德輝	河日男	韓古奇同	李克	良心	任根	金大生	朴仁生	李出生	夫海立	趙得禮	洪彦龍	金善立	金克連	申眞言



# 17. 화엄사 대응전 석가모니불 시주질 16면

榮花	鬱介	金哲明	金陶乙己	孫大承	崔種叱山	朴德龍	金正男	朴仁石	張應朱	納終	丹霞	刘千一	張奉石	杯一代	者斤伊	張豐東	張莫卜	金永男	
尹彦祚	朴●元	魏永立	鄭業同	曹夫元	忠女	金男	張貴同	金承成	柳春	雜春	小生	趙德守	金世	朴仁吉	金金守	花日	毛乙來	億藏	梁命祥
姜忞承	朴貴祚	金德祥	徐道男	趙希必	鄭呂云	姜德文	李韶知	林汗竜	命女	黃允卜	金熟山	大一德	崔守良	仁祥	梁得己	貴祚	金弘達	金今鶴	
梁玉立	鄭得承	梁同	金德男	金多勿沙里	金瑞重	朴走乞里	金童乞	鄭莫男	申祥	車嚴	曹得無	應介	去音花	金靛里山	白英山	鄭正男	李千金	南沸金	金花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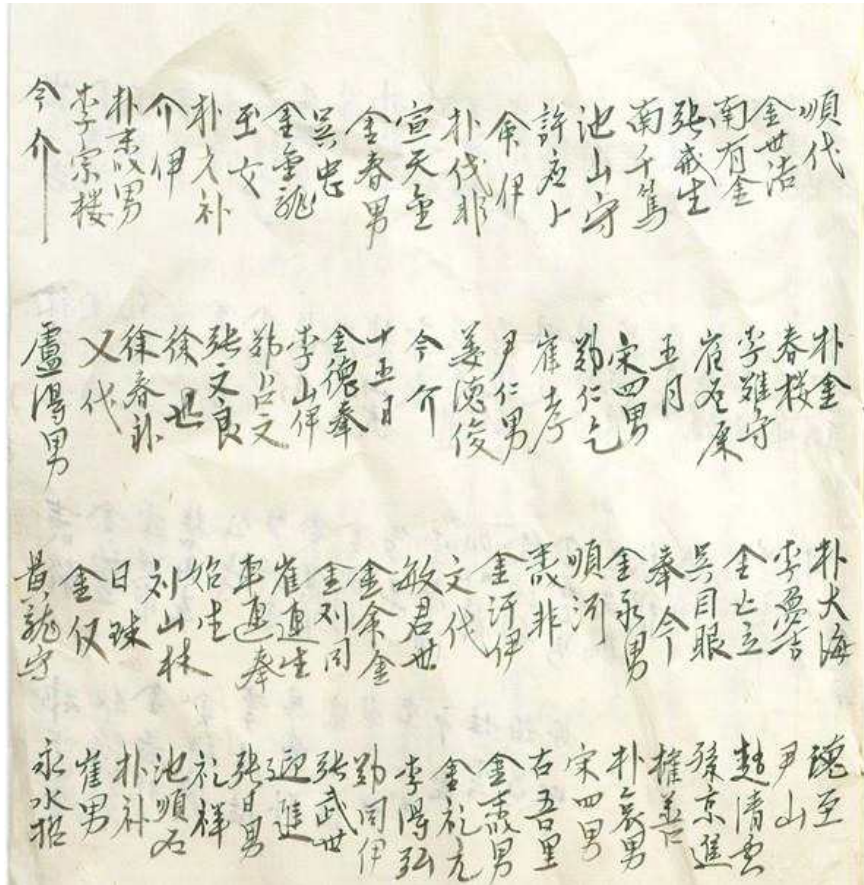
18. 화엄사 대응전 석가모니불 시주질 17면

順代 金世浩 南有金 張戒生 南千篤 池山守 許應卜 命伊 朴伐非 宣天金 金春男 吳忠 金金龍 玉女 朴六補 介伊 朴尨男 李宗樓 今介

朴金 春樓 李難守 崔芻屎 五月 宋四男 鄭仁乞 崔孝 尹仁男 姜德俊 今介 十五日 金德奉 李山伊 鄭占文 張文良 徐世 徐春補 又代 盧得男

朴大海 李夢吉 金亡立 吳目眼 奉今 金永男 順河 忞非 金汗伊 文代 敏君世 金命金 金劉同 崔連生 車連奉 始生 劉山林 日珠 金儀 黃龍守

德至 尹山 趙清雲 孫京進 權善 朴哀男 宋四男 古吾里 金尨男 金禮元 李得弘 鄭同伊 張武世 張日男 禮禪 池順石 朴補 崔男 永水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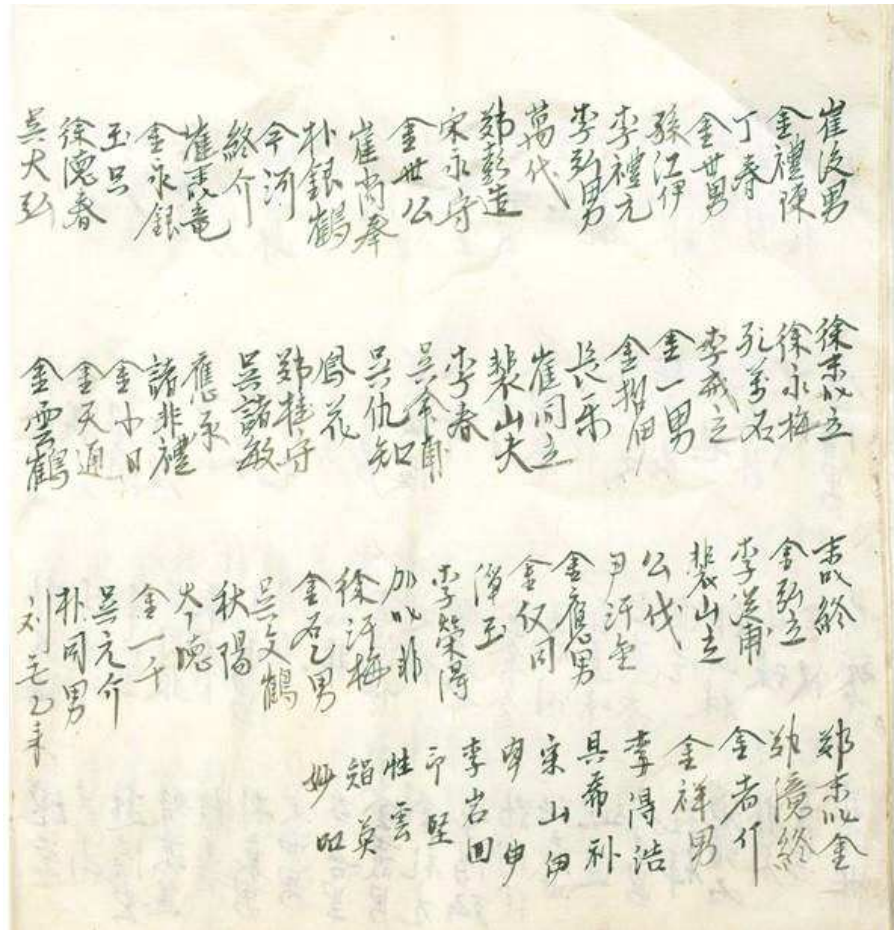
19. 화엄사 대응전 석가모니불 시주질 18면

崔後男 金禮陳 丁春 金世男 孫江伊 李禮元 李弘男 萬代 鄭彭造 宋永守 金世公 崔尙奉 朴銀鶴 今河 終介 崔恁菴 金永銀 玉只 徐德春 吳大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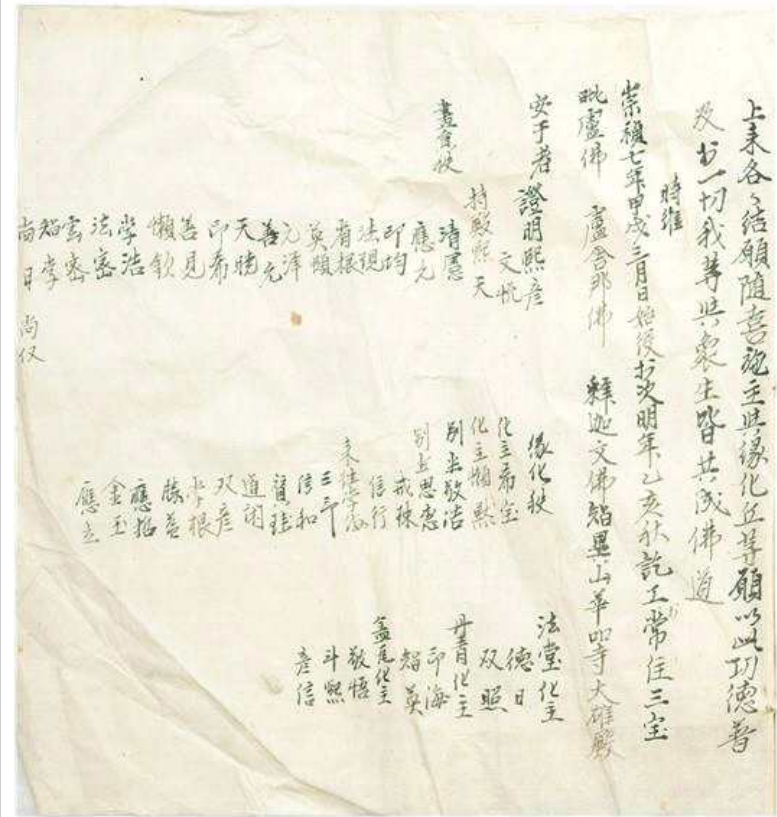
徐恁立 徐永梅 孔萬石 李戒立 金一男 金哲伊 長萬 崔同立 裴山夫 李春 吳命甫 吳仇知 鳳花 鄭桂守 吳諸敏 應承 諸非禮 金小日 金天通 金雲鶴

恁終 金弘立 李從甫 裴山立 公伐 尹汗金 金應男 金儀同 淨玉 李榮得 韶非 徐汗梅 金夏男 吳文鶴 秋陽 大德 金一千 吳元介 朴同男 刘毛乙未

鄭恁金 鄭億終 金者斤 金祥男 李得浩 具希朴 宋山伊 內一伊 李岩回 印堅 性雲 智英 妙叩



## 20. 화엄사 대응전 석가모니불 시주질 19면



上來各々結願隨喜施主與緣化丘等願以此功德普  
及於一切我等與衆生皆共成佛道

時維

崇禎七年甲戌三月日始役於次明年乙亥秋訖工於常住三宝  
毘盧佛 盧舍那佛 釋迦文佛 智異山華叻寺大雄殿  
安于者

證明 熙彦  
文悅  
持殿 熙天  
畫員秩 清惠  
應元  
印均  
法現  
省根  
英頤  
元澤  
善允  
天曉  
印希  
善見  
懶欽  
學浩  
法密  
雲密  
智學  
尚日

緣化秩  
化主 希宝  
化主 懶默  
別坐 敬浩  
別坐 思惠  
來往 學海  
三印  
信和  
贊珪  
道閑  
雙彦  
學根  
勝益  
應哲  
金玉  
應立

法堂 化主  
德日  
雙照  
丹青 化主  
印海  
智英  
蓋瓦 化主  
敬悟  
斗熙  
彦信

尚日

尚儀

### Ⅲ.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안건번호 동산 2021-02-006

## 6. 완주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소조십육나한상 일괄 (完州 松廣寺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 및 塑造十六羅漢像 一括)

### 가. 검토사항

‘완주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소조십육나한상 일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재)불교문화연구소장으로부터 「2013년도 불교문화재일제조사」 사업의 결과물로 ‘완주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소조십육나한상 일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4.12.15.)이 있어 관계 전문가 조사('14.7.30.~7.31.)를 실시하고 2014년도 본 위원회 제7차 회의('14.12.11.)에 검토 사항으로 부의했으나, 복장발원문 실물 확인 사유로 보류되었음.
- 이에, 최근 발원문이 송광사에 이관됨에 따라 보완조사('21.1.25.)를 통해 실물을 확인하고 본 위원회 검토 사항으로 재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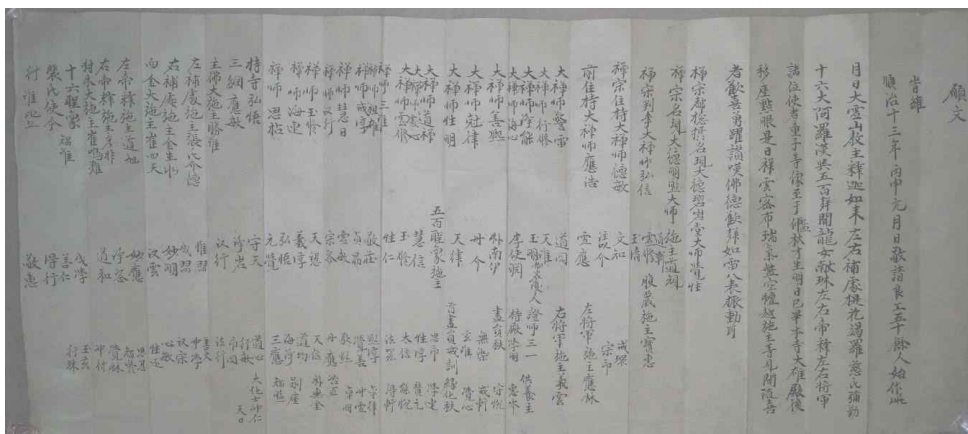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69호(1999.4.23.지정)
- 명 칭: 완주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소조십육나한상 일괄  
(完州 松廣寺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 및 塑造十六羅漢像 一括)
- 소유자(관리자): ①삼존상 및 나한상·발원문: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  
②장군상 2구: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금산사정보박물관)
- 소재지: ①삼존상 및 나한상, 발원문: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송광수만로 255-16, 송광사  
②장군상 2구: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모악15길 1, 금산사정보박물관

- 수 량: 27구(불상3, 나한16, 범천제석천2, 용녀2, 장군2, 사자2), 발원문 7점
- 규 격: ①석가여래 상높이 192cm, 무릎폭 158cm ②제각각라보살 상높이 181cm, 무릎폭 130cm  
③ 미륵보살: 상높이 181cm, 무릎폭 130cm 등 ※별첨 규격표 참조
- 재 질: 목조 및 소조
- 제작연대: 1656년(효종 7년)
- 제 작 자: 無染, 玄准, 戒訓, 思印, 性淳, 太信, 法器, 熙淳, 覺善, 敬熙, 丹應, 天信, 道均, 海淨, 三應, 道心, 行敏, 印罔, 法行, 善文, 冲學, 議宗, 心敏, 性環, 思忍, 智修, 覺林, 冲行, 玉玄, 行珠



<완주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소조십육나한상 일괄>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발원문>

## 라. 2차 조사자 검토 종합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완주 송광사 나한전 불상 불상은 2014년 7차(2014.12.11.) 동산분과위원회 검토 안건으로 부의하였으나 이곳에서 발견된 발원문 등 복장유물에 대한 보완조사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된 바 있다. 이에 2021년 1월 25일 보완조사를 실시하였다.

복장유물은 발원문 이외 특별히 수습,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으며 기존 여러 자료에서 소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성 발원문이었다. 특이사항은 기존에는 6점의 발원문이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나한전 해체수리로 석가여래삼존과 16나한상을 임시법당으로 옮겨 조사하는 과정에서 1점의 발원문이 추가로 수습되었다. 이 발원문은 말미에 第七이라는 목서명이 있어 제7존자와 관련된 발원문으로 판단된다. 이번 보완조사에서는 불상은 물론 기존에 알려진 발원문 6점과 추가로 수습된 발원문 1점까지 모두 7점의 발원문을 확인하였다.

이에 보완 조사에 참여한 조사위원의 공통된 종합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소조십육나한상 일괄은 17세기 중엽 경 만들어진 불상의 수량과 규모면에서 가장 크다. 참여한 화원도 이에 걸맞게 30명(발원문의 본문에는 良工 50여인을 청했다고 함)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1622년 자수사·인수사(조각승 13명, 야장 4명) 불사를 능가하는 인원의 조각승이 참여한 것이다. 제작방식도 당시에 유행했던 목조와 소조, 채색 기법 등을 두루 활용하여 작가의 재치와 개성이 잘 드러나 있고 작품성도 뛰어나다, 특히 나한상과 동자상을 일체형으로 제작한 작자의 창의성이 돋보이며, 이외 영산회상에 용녀헌주상의 등장은 유례가 드문 것으로, 이는 모든 중생의成佛이라는 불교의 대명제를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실질적 사례로써 불교사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둘째, 불상의 제작에 있어서 수조각승 무염의 통솔 하에 일군의 조각승들이 1~4명으로 무리를 이루어 분담 제작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물론 이와 같은 사례는 구례 화엄사 대웅전 삼신불은 불상의 양식으로 두 개의 조각 집단이 참여하여 불상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이곳에서는 발원문에 각 상마다 제작자를 분명히 밝혀 놓고 있어 분장을 통한 조각 실명제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조각승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무염·승일파, 현진·청현파, 수연파의 조각승들이 참여하고 있는 양상인데, 이는 자수사인수사 불사와 마찬가지로 벽암각성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그 만큼 이 나한전 불사의 중요성을 가늠케 한다.

셋째, 조각승과 불화승간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불상과 나한상은 조각과 더불어 개금·개채 작업이 동시에 필요한 작업이다. 이 송

광사 나한전 불상을 통해 영역이 다른 화원들이 어떻게 협업관계를 구축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넷째, 이곳 불상조성에 등장하는 丹應은, 김천 직지사 사천왕상과 구미 봉황사 삼존상 등에서 송광사와 위봉사의 조각승으로 기록되어 있다. 송광사 나한전 불상은 丹應(또는 端應)이 경북·충북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하기 이전 송광사를 근거로 삼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직접적인 자료이다. 따라서 이 불상은 송광사를 본산으로 활약했던 조각 집단의 조각 체계와 조각 태도, 경향 등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큰 조각사적 의의를 갖는다.

위와 같은 사유로 조사위원 전원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오백나한상 후대에 보장된 것이 많고, 양식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검토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금번 국가지정문화재(보물)의 검토대상은 1656년에 일괄로 제작된 것이 분명한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3구, 소조나한상 16구, 용녀현주상 2구, 좌우 제석상 2구, 좌우 장군상 2구(금산사 성보박물관 소장) 등 모두 27구의 불상과 발원문 7점이다.

**<표 1> 송광사 나한전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소조십육나한상 발원문 목록**

연번	명칭	재질	크기cm	시대	비 고
1	願文	지본 묵서	40.4x90.5	1656	*석가여래삼존상에서 수습된 것으로 추정
2	大靈山十六聖衆五百聲聞成造同願文(第三)	지본 묵서	40.0x49.5	"	*畫員 性淳 *말미 ‘第三’ 묵서
3	大靈山十六聖衆五百聲聞成造同願文(第七)	지 본 묵서	38.8x50.2	"	*畫員 道均 太信 照信 *말미 ‘第七’ 묵서 <b>*추가수습</b>
4	大靈山十六聖衆五百聲聞成造同願文(第九)	지 본 묵서	40.6x50.2	"	*畫員 忠學 思印 智修 覺林 *말미 ‘第九’ 묵서
5	大靈山十六聖衆五百聲聞成造同願文(第十)	지 본 묵서	40.3x50.2	"	*畫員 端應 性還 三應 法行 *말미 ‘第十’ 묵서
6	大靈山十六聖衆聲聞成造同願文(第十四)	지 본 묵서	39.5x45	"	*畫員 戒訓 性淳 思印 *말미 ‘第十四’
7	大靈山十六○○○○聞與 <sup>30)</sup> 左帝釋成造同願○	지 본 묵서	39.5x48.2	"	*畫員 顯准 *우측면과 하단면 일부 결실됨

1. 願文

30) 원문에는 如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 與로 판단됨

願文

皆維

順治十三年丙申元月日敬請良工五十餘人始作此  
月日大靈山教主釋迦如來左右補處提花竭羅慈氏彌勒  
十六大阿羅漢與五百聲聞龍女獻珠左右帝釋左右將軍  
諸位使者童子等像至于仲(孟)秋才生明日已畢本寺大雄殿後  
移座點眼是日祥雲密布瑞氣盤空檀越施主等見聞隨喜  
者歡喜勇躍讚嘆佛德歡聲如雷八表振動耳

1단

禪宗都摠攝名現大德碧巖堂大師覺性

禪宗名現大德明照大師

禪宗判事大禪師弘信

禪宗住持大禪師德敏

前主持大禪師應浩

大禪師警雷

大禪師行修

大禪師淨能

大禪師海心

大禪師善熙

大禪師剋律

大禪師性明

大禪師道禪

大禪師處心

大禪師雲修

禪師三准

禪師祖雄

禪師戒淳

禪師慧日

禪師議(ㄱ+又)行

禪師玉修

禪師海連

禪師思拈

持寺弘悟

三綱應敏

主佛大施主勝准  
左補處施主張氏介德  
右補處施主金生水  
面金大施主崔四天  
左帝釋施主道旭  
右帝釋施主彥非  
材木大施主崔鳴難  
十六聖衆智准

裴氏使今

行惟比丘

2단

施主道規

道軒

靈修

玉清

文知

滄介

雪應

道罔

天准

玉明

李使淵

朴男伊

丹介

天律

五百聖衆施主

慧信

玉修

性仁

敬莊

貞勛

靈敏

宗洽

天認



義淳  
弘悟  
元覺  
守天  
淨岩  
議(ㄱ+又)行  
惟習  
成習  
妙明  
議(ㄱ+又)雲  
妙應  
淨洽  
道和  
成學  
善仁  
得行  
敬惠

3단

腹藏施主寶惠

戒環

宗印

左將軍施主應林

右將軍施主義雲

松岩後人證師三一

持殿學明

畫員秩

無染

玄准

首畫員 戒訓

思印

性淳

太信

法器

熙淳

覺善

敬熙

丹應

天信

道均

海淨

三應

道心

行敏

印問

法行

善文

冲學

議(ㄚ+又)宗

心敏

性還

思忍

智修

覺林

冲衍

玉玄

行珠

供養主

惠岑

守悅

戒軒

覺心

緣化秩

學連

贊元

能悅

得軒

克律

冲雪

卓罔  
冶匠  
    朴無金  
別座  
    智照  
大化士冲仁  
    天日

2. 大靈山十六聖衆五百聲聞造成同願文(第三)

大靈山十六聖衆五百聲聞造成同願文

大施主 道規比丘

證明松岩後人三一比丘

    學明比丘

畫員 性淳比丘

化主 忠印

別座 智照

順治十三年丙申孟秋已畢

    第三

3. 大靈山十六聖衆五百聲聞造成同願文(第七)

大靈山十六聖衆五百聲聞造成同願文

大施主 曹氏文知

證師 三一比丘

畫員 道均比丘

    太信比丘

    照信比丘

化主 忠印

順治十三年 丙申 孟秋既畢

    第七

4. 大靈山十六聖衆五百聲聞成造同願文(第九)

大靈山十六聖衆五百聲聞成造同願文

大施主 雪罔比丘

畫員 忠學

思印

智修

覺林

化士 忠印

岺

順治十三年丙申孟秋既畢

第九

5. 大靈山十六聖衆五百聲聞造成同願文(第十)

大靈山十六聖衆五百聲聞造成同願文

大施主 道罔比丘

畫員 端應

性還

三應

法行

大化主 忠印

智照

覺心

岺

順治十三年丙申孟秋既畢

第十

6. 大靈山十六聖衆聲聞成造同願文(第十四)

大靈山十六聖衆聲聞成造回願文

大施主 朴男

證明大禪師 三一比丘

學明

畫員 戒訓

性淳

思印

化士 忠印

別座 智照

岺

維順治十三年丙申孟秋已畢

第十四

7. 大靈山十六○○○○如左帝釋成造同願文(左帝釋)

大靈山十六○○○○如左帝釋成造同願文

證明松岩後人 三一比丘

畫員玄准比丘

大功德主 忠仁比丘

別座 智照比丘

崑

順治十三年丙申孟秋已畢

## 마. 1차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완주 송광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과 그 좌우보처와 권속의 상들은 임진왜란 이후에 화엄사, 법주사, 쌍계사 등을 중창하였던 팔도도총섭 碧巖覺性(1575~1660) 대사가 주축이 되어 발원한 조상불사로 이보다 먼저 1649년에는 이 사찰의 소조사천왕상을 조성을 주도하였다.

조성원문에 보이는 30명의 조각승들 이름에서 볼 때 석가삼존과 십육나한, 오백나한, 제석범천상을 조성하는 佛事의 규모가 매우 커서 당시 활동하던 여러 집단의 조각승들이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조각승 무염의 알려진 작품 가운데 가장 제작시기가 가장 늦은 순치 13년(1656)의 조각으로서, 흥미로운 점은 조성발원문에 기록된 조각승 가운데 맨 앞에 이름이 올려진 무염의 다음에 玄准이 올라있고, 그 뒤에 오는 戒訓이 ‘수화원’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무염은 여러 집단의 조각승들을 이끌고 이 대규모 조상불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고, 실제 조각작업에서 戒訓이 수조각승으로서 실무를 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름이 올려진 조각승은 思印인데, 이와 동일한 발음의 이름을 가진 鑄鐘匠 思忍비구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까지 활동하였으나, 여기서는 戒訓과 함께 완주 송광사 원패(1654년)를 제작한 守衍 계열의 조각승으로 추정되고 있다. 화원질의 뒤쪽에 나오는 같은 발음의 思忍이 주종장 사인인지 동명의 조각장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 밖에도 丹端처럼 17세기 후반에 수조각승으

로 여러 작품을 남기고 있는 조각승과, 서로 다른 유과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天信(印均계열)과 三應(勝一계열)이 함께 참여하여 작업하였음도 발원문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십육성중과 오백성중, 좌제석의 발원문으로 적힌 별개의 記文에는 앞의 여러 조각승 가운데 오직 忠學(沖學), 思印, 智修, 覺林 비구, 4명의 이름만 기록되어있다.

완주 송광사 나한전 석가삼존상과 십육나한 및 권속의 상들은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조각적으로도 우수할 뿐 아니라 17세기 중엽의 여러 계열의 조각승들이 협업하여 완성한 대규모 彫刻群이라는 점에서 조각사적인 의의가 크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이 소조상들을 보존·관리함과 동시에 앞으로 조성발원문에 나타나는 조각승들의 관계와 記文에 보이는 조각승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 ○ (지정 가치 있음)

송광사 나한전에는 현재 석가여래, 미륵보살, 제화갈라보살을 비롯해 십육나한, 오백나한, 좌우제석, 좌우장군 등 526존이 봉안되어 있다. 이러한 대불사였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30명의 조각승들이 참여하여 조성하였다. 조선 후기에 십육나한상과 함께 오백나한상을 함께 봉안한 것은 흔치 않은 배치법으로 주목해야 한다. 불상들은 어깨와 상체가 넓고 양감이 잘 드러나 있으며, 하반신도 두껍고 폭이 넓어 전체로는 건장한 체격에 안정된 구도를 보인다. 마치 소조상처럼 다리와 옷주름에는 울퉁불퉁하게 양각이 강하게 베풀어져 입체감이 잘 살아 있으며, 예배상으로서 갖추어야 할 실재감도 성공적으로 구현되었다. 조각가, 제작시기가 밝혀져 있고, 예술성이 뛰어나며, 독특한 배치법을 갖고 있는 드문 작품들로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

### ○ (복장유물 조사 후 재검토 -보류)

대웅전 좌측 뒷편에 위치한 나한전에는 ㄱ형으로 이루어진 불단에는 석가여래삼존을 비롯하여 16나한상과 권속들이 배치되었다. 석가여래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의하면, 이들 상들은 順治 13年(1656, 효종 7)에 良工 50여명을 초청하여 조성한 것인데, 이때 만들어진 상은 대영산교주 석가여래와 좌우보처 제화갈라보살과 미륵보살, 16대아라한, 오백성문, 용녀현주, 좌우제석, 좌우장군, 제위사자, 동자 등을 조성하였다고 한다. 현재 봉안된 오백성문상들은 대부분 근래에 석고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하나하나의 상에 대한 정밀조사는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불상의 조성에는 禪宗都摠攝 碧巖覺性을 비롯하여 禪宗大德 明照, 禪宗判事

弘信, 禪宗住持 德敏 등 당대의 고승대덕들이 불사를 이끌었고, 화원으로는 無染, 玄浚, 首畫員 戒訓, 思印, 性淳, 太信, 法器, 熙淳, 覺善, 敬熙, 丹應, 天信, 道均, 海淨, 三應, 道心, 行敏, 印罔, 法行, 善文, 冲學, 議宗, 心敏, 性環, 思忍, 智修, 覺林, 冲行, 玉玄, 行珠 등 30명의 화원이 참여하였다.

한편 이 석가여래상에서 발견된 발원문 이외 5매의 기문이 더 발견되었는데, 이 記文에서는 施主者와 證明, 畫員, 大功德主, 化主, 別座를 요약하여 기록하고 있어 개별적으로 존상 구성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을 명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삼존여래상은 얼굴과 신체에는 양감이 풍부해졌고, 앞선 시기에 비해 어깨는 넓고 허리는 줄어드는 등 일련의 양식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조상의 전 반에는 소조기법을 잘 활용하여 양감 있고 활발한 조각기법을 보여주고 있으며, 16나한상 역시 각 존상마다의 특징을 뛰어난 솜씨로 생동감 있게 조각하였다. 특히 본존여래와 미륵보살상은 양감 넘치는 상호와 통상적인 이중착의식의 통견착의법임에 반해, 우협시 제화갈라 보살상은 천의식 착의에 무릎에는 불꽃처럼 표현된 장식이 붙어 있고, 이목구비도 약간 각이 진 형태이다. 이러한 특징은 丹應이 조성한 일련의 불상들과 양식적 친연성이 있기 때문에 조각승 간의 역할 분담이 분명히 있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16나한상은 130cm 넘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별도로 조성되어 나한상 앞에 봉안되던 동자상이 나한상과 일체형으로 조각하여 새로운 조각양식을 만들어 내고 있는 점도 흥미롭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할 발원문이 금산사 성보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어 조사하지 못하였다. 불상과 관련된 직접적인 자료인 만큼 발원문과 기문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근래에 석고로 조성되었다고 하는 오백나한상 중 일부는 이들과 함께 조성된 것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지정여부는 발원문과 오백나한상을 정밀조사 한 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 1차 조사보고서

### ○ 내용 및 특징

#### 1) 명문 및 특기사항

##### • 願文, 1656년, 종이, 6매, 금산사 정보박물관

銘文：願文」 峇惟」 順治十三年丙申元月日敬請良工五十餘人始作」 月日大靈山教主釋迦如來左右補處提和竭羅慈氏彌勒」 十六大阿羅漢與五百聲門龍女獻珠左右帝釋左右將軍」 諸位使者童子等像至于孟秋才生明日已畢本寺大雄殿後」 移座點眼是日祥雲密布瑞氣盤空檀越施主等見聞隨喜」 者歡喜踊躍讚嘆佛德歡聲如雷八表振動耳」 禪宗都摠攝名現大德碧巖堂大師覺性」 禪宗名現大德明照大師」 禪宗判事大禪師弘信」 禪宗住持大禪師德敏」 前主持大禪師應浩」 大禪師警雷」 大禪師行修」 大禪師淨能」 大禪師海心」 大禪師善熙」 大禪師克律」 大禪師性明」 大禪師道禪」 大禪師處心」 大禪師雲修」 禪師三准」 禪師祖雄」 禪師戒淳」 禪師慧日」 禪師議行」 禪師玉修」 禪師海連」 禪師思拈」 持寺弘悟」 三綱應敏」 主佛大施主勝准」 左補處施主張氏介德」 右補處施主金生水」 面金大施主崔四天」 左帝釋施主道旭」 右帝釋施主彥非」 材木大施主崔鳴難」 十六聖衆智准」 裴氏」 使令」 行惟比丘」 施主道觀」 道軒」 靈修」 玉清」 文知」 注/叱介」 雪應」 道罔」 天准」 玉明」 李使淵」 朴男伊」 丹介」 天律」 五百聖衆施主慧信」 玉修」 性仁」 敬莊」 貞勛」 靈敏」 宗洽」 天認」 義淳」 弘悟」 元覺」 守天」 淨岩」 議行」 惟習」 成習」 妙明」 儀雲」 妙應」 淨洽」 道和」 成學」 善仁」 得行」 敬惠」 服藏施主寶惠」 戒環」 宗印」 左將軍施主應林」 右將軍施主義雲」 松岩後人證師三一」 持殿學明」 畫圓秩無染」 玄准」 首畫員戒訓」 思印」 性淳」 太信」 法器」 熙淳」 覺善」 敬熙」 丹應」 天信」 道均」 海淨」 三應」 道心」 行敏」 印罔」 法行」 善文」 冲學」 議宗」 心敏」 性環」 思忍」 智修」 覺林」 冲行」 玉玄」 行珠」 供養主惠岑」 守悅」 戒軒」 覺心」 緣化秩學連」 贊元」 能悅」 得軒」 克律」 冲雪」 卓罔」 治匠朴無金」 別座智照」 大化士忠印」 天日」

##### • 願文, 종이, 5매, 금산사 정보박물관

銘文： ① 大靈山十六○○○○如左帝釋成造回願文」 證明松岩後人三一比丘」 畫員玄准比丘」 大功德主忠仁比丘」 別座智照比丘」 峇」 順治十三年丙申孟秋已畢」  
② 大靈山十六聖衆五百聲聞成造回願文」 大施主道規比丘」 證明松岩後人三一比丘」 學明比丘」 畫員性淳比丘」 化士忠印」 別座智照」 順治十三年丙申孟秋既畢」 第三」  
③ 大靈山十六聖衆聲聞成造回願文」 大施主朴男」 證明大禪師三一比丘」 學明」 畫員戒



訓」性淳」思印」化土」忠印」別座智照」峇」維順治十三年丙申孟秋己畢」第十四」

[4] 大靈山十六聖衆五百聲聞成造回願文」大施主宜罔比丘」畫員忠學」思印」智修」覺林」化土忠印」峇」順治十三年丙申孟秋既畢」

[5] 大靈山十六聖衆五百聲聞成造回願文」大施主道罔比丘」畫員端應」性還」三應」法行」大化主忠印」智照」覺心」峇」順治十三年丙申孟秋既畢」

## 2) 조사 내용

송광사 나한전에는 석가여래좌상을 중심으로 제화갈라와 미륵보살을 협시하는 석가여래삼존상과 16나한상, 좌우제석, 좌우장군 등을 포함한 526존자들이 있다. 이들 존상에서 출토된 발원문을 통해 이들 존상들이 1656년에 무염을 포함한 30명의 조각승에 의해 조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본존인 석가여래좌상은 어깨가 넓고 허리가 긴 장대한 체구를 보인다. 석가여래좌상은 육계의 구분이 없는 둥근 형태이다. 머리의 중앙에는 반원형에 가까운 중간계주가, 정상에는 원통형의 정상계주가 조각되어 있다. 석가여래좌상의 상호는 넓은 미간, 두툼하게 솟은 눈두덩이, 반개한 눈과 오뚝한 코, 살짝 미소머금은 입술로 구성된다. 착의법은 대의를 걸친 편단우견식으로 착의하여 오른편 어깨를 가렸지만 오른팔은 드러나 있다. 가슴을 가린 승각기는 살짝 주름이 잡혀 있으며 하반신에는 좌우 4가닥씩의 큰 주름이 펼쳐져 있다.

좌우협시보살좌상의 착의방식은 이형대칭으로 좌측 미륵보살은 승각기, 편삼, 대의를 걸친 가사를 걸쳤고, 우측 제화갈라보살은 천의를 입고 하반신에는 각대를 착용하고 있다. 좌우협시는 모두 보상화문, 화염, 구름문양으로 장식된 보관을 쓰고 있고, 귀걸이와 팔찌를 두르고 있다. 상호 표현은 좌측의 미륵보살은 본존과 비슷한 상호지만 두상을 타원형으로 조각하였고, 우측의 제화갈라보살은 방형의 얼굴에 눈두덩이와 양 볼의 양감이 훨씬 줄어들었고 눈윗꺼풀을 길게 표현하였다.

16나한상은 암석 대좌위에 결가부좌, 반가좌, 유희좌 등 다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나한상들은 해태, 호랑이, 학, 용, 코끼리 등과 같은 서수나 동자상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다. 좌우제석은 보관을 쓰고 소매가 긴 포를 입고 조끼와 같은 霞帔를 걸쳤다. 길게 흘러내린 소맷자락은 좌우의 동자들이 들고 있다. 좌우사자는 모두 갑옷을 입고 있는 무장의 모습이다. 좌측사자는 해태얼굴이 새겨진 두건을 쓰고 있으며, 오른쪽 사자는 뿔이 2개 솟은 듯 한 모자를 쓰고 있다.

발원문의 인물들 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禪宗都摠攝名現大德碧岩堂 覺性

이다. 1636년 송광사 중창개창비에도 각성과 그의 문도들이 송광사의 중창에 크게 기여하였고, 영산전 존상불사의 증명을 맡은三一 또한 각성의 사제인 松嶠戒益의 제자이다. 이는 송광사 개창 이후에도 각성이 포함된 浮休문도들에 의해 지속적인 불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산전 존상들은 조각승들은 晝圓秩 無染 玄准 首畫員 戒訓 思印 性淳 太信 法器 熙淳 覺善 敬熙 丹應 天信 道均 海淨 三應 道心 行敏 印問 法行 善文 冲學 議宗 心敏 性環 思忍 智修 覺林 冲行 玉玄 行珠이다. 가장 앞에 이름이 언급된 무염은 17세기 전반기 활발한 활동을 했던 조각승이다. 무염의 1630년대부터 수화승으로 활동한 기록들이 남아있다. 그의 조성한 대표적인 불상들은 1633년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보물 제1752호), 1635년 영광 불갑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 제1377호), 1650년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1829호), 1651년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보물 제1721호) 및 목조지장보살삼존상(보물 1749호), 1654년 영광 불갑사 명부전 권속, 1656년 완주 정수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67호) 등이 남아있다.

무염과 함께 작업한 조각승들 중 무염집단에 속했을 조각승은 도균으로 1648년 해남 도장사 석가여래 제작시 10번째 조각승으로 참여한 기록이 전하고 나머지 조각승들은 비슷한 시기 활동하던 다른 집단들의 공동작업으로 여겨진다. 무염을 제외하고 불상조성에 관여했던 승려는 단웅, 천신, 삼웅 및 사인이다.

丹(端)應은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활동한 조각승이다. 그가 조성한 주요 불상들은 1684년 경북 예천 용문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보물 제989-1호)과 대장전 목조아미타여래설법상(보물 제989-2호) 및 명부전 존상, 1689년 충북 제천 정방사 목조관음보살좌상(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06호), 1689년 경북 성주 선석사 아미타삼존불좌상, 1692년 안동 봉황사 삼세불좌상, 1705년 하동 쌍계사 사천왕상(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13호)이다. 영산전 석가삼존 중 향우측 제화갈라보살은 단웅의 작품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제화갈라보살의 눈 위꺼풀을 과장되게 조각한 표현한 상호 및 무릎에 두른 각대의 표현은 1684년 예천 용문사 목조관음보살좌상에서 보이는 표현과 유사하다. 이를 통해 제화갈라보살은 단웅이 주도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天信은 1655년 인균과 흥국사 석가삼존불좌상을 조성했고, 1668년에 금탑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을 중수한 기록이 남아있다. 三應은 승일과 1651년 서울 봉은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 제1819호) 1665년 송림사 명부전 존상, 1668년 김천 직지사 비로자나삼불좌상을 작업을 하였고, 1670년에는 김천 봉곡사 석조

석가여래좌상을 조성하였다. 思忍은 1639년 수연과 예산 수덕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 제1381호), 1649년 회문산 만일사 목조석가불좌상(현, 포천 동화사)을 조성하였으며 1654년에는 영상전 발원문에서 首畫員으로 언급된 戒訓과 완주 송광사 원패를 제작하였다. 참여 조각승들의 이러한 활동은 통해 완주 송광사 영상전 존상조성 불사는 무염집단, 인균집단, 수연집단 및 승일집단에 속했던 조각승들의 합동작업으로 볼 수 있다.

■ 규격

존상명	전체높이	어깨폭
석가여래	192cm	158cm (무릎폭)
제화갈라보살	181cm	130cm (무릎폭)
미륵보살	181cm	130cm (무릎폭)
나한상 (우1)	135cm	-
나한상 (우2)	135cm	-
나한상 (우3)	123cm	40cm
나한상 (우4)	114cm	41cm
나한상 (우5)	131cm	39cm
나한상 (우6)	125cm	41cm
나한상 (우7)	131.5cm	45cm
나한상 (우8)	130cm	43cm
나한상 (좌1)	135cm	-
나한상 (좌2)	135cm	-
나한상 (좌3)	122cm	39cm
나한상 (좌4)	133cm	41cm
나한상 (좌5)	131cm	40cm
나한상 (좌6)	136cm	45cm
나한상 (좌7)	135cm	41cm
나한상 (좌8)	128cm	37.5cm
범천상 (우)	146cm	45cm
제석상 (좌)	150.5cm	51cm
동녀상 (우)	142cm	45cm
동녀상 (좌)	136cm	33cm
사자상 (우)	148.5cm	43cm
사자상 (좌)	147cm	41cm
인왕상 (우)	186cm	-
인왕상 (좌)	182cm	-
오백나한상 (일괄)	20~45cm	-

■ 조각승 無染의 활동

지역	연대	구성내용	조각승	비고
전북 고창	1633년	선운사 소조비로자나 삼불좌상	法海, 無染, 道祐, 性脩, 信懷, 海心, 雲日, 性寬, 雪議, 信堅, 玉行, 雙照 無染, 天彦, 道祐, 性脩, 性律, 雙照, 海心, 性寬, 大祐, 信堅, 愛生, 淳日	보물 제1752호
전남 영광	1635년	불갑사 목조석가여래 삼불좌상	無染, 勝一, 道祐, 性脩, 雙照, 信會, 云一, 信見, 尙安, 宥性	보물 제1377호
전남 해남	1648년	도장사 목조아미타불좌상	幸思, 無染, 海心, 性寬, 勝秋, 宗稔, 智准, 敏機, 三愚, 道均, 明照, 敬聖	
대전	1650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	無染, 性脩, 德明, 天漸, 敬聖, 靈四	보물 제1829호
강원 속초	1651년	신흥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목조지장보살삼존상	無染, 道祐, ○○, 德明, 處常, 性岑, 元哲, 道未, 敏奇, 義信, 處仁, 日祥	보물 제1721호, 보물 제1749호
전북 완주	1652년	정수사 목조아미타여래 삼존상	無染, 信罔, 心印, 惠端, 敬性, 靈擇, 學梅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67호
전남 영광	1654년	불갑사 목조지장보살삼존과 시왕상 및 권속	無染, 正玄, 海心, 智堅, 三愚, 敏奇, 道未, 妙寬, 一安, 信一, 勝熙, 智文, 明照, 學梅, 處印, 英癸	
전북 완주	1656년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권속 일괄	無染, 玄准, 戒訓, 思印, 性淳, 太信, 法器, 熙淳, 覺善, 敬熙, 丹應, 天信, 道均, 海淨, 三應, 道心, 行敏, 印罔, 法行, 善文, 冲學, 議宗, 心敏, 性環, 思忍, 智修, 覺林, 冲行, 玉玄, 行珠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69호

[사진]



<완주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소조십육나한상 일괄>

소조십육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저석상



동녀상



사자상



인왕상



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별천상



동녀상



사자상



인왕상





<인왕상(장군상)>

## 7. 울진 불영사 불연 (蔚珍 佛影寺 佛輦)

### 가. 검토사항

‘울진 불영사 불연’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재)불교문화연구소장으로부터 「2014년도 불교문화재일제조사」 사업의 결과물로 ‘울진 불영사 불연’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5.12.30.)이 있어 관계 전문가 조사(’21.1.28./2.24.) 및 과학조사(’21.2.23.~2.24.)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 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97호(2007.1.8.지정)
- 명 칭 : 울진 불영사 불연(蔚珍 佛影寺 佛輦)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불영사(불영사성보박물관)
- 소재지 :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불영사길 48, 불영사
- 수 량 : 불연 2기, 동경 2점
- 규 격 : 불연① : 총높이 127.5cm, 총길이 290.0cm, 몸체63.0×64.0cm  
불연② : 총높이 121.0cm, 총길이 301.0cm, 몸체53.0×58.0cm  
동경① : 지름 22.7cm, 두께 0.48cm  
동경② : 지름 15.0cm, 두께 0.37cm
- 재 질 : 목조, 금속, 유리, 명주 등
- 형 식 : 궁륭형 처마를 가진 가마
- 조성연대 : 1670년(현종 11년)
- 제작자 : 廣玄, 性悅, 德眞, 추정



<울진 불영사 불연①>



<울진 불영사 불연②>



<울진 불영사 불연 동경①·②>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불연은 불가(佛家)의 불보살, 사리, 경전, 불패, 영가 등 예배의 대상을 의식도량으로 모셔오는 시련의식(侍輦儀式)에서 쓰이는 매우 중요한 의식법구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불연 유물은 모두 임진왜란 이후의 것들이며, 그 중에서도 제작연대를 알 수 있는 유물은 20여기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까지 불연의 문화재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97호 <울진 불영사 불연(1670)>,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93호 <밀양 표충사 불연(1720)>,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5호 <부산 범어사 불연>이 등록되어 있다. 문화재로 지정된 유물들은 명문이 있어 제작연대나 조성연유 등이 확인되고, 원형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조형적으로 우수한 예들이다.

기년명 불연 중 가장 이른 예는 구례 천은사 불연(1643)이며, 17세기 유물로 청도 용천사 불연(1674), 예산 수덕사 불연(1676), 청도 운문사 불연(1688), 밀양 표충사 불연(1688)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불영사 불연의 원형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하다.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불영사(佛影寺) 소장 불연(佛輦) 2점은 1669년부터 1670년에 걸쳐 상중단연(上中段輦)을 조성하였다는 기록에 따라 불영사 시련의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1670년에 2점이 같이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며, 양호한 보존상태와 조형적인 우수성으로 인해 2007년 1월에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97호로 지정되었다.

1. 가장 중요한 명문(銘文)은 불영사 불연 중 <불연 1>의 바닥에 ‘조련기 및 연화질 시주질’이 적혀있고, <불연 2>에 ‘시주질과 사내질’, ‘연화질’이 바닥면과 가마 몸체 후면 머름청판에 적혀 있다.

이 명문에 의해 제작연대 뿐 아니라 ‘봉연(鳳輦)’이라는 불연의 명칭과 불연의 용도, 주렴과 거울, 용두장식 등의 조형까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주자와 제작에 참여한 화사들도 확인되어 불연 및 17세기 불사(佛事)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2. 불영사 불연 2점은 형태와 제작 기법, 장식 등 유사한 형식을 하고 있는데, 이는 2점 모두 같은 시기에 같은 제작장인이 제작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점 모두 장식이 유실되거나 박락된 부분 등이 있으나, <불연 1>은 그 중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주목되는 점은 주렴(珠簾)과 거울이다. 남색과 투명한 유리 구슬을 귀갑문 형태로 엮어 만든 주렴이 전면을 제외한 삼면에 설치되어 있다.

귀한 공예재료인 색유리구슬로 만든 주렴은 왕실용 가마나 전각에서 볼 수 있고, 다양한 색의 구슬들은 면류관(冕旒冠) 등 왕실공예품에서 볼 수 있다. 또 가마의 좌우측 주렴에 달리는 거울의 존재 역시 조선 후기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는 거울들과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는 재료이다.

3. 마지막으로 불영사 불연의 전체적인 조형뿐만 아니라 세부 조형에 있어서 나무로 엮어 만든 궁륭형 지붕과 봉황조각, 청판머름 조각들, 가마채의 용두장식, 난간 장식 등에서 보이는 조형미와 조각솜씨가 매우 뛰어나다. 또한 황동과 주석, 철 등 재료를 달리한 금속재료를 사용하여 보강재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조각단청, 주렴과 함께 색채효과가 뛰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붕과 몸체 곳곳의 장식과 보석을 물린 장식 등에서도 당시 뛰어난 장인이 정성을 들인 불교공예품의 정수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영사 불연 2점은 명문에 의해 제작연대 및 조성연유 등이 확인되었고, 기년명 유물들 중에서도 제작시기가 이른 편이다. 특히 완전하지는 않지만 다른 불연 유물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형미가 뛰어나고, 주렴과 거울 등 다른 유물들에서 볼 수 없는 독창적인 요소들도 갖고 있어 조선 후기 불교목공예품의 조형양식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에 불영사 불연 2점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불연은 일부 손상되고 수리된 부분이 있지만 같은 시기에 제작된 두 점이 제작 당시의 모습을 잃지 않고 거의 완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두 점 모두 1670년이라는 분명한 제작시기와 化主 學宗이 좋은 장인을 만나 불연을 제작하게 되는 동기와 배경, 그리고 제작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사내질, 시주자, 그리고 불연의 제작자(畫員)로 추정되는 연화질의 스님 등이 일목요연하게 기록되어 있어 조선후기 목공예 및 불연연구에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불연의 몸체 주렴에 거울을 매단 사례로는 최초의 사례로, 이는 불상의 양면원경이나 불화 복장낭 앞에 매단 동경과 같이 無明을 밝혀주는 역할과 상징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불교 의례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과 면모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례사적 의미가 크다.

조선 후기 제작된 불연은 기록을 통해볼 때 수록재 등 시련의식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불영사 불연은 그 증거자료이다. 불연사 불연은 전반적으로 궁중연의 의례를 따르되 불교적인 요소도 창의적으로 가미하여 궁중연 못지않게 화려

하고 장엄한 모습을 보여준다. <불영사조연기>에는 불연을 일컬어 ‘鳳輦’이라 명명하고 있는데, 이는 불연을 단순히 의식용 불연으로만 인식하고 있고, 아름답고 뛰어난 작품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들채에서 몸체 지붕, 그 속에 표현된 크고 작은 문양과 도상, 결구와 장엄을 위해 사용된 금속도구와 장엄구까지 어느 부분 소홀함 없이 다루어 華麗無比함을 갖추었고, 여기에 세련되고 뛰어난 공예기법, 조각기법, 채색기법이 어우러져 높은 예술성을 보인다.

조선 후기 기년 작 불연은 대략 20여점이 알려져 있지만, 제작 당시의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제작배경을 소상히 담은 기록이나 높은 예술적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 불연은 단연 불영사 불연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불영사 불연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

### ○ (지정 가치 있음)

울진에 위치한 불영사에 소장하고 있는 가마 2점은 형태와 제작 기법, 장식 등 같은 형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2점 모두 명문에 의해 1670년을 제작시기로 밝히고 있어, 함께 세트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명확한 사용처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사찰의 시련의식을 위해 함께 구비되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불영사 성보박물관에는 동경 2점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 중 산화문 장식의 동경이 <불연 1>의 주립부분에 달렸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연 1>에는 국화문 등 꽃문을 위주로 조각하여 채색 장식하였고, <불연 2>는 국화문 외에 봉황문과 용문을 장식하였다. 가마 지붕 사각에는 2채 모두 봉황조각을 꽂아 장식하였다.

<불연 1>의 명문에서 보는 조련기(造輦記)에 ‘난새와 봉황이 꿈틀대며 난간 중앙에 날아 오르고’, ‘황룡이 용솟음치며 靑蓮 위로 날아 오르고’는 마치 <불연 2>의 채색 장식을 언급하는 듯하며, ‘둥그런 명월과 같은 거울이 앞뒤로 걸려 있으며’는 <불연 1>에 달렸을 동경을 가르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명문에서는 ‘봉연(鳳輦)’으로 지칭하여 가마의 명칭을 알리고 있다.

명문은 <불연 1>에 ‘조련기 및 연화질 시주질’이 바닥 면에 적혀있고, <불연 2>에는 ‘시주질과 사내질’, ‘연화질’ 이 바닥면과 가마몸체 뒷면 머름청판에 적혀 있다. 그 중 가마몸체 머름청판에는 붉은 바탕에 금색선의 구획안에 금색 글씨로 정연하게 적었다. <불연 1>과 <불연 2>의 연화질에 ‘성열비구(性悅比丘)’라는 이름을 볼 수 있는데, 그는 1686년 백련사의 불연 제작에도 참여한 인물로 보고 있다.

불영사 가마 2점은 장식이 유실되거나 박락된 부분 등이 있으나, 비교적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현전하는 불연 중에 이른 시기의 유물이며, 한 세트로 남아 있어 주목된다. 명문에서는 제작시기와 배경, 제작 형태, 제작자를 유추할 수 있으며, 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사찰의례품으로서 화려한 조각솜씨를 보이고, 잘 짜인 목조공예품으로서 문화재 지정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불영사 불연은 1670년에 조성되어, 현존하는 불연 중 온전한 형태인 것으로는 조성연대가 가장 이르다. 현재 전국사찰에 전하는 전통불연은 모두 조선후기의 것으로, 관련연구에 따르면 가장 이른 17세기의 작품은 불영사 불연 2점을 포함해 약 10점이 파악되었다. 이 가운데 1643년에 조성된 천은사 불연 2점이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나, 명문이 밝혀진 불연1은 몸체와 지붕이 유실되고 받침대만 남아 있으며, 같은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짐작되는 불연2는 지붕의 외부 천과 장식이 유실되었고 조성연대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불영사 불연의 경우, 조성연대를 비롯해 제작과정과 시주자, 불연의 형상과 용도까지 상세하게 명문으로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함께 제작된 상단·중단 연의 한 세트가 완형으로 남아있어, 17세기 불교미술사 및 불교의식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특히 17세기는 왕실 중심의 수륙재에서 사찰과 지역공동체 중심의 수륙재로 변화하던 시기로, 수륙재를 비롯한 야외법회를 치르면서 각단에 모시는 봉안대상의 격에 따라 연의 조성에도 이를 적용한 소중한 사례로 주목된다. 약간의 손상이 있지만 두 점 모두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한 편이다.

예술적 측면에서도 전반적인 형태와 장엄·조각이 격조 있고 단아한 균형미를 갖추었으며, 목조조각의 섬세함과 금속제 장식의 정교함이 돋보인다. 더욱이 불연에 부착된 동경은 17세기 불연에서 찾을 수 없는 희귀한 사례로, 거울과 불연의 관계 및 용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아울러 불교의식에 있어서도 시련에 대한 연구는 활발한 반면, 불연을 함께 주목하여 의식과 의식구가 어우러진 통합연구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 따라서 장차 불연에 대한 미술사적 연구는 물론, 불교의식과 관련한 연구에서도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불영사 불연은 17세기 불연의 장엄요소를 대표적으로 고증해줄 수 있는 유물로서, 그 역사적·문화적·학술적 중요성으로 볼 때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따라서 현재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불영사 불연을 보물로 승격해 그 중요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이를 계기로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 조사보고서



### ○ 현 상

불영사에 소장되어 있는 불연은 총 2점으로 원래는 불영사의 부속전각인 칠성각과 황화실에 한 점씩 전해지고 있었으나 현재는 불영사 정보박물관에 소장, 전시되어 있다. 불연은 전각형(殿閣形)의 왕실 가마와 기본 형식이 같아서 가마를 드는 가마채와 몸체, 지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장엄을 위해 주렴(珠簾), 유소(流蘇), 차면(遮面), 면경(面鏡) 등을 갖추고 있다. 불영사 불연 역시 2점 모두 가마채와 연대 몸체, 궁륭형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다.

<불연 1>은 칠성각에 전하던 유물로 지붕 외면 박락이나 주렴 일부, 유소 등의 유실이 있지만 비교적 완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바닥면에 제작배경과, 제작자, 제작시기를 명시한 명문이 남아 있다.

가마의 구조는 일반적인 가마와 같이 지붕과 몸체, 그리고 연대와 연결된 가마채가 하나로 3단으로 분리되는 구조이다.

먼저 가마의 지붕은 네 귀퉁이에 지지대를 세우고 대나무로 엮어 궁륭형으로 형태를 만든 뒤 종이를 바르고 다시 운문명주(雲文明紬)를 씌웠다. 명주는 3겹으로 씌워져 있는데 현재 색이 바래고 삭아서 탈락된 부분이 많다. 내부에는 세명주를 발랐다.

지붕의 정상에는 붉은 칠을 하고 표면에 능화형 금박문을 붙인 연봉을 꽂았는데 황색으로 칠한 복련의 받침 중앙에 꽂혀 있어 분리가 된다. 또 네갈래의 지지대를 따라 황동판을 대고 6엽의 꽃무늬 장식에 유리, 또는 보석돌을 물려서 장식하였는데, 현재 유실되고 남은 것들만 있다. 이 장식장식은 여모에 댄 금속판에도 동일하게 붙어 있다. 지붕의 네 귀퉁이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 봉황머리를 꽂았는데, 현재는 3개만 남아 있다. 남아 있는 봉황의 턱 아래에 금속고리가 달려 있는 것으로 보아 유소 등을 꽂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유소 등 다른 장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몸체에는 4개의 기둥을 두고 벽체를 구성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주칠을 하고 조각에는 단청을 칠했다. 몸체 내부에는 바닥면을 제외하고 세명주(細明紬)로 보이



는 천이 발라져 있으나 훼손된 부위가 많다.

몸체를 살펴보면 각 면의 위, 아래에 한단씩 머름칸을 두고 모란쇠코무늬를 투각하고 단청을 칠했다. 전면을 제외한 3면 중 후면에는 중앙의 창을 중심으로 하단에 두단, 5칸의 머름칸을 두고 하단에는 모란넝쿨무늬를, 상단에는 국화무늬를 투각하였고, 창 좌우에는 3칸의 머름청판에 국화무늬를 투각하고 있다. 가마의 좌우 측면은 중앙에 창을 낸 것은 후면과 동일하지만 창 하단에 한단의 머름칸을 두고 모란넝쿨무늬를 투각하였으며, 상단에는 한단, 4칸의 머름칸에 국화무늬를 투각하고, 좌우에는 종으로 2단의 머름칸을 마련하여 바깥쪽에는 통판에 모란넝쿨무늬를 투각하고, 안쪽의 3칸 머름청판에는 상단과 같이 국화꽃을 투각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모란꽃을 연꽃으로 지칭하고 있으나 꽃의 형태로 보아 모란꽃으로 판단된다.

전면을 제외한 3면의 창에는 남색계열의 유리구슬과 반투명한 구슬로 육각형의 귀갑무늬패턴으로 엮은 주렴을 설치하였는데 유사한 예는 아직 확인된 바 없고, 조선 후기 불연 중 <순천 송광사 불연(1719)>에서 귀갑무늬가 아닌 능화형의 주렴이 확인된다. 주렴은 현재 부분적으로 탈락이 되었으나 철사 등으로 임시적인 보강을 해 놓았다.

동경(銅鏡)은 예전 사진에서는 측면 한쪽에 주렴에 매달려 있었는데, 지금은 떼어내서 따로 보관하고 있고 주렴에는 동경을 달았던 흔적만 남아 있다. 현재 정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떼어져 있지만 동경 둘레에 주렴에 매달기 위해 끈을 꿰었던 구멍이 남아 있어 불연에서 떨어진 동경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같이 보관되어 있는 또 다른 동경은 크기가 다르고 사진에서 확인이 되지 않아 불연에 달려있던 동경인지 확인할 수 없다.

몸체 아래쪽에는 앞쪽에서 2명, 뒤쪽에서 2명, 총 4명이 들게 되는 가마채, 즉 연대가 갖춰져 있다. 가마채의 형체는 온전하고 가마채 끝의 용두장식도 온전히 남아 있다. 가마채에 연결되어 가마의 계자난간이 둘러져 있다.

몸체와 난간, 연대의 용두조각은 전체적으로 도안이나 조각수법이 뛰어나다. 특히 머름청판의 고부조와 투각기법이 매우 유려하고, 금채 등을 포함하여 단청이 잘 남아 있는 편이다. 몸체와 난간의 목재 결구부분에는 국화형 거멸장식과 세발장식, 감잡이를 박아 놓았고, 장식의 사이사이에는 능화형 금박문을 붙여 놓았다. 이 장식들은 주석으로 밝혀졌으며, 현재는 삭아서 떨어진 부분도 있다.

<불연 2>는 기본적으로는 <불연 1>과 거의 같은 형식이나, 크기가 약간 작고 세

부장식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명문은 가마 몸체 뒷면 머름청판과 바닥 면에서 발견되었다.

<불연 2> 비교적 온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불연 1>보다는 부분적인 훼손이 심하다. 지붕의 구조는 <불연 1>과 같지만 <불연 1>에서는 지붕 표면에 운문명주를 씌운데 비해 <불연 2>는 무문의 명주가 씌워져 있다. 지붕의 네 모서리에 장식된 봉황머리는 현재 하나만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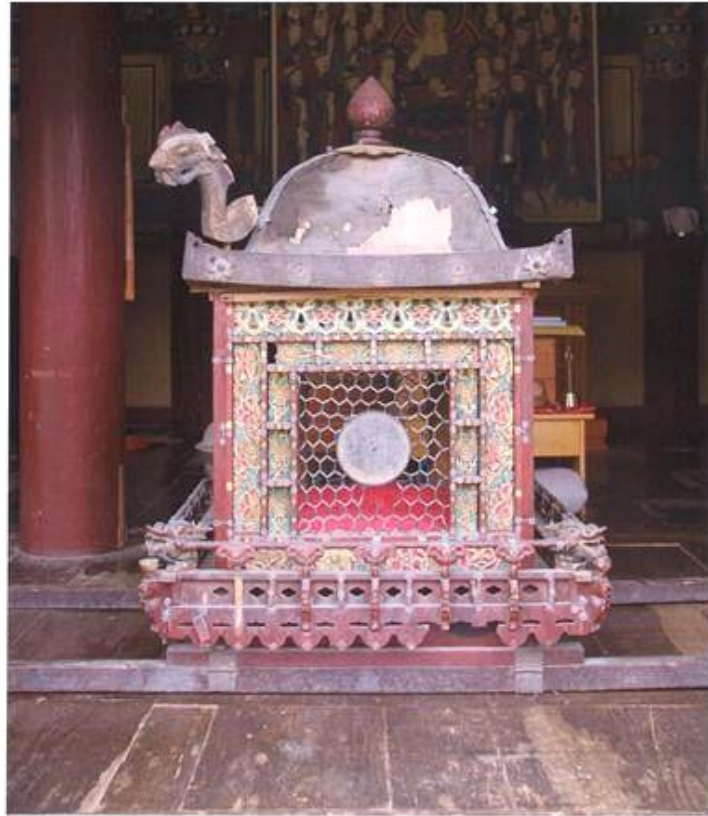
몸체의 머름청판 구조는 <불연 1>과 다르다. 전면과 후면에는 창 의 상하단에 단을 두고 상단에는 쇠코연결무늬를 조각이 아니라 단청으로 그렸고 하단에는 운룡문(雲龍文)을 조각하고 채색하였다. 단청으로 그려진 상단은 안쪽면에 명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후보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화학염료는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가 되었더라도 근대이후 후보된 것은 아니다.

창의 좌우측면에는 종(縱)으로 한단의 머름칸을 마련하고 봉황과 같은 새를 조각하고 채색하였다. 몸체의 좌우측면은 창 의 상단은 전후면과 같이 쇠코연결무늬를 그렸지만 하단과 좌우측면의 머름칸에는 국화문을 조각하고 채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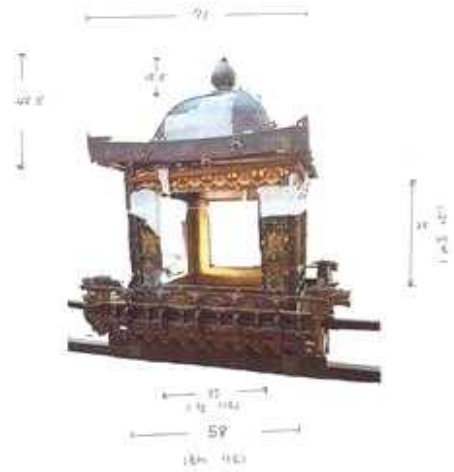
가마 몸체 4면 중 뒷면에만 주렴장식이 일부분 남아 있다. 원래는 <불연 1>과 같이 3면에 주렴이 설치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동경 부착의 유무는 확인되지 않는다.

연대는 난간과 가마채로 이루어져 있으며, <불연 1>과 달리 가마채의 앞부분에만 용두장식이 끼워져 있다.

불연 1









불연 2



		불연 1	불연 2
몸 체	머 름 청 판		
		상단조각	상단 단청
			
		하단조각 - 모란영류무늬	하단조각 - 금류무늬
			
		모란영류무늬조각 - 사물무늬	모란영류무늬조각 - 사물무늬
주 렴			
			

		불연 1	불연 2
난간 · 용두			
			
장석 · 부재			
동경		 <p>무늬의 탈락 있던 동경</p>	 <p>소강 동경 2점</p>

		불연 1	불연 2
지붕	지붕 외형		
	표면 직물		
		3겹 운문명주	홑겹 명주
내부 구조			
	장식	  연꽃, 부연받침      봉황장식	  연꽃, 부연받침      금수장식, 구슬
몸체	측면		

## ○ 내용 및 특징

불연(佛輦)은 불가(佛家)의 시련의식(侍輦儀式)에서 쓰이는 가마이다. 시련의식은 불보살, 사리, 경전, 불패, 영가 등 예배의 대상을 가마에 태워 의식도량으로 모셔 오는 의식으로 靈山齋나 水陸齋 등에서 치러진다. 즉 불연은 불가의 야외법회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의식범구로 조선 후기까지는 사찰의 대규모 불교의식에서 중요한 의식범구였다. 그러나 근대기로 접어들면서 불교의식문화의 축소, 쇠퇴에 따라 불연의 존재는 유명무실해진 상황이 되어 남은 유물들조차 주목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불연의 용도는 왕실에서 왕이나 옥보 등 지엄한 존재를 이운할 때 사용하는 가마와 기본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다. 불연의 기본적인 형식도 왕실에서 사용하던 輦이나 덩과 같으며, 기록에 의하면 왕실에서 발원하는 재회에 왕실의 가마를 보내 사용토록 하기도 하였다. 물론 사찰에서 사용하던 불연은 왕실의 가마와 비교하여 크기나 세부 조형에 차이가 있지만 인문학적 사실이나 공예적인 측면에서도 왕실과의 관련성도 빼놓을 수 없는 연구과제이다.

현재까지 불연에 대한 연구는 불교의례에 관련한 연구와 개별 불연의 조형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최근 석사학위논문이 한편 발표되었다. 이외에는 불교의식구 연구에서 단편적으로 다루어졌다. 이는 아직까지 불교공예품이 학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시류와 목공예품이라는 재질적인 한계로 인해 완형이 드물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그나마 불영사 불연은 일찍이 명문의 존재와 양호한 보존상태로 인해 학계의 주목을 받아온 결과 2007년 1월에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97호로 지정되었다.

지금까지의 불영사 불연에 관한 연구는 조련기 및 연화질, 시주질 등 자세한 목서명의 내용에 따른 인문학적 자료제시와 유물의 현황보고에 그치고 있지만 이 유물을 계기로 기타 조선 후기 불연 유물들이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며, 불영사 불연은 하나의 기준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불영사 불연의 연구에 가장 핵심이 되는 명문은 <불연 1>과 <불연 2>에서 확인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31)</sup>

### <佛輦 ① 底面墨書>

佛影寺造輦記」伏以鳳輦者修說法席之時恒沙諸佛昇」坐來臨之宮殿也豈徒然哉而况鸞鳳辮」飛於盡欄之中黃龍玄湧於青蓮之上十二」眞金爲壁七宝明珠爲戶金絲蛾蝶之結而」垂」於四隅團」明月之鏡懸」于前後綉闥開」而雲影臨軒瑱窓啓而日月照宮偉哉壯哉」赫」乎也世此物成之者阿誰耶學宗禪德是也」戊申之秋袖藏玉軸而行至慶尙

31) 심현용, 「불영사 불연」, 『미술자료』, 72·73호(국립중앙박물관 2005), pp. 123~132 참조.



道蔚山府」也風飄雲衲於萬落千村而募緣積善之家欲」成鴻功而良工不遇空負一歲也  
己酉之春忽遇良」工而向入宜春北嶺圓寂山大乘庵始成矣未斷」功而庚戌之春以斷功  
而結手也可謂非人之所致乃天」之所爲也古云天運循環無往不復誠可謂此也此非」積  
德能施者也伏願造輦之後鬼神攸護龍天守伏」三灾五害絶歷而入不六時天樂續紛而自  
來重暉」佛日再振禪風云

施主秩」慶尙道梁山地 供養布施主朴守億」九月」兩主」蔚山地 供養施主金春山兩  
主 供養施主李林」

緣化秩 廣玄比丘性悅比丘德眞比丘

供養主」能蘭比丘己敏保体 化主學宗比丘」引勸大德惠能大師比丘」己酉年爲始庚戌  
年四月畢造」康熙九年庚戌四月畢功」

삼가 봉연(鳳輦)이라 하는 것은 법회를 열 때 수많은 부처들이 올라앉아 궁전으로  
내림(來臨)하던 것이라. 그러나 어찌 한갓 그러한 것이기만 하랴. 향차 난봉(鸞鳳)  
이 꿈틀대며 난간 중에 날아오르고, 황룡(黃龍)이 용솨음치며 청련(靑蓮) 위로 솨  
아오르며, 십이진금(十二眞金)으로 벽을 장식하고, 칠보명주로 지붕을 엮고, 둥그  
런 명월과 같은 거울이 앞뒤로 걸려 있으며, 수놓은 작은 문을 열면 운영(雲影)이  
누각에 내리고, 작은 보석으로 장식한 창을 열면 일월이 궁전을 비추는 것 같음  
이랴. 위대하고 장함이요, 찬연히 빛남이로다.

세상에 이 물건을 만든 자가 누구인가. 학종선덕(學宗禪德)이 바로 이것이로다.  
무신년 가을에 소매 속에 옥축(玉軸)을 갈무리하고 길을 떠나 경상도 울산부에 이  
르렀다. 온갓 마을에 바람이 거세고 구름이 젖어들거늘 적선지가(積善之家)의 선  
연(善緣)을 맺게 하고, 홍공(鴻功)을 이루고자 했지만 좋은 장인을 만나지 못해 한  
세월을 그냥 보냈다. 기유년 봄에 홀연히 좋은 장인을 만났으니, 그때 마침 춘북  
령 원적산 대승암에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다. 공업을 결정하지 못하  
다가 경술년 봄에 결단을 내려 서로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는 가히 사람의 소치가 아니라 하늘이 하는 바라. 옛날에 이르기를 대운(大  
運)이 도와 두루 미치지 못하면 정성만 거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가히 이를 두고 하는 말이라니, 이는 덕을 쌓고 능히 베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삼가 원컨대 불연을 조상한 후에 귀신이 용을 호위하여 하늘에서 지키고, 삼재  
(三灾)와 오해(五害)가 모두 끊어져 들어오지 못하며, 육시(六時)와 천락(天樂)이 무성  
하게 절로 내림하여 불일(佛日)이 거듭 빛나고, 선풍(禪風)이 다시 떨치게 하소서.

시주질, 경상도 양산 공양보시주 박수억 9월 양주, 울산 공양시주 김춘산 양주 공양시주 이림.

연화질, 광현비구 성열비구 덕진비구, 공양주, 능간비구 기민보체, 화주 학종비구, 인권대덕 혜능대사비구.

기유년에 시작하여 경술년 4월에 완성함. 강희 9년 경술 4월에 공력을 마침.

<佛輦② 底面墨書>

施主秩」蔚山供養大施主韓貴男兩主」蔚山鄭戒上兩主」蔚山許海立兩主」蔚珍南戒目兩主」蔚山愛今保体」寺內秩」智淳」太敬」道崑」海稔」法玄」敬旭」性珠」性眞」首僧卓倫」三寶思哲」化主學宗」康熙九年庚戌四月日畢」

시주질, 울산공양대시주 한귀남양주, 울산 정계상양주, 울산 허해립양주, 울진 남계목양주, 울산애령보체.

사내질, 지순, 태경, 도은, 해임, 법현, 경욱, 성주, 성진, 수승 탁륜, 삼보 사철, 화주 학종.

강희 9년 경술 4월 일 마침.

이상 명문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조련기에서 학종비구가 좋은 장인을 만나 1669년부터 1670년에 걸쳐 불연을 제작하였으며, 불연의 명칭을 ‘봉연(鳳輦)’이라 칭하고 있는 점, 그리고 봉황과 황룡장식, 명주를 싣은 지붕, 거울장식, 주렴장식 등 구체적인 불영사 불연의 조형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시주질과 연화질을 통하여 단편적이거나 시주자와 제작자 등의 성격과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연화질에 등장하는 승장들이 불영사 불패나 무주 백련사 불연의 제작과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불교공예품의 조사, 연구가 축적된다면 진전된 연구도 기대된다.

다음으로 불영사 불연에서 주목할 수 있는 점은 바로 조형요소와 조형미이다. 먼저 <불연 1>과 <불연 2>는 조선 후기 불연 유물들 중 비교적 완형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 편이며, 특히 <불연 1>은 훼손 부위가 있지만 원형을 추정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는 상태로 좋은 편이다. 또한 2점 모두 과학조사결과 화학염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 유물들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며 후

보가 있었어도 그 시기가 매우 올라간다는 것을 말해준다.

<불연 1>과 <불연 2>는 기본적인 형태와 제작수법, 청판조각과 장식무늬, 장식의 재질이나 형태 등 조형요소에 있어서 동일성을 보임에 따라 2점이 같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불영사 불연 2점은 전각형의 가마로 대나무로 엮어 만든 궁륭형 지붕에 운문단을 씌우고 중앙에 연봉을 장식하였다. 몸체에는 화려한 조각과 주립으로 창을 장식하고 용두와 봉황조각으로 장식하였으며, 주철바탕에 화려한 단청으로 장식하였다.

제작 당시에는 짜임새 있는 목구조와 화려한 조각과 단청, 그리고 금색으로 번쩍이는 황동장식, 현재는 유실되어 없지만 유소 등으로 장식하여 매우 화려했을 것이다. 이는 뛰어난 솜씨를 지닌 장인과 성대한 불사를 통해 이루어진 불교목공예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

울진 불영사에는 2점의 불연이 남아 있다. 지금은 두 불연 모두 불영사 성보박물관에 수장, 전시 중이나 예전에는 칠성각과 황화실에 보관하고 있었다.

불연은 궁중에서 사용되는 가마와 마찬가지로 부처의 위패나 영가의 위패를 이운할 때 사용했던 의식용 佛具이다. 불가에서 사용된 불연의 명칭 내지 용도와 관련된 기록으로 ‘鳳輦(불영사, 1670년, 실물)’, ‘金輦(청도 용천사, 1674, 실물)’, ‘中下輦(청도 운문사, 1688년, 실물)’, ‘中下壇輦(밀양 표충사, 1688년, 실물)’, ‘上輦下輦三輦(부산 범어사, 1711년, 실물)’, ‘上輦(고성 옥천사, 1754년, 실물)’, ‘上壇輦(기장 장안사, 1760년, 실물)’, ‘中壇輦(기장 장안사, 1760년, 실물)’, ‘下輦(김해 은하사, 1715년, 실물)’, ‘上位玉輦(순천 송광사, 1718년, 실물)’, ‘三輦’(1634년, 전주 송광사, 기록), ‘三壇輦(고창 선운사, 1707년, 기록)’ 등 다양하다. 봉연이나 금연같이 불연의 장엄 특징을 ‘輦名’으로 사용한 것도 있지만, 대체로 수록재 같은 儀式때 三壇勸供을 모시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남아 있는 명칭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불연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구례 천은사 불연으로, 이 불연은 1643년에 조성되었다는 목서명을 남기고 있으며 몸체와 지붕 등이 결실되어 하부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기년명 불연은 20여점 알려져 있고, 형태가 완전하면서 조성연대가 올라가는 것은 불영사 불연이다.

불영사에 유존되고 있는 두 기의 불연은 모두 같은 시기, 같은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전체적인 형태와 크기는 흡사하지만 세부표현에서 약간 차이가 난다. 바닥면에 조연기가 있는 것은 본문 중에 봉연이라고 칭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편의상 이를 ‘鳳輦’으로 지칭하겠다.

불영사 불연은 하부와 몸체에 남아 있는 조연기에 의하면 化主 學宗의 노력으로

울산과 양산지역의 시주자들과 불영사 승려들이 동참하여 1670년에 제작된 것이다. 조연기에는 불연을 제작하게 되는 시절의 인연과 사연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 ○ 불연①(봉연)

우선 鳳輦은 세부표현이 치밀하고 하부부처 지붕까지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큰 결손 없이 보존상태가 비교적 온전하고, 다른 불연은 이 보다 상태가 좋지 못하며 일부 부재는 수리 교체되었다. 불연의 구성과 형태는 일반적으로 궁중의 가마와 같다. 구성은 하부와 몸체,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불영사 2기의 불연도 이와 같은 구성을 잘 따르고 있다.

우선 불연을 살펴보면, 하부에는 좌우에 나란히 긴 들채(長杠)를 나란히 놓아 손잡이 겸 몸체를 받을 수 있다. 이 長杠은 운반할 때 손잡이와 불연의 몸체를 지탱하는 받침대 역할을 한다. 들채의 끝부분 네 곳에는 용머리를 장식하였다. 긴 부재를 두고 중앙에 판재를 깔고 몸체를 만들었다. 몸체의 바닥면에는 불연의 제작과 관련된 <불영사조연기>가 남아 있다. 조연기는 세로로 먹줄을 그어 칸을 만들고 그곳에 해서체로 정갈하게 적었다.

중앙부에는 평상처럼 마루를 깔고 바닥을 만들었다. 마루의 하부에는 조성기가 목서로 남아 있다. 바닥의 상면에는 난간과 몸체를 설치하였다. 난간은 화려한 모습인데, 우선 난간 하단의 아래쪽은 여의두문의 영락처럼 늘어뜨렸다. 하부에는 돌아가며 대롱모양의 방울을 달았다. 하부 각 면마다 5개의 계자각을 대고 그 위에 하엽동자를 설치하였으며, 예쁘게 주름 잡은 하엽은 공손히 손을 모아 돌란대를 받쳐 든 모습이다. 난간 머름판에도 구름모양의 풍혈을 뚫어 멋스럽게 처리하였다. 난간 네 모퉁이 엄지기둥 위의 난간범수로는 용머리를 선택하였으며, 용이 입을 벌려 양쪽에서 돌아오는 난간대를 물고 있는 형상이다. 용은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생동감 넘쳐 조각솜씨가 우수하다. 난간의 안쪽에는 기둥을 세우고 몸체를 설치하였다. 몸체는 사방 각 1칸으로 각기둥을 사용하였다. 몸체의 표면에는 머름대와 머름동자로 결구하여, 그 사이는 머름청판을 끼워 벽체를 만들었고, 중심부는 창문을 내었다. 머름대의 표면은 크고 작은 단추모양을 반복해서 새겨 넣었고, 머름대와 머름동자의 결구는 양쪽에 국화문 머리를 가진 감잡이로 고정하였다. 벽면은 머름대와 머름동자를 이용해 내외 두 부분으로 구획하고, 문양을 새겨 넣었다. 좌우측면은 내외 2개로 구획을 나누고 내측은 국화문을, 외측은 모란문을 새겼다. 전·후 면은 좌·우 측면보다 구획이 줄어들었는데, 위쪽은 한단 아래쪽은 2단으로 구획하였다. 위쪽과 아래쪽 하단은 머름통판으로 모란꽃을 새겼고, 위쪽은 꽃잎 위에 꽃을 표현하고, 꽃과 꽃 사이는 여의모양의 고리로 연결한 모양으로 조각하였다. 아래쪽 하단의 머름통판에는 모란꽃을 새겼고, 상단은 머름동자로 다섯 면

으로 머름판을 분할하고, 각 면에는 국화꽃을 조각하였다. 좌우측은 머름판은 머름동자로 삼분하고 역시 국화문을 조각하였다.

사방 창호에는 주렴을 그물망처럼 달았다. 주렴은 오색영롱한 유리구슬을 철사에 꿰어 귀문(龜文)을 만들어 거물망처럼 촘촘히 연결하였다. 2007년도에 촬영한 사진상에는 한쪽 측면에 국화문 明鏡을 매단 것이 확인된다. 이는 목서기 중에 ‘둥그런 명월과 같은 거울이 앞뒤로 걸려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두 곳에 거울을 매단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국화문 거울 외 크기가 약간 큰 운봉문 동경이 있다. 이들 주렴은 군데군데 소실되고 끊어진 부분이 많다. <국조오례의> 중 궁대련 조에는 ‘주렴(朱簾)을 사면에 드리우고, 녹색 실[絲]로써 엮어서 귀문(龜紋)을 만들고, 가에는 녹색 저사로써 선[緣]을 두른다.’라고 되어 있다. 불영사 불연은 전반적으로 <국조오례의>에 실려 있는 내용과 형태를 대체로 잘 따르고 있지만, 주렴은 의궤와 달리 구슬을 사용하여 龜文을 만든 점이다. 부재와 부재의 이음 부위는 아령모양의 꽃머리형 감잡이 또는 세발 감잡이로 야무지게 고정하였다.

지붕은 활처럼 휘어진 들보를 중앙으로 모아 궁륭형 지붕을 이루도록 하였다. 천장은 대나무발을 촘촘히 엮어 단정하고 세련되게 뼈대를 잡고, 그 위를 운보문 비단천을 두겹 중첩해서 발랐다. 추너마루는 들보의 곡선을 따라 동판을 덧대고 네 곳에 별도로 만든 銅花을 꽃았다. 처마에도 ningkul문을 타출한 동판을 붙이고,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하며 5개의 銅花을 꽃았으나 일부는 결실하였다. 지붕의 꼭대기에는 연봉을 꽃았고, 지붕의 네 모퉁이에는 鳳頭를 꽃아 장엄하였다. 봉은 고리를 물고 있는데 이곳에 유소를 달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봉두 장식으로 인하여 鳳輦이라고 명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도 1 불영사 봉연



도 2 부분

## ○ 불연②(황화실)

두 번째 불연은 불영사 성복박물관으로 옮기기 전에는 황화실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鳳輦과 같은 시기에 같은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지만, 규모나 세부 의장이 불연보다 소략하다. 세로 들 채의 한 쪽 면에만 龍頭를 장식하였고, 다른 한쪽에는 장식이 없고 가로 들채(橫杠)가 한 곳에 남아 있다. 이외 이 불연과 마찬가지로 형태와 구조에서 거의 같지만 규모 약간 작고 세부표현에서 다소 차이가 난다. 즉 불연의 몸체는 내·외구로 구획하여 국화와 모란문을 새겼으나 측면의 구획이 하나로 줄었다. 몸체의 상단 머름판은 여의두문으로 단청하여 마치 장막을 드리운 효과를 의도한 듯 보인다. 원래 이곳도 불연과 마찬가지로 꽃과 꽃 사이를 여의두문 고리로 연결되도록 조각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의 것은 후대 수리후 단청으로 대체한 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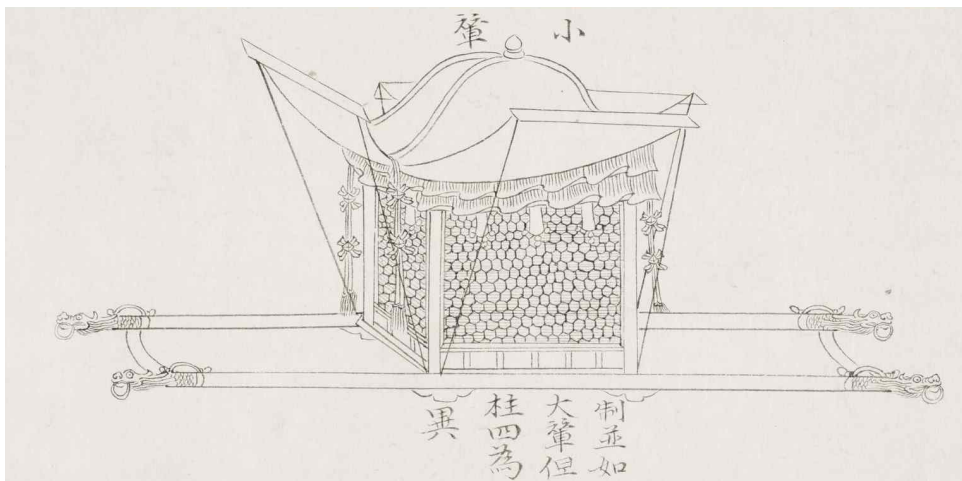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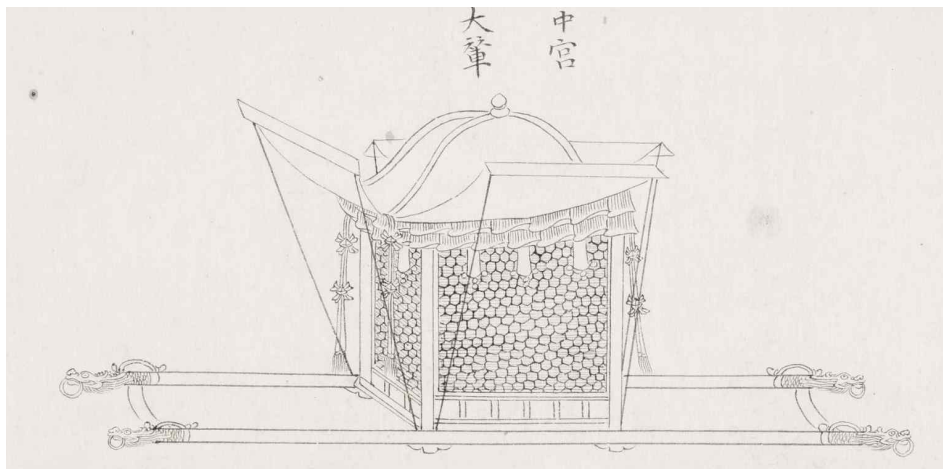
몸체의 구성은 불연에 비해 소략하다. 앞·뒤 벽체의 구성도 정확한 대칭을 이루고 있지 않다. 후면 하부는 머름대로 상·하 2단으로 구분하고, 각각 어긋나게 머름동자로 삼분할하였다. 윗 단은 국화문을 새겨 넣었고, 아랫단은 바탕에 朱漆한 다음 황색으로 연화질을 써넣었다. 좌우측면의 하부 머름판은 통판으로 마감하고 이곳에는 구름 속을 비행하는 두 마리 용을 마주보게 조각하였다. 문 주변의 머름판에도 구름 속을 날아가는 봉황과 화려한 색감을 지닌 꽃무늬를 새겨 넣어 장엄을 극대화 하였다. 창호에는 鳳輦과 마찬가지로 주렴을 달았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남아 있는 부분이 없다. 지붕은 활처럼 휘어진 들보로 궁륭형 지붕을 이루고 있으며, 안쪽에는 대나무를 촘촘히 엮어 천장을 만들었고 위에는 종이와 비단천을 발랐다. 지붕의 꼭대기에는 궁중연의 호리병과 달리 연봉을 꽂았고, 네 모퉁이에는 봉황머리 장식을 꽂았다. 목서에는 鳳輦처럼 불연에 대한 명칭이 없지만, 불연의 조연기와 제작배경이 같으므로 이 불연도 鳳輦으로 불렸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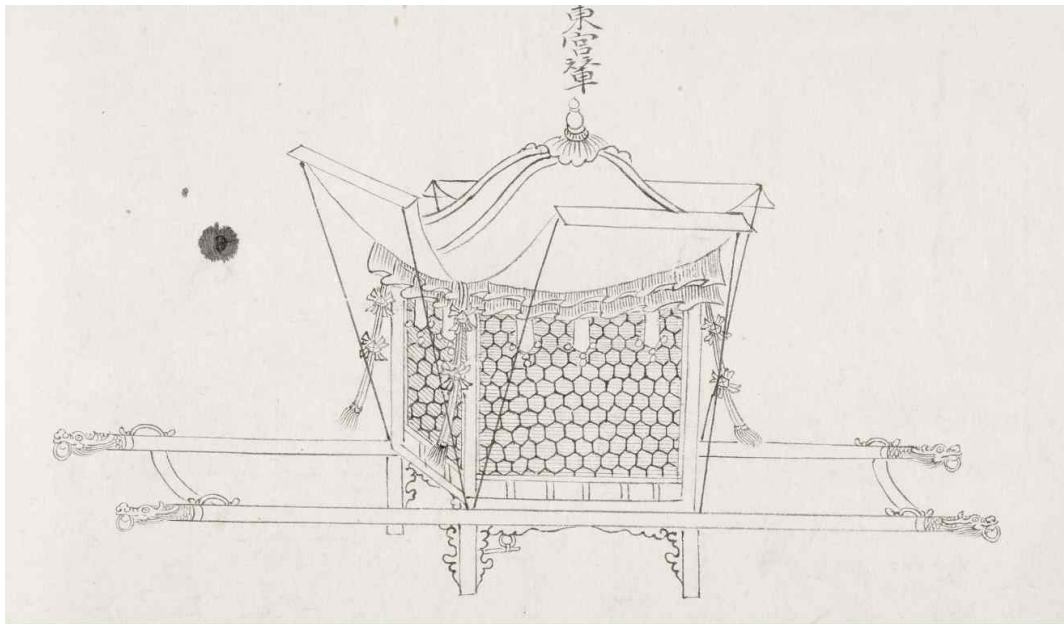


도 2 불영사 불연②(황화실 불연)

두 불연은 化主 學宗스님의 노력으로 조성된 것이다. 불연의 만든 장인은 확인되지 않지만, 통상 연화질에 증명, 화원, 화주 등 불연제작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승려들이 기재된다. 현재 봉연의 <조연기>에는 “緣化秩 廣玄比丘 性悅比丘 德眞比丘, 供養主 能簡比丘 己敏保体, 化主 學宗比丘, 引勸大德 惠能大師比丘” 순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른 불연의 머름관 朱漆黃書記에는 “緣化秩 廣玄比丘 性悅比丘 德眞比丘, 供養主 能澗比丘 小者己敏, 化主學宗比丘, 引勸大德” 순으로 동일하다. 연화질에 해당하는 승려 3인은 분명한 소임이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불교미술의 예와 같이 증명과 화원으로 구성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특히 연화질의 성열비구는 무주 백련사 불연을 만든 幸淸比丘와 나란히 등장한다. 행청은 보물 제 1239호로 지정된 <감로도>(1681년)에서는 畫員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연화질 다음에 화원이라는 소임을 표기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불연을 제작한 화원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불영사 불연 寺內秩에 등장하는 惠能, 卓倫, 思撤도 <감로도>에서도 확인되기 때문에, 연화질에 등장하는 승려들은 화원일 가능성이 높다.

<세종실록 오례>에 수록된 대련. 소련, 동궁련





<佛影寺造輦記>

①

佛影寺造輦記

伏以鳳輦者修說法席之時恒沙諸佛昇  
 坐來臨之宮殿也豈從然哉而况鸞鳳辮  
 飛於畫欄之中黃龍玄湧於青蓮之上十二  
 眞金爲壁七宝明珠爲戶金絲蛾蝶之結而  
 垂、於四隅團、明月之境懸、于前後綉闌開  
 而雲影臨軒瑣窓啓而日月照宮偉哉壯哉  
 赫、乎也世此物成之者阿誰耶學宗禪德是也  
 戊申之秋袖藏玉軸而行至慶尙道蔚山府  
 也風飄雲納於萬落千村而募緣積善之家欲  
 成鴻功而良工不遇空負一歲也己酉之春忽遇良  
 工而向入宜春北嶺圓寂山大乘庵始成矣未斷  
 功而庚戌之春以斷功而結手也可謂非人之所致乃天  
 之所爲也古云天運循環無往不復誠可謂此也此非  
 積德能施者也伏願造輦之後鬼神攸護龍天守伏  
 三灾五害絕歷而入不六時天樂繽紛而自來重暉  
 佛日再振禪風云  
 慶尙道梁山地 供養布施大施主 朴守億  
 施主秩  
 九月 兩主



蔚山地 供養施主 金春山兩主 供養施主 李林」

緣化秩 廣玄比丘 性悅比丘 德眞比丘 供養主」

能簡比丘 己敏保休 化主 學宗比丘」

引勸大德 惠能大師比丘」

己酉年爲始庚戌年四月畢造」

②

康熙九年庚戌四月畢功

삼가 鳳輦이라 하는 것은 범회를 여는 때에 수많은 부처들이 올라앉아 궁전으로  
來臨하던 것이다. 그러나 어찌 한갓 그러한 것이기만 하랴! 향차 鸞鳳이 꿈틀대면  
난간 중에 날아오르고, 황룡이 용솟음치며 靑蓮 위로 솟아오르며, 十二眞金으로  
벽을 장식하고, 칠보명주로 지붕을 엮고, 금사가 불나방이 영긴 듯 네모서리 치렁  
치렁하고 둥그런 명월과 같은 거울이 앞뒤로 걸려 있으며, 수놓은 작은 문을 열면  
雲影이 누각에 내리고, 작은 보석으로 장식한 창을 열면 일월이 궁전을 비추는 것  
같음이라. 위대하고 장함이요, 찬연히 빛남이로다. 세상에 이 물건을 만든 자가 누  
구인가. 學宗禪德이 바로 이것이로다. 무신년(1668, 현종9) 가을에 소매 속에 玉軸  
을 갈무리하고 길을 떠나 경상도 울산부에 이르렀다. 온갖 마을에 바람이 거세고  
구름이 젖어들거늘 積善之家의 善緣을 맺게 하고, 鴻功을 이루고자 하였지만 좋은  
장인을 만나지 못해 한 세월을 그냥 보냈다. 기유년(1669) 봄에 마침 춘복령 원적사  
대승암으로 들어가던 때에 마침 홀연히 좋은 장인을 만나게 되었으니 공업을 결  
정하지 못하다가 경술년(1670) 봄에 비로소 손을 놓게 되었다. 이는 가히 사람의  
소치가 아니라 하늘이 하는 바라, 옛날에 이르기를 大運이 도와 두루 미치지 못하  
면 정성만 거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엿드려 원하건대 輦을 만든 후에  
귀신이 용을 호위하여 하늘에서 지키고, 三災와 五害가 모두 끊어져 들어오지 못  
하여, 六時와 天樂이 무성하게 절로 來臨하여 佛日이 거듭 빛나고, 禪風이 다시  
떨치게 하소서!

시주질(이하 생략)

기유년(1669, 현종 10)에 시작하여 경술년(1670) 4월에 완성하였다.

강희 9년 경술 4월에 공력을 마쳤다. (최응천, 「불영사 소장 불연과 불전패에 관한 고찰」, 『강좌미술사』 48,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7, pp-252-253 재인용)

불연②

바닥묵서

施主秩

蔚山供養大施主韓貴男兩主

蔚山 鄭戒上兩主

蔚山 許海立兩主

蔚珍南 戒目兩主

蔚山 愛今保体

寺内秩

智淳

太敬

道豈

海稔

法玄

敬旭

性珠

性眞

首僧 卓倫

三宝 思哲

化主 學宗

康熙九年庚戌四月日畢

명문 ②(몸체 머름판 명문) 붉은 바탕에 황색 글씨로 썼다.

千鷲山佛

影寺奉輦

施主秩

慶尙道

梁山地供

養布施

大施主

朴守億

女九月 兩主

蔚山地供養

大施主金春山

兩主

供養施主李林  
緣化秩  
廣玄比丘  
性悅比丘  
德眞比丘  
供養主  
能潤比丘  
小者己敏  
化主學宗比丘  
引勸大德  
惠能大師  
己酉年爲始  
庚戌四月畢

#### ○ 참고문헌

- 심현용, 「佛影寺 佛輦」, 『미술자료』 72·73, 국립중앙박물관, 2005. 12.  
김순아, 「울진 불영사 불연 고찰」, 『蔚珍史香』 2, 울진향토문화연구회, 2009  
최응천, 「佛影寺 소장 佛輦과 佛殿牌에 대한 고찰」, 『강좌미술사』 48, 한국불교 미술사학회, 2017  
林昭延(如瑞), 「朝鮮 後期 佛輦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20.



#### ○ 현 상

<불연 1>은 목재결구 된 가마형태로 가마채까지 온전하나, 유소 등 장식은 대부분 유실되었고, 주립 장식이 일부만 남아 있음.(<불연 1>의 경우, 몸체 앞면창을 제외한 3면 창에 주립장식이 각각 일부가 남아 있으며, <불연 2>는 몸체 뒷면창에 주립장식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음) 지붕 표면에 천이 박락되었고, 본래 4개였던 봉황조각도 일부가 소실된 상태이나, 전체 형태를 온전히 갖추고 있고 바닥면에 제작배경과, 제작자, 제작시기를 명시한 명문이 명확히 남아 있음. 주립부분에 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동경 1개가 전하고 있음. 가마 몸체에는 국화문을 비롯하여 화려한 조각과 채색이 되어 있음.

<불연 2>는 <불연 1>과 거의 같은 형식이나, 규모나 장식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불연 2> 역시 박락이나, 유실된 부분도 보이나 전체 형태를 비교적 온전히 갖추고 있으며, 가마 몸체 뒷면 머름청판과 바닥면에 또렷하게 제작자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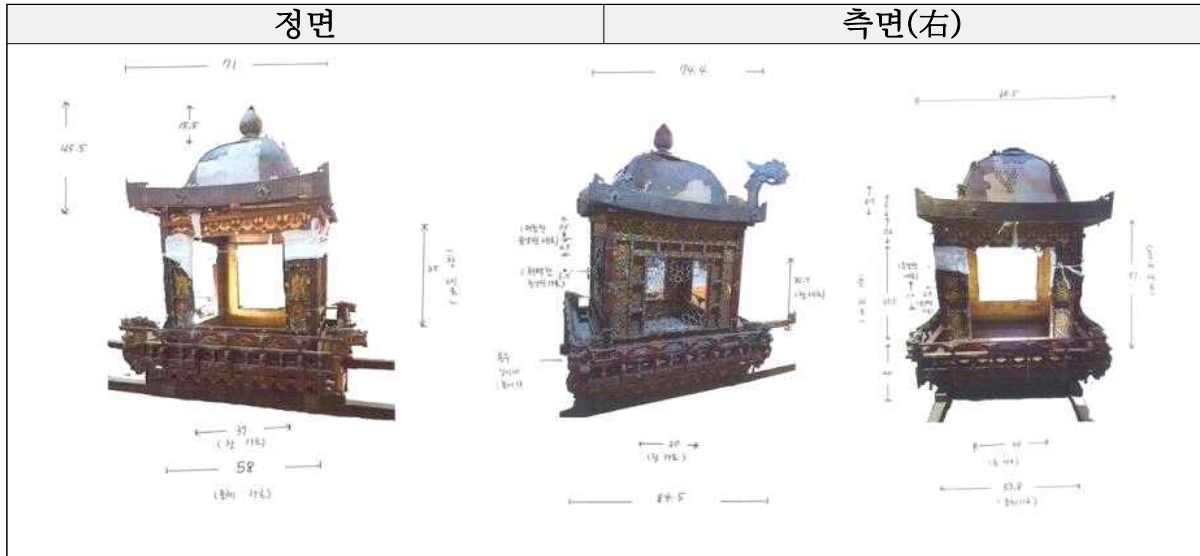
제작시기를 나타내는 명문이 남아 있음. 가마몸체에는 국화문 외에 용문과 봉황문 등 다양한 문양이 조각되고 채색되어 있음.

<불연 1>, <불연 2> 모두 같은 제작연도 1670년의 명문이 남아 있으며, 제작 당시의 모습을 비교적 온전하게 갖추고 있는 예임.

<불연 1>

정면	측면(右)
<p>(세부 치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뒷면 창크기: 37(가로) 31.5(세로)/ 주림 구멍크기(3x3)</li> <li>② 가마몸체 앞면폭: 63 측면폭: 64/ 가마몸체의 쇠목과 동자주: 1.2</li> <li>③ 가마몸체 기둥: 2.4x2.4</li> <li>④ 가마채 용두: 길이 17/ 높이 8.8, 가마 난간 용두: 길이 10/ 높이13</li> <li>⑤ 가마채(모죽임함): 총길이-297 너비-4.2(끝부분 10cm가량은 너비가 2.5로 줄어들음) 두께 4.5</li> </ul>	
	<p>좌측면 주림에 달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경 (지름 14-15cm)</p>

<불연 2>



(세부 치수)

- ① 뒷면 창크기: 34.3(가로) 31.9(세로)
- ② 가마몸체의 앞면폭: 53.8 측면폭 : 58 / 가마몸체의 쇠목과 동자주: 1.0
- ③ 가마몸체 기둥: 2.3x2.3
- ④ 가마채 용두: 길이 16.5/ 높이 4
- ⑤ 가마채(모죽임함): 총길이-301

○ 내용 및 특징

1. <불연 1>과 <불연 2>는 같은 시기에 한 세트의 제작된 것으로 판단됨.
  - 1) 가마 두 채에 모두 1670년 제작의 명문이 남아 있음.
  - 2) 형태와 제작 수법, 장식이 흡사함.
    - ① 2점 모두 지붕, 몸체, 난간과 가마채의 3부분으로 분리되는 구조임.
    - ② ‘가마 몸체’와 ‘난간과 가마채’의 연결부분 혹은 난간의 연꽃장식 결구 등 육안으로 확인된 부분의 결구방법이 같음.
    - ③ 금속장식은 주석이나 황동 등으로 만들어졌으며, 2점 가마에 사용된 금속 장식 형태가 같음. 예를 들어, 난간에 연꽃장식을 고정한 주석으로 만들어진 감잡이의 경우를 보면, 가마 2점 모두 같은 형태에 7.2cm 길이로 통일되어 있어, 같은 시기에 제작되었음을 추정 할 수 있음.
    - ④ 지붕도 2점 모두 대나무를 엮어 궁륭형으로 만들고, 그 위에 종이와 천으로 발랐음.
2. <불연 1>과 <불연 2>의 형태는 매우 흡사하나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는데,

아직 명확한 연구 결과는 없으나, 이것은 시련의식에서 각 가마의 용도 차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 1) 높이와 폭등의 치수가 <불연 1>이 <불연 2>와 비교하여, 10cm 내외의 차이를 보임. 세부적인 치수에서도 쇠목과 동자주가 <불연 1>은 1.2cm로 통일되어 있고, <불연 2>는 1.0cm 정도로 통일되어 있음. 무게는 <불연 1>이 34.10kg이고, <불연 2>는 30kg임.
  - 2) <불연 1>은 가마 몸체 전체를 양각으로 장식하였는데, <불연 2>는 가마 몸체의 문양대 중, 맨 위 머름 청판은 양각 조각이 아니고 그림으로만 그려져 있음. 특히 이 그림으로 장식된 머름청판 안쪽부분을 보면, 다른 부분들과 다르게, 천이 발라 있지 않아서, 그림으로 장식된 머름청판은 後輔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으나, 과학조사를 통해 화학염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아 후보되었다 하더라도 오래전에 된 것으로 보임.
  - 3) <불연 1>은 대나무로 엮은 지붕에 종이를 붙이고, ‘운문황색직물’ 3겹을 겹쳐 붙임. <불연 2>는 종이에 무문의 직물 1겹을 덧붙임
3. 가마 몸체의 세부 치수를 규격화하였고 조각과 금속의 장식성을 살려, 단정하면서도 화려한, 완성도 높은 목조공예품임.
- 1) <불연 1>의 가마몸체 세부 치수를 보면, 기둥은 2.4/ 쇠목과 동자주는 모두 1.2/ 국화문양 구획부분은 앞면과 뒷면은 6.5x 10으로, 양 측면은 5.5x10 으로 규격화 되어 있음. <불연 2>는 <불연 1>보다 각 사이즈가 약간 작고 세부 치수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확인되나, 거의 규격화된 치수로 각 부위를 제작하였음.
  - 2) 상부의 금속판 등은 구리와 아연이 섞인 황동으로 제작하였음. 그리고 가마 몸체 부분 결구 구조에 사용된 꽃문 세발장식이나, 난간에 부착된 감잡이는 모두 주석으로만 만들어져 현재 결실되거나 끊어진 경우가 많지만, 제작 당시에 황동과 주석의 금속장식은 금과은 색으로 빛나 채색장식과 어우러져 매우 화려한 외관을 지녔을 것임. 그 외 경첩이나 못, 가마몸체가 얹혀 고정되는 부위 등 단단한 결구가 필요한 부분에는 철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제작되었음.

<세부 사진>

세부	불연 1	불연 2
<p>지붕 위에 바른 천(불연 1에 무늬가 있는 '운문의 직물'이 확인됨)</p>		
<p>가마 지붕 내부</p>		
<p>가마 몸체 장식(〈불연 1〉은 꽃문위주이며, 〈불연 2〉는 용 봉문 등 다양함)</p>		
<p>난간 결구부분 (난간 연꽃문조각은 넓은 축으로 난간에 통기위한 결구인데, 불연 1,2 모두 같은 구조방법임)</p>		

○ 문헌자료

<명문 사진>

	불연 1	불연 2
바닥면		
가마몸체	-	

<佛輦 ① 底面墨書>

佛影寺造輦記「伏以鳳輦者修說法席之時恒沙諸佛昇」坐來臨之宮殿也豈徒然哉而況鸞鳳辯」飛於盡欄之中黃龍玄湧於青蓮之上十二」眞金爲壁七宝明珠爲戶金絲蛾蝶之結而」垂」於四隅團」明月之鏡懸」于前後綉闌開」而雲影臨軒瑱窓啓而日月照宮偉哉壯哉」赫」乎也世此物成之者阿誰耶學宗禪德是也」戊申之秋袖藏玉軸而行至慶尙道蔚山府」也風飄雲衲於萬落千村而募緣積善之家欲」成鴻功而良工不遇空負一歲也己酉之春忽遇良」工而向入宜春北嶺圓寂山大乘庵始成矣未斷」功而庚戌之春以斷功而結手也可謂非人之所致乃天」之所爲也古云天運循環無往不復誠可謂此也此非」積德能施者也伏願造輦之後鬼神攸護龍天守伏」三灾五害絶歷而入不六時天樂繽紛而自來重暉」佛日再振禪風云 施主秩 慶尙道梁山地 供養布施主朴守億 九月 兩主 蔚山地 供養施主金春山兩主 供養施主李林 緣化秩 廣玄比丘性悅比丘德眞比丘 供養主 能蘭比丘己敏保体 化主學宗比丘 引勸大德惠能大師比丘 己酉年爲始庚戌年四月畢造 康熙九年庚戌四月畢功」

<佛輦② 底面墨書>



施主秩」蔚山供養大施主韓貴男兩主」蔚山鄭戒上兩主」蔚山許海立兩主」蔚珍南戒目兩主」蔚山 愛今保体」寺內秩」智淳」太敬」道豈」海稔」法玄」敬旭」性珠」性眞」首僧卓倫」三寶思哲」化主學宗」康熙九年庚戌四月日畢」

\* 이상의 명문 내용 해석은 심현용, 「불영사 불연」, 『미술자료』, 72·73호(국립중앙박물관 2005) 참조.

추가) <불연 2>의 뒷면 머름 청판에는 <불연 1>에서 보았던 연화질을, 붉은색 바탕 위에 금색선을 구획하고, 그 안에 금색의 글씨로 적었다. 연화질의 ‘성열비구(性悅比丘)’의 이름이 2점 가마에서 모두 보이는데, 성열비구는 1686년 백련사의 불연 제작에도 참여한 인물로 주목되는 이름이다.

## □

### ○ 형 식

불연①②는 같은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규모와 투각장식에서 격을 달리한 점을 참조할 때 불연①은 상단용, 불연②는 중단용이라 추정된다. 2점 모두 받침대·몸체·지붕의 세 부분을 분리·조립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받침대는 누각 형태로 만들어 그 위에 몸체를 얹으면 자연스럽게 난간이 형성되는 구조를 갖추었고, 받침대에서 이어지는 긴 가마채를 앞뒤로 2개씩 두었다. 몸체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사방에 큰 창이 나 있으며, 지붕은 둥글게 반원을 이루었다.

### ○ 조성연대

불연의 받침대인 연대(輦帶) 아래에, 붉은색 바탕에 묵서로 각각 조연기(造輦記)와 시주질·연화질 등을 써놓았다. 불연①에는 ‘己酉年爲始庚戌年四月畢造 康熙九年庚戌四月畢功(기유년에 시작하여 경술년 4월에 완성함. 강희 9년 경술 4월에 공력을 마침), 불연②에는 ‘康熙九年庚戌四月畢’이라 쓰여 있어, 두 점 모두 강희 9년인 1670년(현종 11)에 조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 현 상

2점의 불연은 기본적인 구성과 재질 등이 동일하다. 몸체와 받침대의 외부 면은 모두 바탕을 붉은색으로 칠하였다. 몸체의 바닥은 3개의 널빤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4면의 벽체 각 연결부위에는 국화문양의 ‘가’자 장식으로 장식하였다.

【 불연① 】 · 받침대 : 몸체를 얹어 들고 갈 수 있도록 만든 받침대는 사각의 누각 형태이며, 앞뒤로 가마채가 연결되어 있다. 가마채 4개의 끝에는 여의주를

문 용두(龍頭)가 조각되어 있으며 모두 입을 벌린 모습이다. 난간에는 사면을 돌아다니며 연꽃으로 장식하고 장식으로 고정하였다. 난간의 사방 모서리에도 바깥을 향한 용두를 조각했는데, 입 안쪽으로 난간의 돌란대를 깊숙이 물고 있는 모습이다. 용두 아래에는 둥근 보주와 구름장식이 조각되어 보주가 용두를 받치고 있는 형국이다. 받침대 밑면에는 묵서로 24행의 조련기(造輦記)와 시주질·연화질을 기록하였다.

- 몸체 : 4면의 벽에 모두 큰 창이 나 있으며, 벽체에는 연화문·국화문 등 화문장식을 양각·음각으로 새기고 채색하였다. 특히 양 측면 벽체에는 문양판을 끼워 여러 겹의 장식효과를 주었다. 후면의 경우 아랫단을 더 높게 만들어 다른 3면에 비해 좀 더 폐쇄적으로 구성하였다. 양 측면과 후면의 창에는 얇은 철사에 청색·흰색 구슬을 끼워 육각형으로 만든 그물망을 치고, 전면 창은 봉안대상의 출입을 위해 비워두었다. 양 측면의 그물 중앙에는 원형의 동경(銅鏡, 지름 14.9cm)을 달았는데, 현재는 한쪽만 남아 있다. 거울에는 작은 산화문(散花文)이 새겨져 있다. 몸체의 벽체 안에는 종이를 덧대어 붙였다.

- 지붕 : 지붕 받침대의 네 모서리에서 꼭대기로 이어지는 곡선의 틀을 짠 다음, 가는 대나무로 촘촘하게 그물처럼 엮어 둥근 골격을 이루게 하였다. 대나무 위에 종이를 바르고 녹색비단을 씌웠으며, 그 위를 띠 모양의 주석으로 사방을 단단하게 고정한 뒤 꽃모양 장식으로 장식했다. 지붕 아래쪽 받침대에는 금속대를 두르고 연 넝쿨문을 새겼다. 지붕 네 모서리에는 봉황머리를 끼웠는데 봉황머리 3개가 남아 있으며, 봉황의 턱 밑에는 작은 쇠고리를 달아 장식하였다. 지붕 꼭대기에는 붉은색의 연봉을 세웠고, 황색 복련 받침에 끼워 고정된 모습이다. 지붕의 비단은 일부 찢어진 상태이다.

【 불연② 】 불연①과 기본구조는 동일하므로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받침대 : 가마채 끝의 용두는 앞쪽 2개에만 있으며, 난간 모서리에 있는 용두 아래를 받친 보주는 윗면이 잘린 반원 모양으로 조각되어 있다. 받침대 밑면에는 묵서로 19행의 시주질이 기록되어 있다.

- 몸체 : 벽체 문양에는 화문·새와 함께 황룡과 봉황을 조각하고 채색했으며, 좌우 창의 그물망은 없어진 상태이다. 몸체 앞면의 아래쪽에도 주칠 바탕에 금선을 긋고 받침대 밑면의 내용과 동일한 시주질을 적었다. 조립과 해체를 염두에 두고 안쪽 윗면에 묵서로 '中友, 中左' 등의 명문을 남겨 앞뒤를 구분하게 하였다. 한편, 불영사 정보관에는 사중에 전하는 또 다른 동경이 보관되어 있다. 이는 불

연①의 것보다 크기가 작아 불연①의 반대편 창에 건 거울이라기보다는, 불연②에 부착된 동경일 가능성이 크다. 이 거울에는 운봉문(雲鳳文)이 새겨져 있다.

▪ 지붕 : 지붕을 형성하고 만드는 방식은 불연①과 동일하며 꼭대기에도 똑같은 연봉을 금색 복련 위에 세웠다. 네 모서리에 꽃아 장식하는 봉황장식은 1개만 남아있는데, 불연①보다 크기가 훨씬 작고 모양도 다르다.

⇒ 이처럼 두 불연을 함께 조성하면서 격을 달리한 점으로 보아 불연①은 상단 불연, 불연②는 중단불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두 불연의 눈에 띄는 차이점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규모 : 불연①이 불연②보다 높이 약 6.5cm, 총길이 약 8cm 정도로 더 크다. 난간의 폭은 같다.

- 조각장식 : 불연①은 4개의 가마채 끝에 여의주를 문 용두를 조각했고, 지붕 네 모서리에 큰 봉황머리를 조각했다. 이에 비해 불연②는 가마채의 앞쪽 2개만 용두를 조각했고, 지붕 네 모서리의 봉황머리는 훨씬 작고 모양도 다르다.

- 투각장식 : 불연①은 몸체 좌우 벽에 문양판을 끼워 장식 면을 많이 확보했으며, 불연②에 비해 장식이 좀 더 많고 섬세한 아름다움을 지녔다. 문양구성으로는 불연①은 화문장식이 주를 이루고, 불연②는 화문과 함께 용문·봉황문이 투각되었다.

- 하단명문 : 불연①에는 조련기와 시주질·연화질을 함께 써놓았고, 불연②에는 시주질만 써놓았다.

## ○ 내용 및 특징

불교의 연(輦)은 야외에서 의식을 설행할 때 봉안대상을 옮기는 이동수단이다. 따라서 '연(輦)에 모신다[侍]'는 뜻으로 이를 '시련(侍輦)'이라 부른다. 수륙재·영산재 등 야외에 단을 설치하고 대형 재회(齋會)를 치를 때 증명을 위한 불보살, 옹호와 정화를 위한 성중(聖衆), 천도의 대상인 영가 등을 모시는 절차에서 다양한 시련이 따르게 된다. 이때 연에 모시는 대상은 주로 해당존재를 나타내는 위패나 상징물이다.

시련은 불상·괘불·가사(袈裟)·법사(法師)·경함·시주(施主)·금은전 등을 특정장소로 옮기는 이운(移運) 의식과도 성격을 같이한다. 봉안대상과 의식목적에 따라 의문(儀文)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연을 사용하여 이운하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연은 천도재뿐만 아니라 개산대재·봉축법회·정대불사·가사불사·예수재 등 다양한 성격의 대규모 법회에서, 의식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의식구로 사용되어왔다.

봉안대상을 옮기는 행렬은 연을 중심으로 앞뒤좌우에 다양한 의식구를 배치하고, 의식을 실행하는 모든 승려와 신도들이 행렬에 동참하여 장엄한 위용을 갖추게 된다. 시련의 행렬체계는 왕실행렬과 유사하고, 행렬에 따르는 의식구 또한 왕실 의장법식의 여러 요소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왕실과 사찰간의 긴밀한 관계 속에 조선 중후기 불연과 시련행렬이 정립되어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1565년(명종 20) 회암사 수록재에 대해 실록에는 ‘마치 임금행차와 같다’고 기록해, 불전패를 연에 모셔 이운하는 절차가 법왕의 도량 강림을 상징하듯 장엄하게 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련에 따르는 의식구는 오방불번 · 인로왕보살번 · 사명기 등과 함께, 의식을 널리 알리고 행렬을 옹호하는 순시기(巡視旗) · 청도기(淸道旗) · 영기(令旗) · 청룡기 · 현무기 등의 깃발, 천원(天圓) · 지방(地方) · 고당(鼓幢) · 봉선(鳳扇) · 일월선 · 용두 · 봉두 등 불보살의 위용을 드러내는 길상 장엄물, 금부(金斧) · 절부(節斧) · 삼지창 · 운두창 등 도량(道場)을 외호하는 벽사 장엄물을 든 대중이 법식에 맞는 위치에서 행렬을 이룬다. 각각의 상징성을 지닌 채 사찰에 전승되어오는 이들 기물 또한 행렬에서 그 본래의 의미를 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불연은 주요 봉안대상을 이운하는 의식의 핵심요소일 뿐만 아니라, 장엄한 시련행렬로써 공동체의 환희로움과 축제성을 체감케 하는 주요역할을 맡아왔다. 특히 시련은 수록재의 핵심의식으로, 중국의 수록재가 상당 · 하당의 이단구조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초기부터 상 · 중 · 하단의 독자적 삼단구조를 갖추어, 이를 연의 구성에도 적용하였다. 조선시대 승려 지환(智還)이 엮은 『천지명양수록재의범음산보집(1723년)』의 「상중하삼단시련위의지도(上中下三壇侍輦威儀之圖)」에는 이러한 특성이 잘 나타나 있다. 따라서 봉안대상을 옮길 때도 각단에 모시기 위한 3개의 연을 지향했으며, 3개를 갖추지 못할 경우 영가위패는 뒤를 따르는 방식 등으로 의식을 치렀다.

불영사 불연은 상단 · 하단 연을 함께 조성해 각단 연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17세기의 경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 무렵은 전란과 자연재해 등으로 사회적 · 경제적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종교의 힘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수록재 등 천도재가 성행하고 의식집이 집중 간행되었다. 불영사 불연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조성되어, 당시 불영사에 대형 재회가 활발하게 실행되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불연①에 목서로 적은 조련기에는 불연을 완성한 뒤 그 형용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여기서 연의 명칭을 ‘봉련(鳳輦)’이라 하고, 이는 “법회를 열 때 수많은 부처

들이 올라앉아 궁전으로 내임하기 때문”이라 적어 불연의 용도를 밝혔다. 불연에 대한 기록은 실록·의식문·문집 등에 소수 전하며, 명칭은 ‘불연’과 함께 ‘鳳輦·金輦·寶輦·玉輦’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그 가운데 ‘鳳輦’이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불영사 불연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것으로, 이는 불연의 지붕 모서리에 꽂힌 봉두 장식과 관련된 것이자, 고대로부터 제왕이 타던 연의 명칭이기도 하여 격을 높이는 표현이라 하겠다.

조련기에는 불연의 형상을 표현하면서, “항차 난봉(鸞鳳)이 꿈틀대며 난간 중앙에 날아오르고, 황룡이 용솟음치며 청련 위로 솟아오르며, 십이진금으로 벽을 장식하고, 칠보명주로 지붕을 엮고, 둥그런 명월과 같은 거울이 앞뒤로 걸려 있으며, 수놓은 작은 문을 열면 운영(雲影)이 누각에 내리고, 작은 보석으로 장식한 창을 열면 일월이 궁전을 비추는 것 같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해 『침필집(1695년)』에는 동리산 대홍사에 새로 조성한 보련(寶輦)의 형용을 “앞뒤에서 용이 호위하고, 좌우에는 봉황이 날갯짓하며, 비단으로 하늘을 삼고, 구슬로 장막을 삼는다”고 묘사하였다. 이는 불영사 불연의 모습과 흡사하여, 불연 장엄의 정형성을 알기 힘든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자료라 할 수 있다. 1670년에 조성된 불영사 ‘불연’과 25년 뒤에 조성된 대홍사 ‘보련’의 장엄이 유사한 점을 참조할 때, 불영사 불연은 조선 중후기 불연의 장엄요소를 고증해주는 대표적인 자료라 판단된다.

특히 양 몸체의 걸려 있는 동경이 주목된다. 17세기에 조성된 불연 가운데, 조성당시 동경을 부착한 기록과 실제 불연에 걸린 동경이 함께 전하는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불연에 동경을 부착하는 사례는 희귀한 경우로, 거울과 불연의 관계 및 용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는 거울이 보편적으로 지닌 권위와 신성성뿐만 아니라, 여래의 가르침인 광명을 나타내고, 불교의 자기성찰과 관련된 상징성 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연에 묵서로 기록한 조련기와 시주질·모연질 등에는 제작동기와 함께 공역에 동참한 시주자, 승려 등을 낱낱이 밝혀져 있다. 이는 당시 불교공예 제작장인의 활동범위와 특성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고, 불영사와 상당한 거리에 있는 울산지역 거주자들의 참여 등 시주자의 양상도 아울러 살필 수 있다.

## ○ 문헌자료

불연의 받침대 아래 묵서로 적은 조련기·시주질·연화질이 불연의 조성내력과 인적구성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자료이다. 불연에 대해 기록한 사증의 별도자료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 외의 주목할 만한 자료로 『佛國寺誌』에 수록된 「天竺山佛影寺始創記」에 불연 조성과 관련된 기록이 적혀 있다. 이에 따르면 불영사에서는 1616년에 상중단연(上中壇輦)을 조성한 이후, 1670년에 다시 상중단연을 조성했다고 기록하였다. 불영사는 임진왜란으로 전각이 소실된 뒤 1609년에 중건불사를 마쳤으니, 몇 년 후 불연 2점 등 의식구도 갖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1616년에 조성한 연이 없어지고, 54년 만에 다시 조성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불영사 불연과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심현용, 「불영사 불연」, 『미술자료』 72 · 73, 국립중앙박물관, 2005.

최응천, 「불영사 소장 불연과 불전패에 관한 고찰」, 『강좌미술사』 48,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7.

임소연(여서), 「조선후기 불연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논문, 2020.

○ 기 타(소장경위 등) : 1990년대까지 불영사에는 1점의 불연(불연②)만 소장된 것으로 알려졌으나(박찬수, 『불교목공예』, 대원사, 1990에 최초 수록), 2001년 10월 울진군에서 불영사 소장유물을 조사하던 중 또 다른 불연(불연①)이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대한 내용이 2005년 학술지에 소개되었고(심현용, 「불영사 불연」, 『미술자료』 72 · 73호, 국립중앙박물관), 이후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 1월에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97호로 지정되었다. 아울러 이때까지 불연②의 경우 연대 바닥에만 시주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2008년 이후 몸체 앞면의 아래쪽에도 금니로 선을 긋고 동일한 내용을 기록했음이 확인되었다.

**8. 문원영화 권231~232, 234**  
**(文苑英華 卷二百三十一~二百三十二, 二百三十四)**

**가. 검토사항**

‘문원영화 권231~232, 234’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부터 ‘문원영화 권231~232, 234’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6.12.26/’19.5.22.)이 있어, 관계 전문가 조사(’19.7.10.)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 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문원영화 권231~232, 234  
(文苑英華 卷二百三十一, 二百三十二, 二百三十四)
- 소유자(관리자) : 국유(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 수 량 : 3권 1책
- 규 격 : 전체 30.9×20.2cm(반곽 24.0×17.0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금속활자본(丙子字)
- 형 식 : 선장본
- 조성연대 : 조선 16세기



<문원영화 권231~232, 234>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미흡)

신청본 『문원영화』는 丙子字 간본으로 권231, 232, 235가 합책된 1책본이다.

병자자본 『문원영화』는 국내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 권334-335 1책이 있다. 국외에는 하바드 엔칭에 권211-215의 1책, 컬럼비아대학에 권331-333의 1책이 알려져 있다.

국내의 『문원영화』의 다른 판본으로는, 규장각에 명판본 100책 완질본이 있고 동아대학교에 중국 목판본 1책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책은 전본이 많지 않아 희소성은 있으나, 병자자로 인출된 서적이 『문원영화』 외에 적지 않게 전하고 있으므로, 본 신청 자료를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 ○ (보류)

조사본 『문원영화』 권231~232, 234는 중국 송대의 시문집으로 982년(太平興國 7)에 이방(李昉, 925~996) 등이 태종의 명으로 편집에 착수하여 宋太宗 雍熙 3년(986) 12월에 총 1,000권으로 완성된 책 가운데 권231, 권232, 권234의 零本이다. 권233은 결락된 상태이다. 내용은 「隱逸 二」, 「隱逸 三」 그리고 「寺院 二」로 분류된 詩에 해당한다.

조사본은 병자자(丙子字)로 간행된 책으로서 인출 시기는 관련 기록을 통하여 상



한은 1537년, 하한은 1572년 사은사가 새로 구해온 시기를 즈음하여 16세기 말로 판단된다. 이 책은 조선시대 동안 구입을 위해 노력했고 이후 조선에서 병자자로 인출한 희소한 자료에 속한다.

그러나 현존하는 자료와 비교하여 자료적 가치는 제한된다. 이미 중국의 필사본과 인본이 상당 부분 남아 있어 비교 검토가 가능하고, 병자자로 인출된 책이 국내외에서 산견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필사본과 인본의 제작 시기 및 내용 교감 등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1,000권의 거질 가운데 권231, 권232, 권234의 3권 1책본이라는 잔본의 성격, 병자자 간본에 대한 상세한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해당본의 자료적 성격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지정 신청된 『문원영화』는 병자자 간본이다. 중종 10(1515)년 11월 홍문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활자에 유실이 많아 목활자로 많이 보충해야 하고, 또한 마멸이 심하여 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중종 11(1516)년 1월 주자도감을 두고 명판 『資治通鑑』을 자본으로 5월에 완성한 동활자가 병자자이다. 병자자는 활자의 모양이 경자자와 비슷하여 식별이 어려우나 정밀하게 살펴보면 자체의 박력이 경자자만 못하다. 병자자도 갑인자와 을해자 및 갑진자의 다음으로 오래 쓰인 활자로 임진왜란 직전까지 70여년간 사용되었다. 병자자로 인쇄된 책으로는 『歷代兵要』·『新編大東聯珠詩格』·『朱子語類大全』·『唐柳先生集』 등이 있다.

『문원영화』는 편찬된 북송시대에 즉각 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현재 알려진 최고의 판본은 남송 영종 경원 원(1195)년에 周必大가 老丘園에 은퇴한 후, 胡柯와 彭叔夏를 불러 재차 정밀하게 교정하였고, 영종 가태 1(1201)년에 판각하기 시작하여 가태 4(1204)년에 완성한 吉州 간행의 송각본이다. 우리나라에는 기록상 고려 선종 2(1085)년 송에서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마도 필사본으로 추정된다. 조선초 세종 11(1429)년 전국적으로 서적을 수집하였는데, 이 때 『國語』·『宋播芳』·『資治通鑑源委』·『朱文公集』·『周禮東巖證義』·『文苑英華』는 낙질이라도 구하고자 한 바 있다. 송판본은 周必大가 가태 4(1204)년에 판각한 판본이고, 최초의 명판본은 胡維新이 용경 1(1567)년에 판각한 판본이다. 따라서 세종년간에는 시기적으로 송판본은 구할 수 없었을 것이고, 명판본은 간행되기 이전이다.

『문원영화』가 중종초에 입수된 판본이라면 필사본일 가능성이 있고, 선조 원(1567)년 이후에 입수했다면 명판본일 것으로 보인다. 본서는 중종 11(1516)년 주조된 丙子字로 간행되었는데, 중종 11(1516)년에는 아직 명판본이 간행되기 전이

다. 柳希春의 『眉巖日記』에 의하면 선조 5(1572)년 9월에 사은사가 『文苑英華』 100권을 위시한 많은 서책을 구입해왔다는 기록이 있다. 이때 구입해온 판본은 용경 6(1572)년 간본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목판본의 입수는 선조 5(1572)년에 명에서 구입한 『문원영화』가 최초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된 『문원영화』의 간행시기에 대해 두 각도로 추정할 수 있다. 하나는 병자자로 간행되었으므로 중종 11(1516)년 이후 간행되었다는 점이다. 병자자 주조 후 가까운 시기에 간행되었다면, 그 저본은 송판본을 토대로 전사한 필사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하나는 선조 5(1572)년 9월에 사은사가 『문원영화』 100권을 구입해왔다는 기록을 통해, 선조 5년 직후에 간행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용경 1(1567)년 胡維新이 판각한 후 용경 6(1572)년에 수보해서 간행한 직후이기 때문이다.

본서가 중종 11(1516)년 이후 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지정 신청된 판본이 권231, 권232, 권234가 한 책으로 편철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마도 권233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권233은 간행되지 못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권234도 모두 10장인데 장5가 낙장이며, 장5에 백지를 두어 공백임을 알리고 있다. 따라서 완전본을 입수했다면 공백을 남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선조 5(1572)년 이후 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명에서 처음으로 『文苑英華』 100권 완본을 구입해왔으므로 이를 저본으로 간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병자자본은 선조 5(1572)년 직후에 간행한 판본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병자자본 『문원영화』의 간행은 넓게 잡아서 중종 11(1516)년 병자자 주조에서부터 선조 5(1572)년 직후 『문원영화』의 도입 후 임진왜란까지로 볼 수 있다. 중종 32(1537)년 기록에 ‘전년 중국에서 사온 『문원영화』는 誤字와 錯簡 투성이어서로 인출하지 못하였다’란 기록을 유념한다면, 중종말기부터 선조 5(1572)년 직후 『문원영화』의 도입까지로 볼 수 있다.

『문원영화』는 송대 이전의 문장이 수록되어 있는데, 지금은 전래되지 않은 시문집에서 뽑은 것이 많기 때문에, 南朝와 당나라 문학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조선은 세종년간부터 『문원영화』를 입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중종년간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문원영화』의 간행도 어려웠지만, 활자본은 물론 목판본의 전래본도 그다지 흔하지 않다. 병자자 인본은 하바드대학 연경학사에 권211-215의 1책, 컬럼비아대학의 권331-333의 1책, 국립도서관의 권334-335의 1책만 확인된다. 이외 규장각에는 권1-1000의 100책 완질이 있으나 만력년간의 명판본이고, 동아대학교에 권781-785의 1책도 중국 목판본으로 추정된다. 조선전기는 물론 후기에 목판으로 간행했다면 전래본이 이렇게까지 없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 입수하

기 위해 무척 노력해서 간행한 책이므로 나름대로 중요성이 있으며, 인출시기가 조금 늦은 조선 중기이지만 간본이 극히 적다. 다른 서적에 비해 『문원영화』는 간본이 많지 않아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겠으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마. 의결사항

- 보 류 : 관련 자료 추가조사 필요

조사보고서

□

#### ○ 현 상

책의 보존상태는 양호하나 중간에 낙장이 있다. 낙장 부분은 백지로 표시하였다.

#### ○ 내용 및 특징

『문원영화』는 宋 옹희 3년(986)에 왕명으로 1000권 100책으로 편찬되었다. 南朝 梁末부터 晚唐五代까지의 문장을 집대성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문장 작성에 꼭 필요한 참고 서적이었기에 역대로 이 책으로 구하려는 노력이 많았다. 그러나 방대한 거질이라 중국에서조차 완질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기록으로 볼 때 고려 선종 2년(1085)이 최초이며 간행은 병자자본이 유일하다.

#### ○ 문헌자료

李致忠, 『文苑英華』史話(中國珍貴典籍史話叢書) : 國家珍貴古籍名錄·文苑英華, 北京 : 國家圖書館出版社, 2014.

#### ○ 기 타

1981년 윤석창에게 구입. 권수에 '尹石昌印' 장서인이 있다.

□

#### ○ 書誌事項

文苑英華, 卷231~232, 卷234 / 李昉(宋)等奉勅編, 胡柯 彭叔夏(南宋)校正.  
古活字本(丙子字). [16世紀 中期]

1冊(零本). 四周雙邊. 半郭 24.0 × 17.0cm. 有界, 12行21字.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30.9 × 20.2 cm.

版心書名 : 文苑.

藏書印 : 尹石昌印.

### ○ 현 상

조사본은 1981년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윤석창에게서 구입한 자료이다. 표지는 개장된 상태로서 본문은 권231, 권232, 권234의 3권이 합철된 상태이다. 권233이 누락되었고, 권234의 제5장도 결락되었다. 부분적으로 지류 유물에서 확인되는 손상들이 보이나 전체적인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 ○ 내용 및 특징

『문원영화(文苑英華)』는 중국 송대의 시문집으로 982년(太平興國 7)년 이방(李昉, 925~996) 등이 태종의 명으로 편집에 착수하여 宋太宗 雍熙 3년(986) 12월에 총 1,000권으로 완성하였다. 『태평어람(太平御覽)』, 『태평광기(太平廣記)』, 『책부원귀(冊府元龜)』와 함께 중국 송(宋)나라 사대서(四大書)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내용은 양(梁)나라 때부터 당(唐)나라 말기(末期)에 이르는 2,000여 명에 달하는 작가의 부(賦), 시(詩), 가행(歌行), 잡문(雜文) 및 다양한 기록 19,012편을 賦·詩·歌行·雜文 등의 38부문으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다만, 이 책은 편찬된 이후 바로 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알려진 최고의 판본은 南宋寧宗 慶元 원년(1195)에 주필대(周必大)가 호가(胡柯), 팽숙하(彭叔夏) 등과 함께 교정한 것으로 1201년(嘉泰 1)에 판각하기 시작하여 1204년(嘉泰 4)에 완성한 길주(吉州) 간행본이다. 이후 명대에는 호유신(胡維新)이 隆慶 1년(1567)년에 판각하여 간행하였다.

우리나라에는 고려 선종 2년(1085) 송에서 도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조 선초에도 이 책을 구하고자 노력하였다.

① 각도의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도내(道內)의 민가(民家)에 『국어(國語)』·『송파방(宋播芳)』·『자치통감원위(資治通鑑源委)』·『문원영화(文苑英華)』·『주문공집(朱文公集)』·『주례동암증의(周禮東巖證義)』 등 책을 소장(所藏)한 사람이 있으면, 일일이 방문(訪問)하여 비록 한 질(秩)이 되지 않더라도 모두 이를 바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44권, 세종 11년 5월 29일 甲戌 / 1429년 明 宣德 4년)

② 성절사(聖節使) 송겸(宋謙)이 중국에서 돌아왔는데, 상이 인견(引見)하였다. 송겸 이 정원으로 물러나와 아뢰기를,

“신이 부경(赴京)할 때 중국 조정의 탄장(彈章)과 소차(疏劄)를 구하여 오라는 분부 가 있었으나 구하지 못하였고, 다만 보고 들은 일만을 써서 아뢰입니다. 황제가 천 수산(天壽山)에 행행하였을 때 여러 신하들이 지은 호필록(扈蹕錄) 1건과 어제시 (御製詩) 1건을 구하여 왔습니다. 『문원영화(文苑英華)』를 사려고 값을 물으니 은(銀) 50냥이나 되었으나, 25냥으로 할인하여 통사(通事)들이 가지고 간 잡물(雜物)을 주고 사왔습니다. 다만 인쇄본은 희귀하여 구하지 못하였고 필사본 1질을 구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였다.

“『문원영화』를 구하여 왔으면 대내로 들여보내어 내가 본 뒤에 교서관(校書館)으로 보내어 간행하게 하라.”

(중종실록 82권, 중종 31년 11월 2일 갑인 / 1536년 明 嘉靖 15년)

③ (전략) 정사룡이 아뢰기를,

“ (중략) 신이 ‘우리 전하께서 유자(儒者)의 글씨를 모두 좋아한다. 지난번에는 중 국에 『문원영화』라는 책이 있음을 듣고, 우리 나라에는 없는 책이므로 많은 돈 을 주고 한 질을 사왔는데, 모두 오자(誤字)와 착간(錯簡) 투성이므로 인출하지 못 하였다.’ 하니, 천사가 ‘그 책은 많이 없다. 앞서 운남(雲南)에 한 질이 있으므로 조 정에서 은 13냥을 주고 사왔으니, 당신네 나라에서 주청한다면 얻을 것이다.’ 하였 습니다. (후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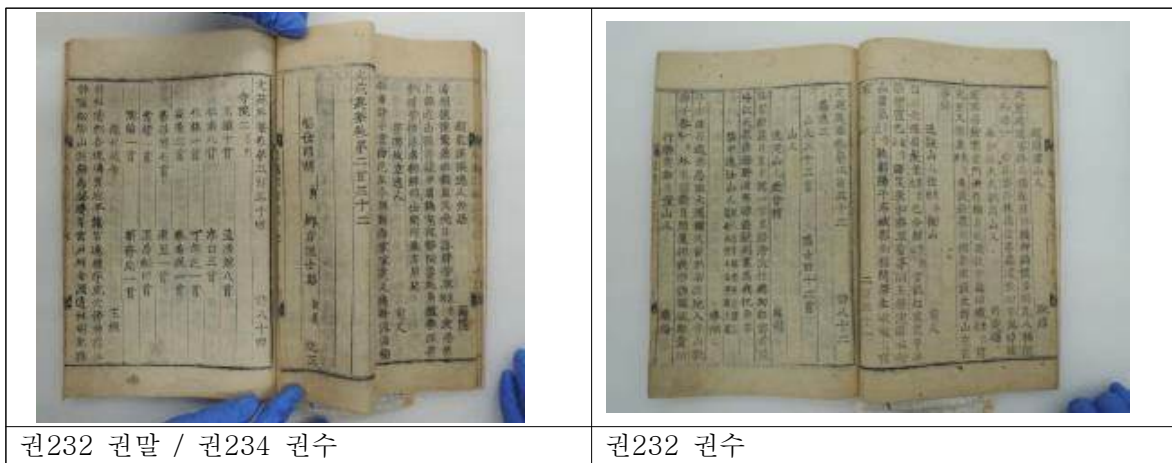
(중종실록 84권, 중종 32년 4월 30일 무인 / 1537년, 明 嘉靖 16년)

고려 宣宗代(1084~1094)에 도입되었던 책은 송판본 간행(1204년) 이전이므로 필 사본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조선 世宗代(1418~1450)에도 『문원영화』가 1질 이 되지 않더라도 구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中宗代(1506~1544)에도 인본(印本)이

희귀하여 필사본 1질을 구하였다는 상황을 볼 때 인본 보다는 필사본이 많이 알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조사본은 병자자(丙子字)로 간행된 책이다. 그런데 실록에 보이는 “우리 나라에는 없는 책이므로 많은 돈을 주고 한 질을 사왔는데, 모두 오자(誤字)와 착간(錯簡) 투성이므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는 내용을 참고할 때 1537년 까지는 간행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병자자는 1516년(중종 11) 1월 주자도감을 두고 明版 『자치통감』을 자본으로 5월에 완성한 동활자이다. 이는 당시까지 사용하였던 동활자의 유실이 많아 목활자로 많이 보충해야 하고, 또한 마멸이 심하여 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 활자는 임진왜란 직전까지 70여년간 사용되었으므로 책의 인출 시기 상한은 1537년이며, 하한은 선조 5년(1572) 9월에 사은사가 『문원영화』 100권을 구입해왔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1572년경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조사본은 권231, 권232, 권234의 3권 1책본으로 권233은 결락된 상태이다. 각 권의 장 수는 권231(12장), 권232(13장), 권234(10장)인데, 권234의 5장은 낙장이다. 판식을 살펴보면 사주쌍변으로 반곽의 크기는 24.0×17.0cm이다. 판심은 상하내향 삼엽화문 어미이며 판심서명(版心書名)은 文苑이다. 본문은 유계(有界), 12行 21字의 구성을 갖고 있으며 책의 전체 크기는 30.9×20.2cm이다.



내용은 권231은 「隱逸 二」로서 <處士四十五首> 등 詩 81편, 권232는 「隱逸 三」으로 <山人三十三首> 및 <處士四十二首> 등 詩 82편, 권234에는 「寺院 二」로서 <王維十首> 등 詩 84편을 수록하였다.

현재 병자자 인본은 하바드대학 연칭도서관에 권211~215(1책), 컬럼비아대학의 권331~333(1책), 국립중앙도서관의 권334~335(1책)만 확인된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필사본(BA3745-29)은 북송 ‘옹희 3(986)년 필사본’으로 되어 있으

나, 남송의 호가와 팽숙하의 교정본이므로 남송 이후의 사본으로 판단된다.

이외 규장각 및 남평문씨 인수문고에는 권1~1000의 100책 완질이 있으나 만력년간의 명판본이고, 동아대학교(권781~785, 1책), 동국대학교(권151~160, 1책)도 중국 목판본으로 추정된다.

### ○ 문헌자료

김두중,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탐구당, 1974) 194.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범우사, 1990) 284.

### ○ 지정사례

현재 『文苑英華』 병자자본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 ○ 현 상

宋四大書의 하나인 『文苑英華』는 칙명을 받은 李昉 등이 昭明太子의 『文選』 30권의 후속으로 南朝 梁末부터 晚唐五代까지의 문장을 수집하여 만든 文章總集이다. 송 태종 옹희 3(986)년 12월에 총 1,000권이 완성되었다. 송대에 周必大가 老丘園에 은퇴한 후, 胡柯·彭叔夏와 함께 교정해 가태 4(1204)년에 완성한 吉州刊本이 초간본이다. 우리나라에는 고려 선종 2(1085)년 송에서 도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선초에도 『文苑英華』를 구하고자 노력하였고, 선조 5(1572)년에야 사은사가 구입해온 것만 알려져 있다. 본서는 조선 중기에 병자자로 인출한 서적이다.

### <서지사항>

文苑英華, 卷231-232,234 / 李昉(宋) 等奉勅編, 胡柯 彭叔夏(南宋) 校正.

古活字本(丙子字). [16世紀 中期]

1冊(零本). 四周雙邊. 半郭 24.0 × 17.0cm. 有界, 12行21字.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30.9 × 20.2 cm.

版心書名 : 文苑.

藏書印 : 尹石昌印.

(한중연 D2C 134)

### ○ 내용 및 특징

송나라 태평흥국 7(982)년에 『太平廣記』는 완성되었고, 『太平御覽』은 거의 완성단계였다. 이때 태종은 李昉(925-996)에게 『文苑英華』의 편찬작업을 주관하게 하고, 宋白·扈蒙·徐鉉 등 17명의 학자들에게도 편찬을 명하였다. 李昉과 扈蒙이 잇달아 외직으로 전임된 후는 蘇易簡·王祐·范杲 등을 충원시켜, 옹희 3(986)년 12월

에 총 1,000권을 완성하였다. 『太平御覽』·『太平廣記』·『冊府元龜』와 함께 宋四大書의 하나로 꼽히는 서적이 되었다.

대표 편자 李昉(925-996)은 자가 明遠이며, 深州 饒陽(지금의 河北省) 사람이다. 五代에는 後漢과 後周에서 벼슬을 지냈고, 宋代에는 右僕射·中書侍郎平章事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저서로 문집 50권이 있었으나 산실되었다. 일찍이 『舊五代史』 편찬에 참여했으며, 『문원영화』를 위시해 『태평어람』과 『태평광기』의 편찬작업을 주관하였다.

이 책은 梁初의 문장이 수록된 昭明太子의 『文選』 30권을 계승할 목적으로, 南朝 梁末부터 晚唐五代까지의 문장을 수집하여 만든 文章總集이다. 수록된 작가는 2,200명, 문장은 거의 20,000편에 달하는데, 唐代的 작품이 약 90%에 달한다. 체제와 분류방식은 거의 『文選』과 비슷하나, 賦·詩·歌行·雜文 등 39유목(諡冊과 哀冊을 합치면 38)의 문체로 분류해 유목이 훨씬 많아지고 복잡해졌다. 그 중 詩 180권은 당시 詩로 이름을 떨친 楊徽之(921-1000)가 편찬한 것이라고 한다. 문체가 날로 증가되어 『文選』의 체제로는 다 포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목을 증가시킨 것이다. 그러나 편찬 완료된 원고는 당시 판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진종景德 4(1007)년 일차로 刪繁補缺을 거쳤고, 대중상부 2(1009)년 石待問·張秉·薛映·戚綸·陳彭年 등이 재차 교열을 하였는데, 이때의 기록은 판각 여부는 단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럽다.

南宋이 되어서 비로소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남송 영종 경원 원(1195)년에 이르러 周必大가 老丘園에 은퇴한 후, 胡柯와 彭叔夏를 불러 재차 정밀하게 교정하였고, 영종 가태 1(1201)년에 판각하기 시작하여 가태 4(1204)년에 완성하였다. 이 吉州刊本이 현재 유일한 송각본 잔본이다. 이때 협력했던 彭叔夏도 『文苑英華辨證』 10권을 남겼다.

明에 이르러 가정 45(1566)년에 胡維新 등이 판각하기 시작하여, 다음 해 융경 1(1567)년에 완성하였다. 이 융경 1(1567)년 福建版은 융경 6(1572), 만력 6(1578), 만력 36(1608)년 여러 차례 보각되었다. 따라서 南宋 刊本은 잔본만 남아있으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완질은 융경 1(1567)년 胡維新이 판각한 판본이며, 대개는 융경 6(1572), 만력 6(1578), 만력 36(1608)년 보각된 遞修本이다.

고려 선종 2(1085)년 송에서 철종이 즉위하자, 고려는 8월 호부상서 金上琦를 弔慰使로, 공부상서 林槩를 賀登極使로 임명하여 송에 파견했다. 『宋史』 권487 「列傳, 高麗」에 따르면 이때 형법 관련 문서와 함께 『太平御覽』·『開寶通禮』·『文苑英華』의 구매를 청했고, 송에서는 『문원영화』만 고려에 주었다고 한다. 이때 송에서 보낸 『문원영화』는 필사본으로 추정된다.

본서는 권231, 232, 234의 3권이 합철되어 있는데, 권233이 누락된 상태이다. 장수는 권231은 12장, 권232는 13장이며, 권234는 10장인데 장5가 낙장이다. 권233이



누락되고 권234의 장5가 누락된 것은 저본에도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간행한 것이 아닌가 한다. 아마도 누락된 부분은 구할 수 없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세종 11(1429)년 5월에 각도 감사에게 전지해 『國語』·『宋播芳』·『資治通鑑源委』·『文苑英華』·『朱文公集』·『周禮東巖證義』 등의 책을 도내의 민가에 서라도 탐문해서 비록 한 秩이 되지 않더라도 모두 이를 바치게 하라'한 바 있다. 또 중종 31(1536)년 11월에는 聖節使 宋謙이 귀국해서 복명하기를 『문원영화』 필사본 1질을 銀 25냥으로 할인해서 구입했으나, 다만 인쇄본은 희귀하여 구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필사본(BA3745-29)을 북송 '옹희 3(986)년 필사본'이라 해제되어 있는데, 남송의 胡柯와 彭叔夏의 교정본이므로 북송본일 수 없고, 남송 이후의 사본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중종 32(1537)년 4월의 기록에 '전년 중국에서 『문원영화』 한 질을 많은 돈을 주고 사왔는데, 誤字와 錯簡 투성이므로 인출하지 못하였다'란 기록이 있다. 그렇다면 중종년간에는 『문원영화』를 간행하지 못했을 수 있다.

#### ○ 문헌자료

김두중,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탐구당, 1974) 194.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범우사, 1990) 284.

#### ○ 기 타

1981년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윤석창에게서 구입한 자료임.

#### ○ 지정사례

현재 『文苑英華』 병자자본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 9. 송조명현오백가파방대전문수 권5상 (宋朝名賢五百家播芳大全文粹 卷五上)

### 가. 검토사항

‘송조명현오백가파방대전문수 권5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부터 ‘송조명현오백가파방대전문수 권5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6.12.26/'19.5.22.)이 있어, 관계 전문가 조사('19.7.10.)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 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송조명현오백가파방대전문수 권5상  
(宋朝名賢五百家播芳大全文粹 卷五上)
- 소유자(관리자) : 국유(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 수 량 : 1책
- 규 격 : 전체 32.8×18.9cm(半郭 22.6×15.0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금속활자본(庚子字)
- 형 식 : 선장본
- 조성연대 : 1423년(세종 5)



<송조명현오백가과방대전문수 권5상>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미흡)

지정신청본 『宋朝名賢五百家播芳大全文粹』 경자자본은 현재 충남대학교도서관에 2권 1책, 고려대학교에 2책,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수탁본 1책 등이 전하고 있으며 아직 문화재로 지정된 바는 없다.

현재 경자자본 『宋朝名賢五百家播芳大全文粹』의 완질이 전하지 않고, 전하는 것들이 대부분 영본이므로 본 신청본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11장 분량만 남아 있어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본다.

### ○ (보류)

조사본 『송조명현오백가과방대전문수』 권5상은 송대의 위제현(魏齊賢)과 엽분(葉芬)이 편찬한 150권 가운데 권5의 상편에 해당한다. 일명 『송과방(宋播芳)』, 『송과방문수(宋播芳文粹)』라고도 하며, 원대에 간행된 『성원명현과방속집(聖元名賢播芳續集)』(일명 『元播芳』)과 함께 『송원과방(宋元播芳)』이라 부른다. 『송과방』과 『원과방』에는 송·원대 문인들의 다양한 산문들 중에서 주로 공식적인 문서 성격의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주의류(奏議類)’ 산문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사대외교나 조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문장들이었다. 따라서 조선에서 문신들이 작성하는 표전문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고, 과거시험에서 중시되었다.

조사본은 세종 6년(1424) 경자자(庚子字)로 인출된 책이다. 조선시대에 책의 구입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기록이 남아 있고, 경자자 인출 이후 을해자로도 인출되었을 만큼 우리에게 끼친 영향력이 상당히 큰 희소한 자료에 속한다.

그러나 현존하는 자료와 비교하여 자료적 가치는 제한된다. 경자자 및 을해자로 인출된 책은 많지 않으나 국내외에서 산견되고 있으며, 150권의 거질 가운데 일부에 해당하는 권5의 상 1편이라는 잔본의 성격, 현존 경자자 및 을해자 간본에 상세한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해당본의 자료적 성격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조선 전기에는 세종과 중종 때에 『송과방』을 간행해서 문신에게 반포하였었다. 이후에도 이 책은 전국 각지에 수집령을 내리기도 하고, 구매 목록에 오르는 등 끊임없이 수요가 있었다. 특히 세종이 『송과방』과 『원과방』을 문신들의 표전문 작성의 참고서로 권장했기 때문에, 과거시험에서도 중시하는 표본이 되었다.

을해자로 『송과방』을 간행했을 때는 『원과방』도 함께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을해자 간본은 몇 종 확인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卷2(中·下), 卷3(上·中·下)을 합철한 1책, 보물 제1004호 趙靖宗孫家所藏文籍에 포함된 『송과방』, 고려대학교 화산문고에 朴承任 내사본 『원과방』 권1/3의 1책, 내사기가 있는 일본 內閣文庫 수장본, 중국 북경도서관에도 ‘宣賜之記’가 날인되어 있는 조선 고활자본이 수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을해자본으로 추정된다.

경자자 간본도 몇 종 전래되고 있다. 충남대학교 도서관에 卷3上中1冊이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에 卷4上中下 1책이 수장되어 있다. 고려대학교 화산문고에 卷4中下 1책이 있고, 화봉문고에 ‘永樂癸卯臘月日鑄字印記’가 있는 卷5上이 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경자자본 『송과방』은 5책이다. 지정 신청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본 卷5上에는 安春根이 필사한 “庚子字本(1420) 世宗朝(2), 字本元版本”과 “永樂癸卯臘月日鑄字印(一四二三年刊)京城大學學叢一號”라는 주기가 있다.

조선은 명나라와 관계를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외교문서 작성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다. 이에 태종년간에 계미자로 『宋朝表牋總類』를 간행했으나, 이 책은 이후 재간되지 않았다. 이후에는 『송과방』을 간행해 보급한 것으로 보인다. 『송과방』은 문신들이 필수적으로 익혀야 하는 산문을 선정해, 형식적인 부분도 학습이 용이하도록 구성해 놓았으므로, 이후 학습서로 권장된 것이다.

『송과방』 경자자본은 현재 확인된 인본은 모두 5책이며, 을해자본도 국내외를 합쳐 4책, 국내에는 2책만 확인되어 있다. 그러나 경자자본 『宋朝名賢五百家播芳大全文粹』는 아직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바 없다. 본서는 거질이어서 완질을 볼

수 없는 형편이다. 잔권이긴 하지만 전래본이 지극히 드물며, 특히 세종 5(1423)년 경자자로 인출한 책으로 추정되는 만큼 문화재적 가치가 상당하다. 조선시대 표전문 작성, 중국과의 서적 교류, 서지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마. 의결사항

##### ○ 부 결

조사보고서

□

##### ○ 현 상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권수에 전 소장자 安春根의 장서인이 있고 권말에는 安春根이 펜으로 쓴 목서가 남아 있다.

##### ○ 내용 및 특징

『宋朝名賢五百家播芳大全文粹』는 송대명현 520가의 문장이 수록되어 있으며 흔히 『宋播芳』·『宋播芳文粹』라고 부른다. 주된 내용은 사대외교에 필요한 문장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駢儷文이다.

이 책은 조선조 世宗 5년(1423)에 경자자로 인출하였고 이후 중종 37년(1542)에 을해자로 간행하였다. 을해자본은 현재 보물 제1004호 趙靖宗孫家所藏文籍에 포함된 『宋播芳』에서 볼 수 있다. 본 신청본은 권5상의 낙질이다.

##### ○ 문헌자료

류화정, 조선 전기 문선집 『宋播芳』·『元播芳』 小考 : 자료 소개를 중심으로 : 韓國漢文學研究. 제51집, 2013.06.30., pp.131-158.

##### ○ 기 타

장서가 安春根의 수장본을 1979년에 구입. 권수에 安春根藏書印이 있음.

□

<書誌事項>

宋朝名賢五百家播芳大全文粹, 卷5上 / 魏齊賢(宋); 葉棻(宋) 共編

古活字本(庚子字本). [世宗 5(1423)]

1冊(零本). 四周雙邊. 半郭 22.6 x 15.0 cm. 有界. 11行21字.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2.8 x 18.9 cm.

表紙書名 : 宋朝播芳文粹.

版心題

藏書印 : 安春根藏書記

○ 현 상

조사본은 1979년 한국학중앙연구원이 安春根의 소장본을 구입한 것이다. 표지는 원표지로 보이나 표제에 보이는 ‘宋朝播芳文粹 卷五上 卷七下’라는 목서 내용과 그리고 책사의 상태를 볼 때 원형의 변화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卷五上의 낙질로서 장수는 11장이며, 부분적으로 지류 유물에서 확인되는 손상들이 보이나 전체적인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 내용 및 특징

『송조명현오백가과방대전문수(宋朝名賢五百家播芳大全文粹)』는 송대의 위제현(魏齊賢)과 엽분(葉棻)이 편찬한 것으로 일명 『송과방(宋播芳)』, 『송과방문수(宋播芳文粹)』라고도 한다. 처음 편찬했을 때는 100권본이었으나 간행 이후 엽분이 150권으로 증보하였다. 문체는 30類로, 表·啓·制辭·奏狀·奏剖·封事·長書·疊幅小簡·四六劄子·尺牘慰書·青詞·朱表·釋疏·祝文·婚啓·生辰賦頌詩·樂語·勸農文·檄文·雜文·上梁文·祭文·挽詞·記·序·碑·銘·贊·箴·頌·題跋 등이다. 이중 병체(駢體)가 10분의 6, 7이 될 정도로 많은데, 表·箋·制·誥·簡·疏·頌·

記·序·銘·跋 등에 병체가 많다.

『송파방』은 원대에 간행된 『성원명현파방속집(聖元名賢播芳續集)』(일명 『元播芳』)과 함께 『송원파방(宋元播芳)』이라 부른다. 이 『宋元播芳』은 공민왕 22(1373)년에 간행된 바 있다.

『송파방』과 『원파방』에는 송·원대 문인들의 다양한 산문들 중에서 주로 공식적인 문서 성격의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주의류(奏議類)’ 산문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사대외교나 조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문장들이었다. 따라서 조선에서 문신들이 작성하는 표전문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고, 과거시험에서 중시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경자자로 인출하여 세종 6년(1424) 1월11일 문신에게 반사한 기록이 있다. 또한 전국 각지에 수집령이 내려지기도 하고, 구매 목록에 오르는 등 끊임없이 수요가 있었다. 이후 을해자로도 다시 한번 인출되었다.

① 대소 문신(大小文臣)에게 주자소(鑄字所)에서 인쇄된 『송파방(宋播芳)』을 한 부씩 내려 주었다.

(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 1월 11일 戊子 / 1424년 明 永樂 22년)

② 각도의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도내(道內)의 민가(民家)에 『국어(國語)』·『송파방(宋播芳)』·『자치통감원위(資治通鑑源委)』·『문원영화(文苑英華)』·『주문공집(朱文公集)』·『주례동암증의(周禮東巖證義)』 등 책을 소장(所藏)한 사람이 있으면, 일일이 방문(訪問)하여 비록 한 질(秩)이 되지 않더라도 모두 이를 바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44권, 세종 11년 5월 29일 甲戌 / 1429년 明 宣德 4년)

③ 경연에 나아가 검토관(檢討官) 권채(權採)에게 이르기를,

“경연에 소장되어 있는 『송파방(宋播芳)』의 권질(卷帙)이 갖추어져 있느냐.” 하니, 권채가 대답하기를, “많이 탈락(脫落)되어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상고하여 아뢰라. 예조로 하여금 구매해 오도록 하겠다. 그대는 본시 표·전문(表箋文)을 잘 짓는다는 명성을 얻고 있으니 더욱 경사(經史)를 많이 보고, 또 파방을 보아 능숙하게 익히면 제술(製述)은 무난(無難)할 것이다. 본국에서는 사대 문자(事大文字)에 오로지 표·전을 쓰고 있어, 서(序)·기(記) 같은 따위는 사대하는 데 긴요한 것이 아니며, 특히 문장의 한 지엽에 불과하였다. 또 우리 나라를 본래 문한(文翰)의 나라로 일컬어 왔으니 표·전문을 짓는 데는 반드시 정치(精緻)하고 절실하게 하여야 될 것이다. 그대는 이를 명심하라.” 하였다.

조사본은 세종 6년(1424) 경자자(庚子字)로 인출된 책이다. 경자자는 1420년(세종 2) 주자소(鑄字所)에서 만든 동활자로 조선 최초의 동활자인 계미자(癸未字)의 단점을 보완하여 만든 두번째 동활자이다. 계미자의 모양이 크고 가지런하지 못하며, 또 주조가 거칠어 인쇄하는 도중 활자의 흔들림이 심하여 다시 개주(改鑄)한 것이다. 경자자의 자본(字本)은 계미자와 같이 경연청(經筵廳)에 소장된 고주본(古注本)의 『시(詩)』·『서(書)』·『좌씨전(左氏傳)』이었다.

조사본은 卷五上에 해당하는 1책으로 전체 11장이다. 판식을 살펴보면 사주쌍변으로 반곽의 크기는 22.6×15.0cm이다. 판심은 흑구에 상하내향 흑어미의 형식이며, 판심제는 ‘芳五上’으로 ‘芳’과 권차에 해당하는 ‘五上’을 함께 표기하였다. 본문은 유계(有界), 11行 21字의 구성을 갖고 있으며 책의 전체 크기는 32.8×18.9cm이다.

내용은 ‘表’에 해당한다. 왕안석(王安石, 字 介甫, 1021~1086)의 「謝除知江寧表」부터 시작하여 조지도(晁之道)의 「開封府尹到謝任除謝表」까지 모두 24편이 수록되어 있다.



경자자 간본은 국내 산견된다. 충남대학교 도서관에는 卷3上中(1책)이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에는 卷4上中下(1책)가 수장되어 있다. 또한 고려대학교 화산문고에 卷4中下(1책), 화봉문고에 卷五上(1책)이 있다. 그 외 경매 자료로도 간혹 확인된다.

한편 을해자 간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卷2(中·下), 卷3(上·中·下)을 합철한 1책, 보물 제1004호 趙靖宗孫家所藏文籍에 포함된 『송과방』, 고려대학교 화산문고에 朴承任 내사본 『원과방』 권1/3의 1책, 내사기가 있는 일본 內閣文庫 수장본 등 국내외에서 확인되고 있다.

## ○ 문헌자료



김두중, 『韓國古印刷技術史』, 探求堂, 1974.

류화정, 「조선 전기 문선집 宋播芳·元播芳 小考」, 『韓國漢文學研究』 51(2013).

□

## ○ 현 상

『宋朝名賢五百家播芳大全文粹』는 흔히 『宋播芳』이라 하는데, 송대의 魏齊賢과 葉棻이 편찬하였다. 『宋播芳』은 조선 문신들의 표전문 작성의 참고서로 기능했기 때문에, 과거시험에서 중시되었다. 송대 520명의 산문이 30類의 문체로 분류되어 수록되었는데, 구체적으로 奏議類 산문이 60% 이상이며 駢體가 많다. 奏議類 문장은 사대외교 작성에 필수적으로 익혀야 했으므로, 조선 전기에 경자자와 을해자로 간행한 바 있다. 본서는 경자자본으로서 세종 5(1423)년 연말에 인출하여 세종 6(1424)년 1월에 반사한 서적이다.

## 서지사항

宋朝名賢五百家播芳大全文粹, 卷5上 / 魏齊賢(宋); 葉棻(宋) 共編

古活字本(庚子字本). [世宗 5(1423)]

1冊(零本). 四周雙邊. 半郭 22.6 x 15.0 cm. 有界. 11行21字. 黑口,上下內向黑魚尾; 32.8 x 18.9 cm.

表紙書名 : 宋朝播芳文粹.

藏書印 : 安春根藏書記.

(한중연 D2C 43)

## ○ 내용 및 특징

『宋朝名賢五百家播芳大全文粹』는 일명 『宋播芳』, 『宋播芳文粹』라고도 한다. 서명에 500이 언급된 것은 이 책에 수록된 송대 명현이 520명이라서 약칭한 것이다. 남송의 魏齊賢이 宋代의 문장을 선록해 처음 편찬했을 때는 100권본이었다. 간행 후 널리 인기가 있자, 葉棻이 150권으로 증보하였다. 魏齊賢과 葉棻의 인물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四庫全書』에 魏齊賢의 자는 仲賢이며 鉅鹿 출신, 葉棻의 자는 子實이며 南陽 출신이라 밝히고 있을 뿐이다.

『宋播芳』에는 북송부터 남송 전기까지 陸游, 楊萬里, 辛棄疾, 李燾, 樓钥, 陳亮, 葉适 등 520家の 산문이 수록되어, 가히 『宋文鑑』의 속편이라 할 수 있다. 문체는 30類로, 表·啓·制辭·奏狀·奏剖·封事·長書·疊幅小簡·四六劄子·尺牘慰書·青詞·朱表·釋疏·祝文·婚啓·生辰賦頌詩·樂語·勸農文·檄文·雜文·上梁文·祭文·挽詞·記·序·碑·銘·贊·箴·頌·題跋 등이다. 이중 駢體가 10분의 6, 7이

될 정도로 많은데, 表·箋·制·誥·簡·疏·頌·記·序·銘·跋 등에 駢體가 많다.

한편 원나라 때는 『聖元名賢播芳續集』 6권이 편찬되었다. 『宋朝名賢五百家播芳大全文粹』의 元集 뒤에 『聖元名賢播芳續集』을 합병시킨 것은 『宋元播芳』이라 부른다. 이 『宋元播芳』은 공민왕 22(1373)년에 간행된 바 있다. 일본 宮內省 書陵部に 조선 태종년간 後刷本 1책이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宋播芳』과 『元播芳』에는 송·원대 문인들의 다양한 산문들 중에서 주로 공식적인 문서 성격의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奏議類 산문이 60% 이상이며, 나머지 序跋·箴銘類 등이다. 이는 사대외교나 조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문장들이었다. 까다로운 형식과 화려한 수사를 동반해야 하는 駢儷文과 같은 산문을 학습하거나 작성할 때 효율적으로 활용되었다.

조선에서는 경자자로 인출하여 세종 6(1424)년 1월11일 문신에게 頒賜한 기록이 있다. 그런데 세종 11(1429)년 전국적으로 서적을 수집하였는데, 이 때 『國語』·『宋播芳』·『資治通鑑源委』·『朱文公集』·『周禮東巖證義』·『文苑英華』는 낙질이라도 구하고자 한 바 있다. 또 문종 1(1451)년에는 명으로 가는 사신에게 구해오도록 명한 바도 있다. 세종 6(1424)년 경자자로 간행하여 반사하였으므로, 당시에는 유포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수집을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뒤 중종 37(1542)년 을해자로 간행하였다. 보물 제1004호 趙靖宗孫家所藏文籍에 『宋播芳』이 포함되어 있는데, 을해자 간본이다.

한중연 소장본은 권5상의 낙질인데 장수는 11장인 아주 얇은 책이다.

#### ○ 문헌자료

김두중, 『韓國古印刷技術史』, 탐구당, 1974년.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研究-集部, (京都: 京都大學出版會, 2006) 56-57.

류화정, 조선 전기 문선집 宋播芳·元播芳 小考. 韓國漢文學研究 51 (2013) 131-158.

#### ○ 기 타

1979년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대장서가 安春根의 소장본을 구입한 것임.

#### ○ 지정사례

현재 동일 판본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 10. 고성이씨 임청각 가전 고문서 일괄 (固城李氏 臨淸閣 家傳 古文書 一括)

### 가. 검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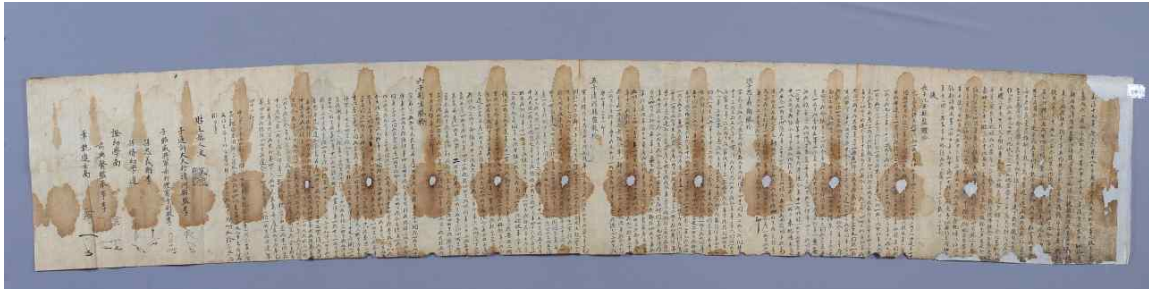
‘고성이씨 임청각 가전 고문서 일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부터 ‘고성이씨 임청각 가전 고문서 일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6.12.26/'19.5.22.)이 있어, 관계 전문가 조사('20.2.17.)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 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고성이씨 임청각 가전 고문서 일괄  
(固城李氏 臨淸閣 家傳 古文書 一括)
- 소유자(관리자) : 이창수(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23, 한국학중앙연구원
- 수 량 : 11점(방목 1점, 입안 1점, 분재기 9점)
- 규 격 : 세로 33.5~66.5 × 가로 45.0~824.0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필사본
- 형 식 : 날장문서
- 조성연대 : 1539년(중종 34)~1603년(선조 36)



<고성이씨 임청각 가전 고문서 일괄>(이명 처 공인 문씨 깃급문기, 1540년)

## 라. 조사자 종합 검토 의견

### ○ (보류)

#### 1. 신청 자료의 현황과 가치

신청 문서들은 李洛~李復元까지 4대에 걸쳐 작성된 것으로, 영남지역 명문가였던 고성이씨 가계의 사회적 기반을 이해하는 역사적·학술적 자료로 매우 가치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부록 2-가계도 참조)

그러나 작성연대 측면에서 보면, 낱장 문서를 기준으로 볼 때 임청각 가전 고성이씨 고문서 중 조선 초기인 15세기까지 올라가는 사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는 비교적 작성연대가 올라가는 여말선초의 고문서를 중심으로 문화재로 지정해 왔던 기존 先例에 비추어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에 다소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한편 임청각 家傳 분재기는 작성연대가 빠르지는 않지만 16세기에 4대에 걸쳐 작성되었고, 17세기 이후의 분재기까지 합하면 8대에 걸쳐 한 대도 거르지 않고 작성된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부록 1·2 참조)

따라서 문화재로 지정하는 시기의 하한선을 16세기로 한정하여 시계열적 연속성에서 단절을 초래하기 보다는 분재기 전체를 일괄지정 하는 방식을 마련하여 사료적 가치와 문화재적 가치를 동시에 부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재기 자료를 입증하고 보완할 수 있는 임청각 전승 서책류, 가계기록, 가승(家乘) 등의 문서 또는 전적(典籍) 등을 함께 검토해 신청 문서의 사료적·문헌적 가치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 2. 종합 의견과 제언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하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낱장 고문서 및 일괄 고문서 사례를 검토하고 임청각 가전 고성이씨 고문서가 이미 지정된 사례와 비교하여 지정 가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기 고문서 및 조선 초기 분재기의 전래 현황 등에 대한 현황 파악, 임청각 고문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보완과 검토, 그리고 이 결과를 토대로 한 종합

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16세기 분재기 외에 가계기록, 가승 등 임청각과 고성이씨의 역사를 부각하고 제시된 문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다른 문서의 보완적 제시를 장서각 측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 임청각 자료는 석주 이상룡 관련 서책류가 고려대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등 일부 자료가 흩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청각 자료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여 추가 조사와 동종문 화재와 비교우위 검증 등을 통해 신청 고문서에 대한 보물로서의 지정가치를 좀 더 명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 마. 의결사항

- 보 류 : 동종 고문서 등 추가 조사 필요

# 종합조사보고서

## ○ 현 상

신청 고문서는 임청각 가전 고성이씨 고문서 중 작성연대를 기준으로 조선전기 에 해당하는 16세기까지의 문서를 선별한 것으로 생각된다. 16세기 고문서 8점, 17세기 문서 1점, 18세기 문서 1점, 연대미상 1점 등 모두 11점이다. 유형별로는 분재기 9점, 입안 1점, 방목 1점이다. 이 중 ‘행촌방목’은 14세기 문서가 아닌 후대 傳寫本으로 추정되고, 분재기 중 1건 역시 18세기의 전사본이다. 또 1603년 분재기는 작성주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임청각 가전 고성이씨 고문서는 임청각으로부터 1990년대에 서울로 옮겨 보관 하다가 1997년도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조사 후 『고문서집성』과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되었다. 이후 2004년도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일괄 기탁되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이 관리 보관하고 있다. 서울에서 보관할 당시 문서를 일부 배접하였고, 그 이후 장서각에서도 추가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문서별 로 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행촌방목(杏村榜目)

전반부 및 하반부에 두세 군데 구멍이 나 있고, 2행에는 몇 글자 판독을 방해 하는 망실 부분이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 2. 이반 처 김씨 입안(李胖 妻 金氏 立案)

문서 3번과 함께 粘連되어 있어야 할 문서이고, 점련된 상태라면 맨 앞에 있어야 할 입안신청 所志가 결락되어 있다. 원래는 전체가 한 건으로 粘連되어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분재기 부분과 公緘 이하 부분이 분리되어 있다.

## 3. 이반 처 김씨 허여문기(李胖 妻 金氏 許與文記)

문서의 상단 및 우측, 중앙에 습기로 인해 파손된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작성연대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 4. 이명 처 공인 문씨 깃급문기(李洛 妻 恭人 文氏 衿給文記)

1990년대에 집안에서 배접한 흔적이 여러 군데 있으나 작성연대에 비해 보관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 5. 이자하 장녀 깃급문기(李自夏 長女 衿給文記)

문서의 상하단을 비롯하여 상당부분이 손상되어 있어 따라서 분재의 전체 내역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재주와 증인, 필집 등의 署押 역시 4군데 대부분 마멸된 상태이다.

## 6. 이평 처 이씨 깃급문기(李肱 妻 李氏 衿給文記)

1557년에 작성된 원본 문서를 208년 뒤인 1765년에 傳寫한 것이다. 문서를 옮겨 적을 때 署押 등 서명 부분을 원문서에서 오려다가 해당 부분에 붙여 놓았다. 다른 문서들보다 후대에 작성된 전사 문서이지만 이들에 비해 보존 상태가 좋지 않다. 문서 가운데에 습기로 인해 충해를 먹은 듯 크고 작은 구멍이 10군데 정도 있다.

## 7. 이용 처 김씨 남매 화회문기(李容 妻 金氏 男妹 和會文記)

서문의 맨앞 1~2행의 하변이 망실되었으나, 분재기 뒤편 기록한 본문 부분은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망실 부분은 예안 烏川의 광산김씨 소장 고문서에 같은 문서가 전존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파악할 수 있다. 광산김씨 집안에는 「김부필남매화회문기」라는 명칭으로 전하고 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 간행의 『고문서집성』과 영남대 간행의 『경북지방고문서집성』에 수록되어 있다.

## 8. 이용 처 김씨 남매 화회문기(李容 妻 金氏 男妹 和會文記)

망실된 부분이 없이 보존 상태가 매우 좋은 편이므로 전문 판독이 가능하다. 두 장의 종이를 이어붙여 작성한 문서인데, 뒷면 점련처에 필집인 金富儀의 署押이 있다.

### 9. 이복원 남매 화회문기(李復元 男妹 和會文記)

지질이 좋지 않아 색깔이 누렇게, 문서 앞부분이 상당 부분 망실된 상태이다. 이 때문에 분재 서문과 장녀 몫의 분재량을 파악할 수 없다. 문서의 중간 부분에도 습기로 인한 땅콩 모양의 누런 반점이 군데군데 있다. 문서 뒷면의 종이를 연결한 부위에는 필집 ‘金垓’가 위아래 두 군데씩 서압을 하여 연결부분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 10. 이복원 처 박씨 남매 화회문기(李復元 妻 朴氏 男妹 和會文記)

앞부분이 상당 부분 망실된 상태이다. 특히 서문의 하단이 망실되어 문맥이 통하지 않는다. 문서 작성상의 특징으로 첫째, 배면의 점련처에 분재 당사자 전원과 필집이 서압을 하거나 圖畧을 찍어, 모두 9개의 점련처에 각각 5개의 서압과 도서가 있다. 둘째, 문서 작성상에 실수가 있는 경우는 그 자리에 改書하지 않고 刀割하여 다른 종이를 오려다 붙였다. 오려 붙인 자리는 모두 세 곳인데, 그 배면에 長子인 忠義衛 朴灑가 서압을 하였다.(3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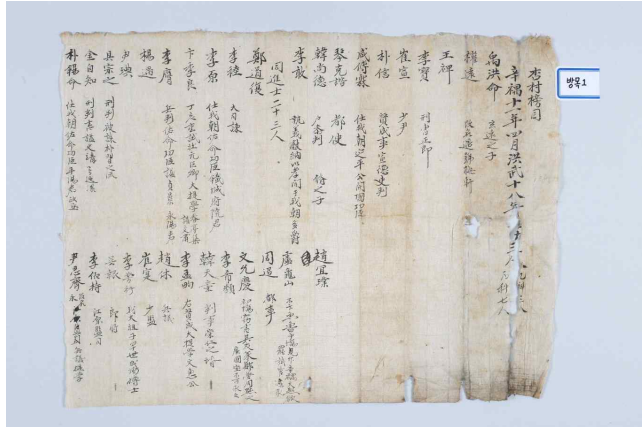
### 11. 이복원 처 박씨 별급문기(李復元 妻 朴氏 別給文記)

세 군데 구멍이 나 있으나 크기는 작으며, 그 외에는 보존상태가 좋은 편이다.

#### ○ 내용 및 특징

임청각 가전 고성이씨 고문서는 16~19세기 동안 작성된 자료가 주류를 이룬다. 보존된 문서의 양은 많지 않으나 분재기의 구성과 분량이 매우 우수하고, 17~18세기의 영남지역 명인 간찰이 풍부하다. 이들 문서는 고성이씨 가계가 퇴계학과로 대표되는 영남지역의 명문 양반가들과 혼인, 사우·문인관계를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 16세기 고문서를 중심으로 문화재 지정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지정 신청된 문서의 내용과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행촌방목(杏村榜目), 1385년 자료를 후대에 전사 /1점/34.0×45.0cm



「행촌방목」은 초행에 杏村榜目이라 쓰여 있고, 2행에 辛禍 11년, 洪武 18년 (1385)이라는 연대가 밝혀져 있는 문서이다. 이 문서는 몇 가지 면에서 작성시기와 원본 여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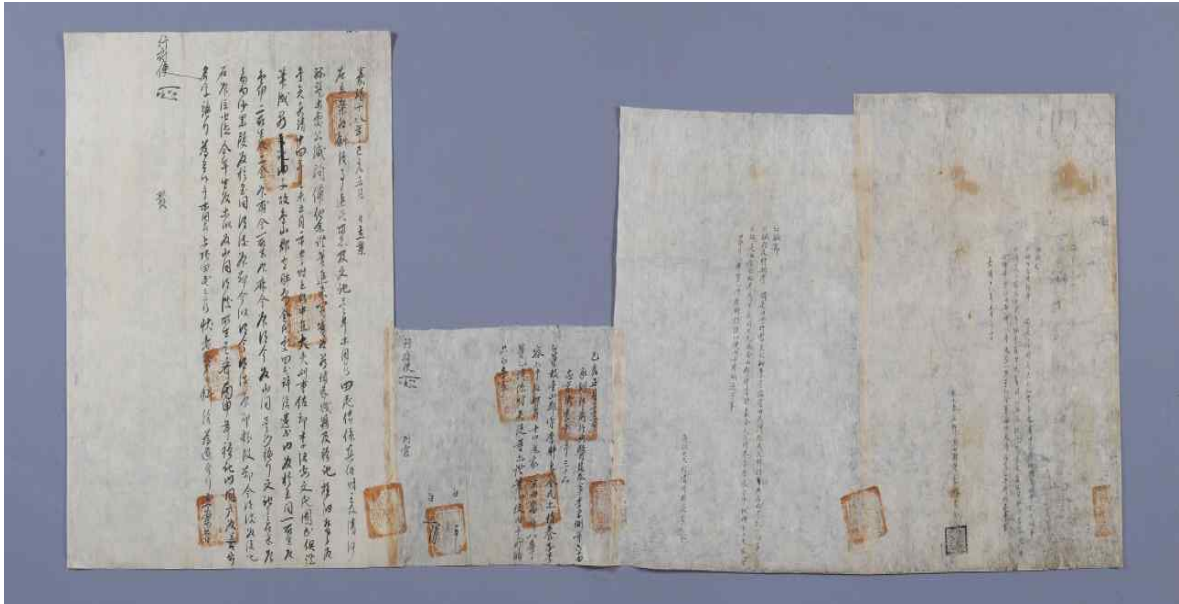
첫째, 이 문서에 과거급제자로 이름이 오른 이 집안 인물은 李元이다. 그런데 초행에 문서 제목으로 쓰인 ‘행촌’은 이원의 祖父인 李岳의 호이므로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암은 17세의 나이로 과거에 급제한 전력이 있으나 그 시기는 충선왕 때였고, 그의 생몰년이 1297년~1364년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 문서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둘째, 문서 중반에 인명을 쓰다가 수정한 부분이 두세 군데 보이며, 일부 인명에 대해서는 이력이 전혀 기재되지 않는 등 문서가 완결되어 있지 못하다.

이밖에도 관인이 전혀 없고 기존에 발굴된 낱장 방목 문서와도 그 형식면에서 차이가 있다. 1385년 이원의 과거급제 때 작성된 방목을 후대에 傳寫한 문서이고, 그 과정에서 이원과 그 조부 이암을 혼동하여 제목을 잘못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 2. 이반 처 김씨 입안(李胖 妻 金氏 立案), 1539년/1점/66.5×47.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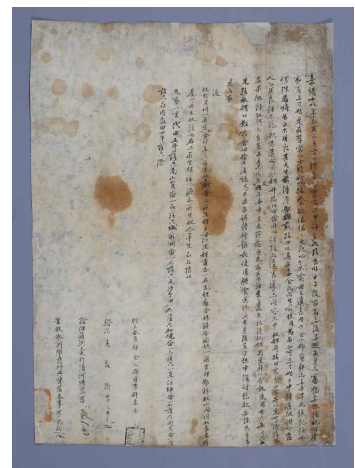


이 문서는 흔히 ‘斜給立案’으로 통칭되는 문서 중 하나로 재산의 증여 또는 매매 후 이를 관아로부터 공증받은 문서이다. 작성시기는 1539년(중종 34)이다.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친자식이 아닌 수양자나 시양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노비나 토지·가사 등을 매매한 경우에 절차를 갖추어 증여나 매매 사실을 관에 신고한 후에 공증을 받는데 이를 사급입안이라 한다. 이 문서의 경우 이반 처 김씨가 시양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안동부사로부터 공증을 받은 것이다.

이 문서의 의미는 시양자에 대한 재산의 증여 양상, 그리고 그 문서작성 절차를 보여준다는 점에 있다. 단, ‘사급입안 신청 所志-재산의 증여문기-財主의 招辭 또는 公緘-증인과 필집의 초사-입안’의 문서가 모두 점련되어 있어야 문서로서의 완결성이 있다. 그러나 이 문서는 맨 앞에 있어야 할 입안신청 所志가 누락되어 있고, 증여문기인 분재기가 이 입안과 분리되어 있다.

### 3. 이반 처 김씨 허여문기(李胖 妻 金氏 許與文記), 1539년/1점/66.5×47.5cm

앞의 문서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이반 처 김씨가 시양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작성한 분재기이다. 사급입안을 발급받기 위해 증빙 서류로 제출된 사급입안의 일괄 점련문기 중 하나로 보아야 한다. 현재는 점련이 해체된 채 단독으로 전래하고 그 상태로 보존되고 있어 형태상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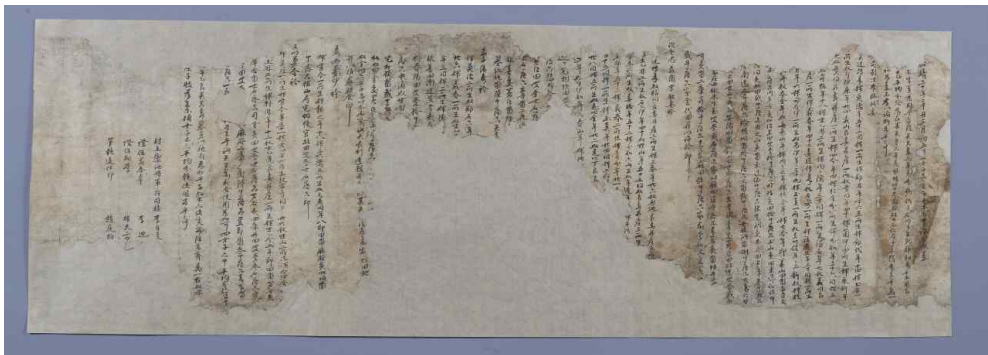


4. 이명 처 공인 문씨 잇급문기(李洺 妻 恭人 文氏 衿給文記), 1540년/1점/44.0×248.0cm



1540년(중종 35)에 이명의 처 문씨가 생존한 자녀와 사망한 자녀를 포함한 6남매에게 각자의 몫에 해당하는 노비를 분급하는 내용을 적은 분재기이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분재기의 경우 財主의 서명만으로도 법적 공신력을 가지나, 이 문서의 경우 수취자인 자식, 손자, 孫壻가 함께 署押을 한 것이 특징이다.

5. 이자하 장녀 잇급문기(李自夏 長女 衿給文記), 1541년/1점/56.0×169.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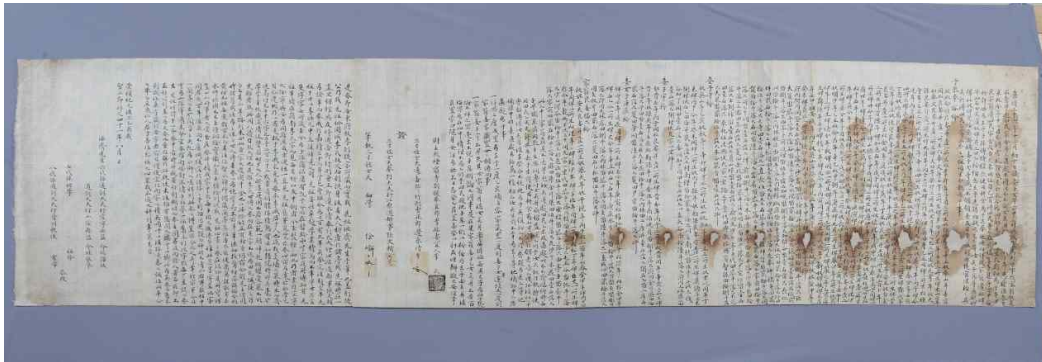


1541년(중종 36)에 李肱의 妻父 李自夏가 嫡女와 첩자녀들에게 각자의 몫을 분배한 분재기이다. 이자하의 적녀가 이평과 혼인하였으므로 이 문서가 임청각에 전래하였다. 이평은 李洺의 여섯 번째 아들이므로 임청각의 고성이씨는 이평의 후손들이다. 이평 이하 그의 장자로 이어져 온 가계로 이들을 흔히 고성이씨 안동파라고도 지칭한다.

이 문서는 문화재 지정 신청한 11건의 문서 중 그 파손 정도가 가장 심하여, 문서의 1/3 정도가 마멸된 상태이다.

6. 이평 처 이씨 잇급문기(李肱 妻 李氏 衿給文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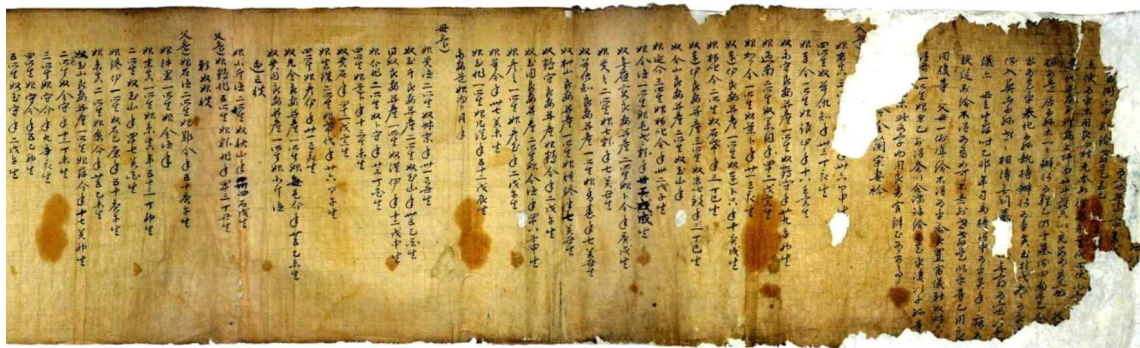
\*1557년 문서를 1765년 전사/1점/60.0×250.0cm



이 문서는 1557년(명종 12)에 작성된 원본 문서를 1765년(영조 41)에 傳寫한 것이다. 원본 문서는 이평이 자신의嫡妾 자녀에게 재산을 분할한 분재기이다. 원본이 아닌 후대의 전사본이므로 현상적인 가치는 떨어질지 모르나, 원본에서 전사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跋文으로 소상히 기록해 놓았으므로 기록학적 측면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다. 발문에 따르면, 1557년 당시 분재기 작성에 필집으로 참여했던 徐嶸의 후손인 달성서씨 집안에서 조상인 서해의 친필을 소장하기 위해 원본 분재기를 가져가면서 사본을 작성하게 해 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조상의 필적을 중시여긴 달성서씨 집안은 원본을 소유하고, 분재기의 내용이 중요한 고성이씨 집안은 사본을 소장하게 되었다. 분재기의 필적이 중시된 점이 특이하고, 재산의 소유권 증빙에도 쓰일 수 있는 분재기를 내준 것도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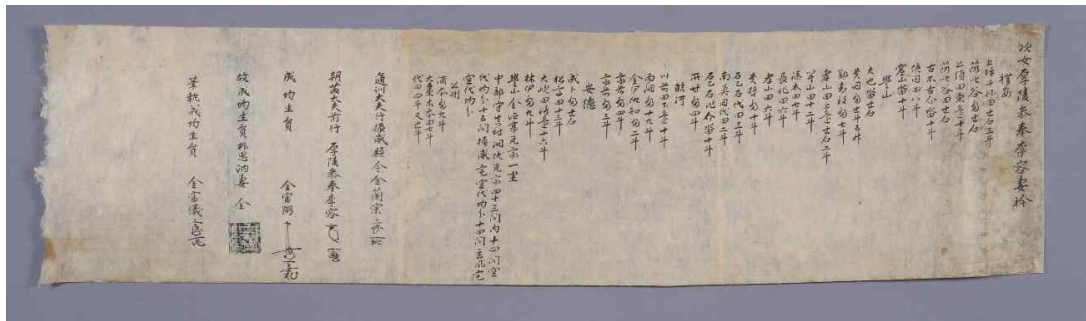
이를 종합하면 원본으로부터 200여 년 후에 작성된 寫本이지만 사본의 제작 이유를 상세히 기록해 보존 경위가 특별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부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7. 이용 처 김씨 남매 화회문기(李容 妻 金氏 男妹 和會文記), 1559년/1점/40.0×556.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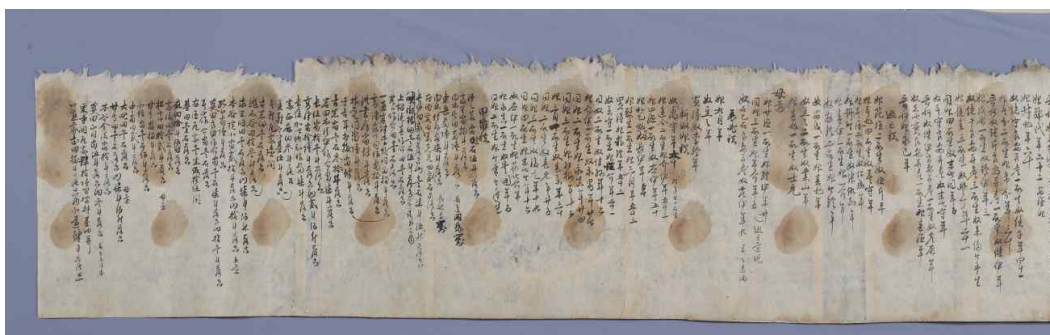
1559년(명종 14)에 이용의 처 김씨가 친정인 예안 오천의 광산김씨 집안에서 상속할 때 작성된 분재기이다. 이용의 처 김씨는 오천 광산김씨 金緣의 딸이었다. 이 분재기는 당시 안동 인근 두 명문가의 통혼과 경제적 기반을 입증하는 문서라 할 수 있다. 당시 이 분재기는 노비와 토지를 별개의 문서로 각각 작성하였다. 이 문서는 그 중 노비 분재기이다.

8. 이용 처 김씨 남매 화회문기(李容 妻 金氏 男妹 和會文記), 1559년/1점/33.5×133.0cm



1559년(명종 14)에 이용의 처 김씨가 친정인 예안 오천의 광산김씨 집안에서 상속할 때 작성된 분재기 중 토지 분재기이다. 하지만 노비 분재기가 都文記로 작성된 것과 달리 이 분재기는 각깃문기[各畝文記]로 작성된 것이 특이하다. 즉 이 토지 분재기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몫만을 수록한 개별 분재기에 해당한다.

9. 이복원 남매 화회문기(李復元 男妹 和會文記), 1584년/1점/43.5×824.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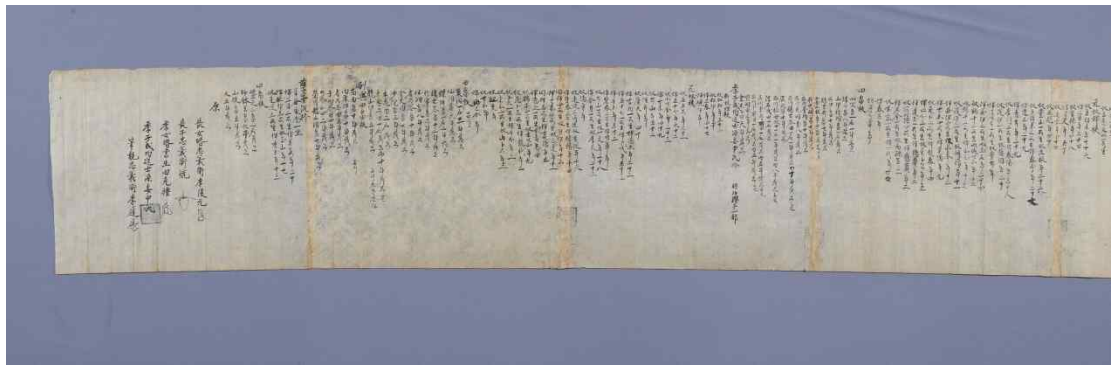


1588년(선조 21)에 이복원 남매가 부모의 재산을 분할 상속하면서 작성한 분재기이다. 문서 앞부분이 상당 부분 망실되어 작성연대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1584~1590년 사이에 작성된 문서로 이해해 왔다. 이것은 사위로서 상속에 참여한 柳雲龍이 인동현감이라 밝힌 부분을 통해 추정된 연대였다. 하지만 본 분재기에 수

록된 노비의 인명과 나이를 전후의 분재기와 대조한 결과 이 분재기는 1588년에 작성된 것임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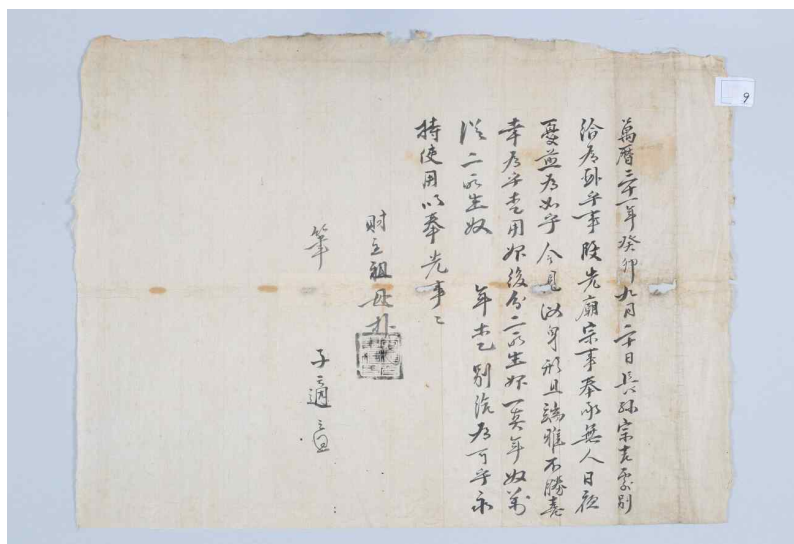
이 문서 역시 통혼한 안동 하회의 풍산유씨 집안에도 동일한 분재기가 소장되어 있어 통혼권과 명문가의 경제적 기반을 밝히는 데에 주요 사료이다.

10. 이복원 처 박씨 남매 화회문기(李復元 妻 朴氏 男妹 和會文記), 1588년/1점/41.5×516.0cm



1588년(선조 21)에 이복원의 처가인 반남박씨 집안에서 재산을 분할상속할 때 작성한 분재기이다. 이복원은 사위로서 재산분할에 참여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 분재기가 고성이씨 집안에 전래하게 되었다. 1588년에 이복원이 본가와 처가 양쪽에서 재산을 상속받았음을 알 수 있고, 양반가의 재산형성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문서이다.

11. 이복원 처 박씨 별급문기(李復元 妻 朴氏 別給文記), 1603년/1점/40.0×56.5cm



1603년(선조 36)에 이복원의 처 반남박씨 부인이 장손이 宗吉에게 노비 2명을 별급한 분재기이다. 1603년은 손자 종길(宗吉)이 태어난 해로서, 박씨 부인은 제사를 승계할 종손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별급을 시행했음을 알 수 있다. 종길은 나중에 '宗培'로 개명한 것으로 보인다. 족보나 다른 분재기에는 그의 이름이 종배로 나와 있다.

## ○ 문헌자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古文書集成』 49-安東 法興 固城李氏篇-, 200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광산김씨오천고문서』, 198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고문서집성』 15-안동 하회 풍산유씨편-, 1994.

이수건 편, 『경북지방고문서집성』,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82.

『고성이씨세계』(안동파), 필사본, 한중연 MF 35-8964-8972.

문숙자,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경인문화사, 2004.

문숙자, 「16-17세기 兩班家 노비 가족의 존재 형태 -固城李氏 臨淸閣 分財記 분석을 통하여-」, 『古文書研究』 제32호, 2008.

## ○ 기 타(소장 경위 등)

### 1) 조사·수집

신청 문서는 경북 안동시 범흥리 20번지 고성이씨 대종택인 임청각에 대대로 전래된 것으로, 2004년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기탁된 것이다. 임청각 가전 고성이씨 고문서가 처음 조사된 것은 1997년이다. 안동 일원의 고문서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오던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연구실에서 고성이씨 고문서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수소문 끝에 임청각 가전 고문서를 접하게 되었다. 당시 고문서는 임청각에서 서울 중계동으로 옮겨져 보관되어 있었고, 고문서연구실팀이 고문서를 조사할 수 있도록 직접 응대한 이는 현 종손(이창수)의 삼촌인 李恒曾 氏였다.

### 2) 간행·공개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이후 임청각 가전 고문서를 대여하여 장서각으로 가지고 와서 목록 정리, 마이크로필름 촬영 등의 작업을 거친 후 2000년에 이를 『고문서집성 49-안동 범흥 고성이씨편-』으로 간행하였다.

### 3) 기탁·관리

이후 2004년에는 전국에 산재한 명문가의 고문서를 기증·기탁받아 관리한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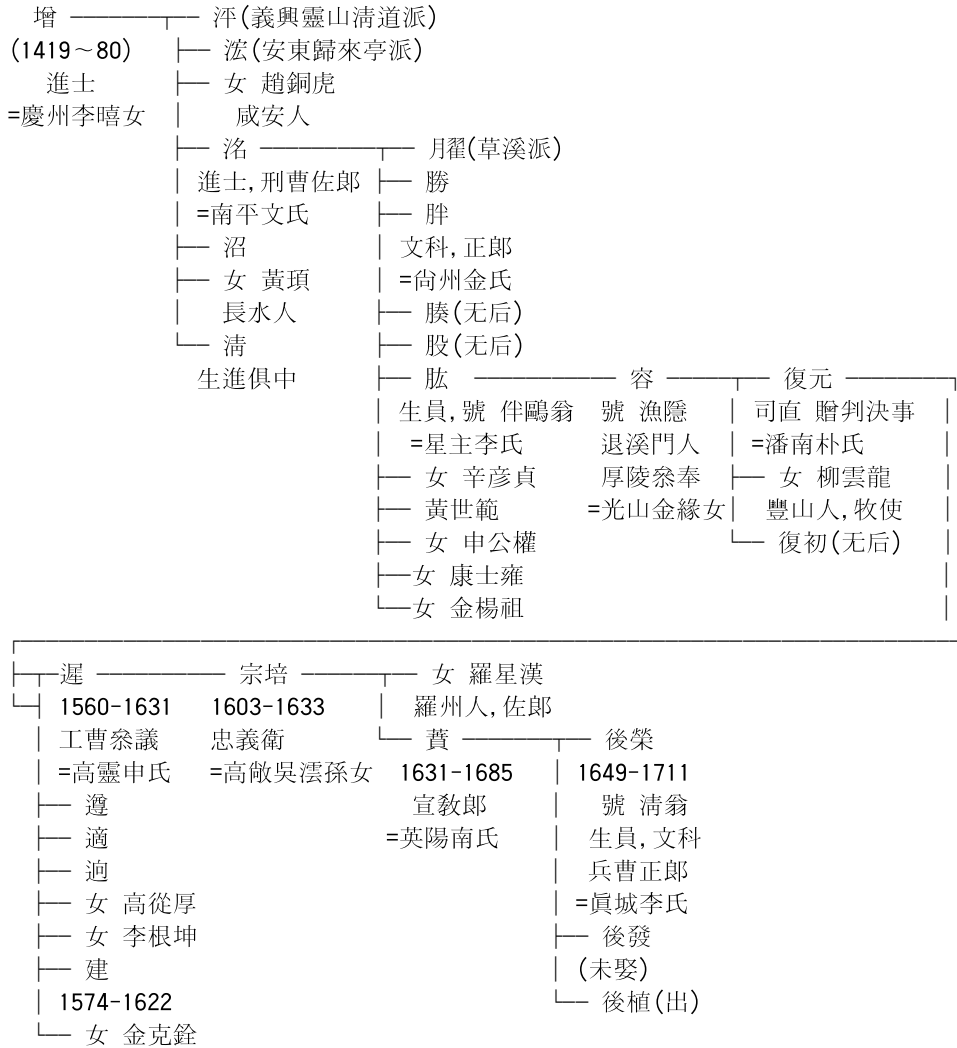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의 방침에 따라 종손 이창수 씨가 협약을 통해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기탁하여 장서각에서 이를 관리, 보존하고 있다.

### <부록 1> 임청각 가전 고성이씨 분재기 일람

(\*1~9번이 지정 신청된 분재기임)

번호	分財時期	分財形態	財主	受給者	分財項目
1	1539년	別給	李胖妻金氏	侍養子 李容	奴婢, 家舍, 田畓
2	1540년	衿給	李洺妻文氏	6남매	奴婢
3	1541년	衿給	李肱妻父李自夏	1남4녀	
4	1557년	衿給	李肱妻李氏	嫡妾자녀	奴婢, 田畓, 家代, 瓦家
5	1559년	和會		李容妻金氏男妹	奴婢
6	1559년	和會		李容妻金氏男妹	土地
7	1588년	和會		李復元妻朴氏男妹	奴婢, 田畓, 家舍, 銀帶, 明珀纓子
8	1588년	和會		李復元男妹	奴婢, 田畓
9	1603년	別給	李復元妻朴氏	長孫 宗吉	奴婢
10	임란후~ 1630년	和會		李遲男妹	奴婢, 田畓, 瓦家, 代田, 亭
11	1638년	別給	外祖母朴氏	외손 태산	奴婢
12	1638년	別給	母 朴氏	末女 李宗培妻	畓
13	1639년	別給	李遲妻高靈申氏	孫女婿 羅星漢	奴婢, 畓
14	1647년	和會		李宗培妻吳氏男妹	奴婢, 田畓
15	1673년	別給	李蕘	長男 李後榮	奴婢, 田畓
16	1678년	別給	李蕘	子婦 李後榮妻 眞城李氏	奴婢, 田畓
17	1680년	和會		李蕘 男妹	奴婢, 田畓
18	1685년	別給	李蕘	長子 李後榮	奴婢, 田畓
19	1688년	和會		李後榮 男妹	奴婢, 田畓
20	1688~1722년	衿給	李後榮	李時成男妹	
21	1746년	和會		李時成男妹	奴婢, 田畓

<부록 2> 분재기 작성 시기의 고성이씨 가계도





## 11. 도산서원 유가경서 언해 (陶山書院 儒家經書 諺解)

### 가. 검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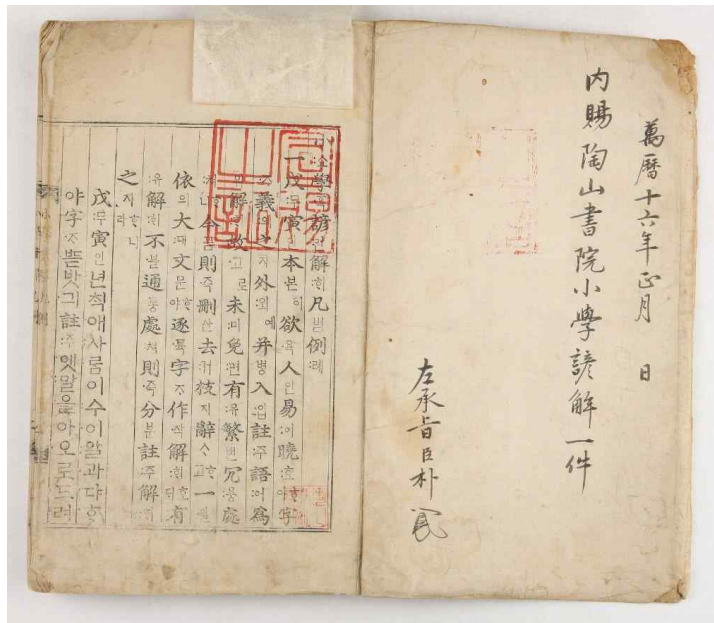
‘도산서원 유가경서 언해’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도산서원 유가경서 언해’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7.9.4.)이 있어 관계 전문가 조사('19.9.20.)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 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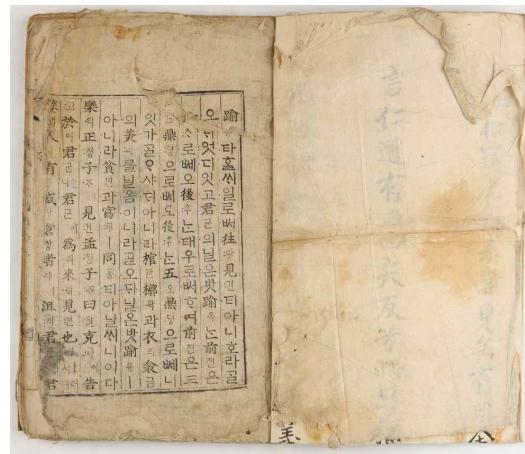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도산서원 유가경서 언해(도산서원 유가경서 언해)
- 소유자(관리자) : 도산서원운영위원회(한국국학진흥원)
- 소재지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1997, 한국국학진흥원
- 수 량 : 5종 17책  
(소학언해 4책, 대학언해 1책, 논어언해 4책, 중용언해 1책, 맹자언해 7책)
- 규 격 : ①소학언해 : 36.0×22.7cm, ②대학언해: 35.9×22.8cm, ③논어언해: 35.6×22.5cm, ④중용언해: 36.0×22.8cm ⑤맹자언해: 35.5×22.4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금속활자(乙亥字)
- 형 식 : 선장본
- 조성연대 : ①소학언해 : 1587년(선조 20), ② 기타 : 1590년(선조 23)



<도산서원 유가경서 언해(소학언해)>



<도산서원 유가경서 언해(논어언해)>



<도산서원 유가경서 언해(맹자언해)>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보류)

신청 자료 경서언해는 경서의 언해본으로는 최초의 판본이며, 방점이 있는 한글 표기가 있는 문헌으로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변하는 과정, 즉 방점과 △, ○을 보이는 마지막 문헌이라는 점에서 국어사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신청 자료의 상태는 일부 책의 앞부분에 부분적으로 훼손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태가 양호한 편이며 무엇보다 완질로 보존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동일 판본의 경서언해본이 현재 몇 종이 전하고 있긴 하지만 도산서원본과

같은 완질은 없고 책의 상태도 대부분 좋지 않다. 게다가 본 신청본은 도산서원에서 내사받은 자료라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크다.

다만 사서와 소학은 현재 많은 판본이 전하고 있어서 희소성이 조금 미흡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사서와 소학이 교정청의 동일 활자로 간행되었고 함께 도산서원에 하사된 내사본이므로, 지정·비지정을 막론하고 반드시 함께 묶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 (보류)

조사본 『소학언해』 및 『논어언해』, 『맹자언해』, 『중용언해』, 『대학언해』의 ‘오서(五書)’는 선조 19년(1586) 왕명에 의해 교정청(校正廳)에서 각각 선조 20년(1587)년과 선조 23년(1590)에 乙亥字體 經書字로 간행한 책이다.

『소학언해』는 내사기를 통하여 만력 16년(1588, 선조 21) 정월에 도산서원에 내사한 책임을 알 수 있다. 더욱 책 첫머리에 「범례」가 있고, 끝에 이산해(李山海)의 발문과 간행에 관여한 관원의 명단이 붙어 있어 편찬 간행에 관한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있어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한편 『논어언해』, 『맹자언해』, 『중용언해』, 『대학언해』 등의 ‘사서(四書)’는 한글 구결(口訣)을 달고 한글로 번역한 것으로, 1590년(선조 23) 도산서원에 반사(頒賜)된 책이다. 이 자료들은 17세기 한국어 실태를 잘 반영하고 있는 국어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자료들로서, 국어학계를 중심으로 차자(借字), 약체(略體), 구결(口訣)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들 자료는 현존하는 동일 판본의 언해본과 비교하여 도산서원에 반사된 자료로서 완질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첫째, 도산서원에 전해지는 모든 자료에 대한 현황 및 검토가 충분하게 수행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미 지정된 임고서원과 조정 종가 문적 등의 자료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소장처에 전해지는 모든 자료의 현황과 성격, 가치 등이 밝혀졌고 그 중 특별한 유물을 중심으로 국가문화재 지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논어언해』, 『맹자언해』, 『중용언해』, 『대학언해』 등의 ‘사서(四書)’는 완결성이란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언해』에서 확인되는 앞의 제1장과 2장 두 장의 결락, 『맹자언해』에서 보이는 권1~2, 권3~4 그리고 권7~8의 3책의 표지 개장과 본문의 착간 등은 자료의 보존 과정에서 일어난 작은 변화이지만 원형의 변형이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소학언해』, 『논어언해』, 『맹자언해』, 『중용언해』, 『대학언해』 등 5

종의 자료는 도산서원에 전해지는 일괄자료라는 점에서 소장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그 성격과 가치를 재정리하고, 현재 전하는 다른 자료들과의 정밀한 비교 검토 이후 지정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 ○ (‘소학언해’만 지정 가치 있음)

『소학언해』의 수록 형식은 원문인 한문을 먼저 싣고, 뒤를 이어 언해를 첨가한 형식이다. 원문에는 東國正韻式 한자음을 따르지 않고, 現實 漢字音에 따라 표기된 한자음과 한글 토가 표기되어 있다. 언해문에도 한자와 한자음이 표기되어 있다. 언해문과 현실 한자음에 따라 표기된 한자음에는 傍點이 있고, 언해문에 ‘△’와 ‘ㅇ’ 표기를 보여주는 최후의 문헌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초기 한글을 연구하는데 그 자료적 가치가 있다.

본서 『소학언해』는 당시 교정청에서 간행한 사서언해(『대학언해』, 『논어언해』, 『중용언해』, 『맹자언해』)와 비교해 볼 때, 언해작업의 책임자인 李山海의 跋이 남아 있어서 간행연대가 확실하고 陶山書院에 내사된 內賜記와 內賜印인 [宣賜之記]가 모두 남아 있다. 또한 표지와 본문의 腐蝕과 缺落도 없이 보존상태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간행연대는 선조 20(1587)년으로 壬亂 이전에 간행되었으며, 『소학언해』의 현존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판본이며 16세기 말에 새롭게 주조한 금속활자본(을해자체경서자)라는 측면에서 서지적 가치가 있다.

따라서 본 『소학언해』는 국가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반면, 사서언해(『대학언해』, 『논어언해』, 『중용언해』, 『맹자언해』)의 수록 형식은 원문인 한문을 먼저 싣고, 뒤를 이어 언해를 첨가한 형식이다. 원문에는 東國正韻式 한자음을 따르지 않고, 現實 漢字音에 따라 표기된 한자음과 한글 토가 표기되어 있다. 언해문에도 한자와 한자음이 표기되어 있다. 언해문과 현실 한자음에 따라 표기된 한자음에는 傍點이 있고, 언해문에 ‘△’와 ‘ㅇ’ 표기를 보여주는 최후의 문헌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초기 한글 연구에 그 자료적 가치가 있다.

한편 본 사서언해는 1590년(조선 선조 23)에 校正廳에서 간행한 언해본으로, 壬亂 이전이라는 희소성이 인정되고 16세기 말에 새롭게 주조한 금속활자본(을해자체경서자)라는 측면에서 서지적 가치가 있다. 다만 『대학언해』는 본문 제1張-제2張이 缺落되어 있고, 『논어언해』는 제1冊-제2冊의 표지 하단과 본문 제1張-제2張이 부식되어 있다. 『맹자언해』는 제1冊의 표지가 改裝되어 있고 본문 제1張-제2張이 결락되어 있으며, 나머지 책도 표지 및 본문의 일부가 부식되어 있고 版心이 갈라져 있다.

이상과 같은 전반적인 보존상태를 볼 때 본 사서언해(『대학언해』, 『논어언해』, 『중용언해』, 『맹자언해』)를 국가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보 류 : 관련 자료 추가조사 필요

조사보고서



### ○ 현 상

보존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다. 논어 권수의 판심 부분이 훼손되었고 대학 권수 한장이 탈장되었으며, 논어와 맹자도 권수에 약간의 훼손이 있다. 맹자는 새표지로 개장하였다.

### ○ 내용 및 특징

『대학언해』·『론어언해』·『등용언해』·『밍즈언해』의 사서와 『쇼학언해』로 이루어진 신청본은 모두 1585년(선조 18)에 설치한 교정청에서 편집하여 간행한 것으로,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직전에 경상도 예안의 도산서원에 하사한 내사본이다. 乙亥字體 經書字로 인출되었고 한글에 방점이 있고 內賜記가 있다. 중세국어 연구에 가치가 있는 자료이다.

### ○ 기 타

도산서원 광명실에 보관해 오다가 2003년 6월에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하였다.



### ○ 현 상

조사본은 모두 1585년(선조 18)에 설치한 교정청에서 편집하여 간행한 것으로 경상도 예안의 도산서원에 하사한 내사본(內賜本)이다. 도산서원 광명실에 보관해 오다가 2003년 6월에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것으로 전해진다. 책 가운데 맹자의 표지는 개장된 상태이며, 각 책의 권수 부분에 약간의 훼손이 보이나 전체적인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 ○ 내용 및 특징

### 1) 소학언해(小學諺解)

小學諺解, 校正廳(朝鮮) 奉命撰.

金屬活字本(乙亥字體 經書字). [漢陽], [校書館], [宣祖 20(1587)]. 36×22.7 cm.

6卷4冊. 四周雙邊. 半廓 : 24.8×17.1 cm. 有界. 10行19字.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版心書名 : 小學諺解.

內賜記 : 萬曆十六(1588)年正月日內賜陶山書院小學諺解一件左承旨臣朴(手決)

跋 : 萬曆十五年丁亥(1587)…李山海.

卷末 : 纂輯諸臣 : 李山海 포함 31人.

內賜印 : [宣賜之記]

寄贈記 : 陶山書院上.

藏書印 : 陶山書院.



內賜記 / 宣賜之記

소학언해(4책)

『소학』은 남송 유청지(劉清之, 字 子澄)가 광종 14(1187)년에 주자의 뜻을 계승하여 아동을 가르치기 위해 편찬한 수신서이다. 내편(內篇), 외편(外篇) 모두 6편으로 되어 있으며, 내편은 입교(立敎), 명륜(明倫), 경신(敬身), 계고(稽古)로 나뉘고, 외편은 가언(嘉言), 선행(善行)으로 나뉘어 효(孝), 제(弟), 충(忠), 신(信) 등 사람의 도리와 수신(修身)의 절차가 기록되어 있다. 그 구성은 사자일구(四字一句)로 되어 있으며, 체제는 오륜(五倫)의 차례를 따라서 먼저 부자(父子), 군신(君臣), 부부(夫婦), 형제(兄弟), 사생(師生), 장유(長幼), 붕우(朋友)간의 도리를 말하고, 끝으로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본성과 인간이 지켜야 할 오륜(五倫), 삼강(三綱), 구용(九容), 구사(九思), 사물(四物) 등의 총론순으로 되어있다.

우리나라에도 일찍 수용되어 학문을 위한 교재로 활용되었다. 특히 권근(權近), 김굉필(金宏弼), 조광조(趙光祖), 김안국(金安國) 그리고 이황(李滉) 등 대학자들이 도학실천(道學實踐)을 위한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① 길창군(吉昌君) 권근(權近)이 상서(上書)하였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신(臣) 근(近)이 장귀(章句)의 말학(末學)으로 오랫동안 문한(文翰)의 직임을 욕되게 하여 은혜를 입은 바가 지나치게 후(厚)하나, 일찍이 보답한 것이 없사온데, 이제 또 외람하게 유학 제조(儒學提調)가 되었으니, 어찌 감히 노둔(駑鈍)한 재주를 다하여 문치(文治)의 만분(萬分)의 일을 돕지 않겠습니까? 그러하오나 신(臣)이 쇠(衰)한 나이에 병이 많고, 정신이 혼미하며, 눈은 관람(觀覽)하기에 어둡고, 기운은 강설(講說)하기에 피곤하여, 비록 힘을 다해 후학(後學)을 가르쳐 내고자 하여도 실로 감내할 수 없으니,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생각하매 전하(殿下)의 위임(委任)하신 뜻을 저버릴까 두렵습니다. 삼가 권학(勸學)하는 사목(事目) 한두 조건(條件)을 갖추 기록하여 아뢰오니, 성상(聖上)의 재가(裁可)를 바랍니다. (중략) 소학(小學)의 글은 인륜(人倫)·세도(世道)에 매우 긴급(緊切)한 것이운데, 지금의 학자(學者)는 모두 익히지 않으니 심히 불가(不可)합니다. 지금부터 경중(京中)과 외방(外方)의 교수관(教授官)이 모름지기 생도(生徒)들로 하여금 먼저 이 글을 강(講)한 연후에 다른 글을 배우도록 허락하게 하고, 생원시(生員試)에 응시하여 태학(太學)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성균 정록소(成均正錄所)로 하여금 먼저 이 글의 통부(通否)를 상고하게 하여 응시하도록 허락하고, 길이 항식(恒式)을 삼으소서. (후략)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3월 24일 정축 / 1407년 明 永樂5年 )

② 성균 대사성(成均大司成) 권우(權遇) 등이 상서하였다. 상서는 이러하였다.  
 "신 등은 모두 용렬(庸劣)하고 천한 사람으로서 성명(聖明)을 만나 발탁(拔擢)하여 써 주심을 입어 외람되게 학관(學官)이 되었으므로, 교양(教養)의 직임을 진실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그러짐이 있을까 두려워하는데, 감히 직분(職分)을 다하여 성은(聖恩)의 만에 하나라도 보답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오늘날의 학교 제도(學校制度)와 선거법(選舉法)은 마땅히 혁파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 등이 삼가 옛 제도를 고찰하고 시의(時宜)를 참작하여 총문(聰聞)을 더럽힙니다. 나무꾼의 말도 반드시 고르고 가까운 말도 반드시 살피는 것이 참으로 성인의 지극한 덕입니다. 엿드려 바라건대, 성상이 재량(裁量)하여 시행하면 우리 도(道)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임금이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옛날 사람이 세상에 나서 8세가 되면 왕공(王公) 이하에서 서인(庶人)의 자제(子弟)에 이르기까지 모두 소학(小學)에 들어가던 법에 의하여, 1품으로부터 그 이하로 서인(庶人)의 자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부학(部學)211) 으로 들어가게 하여 비로소 소학 책을 가르치게 하고, 매일 읽은 것은 반드시 배문(背文)하여 외우게

한 뒤에 다시 다음 절(節)을 가르치며, 5일마다 고강(考講)하여 통하지 못하는 자는 벌을 주고, 잘 외우고 잘 강(講)하는 자는 그 고하를 논하여 모두 책(冊)에다 쓰고, 그 학문이 점진(漸進)하여 사서(四書)와 일경(一經)을 읽기에 이르는 자는 봄 가을마다 의의(疑義)를 짓는 것으로써 시험하여, 그 고하의 차례대로 장부에다 이름을 쓰고, 벌(罰) 받는 것의 다소도 여기에 쓰게 할 것. (하략)  
(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6월 30일 정축 / 1413년 明 永樂11年 )

세종대에는 중국에서 가져온 『집성소학(集成小學)』을 주자소에 보내어 간행하였고, 고려말부터 한학을 위한 학습서로 사용되었던 『직해소학(直解小學)』을 간행하여 전국의 향교와 문신들에게 반사하기도 하였다.

① 판부사(判府事) 허조(許稠)가 계하기를,  
"『소학(小學)』은 격물치지(格物致知)하고 성의정심(誠意正心)하는 근본이오니, 배우는 사람의 선무(先務)가 될 것입니다. 지금 판각(板刻)한 책은 글자가 이지러지고 인쇄된 것이 알아 볼 수가 없어서 배우는 사람들에게 불편하오니, 청컨대 신이 일찍이 올린 『집성소학(集成小學)』을 주자소(鑄字所)에 내려 보내서 인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41권, 세종 10년 9월 8일 정사 / 1428년 明 宣德3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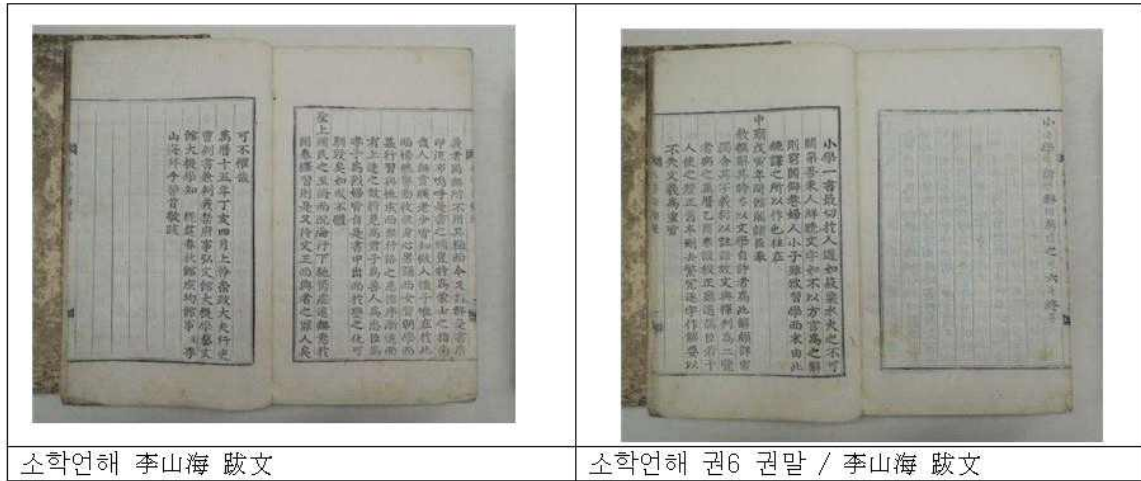
② 『직해소학(直解小學)』 2백 본을 인쇄(印行)하여 각 고을의 향교(鄉校)와 문신(文臣)에게 반사(頒賜)하였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0월 18일 신사 / 1441년 明 正統 6年)

언해본으로는 중종 13(1512)년 홍문관의 진언에 따라 김전(金詮)과 최숙생(崔淑生) 등에게 명해 번역하여 활자로 1,300질을 간행한 『번역소학(翻譯小學)』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번역이 너무나 의역에 흘렀다는 비판 때문에, 선조 19(1586)년 왕명으로 교정청(校正廳)에서 이산해(李山海)를 중심으로 다시 번역하여 선조 20(1587)년 간행하였다.

조사본은 만력 16년(1588, 선조 21) 정월에 도산서원에 내사한 책이다. 책 첫머리에 「범례」가 있고, 끝에 이산해(李山海)의 발문과 간행에 관여한 관원의 명단이 붙어 있어 편찬 간행에 관한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있다. 현존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서 전질이 있으며, 내사기 및 발문을 통하여 책의 간행 시기 및 경과 그리고 반사처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다.





## 2) 대학언해(大學諺解)

大學諺解, 校正廳(朝鮮) 奉命撰.

金屬活字本(乙亥字體 經書字). [漢陽], [校書館], [宣祖 23(1590)]. 35.9 x 22.8 cm.

1冊(27張). 四周雙邊. 半廓 : 24.7×17cm cm. 有界. 10行19字.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版心書名 : 大學諺解.

內賜記 : 萬曆十八(1590)年七月日內賜禮安陶山書院大學諺解一件左副承旨臣李(手決)



『대학』은 기원전 430년경에 만들어진 책으로,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정치 철학과 학문을 직접 연결한 유학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은 학문에서 나아가 천하를 이끄는 군주나 재상이 익혀야 할 학문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조사본은 내사기를 통하여 만력 18년(1590, 선조 23) 7월에 도산서원에 내사한 책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선조실록의 내용을 통하여 선조 20년(1587) 사서와 삼경의 교정을 끝낸 이후 대학은 다시 한번 개정하여 교정을 완료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본서의 표지는 원래의 표지로 판단되나, 앞의 제1장과 2장 두 장이 결락되었다. 원문인 한문을 앞에 싣고 이어서 언해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한자음은 동국정운식(東國正韻式) 한자음에 따르지 않고 현실 한자음(漢字音)에 따라 표기된 것이다. 한글 연구를 위한 중요 자료로 이해되고 있다.

### 3) 논어언해(論語諺解)

論語諺解, 校正廳(朝鮮) 奉命撰.

金屬活字本(乙亥字體 經書字). [漢陽], [校書館], [宣祖 23(1590)]. 35.6 x 22.5 cm.

4卷4冊. 四周雙邊. 半廓 : 24.8×17 cm. 有界. 10行19字.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版心書名 : 論語諺解.

內賜記 : 萬曆十八(1590)年七月日內賜禮安陶山書院論語諺解一件左副承旨臣李(手決)

內賜印 : [宣賜之記]

寄贈記 : 陶山書院上.

藏書印 : 陶山書院.



『논어』는 기원전 450년경에 만들어진 책으로, 공자의 언행록 20편이다. 공자를 중심으로 그의 제자들과 제후와 문답한 내용을 제자와 그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다.

조사본은 선조의 명에 따라 교정청(校正廳)에서 행한 사서삼경의 언해사업으로 『대학언해』·『중용언해』·『맹자언해』 등과 함께 간행된 책이다. 내사기를 통하여 만력 18년(1590, 선조 23) 7월에 도산서원에 반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서의 표지는 원래의 표지이며 권수에 ‘宣賜之記’가 날인되어 있다. 원문에는 한글로 된 토와 한자음이 있고, 언해문에도 한자와 한자음이 표기되어 있다. 언해문과 현실한자음에 따라 표기된 한자음에는 방점이 찍혀 있다. 한글 연구를 위한 중요 자료로 이해되고 있다.

본문은 완전하나 판심부의 탈락, 마모, 결락 등 손상이 여러곳에서 확인된다.

#### 4) 멩즈언해(孟子諺解)

孟子諺解, 校正廳(朝鮮) 奉命撰.

金屬活字本(乙亥字體 經書字). [漢陽], [校書館], [宣祖 23(1590)]. 35.5×22.4 cm.

14卷7冊. 四周雙邊. 半廓: 24.8×17.1 cm. 有界. 10行19字.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版心書名: 孟子諺解.

藏書印: 陶山書院.



『멩자』는 기원전 280년경에 만들어진 책으로, 유가에 속하는 사상가 멩자의 언행을 기록하고 인의(仁義)의 도덕을 강조한 것이다. 모두 7편이나 각 편은 상하로 나뉘기 때문에 실제로는 14편인 셈이다.

조사본은 표지와 본문 앞부분의 결락으로 인해 내사기를 확인할 수 없으나, 선조의 명에 따라 교정청(校正廳)에서 행한 사서삼경의 언해사업으로 『대학언해』·『중용언해』·『논어언해』 등과 함께 간행된 책임을 알 수 있다.

7책 가운데 권1~2, 권3~4 그리고 권7~8의 3책은 표지가 개장된 상태이다. 그중 권1은 양혜왕(梁惠王) 하 제16장 가운데 “樂正子見孟子曰克告於君호니君爲來見也러시니嬖人有臧倉者沮君이” 부분부터 시작되고 있어 그 앞부분은 모두 결락된 상태이나, 권2의 마지막 부분에 권1의 결락된 장이 수록되어 있어 원상이 많이 변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권1을 제외한 다른 책의 본문은 완전하나 판심부의 탈락, 마모, 결락 등 손상이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5) **중용언해(中庸諺解)**

中庸諺解, 校正廳(朝鮮) 奉命撰.

金屬活字本(乙亥字體 經書字). [漢陽], [校書館], [宣祖 23(1590)]. 36×22.8 cm.

1冊(55張). 四周雙邊. 半廓 : 24.8×17 cm. 有界. 10行19字.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版心書名 : 中庸諺解.

內賜記 : 萬曆十八(1590)年七月日內賜禮安陶山書院中庸諺解一件左副承旨臣李(手決)

內賜印 : [宣賜之記]

寄贈記 : 陶山書院上.

藏書印 : 陶山書院.



『중용』은 기원전 430년경에 만들어진 책이다. ‘誠’과 ‘中’을 기본 개념으로 하여 天人一理를 설명한 형이상학적인 내용의 책이다. ‘中’이란 기울어짐이 없다는 뜻이고, ‘庸’이란 영원불변이라는 뜻이므로, 올바르고 변함이 없는 도리를 설명한 책이 되는 셈이다. 원래는 『예기(禮記)』에 속한 한 편명이었으나 독립시켰고, 송나라 주희가 이것을 33節로 나누었다.

조사본은 내사기를 통하여 만력 18년(1590, 선조 23) 7월에 도산서원에 내사한 책임을 알 수 있다. 본서의 표지는 원래의 표지이며 권수에 ‘宣賜之記’가 날인되어 있다. 변란의 밖에는 ‘陶山書院上’이라는 목서가 기록되었다. 원문에는 한글로 된 토와 한자음이 있고, 언해문에도 한자와 한자음이 표기되어 있다. 언해문과 현실 한자음에 따라 표기된 한자음에는 방점이 찍혀 있다. 한글 연구를 위한 중요 자료로 이해되고 있다.

## ○ 문헌자료

- 김태우, 「《소학》의 언해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한국사상사학』 60, 2018.  
신정엽, 「조선시대 간행된 小學諺解本 연구」, 『서지학연구』 44, 2009.  
옥영정, 『17세기 出版 四書諺解의 종합적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4.  
유재필, 「小學諺解의 傍點 표기와 성조」, 『진단학보』 134, 2020.

## ○ 지정사례

- 보물 제1109-3호 임고서원소장전적-논어언해 [臨臯書院所藏典籍-論語諺解(3冊)]  
보물 제1004-2-4호 조정 종가 문적-논어언해 권3 [趙靖宗家文籍-論語諺解 卷三(1책)]



## 1. 소학언해

### ○ 현 상

五針眼訂法으로 된 線裝本으로, 현재 흰색 실로 裝冊되어 있어서 後代에 다시 改裝한 것으로 보인다. 表紙와 本文이 腐蝕되거나 缺落이 없이 保存狀態가 비교적 양호한 편임.

### ○ 내용 및 특징

『小學』은 南宋 光宗 14(1187)년 劉子澄이 당시의 거유 朱熹의 지시에 따라 아동을 가르치기 위해 立教·明倫·敬身·稽古·善行·嘉言을 수집해 편찬한 修身書이다. 이 책이 우리나라로 傳來된 이후 朝鮮 中宗 13(1512)년 홍문관의 진언에 따라 金詮과 崔淑生 등에게 명해 한글로 번역하여 활자본 1,300질을 간행한 『翻譯小學』이 『小學』언해의 最古本이다. 그러나 이 번역이 너무나 의역에 흘렀다는 비판 때문에, 宣祖 19(1586)년 왕명으로 校正廳에서 李山海를 중심으로 다시 번역하여 선조 20(1587)년 간행하였다. 본서는 『소학언해』의 현존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판본이며, 전질이 전래되고 있다. 권말에는 찬수제신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朴弘老와 李好閔 사이에 한 줄 오려낸 자국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본서의 書誌事項은 다음과 같다.

소학언해 小學諺解 / 校正廳(朝鮮) 奉命撰.

金屬活字本(乙亥字體 經書字).

[漢陽], [校書館], [宣祖 20(1587)].

6卷4冊. 四周雙邊. 半廓 : 24.8×17.1cm. 有界. 10行19字.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36×22.7cm.

線裝.

版心題 : 小學諺解.

跋 : 萬曆十五年丁亥(1587)經筵春秋館成均館事臣李山海拜手稽首敬跋.

內賜記 : 萬曆十六(1588)年正月日 / 內賜 / 陶山書院 / 小學諺解一件 / 左承旨臣朴(手決)

卷末 跋 : 萬曆十五年丁亥(1587)…李山海.: 纂輯諸臣 : 李山海 포함 31人.

內賜印 : [宣賜之記]

寄贈記 : 陶山書院上.

藏書印 : 陶山書院.

명의 永樂帝는 胡廣 등의 학자를 동원하여 永樂 1(1403)년 『四書五經』에 대한 학자들의 주석을 집성해 『四書五經大全』을 만들고, 그 밖의 성리설을 모아 『性理大全』을 편찬하였다. 영락 13(1415)년 9월에 간행된 『五經大全』, 『四書大全』과 『性理大全』이 世宗年間に 조선에 전래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이 『四書五經大全』의 복각본이 주로 통행되었다. 成宗年間 이후 성리학계는 학파에 따라 經文의 해석에 이견이 생겨 이를 조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학문적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이 經書의 언해를 하는 것이었다.

宣祖는 당시 『四書五經』에 대한 口訣과 諺解가 학자마다 다르고, 확정되지 못한 것을 우려하여 7(1574)년 眉巖 柳希春에게 『四書五經』에 대한 吐와 解釋을 모두 상정해서 올릴 것을 명하였다. 眉巖은 자신의 역량이 모자라고 임무가 무겁다는 이유로 이를 사양하고, 선조 9(1576)년 栗谷 李珥를 적임자로 추천하였다. 울곡이 四書諺解를 마치지 못하고 사망하자, 선조는 18(1585)년 校正廳을 설치하고 李山海 등에게 經書의 언해를 완성하게 하였다. 선조 20(1587)년부터 간행하여 선조 23(1590)년에 完刊할 수 있었다. 본 『소학언해』는 四書諺解의 간행에 앞서 선조 20(1587)년에 간행된 언해본이다.

수록된 형식은 원문인 한문을 먼저 싣고, 뒤를 이어 언해를 첨가한 형식이다. 원문에는 東國正韻式 한자음을 따르지 않고, 現實漢字音에 따라 표기된 한자음과 한글 토가 표기되어 있다. 언해문에도 한자와 한자음이 표기되어 있다. 언해문과 현실 한자음에 따라 표기된 한자음에는 傍點이 있고, 언해문에 ‘△’와 ‘○’ 표기를

보여주는 최후의 문헌이라는 점에서 그 자료적 가치가 있다.

본서 『소학언해』는 당시 교정청에서 간행한 사서언해(『대학언해』, 『논어언해』, 『중용언해』, 『맹자언해』)와 비교해 볼 때, 언해작업의 책임자인 李山海의 跋이 남아 있어서 간행연대가 확실하고 陶山書院에 내사된 內賜記와 內賜印인 [宣賜之記]가 모두 남아 있다. 또한 표지와 본문의 腐蝕과 缺落도 없이 보존상태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 2. 사서언해

### ○ 현 상

五針眼訂法으로 된 線裝本. 『대학언해』는 본문 제1張-제2張이 缺落되어 있고, 『논어언해』는 제1冊-제2冊의 표지 하단과 본문 제1張-제2張이 부식되어 있다. 『맹자언해』는 제1冊의 표지가 改裝되어 있고 본문 제1張-제2張이 결락되어 있으며, 나머지 책도 표지 및 본문의 일부가 부식되어 있고 版心이 갈라져 있어서 보수가 요망된다.

### ○ 내용 및 특징

#### 1) 대학언해 大學諺解, 校正廳(朝鮮) 奉命撰.

金屬活字本(乙亥字體 經書字).

[漢陽], [校書館], [宣祖 23(1590)].

1冊(27張). 四周雙邊 半廓 : 247×17cm cm 有界. 10行19字.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35.9 x 22.8 cm.

線裝

版心題 : 大學諺解.

內賜記 : 萬曆十八(1590)年七月日/ 內賜/ 禮安陶山書院/ 大學諺解一件/ 左副承旨臣李(手決)

『大學』은 기원전 430년경에 만들어진 책으로,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정치 철학과 학문을 직접 연결한 유학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大學』은 大人의 학문에서 나아가 천하를 이끄는 君主나 宰相이 익혀야 할 학문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본 『대학언해』는 1590년(조선 선조 23)에 校正廳에서 간행한 언해본으로, 본서의 표지는 원래의 표지가 유지되어 있어 내사기는 남아있지만, 권두의 제1張-제2張이 탈락되어 내사인을 확인할 수 없다.

2) **론어언해** 論語諺解, 校正廳(朝鮮) 奉命撰.

金屬活字本(乙亥字體 經書字).

[漢陽], [校書館], [宣祖 23(1590)].

4卷4冊. 四周雙邊 半廓 : 24.8×17 cm. 有界. 10行19字.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35.6 x 22.5 cm.

線裝.

版心題 : 論語諺解.

內賜記 : 萬曆十八(1590)年七月日/ 內賜禮安陶山書院/ 論語諺解一件/ 左副承旨臣李(手決)

內賜印 : [宣賜之記]

寄贈記 : 陶山書院上.

藏書印 : 陶山書院.

『論語』는 기원전 450년경에 만들어진 책으로, 공자의 언행록 20편이다. ‘論語’는 어록이라는 뜻이다. 공자를 중심으로 그의 제자들과 제후와 문답한 내용을 제자와 그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다.

본 『논어언해』는 1590년(조선 선조 23)에 校正廳에서 간행한 언해본이다. 각 책의 표지 하단부가 부식되어 있고, 제1책과 제2책의 본문 제1張-제2張이 부식되어 본문의 일부를 잃고 있는 등 보존상태가 좋지 않다.

3) **등용언해** 中庸諺解, 校正廳(朝鮮) 奉命撰.

金屬活字本(乙亥字體 經書字).

[漢陽], [校書館], [宣祖 23(1590)].

1冊(55張). 四周雙邊 半廓 : 24.8×17 cm. 有界. 10行19字.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36.0×22.8 cm.

線裝.

版心題 : 中庸諺解.

內賜記 : 萬曆十八(1590)年七月日/ 內賜禮安陶山書院/ 中庸諺解一件/ 左副承旨臣李(手決)

內賜印 : [宣賜之記]

寄贈記 : 陶山書院上.

藏書印 : 陶山書院.

『中庸』은 기원전 430년경에 만들어진 책이다. ‘誠’과 ‘中’을 기본 개념으로 하여 天人一理를 설명한 형이상학적인 내용의 책이다. ‘中’이란 기울어짐이 없다는 뜻이고,



‘庸’이란 영원불변이라는 뜻이므로, 올바르게 변함이 없는 도리를 설명한 책이 되는 셈이다. 원래는 『禮記』에 속한 한 편명이었으나 독립시켰고, 송나라 주희가 이것을 33節로 나누었다.

본 『중용언해』 1책은 1590년(조선 선조 23)에 校正廳에서 간행한 언해본으로, 표지는 원래의 표지이고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4) **밍즈언해** 孟子諺解, 校正廳(朝鮮) 奉命撰.

金屬活字本(乙亥字體 經書字).

[漢陽], [校書館], [宣祖 23(1590)].

14卷7冊. 四周雙邊 半廓 : 24.8×17.1 cm. 有界. 10行19字.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35.5×22.4 cm.

線裝.

版心題 : 孟子諺解.

藏書印 : 陶山書院.

『孟子』는 기원전 280년경에 만들어진 책으로, 유가에 속하는 사상가 孟子의 언행을 기록하고 仁義의 도덕을 강조한 것이다. 『孟子』는 모두 7편, 각 편은 상, 하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14편인 셈이다. 7편 가운데 전반의 3편은 맹자가 천하를 돌며 유세하던 때의 언행을 기록한 것이고, 후반의 4편은 은퇴 이후의 言說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 『맹자언해』는 1590년(조선 선조 23)에 校正廳에서 간행한 언해본이다. 제1책은 표지가 개장되어 있고 본문 제1張-제2張이 탈락되어 권두의 內賜記가 탈락되었고 內賜印이 없다. 제2책-제7책은 표지를 개장하지는 않았지만 흰색실로 후대에 다시 꿰맨 상태이다. 각 책마다 표지와 본문의 일부가 부식되어 있고 판심이 갈라져 있는 책도 있어서 보수가 요망된다.

## 12. 남명천화상송증도가 (南明泉和尚頌證道歌)

### 가. 검토사항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로부터 ‘남명천화상송증도가’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8.6.12.)이 있어 관계 전문가 조사('20.9.25/'21.3.5.)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 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반야사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22길 31-7, 반야사
- 수 량 : 1책(43장)
- 규 격 : 표지 23.4×14.6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선장본
- 조성연대 : 1239년(고종 26) 판각, [14~15세기 이후 후쇄본으로 추정]



<남명천화상송증도가>(내지)



<남명천화상송증도가>(최이 발문)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미흡)

신청대상의 『남명천화상송증도가』 1권 1책은 1239년(고종 26) 음력 9월 상순 무인집권자 최이가 주도하여 관각한 해당 목관을 14~15세기 이후의 특정 시기 찍어

만든 불교기록유산으로, 1239년 이전 금속활자의 주조 실패와 함께 조성불사 당시의 판각역량·조직체계, 최이의 불교 사상적 경향과 현실인식, 인출불사 당시 먹·종이의 종류, 해당 목판의 복원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원천자료로서의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조사대상 판본은 현존하는 4종류 가운데 한 종류로 확인되고 약체 구결이 묵서되어 있으므로, 자료적인 희소가치와 함께 구결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도 일정하게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신청대상 판본은 제1장 전체와 제44장의 뒷면이 탈락되고 본문 글자와 판심 장차·각수의 일부가 훼손·탈락되어 있는 등 보물 제758—1·2호(삼성본·공인본) 및 대구 개인(김병규) 소장본에 비해 자료적인 완전성과 선본(善本)의 가치에서 비교 우위가 제한되는 지표도 보인다. 그리고 조사대상 판본이 이들 3종류의 판본보다 앞서 인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명확한 비교지표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기도 하다. 향후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비교·진단할 필요도 보인다.

때문에 조사대상의 『남명천화상송증도가』 1권 1책은 국가기록유산(보물)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듯하다.

### ○ (지정 가치 미흡)

조사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는 권말에 최이(崔怡)가 1239년에 쓴 후지(後識)를 통하여 금속활자로 인출된 증도가의 번각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곧 1239년(고종 26)을 전후한 시기에 주자본(鑄字本) 『남명천화상송증도가』가 실전(失傳)되어 실물이 전래되지 않으니, 진양공(晉陽公) 최이(崔怡-崔瑀, ?~1249)가 주자본을 바탕으로 하여 증조(重彫)하여 간행한 것이다.

조사본은 현재 제1장과 제44장의 반엽이 결락된 상태로 전해진다. 표지는 개장되었으며, 여러 부분에서 지류 유물의 일반적인 손상인 오염과 함께 판심부의 분리, 책의 사방 끝단의 마모와 결락, 찢김 등이 확인되고 있다.

조사본의 역사적 가치는 주자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가 실전되어 실물이 전래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양공 최이가 주자본을 바탕으로 하여 증조 간행하였다는 사실에 있다. 또한, 본문에 남아 있는 古形의 口訣 자료를 통하여 국어학적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자료적 가치 역시 지니고 있다.

한편, 조사본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 평가는 다음의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할 수 있다.

첫째, 유물의 완전성 부분이다.

조사본을 이미 지정된 유물과 비교할 때 완전성에서 우월하지 않다. 조사본은 현재 표지가 개장되었고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제1장과 마지막 장의 반엽이 결락된 상태이다. 본문의 여러 곳에서 확인되는 ‘華翁主人’이라는 묵서 기록을 불

때 결실된 장에서 소장자와 관련된 정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둘째, 유물의 善本 부분이다.

조사본은 이미 지정된 자료와의 판본 비교 검토를 통할 때 절대적으로 ‘善本’이라 판단하기 어렵다. 조사본에 대해서는 다른 지정본과 동일하게 번각 후의 초쇄가 아닌 일정 시간이 경과한 뒤의 판본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모든 장에서 목리(木理)나 필획의 완결(完缺)과 변란이 끊김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현존하는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의 각 장 인출 상태, 지질 등을 비교하여 인출 시기의 선후 관계를 밝히고는 있으나, 각 연구자의 기준이 동일하지 않아 객관적인 연구 결과로 집약되지는 않고 있다. 판각 이후 인출 시기에 대한 검토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유물의 자료적 가치 부분이다.

조사본에 대한 자료적 가치 가운데 가장 우선하는 것은 ‘高麗本’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 성과가 있었으나, 그에 대한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고려 구결에 대한 가치 평가이다. 이에 대해서는 고려시대에 사용되었던 고행이 일부 확인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고 있으나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이해되고 있다. 우선 구결토를 전사하는 과정에서 생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오기가 상당수 확인되는 점이다. 이는 구결을 기록한 인물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에 해당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전체적으로 본문의 우측과 좌측 양쪽에 사용되었던 구결에서 연결어미가 언해본에서 사용되었던 것과 완전히 또는 일부 겹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16세기에 이르러 나타나는 주제의 보조사에 대한 표기로 ‘ㄴ(는)’이 고행의 구결과 함께 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는 판본의 인출 시기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이므로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조사본은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자료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이미 지정된 자료와의 비교를 통할 때 완전성과 선본에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高麗本’이라는 문제는 조금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한 단계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은 조금 더 연구가 이루어진 이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반야사본을 다른 판본과 판면, 인출상태, 판각의 정교도, 마모도 등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반야사본은 삼성본의 판본 현상과 거의 같지만 지질이나 글자의 획, 변란판각의 완전성, 인출의 전반적인 상태 등을 통하여 삼성본보다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의 인출본임을 알 수 있고 시기적으로는 고려말로 추정된다.

판각 당시의 기록은 1239년이나 판면의 여러 상태나 글자의 마모도, 종이의 지질과 발끈폭 등으로 미루어 적어도 1세기 뒤에서 고려말경에 걸친 시기에 인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본문에 목서로 글자와 문장의 우측에 기록된 구결은 자형이나 용례로 볼 때 고려후기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두 차례이상의 추가 기록을 볼 수 있다.

즉 삼성본의 인출의 시기는 조선 전기로 비정된다고 할 수 있고 공인본은 변란과 글자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마손이 심하고 인출의 상태도 가장 나빠서 먹의 뭉침이나 인쇄시 주변상황에 의하여 개입된 벗집 내지는 붓털, 짚(먹빛자루) 등이 떨어져 인쇄판에 부착된 채 인쇄된 것이므로 가장 늦은 시기인 15세기 판본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반야사본 목판본 『南明泉和尚頌證道歌』가 현재까지 알려진 같은 판본의 인출본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판본으로 판단된다. 비록 표지가 개장되고 제1장의 낙장이 있지만 서지학, 불교학, 출판학 등 관련 분야의 중요한 자료로 또 한국 금속활자 발달사의 기원과 관련된 가장 원천자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 (지정 가치 미흡)

반야사 소장본은 삼성출판박물관 소장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와 동일 판본으로 그보다 인출상태도 좋지 않고, 제1장이 낙장되어 있으며, 본문 하단의 훼손 등으로 원문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지 않으며, 오염과 곰팡이도 발견되어 보존상태도 양호하지 않다. 이미 앞의 <4> 대구 반야사 소장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의 상태>와 <5> 이미 지정된 보물과의 비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구 반야사 소장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3] : 일반동산문화재 해당기준> 가운데 <공통기준의 2) 문화재의 상태 : 원래의 형태와 구성요소를 갖추어 유물의 상태가 양호할 것>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서울 삼성출판박물관 소장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와 양산 공인박물관 소장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와 동등한 등급인 국가문화재 보물로 지정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 ○ (구결자료로서 추가연구 필요)

반야사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에 기입된 구결 자료가 언해 이전의 구결토를 반영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된다면 반야사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의 구결 자료적 가치는 매우 높다. 종래의 여말 선초 음독 구결 자료에서는 살펴 볼 수 없는 고행의 구결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야사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에 기입된 구결이나 그것의 원류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구결의 연대가 확정되어야만 반야사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에 기입된 구결의 자료적 가치를 정할 수 있다.

### ○ (구결자료로서 가치 있음)

반야사 소장본에서는 목서로 기입된 약체 구결이 확인된다. 이 구결은 여말선초의 구결로 추정된다. 다른 자료와 비교하면 공인박물관 소장본이나 김병구 소장본보다 고행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결로서의 가치는 다른 자료들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기입 시기는 상한선이 14세기일 것으로 추정된다. 언해가 행해진 시기(1482년, 조선성종 13년)에서 그리 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후대에도 전대의 자료를 보고 베낄 수 있으므로 구결 현토의 시기는 상한선은 정할 수 있지만 하한선은 정할 수 없다.

### 마. 의결사항

#### ○ 부 결

조사보고서

□

### ○ 현 상

조사대상의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鬮泉和尚頌證道歌)』 1권 1책은 1239년(고종 26) 음력 9월 상순 금속활자본(金屬活字本)으로 번각된 해당 목판을 후대 찍어 선장본으로 제책한 불교기록유산으로,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반야사에 소장되어 있다.

조사대상의 1권 1책은 표지·제침·철사가 후대 개장·수리되어 있으며, 내지의 제2~14장이 부분적으로 배접·수리되어 있다. 본문 글자와 변란·판심선의 상당 부분이 마모·훼손되어 있으며, 가필 흔적도 일부 발견된다. 더구나 서문 제1장과

제44장의 뒷면의 전체가 탈락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보존 상태가 어느 정도 양호하며, 소장정보와 한자 약체 구결이 묵서되어 있기도 하다.

## 서지사항

목판본(木板本·金屬活字飜刻本 : 1239년 판각)

1권 1책(전체 43장 : 제1장의 서문과 제44장 뒷면 전체가 탈락) :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 18.0×12.5cm/ 무계(無界)/ 반곽 8행15자/ 무어미(無魚尾)/ 백구(白口)/ 23.4×14.6cm/ 선장본(線裝本 : 오침안정)

제    침 : 證道歌南明繼頌

권 수 제 : 南圃泉和尚頌證道歌

저술정보 : 千頃山沙門 法泉 頌

판 심 제 : 五

권 미 제 : 南圃泉和尚頌證道歌一部

서문정보 : 時熙寧十年丁[巳](1077년)七月括蒼吳庸天用序(제2장)

후서정보 : 熙寧九年(1076년)七月十日 括蒼 祝 況後序(제42~44장)

간행정보

夫南明證道歌者實禪門之樞要也故後學

叅禪之流莫不由斯而入升堂觀奧矣然則

其可閉塞而不[傳]通乎於是募工重彫鑄

字奉以壽其傳焉時己亥(1239년 : 고종 26)九月上旬中書[令]

晉陽公崔 怡 謹誌(제44장)

각    수 : 東伯(제27·28장), 叔敦(제29·37·38·39장), 玠才(제21·32장), 唐甫(제9·10·30·35장), 公大(제12·24·36장), 吳準(제13·14·41장), 一明(제15·16·22·23·31장), 公世(제17·18·33·34장), 元暉(제19·20·40장), 思儒(제25·26장)

소장정보 : 華翁主人(묵서 : 제2장 앞면 제2행의 여백 부분, 제23·38장 앞면과 제30·34장 뒷면의 書眉 부분), 華翁主(묵서 : 제7장 뒷면 제7행의 여백 부분)

구성체계 : [서제(吳庸天用序)]—서문내용—권수제—저술정보—본문내용—권미제—후서—후서내용(祝況後序)—간행정보

특이사항 : 한자 약체의 구결이 작은 글자로 묵서. 서문 제1장 및 제44장 뒷면의 전체가 탈락. 열(悅 : 제2장 앞면 제6행 15자)·석(惜 : 제2장 앞면 제7행 15자)·사(巳 : 제2장 앞면 제8행 15자)·개(疥 : 제3장 앞면 제6행 15자)·인(因 : 제3장 앞면 제8행 15자)·수(酬 : 제4장 앞면 제8행 14자) 등 일부 글자가 훼손·탈락된 상태. 전체 사주변란과 판심선의 대부분이 부분적으로 마모·단절된 현상이 발견.



본문 글자는 획의 일부가 훼손·탈락되거나 나무결[木理] 현상도 상당한 부분에서 발견. 래(來 : 제15장 앞면 제5행 7자)·일(日 : 제15장 앞면 제7행 3자)·일(一 : 제23장 앞면 제8행 4자)·삼(三 : 제32장 뒷면 제4행 1자)·지(地 : 제33장 뒷면 제6행 10자)·중(中 : 제33장 뒷면 제6행 11자)·견(見 : 제42장 앞면 제1행 2자) 등의 일부 글자에서 가필된 흔적이 발견. 제2~8·11·42~44장 등의 각수와 제2~4장 등의 판심 장차가 마모·훼손되어 있으며, 특히 제2장의 각수 득인(得仁)은 확인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

## ○ 내용 및 특징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는 중국 당나라의 승려지식인 영가 현각(永嘉玄覺)이 선문(禪門)의 요지를 운문으로 읊은 『증도가(證道歌)』의 개별 구절마다 송나라 운문종(雲門宗)의 승려지식인 남명 법천(南明法泉)이 7언 3구의 계송(偈頌)을 붙인 1권의 불교기록유산으로, 선종 계열에서 기본 텍스트로 주목되었다. 1076년 경 송나라에서 간행된 이후 고려사회로 유입되었으며, 고려 고종 때도 금속활자와 목판으로 두 차례나 각각 조성·유통되었다. 이 가운데 금속활자본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1239년(고종 26) 음력 9월 상순 최씨무인집권자 최이(崔怡)가 주도하여 금속활자본을 번각한 목판의 인출본이 현재까지 최소 4종류가 전하고 있다. 현존 판본은 보물 제758—1호(삼성본)와 보물 제758—2호(공인본) 및 조사대상 판본(반야사본), 그리고 대구 개인(김병규) 소장 판본이다.

조사대상의 『남명천화상송증도가』 1권 1책은 현존하는 4종류의 인출본 가운데 한 종류로,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반야사에 소장되어 있는 불교기록유산이다. 전체 44장 가운데 43장이 선장본의 형태로 제작되어 있으며, 오용(吳庸) 저술의 서문 제1장 전체와 제44장 뒷면이 탈락되어 있는 상태이다.

조사대상 판본의 외형적 형태는 변란이 사주단변이며 본문 사이에 계선(界線)이 없다. 판심이 무어미(無魚尾)·백구(白口)의 형태이며, 반곽의 행자수는 8행 15자로 배열되어 있다. 반곽의 규격이 18.0×12.5cm 내외이다. 1권의 전체는 [서제(吳庸天用序)]—서문내용—권수제—저술정보—본문내용—권미제—후서—후서내용(祝況後序)—간행정보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은 서제(序題)가 제1장의 탈락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남명천화상송증도가 일부 병서(南明泉和尚頌證道歌一部 并序)로 판단되며, 1077년 음력 7월 송나라의 오용 천용(吳庸天用)이 지었다. 권수제는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로 표기되어 있으며, 권미제는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일부(南明泉和尚頌證道歌一部)로 새겨져 있다. 본문의 저술정보는 천경산사문 법천 송(千頃山沙門 法泉 頌)이라 표현하여 지명(저술 당시 머물던 공간)+출신성분+법명+역할의 순서로 표기되어

있다. 판심제는 오(五)와 같이 해당 장차만 표시되어 있으며, 서문—본문—후서—간행정보의 장차는 개별적인 해당 내용이 각기 다른 장차로 분리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제1장부터 제44장까지 이어져 있다. 판심의 아래 부분에는 동백(東伯)·숙돈(叔敦)·진재(珍才)·당보(唐甫)·공대(公大)·오준(吳準)·일명(一明)·공세(公世)·원희(元暉)·은유(恩儒) 등의 각수가 작은 글자로 새겨져 있다. 그리고 후서는 서제가 후서(後序)이며, 1076년 음력 7월 10일 축황(祝況)이 지었다.

제44장의 후서가 마무리된 다음 행에는 5행에 걸쳐 간행정보가 새겨져 있다. 간행정보 가운데 ‘이에 전문 공인을 모집하여 주자본(금속활자본)을 거듭 새겨 길이 전하게 한다. 때는 1239년(고종 26) 음력 9월 상순 중서령·진양공 최이가 삼가 기록하였다(於是募工重彫鑄字率以壽其[傳]焉時己亥九月上旬中書令晉陽公崔怡謹誌)’라는 내용에서,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의 목판은 고려 고종 26년 음력 9월 상순 당대 최씨무인집권자 최이의 주도적인 지원으로 조성되었으며, 조사대상의 판본은 해당 목판을 찍어 만든 인출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사대상의 판본에는 인출정보가 없으므로, 인출시기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면서 조사대상 판본의 현상에서 인출시기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조사대상 판본은 사주변란과 판심 선이 전체 43장 가운데 절대 다수의 장차에서 부분적으로 마모·단절되어 있으며, 나무결 현상도 발견되므로, 후쇄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더구나 본문의 글자에서도 완결(剋缺)·나무결 등의 흔적도 발견된다.

[본문 글자의 마모 사례]

글자	위치	글자	위치	글자	위치
縛	5전—02—14	鐘	22전—01—06	誰	42전—01—01
倚	5전—03—12	不	22전—01—08	見	42전—01—02
廓	5전—03—14	獨	22전—01—09	蟪	42전—01—03
福	5전—04—03	兼	22전—01—12	娘	42전—01—04
圓	5전—04—13	成	22전—02—02	拒	42전—01—06
仗	5전—04—14	到	22전—03—02	與	42전—01—09
殊	5전—05—03	窮	22전—03—04	碎	42전—01—11
猶	5전—05—04	業	22전—03—11	猶	42전—01—13
從	5전—06—09	損	22전—04—01	獐	42전—01—14
不	5전—06—12	法	22전—04—02	嗟	42전—02—01
知	5전—06—13	返	22전—04—08	爾	42전—02—02
南	5전—06—14	所	22전—04—12	蟬	42전—02—05
布	5전—07—11	恃	22전—04—13	飲	42전—02—08
毛	5전—07—12	省	22전—04—14	露	42전—02—09
滅	5전—08—02	獲	22전—05—12	風	42전—02—11
峯	5전—08—11	滅	22전—06—01	象	42전—03—02
者	5전—08—13	更	22전—06—04	彈	42전—03—08
難	5전—08—14	媒	22전—06—13	豈	42전—03—12

글자	위치	글자	위치	글자	위치
		從	22전—06—14	然	42전—03—14
		寶	22전—07—02	無	42전—04—01
		無	22전—07—04	中	42전—04—02
		肯	22전—07—12	有	42전—04—03
		由	22전—08—03	如	42전—04—05
		斯	22전—08—04	能	42전—04—06
		從	22전—08—08	鎖	42전—04—09
		來	22전—08—09	大	42전—05—01
		共	22전—08—10	悟	42전—05—02
		冤	22전—08—13	於	42전—05—05
		讎	22전—08—14	修	42전—05—11
				者	42전—05—13
				止	42전—06—02
				若	42전—06—03
				莫	42전—07—01
				管	42전—07—03
				窮	42전—07—11
				天	42전—07—12
				鬮	42전—08—04
				表	42전—08—14
18자/ 전체 110자=16%		29자 /전체 110자=26%		38자 /전체 112자=34%	

특정 장차로 무작위 선택한 제5·22·42장 앞면의 경우에는 본문 글자의 상당 부분이 마모·훼손되어 있다. 제5장 앞면의 본문은 전체 110자 가운데 최소 18글자, 제22장 앞면도 전체 110자 가운데 최소 29글자, 제42장 앞면은 전체 112자 가운데 최소 38글자가 각각 마모·훼손되어 있다. 16~34% 내외의 글자가 마모·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다. 때문에 조사대상본은 1239년 음력 9월 상순 해당 목판이 조성된 이후 상당한 세월이 경과하여 인출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 시기는 본문 글자와 사주변란·판심선의 마모·훼손 정도를 고려할 때 시기적 상한성을 14~15세기 이후로 짐작할 수 있다.

이로써 조사대상 판본은 1239년 음력 9월 상순 이전 금속활자의 주조 실패와 함께 조성불사 당시의 판각역량·조직체계, 최이의 불교 사상적 경향과 현실인식, 인출불사 당시 먹·종이의 종류, 해당 목판의 복원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원천자료로서의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조사대상 판본은 현존하는 4종류 가운데 한 종류로 확인되고 약체 구결이 묵서되어 있으므로, 자료적인 회소가치와 함께 구결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도 일정하게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조사대상 판본은 동일 판본과 비교하여 자료적인 완전성 및 선본(善本)으로서의 가치에서 제한적인 요소가 발견되기도 한다. 조사대상의 판본은 인출

불사 당시의 표지·표지제목과 함께 제1장 서문의 전체 및 제44장의 뒷면이 탈락되어 있고, 열(悅 : 제2장 앞면 제6행 15자) 등 일부 장차의 본문 글자도 탈락되어 있으며, 일(一 : 제23장 앞면 제8행 4자) 등의 글자에서도 가필 흔적이 보인다. 제2~8·11·42~44장 등의 각수와 제2~4장 등의 판심제가 마모·훼손되어 판독이 어려우며, 더구나 제1·2장의 판심 아래 부분에 새겨진 각수 득인(得仁)의 사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기도 하다. 그리고 조사대상 판본은 해당 목관이 판각된 1239년 음력 9월 상순보다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 찍은 인출본으로 본문 글자가 개별 장차마다 최소한 10%이상 마모·훼손되어 있으며, 30%를 상회하는 경우도 보인다. 이에 비해 삼성본은 인출불사 당시의 표지와 표지제목이 현존하고 있으며, 삼성본·공인본 및 대구 개인본은 판심의 장차 및 본문 글자에서 훼손·탈락된 사례가 보이지 않고 본문의 배접·수리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삼성본은 모든 장차의 판심제와 각수가 보이며, 공인본 및 대구 개인본은 제44장의 판심제와 각수 동백(東伯)만 훼손·탈락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조사대상 판본은 자료적인 완전성 및 선본(善本)의 가치가 삼성본 등의 판본보다 비교 우위에서 제한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조사대상 판본은 현존하는 3종류의 인출본보다 앞선 시기에 인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지표도 발견된다.

조사대상 판본은 제9장 앞면의 본문 글자 가운데 획의 일부가 마모·탈락된 황(黃)·금(金)·전(殿)·시(時)·란(欄)·리(履)·언(言)·신(神)·봉(峯)·부(夫)자의 마모 상태를 보물 제758—1·2호(삼성본·공인본)·대구 개인본과 상호 비교하였다. 조사대상 판본은 이들 글자 가운데 시(時)·부(夫)자가 삼성본보다 상태가 양호하며, 나머지 8자는 삼성본이 양호한 상태이다. 그리고 조사대상 판본은 대구 개인본과 비교하여 시(時)자가 양호하며, 나머지 9자는 서로 유사하거나 대구 개인본이 나은 상태이다. 아울러 조사대상 판본은 공인본과 비교하여 금(金)·전(殿)자가 덜 마모되어 있으며, 나머지 글자는 유사하거나 공인본이 양호하기도 하다. 더구나 금(金)·전(殿)자의 아래에 새겨진 획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판본이 탈락되어 있으나, 삼성본과 대구 개인본에서 일부 확인되고 있으므로, 조사대상 판본을 삼성본 및 대구 개인본보다 앞서 인출하였다고 단정하는데 제한된 지표가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조사대상 판본은 제44장 앞면의 아래 판심선 일부분이 45도 정도 옆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서 삼성본 및 대구 개인본은 해당 판심선 부분이 일직선 형태로 인출되어 있으며, 공인본은 일직선 형태이면서 심한 마모 상태로 찍혀 있다. 조사대상 판본의 기울어진 일부 판심선은 인출불사 당시 훼손되었으므로, 이후의 인출본에서는 기울어진 상태나 탈락된 형태로 찍힌다. 때문에 조사대상 판본을 보물

제758—1·2호(삼성본·공인본) 및 대구 개인본보다 앞선 시기에 인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례도 발견된다고 할 수 있다.

<현존 4종류의 본문 글자 · 판심선 마모도 비교 사례>

위치	조사대상본	삼성본	공인본	대구본	비고
9전-01-04					
9전-01-05					
9전-01-06					
9전-03-10					
9전-04-14					
9전-05-03					
9전-05-11					
9전-06-03					
9전-07-02					
9전-08-11					
44전-판심 하단					

※녹색은 상대적 마모도가 심한 경우이며, 파란색은 덜한 상태

## ○ 문헌자료

문화재청(<http://www.heritage.go.kr>)/ 국가문화유산포털

千惠鳳, 「高麗鑄字版「南明泉和尚頌證道歌」의 重彫本에 대하여」 『圖書館學』 제15집, 한국문헌정보학회, 1988.

민현주, 「『南明泉和尚頌證道歌』의 구결 자료에 대하여」 『한국말글학』 제29집, 한국말글학회, 2012.

문화재청·한국서지학회, 『고려-조선 금속활자 판본 검토(자료집)』, 2020.

## ○ 지정사례

조사대상의 『남명천화상송증도가』 1권 1책은 1239년 음력 9월 상순 무인집권자 최이가 주도하여 판각한 해당 목판을 14~15세기 이후 찍어 만든 불교기록유산으로, 현재까지 국가지정기록유산(보물)과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사례가 확인된다.

보물 제758—1호 남명천화상송증도가(삼성출판사 소장 1984년 05월 지정 선장본)

보물 제758—2호 남명천화상송증도가(공인박물관 소장 2012년 06월 지정 선장본)

조사대상본과 동일한 판본은 현재까지 2권 2책이 보물 제758—1·2호(삼성본·공인본)로 각각 지정되어 있으며, 대구 개인(김병규) 소장의 1권 1책은 국가기록유산(보물)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들 3종류는 결장이 없는 상태이며, 본문의 글자가 탈락된 현상도 보이지 않으며, 판심의 장차와 각수도 어느 정도 판독할 수 있을 정도의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 더구나 보물 제758—1호의 경우는 인출불사 당시의 표지·표지제목이 원래 형태로 남아 있기도 하다. 때문에 이들 3종류는 제1장 전체와 제44장의 뒷면이 탈락되고 본문 글자와 판심 장차·각수의 일부가 훼손·탈락된 조사대상 판본보다 자료적인 완전성과 선본(善本)으로서의 가치가 비교 우위를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 판본은 한자 약체 구결의 시기적 상한선에서 3종류의 판본보다 자료적인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



조사대상 판본(반야사본) 보물 제758-1호(삼성본)  
앞표지



제2장 앞면(제1장 탈락) 제44장 뒷면 탈락  
조사대상 판본(반야사본)

□

書誌事項

(唐)玄覺(665~713)頌 ; (宋)法泉 繼頌. - 木版本(金屬活字本 翻刻). - [高麗 高宗 26(1239) 板刻, 15세기 인출 추정.

不分卷1冊(43張) : 四周單邊, 半郭18.2×13.0cm, 無界, 8行15字 ; 23.4×14.6cm. 楮紙. 線裝.



○ 현 상

조사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의 표지는 개장되었고, 본문의 1장과 마지막 44장의 반엽이 결실되었다. 전체적으로 지류 유물에서 보이는 오염과 구김, 찢김, 마모 등 손상이 여러 곳에서 보이는데, 특히 앞의 2장에서 11장까지는 관심부 하단에서 글자 및 변란의 손상이 심한 상태이다.



○ 내용 및 특징



『남명천화상송증도가』는 당(唐)나라 영가 현각(永嘉玄覺, 665~713)이 6조 혜능(慧能)을 배견(拜見)하고 깨우친 오도(悟道)의 경지를 표현한 「증도가(證道歌)」의 각 구절 끝에, 송(宋)나라 남명 법천(南明法泉)이 3구씩 계송을 읊은 것으로 총 319편으로서 증도(證道)의 뜻을 구체적으로 밝힌 책으로 선가(禪家)에서 매우 중시하는 서적이다.

영가 현각은 6조 혜능(慧能) 문하의 제자로서 청원행사(靑原行思, ?~740)·남악회양(南岳懷讓, 677~744)·하택신회(荷澤神會, 685~760)·석두희천(石頭希遷, 700~

790) 등과 함께 조계종을 널리 일으킨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출가한 처음에 영가용흥사(永嘉 龍興寺)의 승려가 되어 천태(天台)의 지관법(止觀法)을 공부하였다. 저술로는 「영가집(永嘉集)」과 「증도가(證道歌)」 등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 약 2,000자의 「증도가」는 선문문자(禪門文字)의 정화(精華)로서 ‘명심견성(明心見性)’을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 전한다.

한편, 남명 범천은 요거산(龍居山)의 지문원(智門院) 신기선사(信玘禪師)에 출가하여 운거(雲居)의 효순(曉舜)선사를 법사로 하여 깨달음을 이룬 분이다. 대명(大明), 천경(千境), 영암(靈巖), 남명(南明) 및 금릉(金陵) 등 여러 곳을 옮기며 수도하였는데, 『남명천화상송증도가』는 천경산에 있을 때 지은 것이다.

조사본 반야사 소장 『남명천화상송증도가』는 현재 표지가 개장된 상태로서 전체 44장 중 1장과 44장의 B면이 결락된 상태이다. 표지에는 백지 위에 ‘證道歌 南明繼頌’이라는 제침을 두었다. 사주는 단편이며 무계(無界) 8行 15字의 구성이다. 다만 제39장의 B면은 7행으로 되어 있어 활자본인 저본의 조판 사정을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반곽(半郭)은 18.2×12.8cm 내외이며, 책의 전체 크기는 23.4×14.6cm이다.

책머리에 1077년(문종 31)에 오용천용(吳庸天用)이 지은 서문이 있는데 현재 제 1장이 결실되어 일부분만이 전한다. 전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결실) 斷煩惱 而流出一切眞如菩提 永嘉蓋得諸此而已 南明禪師泉公 昔居千頃 復頌證道歌 成三百二十篇 嗚呼 發如來大智慧海 使人皆得望其涯涘 而泝其流 不絕諸念 不著諸相 不外諸因緣 普以吾覺 悅可衆心 何其盛哉 觀其頌 而吾無能惜其狂言 故爲之序云時 熙寧十年丁巳七月括蒼吳庸天用序

또한 권말에는 1076년에 축황(祝況)이 이 책의 판각에 즈음하여 붙인 후서(後序)가 있으며, 그 다음에 고려 때 주자본(鑄字本)을 중조(重彫)한 기록이 붙어 있다.

夫南明證道歌者 實禪門之樞要也 故後學參禪之流 莫不由斯而入升堂觀奧矣 然則其可閉塞而不傳通乎 於是 募工重彫鑄字本 以壽其傳焉 時己亥九月上旬 中書令晉陽公 崔怡謹誌

南明證道歌는 禪家에서 매우 중요한 서적이다. 그러므로 後學 가운데 參禪을 배우려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책을 통해서 입문하고 높은 경지에 이른다. 그런데도 이 책이 전래가 끊겨서 유통되지 않고 있으니 옳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첩공을 모집하여 鑄字本을 바탕으로 다시 판각하여 길이 전하게 한다. 때는 기해년 9월 상순이다. 중서령 진양공 최이는 삼가 적는다.

곧 1239년(고종 26)을 전후한 시기에 주자본(鑄字本) 『남명천화상송증도가』가 실전(失傳)되어 실물이 전래되지 않으니, 진양공(晉陽公) 최이(崔怡, ?~1249)가 주자본을 바탕으로 하여 중조(重彫)하여 간행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1239년보다 앞선 시기에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를 활자로 인쇄한 바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한국의 금속활자 연구에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이의 본래 이름은 최우(崔瑀)로 후에 이(怡)로 개명된 것이다. 최충헌(崔忠獻)의 뒤를 이어 집권하면서 민심수습과 함께 강화천도(江華遷都)를 단행하여 성을 쌓아 침략에 대비하였던 인물이다.

한편, 반야사본에서는 묵서로 기입된 약체 구결이 확인된다. 이 구결에 대해서는 여말선초의 구결로 추정하고 있는데, 토는 비교적 古形이지만 후대 언해본의 표기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례, 잘못된 표기 사례 등이 확인되어 조금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3A8 ‘ㄴㄱ-+ㄱ’ (훈여권)	10B8 ‘ㄴㄱㄱ七’ (홍리빛)	19A7 ‘ㄱㄴㄱ’ (빛홍야)

곧 전체적으로 본문의 우측과 좌측 양쪽에 토가 쓰였는데, 좌측에 쓰여진 토 가운데 연결어미가 언해본에서 사용되었던 것과 완전히 또는 일부 겹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고, 이전 시기의 구결토를 전사하는 과정에서 생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오기가 상당수 확인되는 것이다.

또한 대체로 고행의 구결을 보여 주면서도 주제의 보조사에 대한 표기로 ‘ㄷㄱ (ㄴ)’이 많이 보인다는 점도 중요하다. ‘ㄷㄱ’은 원래 ‘ㄴ’ 말음첨기와 ‘은/은’은 결합을 표기하는 데서 쓰이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는 주제 보조사의 이형태 ‘ㄴ/는’을 표기하는 데 쓰이고 있으며 그 사용 예는 (5A:7), (7B:2), (14A:2), (18B:8), (21A:5), (22A:7) 등 많은 부분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같이 주제 보조사의 이형태 ‘ㄴ/는’의 표기로서 자주 사용되는 ‘ㄷㄱ’은 16세기 들어서 본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언해본에 사용되었던 토의 사용, 후대 전사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큰 표기의 오류 그리고 16세기에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ㄷㄱ’의 쓰임은 판본의 인출 시기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이므로 조금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반야사본에서는 책의 전래 과정을 판단할 수 있는 묵서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 제2장에서는 A면 2행의 여백에 ‘華翁主人’ 그리고 상 변란의 위쪽에서 ‘主蘭公也’라는 기록이 확인된다. 그 외 여러 곳에서 동일한 필체의 기록이 확인되는데, 제7장의 B면 7행 아래에는 ‘華翁主’, 제23장의 A면의 상변란 위쪽에는 ‘華翁主人’, 제30장 B면의 상변란 위쪽에는 ‘華翁主人’, 제34장 B면의 상변란 위쪽에는 ‘華翁主人’, 제38장 A면의 상변란 위쪽에는 ‘華翁主人’ 등의 기록이 남아 있다. ‘華翁主人’과 ‘蘭公’이 반야사본의 전래 과정에서 소장자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은 추정 가능하나, 현재로서는 그 이상의 상세한 검토가 어렵다. 이 역시 앞으로의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조사본 반야사본을 포함하여 『남명천화상송증도가』를 이해하는 중요한 내용으로는 판심에 새겨진 각수(刻手)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검토가 이루어져 정리된 바 있다.



得(제1·2장), 東伯(제3·4·7·28·44장), 叔旼(제5·6·37·38·39장), 玠才(제7·8·21·32장), 唐甫(제9·10·30·35장), 公大(제11·12·24·36장), 吳準(제13·14·41·42장), 一明(제15·16·22·23·31장), 二世(제17·18·33·34장), 元暉(제19·20·40·43장), 思集(제25·26장)

(千惠鳳, 「高麗鑄字版 《南明泉和尚頌證道歌》의 重彫本에 대하여」, 『圖書館學』 제15집, 1988)

그런데 최근 국보 제32호 합천 해인사대장경판 가운데 「大般若波羅蜜多經」 600권의 목판에 보이는 각수와 비교를 통하여 재검토가 진행되었고, 이를 통하여 일부 각수의 이름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던 사실이 규명되었다.(崔永好, 고려 고종 26년 판각의 《南明泉和尚頌證道歌》에 표기된 刻手의 기능적인 전문영역」, 『서지학연구』 제85집, 2021)

득인	동백	숙돈	진재	당보	공대	오준	일명	공세	원휘	은유
										
제2장	제27장	제6장	제21장	제35장	제24장	제13장	제15장	제33장	제20장	제25장

득인	동백	숙돈	진재	당보	공대	오준	일명	공세		원휘	은유
											
권364 22장	권531 22장	권472 22장	권96 16장	권477 23장	권517 23장	권495 10장	권525 14장	권548 19장	권301 23장	권336 23장	권1 14장

이를 통하여 ‘得’(제1·2장)은 ‘得仁’으로, ‘叔旼’(제5·6·37·38·39장)는 ‘叔敦’으로, ‘二世’(제17·18·33·34장)는 ‘公世’로, ‘思集’(제25·26장)은 ‘恩儒’로 네 명의 이름을 확정짓게 되었다.

조사본 반야사본은 번각 후의 초쇄가 아닌 일정 시간이 경과한 뒤의 판본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모든 장에서 목리(木理)나 완결(剝缺), 획과 변란이

끊긴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현존하는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의 각 장 인출 상태, 지질 등을 비교하여 인출 시기의 선후 관계를 밝히고는 있으나, 각 연구자의 기준이 동일하지 않아 객관적인 연구 결과로 집약되지는 않고 있다. 판각 이후 인출 시기에 대한 검토는 조금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 문헌자료

- 남권희, 「證道歌字의 발견과 《南明泉和尚頌證道歌》의 연구」, 『書誌學報』 제36호, 2010.
- 남권희, 「구결본 《南明泉和尚頌證道歌》의 서지적 고찰」, 口訣學會 제24회 전국 학술대회, 구결학회, 2012.
- 민현주, 「《南明泉和尚頌證道歌》의 구결 자료에 대하여」, 『한국말글학』 Vol.29, 2012.
- 민현주, 「《證道歌》 이본의 입결(口訣) 연구」, 『한국말글학』 Vol30, 2013.
- 朴喜淑, 「《南明泉和尚頌證道歌》에 보이는 口訣」, 『관대논문집』 Vol.6, 1978.
- 孫煥一, 「《南明泉和尚頌證道歌》의 書體」, 『文化史學』 제47호, 2017.
- 千惠鳳, 「高麗鑄字版 《南明泉和尚頌證道歌》의 重彫本에 대하여」, 『圖書館學』 제15집, 1988.

## ○ 지정사례

보물 제758-1호 남명천화상송증도가(김종규, 1984. 05. 30 지정)

보물 제758-2호 남명천화상송증도가(공인박물관, 2012. 06. 29 지정)

## □

## ○ 현 상

현존하는 이 판본에서 인출되었던 책은 4건이 현존하고 있으며 그중 2건은 이미 국가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1건은 2020년 현재 지정과정 중에 있다. 그 가운데 3건에는 후대에 기입한 목서구결이 남아 있다.

책의 물리적 형태는 후대에 개장된 검은 색 표지에 백지의 제침을 붙이고 목서로 표지제목을 ‘證道歌 南明繼頌’를 기록하였다. 제본의 형태는 오침안의 장정이며 크기는 23.1x14.3cm이다. 표지의 裏面은 면지가 없고 제1장은 낙장 되었으며 권말의 마지막 誌文이 있는 뒷면의 반장도 훼손되었다.

현존본의 첫 장에는 ‘華翁主人’이라는 목서가 본문의 여백에 쓰여 있고 같은 내용이 7장의 뒷면에는 ‘華翁主’의 기록이, 23장의 앞면, 제30장, 제34장 뒷면 상단, 제38장 앞면 여백에도 ‘華翁主人’의 기록이 있으며 제2장부터 제15장의 하단에는

훼손 부분을 배접되어 있다.

책의 전체적인 체제는 다음과 같다.

- ① 南明泉和尚頌證道歌一部 并序 ; 熙寧 10年(1077) 丁巳 7月, 吳庸
- ② 본문 ; 千頃山 沙門 法泉 頌
- ③ 後序 ; 熙寧 9年(1076) 7月, 祝況
- ④ 識文 ; 己亥(1239) 9月 上旬 中書令 晉陽公 崔怡

본문 중에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墨點이 문장의 우측에 표시되었고 문장과 글자에 현토된 구결들은 문장에 따라 2가지로 병기된 것으로 미루어 기록의 시기가 다른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묵서 기록으로는 난상에 본문의 단어에 대한 주석을 달아둔 사례도 있다.

판식에 있어서 제28장과 제29, 30장과 같이 각 장별로 匡高의 차이가 현저하게 차이나는 부분이 있고 글자의 서체도 달라져 있다. 그 중 판의 크기는 저본을 번각한 목판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축소된 것이며 글자의 서체는 판각에 참여한 11명의 각수의 판각기술에 따른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본에서는 훼손과 배접 등으로 각수의 이름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본문의 행자수는 기본적으로 8행 15자이나 제39장의 뒷면은 7행으로 줄어있으나 내용은 그대로 연결되므로 이는 저본인 활자본의 조판상 실수로 추정되고 이를 통하여 책의 인쇄과정에서 조판할 당시 2인 이상이 동시에 작업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조판작업 과정에서 登梓本을 조판인원에 맞추어 나누어 줄 때 잘못 배정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정의 과정을 거쳤다면 뒤의 남은 내용 부분이 많지 않아 다시 조판할 수 있었거나 또는 알 수 없는 긴급한 사정에 의하여 잘못 조판된 채로 진행되었을 가능성, 또는 내용의 연결상 문제가 없어 조판의 실수를 간과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 내용 및 특징

### 1. 번각본 跋文의 기록

이 책은 法泉이 千頃山에 있을 때 저술되었으며 宋의 神宗 熙寧 9년(1076) 7월에 浙江省의 括蒼(지금의 浙江省 麗水)에서 처음으로 간행한 것이다. 권말에는 祝況의 序가 수록되어 있고 1077년 7월에는 卷首에 吳庸의 序를 붙여 책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

高麗에 옮겨와 유통된 것은 宋代의 初刊本일 것이나 그것이 정확히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기록이 전해지지 않아 알 수 없지만 고려말까지 같은 내용을 수록한

여러 형태의 판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전래되어 유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중 底本이 금속활자본으로 추정되는 『南明泉和尚頌證道歌』의 현존 목판본의 간행 시기는 몽고의 침입을 받고 高麗 高宗 19年(1232)에 수도를 임시 江華로 옮긴지 8년째가 되는 同王 26年 乙亥年(1239) 9월이며 같은 책의 뒷부분에 수록된 江華 武人政府의 제일인자인 中書令 崔怡가 쓴 글의 내용으로 간행의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책의 跋文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夫 南明證道歌字 實禪門之樞要也 故後學 /  
參禪之流 莫不由斯 而入升堂觀奧矣 然則 /  
其可閉塞而 不傳通乎 於是募工重彫鑄 /  
字本 以壽其傳焉 時己亥九月上旬 中書令 /  
晉陽公 崔怡 謹誌

이 글에서 책의 간행 동기는 禪門의 중요한 책인 『南明泉和尚頌證道歌』가 후학들이 참선 수행을 하는데 의거하는 중요한 책이지만 그것이 흩어지고 없어져 전하지 않으므로 책을 만드는 기술자 즉 刻手를 모아 활자본을 다시 목판본으로 뒤집어 새겨내었다고 한다. 즉 翻刻本의 간행 시기는 몽고군이 쳐들어와 江華島로 천도한 후 수 년이 경과한 후 1239년 9월에 重彫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그 底本이 되는 金屬活字 印本은 1232년 강화도로 천도하기 이전 開京에서 이미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저자

證道歌의 저자는 唐代의 玄覺으로 溫州 永嘉人이며 韻文의 형식으로 禪宗의 법문을 설명하였다. 이 證道歌에 대하여 후에 南明山 (지금의 浙江省 新昌境內)의 法泉 스님이 頌을 쓴 책이 바로 이것으로 ‘千頃山 沙門 法泉 頌’이라는 저자 표시가 책의 卷首 序文과 卷首題에 이어 한 行을 이루고 있다.

### 1) 玄覺( ~ 713)

證道歌의 저자인 永嘉 眞覺大師는 唐代人으로 법호는 玄覺, 법명은 道明이며 浙江省 溫州 府 永嘉縣(지금의 浙江省 永嘉) 사람이다. 俗姓은 戴氏이며 후에 諡號는 無相, 塔號는 淨光이라 하고 永嘉縣에 살았던 까닭에 법명을 永嘉로 쓰기도 하였다.

현각은 출가하여 天台宗 7祖 天宮 慧威禪師로부터 처음에는 天台 智者大師의 教義와 止觀 즉 教觀을 배웠으며 左溪 玄朗(673-754)과 같은 시대의 인물로서 講



院을 두루 거치고 선지식을 찾아다니다가 어느 날 涅槃經을 보다가 法의 근본을 깨쳤다. 그 후 온주 개원사에서 수행하고 있을 즈음 혜능의 제자인 玄策禪師<sup>3)</sup>을 만나 그의 권유로 六祖 慧能(638-713)을 찾아가 깨달은 바를 印可를 받았다. 그때 혜능과 生死와 無常, 無生과 分別 등에 대한 대화와 교감을 통하여 세 번의 인가를 받은 후 하루 밤 머물도록 만류한 까닭에 범호를 ‘一宿覺’이라 하였다. 이후 溫江으로 돌아와 여러 선승들의 수행하였으며 고향인 永嘉縣의 龍興寺에 머물며 제자들을 지도하였다.

『景德傳燈錄』에 의하면 현각은 혜능의 嗣法弟子 18인 중의 한 사람으로 전해지고 후에 혜능의 제자 중 懷讓, 慧忠, 行思, 神會와 더불어 5대제자로 불리게 되었다.

현각은 저술로 『證道歌』와 『永嘉集』이 가장 대표적이며 그 밖에 『禪宗悟修圓旨』, 『觀心十門』, 『釋代通鑑』, 『宗統編年』, 『編年通論』 등을 남겼으며 49세가 되던 先天 2年(713) 10월 17일 열반에 들었다.

## 2) 法泉

한편 이 證道歌에 대하여 후에 南明山<sup>4)</sup> (지금의 浙江省 新昌境內)의 法泉 스님이 頌을 쓴 책이 바로 이것으로 ‘千頃山 沙門 法泉 頌’이라는 저자 표시가 책의 卷首 序文과 卷首題에 이어 한 행을 이루고 있다.

證道歌를 註釋한 法泉은 宋代 胡廣 德安府 隨州縣 출신으로 俗姓은 時氏였으며 龍居山 智門院 信玘禪師에게 出家하였고 法號를 佛慧라 하였다. 法嗣는 筠州 雲居의 大愚 曉舜禪師에게 받고 靑原 行思의 12세가 되었으며 후에 大明, 千頃, 靈巖, 南明 및 金陵의 蔣山 法泉院으로 옮겨 다니며 정진하다가 만년에 황제의 勅命으로 大相國의 智海禪寺에 주석하면서 宗師가 되었다.

책의 後序에 의하면 千頃山에서 여러 사람들과 지내던 여가에 證道歌 句節을 나누어서 頌을 지어 永嘉大師의 본 마음을 펼쳐 보였다.

## 3. 형식

證道歌는 唐나라 永嘉의 玄覺禪師(643-713)가 禪宗의 第6祖 慧能을 만난 후 하룻밤 사이에 얻은 큰 깨달음을 249句의 古詩體로 읊은 것으로 禪宗의 법문을 운문 형식으로 설명하였다.

이 證道歌의 완전한 서명은 ‘永嘉大師證道歌南明泉禪師繼頌’이며 이와 같은 여러 종류의 註釋書가 宋代 이후에 유통되었고 그 중 法泉의 繼頌은 중요한 주석서로

3) 神策, 大策, 智策, 智榮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림

4) 南明과 千頃은 모두 山 이름이며 法泉禪師가 살던 곳이다.

평가되어 왔다.

그 내용은 부처의 영원불변한 진리를 깨닫고 체득할 수 있는 精髓를 노래한 것으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佛性을 가지고 있어 누구나 參禪修行을 하면 부처의 본체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證道歌의 형식은 霽月 通光<sup>5)</sup>에 의하면 문학 형식 중 樂府의 장편 歌行體를 말하는 것이며 明代 徐師曾의 『詩體明辯』에서 ‘歌’는 ‘감정을 표출하여 가사를 길게 뽑아 이것저것 일정한 것 없이 뒤섞어 놓은 것’이라 설명하였다<sup>6)</sup>. 현각이 살았던 盛唐時期에는 近體 律詩가 가장 성행했으므로 證道歌 역시 이러한 경향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중도가 형식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논의되는 첫머리의 ‘君不見’ 구절을 인정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전체가 267句 134聯 또는 266句 133聯으로 말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세 글자는 반문강조형 詩句에서 사용될 뿐이며 구절을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266句로 여겨진다.

또 형식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3·3의 6言句는 시작의 첫 句節인 起句에만 있고 文體는 대체적으로 對偶의 형식으로 앞에는 韻字가 없고 뒤 句節에는 韻字가 나타난다. 또한 證道歌는 古體詩의 성격에 따라 한 句節씩 건너 韻字를 쓰고 또 바꾸어 쓸 수도 있는 隔句換韻의 방식으로 되어 있다.<sup>7)</sup>

한편 저자와 관련 자료 중 『禪宗永嘉集』은 唐 永嘉玄覺(665-713)의 『永嘉集』에 대해 晉 淨源의 科와 行靖의 註를 모은 것으로 修禪의 要義와 歷程을 서술하여 도에 들어가는 요결을 十門으로 구성하였으며 현존하는 자료를 통해 보면, 고려에서는 『선종영가집』보다는 『證道歌』가 주로 유통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4. 전래와 유통

이 책의 처음 간행은 1076년 浙江省의 括蒼(지금의 절강성 여수)에서 목판으로 찍어낸 것으로 추정된다. 그 뒤 현각의 누이인 淨居를 비롯해 같은 시대의 梵天 彦琪, 송대의 法泉 등이 각각 주석하여 책을 편찬하였고 이 주석본들은 모두 중국에서 판각, 유통되었던 목판이다.

이 『證道歌』가 고려말에도 유행하며 보우나 나옹 등 14세기의 선승들이 『證道歌』를 기본으로 歌頌을 지었다는 것이 확인되므로 고려말 『證道歌』의 형식은 禪師들이 가송을 찬술할 때의 기준이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태고의 <太古菴歌>는 『證道歌』를 본떠 지었다고 하며, 이색은 나옹의 三歌(翫珠歌·百衲歌·枯髑歌)도 『證道歌』의 句法을 본떠서 지은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李穡이나 權近 등

5) 제월통광 현토역주, 『중도가 언기주』 (서울: 불광출판사, 2008), 8-13.

6) 제월통광 현토역주, 8

7) 제월통광 현토역주(2008), 12.

여말 성리학자들도 『證道歌』에 대해 잘 알고 있어 고려말 『證道歌』가 유행한 것은 여러 자료에서 확인된다.

한편 永嘉 玄覺과 관련된 저술 중에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읽히고 간행된 것으로 『선종영가집』이 있으며 李邦直의 後誌가 확인되는 가장 이른 기록이다. 고려말 나옹의 문도들에 의해 간행된 이 『선종영가집』은 조선초 自超의 문도인 得通己和(1376-1433)가 說誼를 더하여 『禪宗永歌集說誼』를 찬술했고, 기화의 『선종영가집 설의』에 대한 언해본이 1463년(세조9) 세조의 명으로 『선종영가집언해』가 간경도감에서 간행되었고 당시 세조가 직접 구결을 정하였으며 효령대군을 비롯한 前檜巖寺住持 曉雲을 포함한 여러 승려들이 참여하였다.

고려 후기에 들어 나옹 혜근이 중국에서 유학 할 때 인도에서 티벳을 거쳐 중국에 들어온 指空과 교류하였고 指空은 泰定帝의 御香使로 파견되어 1326년 개경에 이르렀다. 이 때 많은 신도들이 그의 주변에 운집하였고 그중 玉田 達蘊을 포함한 여러 사람이 指空에게 계를 받거나 출가하게 되었다.

당시 달온의 俗姓은 曹氏이며 공민왕의 元從功臣으로서 공을 세워 재상을 역임한 사람의 동생으로 曹益淸의 동생으로 추정되고 있고<sup>8)</sup> 1328년 지공을 따라 원에서 각지를 다니며 1353년까지 견문을 넓혔던 인물이다. 그는 1355년 이후 귀국하였으며 李穡의 『牧隱文藁』 卷3 <書證道歌後>에 의하면 이때 가지고 온 永嘉 玄覺의 『證道歌』를 前贊成事 禹禪가 간행하게 되자 달온은 이색에게 간행에 대한 後序를 부탁하면서 이미 귀국한지 20년이 되었다고 한 내용으로부터 그의 행적을 짐작할 수 있다.

달온이 가지고 온 『證道歌』는 1316年(元 延祐 3) 趙孟頫가 글씨를 쓰고 그에 대해 危素가 발문을 썼다고 한다. 현존하는 자료 중에는 조맹부가 쓴 『證道歌』의 권말에 “延祐丙辰夏 吳興趙孟頫 爲龍光大司徒筠幹禪師書”라는 발문이 있는 것도 있다. 1355年(元 至正 15) 조맹부의 아들인 待制 趙仲穆이 달온의 松月幹에서 조맹부의 『證道歌』를 보고는 그 뒤에 題했다고 한다. 현재 한국에 전하는 조맹부가 쓴 『證道歌』는 달온이 가지고 온 것을 우제가 1386년경 복각하고 이것을 다시 중각한 판본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조선시대 송설체가 유행하면서 달온의 전래본 역시 여러 차례 중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9)</sup>

## 5. 『證道歌』의 판본

지금까지 알려진 證道歌에 대한 중국에서의 註釋書 편찬과 간행은 玄覺의 누이인 淨居의 주석서, 梵天 彦琪의 주석서(1097), 宋代 妙空 知訥의 주석서(1146), 元

8) 姜好鮮, “高麗末 懶翁慧勘 研究,” (박사학위논문, 서울대 대학원, 2011), 60.

9) 姜好鮮(2011), 60-61.

代 法慧 宏德禪師가 찬하고 德弘이 편한 주석서(1340)와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宋代의 法泉의 주석서 등이 있다.

그 중 소위 證道歌字라 불리는 활자로 江華島 遷都의 1232년 이전에 開城에서 찍었던 책을 底本으로 하여 강화도에서 천도 후인 1239년 崔怡의 명에 의하여 목판으로 새겨낸 것을 인출한 것이 4종이며 이후 조선시대에 다시 번각한 판본도 국립중앙도서관, 종로도서관 등에 전하고 있다. 고려 판본의 인출본들은 모두 비슷한 형태적인 특징을 보이며 글자와 邊欄 등 전체적으로 적지 않은 木理가 나타난다. 이는 原刻本의 판각시기에서 일정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翻刻이나 摹刻이 아닌 원각본의 1-2세기 뒤의 後刷本으로 추정된다.

이 4건의 판본을 지칭하는 명칭은 편의상 여러 가지의 구분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바 지금까지 알려진 순서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보물 758-1(1984) ; 삼성출판박물관 소장 ; 삼성본
- ② 보물 758-2(2012) ; 공인박물관 소장 ; 공인본
- ③ 지정과정본(2020) ; 반야사 소장(대구) ; 반야사본
- ④ 비지정(201 ) ; 대구 개인소장 ; 대구본

### 1) 三省本

이 책은 三省出版博物館의 소장으로 보물 758-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표지에는 ‘南明頌證道歌’라는 題簽이 있으며 배접지에는 墨書의 禪詩 1首가 쓰여져 있다.

### 2) 공인본 (박동섭 구장본, 안동본)

이 자료는 현재 보물 758-2호 목판본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책의 처음 알려진 것은 1980년대 안동의 박동섭의 소장이었던 까닭에 ‘안동본’으로 알려졌었고 당시에 소장자가 鑄字本임을 주장하였으나 천혜봉교수 등의 감정에서 목판본으로 2차례 확정되기도 하였다.

### 3) 대구본

가장 늦게 알려진 대구의 개인소장본은 앞의 3종에 비해 인쇄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그동안 판각의 형태나 글자의 마모도 등 여러 면에서 삼성본이 영인자료의 보급과 더불어 국가 지정문화재로 관리되어 주자본의 번각본을 대표해왔다. 이 대구본은 인쇄상태가 비교적 깨끗하지만 그럼에도 인출시기가 판각된 초기보다 많이 경과된 흔적으로 글자에 따라서 획의 탈락, 마모는 물론 수분이 빠져나감에 따라

인판 자체가 줄어든 현상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있다.

이 자료에 관해선 지정 논의의 과정에서 권말에 갑인자 소자의 仁粹大妃 발원문이 처음에 붙어있었다는 전후 과정이 알려져 있으므로 당연한 귀결로 발원문내에 언급된 證道歌의 인출내용에 근거하여 1470년대로 그 인출시기를 확정지을 수 있다.

## 6. 조사대상 반야사본의 특징

이 책은 형태적인 면에서 版心 부분이 잦은 열람으로 헤진 부분이 많고 판심 하단은 白紙를 덧대어 보강하였다. 제1장은 落張되어 확인할 수 없으며 제2장의 2行 아래와 제 134장 뒤, 제 138장 앞 天頭의 여백에 ‘華翁主人’이라는 所藏者의 표시로 인정되는 墨書가 보인다.

전체적인 인쇄는 다른 3건과 비교할 때 서로 다른 변형이 일부 있으나 글자 획의 굵기가 같고 선명한 상태로 보아 지금까지 알려진 판본 중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편에 속한다. 또 본문 중 오른쪽에 墨書로 쓰인 한자의 略體口訣의 형태도 고려시대의 형태로 공인본의 口訣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종이의 세로발끈 폭을 조사해 보면 3-4cm 정도로 고려시대의 판본에서 나타나는 종이들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형태적인 차이 외에도 인출 후에 기록되었을 본문에 쓰여진 墨書의 口訣字는 약 50개로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去 / 거	大 / 대	ㄴ / 로	ニ / 시	ㄹ / 의
口 / 고	木 / 더	糸 / 록	七 / 스	リ / 이, 리
乃 / 나	丁 / 덩	牙 / 리	ㄷ / 야, 아	ㄴ / 이
ㄷ / 나	刀 / 도	禾 / 리	今 / 어	卯 / 인
又 / 노	斗 / 두	里 / 리	二 / 여	尺 / 자
匕 / 니	矢 / 디	尸 / 리, 시	分 / 여	ㄴ / 하
尾 / 니	月 / 들	乙 / 르	五 / 오	ノ / 호
斤 / 날	ム / 대	介 / 마	午 / 오	ㅎ / 히
ㄱ / 니	、 / 라	火 / 브, 벵	牛 / 우	十 / 히, 괴
丨 / 다	ス / 라	シ / 샤	ト / 와	

이 중 고려본 능엄경 등 13~14세기에 쓰이던 구결자와 새로이 쓰인 ‘斤/날’, ‘禾/리’, ‘火/브, 벵’, ‘尸/리, 시’, ‘尺/자’, ‘矢/디’, ‘牛/우’ 등의 글자가 보인다. 특히 그 중 몇 가지의 형태를 살펴보면, ㄴ分ㅎ/ㅎ며히, 口斤/코날, ㄴリ火七/하리벵 등과 다른 고려본에 볼 수 없는 ‘牛’자도 보인다. 그 용례는 다음과 같다.

① 21B-1 若入荒田ㄴ } 隨午得牛七ㄴ分 不勞移步ㄴ } ...

- 만약 무성한 밭에 들어 손을 따라 얻으면, 피곤히 걸음 옮기지 아니하며...
- ② 21B-8 不了<sub>ㄴ</sub> 用修行<sub>ㄴ</sub>又月<sub>ㄴ</sub> 了得修行<sub>ㄴ</sub>...
- 알지 못하여 행을 닦으니, 알아서 행을 닦으면...
- ③ 34B-5 唯有文殊<sub>ㄴ</sub> 知此數<sub>ㄴ</sub>
- 오직 문수보살만이 이 수를 아시어
- ④ 35A-6 若遇眞知識<sub>ㄴ</sub> 縱令枯木<sub>ㄴ</sub>...
- 만약 진실한 지식을 만나면 비록 시든 나무라도
- ⑤ 40B-5 唯有虛空<sub>ㄴ</sub> 是舊隣<sub>ㄴ</sub>
- 오직 허공, 이것이 옛 이웃이로다.

이상의 5가지 용례에서 ‘<sub>ㄴ</sub>’과 ‘<sub>ㄴ</sub>’은 ‘<sub>ㄴ</sub>’은 ‘<sub>ㄴ</sub>’과 같이 강세를 나타내는 조사 ‘<sub>ㄴ</sub>’의 의미로 사용되고 ‘<sub>ㄴ</sub>’는 安東本 등에서 ‘<sub>ㄴ</sub>/하면’에 대응되고 있다. 이러한 용법은 일반적인 고려본에서 ‘<sub>ㄴ</sub>/’으로 쓰이나 ‘<sub>ㄴ</sub>’은 ‘오/우’의 교체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밖에 사용된 구결의 자형외에 어휘적인 측면에서도 후대에 나타나지 않는 여러 복합적인 형태가 쓰이고 있다.

### 7. 각 판본별(4건) 변란과 판면의 磨耗, 剝缺 현상

- ① 판본 구분 ; A: 삼성본, B: 공인본 C: 반야사본 D: 대구소장본
- ② ‘>’와 같이 부등호가 의미 하는 것은, 더 완전성이 높은 방향(좌)으로 표시
- ③ ‘=’의 등호 표시는 완결의 정도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표시
- ④ ‘□’는 반야사본의 첫 장이 낙장된 표시

글자의 마모도는 글자의 결획, 글자 획의 끊어짐, 木理, 글자의 인쇄 상태에 따라 판단

쪽면	변란 마모도	글자 마모도
1A	□>A>D>B	□>A>D>B
1B	□>A>D>B	□>A>D>B
2A	A>C>D>B	A=C>D>B
2B	B=C>A=D	C>B>A=D
3A	C=A>D>B	D>A>C>B
3B	C>A>D>B	C=A>D>B
4A	C>A>B>D	C>A>D>B

쪽면	변란 마모도	글자 마모도
22A	C>D>B>A	C>A=D>B
22B	C>A>D>B	C>A=D>B
23A	C>A=D>B	C>A=D>B
23B	C>A=D>B	A=D>C>B
24A	C>A=D>B	C>A=D>B
24B	C>A=D>B	C>A=D>B
25A	A=D>C>B	C>D>A>B

쪽면	변란 마모도	글자 마모도
4B	C>A>B>D	C>A>D>B
5A	C>A>B>D	C>A>D>B
5B	C>A>B>D	C>A=D>B
6A	C>B>A=D	C>A=D>B
6B	C>A=D>B	C>A=D>B
7A	C>A=D=B	C>A=D=B
7B	C>A>D>B	C>A=D>B
8A	C>A=D>B	C>D>A>B
8B	C>A>D>B	C>D>A>B
9A	C>A=D>B	C>A>D>B
9B	C>A>D>B	A>C=D>B
10A	C>A>D>B	C>A=D>B
10B	C=A>D=B	C>A=D>B
11A	C>A=D>B	C>A=D>B
11B	C>A=D=B	C>A=D>B
12A	C>A=D>B	C>A=D>B
12B	C>A=D>B	C>A=D>B
13A	C>A=D>B	A=D>C>B
13B	A>C=D>B	C=A>D>B
14A	A=D>C>B	C>A>D>B
14B	C>A>D>B	C>A=D>B
15A	C>A=D>B	C=A=D>B
15B	A>C=D>B	C>A=D>B
16A	C>A>D>B	C>A=D>B
16B	C>A=D>B	C>A=D>B
17A	C>A=D>B	C=A=D>B
17B	C>A=D>B	C>A=D>B
18A	C>A=D>B	C>A>D>B
18B	A=D>C>B	C>A=D>B
19A	C>A=D>B	C>A=D>B
19B	C>A=D>B	C>A=D>B
20A	C>A=D>B	C>A>D>B
20B	C>A=D>B	C>A=D>B
21A	C>B>A=D	C>A=D>B
21B	C>A=D>B	C>A=D>B

쪽면	변란 마모도	글자 마모도
25B	A=D>B>C	A=D>B>C
26A	A=D>C>B	C>A=D>B
26B	C>A=D>B	C>A=D>B
27A	C>D>A>B	C>A=D>B
27B	C>A=D>B	C>A=D>B
28A	C>A=D>B	C>A=D>B
28B	C>A=D>B	C>D>A>B
29A	C>A=D>B	C>A=D>B
29B	C>B>A=D	C>A=D>B
30A	C>A=D>B	C>A=D>B
30B	A=D>C>B	D>A=C>B
31A	C>A=D>B	A=D>B>C
31B	C>A=D>B	C>A=D>B
32A	A=D>C>B	C>A=D>B
32B	C>A=D>B	D>A=C>B
33A	C>A=D>B	C>A=C>B
33B	C>A=D>B	A=D>C>B
34A	C>A=D>B	C>A=D>B
34B	C>A=D>B	C>A=D>B
35A	C>A=D>B	C>A=D>B
35B	C>A=D>B	C>A=D>B
36A	C>A=D>B	C>A=D>B
36B	C>A=D>B	C>A=D>B
37A	C>A=D>B	C>A=D>B
37B	A=D>B>C	A=D>B>C
38A	C>A=D>B	A=D>B>C
38B	A=D>B>C	A=D>B=C
39A	A=D>C>B	A=D>C>B
39B	C>A=D>B	C>A=D>B
40A	C>A=D>B	C>A=D>B
40B	C>A=D>B	C>A=D>B
41A	C>A=D>B	A=D>C>B
41B	C>A=D>B	C>A=D>B
42A	C>A=D>B	C>A=D>B
42B	A=D>C>B	C>A=D>B

1) 변란 (현상 빈도순)

- (1) C>A=D>B ; 반야사본 > 삼성본 = 대구본 > 공인본 ; 56% 50면 / 88면중
- (2) C>A>D>B ; 반야사본 > 삼성본 > 대구본 > 공인본 ; 11% 10면 / 88면중
- (3) A=D>C>B ; 삼성본 = 대구본 > 반야사본 > 공인본 ; 9% 8면 / 88면중

2) 글자면 (현상 빈도순)

- (1) C>A=D>B ; 반야사본 > 삼성본 = 대구본 > 공인본 ; 60% 53면 / 88면중
- (2) C>A>D>B ; 반야사본 > 삼성본 > 대구본 > 공인본 ; 9% 8면 / 88면중
- (3) C>D>A>B ; 반야사본 > 대구본 > 삼성본 > 공인본 ; 4% 4면 / 88면중

이러한 변란을 포함한 판면의 현상으로 볼 때 반야사본-삼성본-대구본-공인본

의 순서로 인출시기를 비정할 수 있지만 반야사본도 번각후의 초쇄가 아닌 일정 시간이 경과한 뒤의 판본이라 木理나 剝缺, 획과 변란이 끊긴 현상이 나타난다.

□

## 1) 대구 반야사 소장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의 개관

남명천화상송증도가, 대구 반야사 소장

南明泉和尚頌證道歌 / 玄覺(唐) 著 ; 法泉(宋) 頌. -- 木板本. -- [江華] : [大藏都監?], 己亥(1239, 高麗 高宗 26)

不分卷 1冊(완) : 四周單邊 半郭 18.0 × 12.5cm, 無界, 8行15字, 無魚尾 ; 23.4 × 14.6cm

序 : 熙寧十年(1077)丁巳七月日括蒼吳庸天用序

後序 : 熙寧九年(1076)七月日括蒼祝況後序

刊記 : 己亥(1239, 고려 高宗 26)九月上旬中書令晉陽公崔怡(1166-1249)謹誌

表題(題簽) : 證道歌 南明繼頌

제침의 크기 : 22.3× 4.4cm

종이두께 : 0.04-0.06cm

발간격 : 3-3.5cm

裝幀 : 線裝(5針)

紙質 : 楮紙

상태 : 제1장 낙장, 제2-5장 하단부 훼손, 오염, 곰팡이, 부분배접, 마모.표지 개장

소장자 : 대구시 수성구 파동로 22길 31-7 소재 조계종 반야사(해인사 말사)

소장 유래 : 14-15년전 종진 스님(2019년 4월 입적)으로부터 현주지인 현석 스님이 받음

전래 과정 : 지암스님(이종욱, 1884-1969, 조계종 총무) -> 오대산 월정사 지월스님(1911-1973) -> 오대산 월정사 도건스님(1925-2013) -> 종진스님

## 2) 『南明泉和尚頌證道歌』의 성립 경위

『證道歌』는 당나라의 영가(永嘉)대사 현각(玄覺, 665-713)이 선종의 제 육조(六祖)인 혜능(慧能)대사를 만나 깨달음을 인정받고 지은 “도를 증득하고 부르는 노래”, 즉 깨달음의 노래인 오도송(悟道頌)이다.

이 『증도가』를 宋나라의 남명(南明)대사 법천(法泉) 화상이 한 구절씩 발취해 총 320수로 다시 노래한 것이 『영가대사증도가남명천선사계송(永嘉大師證道歌南明泉禪師繼頌)』이다. 이를 『증도가남명계송(證道歌南明繼頌)』 · 『남명천계송(南



明泉繼頌』·『남명계송(南明繼頌)』·『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남명천송영가증도가(南明泉頌永嘉證道歌)』·『남명천송증도가(南明泉頌證道歌)』·『남명증도가(南明證道歌)』 또는 『남명집(南明集)』이라 칭한다.

대구 반야사 소장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의 表題는 <證道歌南明繼頌> 으로 되어 있다.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는 범천이 천경산에 있을 때의 저술이다. 그것을 송나라 신종 熙寧9년(1076) 7월에 浙江省의 括蒼에서 처음 간행할 때 祝況의 後序를 권말에 붙이고, 다음해인 1077년에 7월에 吳庸의 序文를 얻어 卷首에 첨부하였다.

### 3)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의 고려 인출

고려에서는 宋나라의 括蒼本이 도입되어 금속활자로 인출되어 유포되었으나 언제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전하는 목판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 권말의 崔怡가 쓴 刊記에 의하면, “募工重彫鑄字本”, 즉 工人을 모아 鑄字本을 거듭 새겨냈다는 기록이 현존하는 목판본의 판하본이 금속활자본임을 말해 준다.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가 인출된 시기는 간기 “己亥(1239, 고려 高宗 26)九月上旬中書令晉陽公崔怡(1166-1249)謹誌”로 미루어 1239년이고, 중서령 崔이(1166-1249)의 주도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崔이는 1219년부터 1249년까지 30년 동안 고려 왕조의 실권을 잡았는데, 1232년 몽고의 침입에 대비하여 강화도로 천도하였고, 1234년에 강화 천도의 공으로 진양후(晉陽候)에 봉해졌다. 이후 1237년부터 강화에서 대장경 再彫에 착수하였다.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 판심에 등장하는 11인의 각수가 고려고종 24년(1237년 丁酉)부터 고종 27년(1240년 庚子) 사이에 高麗國大藏都監에서 조성된 국보 제32호 해인사대장경판 『大般若波羅蜜多經』의 각수와 비교 연구한 최영호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해인사대장경판 『大般若波羅蜜多經』의 해당 개별경판에 새겨진 각수들과 글자 형태가 동일하다.

따라서 목판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도 강화도의 대장도감에서 대장경을 판각하던 각수들에 의해 조성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4) 대구 반야사 소장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의 상태

대구 반야사 소장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의 현 상태를 보면,

<사진 1>에서 보듯이, 제1장(2페이지)은 낙장이고, 제2장부터 제5장까지 본문 하단이 훼손되어 원문을 온전히 수록하고 있지 못하며, <사진 2>에서 보듯이, 각 수정보도 훼손되어 있다. 아울러 책이 많이 읽혀졌던 탓인지 마모도 상대적으로 심하고, <사진 3>에서 보듯이 보존 상태도 양호하지 않아 오염도 많고, 후반부에는 곰팡이도 발견된다. 표지는 남색 표지에 흰 침지를 붙여 제침을 <證道歌 南明繼頌>으로 하였으며, 흰 실로 오침으로 엮었고, <사진 4>에서 보듯이, 표지 이면은 면지를 바르지 않은 상태이다.

공인본 장 2b	공인본 장 2a	공인본 장1 b	공인본 장 1a
삼성본 장 2b	삼성본 장 2a	삼성본 장1 b	삼성본 장 1a
		없음	없음

<p>삼성본 44a 간기면</p>	<p>삼성본 43b</p>	<p>반야사본 간기면 44a -오염, 곰팡이</p>	<p>반야사본 43b -오염, 곰팡이</p>

< 사진 3 >

<p>반야사본 표지 이면</p>	<p>반야사본 표지</p>

< 사진 4 >

### 5) 이미 지정된 보물과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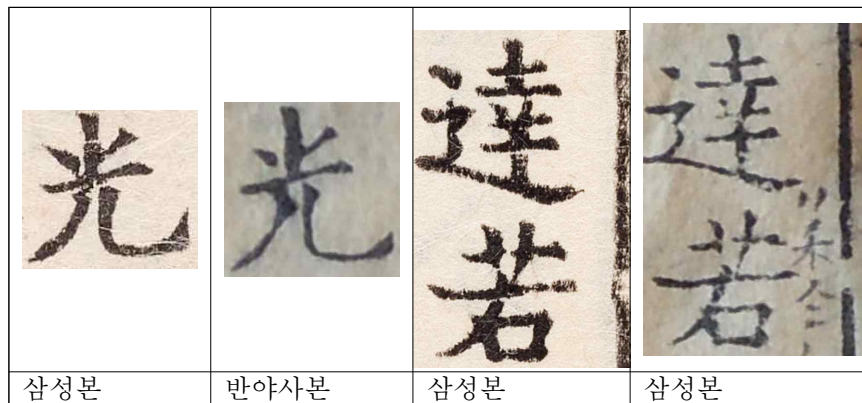
(1) 대구 반야사 소장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가 낙장이 있고 본문의 훼손이 있더라도 유일본이거나 아니면 기 지정본과 다른 어떠한 중요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면 국가문화재 보물 지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상태가 더 좋은 동일 판본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즉, 국가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서울 삼성출판박물관 소장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와 양산 공인박물관 소장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가 동일판본이면서 낙장이나 훼손이 없는 완본으로 보존상태도 더 양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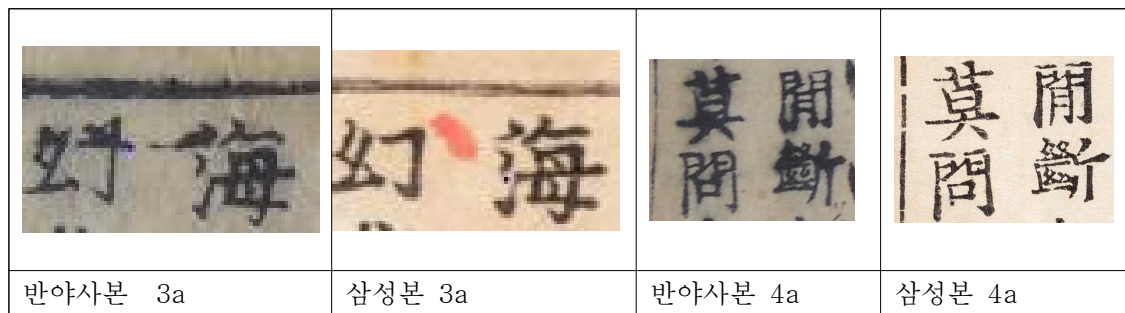
인쇄상태도 반야사 소장본이 삼성출판박물관 소장본과 양산 공인박물관 소장본보다 선명하지 않아 가독성도 떨어진다.

(2) 아래 <사진 5>에서 보듯이, 반야사본은 삼성본보다 글자의 굵기가 전체적으로

가늘다. 얼핏 보면 반야사본이 글자가 진하게 보여 초쇄본 인 듯 하지만 확대하여 보면 반야사본에서 선명한 글자는 대개가 가필되어 있다. <사진 6>에서 보듯이, 가필을 하다가 먹물이 흘러 원문이 글자 판독이 어렵게 변형된 부분도 이따금 확인된다. <사진 7>에서 보듯이, 광곽의 마모 상태로 볼 때에도 반야사본이 삼성본 보다 초기에 인출된 초쇄본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진 5>



<사진 6>



<사진 7>

6) 대구 반야사 소장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의 지정 가치

<4) 대구 반야사 소장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의 상태>와 <5)

이미 지정된 보물과의 비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구 반야사 소장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3] : 일반동산문화재 해당기준> 가운데 <공통기준의 2) 문화재의 상태 : 원래의 형태와 구성요소를 갖추어 유물의 상태가 양호할 것>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서울 삼성출판박물관 소장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와 양산 공인박물관 소장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와 동등한 등급인 국가문화재 보물로 지정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 ○ 문헌자료

반야사 소장 『南明泉和尚頌證道歌』

삼성출판박물관 소장 『南明泉和尚頌證道歌』

공인박물관 소장 『南明泉和尚頌證道歌』(사진)

무비스님 강설. 『무비스님의 증도가 강의』. 서울: (주)조계종출판사, 2014.

성재현 역. 『남명천화상송증도가사실』.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8, 책소개,

<<http://www.yes24.com/Product/Goods/58958498?OzSrank=17>>.

송정숙. “최영호 교수의 <『南明泉和尚頌證道歌』에 나타난 刻手와 그 의미>에 대한 토론문”. <문화재청·한국서지학회 공동학술회의, 고려-조선 금속활자 판본 검토> 자료집.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 2020.11.27., pp. 172-175.

千惠鳳. 高麗鑄字版 重彫本 南明泉和尚頌證道歌 解說書, 삼성출판사 부설 삼성출판박물관, 1990

崔永好. 『南明泉和尚頌證道歌』에 나타난 刻手와 그 의미. <문화재청·한국서지학회 공동학술회의, 고려-조선 금속활자 판본 검토> 자료집.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 2020.11.27. pp. 165-177.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1234%EB%85%84>>

□

: 구결

### 1. 우측 기입토와 좌측 기입토

일반적으로 우측 기입토가 좌측 기입토보다 고품을 보여 준다

(1) 가. 取眞理/ㄴㄱ ㄴㄱ [ㄴㅅㅅ]/ㅎ느니 [眞理를 取ㅎ느니] <21쪽>

나. 痕垢/ㄴ/ㄹ 盡除/ㄴㅅ+ㄱ/ㅎ면 光始現/ㄴㅅㄱ ㄴㄱ [ㄴㅅㅅ]/ㅎ느니 [허물

와 떡와를 다 덜면 비치 비르서 난느니] <30쪽>

자료의 우측에 기입된 토는 (1)에서 표식없이 표시한 것이고, 좌측에 기입된 토는 [ ]로 표시하였다. 좌측에 기입된 토 대체적으로 언해의 토와 유사하나, 우측에 기입된 토는 언해의 토와는 다른 계통의 토를 보여 준다.

(1가)와 (1나)의 ‘ㄱ ㅅ ㅅ’은 ‘ㄴ/관형형어미+ㄷ/의존명사+아/처격 조사+ㄴ/주제보조사’을 나타내는 ‘ㄴ단’ 정도를 표기한 것으로 이러한 토는 언해의 토에서 볼 수 없는 것으로 언해보다는 고행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좌측에 기입된 토가 우측에 기입된 토보다도 고행의 모습을 경우도 간혹 있다.

(2) 가. 淨五眼/ㄴㅏ(久)[ㄴㅏ+ㄱ]/ㅎ면 異還同/ㄴㅏ/이니 [五眼이 조ㅎ면 달오미 도르혀 ㅎ 가지니] <8쪽>

나. 道卽心藏無價珍/ㄴㅏㅏ[ㄴㅏㅏ]/ㅎ니 [道는 므스매 값 업슨 구스를 갈맷 느니] <10쪽>

(2가)의 ‘淨五眼/ㄴㅏ’에서 ㅏ의 우측 하단에 점획이 있어 ‘ㅏ’으로 판독하기가 어렵다. 또 ‘久’로 판독하기도 어렵다. 우측 필획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 긋는 점획이 없기 때문이다. 문맥에 의지하면 ‘淨五眼’에 기입된 토는 ‘ㅎ면’을 표기한 ‘ㄴㅏ’으로 판독할 수 있다. 그런데 좌측에 기입된 토는 ‘ㄴㅏ+ㄱ’이 기입되어 있어 더 고행의 토를 보여 주고 있다. ‘ㄴㅏ+ㄱ’은 ‘흔여기는’ 정도를 표기한 것으로 처격 조사와 주제 보조사로 ‘조건’ 의미를 표현한 형태로 조건 어미 ‘-면’이 발달하기 전의 조건 의미 표시 방법 중의 하나이다.

(2나)에서 우측에 기입된 토 ‘ㄴㅏㅏ’에서 ‘ㄴ’은 목적어 無價珍에 기입되는 토로 이러한 방식의 토 기입 방식은 고려 시대 석독 구결의 전통을 일부 유지하는 것으로 고행의 모습을 보여 준 것이다. ‘道卽心藏無價珍/ㄴㅏㅏ’에서는 내포된 목적어에 부착되는 ‘ㄴ’이 기입되지 않은 것은 ‘道卽心藏無價珍/ㄴㅏㅏ’가 음독 구결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 2. 기입된 구결토 - 다른 자료의 구결토 옮겨 적기 가능성

- 반야사 소장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의 구결토는 다른 자료의 것을 옮겨서 기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1) 서술격 조사 ‘-이-’는 구결자로 ‘ㅍ’로 표기하고 동사 ‘ㅎ-’는 ‘ㅏ’로 표기한다. 이 자료에서도 일부에서는 ‘ㅍ’와 ‘ㅏ’가 구분되어 기입되어 있지만 ‘ㅏ’를 ‘ㅍ’로 기입한 경우가 이 자료의 많은 부분에서 발견된다.

2) ‘-이리오’를 표기하는 데에 다음과 같이 다양한 글자를 사용하였다. 모두 우측에 기입된 토들이다.

(3) 豈解重爲鑿/ㄴ 里五/이리오 [41쪽], 有何益/ㄴ 禾 午/이리오 [34쪽], 豈虛妄/ㄴ 禾 午/이리오 [21쪽], 如何不礙人/ㄴ 禾 五/이리오 [19쪽]

‘-이리오’의 ‘이’를 표기하는 데에 ‘ㄴ, ㄴ’, ‘리’를 표기하는 데에 ‘禾, 里’, ‘오’를 표기하는 데에 ‘五, 午’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표기 체계가 단일하지 못함을 말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자료의 구결토는 여러 자료에 기입된 구결토를 종합하여 기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3) 2항의 견지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도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오류가 유발된 것으로 파악된다.

(4) 相取/ㄴ 3 心修/[점 부호 표시]하면 達/ㄴ 7 大[오류]/者 | 嗤/ㄴ 禾 5/호리라  
[相을 取호야 ㅁ슴 닷7면 안 사르미 우스리라] <42쪽>

(5) 何如塗毒一聲鼓/[점 부호 표시]/에 臥 3 [오류]聽行聞/ㄴ ㅍ/이 盡悄然/ㄴ 禾 午/  
이리오 [毒 ㅁ튼 호 소릿 부페 누워서 드르며 듣니며 드르니 다 ㄴㄴ호미  
엇데 곧호리오] <37쪽>

(6) 對此/[권점 부호 표시]ㄴ 3 /호야 翻憐遠遊子/ㄴ/의 [이를 對호야서 머리 노  
닐 아드리] <4쪽>

(4)에서 ㄴ 7 大는 心修 뒤의 위치에 기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오류를 ‘점 부호’로 표시하고 있다. (5)에서 臥 3 의 ‘3’는 何如塗毒一聲鼓 뒤의 위치에 기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오류를 ‘점 부호’로 표시하고 있다. (6)에서 對此/ㄴ 3 의 ㄴ 3 는 난 외에 기입되어 있다. 이러한 오류를 권점 부호로 표시하고 있다.

위 (4)-(6)에 보인 구결토 기입 위치 오류는 이 자료에 기입된 구결토들이 다른 자료의 것을 옮겨 적어 넣었을 가능성을 약하게나마 시사해 준다.

### 3. 우측 기입토의 고형적 특징

1) 우측 기입토에는 언해 자료의 토보다는 고형의 모습을 보여 주는 특징이 발견된다.

## 2) 조건 의미 표현의 다양한 구결토

언해 자료의 조건 의미 표현 ‘흐면’에 대응되는 표현이 이 자료에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7) 가. 勢力盡/ㄴㅇ+ㄱ/흐면 漸傾歛/ㄴㅇㅈㅈ/흐느니 [히미 다투면 漸漸 기우느니]  
 <17쪽>

나. 有眼/ㄴㅇㄱㄱ/흐면 不能窺髣髴/ㄴㅇㅈㅈ/이어니와 [눈 이시면 이셔지 옆  
 음도 能히 못흐려니와] <18쪽>

다. 若入荒田/ㄴㅇㅈ/흐야 隨手得/牛ㄱㄴ/흐면 不勞移步/ㄴㅇㅈ/흐야 便還家/ㄴㅇㅈㅈ/흐리라 [흐다가 기슨 바티 드러 소늘 조차 得흐면 잇비 거름 옮기디  
 아니흐야 곧 지비 도라가리라] <21쪽>

라. 若見觀音眞住處/火ㄱㄴ/흐면 [흐다가 觀音ㅈ 眞實 住흔 고들 보면]  
 <19쪽>

마. 若於自性에 絶追求/ㄴㅇㅈㄱ/흐면 萬種名言/ㅈ/이 非實義/ㄴㅇㅈㅈ/리라 [흐다  
 가 自性에 求호미 그즈면 萬 가짓 일흠과 말슴과 實흔 쁘디 아니리라]  
 <10쪽>

바. 心若無生/ㄴㅇㅈ/흐면 法自滅/ㄴㅇㅈㅈ/흐리라 [ㅁ스미 흐다가 나디 아니흐면  
 法이 제 滅흐리라] <36쪽>

(7마) ‘ㄴㅇㅈㄱ/흐면’과 (7바) ‘ㄴㅇㅈ/흐면’은 언해의 토와 일치하는 표기이지만 (7가)에서부터 (7마)까지 다양한 토가 ‘조건’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7다)와 (7라)의 ‘ㄴㅇ+ㄱ/흐면’, ‘ㄴㅇㅈㅈ/흐면’ 등은 처격 조사와 주제의 보조사 의미 결합으로 ‘조건’ 의미를 표현한 것이며, (7다)와 (7라)의 ‘牛ㄱㄴ/흐며’, ‘火ㄱㅈ/흐야’ 등은 ‘한정’의 의미를 가지는 보조사 ‘牛ㄱ/흐, 火ㄱ/흐’ 등으로 ‘조건’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ㄴㅇ+ㄱ/흐면’, ‘ㄴㅇㅈㅈ/흐면’ 등과 같이 처격 조사와 주제의 보조사 의미 결합으로 ‘조건’ 의미를 표현한 것은 종래의 능엄경 음독 국결 자료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나 ‘한정’의 의미를 가지는 보조사 ‘牛ㄱ/흐, 火ㄱ/흐’ 등으로 ‘조건’ 의미를 표현한 것은 이 자료에서만 찾을 수 있는 특징이다.

‘조건’ 의미를 나타내는 언해토 ‘흐면’ 대신에 이 자료가 (7)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조건’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이 자료가 언해보다는 고행의 구결토의 특징을 보여준 것으로 생각된다.



### 3) 목적어의 격조사 표기 구결토

‘-ㄴ-’에서 ‘ㄴ’은 목적격 조사 ‘을’은 표기한 것인데 언해 자료 토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의 목적격 조사 ‘-을’에 토에 드러나지 않는다.

- (8) 가. 歷盡僧祇三大劫/ㄴ-히/히니 [僧祇 세 大劫을 디내야 다오니] <25쪽>  
나. 早曾落却天魔膽/ㄴ-히스[ㄴ-히]/히시니 [일즉 天魔의 애를 떠러 버리시니]  
<23쪽>

(8가)의 ‘ㄴ-히’에서 ‘ㄴ’은 목적어 三大劫에 부착되는 격조사 ‘을’을 표기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8나)의 ‘ㄴ-히스’에서 ‘ㄴ’은 목적어 ‘애’에 부착되는 격조사 ‘를’을 표기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격 조사 표기의 ‘ㄴ’은 언해 자료의 토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고려 시대 석독구결 자료에서 나타나는 것과 일치된다.

### 4) 구결토 기입의 상세성

이 자료의 경우 언해 자료의 토보다는 상세한 단위까지 토를 기입하려는 경향이 많이 보인다.

- (9) 가. 從來/...眞僞/ㄱ 豈相干/ㄴ 耒卍이리오 [네브터 오매 眞과 僞왜 엇데 서르 干涉히리오] <27쪽>  
나. 一滴/ㄴ/이 能令萬病/...消/ㄴ-히스/히느니라 [一滴이 能히 萬病을 슬에 히느니라] <11쪽>

(9가)의 ‘從來/...’와 (9나)의 ‘能令萬病/...’에는 토가 기입되어 있으나 언해 자료에서는 토가 기입되어 있지 않다. (9)처럼 이 자료는 상세한 단위까지 자세하게 토를 기입하려는 경향이 언해 자료보다는 우세하다. 이러한 경향은 고려 시대 석독구결 자료의 유습을 반영한 것이라 파악할 수 있다.

### 5) 빈번한 ‘ㄱ 丁’의 사용

‘ㄱ 丁’은 ‘-ㄴ더’ 정도를 표기한 것이다. 15세기 언해 자료에서 ‘-ㄴ더’ 표현이 흔치는 않지만 간혹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에서는 ‘ㄱ 丁’의 기입토가 15세기 언해 자료보다는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10) 가. 鷓鴣啼/ㄴㄷ/호노라 [鷓鴣 우루물 못 즐기노라] <4쪽>

나. 悲哉/스不悟昔人言/ㄴㄷ/호논더 [슬프다 넷 사르미 마를 아디 못호논  
더] <30쪽>

(10나)는 ‘ㄴㄷ’가 ‘-ㄴ더’에 대응한 것이지만 (10가)는 ‘-노라’로 교체되어 있다. 이것은 ‘ㄴ더’의 표현이 고품격을 말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언해보다는 ‘ㄴㄷ/ㄴ  
더’를 더 많이 사용하는 이 자료는 고품격의 구결토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 6) 주어적 속격의 높은 빈도

이 자료는 주어적 속격의 빈도가 언해보다는 다소 높다

(11) 가. 還似龍王/ㄹ/이 降雨初/ㄴㄷ/호도다 [龍王의 비 느리올 처섬과 쏘 곧도다] <10쪽>

나. 看取虛空/ㄹ/이 滿目前/ㄴ/호라 [虛空이 눈 알퐁 ㄹ독호물 보라] <6쪽>

다. 嗟爾/스今人/ㄹ/은 苦自欺/ㄴ/호야 [슬프다 너희 이제 사르민 곱로이 제 소개] <14쪽>

(11가)의 ‘ㄹ/이’는 소위 주어적 속격으로 불리는 것으로 인해 자료의 시기인 15세  
기에는 이 주어적 속격이 현대국어보다는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주어적  
속격은 현대국어에 이르러 자취를 거의 감추게 되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언해 자  
료보다 주어적 속격의 사용 빈도가 높다. (11나)와 (11다)가 그 증거가 된다.

□

: 구결

### ○ 내용 및 특징

1. 현재 있는 『南明泉和尚頌證道歌』 자료 중에서는 가장 고품격을 반영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다만 ‘-며’의 표기로 보면, 상한선은 14세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이제까지 알려져 있지 않았던 토가 발견되었다. ‘若遇眞知識 # ㄴㄷ (옳호  
며)’(35ㄱ:7)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토로 언해의 ‘호면’에 대응한다. 문맥으로  
보면 ‘若’과 호응하고 있다. 문법사적으로 볼 때, 흥미로운 토라고 할 수 있다. ‘#  
ㄴㄷ’는 ‘了得修行 # ㄴㄷ’(21ㄴ:8)에서도 발견된다.

둘째,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구결토가 많이 발견된다. 자주 등장  
하는 ‘ㄴㄷ+ㄱ (호여권)’은 언해의 ‘호면’에 대응되는 토로 ‘ㄴㄷ+ㄱ (호여권)’(3  
ㄱ:8)(3ㄴ:8)에서 ‘ㄱ’이 생략 표기된 것이다. 고려시대의 문법을 반영하는 구결토  
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고품격을 반영하는 예로는 ‘ㄴㄷ-(을호)’(8ㄴ:3)(25

ㄴ:3)(25ㄴ:6) ‘火ㄴ 3 (벗 혀야)’(19ㄱ:7), ‘ㄴ久 考(혀며히)’(3ㄴ:3), ‘ㄴ ㄱ 火 七(혀리바 久)’(10ㄴ:8) 등이 있다.

셋째, 연결어미 ‘며’의 표기로 보아서는 상한선이 14세기일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며’의 표기는 크게 ‘ㅍ’와 ‘久’의 두 가지가 있는바, ‘ㅍ’가 고품으로 14세기부터 ‘久’로 대체되었다. 이 자료에는 ①‘ㅍ’(3ㄱ:2), ②‘ㅍ’와 ‘久’의 중간 정도 자체(13ㄴ:6), ③‘久’가 다양하게 표기되고 있다. ①보다는 ②, ③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의 표기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고품인 ‘ㄱ’과 신형인 ‘ㄴ’이 모두 나타나고 있는데, ‘ㄱ’이 많기는 하지만 ‘ㄴ’도 적지 않게 쓰인다.

2. 우토와 좌토가 각각 기입되어 있는데 우토와 좌토를 기입한 사람이 같을 가능성이 있다.

첫째, 우토와 좌토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최소 두 명의 필사자가 있었다는 명확한 근거는 되지 않는다. 우토와 좌토는 각각 다른 사람이 기입했을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 기입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 연구자의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원래의 중도가 구절에 우토와 좌토가 동시에 기입되어 있는데 우토는 종결형 중심으로 좌토는 연결형 중심으로 기입이 되어 있다. 우토와 좌토의 관계가 보완적이면서도 유기적이다. 원래 중도가 부분에는 종결형 중심으로 우토를 달고, 뒤에 이어 나오는 남명계송과의 내용적 연결이 필요한 부분에는 연결형 중심으로 좌토를 달고 있다. 이처럼 양쪽의 토가 보완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토의 기입이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3. 토는 비교적 고품이지만 토의 기입은 후대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첫째, 좌토는 언해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연결어미가 언해와 완전히 또는 일부 겹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언해에서 ‘-니’가 나오는 곳에는 ‘-ㄴ’나 ‘-ㄴ’을 포함한 어떤 구결연결 연결체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둘째, 이전 시기의 구결토를 전사하는 과정에서 생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오기가 많이 보인다. 특히 ‘ㄴ(혀)’를 ‘ㄱ(이)’처럼 쓰거나 ‘ㄱ’을 ‘ㄴ’처럼 쓴 예가 많이 보인다. 결정적인 예로는 ‘ㄱ 4 1(이두다)’(9ㄴ:5)(9ㄴ:6)(18ㄴ:6)(20ㄱ:7)와 ‘ㄴ 又 1’(8ㄱ:4)가 있다. 중세국어에서 감동법 선어말어미가 계사 ‘이-’ 뒤에서는 ‘-로-’, 동사 ‘혀-’ 뒤에서는 ‘-도-’로 실현된다. 따라서 중세국어에서 ‘ㄴ 4 1(하두다)’나 ‘ㄱ 又 1(이로다)’는 가능하지만 ‘ㄱ 4 1’나 ‘ㄴ 又 1’은 가능하지 않다. 또한 ‘3’을 ‘ㄴ’로 오기한 예가 보인다. ‘光乙 ㄴ 7(5ㄱ:7) → 光乙 3 7(을안)’, ‘後 ㄴ 7(5ㄴ:2) → 後 3 7(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오기들은 후대에 전사하는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

성이 크다.

셋째, 대체로 고행의 구결을 보여 주면서도 주제의 보조사에 대한 표기로 ‘ㄷ (는)’이 많이 보이는 점이 특이하다. ‘ㄷ’이 보조사와 관련된 표기로 쓰이는 경우에는 원래 ‘ㄴ’ 말음첨기와 ‘은/은’은 결합을 표기하는 데서 쓰이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는 주제 보조사의 이형태 ‘는/는’을 표기하는 데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예는 (5ㄱ:7), (7ㄴ:2), (14ㄱ:2), (18ㄴ:8), (21ㄱ:5), (22ㄱ:7)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주제 보조사의 이형태 ‘는/는’의 표기로서 ‘ㄷ’이 이처럼 활발하게 쓰인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은 우리의 관심을 끈다. 이는 토의 기입이 비교적 후대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주제 보조사의 이형태 ‘는/는’의 표기로서 자주 사용되는 ‘ㄷ’은 시기를 15세기 이전으로 올려 잡는 데 부담이 된다.

### 13. 박동량 전별첩(朴東亮 餞別帖)

#### 가. 검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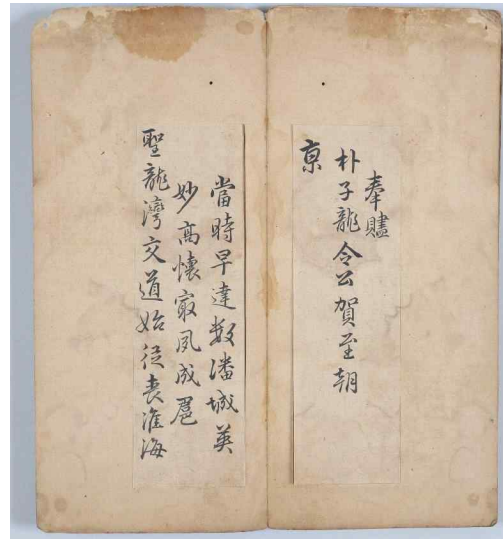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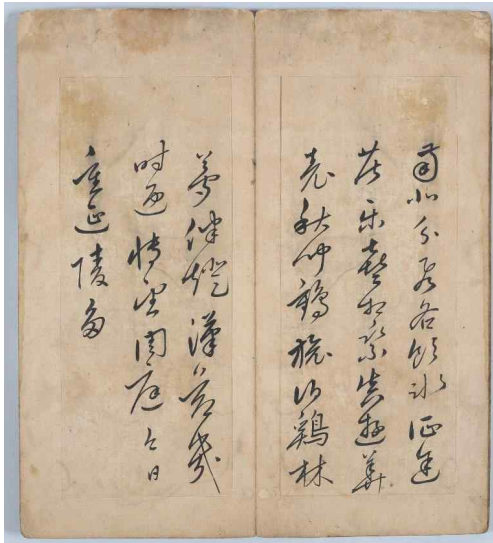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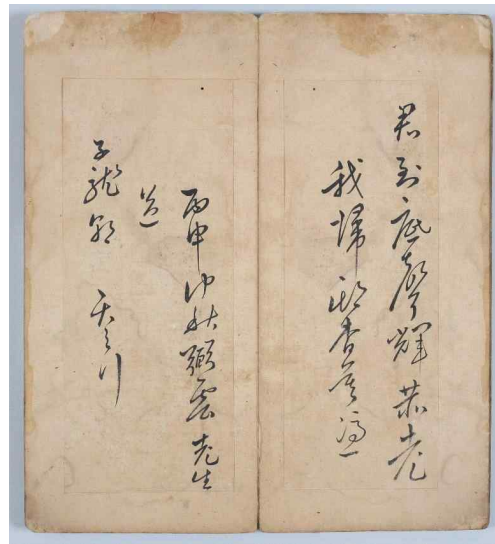
‘박동량 전별첩’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부터 ‘박동량 전별첩’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6.12.26/'19.5.22.)이 있어, 관계 전문가 조사('21.2.23.)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 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박동량 전별첩(朴東亮 餞別帖)
- 소유자(관리자) : 박만춘(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 수 량 : 1첩
- 규 격 : 전체 34.5×15.3cm
- 재 질 : 종이에 금니(金泥), 먹
- 형 식 : 선풍엽(旋風葉)
- 조성연대 : 1596년(선조 29)
- 제작자 : 최립(崔崐), 이항복(李恒福) 추정



<박동량 전별첩>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미흡)

«박동량전별첩» 중 최립의 글은 전체의 59%이고 앞부분의 41%는 탈락하였으며, 작가 미상의 전별시 또한 뒷부분이 탈락하여 전체의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이후 표제와 장황을 갖춘 앞부분과 뒷부분이 발견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완전한 상태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서예의 수준은 최립의 금니 서사는 뛰어나지만, 이항복과 작가 미상은 그리 뛰어나지 않은 편이다. 내용과 서체 분석을 통해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의 ‘박동량전별첩(朴東亮餞別帖)’은 역사적·학술적·예술적·독창적·희귀성 등에 하나도 부합하는 것이 없다. 이러한 사유로 국가지정

문화재(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미흡)

첫째, 형식적인 면이다. 첩의 구성과 전체적인 모습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崔嵬의 『簡易集』 卷3, 「送朴僉樞子龍奉使赴京師詩序」에 시가 실려 있어 다행히 내용을 알 수는 있지만, 첩 앞부분 금니의 글씨는 박탈된 것이 많아 판독 자체에도 어려움이 많다. 또 금니를 전반부에, 목서를 후반부에 쓴 첩의 조합도 첩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에는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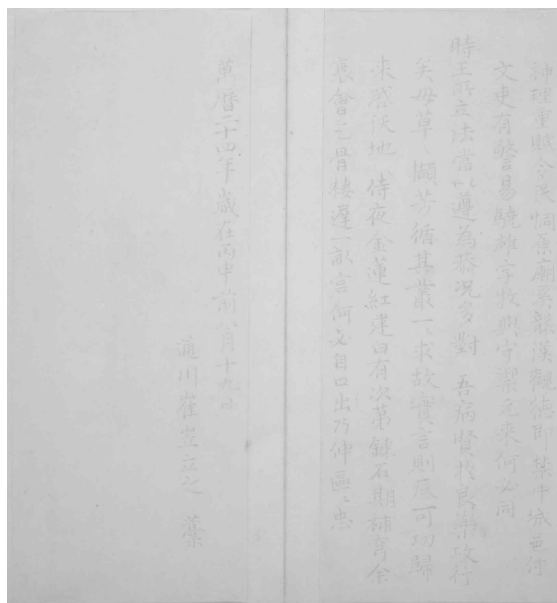


그림 1. 박동량 진별첩 5, 6면, 1598 찬  
(적외선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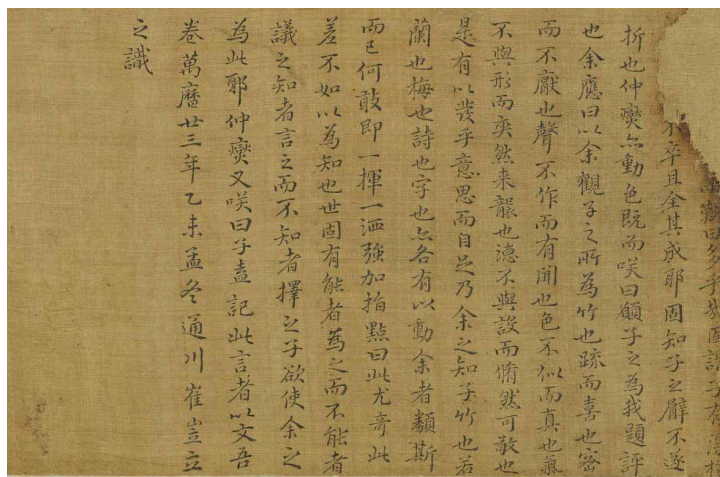


그림 2. 이정익의 <삼청첩>에 실린 최립의 서문, 1594, 비단에 먹, 25.5×39.3cm, 간송미술관 소장

둘째 서예사적 면이다. 첩의 금니 해서(그림 1)를 1594년 이정李霆의 <三清帖>에 실린 최립의 서문 해서(그림 2)와 비교해 보면 결국나 운필에서 동일인의 글씨라 볼 만한 부분들이 거의 없다. 먹과는 금니라는 특성을 고려해 보더라도 필획의 서사 습관에서 공통이 보이지 않는다. 금니의 글씨는 그 자체로는 단아하고 절제미가 있지만 이런 정도의 글씨는 19세기 당시 사경승은 물론 글씨에 출중한 사람들도 능히 구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첩의 5, 6면인 그림 1의 마지막 2행인 “萬曆二十四年歲在丙申前八月十九日」通川崔岄立之藁”은 최립의 문집에는 실려 있지 않다. 서자가 임의로 1596년 최립이 지은 글임을 알리기 위해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 첩은 보물이 되기에는 형식과 내용이 특별하지 않고 서자가 최립이라는 근거가 부족하여 서예사적 가치도 없어 보인다.

### ○ (지정 가치 미흡)

‘박동량 전별첩(朴東亮餞別帖)’은 최립과 박동량의 교유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서는 가치가 있다. 첩에 수록된 최립의 글씨로 전해오는 금니필적과 백사 이항복의 행초서 또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 다만 아래의 이유에서 보물로서의 지정은 불가하다는 의견이다.

1. 금니로 서사된 최립의 시는 최립의 친필로 판정할 수 없다. 이유인 즉, 최립의 필체와 유사성은 높은 편이나, 최립의 기존 필사본에 나타난 필습(筆習)과 이서첩의 필습에서는 동일인으로 간주할 수 없는 필습의 차이가 드러난다. 아울러 마지막 2행인 “萬曆二十四年歲在丙申前八月十九日」通川崔岄立之藁”은 최립의 문집에는 실려 있지 않는데, 서자가 임의로 1596년 최립이 지은 글임을 알리기 위해 추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최립의 시는 확실하나 최립의 시를 사자관의 서격에 해당하는 능서(能書)자가 금니로 후에 서서한 것으로 추정된다.
2. 현전하는 첩에는 최립의 전별시 과반수가 누락되어 보존성과 완전성이 떨어진 다. 최립의 시는 모두 1,097자인데 이 중에서 460자는 첩에서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박남박씨 집안에 전해오는 필사자료들을 집안 후손들이 첩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첩장형태나 배접 등 보존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데다 결락된 자국도 보여 전체적으로 완전한 첩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3. 최립과 박동량의 교유관계를 입증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문화재적·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부족하다.



○ (지정 가치 미흡)

«박동량 전별첩»은 최립·이항복·필자미상이 박동량을 전별하며 써준 필적이다. 마지막의 필자미상의 글씨는 글씨를 쓴 이가 누구인지 몰라 필적을 비교할 수 없지만, 최립과 이항복의 필적은 위에서 검토했듯이 본인이 직접 써준 필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박동량과 최립·이항복·이덕형과의 교유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도 높다. 다만 최립의 글씨 앞부분과 필자미상의 글씨 뒷부분이 탈락되어 있다는 점은 문화재적 가치로 볼 때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이 점이 구비되어 있다면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자료적 가치도 충분하리라 본다. 결론적으로 <박동량 전별첩>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시·도지정문화재로 검토할만한 가치는 있다고 사료된다.

마. 의결사항

○ 부 결

조사보고서

□

○ 현 상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의 ‘박동량전별첩(朴東亮餞別帖)’은 표제가 없는 앞뒤 표지와 12면으로 구성된 첩장본이다. 이는 1596년(선조 29) 박동량(朴東亮, 1569-1635)이 동지사(冬至使)가 되어 연경에 갈 때 최립(崔崐, 1539-1612)·이항복(李恒福, 1556-1618)과 작가 미상이 지어준 것을 모아 하나의 첩장본으로 꾸민 전별시첩(餞別詩帖)이다. 최립은 제1~6면에 붉은색을 칠한 바탕 위에 해서체를 금니(金泥)로 썼는데, 탈색으로 희미해져서 식별하기가 어렵다. 이항복은 행초서로 제7~10면, 작가 미상은 해행서로 제11~12면에 썼는데, 모두 먹색이 분명하여 식별할 수 있다. 크기는 표제가 없는 앞뒤 표지가 34.5×15.3cm이고, 내면의 크기는 도판에서 표시한 것과 같다. 현상은 표제가 없고 앞뒤 부분이 탈락한 것으로 보이며, 면이 겹친 부분은 헤어져서 안에 숫자와 글자들을 쓴 것이 보이는데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 보존 상태는 내면의 윗부분에서 물이 스며들어 얼룩진 곳이 보이고, 면이 겹친 곳은 너덜너덜하여 시급한 보수가 필요하다.

최립의 글은 『간이집(簡易集)』 권3 「송박첨추자룡봉사부경사시서(送朴僉樞子龍奉

使赴京師詩序)」에 실려 있는데, 원문과 번역문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운영하는 한국고전종합DB를 참고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전문은 모두 1,097자인데 이 중에서 앞부분 41%에 해당하는 460자는 탈락하여 보이지 않는다. 이항복의 전별시는 『백사집(白沙集)』 권1 「서울에 들어온 지 몇 개월 만에 다시 남방에서 책사를 맞으러 가게 되었는데, 당시 박동량(자는 子龍)이 연경에 가므로 시를 지어 전별로 삼았다 [入京數月將復迎冊使于南方時朴子龍赴京以詩爲別]」에 실려 있는데, 원문과 번역문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운영하는 한국고전종합DB를 참고할 수 있다. 작가 미상의 전별시 제목은 「박동량(자는 子龍)이 하례하러 연경에 가는 것을 받들어 전송하다 [奉驢朴子龍令公賀至朝京].」이고, 칠언율시일 것 같으나 뒷부분이 탈락하여 전체 내용은 자세하지 않다. 제작연대는 제6면 끝부분에 ‘萬曆二十四年歲在丙申前八月十九’와 제10면의 ‘丙申仲秋’라고 쓴 것을 근거하여 1596년(선조 29)임을 알 수 있다. 12면의 구성과 석문(釋文)은 다음과 같다.

제1~2면 :

之源委品藻，令人疏視而淪聽，鑿心而飫志，不暇自省/  
 其中之何有，而徒日覺新得者焉，亦不暇自識其身之/  
 何如，而徒疑與異世者接焉，固嘗謂學然後知不足，而不/  
 謂其觀然後知不足一至此也，爲可愧耶，爲可樂耶，因/  
 是觀也，而又反之學，將必眼目益大，心胸益寬，而氣象益有/  
 所養，推之事業，益可以有爲，余知公之進於足也沛然矣，公/

今少於顏回聞一知十之年，而期以夫子從心所欲之境，余又/  
 未卜其進果何至而爲足也，古人曰，行百里者，半九十里，夫行/  
 者，有十里而止者焉，有數十里而止者焉，則九十里非固近/  
 也，而謂之半焉者，以所期者百里也，以公之年力有餘，尙不/  
 欲百里自期也耶，譬公今日所登之程，往亦三千二百里，還亦/  
 三千二百里，卽不盡一里，非足也，夫旣可以足矣，而望公以國/

제3~4면 :

人，不以中國之人，且不以古人之，則是拘河拘海之說，而非知/  
 道之見也，非進道之規也，余爲公固異是矣，勉乎哉，如曰/

若嘗亦觀周，不一而足，其進幾何云爾則不然，余固貴/  
公之年力矣，余之初役，已幾四十無聞之時，況後此則又/  
衰矣，惡能有得而進焉乎，然亦私自點檢，四赴而四知不/  
足矣，然公非余倫也，其於收一者，不啻優於四矣，勉乎/

哉，言既，復爲詩，有所屬焉，詩曰，/  
皇朝治道隆，侔擬維吾東，以余飽觀光，千里無異風，尙/  
有三四事，可恨類不充，上欲告我后，下欲言三公，自疑/  
所見左，亦患進塗窮，公行爲相屬，重公敏而聰，且值/  
中興政，因革方折衷，覃思耳目際，倘記余言蒙，所急在/  
人材，畦畛宜疏通，財粟窄流行，何不錢其銅，瀆祭爽/

제5~6면 :

神理，重賦今民恫，原廟奚襲漢，觀德卽禁中，城邑付/  
文吏，有警易驍雄，字牧與守禦，元來何必同，/  
時王所立法，當以遵爲恭，況多對吾病，賢於良藥攻，行/  
矣毋草草，擷芳循其叢，一一求故實，言則底可功，歸/  
來啓沃地，侍夜金蓮紅，建白有次第，鍊石期補穹，余/  
衰會乞骨，棲遲一畝宮，何必自口出，乃伸區區忠，/

萬曆二十四年歲在丙申前八月十九日/

通川崔豈立之藁

제7~8면 :

南北分飛各飲冰，征途/  
苦樂喜相乘，眞遊華/  
表秋聞鶴，旅泊雞林/

夢伴燈，漢節幾/

時迎博望，周庭今日/

重延陵，多/

제9~10면 :

君到底聲輝赫，老/  
我歸期杳莫憑./

丙申仲秋弼雲老生/  
送子龍朝天之行./



古人之



於收一

제11~12면 :

奉贐朴子龍令公賀至朝京

當時早達數潘城，英/  
妙高懷寂夙成，扈/  
聖龍灣交道始，從喪淮海

이상에서 붉은색으로 표시한 제2면 5행의 ‘欲’은 『간이집』에 ‘肯’이라 하였다. 제 3면 1행의 ‘古人之’와 6행의 ‘於收一’이라 쓴 것은 『간이집』에 ‘古之人’·‘收於一’이라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之·於’자에 각각 위의 글자와 바꾸기 표기를 하여 바로 잡았다. 제6면에 2행으로 쓴 ‘萬曆二十四年歲在丙申前八月十九日通川崔岵立之藁’는 『간이집』에 보이지 않는다.

### ○ 내용 및 특징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의 ‘박동량전별첩(朴東亮餞別帖)’은 수신자와 이를 쓴 작가, 그리고 내용·서체 세 가지로 나누어 요점만 간단히 살펴보겠다.

#### 1. 작가

‘박동량전별첩’의 수신자 박동량(朴東亮, 1569-1635)은 자가 자룡(子龍)이고 호는 기재(寄齋)·오창(梧窓)·봉주(鳳洲)이다. 본관은 반남(潘南)이고 부친은 대사헌

박응복(朴應福, 1530-1598)이며 모친은 임구령(林九齡, 1501-1562)의 딸 선산임씨(善山林氏)이다. 1589년(선조 22) 진사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부정사가 된 이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병조좌랑으로 왕을 따라 의주로 갈 때 중국어에 뛰어나 대명외교에 공을 세웠다. 1596년 이조참판으로 동지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경기도관찰사·강원도관찰사·호조판서·판의금부사를 지냈고, 선조로부터 영창대군을 부탁받은 유교 7신의 한 사람으로 대북파의 탄핵을 자주 받았다.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부안에 유배되었다가 1632년(인조 10) 풀려났다. 1635년 좌의정에 추증되었다. 저서는 『기재사초(寄齋史草)』·『기재잡기(寄齋雜記)』·『방일유고(放逸遺稿)』 등이 있고,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박동량전별첩’ 글을 지은 최립(崔崱, 1539-1612)은 자가 입지(立之)이고 호는 간이(簡易)·동고(東皐)이며, 본관은 통천(通川)이고 부친은 진사 최자양(崔自陽, 생몰 미상)이며, 모친은 무송윤씨(茂松尹氏)이다. 1555년(명종 10) 진사시에 합격하고 1561년 식년문과에 장원급제하였다. 1577년(선조 10)·1581년·1593년에는 주청사 질정관, 1594년에는 주청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벼슬은 판결사·동지중추부사·강릉부사·형조참판 등을 역임하였고, 광해군 즉위 후 대북정권이 등장하자 은퇴하여 평양에 은거하였다. 율곡 이이의 문인이고, 송시열의 부친은 그의 문인이었다. 최립은 『동의보감』을 지은 허준과 명필 한호와 절친한 사이였고, 서예에 뛰어나 송설체(松雪體)에 일가를 이루었다. 그의 글은 차천로의 시, 한호의 글씨와 함께 송도삼절(松都三絶)이라 일컬었다. 저서는 『간이집(簡易集)』·『십가근체시(十家近體詩)』·『한사열전(漢史列傳)』 등이 있다.

‘박동량전별첩’ 시를 지은 이항복(李恒福, 1556-1618)은 자가 자상(子常)이고 호는 필운(弼雲)·백사(白沙)·동강(東岡)이며,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부친은 참찬 이몽량(李夢亮, 1499-1564)이며 모친은 경성현감 최륜(崔崙, 생몰 미상)의 딸 전주최씨(全州崔氏)이다. 오성대감으로 널리 알려졌고 1575년(선조 8) 진사 초시에 오른 뒤 1580년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부정사가 되었으며, 1589년 예조정랑 때 발생한 역모사건에 문사낭청(問事郎廳)으로 친국에 참여하여 선조의 두터운 신임을 얻었다. 이듬해 호조참의가 되어 정여립의 모반사건을 처리한 공로로 평난공신(平難功臣) 3등에 녹훈되었다. 이후 병조판서·이조판서와 홍문관·예문관 대제학 등 여러 요직을 거치면서 안으로는 국사에 힘쓰고 밖으로는 명나라 사정의 접대를 전담하였다. 1600년 영의정 겸 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사·세자사에 임명되었고, 이듬해 호종일등공신에 녹훈되었다. 1617년 인목대비를 폐위하여 평

민으로 만들자는 주장에 맞서 싸우다가 이듬해 삭탈관직을 당하고 복청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었다. 저서는 『사례훈몽(四禮訓蒙)』 · 『주소계의(奏疏啓議)』 · 『노사영언(魯史零言)』 등이 있고,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 2. 내용

‘박동량전별첩’의 내용은 최립 · 이항복 · 작가 미상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최립의 글은 『간이집(簡易集)』 권3의 「송박침추자룡봉사부경사시서(送朴僉樞子龍奉使赴京師詩序)」에 실려 있는데, 원문과 번역문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운영하는 한국고전종합DB를 참고할 수 있다. 제6면의 낙관 부분을 제외한 전문 1,097자에서 59%에 해당하는 637자는 제1~5면에 각각 131 · 142 · 132 · 115 · 117자씩 썼다. 이를 보면, 한 면에 평균 127.4자를 썼으니 탈락한 앞부분의 460자는 4면에 썼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문은 서문과 전별시로 구성되었고, 서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분은 『장자』의 「추수(秋水)」편을 인용하여 제대로 도(道)를 체득하면 무궁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 부분은 중국에서 보게 될 크고 넓으며 다양한 문예 방면의 여러 가지를 소개하면서 “배운 뒤에야 부족함을 안다[學然後知不足].”라는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그런 다음 당시 28세였던 박동량에게 “백 리를 가는 자는 구십 리가 반이다[行百里者, 半九十里].”라는 말로 진정한 도(道)의 세계로 발전해 나가도록 격려했다. 셋째 부분은 최립 자기는 네 차례 연경을 다녀오는 동안에 네 번이나 부족한 점을 깨달았지만, 박동량은 젊으므로 자신보다 월등하게 많은 것을 거두어들이라는 당부를 하였다.

전별시는 처음에 중국의 예악과 문물이 융성함을 말하고, 중간에 조선은 지금 중흥의 시대를 만나 보수와 개혁을 절충하는 때라 인재의 선발이 시급함을 말하였으며, 끝에는 연경에서 돌아와 임금님을 유도하고 보좌하라는 당부를 하였다.

이항복의 전별시는 제목이 「서울에 들어온 지 몇 개월 만에 다시 남방에서 책사를 맞으러 가게 되었는데, 당시 박동량(자는 子龍)이 연경에 가므로 시를 지어 전별로 삼았다[入京數月將復迎冊使于南方時朴子龍赴京以詩爲別].」이지만, ‘박동량전별첩’에는 제목을 쓰지 않고 칠언율시 본문과 낙관을 썼다. 제7~10면에 쓴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남북으로 나뉘어 날아 각각 나랏일 노심초사하고,  
멀리 가는 길 괴로움 · 즐거움 · 기쁨 서로 더하네.

도관·궁전 기둥에 노니는 가을 학 울음 들리고,  
 나그네가 불사에 머물면 꿈에 등불을 짝한다네.  
 한나라 부절 언제 장건(封號는 博望侯)을 맞을꼬?  
 주나라 조정은 오늘날 연릉(季札)을 중히 여기네.  
 대부분 그대 이르는 곳에 명성이 휘황찬란하고,  
 늙은 나는 돌아올 기약 아득하니 의지하지 마소.

병신(1596) 중추, 이항복(호는 弼雲) 노생은 박동량(자는 子龍)이 연경에 감을 전송하다.

南北分飛各飲氷<sup>10)</sup>, 征途苦樂喜相乘.

眞遊華表<sup>11)</sup>秋聞鶴, 旅泊雞林<sup>12)</sup>夢伴燈.

漢節幾時迎博望<sup>13)</sup>, 周庭今日重延陵<sup>14)</sup>.

多君到底聲輝赫, 老我歸期杳莫憑.

丙申仲秋, 弼雲老生送子龍朝天之行.

작가 미상의 전별시는 제목과 본문을 썼으나 뒷부분이 탈락하여 전체 내용은 자세하지 않다. 칠언율시일 것 같고, 현재 남아 있는 전문은 다음과 같다.

박동량(자는 子龍)이 하례하러 연경에 가는 것을 받들어 전송하다.

당시 일찍 출세하여 박응순(潘城府院君)을 헤아렸고,  
 재능이 뛰어난 젊은이 높은 뜻 가장 일찍 이루었네.  
 선조를 의주로 호종할 때 사귀는 도리 시작하였고,  
 상여를 따라 회수와 바다……

10) 음빙(飲氷)은 관원이 나랏일에 노심초사함을 이르는 말이니, 출처는 『명사(明史)·열전제일백삼십삼(列傳 第一百三十三)·이응승(李應昇)』 권245에 “폐하가 기강을 떨치신즉 편지는 천둥소리와 같고, 대신이 사사롭게 마음이 바르지 못함을 버린즉 천 리는 손바닥 안에서 가지고 노는 것과 같으며, 대관(臺官)·간관(諫官)이 규탄을 맡으니 모든 벼슬아치는 나랏일에 노심초사하였다[陛下振紀綱, 則片紙若霆, 大臣捐私曲, 則千里運掌, 臺諫任糾彈, 則百司飲氷].”라고 한 것을 참고할 수 있다.

11) 진유(眞遊)는 도교에서 조성한 승지나 도관을 유람하는 일이고, 화표(華表)는 다리·궁전·성벽이나 능묘 앞에 장식을 겸하여 세운 거대한 기둥인데, 주로 돌로 만들며 기둥에는 무늬를 새겼다.

12) 계림(雞林)은 절·불사를 이르는 말이다. 출처는 당나라 왕발(王勃)이 「만추유무담산사서(晩秋遊武擔山寺序)」에서 “불사의 좋은 즐거움 쓸쓸히 바람이 부는 취령에 있다[雞林俊賞, 蕭蕭鷺嶺之居].”라고 하였는데, 장청익(蔣淸翊) 주에 『불이야(佛爾雅)』를 인용하며 “계두마사는 계원을 일컫는다.…… 옛날에 들불이 숲을 태움이 있었는데, 숲에 있던 꿩이 물에 들어가 날개를 담가서 불사르는 것을 막았다[雞頭摩寺, 謂之雞園.……昔有野火燒林, 林中有雉, 入水漬羽, 以救其焚].”라고 한 것을 참고할 수 있다.

13) 박망(博望)은 한나라 장건(張騫, 약 기원전 164-기원전 144)의 봉호 박망후(博望侯)를 가리킨다. 장건은 자가 자문(子文)이고 중군성고(中郡城固, 지금의 섬서성 漢中市 城固縣) 사람이다. 그는 한나라의 걸출한 외교가·여행가·탐험가로 실크로드를 개척한 공로로 한 무제가 박망후에 봉하였다.

14) 연릉(延陵)은 춘추시기 오국(吳國)의 계찰(季札, 기원전 576-기원전 484)이 연릉 일대를 봉읍으로 받아서 연릉계자(延陵季子)라 일컫는 것을 가리킨다. 그는 세 차례 나라를 사양하고 어진 선비와 광범위하게 교류하였다. 열국을 주유하면서 예악을 제창하고 유가사상을 선양하였으며, 문화 발전에 공헌하였다. 특히 노나라에 가서 주나라 음악을 듣고 열국의 치란과 흥망을 알았다고 한다.

奉贐朴子龍令公賀至朝京  
當時早達數潘城<sup>15)</sup>, 英妙高懷寂夙成.  
扈聖龍灣<sup>16)</sup>交道始, 從喪淮海……

### 3. 서체

최립의 글 「送朴僉樞子龍奉使赴京師詩序」는 제1~6면에 붉은색을 칠한 바탕 위에 해서체를 금니(金泥)로 썼는데, 탈색으로 희미해져서 식별하기가 어렵다. 다행히 적외선 촬영 이미지를 통해 대략적인 형체를 식별할 수 있다. 제6면의 낙관 부분을 제외하고 제1~5면까지 각각 6행에 12~24자씩 썼으며, 자경은 1.2-1cm이다. 서체는 조맹부의 송설체(松雪體)를 원숙하게 운영한 높은 수준의 해서이다. 제6면 끝에 ‘崔岵立之藁’라고 쓴 ‘藁’는 초고이니, 해석에 따라 최립이 세운 초고, 또는 누가 쓴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최립이 세운 초고를 썼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최립 또한 당시 송설체를 잘 썼다고 알려졌으니, 서체를 분석하여도 대체로 이와 같다. 이에 관한 서체 분석은 최립이 1594년에 <삼청첩(三清帖)>(간송미술관 소장)의 서문을 쓴 것과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

15) 반성(潘城)은 반성부원군(潘城府院君) 박응순(朴應順, 1526-1580)이다. 자는 건중(健中)이고 본관은 반남(潘南)이며, 딸은 선조비 의인왕후이다. 1555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의금부도사로 천거된 뒤 돈녕부주부·내섬시주부를 지냈다. 1569년 딸이 왕실과 정혼하자 돈녕부도정, 11월 중전이 되자 반성부원군·영돈녕부사가 된 뒤 오위도총부도총관을 겸하였다. 시호는 정의(靖懿)이다.

16) 용만(龍灣)은 평안북도 의주시의 옛 별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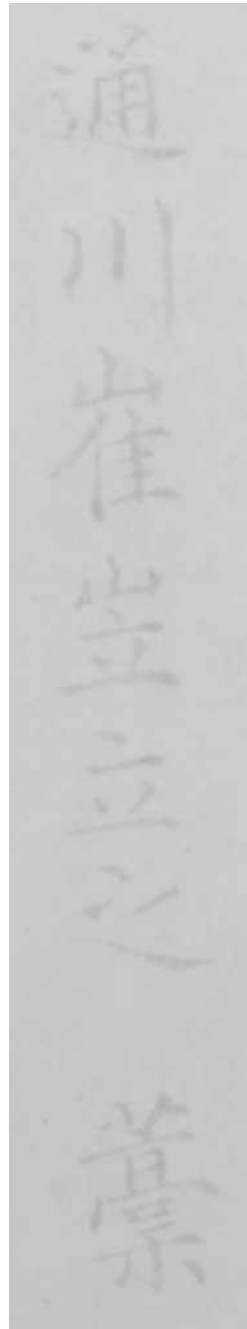
박동량전별첩(朴東亮餞別帖)  
(적외선 촬영 부분)

삼청첩(三清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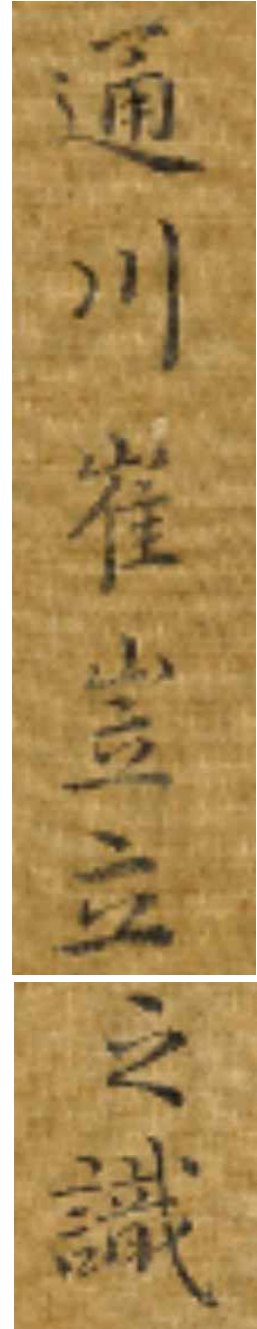


한문 서예에서 필획의 변화와 특징이 잘 나타나는 곳은 가로획의 기필과 수필, 필획의 방향을 전환하는 전절(轉折), 왼쪽 빼침의 약획(掠畫), 갈고리의 적획(趨畫), 파임의 날획(捺畫) 등이다. 이외에 송설체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 가로획에서 기필 부분은 필봉을 모나게 꺾어 들이는 절입법(切入法)을 운용하며, 필획 아래가 45도로 꺾이면서 조금 긴 편이며, 수필은 필획이 끝나는 곳에서 가볍게 누른 다음 다시 왔던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회봉을 운용하여 누에머리와 같은 잠두(蠶頭)를 형성하였다. 전절은 모나게 꺾는 방절(方折)보다 둥글게 전환하는 원전(圓轉)을 많이 운용하였다. 약획은 필획 끝까지 힘을 유지하였고, 적획은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로 뾰족한 형상만 나타내었으며, 날획은 필획을 세 번 꺾는 일파삼절(一波三折)이 분명하지 않고 길게 늘어지는 특징이 있다. 이외에 ‘ㄴ’은 위의 점이 가로획에 닿지 않고, ‘ㄹ’을 쓸 때 왼쪽은 조금 길게 세우고 오른쪽을 짧게 갈고리로 처리하였다. ‘足·亦’자 등은 해서에서도 행서로 쓰는 것이 송설체의 특징이다. 이상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글자를 선택하여 비교한 결과는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이는 낙관을 쓴 글자를 비교하여도 알 수 있다. 비록 끝에 ‘藁’와 ‘識’이라 쓴 것이 다를 뿐 나머지는 모두 같은 글자들이어서 상대적 비교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餞別帖



三清帖



이상 일반적 한문 서예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송설체 고유의 특징 및 낙관의 글자들을 비교한 결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어 ‘박동량전별첩’은 최립이 썼다고 하여도 전혀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먹으로 쓴 것과 금니로 쓴 것은 재료가 다르고 서사 기법 또한 다르므로 서풍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항복의 전별시는 행초서로 제7~10면에 썼다. 제7~8면은 각각 3행, 제9면은 2행, 제10면은 3행으로 썼다. 글씨는 가로획의 기울기가 그의 서찰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큰 차이가 없어 친필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서예의 수준이 매우 뛰어나지 않다는 것이다.

작가 미상은 해행서로 제11~12면에 썼다. 제11면은 제목을 3행으로 썼고, 제12면은 칠언율시를 3행에 썼으나 전문은 아니고 일부분이다. 글씨는 졸하면서 정성을 담았으나 일반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 ○ 문헌자료

崔岙, 『簡易集·簡易文集·序』 卷三, 「送朴僉樞子龍奉使赴京師詩序」.

李恒福, 『白沙集·白沙先生集·詩』 卷一, 「入京數月將復迎冊使于南方時朴子龍赴京以詩爲別」.

□

### ○ 현 상

앞부분에 금니로 시문을 적고 목서로 시문을 기록한 이 첩은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

### ○ 내용 및 특징

1596년(선조 29)에 동지(冬至)를 하례하기 위한 하지사(賀至使)로 연경에 가는 박동량(朴東亮, 1569-1635)을 전송하며 최립(崔岙, 1539-1612), 이항복(李恒福, 1556-1618), 필자미상이 지어준 시문을 모아 첩으로 꾸민 전별첩(餞別帖)이다.

첩은 총 12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1~6면은 최립, 7~10면은 이항복, 11·12면은 필자미상의 시문이다. 사경하듯이 1~6면을 금니로 적은 최립 시의 마지막에 “萬曆二十四年歲在丙申前八月十九日”라고 하여 1596년 8월 19일 박동량이 동지사가 되어 갈 때 지어 전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 문헌자료

- 崔岙, 簡易集 권3, 「送朴僉樞子龍奉使赴京師詩序」

- 한국학중앙연구원, 古文書集成 111 - 潘南朴氏 朴世堂·朴東亮家門 古文書-, 2015.

### ○ 기 타

반남박씨 금계군중가가 소장하고 있던 자료를 2012년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기탁하였다.

□

### ○ 현 상

표제가 없는 앞뒤 표지와 12면으로 구성된 첩장본으로, 앞부분에는 금니로 시문이 필사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묵서로 서사되어 있다. 제1~6면은 최립의 전별시가 적혀있는데, 붉은색을 칠한 바탕 위에 행서가 가미된 세자(細字) 해서(楷書)체의 금니로 쓰여져 있으며, 탈색으로 인해 식별이 어렵다. 제6면의 낙관 부분을 제외하고 제1~5면까지 각각 6행에 12~24자씩 썼으며, 자경은 약 1.2cm 정도이다. 제7~10면은 백사 이항복의 행초서 시문이 묵서로 필사되어 있고, 제11~12면은 작자 미상의 해행서가 묵서로 필사되어 있다.

### ○ 내용 및 특징

1596년(선조 29)에 동지사(冬至使)로 연경에 가는 박동량(朴東亮, 1569-1635)을 전송하며 최립(崔崐, 1539-1612), 이항복(李恒福, 1556-1618), 필자미상이 지어준 시문을 모아 첩으로 꾸민 전별첩(餞別帖)이다. 이 가운데 최립의 시는 『簡易集』권3 「送朴僉樞子龍奉使赴京師詩序」에 전해오는 것인데, 첩에는 이 시의 전반부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서사된 부분은 금니로 서사한 점이 두드러지는데, 세월로 인해 박락되어 육안으로 식별하기는 힘들다. 시의 마지막 부분에는 “萬曆二十四年歲在丙申前八月十九日”라고 기록되어 있어 1596년 8월 19일 박동량이 동지사가 되어 갈 때 지어 전별한 것임이 확인된다. 최립의 전별시에 이어 제7~10면의 이항복 글씨는 이항복 특유의 행초서 필의가 서려있으며, 시문에 관한 기록은 이항복의 전별시는 『白沙集』권1 「入京數月將復迎冊使于南方時朴子龍赴京以詩爲別」에 전해온다.

### ○ 문헌자료

崔崐, 『簡易集』.

李恒福, 『白沙集』권1 「入京數月將復迎冊使于南方時朴子龍赴京以詩爲別」.

한국학중앙연구원, 『古文書集成111 - 潘南朴氏 朴世堂·朴東亮家門 古文書』, 2015.

### ○ 기 타

반남박씨 금계군 중가에서 소장하던 것을 2012년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기탁함.

□

### ○ 현 상

표지는 별도의 장황을 하지 않은 백지이다. 표제는 없다. 서첩에 사용한 배접지는 전에 쓰던 이면지를 재활용하였다. 이면지 속지에 “兵曹判書臣李德馨啓爲褒貶事曹所屬” 또는 “副正南瑜”라고 쓴 글자가 보인다. 이덕형(李德馨, 1561-1613)은 박동량이 동지사로 사신을 갔던 1596년에 병조판서를 지낸 바 있고, 남유(南瑜,

?-1598)는 선조 때의 무신으로 역시 동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이다. 따라서 이 서첩의 배접지는 1596년 당시에 쓰던 종이를 재활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서첩에 박동량을 전별하며 써준 3명의 필적 중 앞부분과 뒷부분은 탈락되어 있다. 따라서 원래는 표지가 있었고 내용도 온전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후대에 언젠가 표지와 앞·뒤 내용 일부가 손상되어 떨어져나가 백지로 첩의 앞·뒷면을 임시로 꾸민 것으로 판단된다.

## ○ 내용 및 특징

1596년(선조 29)에 동지사(冬至使)로 연경에 가는 박동량(朴東亮, 1569-1635)을 전송하며 최립(崔嵬, 1539-1612), 이항복(李恒福, 1556-1618), 필자미상이 지어준 시문을 모아 첩으로 꾸민 전별첩(餞別帖)이다. 모두 12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1~6면은 최립, 7~10면은 이항복, 11·12면은 필자미상의 시문이다. 이 가운데 최립의 필적은 감색 빛의 감지(紺紙)에 금니(金泥) 또는 금색 호분(胡粉)으로 글씨를 써서 이채롭다. 다만 세월이 오래돼 글씨를 육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박락이 심하다. (내용 및 석문은 별첨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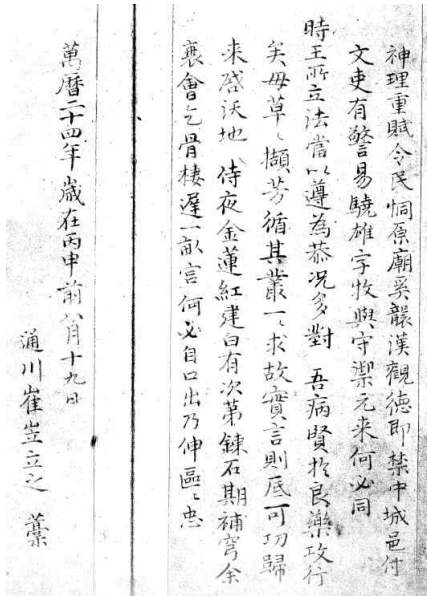
## 1. 개요

<박동량 전별첩(朴東亮餞別帖)>은 1596년에 동지사로 연경에 가는 박동량(朴東亮)을 전송하며 최립(崔嵬), 이항복(李恒福), 필자미상 등 3인이 지어준 시문을 모아 첩으로 꾸민 전별첩이다. 가깝게 지내던 지인의 임소가 바뀌거나 사행을 떠나게 될 경우 전별연을 베풀고 시문을 지어 석별의 아쉬움을 나눈 것이 사대부 문인들의 오랜 전통이다. 지금도 조선시대의 다양한 전별첩이 다수 전하고 있다. <박동량 전별첩>은 박동량과 최립, 이항복, 필자미상의 교유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또한 이 서첩의 배접지 속지에 적혀있는 이덕형 역시 최립·박동량과 교유했고 이항복과는 ‘오성과 한음’이라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친교가 남달랐던 인물이다. 따라서 이 서첩은 박동량이 교유했던 당대 문인들과의 교유상을 파악하기에 효과적인 자료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서첩 맨 앞의 최립의 서문은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절반 이상이 탈락되어있고, 맨 끝의 필자미상이 쓴 시문도 뒷부분이 탈락되어 있어 자료로서 온전한 상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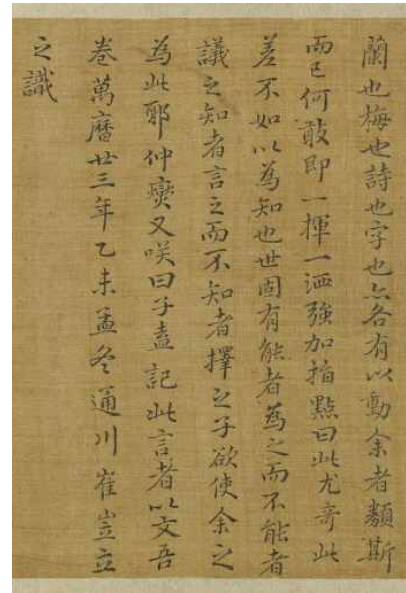
## 2. 최립 필적의 진위

최립의 필적은 금니 또는 호분으로 쓴 것으로 추정되는데 글자의 박락이 심하다. 이를 적외선으로 촬영하여 보정한 이미지의 마지막 부분은 아래와 같다(도1). 최립 글씨 중 비교할만한 필적으로 보물 제1984호로 지정된 간송미술문화재단 소장

의 <이정 필 삼청첩(李霆筆三清帖)>에 있는 최립의 발문(도2)을 들 수 있다. 이 발문은 1595년에 쓴 것으로 <박동량 전별첩> 보다 한 해 전에 쓴 필적으로 비교하기에 적합하다.



도385. 최립, <박동량 전별첩> 부분, 1596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도386. 최립, <삼청첩 발문> 부분, 1595년, 간송미술문화재단.

두 필적은 정갈한 해서로 씌어있으며, 서풍은 약간의 차이가 보이지만 매우 유사하다. 동일한 글자를 한 글자씩 비교하며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표 1).

표 1. <박동량 전별첩>과 <삼청첩 발문>의 최립 글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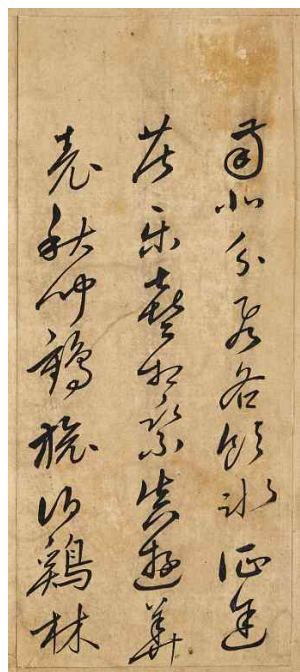
	전별첩	삼청첩		전별첩	삼청첩		전별첩	삼청첩
固			思			欲		
觀			詩			爲		
氣			我			萬曆		
者			耶					
類			與			通川 崔岾		
聞			然					
足			旣					
何			字					

두 필적은 한 사람이 썼다고 해도 될 정도로 매우 흡사하다. <삼청첩 발문>은 비단에 쓴 글씨이고 약간의 행서기가 가미되어 있어 몇 글자에서 <박동량 전별첩>과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그러나 운필과 결구에서 대체로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 최립이 쓴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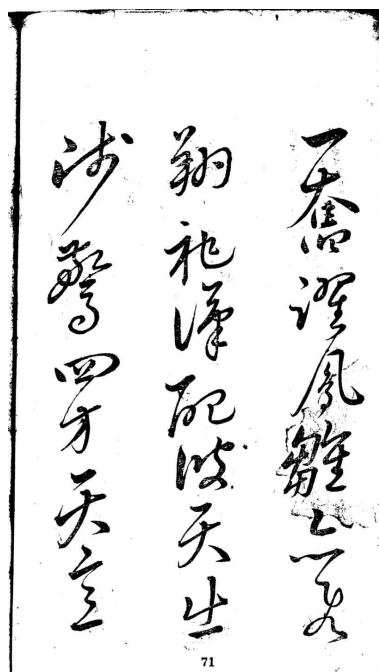
### 3. 이항복 필적의 진위

이항복은 <해서천자문>을 남길 정도로 서예에 재능이 있던 인물이다. <박동량

전별첩>에 쓴 이항복의 필적(도3)은 행서로 쓴 필적이다. 이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백사필첩(白沙筆帖)>(도4)과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



도3. 이항복, <박동량전별첩> 부분, 34.5x15.3cm, 장서각.



도4. 이항복, <백사필첩> 부분, 36.2x24.0cm, 국립중앙도서관.

두 필적은 활달한 필치와 짜임새 있는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전반적으로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는 결구 역시 동일하다. 특히 사선이 강조된 필획, 똑같은 ‘비(飛)’자를 쓴 전별첩 1행의 4번째 글자와 백사필첩 1행의 마지막 글자의 유사성 등에서 동일한 인물이 썼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다.

#### ○ 문헌자료

崔昱, 『簡易集』 권3, 「送朴僉樞子龍奉使赴京師詩序」

李恒福, 『白沙集』 권1, 「入京數月 將復迎冊使于南方 時朴子龍赴京 以詩爲別」

#### ○ 기 타

반남 박씨 금계군 종가에 가전되어 오다 2012년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기탁.



## «朴東亮 餞別帖» 국역

1596년(선조 29)에 동지(冬至)를 하례하기 위한 하지사(賀至使)로 연경에 가는 박동량(朴東亮, 1569-1635)을 전송하며 최립(崔崐, 1539-1612), 이항복(李恒福, 1556-1618), 필자 미상이 지어준 시문을 모아 첩으로 꾸민 전별첩(餞別帖)이다.

내용은 모두 12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1~6면은 최립, 7~10면은 이항복, 11·12면은 필자 미상의 시문이다. 최립과 이항복의 원문과 번역문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운영하는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에서 참고할 수 있다.

### 【표지】

표제 없음

### 【제1~6면】

제1~6면은 최립(崔崐)이 연경에 사신으로 가는 박동량(朴東亮)을 전송하며 지어준 시문이다. 1~3면에 서문(序文)을, 4·5면에 오언장편의 시를 써놓았고, 6면에 시문을 작성한 날 짜와 최립 본인의 이름을 써놓았다. <박동량전별첩>에는 서문의 앞부분이 탈락되어 있다. 최립의 문집 『간이집(簡易集)』 권3에 「사명을 받들고 연경으로 가는 첩지중추부사 박자룡을 전송하는 시서(送朴僉樞子龍奉使赴京師詩序)」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 제1·2면

【석문】(余嘗~百家的 내용이 탈락되어 있음)

{余嘗讀莊氏秋水而歎曰, 河伯望洋於北海, 北海若比形於天地, 人能若是, 則知不足矣, 爲可以進矣, 有難之曰, 河也不可以化海, 海也不可以化天地, 伯與若也, 子奚取於進哉, 余曰, 余亦非以其所處者之可化也, 由河而觀於海, 失河之多, 由海而觀於天地, 失海之多, 此爲能體道而其進無量者矣, 莊氏固亦寓言而已, 而余取者此也, 今朴僉樞子龍公奉使將赴帝京, 求余一言, 余以向之說諗之而曰, 我國在外服, 號爲小中華, 蓋有古仁賢之遺風焉, 有禮法焉, 有詩書焉, 有列聖之澤焉, 有先生長者賢士大夫焉, 居是邦也, 得於觀習興起, 宜無所不足者, 況如公生於文獻之家, 才識夙成, 遭遇聖明, 年未及三十, 而揚歷華顯, 秩躋貂玉, 以應專對之選焉, 世恒謂少壯者爲年富, 是富其方來也, 今富如此, 其名位之鼎至, 將亦與之俱足, 何不足之有, 而他於艷慕焉哉, 然去國而觀於天子之邦, 可謂由河而海, 由海而天地也, 公將渡鴨江而西, 流連遼廣, 以屬之關, 貫穿畿輔, 以達于京, 其間城池之壯固, 士馬之精強, 鎮堡之小大相維, 山海之首尾相護, 采薇之清風可挹, 屠肆之悲歌如故, 漕堤危檣之如簇, 譙樓遙列而如浮, 至於宮闕之神麗, 壇廟之清闕, 省曹之弘敞, 街市之紛華, 朝廷之揖讓, 鬢序之絃誦, 鐘鼓旂常衣冠佩履之聲容數物, 設官分職典章政事之規模節目, 道德文學伎術百家} - 앞부분 탈락

之源委品藻, 令人疏視而淪聽, 鑿心而飫志, 不暇自省/  
其中之何有, 而徒日覺新得者焉, 亦不暇自識其身之/  
何如, 而徒疑與異世者接焉, 固嘗謂學然後知不足, 而不/

謂其觀然後知不足一至此也，爲可愧耶，爲可樂耶，因/  
 是觀也，而又反之學，將必眼目益大，心胸益寬，而氣象益有/  
 所養，推之事業，益可以有爲，余知公之進於足也沛然矣，公/  
 今少於顏回聞一知十之年，而期以夫子從心所欲之境，余又/  
 未卜其進果何至而爲足也，古人曰，行百里者，半九十里，夫行/  
 者，有十里而止者焉，有數十里而止者焉，則九十里非固近/  
 也，而謂之半焉者，以所期者百里也，以公之年力有餘，尙不/  
 欲<sup>17)</sup>百里自期也耶，譬公今日所登之程，往亦三千二百里，還亦/  
 三千二百里，卽不盡一里，非足也，夫既可以足矣，而望公以國/

### 제3·4면

【석문】(내용이 1·2면에서 이어짐)

人，不以中國之人，且不以古之人，<sup>18)</sup> 則是拘河拘海之說，而非知/  
 道之見也，非進道之規也，余爲公固異是矣，勉乎哉，如曰/  
 若嘗亦觀周，不一而足，其進幾何云爾則不然，余固貴/  
 公之年力矣，余之初役，已幾四十無聞之時，況後此則又/  
 衰矣，惡能有得而進焉乎，然亦私自點檢，四赴而四知不/  
 足矣，然公非余倫也，其收於一者，<sup>19)</sup> 不啻優於四矣，勉乎/  
 哉，言旣，復爲詩，有所屬焉，詩曰，/  
 皇朝治道隆，侔擬維吾東，以余飽觀光，千里無異風，尙/  
 有三四事，可恨類不充，上欲告我后，下欲言三公，自疑/  
 所見左，亦患進塗窮，公行爲相屬，重公敏而聰，且值/  
 中興政，因革方折衷，覃思耳目際，倘記余言蒙，所急在/  
 人材，畦畛宜疏通，財粟窄流行，何不錢其銅，瀆祭爽/

### 제5·6면(내용이 3·4면에서 이어짐)

神理，重賦今民恫，原廟奚襲漢，觀德卽禁中，城邑付/  
 文吏，有警易驍雄，字牧與守禦，元來何必同，/  
 時王所立法，當以遵爲恭，況多對吾病，賢於良藥攻，行/  
 矣毋草草，擷芳循其叢，一一求故實，言則底可功，歸/  
 來啓沃地，侍夜金蓮紅，建白有次第，鍊石期補穹，余/  
 衰會乞骨，棲遲一畝宮，何必自口出，乃伸區區忠，/  
 萬曆二十四年歲在丙申前八月十九日/  
 通川崔豈立之藁<sup>20)</sup>

17) 최립의 문집에는 ‘欲’이 ‘肯’으로 되어있다. 둘 다 ‘하려고 하다’라는 의지를 뜻하므로 의미에는 변화가 없다.

18) 원래는 ‘古人之’로 썼다가 ‘古之人’으로 바꾸라는 표기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19) 원래는 ‘於收’로 썼다가 ‘收於’로 바꾸라는 표기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20) 마지막 부분의 ‘萬曆 ~ 豈立之藁’는 최립의 문집에는 실려 있지 않다.

### 【제7~10면】

제7~10면은 이항복(李恒福)이 연경에 사신으로 가는 박동량(朴東亮)을 전송하며 지어준 칠언율시이다. 이항복의 문집 『백사집(白沙集)』 권1에 「서울에 들어온 지 수개월 만에 장차 다시 남방으로 책사를 맞으러 가게 되었는데, 이 때 박자룡이 연경에 가므로 시로써 작별하다(入京數月 將復迎冊使于南方 時朴子龍赴京 以詩爲別)」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박동량전별첩>에는 문집에 실린 제목은 적혀있지 않다. 대신 말미에 “병신(선조 29, 1596년) 중추에 필운 노생이 연경에 가는 자룡을 전송하다(丙申仲秋 弼雲老生 送子龍朝天之行).”라는 내용을 적어놓았다. ‘필운(弼雲)’은 이항복의 별호이고, ‘자룡(子龍)’은 박동량의 자이다.

### 제7·8면

#### 【석문】

南北分飛各飲冰，征途/  
 苦樂喜相乘，眞遊華/  
 表秋聞鶴，旅泊雞林/  
 夢伴燈，漢節幾/  
 時迎博望，周庭今日/  
 重延陵，多/

### 제9·10면

#### 【석문】 (내용이 7·8면에서 이어짐)

君到底聲輝赫，老/  
 我歸期杳莫憑./  
 丙申仲秋弼雲老生/  
 送子龍朝天之行./

### 【제11~12면】

제11·12면은 필자미상이 연경에 사신으로 가는 박동량(朴東亮)을 전송하며 지어준 칠언시이다. 앞에 “하지사로 연경에 가는 박자룡 영공을 받들어 전송하다(奉驢朴子龍令公賀至朝京)”라는 제목을 써놓았다. 제4구의 ‘從喪淮海’ 뒤로 3글자와 더불어 뒷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박동량전별첩>에는 그 뒷부분이 탈락되어 있다. 내용상 칠언율시일 것으로 판단된다.

### 제11·12면

#### 【석문】

奉驢朴子龍令公賀至朝京  
 當時早達數潘城，英/

妙高懷取夙成, 扈/

聖龍灣交道始, 從喪淮海[뒷면 탈락]

「하지사로 연경에 가는 박자룡 영공을 받들어 전송하다(奉贐朴子龍令公賀至朝京)」

當時早達數潘城 당시에 조달하여 반성(潘城)을 헤아렸고

英妙高懷取夙成      영특하고 높은 회포 가장 일찍 이루었네.

扈聖龍灣交道始      의주로 호종할 때 사권의 도 시작되어

從喪淮海      회수에서 상여를 따라 ……

## 14. 송시열 초상(宋時烈 肖像)

### 가. 검토사항

‘송시열 초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송시열 초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8.12.14)이 있어 관계 전문가 조사(’20.8.25./9.25./10.22.) 및 과학조사(’20.9.25.)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 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32호(2012.7.6.지정)
- 명 칭 : 송시열 초상(宋時烈 肖像)
- 소유자(관리자) : 안동권씨 문순공파 종중(제천의림지 역사박물관)
- 소재지 :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47길 7, 제천의림지 역사박물관
- 수 량 : 1축
- 규 격 : 전체 164.5×74.8cm, 화면 90.9×61.9cm
- 재 질 : 비단에 채색
- 형 식 : 족자
- 조성연대 : 18세기 전반



<송시열 초상>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 <송시열 초상>은 조선시대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송시열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후대 송시열 추앙의 양상을 잘 알려주는 중요한 작품이다.
- 현재 30점 가까이 남아 전하는 송시열 초상화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회화적 완성도가 높으며, 김창업 초본 계열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 송시열의 초상화로는 국보 제239호로 지정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과 함께 가장 주목되는 작품이다.
-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1. 송시열(宋時烈, 1607-1689) 야복본 초상화 중에서 황강영당본은 회색 사방건과 회색 심의로 단호하면서도 강건한 이미지를 강조한 반면, 국보 제239호 국립중앙박물관본이 검은색 복건과 흰색 심의로 문인의 검박한 이미지를 표상하는 차별화된 면모를 보여준다

2. 74세의 송시열을 그린 황강영당본은 국립청주박물관에 기탁된 김진규의 초본을, 국보 제239호 국립중앙박물관본은 김창업의 초본을 밑그림으로 한 것으로 추정되며, 송시열 야복본 초상화가 두 가지 유형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회화적 표현기법도 뛰어난 수작(秀作)에 해당된다.
3. 황강영당본 위에 찬문을 적은 권상하 제자 채지홍은 1741년 사망하였고, 화면 구도나 표현기법에서 친연성을 보이는 삼성미술관 리움본을 그린 화원 진재해의 ‘부호군(副護軍)’ 재임시기는 숙종 어진을 그린 1713년부터 1718년 12월까지이므로 18세기 전반에 그려진 또 다른 유형의 야복본 사대부 초상화로서 보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 (지정 가치 있음)

- 안동권씨 문순공파 종중 소유의 송시열 초상은 김진규(金鎭圭, 1658~1716)가 그린 사방건 초본 계통의 초상으로,
- 송시열이 입고 있는 현단 상의의 색상이 송시열이 제시한 복제와 일치하지는 않아 후대에 그려진 것으로 보임.
- 초상의 상태나 장황 등의 상태가 좋아 보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 (지정 가치 있음)

- 현재 제천시에 위탁된 <송시열 초상> (이하 황강영당 정본)은 방건의 심의를 갖춘 송시열의 모습을 그린 야복 초상이다. 작품 상단에는 “우암 송선생 칠십사세진(尤庵宋先生七十四歲眞)”라는 화제가 전서체로 적혀 있다. 화면 우측에는 송시열의 초상을 김창업이 그렸음을 밝힌 김창협(金昌協)의 화상찬이 해서체로 적혀 있다. 화면 좌측에는 권상하(權尙夏, 1641-1721)가 짓고 권상하의 제자 채지홍(蔡之洪, 1683-1741)이 필사한 화상찬이 해서체로 적혀 있다. 이로써 이 작품이 1680년에 23세의 김창업이 74세의 송시열을 그린 초상과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황강영당 정본의 제작 시기 및 작가를 추정하기 위해 양식적으로 유사한 진재해 필 <송시열 초상>(삼성미술관 리움)과 비교하였다. 리움 정본의 우측에는 “후학안동김창업 부호군진재해모(後學安東金昌業 副護軍 秦再奚墓)”라는 화제가 적혀 있다. 여러 경로를 통해 황강영당 정본의 작가 역시 진재해이며, 제작 시기는 진재해가 부호군(副護軍)에 제수된 1713-1718년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즉 23세의 김창업이 그린 74세의 송시열 초상을 범본으로 황강영당 정본과 리움

정본이 동시에 제작된 것이다.

- 황강영당 정본의 송시열은 생전에 고관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관복을 갖춘 권위 있는 관료가 아닌, 심의(深衣)에 방건을 갖춘 청정한 유학자로 표현되었다. 주자를 존중한 산림(山林)의 영수이자 주자학의 대가로서 후손에게 영향을 끼친 학자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따라서 송시열 초상은 주자를 추종하는 학문적 성향과 그 권위를 드러내는 표상이자, 17세기 후반-20세기까지 전개된 야복 초상의 시작점이다.
- 송시열 초상은 후학들에게 주자의 학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도통지상(道統之像)이자 17세기 후반 노론의 학문적 계보를 알려주는 시각물이다. 특히 황강영당 정본에서 발견되는 탄력과 기운을 겸비한 필선, 그윽하지만 맑은 채색법, 간결하면서도 강인한 느낌을 선사하는 구도는 송시열의 깊은 학문 세계와 정신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이는 정조의 어제시가 쓰인 국보 제239호의 <송시열 초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과 더불어 초상화의 기본 개념인 전신사조(傳神寫照)가 발현된 송시열 초상의 수작이다. 이렇듯 황강영당 정본은 국가 보물 문화재로 지정하기에 충분한 작품이라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안동권씨 문순공파 종중 소장 <송시열 초상>은 조선후기의 정계와 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평가되는 송시열의 모습이 재현된 그림이라는 점 외에 송시열의 적전(嫡傳)인 권상하의 신위가 모셔진 한 서원에서 300여 년 동안 보존되어 온, 즉 소장 내력이 분명한 그림이라는 점에서 높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또한 송시열 초상화를 대상으로 한 화상찬 중 가장 명문(名文)으로 평가되는 김창업과 권상하의 글이 적혀 있고 그 글을 서사한 이가 권상하의 핵심 문인 중 한 명인 채지홍란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초상화는 문인화가 김창업이 그린 초본을 저본으로 한 점과 진재해 등 당대의 최고의 화사가 그렸다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려하면서도 단정한 필선 그리고 정교한 채색으로 뛰어난 예술성을 보이는 점에서 높은 예술적 가치가 있다. 이미 국보 239호로 지정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송시열 초상>과 견주어도 이 작품의 예술성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안동권씨 문순공파 종중 소장 <송시열 초상>은 국가문화재(보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크다고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 조사보고서



#### ○ 현 상

- 한 점 내리단이 족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전에는 유리액자 형태였는데, 2014년 12월부터 2016년 3월에 걸쳐 장황문화재연구소에서 보존처리를 거치면서 전통적인 족자 형태로 바뀌었다. 이 과정을 통해 꺾임흔적 및 미세한 결손 부분을 메움처리하고 색맞춤을 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원래 현상의 큰 변형이 없이 이루어졌다. 보존처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발간된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
- 이음새 없는 한 장의 비단을 화면으로 사용하여 네모난 회색 모자를 쓰고 검은 색으로 깃과 소매부리의 가장자리를 두른 회색 겹옷을 입은 채, 두 손을 맞잡아 소매 속에 넣은 반신상 인물을 묘사했다. 희끗희끗한 콧수염, 턱수염, 구레나룻에 이마와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을 화면 왼편을 향하여 약간 돌린 자세이다.
- 화면 상단에는 표제에 해당하는 “尤庵宋先生七十四歲眞”을 전서체의 묵서로 적었는데 별도의 가로 구분선은 없다. 초상화의 주인공은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며 그가 74세 때의 모습을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 화면 우측 위에는 송시열의 제자인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이 지은 찬문이 적혀 있다.

以豪傑英雄之姿 有戰兢臨履之功 斂浩氣於環堵之窄 可以塞宇宙 任至重於一身之小 可以抗華嵩 進而置之巖廊 爲帝王師而不見其泰 退而處乎丘壑 與麋鹿友而不見其窮 巖巖乎砥柱之峙洪河 凜凜乎寒松之挺大冬 苟億歲之下 觀乎此七分之貌 尙識其爲三百年間氣之所鍾 後學金昌協贊

(찬문 번역은 『초상화의 비밀』 (국립중앙박물관, 2011), pp.313-314참조)

이 찬문 바로 다음에는 “金昌業畫”라고 적혀 있어 김창협의 동생이며 송시열의 제자인 김창업(金昌業, 1658-1722)의 그림임을 밝히고 있다.

-화면 좌측 위에는 송시열의 또 다른 제자인 권상하(權尙夏, 1641-1721)가 지은 찬문이 적혀있다.

嶷嶷山嶽之氣像 恢恢河海之心胸 允矣集羣儒之大成 蔚然爲百代之宗師 以一言而  
闢聖路於將堙 以隻手而擎天柱於既倒 深闡密贊吾不知其何謨 燕居長歎吾不知其何抱  
吁嗟乎道之大而莫能容兮 吾將捨考亭而其誰從 門人權尙夏贊

(찬문의 번역은 『초상화의 비밀』 (국립중앙박물관, 2011), p. 314 참조)

이 찬문 바로 다음에는 “後學蔡之洪書”라고 적혀 있는데, 채지홍(蔡之洪, 1683-1741)은 권상하의 제자이다. 김창협(金昌協)의 찬문과 권상하의 찬문 글씨가 같으므로, 두 찬문을 모두 채지홍이 적었음을 알 수 있다.

- 그림은 매우 양호한 상태이다.

### ○ 내용 및 특징

- 초상화의 주인공인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은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성리학자로 본관은 은진(恩津), 자는 영보(英甫), 호는 우암(尤庵)이다. 그는 과거시험에 장원으로 합격한 뒤 높은 학문으로 이름을 널리 떨쳤고, 봉림대군(효종)의 스승이기도 했다. 효종의 두터운 신뢰를 얻어 북벌계획을 세웠으나, 효종이 죽은 후 화양동에 내려가 학문에 몰두하며 제자를 가르쳤다. 서인의 지도자인 그는 당쟁의 와중에서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사약을 받고 죽었다. 이후 다시 명예가 회복되어 노론의 지도자로 추앙받았다. 송시열은 정치적으로는 부침을 거듭했지만 그 와중에도 평생에 걸쳐 성리학 연구에 몰두하여 후대에 큰 영향을 주었다.

- <송시열 초상>은 얼굴에 깊게 파인 주름을 황갈색의 굵은 선으로 강조하여 묘사했는데 부분적으로 음영을 표현했다. 회고 검은 긴 수염을 세밀하게 표현했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눈썹은 아직 검고 짙다. 상세한 얼굴 묘사와 달리 의복은 짙은 먹선을 위주로 간략하게 표현했다. 콧수염 아래로 보이는 두툼한 아랫입술은 곧은 성품을 더욱 강조한다. 송시열은 용모가 장대하고 기상이 높아서 두 손을 맞잡고 조용하게 앉아 있으면 마치 거대한 산과 같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말을 붙이면 부드럽고 편안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구도에서도 삼각형 모양의 인물이 화면 아랫부분에 딱 차도록 하여 중후한 느낌을 더해 주어 인물의 품성을 잘 드러내 주는 초상화이다.

- 『송자대전부록(宋子大全附錄)』 卷11의 「연보(年譜)」에는 송시열 초상화 제작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송시열 생전에 그린 초상화는 3본 있었는데, 1683년 화가 한시각(韓時覺, 1621-?)이 그려 가묘에 봉안했던 77세 초상화가 있고, 제자 김진규(金鎭圭, 1658-1716)가 초(草)를 뜨고 화사가 옮겨 그려 나중에 화양서원에 봉안한 것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김창업(金昌業, 1658-1721)

이 초를 뜨고 화사가 옮겨 그린 것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김진규와 김창업이 송시열 74세의 모습을 초본을 그렸기에 이는 1680년이 된다.

-김진규가 그린 초본은 송시열의 후손가에서 소장하다가 국립청주박물관에 기탁되어 있는데 사방건을 쓴 모습이다. 이 초본을 기초로 그렸거나 또는 그것의 이모본으로 추정되는 작품이 현재 국보 제239호로 지정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또한 1820년 홍직필(洪直弼, 1776-1852)이 화상찬을 짓고 유한지(俞漢芝), 1760-?)가 이를 적은 송시열 초상화 역시 김진규 초본을 따른 것인데 최근 경기도박물관에 기증되었다. 한편 후손가에는 복건을 쓴 모습의 송시열 초상 초본도 함께 전하고 있는데, 이것을 김창업의 초본이라고 믿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얼굴 묘사가 사방건 초본과 거의 같다는 점에서 이 또한 김진규가 그린 초본일 가능성이 높다.

-<송시열 초상>의 얼굴 묘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위의 김진규 초본 및 그것을 바탕으로 제작한 작품들과는 눈썹과 코의 생김새 및 주름 표현에서 차이가 뚜렷하다. 따라서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김창업의 초본을 바탕으로 제작한 초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림에 적혀있는 “金昌業畫”는 정본이 아닌 초본의 화가를 가리키는 것이 된다. 더욱이 삼성미술관리움 소장의 송시열 초상은 복건을 쓰고 있으나 얼굴의 묘사가 <송시열 초상>과 거의 같으며, 그림 상단에 같은 내용과 서체의 표제가 적혀있다. 또한 그림의 오른쪽에 “後學安東金(昌)業寫 副護軍 秦再奚摹”라고 적혀 있어 당시 최고의 초상화가로 이름을 날리며 국수(國手)라고 칭송받던 진재해(秦再奚, ?-1735이전)가 김창업의 초본, 또는 그것을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을 다시 이모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송시열 초상> 역시 진재해가 그렸을 가능성이 높다.

-회색의 모자는 사방건처럼 보이지만 분명하지는 않으며, 회색 겹옷은 심의(深衣) 모양이지만 색깔이 특이하다.

-<송시열 초상>의 제작연대는 18세기 초엽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하한은 찬문을 적은 채지홍의 물년인 1741년이 된다. 이 초상화가 전해져 내려온 경위를 살펴보면 권상하는 1675년 충청도 제천의 황강으로 이주했고 1686년에 한수재(寒水齋)를 건립했으며,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조카 권섭(權燮, 1671-1759)이 1725년 한수재 내에 권상하의 초상을 봉안하고 황강영당(黃江影堂)이라 이름했다. 이후 1726년 송시열과 권상하를 제향하기 위해서 황강서원(黃江書院)은 세워졌고, 이듬해 사액을 받았다. 정확하게 어느 시점부터 송시열 초상화를 이곳에서 모시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서원과는 별도로 한수재 내에 공간을 마련해 황강영당이라 하고 그곳에 함께 모셨던 것으로 보인다. 19세기에 한수재를 방문한 후학들이 송시열과 권상하의 초상을 봉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리고 언제부

터인가는 후학들인 한원진(韓元震, 1682-1751), 윤봉구(尹鳳九, 1683-1767) 등의 초상화도 함께 보관되기 시작했다.

- 송시열 사후에 그를 제향한 서원과 사당이 전국 각지에 30곳이 넘게 설립되었고, 상당수의 초상화가 봉안되었다. 현재 알려진 송시열의 초상화는 삼십 점에 육박하여, 조선시대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은 초상화가 제작되었다. 송시열의 초상화는 초본, 반신상, 전신상 등에 복건본, 방건본 등 다양한 형식을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모두 평상복인 심의(深衣) 차림의 유복본 초상화다. 심의는 주희가 입었던 옷으로 조선시대에 예학이 발달하면서 유학자들에게 널리 보급되었다. 송시열은 모두 합해서 팔년간 벼슬에 올랐지만 그때마다 공복(公服)은 빌려 입고 스스로 만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초상화는 모두 관복이 아니라 유복을 입은 모습이다.
- 이 작품은 2012년 7월 6일 충청북도 유형 문화재 제332호로 지정되었다.

## ○ 참고문헌

- 『초상화의 비밀』 (국립중앙박물관, 2011)
- 『유학자 관복을 벗다』 (대전 시립 박물관, 2014)
- 이혜경, 「송시열과 노론계 인사들의 유복본 초상화 제작」, 박은순 외, 『조선시대 회화의 교류와 소통』 (사회평론, 2014), pp. 60-66.
- 고연희, 『화상찬으로 읽는 사대부의 초상화』 (한국학 중앙 연구원 출판부, 2015)
- 조인수,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소장 성현 초상 일괄에 대하여」, 『기록화, 인물화: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소장품도록』 (동아대학교박물관, 2016) pp. 296-309.
- 이성훈, 「송시열 초상화의 제작과 ‘대현(大賢)’의 이미지 구축」, 『미술사와 시각문화』 26호 (2020), pp.72-119.



## ○ 현 상

- 황강영당(黃江影堂)본<sup>21)</sup> <송시열 초상>은 좌안칠분면(左顔七分面)의 반신상으로 국보 제239호 국립중앙박물관본과는 다른 야복(野服) 차림이지만, 산림에서 은거하며 학문에 정진했던 유학자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수작(秀作)이며 보존 상태도 매우 양호함
- 얼굴과 상대적으로 과장된 몸체가 모두 선묘로 묘사되었으며, 얼굴은 진한 살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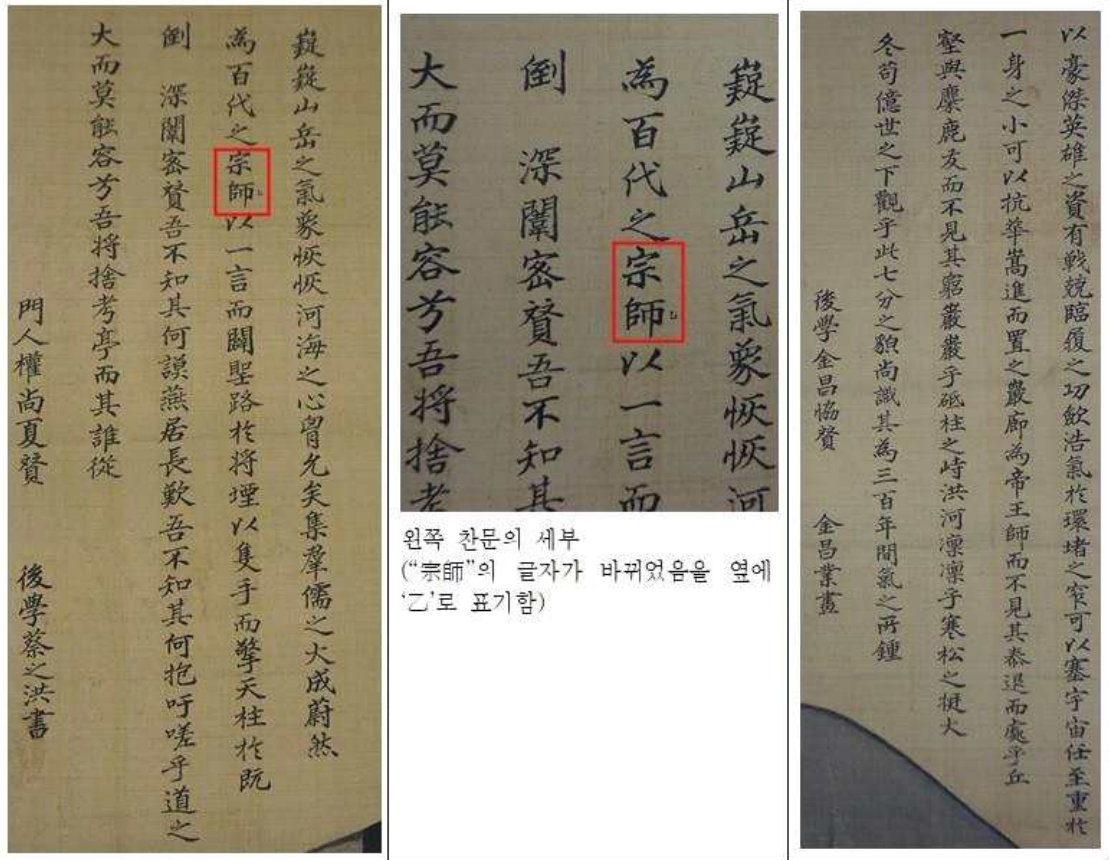
21) 1726년(영조 2) 창건되어 다음해 사액된 황강서원(黃江書院)에 송시열·권상하·한원진(韓元震)·권욱(權煜)·윤봉구(尹鳳九) 영정이 모셔졌으며, 1871년 서원철폐령 때 황강영당으로 개칭되었다. 이곳의 <송시열 초상>이 1906년 유럽에서 창건한 서당인 자양영당(紫陽影堂)으로 옮겨지면서 황강영당본(黃江影堂本)이라고도 한다.

을 칠한 다음 갈색선으로 주름을 그리고 주위를 선염하고, 회색 심의도 굵은 먹선으로 대담하게 옷주름을 그린 다음 주위를 선염하는 동일한 기법으로 입체감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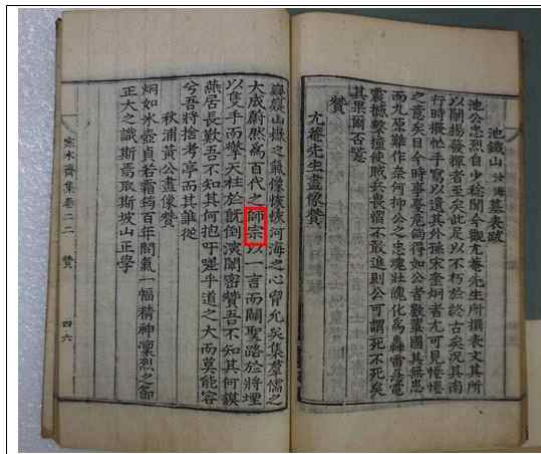
- 화면 상단에는 전서로 “우암 송선생 칠십사세진(尤庵宋先生七十四歲眞)”이라 제기(題記)가 적혀 있고, 오른쪽에 있는 찬문은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이 짓고 김창업(金昌業, 1658-1721)이 그렸다는 내용으로 원문과 번역문은 다음과 같음  
“以豪傑英雄之資 有戰兢臨履之功. 斂浩氣於環堵之窄 可以塞宇宙 任之重於一身之小 可以抗華嵩. 進而置之巖廊 爲帝王師而不見其恭 窮退而處乎丘壑與麋鹿友而不見其. 巖巖乎砥柱之峙洪河 凜凜乎寒松之挺大冬 苟億世之下 觀乎此七分之貌 尙識其爲三百年間氣之所鍾. 後學金昌協贊, 金昌業畫(호걸과 영웅의 자태로 조심하고 삼가 공덕을 세웠네. 좁은 담 안에도 호연지기를 모으니 우주를 채울 만하고, 작은 한 몸으로 중임을 감당하니 화산 승산에 맞설 만하네. 높은 조정에 출사하여 제왕의 사부가 되어도 영화를 뽐내지 않고, 골짜기에 물러나 사슴과 벗하여도 곤궁하다 여기지 않네. 우뚝할 손 단단한 기둥이 큰 강물에 솟은 듯, 늠름할 손, 낙락장송이 한 겨울을 견디는 듯, 진실로 억만년 뒤에 이 칠분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삼백년 간의 기운이 모인 바를 우러러 알 수 있으리라. 후학 김창협이 짓고, 김창업이 그림).”

真歲卍十子丑老宋庸老

<송시열 초상>의 제기(題記)



- 왼쪽에 있는 찬문은 권상하(權尙夏, 1641-1721)가 짓고 그의 제자 채지홍(蔡之洪, 1683-1741)이 옮겨 적었다는 내용으로 원문과 번역문은 다음과 같음 “巍巍山岳之氣象 恢恢河海之心胸. 允矣集羣儒之大成 蔚然爲百代之**師宗**. 以一言而闢聖路於將堙 以隻手而擎天柱於既倒. 深闡密贊 吾不知其何謨, 燕居長歎 吾不知其何抱. 吁嗟乎 道之大而莫能容兮. 吾將捨考亭而其誰從. 門人權尙夏贊 後學蔡之洪書(높고 높은 산악의 기상 넓고 넓은 하해의 마음. 참으로 여러 유학자들을 집대성하여 성대하게 백대의 스승이 되시었네. 한마디 말로 막혀가는 성인의 길을 뚫었고, 한 손으로 쓰러지는 기둥을 붙들었네. 깊은 궁궐에서 은밀히 도운 것은 어떤 계책이었는지 나는 모르겠고, 한가로운 중에 긴 탄식은 어떤 심정이었는지 나는 모르겠네. 아, 도가 너무 커서 아무도 용납해주지 않았도다. 내가 주자를 버린다면 누구를 따라야 하겠는가. 문인 권상하가 찬하고 후학 채지홍이 씀.)”



※ 왼쪽에 적혀 있는 권상하의 찬문은 그의 개인문집 『한수재집』 권22 「우암선생화상찬」이라 적혀 있으며 “師宗”이라고 바르게 적혀 있음

권상하(權尙夏), 『한수재집(寒水齋集)』 권22, 「우암선생화상찬(尤庵先生畫像贊)」

- 제기는 송시열의 74세 모습을 그린 초상화이며, 송시열을 칭송하는 김창협과 권상하의 화찬을 옮겨 적은 채지홍(蔡之洪, 1683-1741)의 1741년 사망은 황강영당본이 1694년 갑술환국으로 신원이 복관되며 그에 대한 추송 열기가 높아졌던 18세기 전반에 임모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해줌

○ 내용 및 특징 :



- 노론의 영수 송시열은 생존 당시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추송되며 문묘는 물론

서원이나 영당에서 그를 배향하기 위해 초상화가 이모(移摹)된 결과 다수의 작품이 현전하고 있으며, 크게 ① 문인(門人) 金鎭圭(1658-1716)가 1680년 그렸다고 전하는 초본, ② 김창업이 그렸다는 초본, ③ 화원 한시각(韓時覺, 1621-?)이 1683년 그린 입상까지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현전하는 송시열 초상화는 대부분 좌안칠분면에 공수(拱手)를 한 야복본 반신상이며, 황강영당본과 유사한 또 다른 <송시열 초상>은 종가에서 소장하다가 국립청주박물관에 기탁 중인데, 제기(題記)와 찬문이 없고 표현기법이나 화격(畫格)이 다소 떨어져 후대 임모본이라 생각됨
- 송시열의 야복본 초상화의 복식은 1680년 그렸다는 김진규의 초본을 밑그림으로 한 황강영당본처럼 회색 사방건(四方巾)에 회색 심의(深衣)를 착용한 것과 김창업 초본에 가까운 국보 제239호 국립중앙박물관본처럼 검은색 복건(幅巾)에 하얀색 심의 두 가지로 구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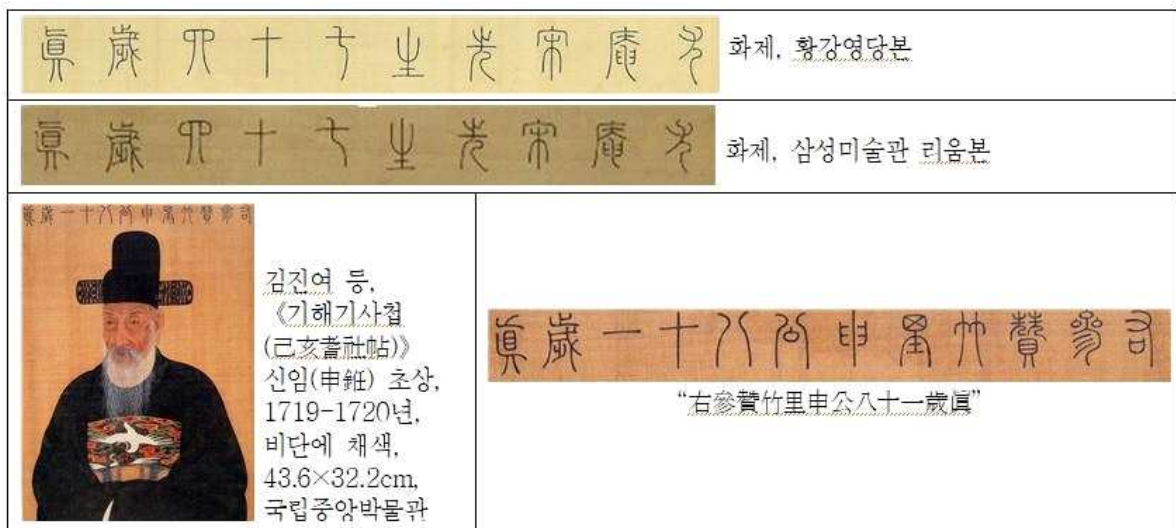




- 화면의 오른쪽에 써어 있는 김창협 찬문 다음에 김창업이 그렸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황강영당본은 굴곡이 심했던 송시열의 삶이 고스란히 반영된 안면의 깊은 주름살이 화면 상단에 적혀 있는 74세라는 나이와 일치하고, 국립청주박물관에 기탁된 김창업의 <송시열 초본>보다 김진규의 <송시열 초본>(1680)과 유사하여 채지홍이 찬문을 잘못 옮겨 적었을 가능성도 상정해 볼 필요가 있음
- 조선시대 초상화는 동자와 홍채를 윤곽선으로 묘사하였으나, 황강영당본과 국보 제239호 국립중앙박물관본, 화원 진재해(奏再奚, 1691-1769)가 그린 삼성미술관 리움본은 눈과 눈동자 표현이 유사한 특징을 보임. 먼저 눈의 윤곽을 갈색선으로 묘사한 다음 위쪽 눈꺼풀에 검은색 아이라인을 선명하게 그리고 속눈썹까지 한올 한올 그린 것, 동공과 홍채는 윤곽선 없이 동공은 짙게 선염하고 그 주변은 열게 하여 흐릿한 인상을 주는 것, 흰자위 양 끝에 붉은색을 살짝 가한 것 등이 동일함
- 황강영당본, 국립중앙박물관본(국보 제239호), 삼성미술관 리움본을 비교하면 황강영당본과 삼성미술관 리움본은 화면구성이나 얼굴표현이 유사하고, 국립중앙박물관본과 삼성미술관 리움본은 복건과 심의로 된 유복(儒服)이 동일함



- 황강영당본의 제기(題記)는 삼성미술관 리움본과 거의 유사하고, 1719년 4월 17일과 18일에 70세가 넘는 정2품 이상의 원로대신을 예우했던 기로연을 기념해 제작된 《기해기사계첩(己亥耆社契帖)》의 기신(耆臣) 초상화에 보이는 전서와도 서체가 매우 유사하여 18세기 전반 제작되었을 것이라 판단됨



- 또한 황강영당본과 얼굴 표현이 유사한 삼성미술관 리움본은 화면 오른쪽 중간에 “후학안동김창업 부호군진재해모(後學安東金昌業 副護軍奏再奚摹)”라고 적혀 있는데, 진재해는 1713년 주관화사로 숙종의 어진을 제작한 공으로 ‘부호군’에

제수되어 1718년 12월까지 재직하였으므로 황강영당본도 18세기 전반 임모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에 설득력을 높여줌

#### ○ 문헌자료

- 권상하, 『寒水齋集』 (의림지역사박물관 기탁)
- 국립청주박물관 편, 『화양서원과 만동묘』, 2011.
- 국립중앙박물관 편, 『조선시대 초상화 I』, 2007.
- 국립중앙박물관 편, 『조선시대 초상화Ⅲ』, 2009.
- 「도지정문화재(초상화) 보존처리 용역: 우암 송시열 초상, 수암 권상하 초상」 2014.12.10-2016.03.26, 제천시·장항문화재연구소, 2016.

#### ○ 기 타

- 장항문화재연구소에서 2014년 12월 10일부터 2016년 3월 26일 사이에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32호인 <송시열 초상>과 제333호인 <권상하 초상>을 보존처리 하면서 클리닝을 하였고, 액자 상태 이전에 축(軸)이었음을 확인하고 2점을 다시 축으로 장황함

#### □

#### ○ 내용 및 특징

비단 바탕에 채색한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반신상으로, 사방건(방건)을 쓰고 심의로 추정되는 청회색 빛 상의를 입고 있다. 세로 92.5cm, 가로 62cm 크기이며 족자 형태로 장황되어 있다.

화면 상단에 “尤庵宋先生七十四歲眞”이라는 화제(畫題)가 있으나, 남인이 실각하고 송시열이 벼슬을 다시 제수받은 1680년 모습을 후대에 다시 그린 것으로 보인다.

사방건을 쓴 송시열의 초상은 문인 김진규(金鎭圭, 1658~1716)가 초하고 화사가 그린 것 초본을 활용하여 다른 화사가 그려 화양서원에 봉안했다고 한다.

우암의 왼쪽 어깨 위에는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의 찬문贊文이 있고 김창협 이름 아래로 “金昌業畫”라는 기록 있음. 오른쪽 어깨 위로는 권상하(權尙夏, 1641~1721)의 찬문이 있고 이를 채지홍(蔡之洪, 1683~1741)이 썼다는 기록이 있다.

김창협이 그린 초본은 복건본이라고 하고 김진규가 그린 초본이 방건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 위에 김창협이 그렸다고 하는 찬문은 후대에 삽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송시열의 장례과정을 기록한 『宋書續拾遺附錄』 卷3, 「楚山日記」에 따르면 송시열의 수의에 사(紗)로 만든 심의를 사용하고 소렴에 야복【상의·하상·대대】을 사용하였다. 송시열 초상은 반신상이므로 하의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상의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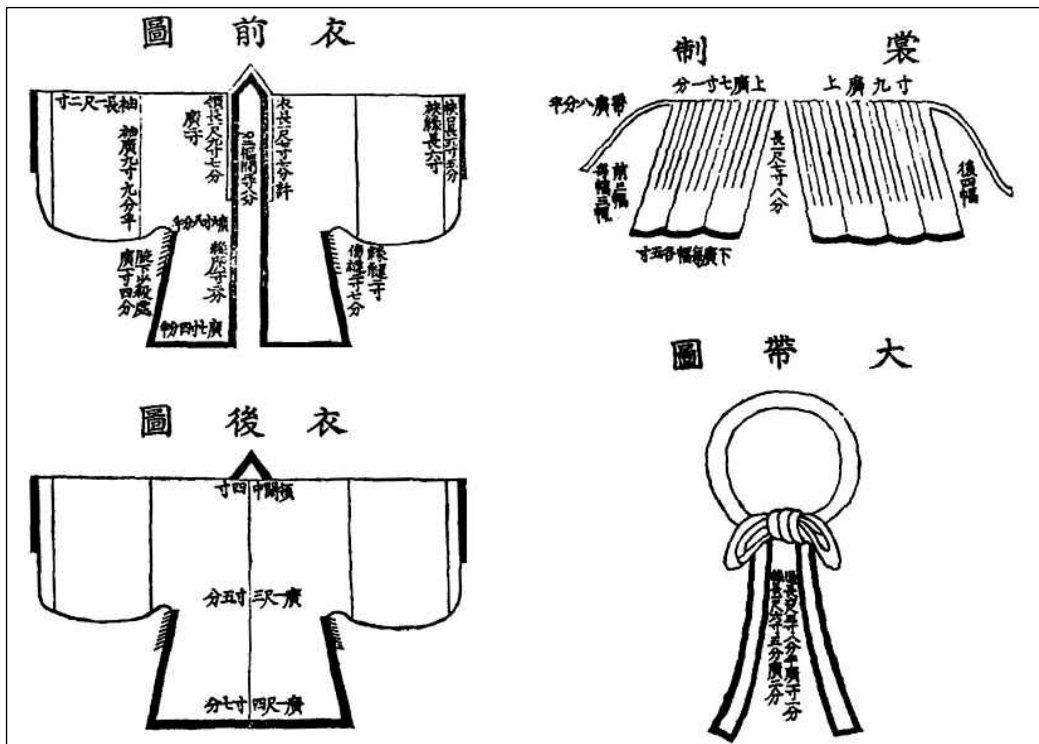
으로 볼 때, 심의로 보기는 어렵다.

『宋子大全』 卷134의 「야복도설(野服圖說)」(그림 2)에 야복은 백방사주(白方紗紬)나 백주(白紬)로 하고 흑견(黑絹)의 선을 두른다고 하였다. 대대에도 2분 너비의 흑선을 두른다고 하였다. 백색 현단을 언급한 송시열의 의도와는 다르지만 후대에 그려진 그림으로 본다면 현단의 상의로 명명할 수 있다.

한편, 17세기에 대금형의 옷이었던 학창의는 색상에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송시열의 상의를 학창의로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단언하기는 어렵다.

초상의 장황 소재는 백색과 청색 주(紬)이며 장황 상태가 양호하지만 17세기 후기~17세기 전기의 것이라면 권상하 초상처럼 유문단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후대에 제작되었다고 보인다.

이상 검토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김진규(金鎭圭, 1658~1716)가 그린 사방건 초본 계열의 이 초상은 송시열이 제시한 백색 야복 상의와는 색상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심의나 학창의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송시열이 제시한 백색 야복(현단)이 아닌 청색 야복본으로 칭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宋子大全』 卷134, 「野服圖說」

○ 문헌자료

『宋子大全』

국립중앙박물관, 2011, 『초상화의 비밀』.

대전시립박물관, 2014, 『유학자 관복을 벗다』.

실학박물관, 2010, 『실학박물관』.

□

## ○ 현 상

자양영당에 소장된 <송시열 초상>로서, 현재 제천시에 위탁되어 있다. 황강영당(黃江影堂) 정보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비단에 채색으로 완성되었다. 방건(方巾)을 쓰고 회색 심의(深衣)를 입었으며 공수 자세를 취한 좌안칠분면(左顔七分面)의 반신상이다. 화면 상단과 좌우에 화제(畫題)와 화상찬(畫像讚)이 기록되었다. 송시열(宋時烈, 1607-1689) 생전에 그의 제자인 김창업(金昌業, 1658-1727)이 그렸던 초본을 토대로 후대에 임모한 정보으로 추정된다.

### 1) 얼굴

얼굴 전체에 피부색을 칠한 뒤 진한 갈색의 필선으로 얼굴 전체의 윤곽과 이목구비의 경계를 분명하게 구획하였다. 또한 동일한 갈색의 필선으로 주름을 표시하고, 선 주위에 옅은 먹색과 피부색을 선염하여 입체감을 주었다. 피부색은 다소 밝은 톤이며 가볍게 배채되었으나 육리문은 발견되지 않는다. 얼굴색과 같은 색조의 철선을 구사했고, 선 주변에 선염 처리를 하여 송시열 얼굴의 특징인 깊고 많은 주름과 큼직한 이목구비를 드러냈다. 문순공파에서 제천시에 기탁한 김진여 필 <권상하 초상>과 비교할 때, 피부톤이 훨씬 옅고 투명하며, 음영처리가 적어 과장된 입체감이 보이지 않는다.

눈동자의 경우, 동공은 농묵으로, 홍채 부위는 담묵으로 열게 발랐고, 홍채 가장자리의 먹선을 생략하여 흰 동자와의 경계를 없앴다. 눈동자와 속 눈꺼풀의 경계에 농묵의 세선을 긋고 속눈썹까지 묘사하였다. 콧등과 입술에 붉은 색을 칠해 얼굴에 생기를 부여했고, 눈동자 흰 자위의 가장자리에도 붉은 색을 칠해 다소 충혈된 눈을 표현했다. 수염과 귀밑머리에는 호분의 세선을 중봉으로 내리 긋고 중간 중간에 진한 농묵의 선을 곁들여 터럭 한 올 한 올을 정성껏 표현했다. 그러나 눈썹에는 호분선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로지 농담을 달리한 필선만 사용되었다.

### 2) 복식과 관모

왼쪽 어깨가 약간 올라가고 등이 약간 굽어 얼굴이 앞으로 나온, 송시열 영정의 특징이 잘 드러난 초상화 정보이다. 얼굴에 비해 신체가 다소 크게 배분되었다. 영정 속의 송시열은 회색 방건(方巾)을 쓰고, 깃과 소맷부리에 흑색 천을 덧댄 회색 심의를 입었으며, 두 손은 맞잡은 공수 자세를 취했으나, 손을 옷소매 속에

감추고 있다. 얼굴은 갈색선과 선염으로 개성을 드러낸 반면, 복건과 심의는 얼굴의 묘사와는 대조적으로 매우 간결하고, 음영 표현이 살짝 가미된 상태다.

송시열의 신체를 드러내는 복식의 전체 윤곽과 주름선에는 중봉의 필선이 구사되었다. 필선은 장봉으로 시작되어, 동일한 두께로 구획되다가 서미(鼠尾)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속저고리의 옷선은 가는 먹선을 그은 후, 그 옆에 호분의 선을 다시 그어 매우 부드러운 느낌이다. 간결한 필선과 채색으로 완성된 복식은 단순하면서도 단정하고 정갈한 느낌을 선사한다.

방건은 윤곽선이 생략된 채 채색만으로 형태를 드러냈다. 농묵을 전체에 바르고 그 위에 호분을 얹은 것을 보인다. 18세기 초의 여타 초상화에 등장하는 관모들이 세부 묘사를 더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 3) 화제, 화상찬

작품 상단에는 “우암 송선생 칠십사세진(尤庵宋先生七十四歲眞)”라는 화제가 전서체로 적혀 있다. 화면 우측에는 김창협이 송시열 초상을 그렸음을 밝힌 김창협의 화상찬이 해서체로 적혀 있다. 화면 좌측에는 권상하(權尙夏, 1641-1721)가 짓고 권상하의 제자 채지홍(蔡之洪, 1683-1741)이 필사한 화상찬이 해서체로 적혀 있다. 두개의 화상찬을 통하여 이 작품이 1680년, 23세의 김창협이 74세의 송시열을 그린 초상과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측에 적힌 김창협의 화상찬이다.

호걸과 영웅의 자태로 조심하고 삼가 공덕을 세웠네.

좁은 담 안에도 호연지기를 모으니 우주를 채울 만하고

작은 한 몸으로 중임을 감당하니 화산 송산에 맞설 만하네.

높은 조정에 출사하여 제왕의 사부가 되어도 영화를 뽐내지 않고

골짜기에 물러나 사슴과 벗하여도 곤궁하다 여기지 않네.

우뚝할 손, 단단한 기둥이 큰 강물에 솟은 듯

늠름할 손, 낙락장송이 한 겨울을 견디는 듯

진실로 억만년 뒤에 이 칠분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삼백 년간의 기운이 모인 바를 우러러 알 수 있으리.

후학 김창협이 짓고, 김창협이 그린다.

以豪傑英雄之資 有戰兢臨履之功

斂浩氣於環堵之窄 可以塞宇宙

任之重於一身之小 可以抗華嵩

進而置之巖廊 爲帝王師而不見其窮

巖巖乎砥柱之峙洪河 凜凜乎寒松之挺大冬

苟億世之下 觀乎此七分之貌  
尙識其爲三百年間氣之所鍾  
後學 金昌協贊, 金昌業畫

좌측에 적힌, 권상하의 화상찬이다.

높고 높은 산악의 기상 넓고 넓은 하해의 마음  
참으로 여러 유학자들을 집대성하여  
성대하게 백대의 스승이 되시었네.  
한마디 말로 막혀가는 성인의 길로 뚫었고  
한 손으로 쓰러지는 기둥을 붙들었네.  
깊은 궁궐에서 은밀히 도운 것은 어떤 계책이었는지 나는 모르겠고  
한가로운 중에 긴 탄식은 어떤 심정이었는지 나는 모르겠네.  
아, 도가 너무 커서 아무도 용납해주지 않았도다.  
내가 주자를 버린다면 누구를 따라야 하겠는가.  
문인 권상하가 찬하고 후학 채지홍이 쓰다.  
嶷嶷山岳之氣象 恢恢河海之心胸  
允矣集羣儒之大成 蔚然爲百代之師宗(乙)  
以一言而闢聖路於將堙 以隻手而擎天柱於旣倒  
深闡密贊 五不知其何謨  
燕居長歎 五不知其何抱  
吁嗟乎 道之大而莫能容兮  
吾將捨考亭而其誰從  
文人權尙夏贊 後學蔡之洪書

화면 좌측에 적힌 화상찬 2행 “蔚然爲百代之師宗” 중에서 “宗” 옆에 “乙”이 작게 표기되어 있어 후서(後書)할 때 수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두 화상찬 모두 스승이었던 송시열의 학문적 위상과 정치적 업적으로 숭상하고 있다. 두 화상찬의 서체가 모두 같아 채지홍(蔡之洪, 1683~1741)이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창협(金昌協)의 화상찬은 권섭(權燮, 1671-1759)과 나눈 편지글을 통해 1694년 이전에 이미 지었음이 파악된다.

## ○ 내용 및 특징

### 1) 연혁 및 유래

송시열은 본관이 은진(恩津), 아명이 성뢰(聖賚), 자가 영보(英甫), 호가 우암(尤庵), 화양동주(華陽洞主)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김장생(金長生, 1548-1631)에게 성리학과 예학을 배웠고, 1633년 생원시에 장원급제하여 출사하였으나 곧 사직하였다. 봉림대군(鳳林大君)의 사부가 되면서 효종(孝宗, 재위 1649-1659)과 깊은 인연을 맺고 효종의 북벌 계획의 핵심 인물로 활약하였으나, 1659년 5월에 효종이 급서하자 낙향하였다.

1679년 경신환국(庚申換局)으로 남인이 실각하자 1680년 중앙정계에 복귀하였고, 1683년에 봉조하(奉朝賀)의 영예를 받았다. 서인이 소론과 노론으로 갈라지자 정계에서 은퇴하고 청주 화양동에 은거했다. 그러나 1689년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남인이 세력을 잡자 제주도로 유배되었고 서울로 압송되는 중에 정읍에서 사약을 받고 죽었다. 1694년 갑술환국(甲戌換局)으로 서인계가 정국을 완전히 지배하면서 관작이 회복되었다. 1695년 숙종은 그에게 문정이란 시호를 내렸다. 송시열 사후 20년쯤 지난 1717년, 국가가 『우암집(尤庵集)』을 간행하였다. 송시열에 대한 추송 분위기가 크게 일어난 것이다.

서인과 남인의 정치적 갈등 속에서 유배를 거뒀던 송시열은 평생 주자학을 연구한 대학자였다. 평소 예학(禮學)의 일상화를 추구하고 가례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하였고, 사대부의 옷가짐에 따른 법과 예를 중시하였다. 주자(朱子) 이후 동방의 성현으로 인정되면서 그의 학문적 업적과 정치적 성향이 확고하게 공인받아 1744년 문묘에 배향되었다. 이후 송시열을 배향하는 서원과 영당이 증가하면서 초상에 대한 이모와 확산이 지속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송시열 초상을 비롯한 문인 초상화가 지속적으로 양산되었다.

현전하는 송시열의 초상은 20여 점으로, 단일 인물의 초상으로는 가장 많은 수량에 해당된다. 『송자대전부록(宋子大全附錄)』의 「연보(年譜)」에는 송시열 생전에 3점의 초상화가 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시각(韓時覺, 1621~?)이 그린 77세 진영본, 문인 김진규(金鎭圭, 1658-1716)가 초를 잡고 화사가 그린 영정, 김창업(金昌業, 1658-1721)이 초를 잡고 화사가 옮겨 그린 영정이 그러하다. 세 번째 사례가 바로 황강영당 정본과 연관된, 23세의 김창업이 74세의 송시열을 그린 초본으로 판단된다.

송시열이 생전에 고관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초상화는 관복이 아닌 심의(深衣)의 야복 차림으로 제작되었다. 이것은 그가 조선후기 문사들에게 주자를 존중한 산림(山林)의 영수이자 주자학의 대가로 인식되었음을 알려주는 증거다. 현존하는 송시열 초상의 정본들은 모두 좌안칠분면(左顔七分面)을 취하고 있다. 김창업이 그렸다는 초상 초본(국립청주박물관)과, 김진규가 그린 초상 초본(국립청주박물관)도 그러하다. 다수의 송시열 초상 가운데, 국보 239호인 국립중앙박물관



관 소장 정본과 황강영당 정본 등이 손꼽히는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황강영당 정본의 제작 경위와 시기 등을 규명하기 위해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의 〈송시열 초상〉을 살펴본다. 우선 리움 정본의 화면 오른쪽에는 “후학안동김창업 부호군진재해모(後學安東金昌業 副護軍 秦再奚摹)”가 적혀 있다. 즉 “송시열의 후학 안동 김씨 창업이 그린 것을 부호군 진재해(秦再奚, 1691-1769)가 모사했다”는 것이다. 진재해는 숙종과 경종, 영조 연간에 활동한 어진화사다. 1713년 숙종 어진 제작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주요 노론 인사들에게 초상화가로서의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되었다. 따라서 송시열을 존송하는 노론계 문인들이 진재해에게 김창업이 그린 송시열 초상을 모사하도록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진재해는 1713년에 숙종어진 제작에 참여한 공으로 부호군(副護軍)에 제수되어 1718년 12월까지 복무하였다. 리움 정본 화제에 ‘부호군’이라고 적혀 있어 이 초상화가 1713년에서 1718년 사이에 제작되었음을 알려준다.

리움 정본은 황강영당 정본과 달리 송시열이 복건을 쓰고 있지만, 전체적인 표현 방식은 매우 유사하다. 먼저 작품 상단에 ‘우암 송선생 칠십사세진(尤庵宋先生七十四歲眞)’이라고 쓴 화제의 서체는 황강영당 정본 상단에 적힌 화제의 서체와 동일하다. 이는 1719년에 제작된 《기사계첩(耆社稷帖)》 기로신의 초상화 상단에 적힌 화제의 전서체와도 유사하여, 황강영당 정본 역시 리움 정본과 마찬가지로 18세기 초반 진재해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알려준다. 즉 두 작품 모두 「연보」에 적힌 “김창업이 초한 것을 화사가 옮겨 그린 것이다”라는 기록을 입증하는 사례인 셈이다.

## 2) 미술사적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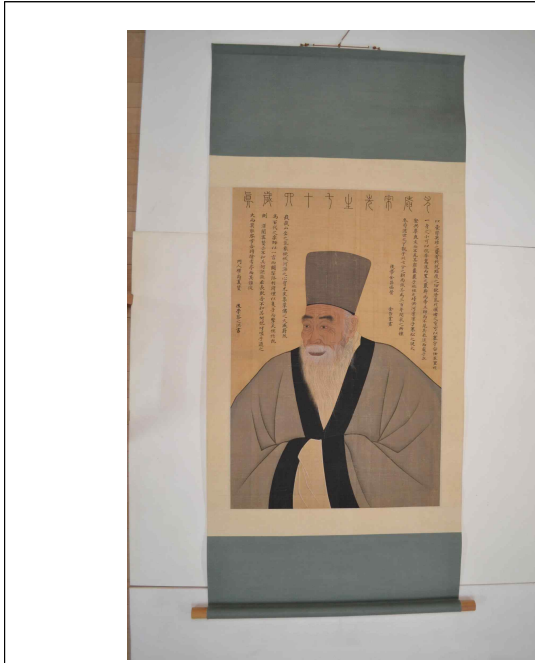
황강영당 정본이 지닌 미술사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송시열은 18세기 이후 노론 문인들의 학문과 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유학자였다. 관복이 아닌 야복차림의 송시열 초상은 주자를 추종하는 학문적 성향과 그 권위를 드러내는 표상이 되어 꾸준히 제작되었다. 송시열 초상이 17세기 후반-20세기까지 전개된 야복초상의 시작점이 된 것이다. 중국의 고대 복식에서 유래한 심의의 형식을 둘러싸고 노론과 남인들의 학문적 해석이 달랐고, 이러한 견해가 초상화 제작에 고스란히 반영되기도 했다. 이렇듯 송시열 초상은 18세기 후반 노론 문인들의 사상과 정치성의 상징물로 인식되며 이후 제작되는 문인 초상화에 범본으로 자리 잡았다.

황강영당 정본에서 발견되는 탄력과 기운을 겸비한 필선, 그윽하지만 맑은 채색법, 간결하면서도 강인한 느낌을 선사하는 구도는 송시열의 깊은 학문 세계와 강직한 정신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국보 제239호로 지정된 국립중앙박물관 정본과 더불어 전신사조(傳神寫照)가 가장 잘 드러난 송시열 초상인 셈이다. 그리하여 황강영당 정본은 송시열 초상의 초본을 따라 그린 모본에서부터 후대 작품에 이르기까지, 동일 인물 초상화의 변화 양상과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 참고문헌

- 심경보, 「조선 후기 深衣 肖像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 이성훈, 「조선 후기 사대부 초상화의 제작 및 봉안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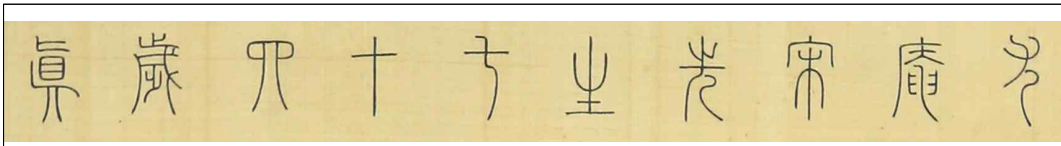
참고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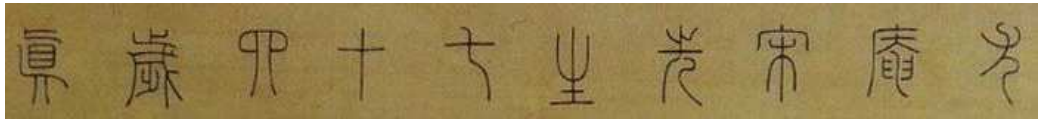
도 1. 김창업 초, 진재해 필(추정), <송시열 초상 정본>, 18세기 초, 비단에 색, 92.5×62.0cm, 황강영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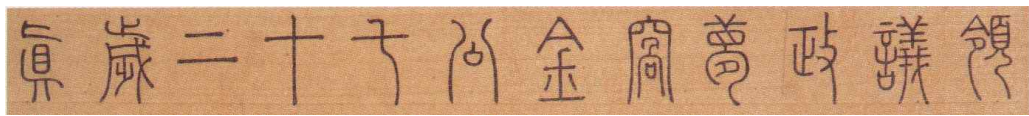
도 2. 김창업 초, 진재해 필, <송시열 초상 정본>, 18세기 초, 비단에 색, 97×60.3cm, 삼성미술관 Le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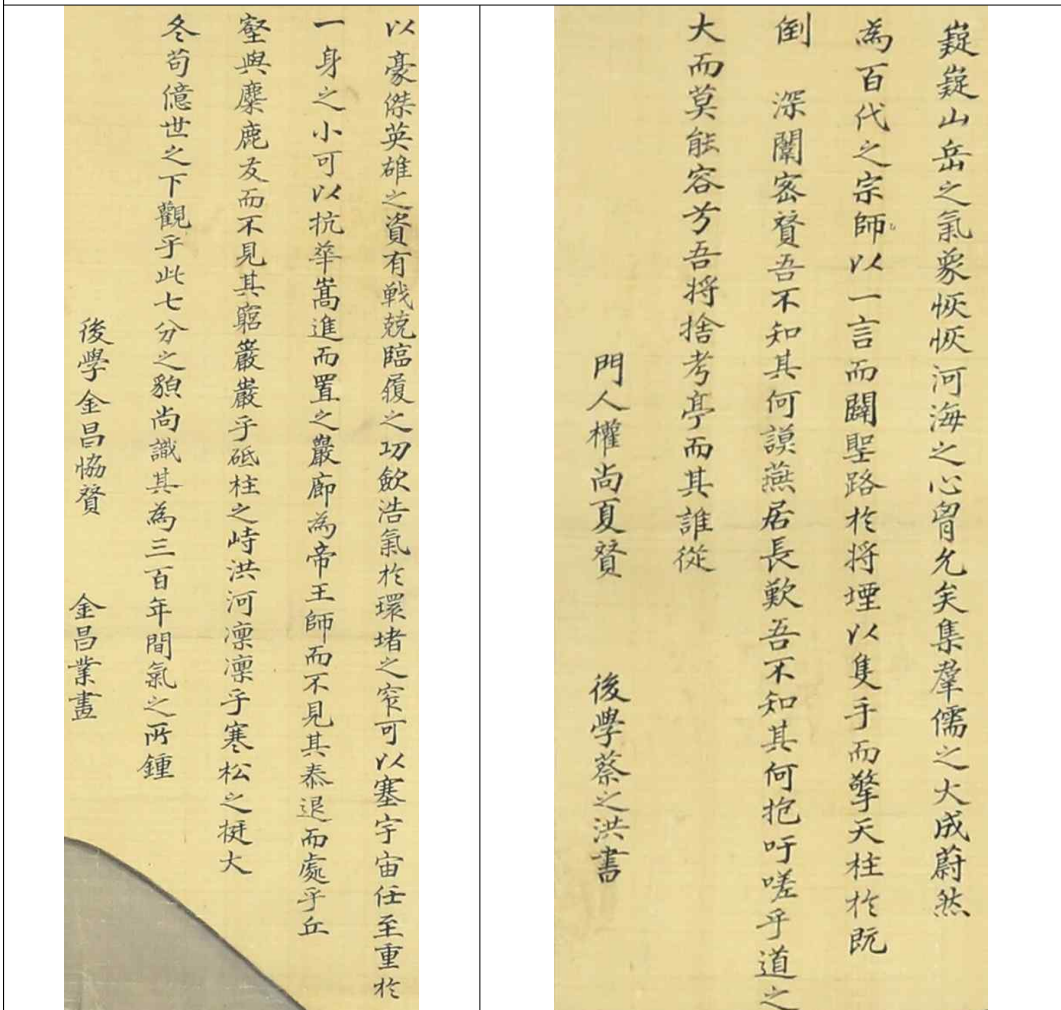
도 1. 황강영당 정본 화제



도 2. 리움 정본 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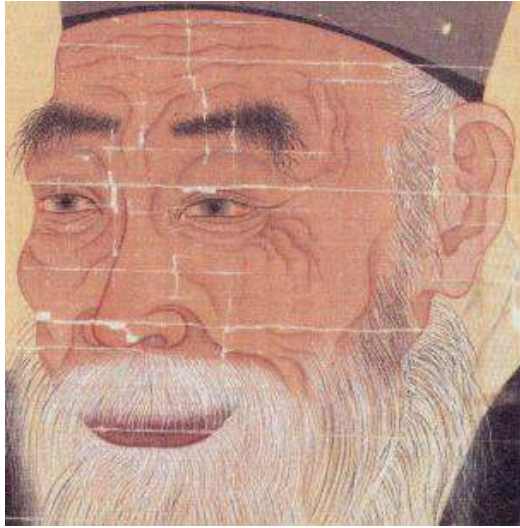


도 3. 《기사계첩》, <김창집 초상> 화제, 1719년



도 1. 김창업 초, 진재해 필(추정), <송시열 초상>부분, 김창협 화상찬

도 1. 김창업 초, 진재해 필(추정), <송시열 초상>부분, 권상하 화상찬



도 1. 김창업 초, 진재해 필(추정), <송시열 초상>(황강영당본) 부분, 얼굴 세부



도 2. 김창업 초, 진재해 필, <송시열 초상>(리움 소장본) 부분, 얼굴 세부



도 4. 김창업, <송시열 초상 초본>



도 5. 작가미상, <송시열 초상>, 조선후기, 비단에 색, 89.7×67.6cm, 국보 제239호, 국립중앙박물관.

□

## ○ 현 상

<송시열 초상>은 송시열(宋時烈, 1629~1711)의 모습이 도해된 초상화이다. 이 초상화는 현재 족자로 장황되어 있다.

송시열 초상의 상단에는 전서체(篆書體)로 “우암송선생칠십사세진(尤庵宋先生七十四歲眞)”이란 화제가 적혀 있다. 이는 이 초상화가 74세 때(1680년)의 송시열의 모습을 도해한 그림임을 알려 준다. 이 초상화에는 김창협(金昌協, 1651-1708)과 권상하(權尙夏, 1641~1721)가 쓴 화상찬(畫像贊)이 화면 상단 좌우에 각각 적혀 있고, 각 화상찬 아래에는 ‘김창업 화(金昌業畫)’, ‘채지홍 서(蔡之洪書)’가 각각 적혀 있다. 김창협과 권상하가 작성한 화상찬은 다음과 같다.

영웅호걸의 자질을 지니고서 / 以英雄豪傑之姿  
깊은 못에 임하듯 얇은 얼음을 밟듯 전전궁궁 근신하는 공을 닦았다 / 有戰兢臨履之工  
좁은 방 안에 모은 호연지기는 / 斂浩氣於環堵之窄  
우주를 채울 만하고 / 可以塞宇宙  
작은 한 몸에 짊어진 막중한 짐은 / 任至重於一身之小  
화산(華山)과 송산(嵩山)에 비길 만하였다 / 可以抗華嵩  
조정에서 불러들여 묘당(廟堂)에 두고 / 進而置之巖廊  
제왕의 스승으로 삼았으나 거만한 기운을 찾아볼 수 없고 / 爲帝王師而不見其泰  
물러나 초야에 처했을 때는 / 退而處乎丘壑  
고라니와 사슴을 벗하였으나 궁색한 기색을 볼 수 없었다 / 與麋鹿友而不見其窮  
하수(河水)의 격류에 우뚝 선 지주(砥柱)처럼 당당하고 / 巖巖乎砥柱之峙洪河  
엄동설한에 홀로 푸른 소나무처럼 늠름하였다 / 凜凜乎寒松之挺大冬  
행여 억만대 이후에 / 苟億世之下  
이 화상을 본다면 / 觀乎此七分之貌  
조선 삼백 년간의 정기가 한 몸에 모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尙識其爲三百年間氣之所鍾  
후학 김창업이 찬하다 / 後學金昌業贊

산악같이 높은 기상이요 / 嶷嶷山嶽之氣像  
하해같이 넓은 심흉이로다 / 恢恢河海之心胸  
진실로 못 유현을 집대성하여 / 允矣集羣儒之大成  
성대히 백 대의 종사가 되시어 / 蔚然爲百代之師宗  
말 한마디로 막혀가는 성로를 열어 놓았고 / 以一言而闢聖路於將堙  
한쪽 손으로 넘어진 천주를 붙들어 놓았네 / 以隻手而擎天柱於旣倒  
깊은 궁궐서 비밀히 찬조한 것은 / 深闈密贊  
무슨 계책이었는지 나는 모르겠고 / 吾不知其何謨

평상시에 길이 탄식한 것은 / 燕居長歎  
 무슨 회포였는지 나는 모르겠다 / 吾不知其何抱  
 아 도가 커서 용납할 수 없어라 / 吁嗟乎道之大而莫能容兮  
 내가 주자를 버리고 누구를 따르리요 / 吾將捨考亭而其誰從  
 문인 권상하가 찬하다 / 門人權尙夏贊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은 숙종 대에 활동한 학자이다. 그의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자는 중화(仲和), 호는 농암(農巖)이다. 그의 증조는 좌의정을 지낸 김상헌(金尙憲), 부친은 영의정을 지낸 김수항(金壽恒)이다. 역시 영의정을 지낸 김창집(金昌集)이 그의 형이다. 1682년에 증광문과에 전시장원으로 급제하여 본격적으로 출사해 여러 관직에 제배되었다. 송시열의 유명(遺命)을 받아 송시열(宋時烈)의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筭疑)』를 권상하와 함께 교정하였다. 청풍부사로 있을 때 기사환국으로 부친 김수항이 진도에서 사사되자 사직하고 영평(永平: 지금의 경기도 포천시)에 은거하였다. 1694년 갑술옥사 이후 아버지가 신원됨에 따라 호조참의, 예조참판, 홍문관제학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직하고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권상하(權尙夏, 1641~1721)의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자는 치도(致道), 호는 수암(遂菴), 한수재(寒水齋)이다. 이이와 김장생으로부터 비롯된 송시열(宋時烈) 학문의 정통 계승자로 평가되는 학자이다. 1674년에 효종의 승하 시(1659년)에 있었던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제 문제가 다시 발생해 스승 송시열이 관작을 박탈당하고 덕원(德源)에 유배되는 불운을 당하게 되자 그는 관계에 진출하는 것을 단념하고 청풍의 산중에 은거하며 학문과 교육에 전념할 것을 결심하였다. 이후 그는 많은 관직에 임명되었으나 그때마다 사직소를 올리고 관로에 나가지 않았다.

김창업의 본관은 안동이며, 자는 대유(大有), 호는 노가재(老稼齋)이다. 부친은 김수항이며, 어려서부터 김창집, 김창협, 김창흠(金昌翕) 등 형들과 함께 학문을 익혔다. 특히 시에 뛰어났다. 어려서부터 그림에 재주가 있어 김원행(金元行)으로부터 그림의 필격이 청진(淸眞)하고 고고(高古)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기(習氣)가 없다는 호평을 들었다.

채지홍의 본관은 인천(仁川), 자는 군범(君範), 호는 봉암(鳳巖)·삼환재(三患齋)·봉계(鳳溪)·사장와(舍藏窩) 등이나. 권상하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동문인 한원진(韓元震), 윤봉구(尹鳳九), 이간(李柬), 윤혼(尹焜) 등과 교유하며 학문을 강론하였다. 스승의 영향으로 평생 과거 공부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송시열 초상에서 송시열은 방건(方巾)처럼 보이지만 그 측면부가 정확히 표현되지 않은 탓에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형태의 회색 건(巾)과 검은 색 연(緣)이 둘러진 회색 포(袍)를 입은 모습으로 재현되었다. 그가 착용한 건과 포는 조선시대

일반 사대부 초상화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 독특한 것으로 보인다. 송시열 초상에서 송시열의 안면은 곳곳에 주름이 깊게 파인 모습으로, 무성하게 자란 그의 수염은 거의 하얗게 섰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 ○ 내용 및 특징

안동권씨 문순공파 종중 소장 <송시열 초상>은 조선 후기 유학자 송시열(宋時烈, 1629~1711)의 모습을 도해한 초상화이다. 송시열은 ‘이이(李珥)-김장생(金長生)’으로 이어져 온 기호 학맥의 적전(嫡傳)으로 ‘공맹(孔孟)-주자’로 계승된 유학적 도통을 조술하고 산림(山林)의 종장으로서 세도(世道)를 자임하며 한 시대의 학문과 사상과 정치를 이끌었던 것으로 평가되는 학자이다. 이러한 이유로 송시열은 그의 사후에도 당시 학계와 정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문묘종사(文廟從祀)’와 ‘원사향사(院祠享祀)’ 등 그에 대한 추송 작업이 조선 말기까지 지속된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1680년에 김창업(金昌業, 1658-1721)은 송시열 초상화 초본을 제작하였다. 송시열의 문집 부록인 『송자대전부록(宋子大全附錄)』 중 연보(年譜)의 「송정칠십년정축(崇禎七十年丁丑)」에는 세 본의 송시열 초상화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 글에는 이 세 본 중 한 본에 대해 “또 하나는 진사(進士) 김창업(金昌業)이 초를 뜬 것을 화사(畫師)가 옮겨 그린 것이다”라 언급된 부분이 있다. 정축년은 송시열이 74세 되던 해인 1680년을 말하므로 김창업이 송시열 초상 초본을 제작한 시점은 바로 이 해이다.

안동권씨 문순공파 종중 소장 <송시열 초상>에 적힌 “김창업 화”의 글 그리고 화면 상단에 적힌 “74세 상”의 화제는 이 초상화가 1680년에 김창업이 제작한 그림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상기의 연보 기록을 1680년에 김창업은 송시열 초상 초본만을 제작했으며 정본 제작은 다른 화사가 수행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정본의 이 초상화는 1680년에 김창업이 그린 초본을 저본으로 하여 그 이후 어느 시점에 어느 화사가 완성한 그림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이 초상화의 주요한 양식적 특징으로 선묘(線描) 위주로 인물의 이목구비가 묘사되어 있는 점과 이로 인해 음영 표현이 안면의 윤곽선과 주름선 주변에만 이루어져 있을 뿐 면 단위로 넓게 적용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주름 표현에는 세선(細線) 없이 굵은 선들이 주로 사용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요소들은 이 초상화의 화가가 송시열 생전에 그의 모습을 직접 보고 이 초상화를 완성한 것이 아니라 송시열 사후에 송시열 종손가 소장 <송시열 초상 초본>과 같이 채색 없이 선묘로만 그려진 초본을 저본으로 하여 이 초상화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있게 한다.

문순공파 종중 소장본의 표현 수법은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송시열 초상>

및 용문영당 소장(현 국립청주박물관 보관) <송시열 초상>의 것과 매우 유사하다. 이 중 Leeum 소장본과 용문영당 소장본은 송시열이 착용한 복식이 심의와 복건으로 동일함은 물론 안면에 음영을 넣은 방식, 안면 주름 및 수염 등을 표현한 방식 그리고 그림의 규격 등이 서로 거의 비슷하다. 문순공과 종중 소장본의 표현 요소들 역시 Leeum 소장본 및 용문영당 소장본의 것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송시열이 착용한 복식만 위 두 본의 것과 다른데,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 의습선의 위치나 수, 모양 등이 위 두 본의 것과 거의 같다. 그 결과 문순공과 종중 소장본이 위 두 본보다 화폭의 가로 길이가 길어서 그 두 본과 정확히 같은 시점에 제작된 그림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 제작 시점은 이 두 점의 것에 매우 근접할 것으로 추정된다.

Leeum 소장본의 우측 하단에는 “후학 안동 김창업이 그리고 부호군 진재해가 모사하였다(後學安東金昌業寫, 副護軍秦再奚摹)”란 글이 적혀 있다. 이 글은 1680년에 김창업이 그린 초상화를 저본으로 하여 진재해(秦再奚, ?-1735)가 이 초상화를 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진재해의 회화 활동은 그가 숙종 어진 제작에 주관화사로 참여한 1713년부터 그의 졸년인 1735년까지에 이르는 시기에 집중된다. 이로 미루어 Leeum 소장본은 적어도 1713년 이후에 제작된 그림으로 추정될 수 있다. 진재해는 일찍이 부사공신도감(扶社功臣都監)으로부터 소론 목호룡(睦虎龍, 1684-1724)의 초상화를 그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그것을 거절한 일이 있었다. 1725년 4월 21일 민진원은 이 일을 거론하며 그를 조용할 것을 영조에게 건의하였다. 이때 영조는 진재해의 이러한 처신을 칭송하였다. 그해 7월 28일 진재해는 격포별장(格浦別將)에 임명되었으나 낙마 사고로 부임하지 못하고 그 직에서 파출(罷黜)되었다. 다시 동년 11월 19일에 그는 부호군(副護軍)에 추천되었다. 송시열의 문인인 정호(鄭澮, 1648-1736)의 후손가에는 1725년 진재해가 그린 정호의 78세 초상화 한 점이 전한다. 이 초상화의 화면 좌측 하단에는 “을사년 부호군 진재해가 그리다(旃蒙大荒落副護軍秦再奚寫)”란 글이 적혀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부호군의 직명이 적힌 Leeum 소장본의 제작 시점 역시 1725년 11월 말 이후 어느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

리움 소장본의 화가가 진재해이므로 이 작품과 동일한 화풍과 양식을 공유한 안동 권씨 문순공과 종중 소장본을 그린 화가 역시 진재해일 가능성은 충분히 제시될 수 있다.

안동권씨 문순공과 종중 <송시열 초상> 상단 좌우에는 권상하와 김창협이 작성한 송시열 화상찬이 적혀 있고, 권상하가 작성한 화상찬 아래에는 그 글씨를 채지홍(蔡之洪, 1683-1741)이 쓴 사실이 간단히 명기되어 있다. 권상하와 김창협은 1696년경에 각자 화상찬을 작성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자문하였다. 그리고



이 초상화에 이 두 편의 화상찬을 쓴 채지홍은 1683년생이므로 그가 이 초상화에 찬문을 서사한 시기는 적어도 1700년 이후로 볼 수 있다. 결국 이 초상화는 진재해가 1725년-1726년경에 그린 Leeum 소장본과 양식적으로 유사한 점 그리고 채지홍이 이 그림에 화상찬을 서사한 시점이 18세기 초인 점으로 미루어 18세기 초에 제작된 본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문순공과 종중 소장의 <송시열 초상>은 <권상하 초상>, <한원진 초상>, <윤봉구 초상>, <권육 초상> 등과 함께 황강서원(黃江書院)에서 보관해 왔던 초상화들 중 한 점이다. 황강서원은 1726년에 권상하를 제향할 목적으로 권상하의 독서 공간이었던 한수재(寒水齋) 바로 인근에 세워졌으며 1727년에 사액을 받았다. 황강서원은 고종 대에 훼손되고 그 이후 복설되었다. 황강서원은 원래 제천시 한수면 황강리에 있었으나 1983년 충주댐 건설로 현 위치(제천시 한수면 송계리)로 이 건되었다. 현재 이 서원은 크게 수암사(遂菴祠)의 사당, 한수재, 황강영당의 세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한수재는 권상하의 구거(舊居)로 서원 훼손 이전에 건립되어 보존된 건물인 반면에 수암사와 황강영당은 서원 복설 때 지어진 건물로 파악된다.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은 1804년에 황강서원을 방문해서 서원 부속 건물 중 하나인 한수재에 보관된 송시열의 74세 상을 참배하였다. 그는 그 초상화가 김창업이 모사(模寫)한 것이며 그 화면에는 김창협과 권상하의 찬(贊)이 적혀 있었다고 말하였다. 성해응의 이러한 증언으로 미루어 성해응이 참배한 송시열의 초상화는 바로 문순공과 종중 소장본일 것으로 여겨진다. 1831년에 충청도 황강서원을 방문한 송달수(宋達洙, 1808-1858)는 한수재에 입실한 후 기록을 남겼다. 그는 먼저 한수재에서 권상하의 초상화에 참배한 뒤 송시열의 초상화를 궤에서 꺼내어 벽에 걸고 봉심하였다. 송달수는 자신이 참배한 송시열 초상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황강서원을 방문한 시점이 성해응이 방문한 시점과 크게 차이하지 않으므로 그가 본 송시열 초상화 역시 문순공과 종중 소장본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성해응과 송달수에 앞서 원경하(元景夏, 1698-1761)가 1728년에 한수재를 방문해 송시열의 초상화를 참배한 일이 있었다. 원경하가 본 초상화가 문순공과 종중 소장 <송시열 초상>이 아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 초상화가 적어도 1728년 이전에는 한수재에 보관되어 있었을 가능성 역시 원경하의 기록으로 제시할 수 있다.

권상하의 조카인 권섭(權燮, 1671-1759) 등은 1725년경 백부(권상하)가 졸한 뒤 한수재 내 한 당(堂)에 그의 초상을 봉안하고 황강영당(黃江影堂)이라 명명하였다 [현재의 황강영당은 한수재 옆에 별도로 건립된 한 건물의 명칭이지만, 이때 권섭이 조성한 황강영당은 한수재 내의 한 방에 마련되었던 것의 명칭으로 여겨진다].

권섭은 그 영당 내에 백부가 썼던 붓, 벼루, 궤장, 나무잔을 좌우에 두는 한편으로 여러 기명(器皿)과 서책은 벽감에 보관하고 시령은 그대로 두었다. 또한 권상하보다 앞서 졸한 백부의 아들 권욱(權煜, 1658-1717)의 초상화를 그 옆 벽에 걸어두었다. 이때 권섭은 만일 권상하의 문인 중 그의 도를 계승한 이가 있으면 그 문인의 초상화를 그 당에 봉안할 것이라 말하고 또한 학문을 연마하는 후손 및 문인들이 그를 모시고 그의 가르침을 듣는 듯한 모습을 연출할 것이라 말도 덧붙였다. 이때 그는 송시열 초상화의 봉안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록들은 문순공파 종종 소장 <송시열 초상>이 한수재에 보관된 때가 황강서원이 건립되고 사액을 받은 시점인 1726-1727년 무렵이며 그 제작 시점 역시 바로 이 무렵으로 볼 수 있게 만든다. 그러나 권상하가 자신의 생전, 즉 1719년 이전에 자신의 선사를 추모하고 기릴 목적으로 이 초상화를 입수해 소장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결국 <송시열 초상>의 양식적 특징 및 유전 내력으로 볼 때 이 초상화의 제작 시점은 좁게는 1725-1727년, 그리고 이보다 좀 더 넓게는 1713-1735년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 문헌자료

- 『宋子大全附錄』 卷11, 年譜十 「崇禎七十年丁丑」  
 『承政院日記』 32冊, 英祖1年 4月21日條  
 『承政院日記』 32冊, 英祖1年 7月28日條  
 『承政院日記』 33冊, 英祖1年 11月19日條  
 宋達洙, 『守宗齋集』 卷7, 雜著, 「江巖奉審錄」  
 權燮, 『玉所稿』, 文1 「黃江影堂記」  
 成海應, 『研經齋全集』 卷9, 文一〇記, 「丹陽山水記」  
 元景夏, 『蒼霞集』 卷7, 記 「入東峽記」  
 국립청주박물관 편, 『우암 송시열』, 국립청주박물관, 2007.  
 국립중앙박물관 편, 『초상화의 비밀』, 국립중앙박물관, 2011.  
 강관식, 「우암 송시열의 화상 기문과 주자성리학적 영정 제의관」, 『美術史學』 33, 2017.  
 이성훈, 「조선 후기 사대부 초상화의 제작 및 봉안 연구」, 서울대박사논문, 2019.  
 조선미, 『韓國의 肖像畫』, 悅話堂, 1983.  
 조선미, 『韓國의 초상화, 形과 影의 예술』, 돌베개, 2009  
 韓基範, 「우암 송시열에 대한 후대인의 추승과 평가」, 『韓國思想과 文化』 42, 2008.

## 15. 권상하 초상 및 초본 (權尙夏 肖像 및 草本)

### 가. 검토사항

‘권상하 초상 및 초본’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권상하 초상 및 초본’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8.12.14)이 있어 관계 전문가 조사('20.8.25./9.25./10.22.) 및 과학조사('20.9.25.)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 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33호(2012.7.6.지정)
- 명 칭 : 권상하 초상 및 초본(權尙夏 肖像 및 草本)
- 소유자(관리자) : ① 전신좌상1·복건본 초본·사방건본 초본 :  
안동권씨 문순공파 종중(제천의림지 역사박물관)  
② 전신좌상2 : 안동권씨 연잠공파 종중(제천의림지 역사박물관)
- 소재지 :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47길 7, 제천의림지 역사박물관
- 수 량 : 4점
- 규 격 : ① 전신좌상1 : 129.2×91.5cm(화면), 203.2×104.3cm(족자)  
② 전신좌상2 : 134.5×91.6cm(화면), 185.7×112.1cm(족자)  
③ 복건본 초본 : 56.5×41.1cm  
④ 사방건본 초본 : 79.2×60.5cm
- 재 질 : ① 전신상 : 비단에 채색, ② 초본 : 유지에 채색
- 형 식 : ① 전신상 : 족자, ② 초본: 날장
- 조성연대 : 조선 후기

○ 제 작 자 : ① 전신좌상1 : 金振汝, ② 전신좌상2 및 초본 : 미상



<권상하 초상>(전신좌상1)



<권상하 초상>(전신좌상2)



<권상하 초상>(복건본 초본)



<권상하 초상>(사방건 초본)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보류)

- <권상하 초상 일괄>은 조선시대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권상하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당시 소개되었던 서양화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중요한 작품 및 이와 관련된 초본과 이모본이다.

- 조선 후기 유복본 초상화의 발달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던 전신좌상 및 그 제작과 전승을 알려주기에 회화사적 의의가 크다.
- 다만 그 성격을 좀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명기의 이모본을 추가로 조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

### ○ (보류)

1. 권상하(權尙夏, 1641-1721)를 그린 초상화 정본 2점과 초본 2점은 송시열의 학통을 계승한 대표적 제자임을 알려주는 시각자료로서 역사적, 회화사적 가치를 지닌다.
2. 화원 김진여가 그린 <권상하 초상>(문순공파)의 얼굴 표현은 선묘 위주의 전통적인 초상화법과는 다르며, 부드러운 필선과 선염에 의존하는 화법으로 안면의 볼록한 부분을 밝게 처리하여 인물의 사실성을 배가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안면 표현법과 심의 표면을 흰색의 물결무늬로 그려낸 독특한 기법은 전례를 찾기 어려우므로 보물 지정에 앞서 좀 더 표현기법의 연원이나 제작시기의 선후관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화원 이명기(李命基, 1756-1813 이전)가 김진여의 <권상하 초상>를 임모한 작품이 삼성미술관 리움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 작품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 ○ (지정 가치 있음)

권상하 초상의 복식은 조카 권섭의 『옥소고』에 보이는 “우암선생 야복제도”에 일치하는 야복 착장 모습으로, 이러한 기록의 복제를 초상으로 표현한 사례는 권상하 초상 외에는 거의 없다. 노론계 권섭의 『옥소집』 기록과 함께 17~18세기 야복 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초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보존상태도 양호하고 장황의 문양으로 볼 때 18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 (보류)

- 권상하 초상 정본 및 초본(權尙夏 肖像 정본 및 草本) 4점은 관료가 아닌 유학자 권상하의 모습을 포착한 작품이다. 정본 2점은 심의(深衣)와 복건을 갖추고 공수(拱手) 자세로 바닥에 앉아 있는 전신부좌상(全身跏趺坐像)이다. 초본 2점은 심의와 복건을 갖추었거나, 도포에 방건을 갖춘 반신상이다. 이렇듯 관복 초상이 아닌 심의 초상은 주자-이이-송시열-권상하의 학통을 상징하는 시각물이다.

- 4점의 유물 가운데, 문순공과 정본에는 도화서 화원 김진여가 1719년에 그렸다는 관지가 있어, 초상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준다. 화원 김진여가 79세의 권상하를 그린 것이다. 그러나 얼굴에 피부색을 덧입힌 흔적이 발견되고 일부 의습선이나 옷주름의 붓질이 뭉개져 있어, 초상화가 완성된 이후, 누군가에 의해 보필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연잠공과 정본은 원형이 제대로 보전되어 있다.
- 유지에 채색으로 완성된 초본 2점은 상태가 양호하다. 기존의 학설에서는 이 2점이 정본 제작을 위해 먼저 그린 초본으로 보았다. 그러나 정본과 비교해 보면, 입체감 표현이 더욱 노골적이며 이목구비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어, 오히려 정본 보다 나중에 그렸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즉 정본 제작을 위한 초본이 아니라, 비단에 채색으로 완성된 정본을 보고 베껴 그린 초본일 수 있는 것이다.
- 문순공과 정본은 보필의 흔적이 농후하고, 연잠공과 정본은 박락이 심하다. 초본 2점도 정본보다 늦게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문순공과 정본을 제외한 3점은 누가 그렸는지 알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권상하 초상 정본 및 초본과 삼성미술관 리움에 소장된 이명기 필 <권상하 초상>과의 면밀한 비교 분석이 절실하다.
-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상하 초상 정본 및 초본에는 송시열을 추모, 숭양하는 권상하의 정체성이 반영되어 있다. 즉 노론계의 학통을 입증하는 시각물인 셈이다. 따라서 이 작품군의 지정 여부에는 동종 문화재와의 비교 분석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 작품군의 보물 지정이 보류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 (보류)

안동권씨 문순공과 및 연잠공과 종종 소장 ‘권상하 초상 및 초본 일괄’은 조선후기의 노론 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평가되는 권상하의 모습이 재현된 그림이라는 점 외에 권상하 및 그의 조카 권섭의 직계 후손 집안에서 대대로 보관해 온 초상화들이란 점에서 높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이 초상화들 중 문순공과 종종 소장 <권상하 초상(79세 상)>은 18세기 전반 서양화법을 적용하여 독특한 초상화풍을 창안해 구사한 김진여의 작품임이 그 그림에 명시된 점에서 미술사적 가치 또한 높다. 그러나 심의의 흰색 선 표현의 의미나 그 성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선들은 다른 권상하 초상화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아 후대에 가필된 것으로도 의심된다. 또한 인물의 무릎 주변에 채색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심의의 일부 부분은 이 그림을 미완성된 것으로 보게 만든다. 다음으로 연잠공과 종종 소장 <권상하 초상(79세 상)> 역시 소장 내력이 분명하고 그 화격이 높아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 그림의 작가나 제작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 없어 향후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초상화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의문 사항들은 향후 문순공과 종종 소장본의 이모본으로 추정되는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권상하 초상> 등 다른 권상하 초상화의 비교 분석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분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연잠공과 종종 소장본은 현재 화면 상태나 장황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 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진 후에야 이 초상화들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작업을 재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마. 의결사항

- 보 류 : 관련 자료 추가조사 필요

조사보고서



#### 1. 문순공과 전신좌상(전신좌상 1)

- 한 점 내리단이 족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전에는 유리액자 형태였는데, 2014년 12월부터 2016년 3월에 걸쳐 장황문화재연구소에서 보존처리를 거치면서 전통적인 족자 형태로 바뀌었다. 이 과정을 통해 꺾임흔적 및 미세한 결손 부분을 메움처리하고 색맞춤을 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원래 현상의 큰 변형이 없이 이루어졌다. 보존처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발간된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
- 이음새 없는 한 장의 비단을 화면으로 사용하여 검은 복건을 쓰고 검은색으로 깃과 소매부리의 가장자리를 두른 심의를 입은 채, 두 손을 맞잡아 소매 속에 넣은 전신좌상 인물을 묘사했다. 허리에는 흰색 대대를 매고 있으며 검은 가장자리가 있는 고름이 길게 늘어져 있다. 희끗희끗한 콧수염과 턱수염이 강조된 얼굴을 화면 왼편을 향하여 약간 돌린 자세이다. 심의에는 희고 가는 여러 선을 물결처럼 평행으로 그어 표현했다.
- 화면 상단에는 표제에 해당하는 “寒水翁七十九世眞”을 해서체의 묵서로 적었는데 별도의 가로 구분선은 없다. 초상화의 주인공은 권상하(權尙夏, 1641-1721)이며 그가 79세 때의 모습을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화면 오른쪽 중간에는 “己亥 四月日 畫師金振汝摹”라고 쓰여 있어 화원 김진여(金振汝, 1675-1760)가 1719년에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 그림은 매우 양호한 상태이다.

## 2. 연잠공파 전신좌상(전신좌상 2)

- 한 점 내리닫이 족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상하축과 붉은 유소가 남아 있으며, 하축의 양쪽 축수는 결실되었다. 상축 반달에는 유소를 묶는 금구가 두 곳에 있는데 원래의 것으로 생각된다.
- 화면의 우측 1/3 지점에 결봉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어 두 장의 비단을 잇대어 화면으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인물의 묘사는 <문순공파 전신좌상>과 거의 같으나, 옷주름 필선이 더 굵고 심의에 흰선의 문양은 없다. 바닥에 돛자리가 깔려있는 것도 차이점이다.
- 화면을 둘러싼 회장의 윗부분에 표제에 해당하는 “寒水先生眞像”을 해서체로 적었는데 묵서로 보이지 않고 현대의 필기구로 적은 것처럼 보인다.
- 그림은 여기저기 가로격임이 심하고, 표면 박락 등으로 보존 상태가 좋지 않다.

## 3. 복건본 초본

- 복건을 쓴 인물의 상반신을 화면 왼편에 약간 치우쳐 그렸다.
- 유지에 유탄과 먹을 이용하여 그렸는데, 얼굴 부분에는 채색을 더했으며, 뒷면에는 배채를 했다.
- 약간의 꺾임과 노화가 나타나지만 초본으로서 상태는 양호하다.

## 4. 사방건본 초본

- 사방건을 쓴 인물의 상반신을 그렸다.
- 유지에 유탄과 먹을 이용하여 그렸는데, 모자, 얼굴, 옷 부분에는 채색을 더했으며, 뒷면에는 배채를 했다.
- 약간의 꺾임과 노화가 나타나며, 오염이 있고 주름이 접혀 상태가 좋지 않다.

### ○ 내용 및 특징

- 권상하(權尙夏, 1641-1721)는 조선 후기의 성리학자로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치도(致道), 호는 수암(遂菴), 한수재(寒水齋), 문순(文純) 등이다.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수제자로 기호학과(畿湖學派)의 계승자이다. 숙종(肅宗)이 좌의정에 임명하였으나 사양하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특히 당쟁의 와중에서 스승 송시열이 사사당한 후, 그의 유지를 받들어 화양동에 만동묘(萬東廟)와 대보단(大報壇)을 세웠다.
- <문순공파 전신좌상>을 그린 김진여(金振汝, 1675-1760)는 숙종 대에 활약했던



평양 출신 화가로, 초상화를 잘 그려서 숙종의 어진을 그릴 때도 참여하였다고 한다. 이 작품의 얼굴을 살펴보면 필선보다는 선염을 위주로 눈언저리, 코 주변, 뺨 등을 어둡게 하여 입체감을 표현하였다. 옷주름을 나타내는 필선에도 음영효과를 강조했다. 이것은 중국을 거쳐 들어온 서양화의 명암 처리 기법을 사용한 것인데 얼굴의 경우 색이 다소 짙어져 탁하게 보인다. 의복에는 특이하게도 가는 흰 선을 촘촘하게 물결무늬처럼 그렸는데 회고 가는 베의 질감을 나타낸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문순공파 전신좌상>이 전해져 내려온 경위를 살펴보면 권상하는 1675년 충청도 제천의 황강으로 이주했고 1686년에 한수재(寒水齋)를 건립했으며,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조카 권섭(權燮, 1671-1759)이 1725년 한수재 내에 권상하의 초상을 봉안하고 황강영당(黃江影堂)이라 이름했다. 이후 1726년 송시열과 권상하를 제향하기 위해서 황강서원(黃江書院)은 세워졌고, 이듬해 사액을 받았다. 서원과는 별도로 한수재 내에 공간을 마련해 황강영당이라 하고, 어느 시점부터는 송시열의 초상화도 함께 모셨던 것으로 보인다. 19세기에 한수재를 방문한 후학들이 송시열과 권상하의 초상을 봉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는 후학들인 한원진(韓元震, 1682-1751), 윤봉구(尹鳳九, 1683-1767) 등의 초상화도 함께 보관되기 시작했다. 이 작품은 2012년 7월 6일 충청북도 유형 문화재 제 333호로 지정되었다.

-<연잠공파 전신좌상>의 경우 권섭의 집안에 전해 내려온 작품이다. 얼굴 묘사를 보면 <문순공파> 초상과 매우 흡사하여 동시에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심의 표현에서는 초상화에서는 보기 드물게 비수가 강하며 활달한 필선이 사용되어 18세기 초반으로 비정하기는 어렵다. 후대 이모본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두 초본은 모두 권섭 집안에 전해 내려온 것인데, 같이 그려지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두 초본의 크기도 다르고, 얼굴 모습에서도 차이가 난다. 복건본의 경우 김진여의 초상화와 비슷한 반면, 사방건본의 경우 또 다른 권상하 초상화와 닮았다. 두 초본은 어쩌면 <연잠공파 전신좌상>을 제작하기 위한 밑그림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문순공파 전신좌상>을 원본으로 삼아서 복건본 초본을 제작한 것을 바탕으로 <연잠공파 전신좌상>을 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권상하 초상으로는 후대에 이명기(李命基, 1756-1802)가 다시 이모한 작품도 전해지고 있다. 이 작품에는 상단에 “文純公寒水齋權先生七十九歲眞”이라고 해서체의 목서와 작은 글씨로 적혀있고 화면 오른쪽 가운데 “畫師 金振汝寫 前 察訪李命基摹”라고 쓰여 있다. 인물의 모습과 의복의 묘사는 <문순공파 전신좌상>과 흡사하며, 옷의 흰선 물결무늬와 바닥의 돛자리는 표현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천의 권상하 초상화 일괄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명기

가 이모한 초상화를 추가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초상화의 비밀』 (국립중앙박물관, 2011)

『유학자 관복을 벗다』 (대전 시립 박물관, 2014)

문동수, 「옥애 김진여(1675-1760)와 18세기 전반 초상화의 일변」, 『미술자료』 81, (2012)

□

○ 현 상

- 문순공파의 김진여가 그린 <권상하 초상> 1점과 초본 2점, 연잠공파(권섭 집안)의 <권상하 초상> 1점(목제함 포함)으로 총 4점임

 <p>김진여, &lt;권상하 초상&gt;, 1719년, 비단에 채색, 134.5×91.6cm, 문순공파</p>	 <p>2014.12.10.-2016.03.26. 보존처리시에 축으로 개장됨,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33호)</p>	 <p>작가미상, &lt;권상하 초상&gt;, 조선 후기, 비단에 채색, 126.3×91.5cm, 연잠공파(권섭)</p>	 <p>작가미상, &lt;권상하 초상&gt;, 186×110.8cm, 연잠공파</p>  <p>목제함</p>
--	--	--	--

 <p>작가미상, &lt;권상하 초본&gt;(앞면), 종이에 채색, 문순공파</p>	 <p>작가미상, &lt;권상하 초본&gt;(뒷면)</p>	 <p>작가미상, &lt;권상하 초본&gt;(앞면), 유지에 채색, 문순공파</p>	 <p>작가미상, &lt;권상하 초본&gt;(뒷면)</p>
---	---	--	---

- 문순공파의 김진여가 그린 <권상하(權尙夏, 1641-1721) 초상>은 심의(深衣)의 윤곽선을 따라 훼손된 곳들이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함
- 화면 상단에 해서로 써어 있는 “한수옹칠십구세진(寒水翁七十九歲眞)”이라는 제기와 오른쪽 중간 끝부분의 “기해사월일 화사김진여모(己亥四月日 畫師金振汝摹)”라는 관지(款識)는 권상하 79세의 모습을 화원 김진여(金振汝, 1675-1760)가 그렸다는 사실을 알려줌
- 스승인 송시열의 야복본 초상화를 이어 검은색 복건에 흰색 심의를 착용하여 학통을 계승하였음을 보여주며, 심의 표면에 흰색 안료로 정교하게 그려낸 물결 무늬는 다른 초상화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표현으로 주목됨
- 작가미상의 <권상하 초상>(연잡공파)은 권상하 조카 권섭(權燮, 1671-1759) 집안에 가전(家傳)된 것으로 손상된 부위가 많아 복원 보존이 필요함
- 얼굴 표현이나 심의의 옷주름을 먹선으로 활달하게 묘사한 것은 김진여가 그린 것과 거의 유사하지만, 바닥에 깔려 있는 무늬 없는 화문석은 문인의 검소함을 드러내기 위해 그려진 것이라 추정됨
- 김진여의 <권상하 초상> 정본 이외에 초본 2점이 현전하는데, 복건 초본은 김진여에 의해 그려진 정본의 밑그림으로 추정되지만, 사방건 초본은 주름과 검버섯이 적어 79세 이전의 모습이라 생각되므로 면밀한 조사 검토가 필요함

### ○ 내용 및 특징

- <권상하 초상> 2점은 좌안칠분면(左顔七分面)에 공수를 하고 앉아 있는 전신부좌상(全身跏趺坐像)이며, 검은색 복건과 흰색 심의는 송시열 초상화의 야복본(野服本) 전통을 따른 것으로 권상하가 스승의 학통을 이은 제자임을 알려주는 대 표적  
시각자료임



- 김진여의 <권상하 초상>은 안면의 이목구비를 부드러운 필선과 선염으로 정교하게 묘사하였는데, 특히 눈의 윗부분을 날렵한 먹선으로 경계를 명확히 하였고, 눈이나 광대뼈 등 볼록한 부분에 흰색 안료를 더하여 입체감을 강조하는 사실적 묘사는 권상하의 강직한 성품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줌



- 김진여의 안면 표현법은 선묘 위주의 전통적인 초상화법과는 다른 것으로 서양화법의 수용을 보여주며, 그가 1719-1720년에 제작한 《기해기사첩(己亥耆社帖)》의 <신임(申鎰, 1639-1725) 초상>에서도 동일한 기법을 사용하였지만 다소 소극적이며 눈 윗부분에 먹선으로 아이라인을 그린 것은 동일함
- 얼굴의 정교한 표현과 대조적으로 심의를 착용한 몸체는 도석인물화에서 보이는 굵고 각이 진 선묘로 빠르게 그려내었으며, 심의의 검은색 교의가 명치 아래까지 'V'자 형태로 내려오고 하얀 허리띠의 리본 매듭 아래로 검은색 테두리가

있는 광다화가 반대로 흘러내리며 안정적으로 구도를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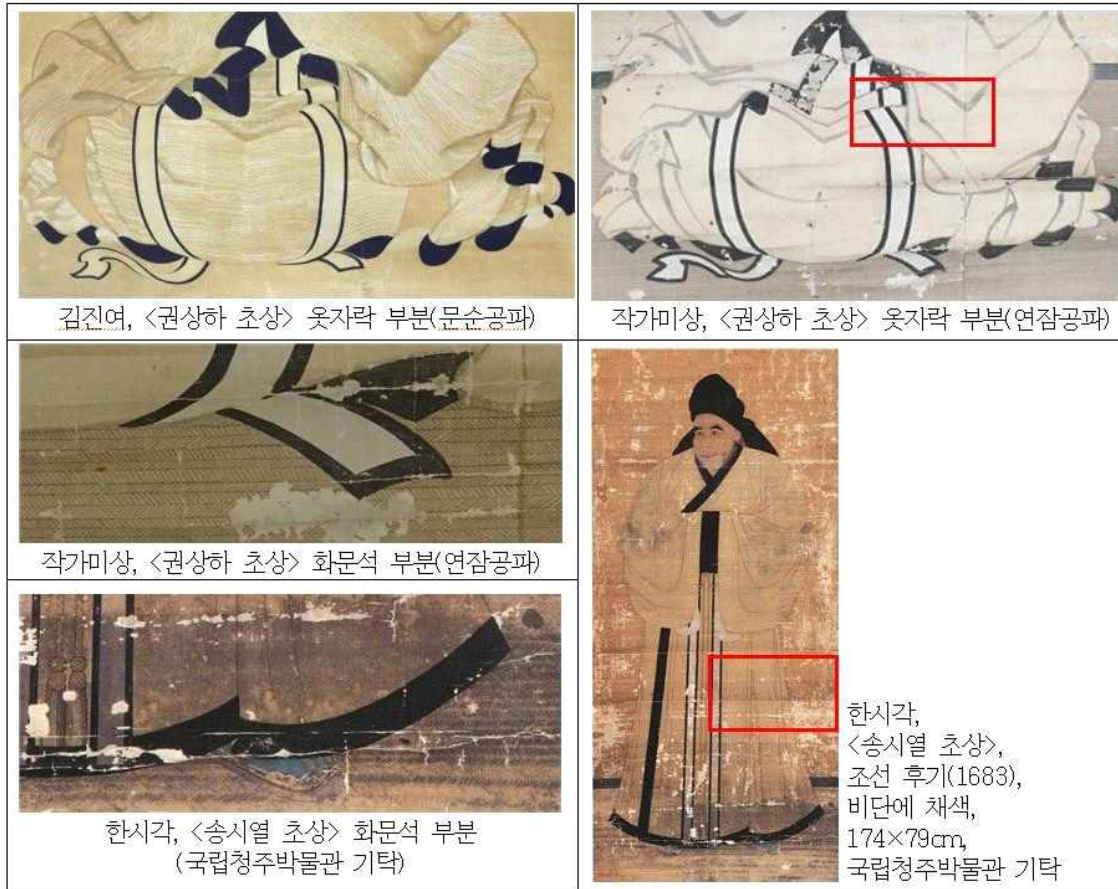
- 심의 표면에 흰색 안료로 섬세하게 그려낸 물결 모양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표현이며, 심의 옷자락이 안쪽으로 말리면서 검은색 끝단이 율동적으로 그려지면서 화면에 생동감을 부여함



김진여, <권상하 초상>, 1719년, 문순공파

김진여, <권상하 초상>, 1719년, 조선사편수회가 1925.6-1945.8.15. 사이에 촬영한 유리원판

- 일제강점기에 조선사편수회가 충북 제천군 한수면 용강리의 權相益(1867-1954)이 소장하던 <권상하 초상>을 촬영한 유리원판(국사편찬위원회 소장)은 김진여의 작품에 최근 후보(後輔)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줌
- 작가미상의 <권상하 초상>에서 얼굴에 선염을 위주로 하면서 눈이나 광대뼈 등 볼록한 부분에 흰색 안료를 더하여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과 굵은 먹선으로 의습선과 옷주름을 자유분방하게 표현한 것은 김진여가 그린 것과 유사하고, 하단의 심의가 안쪽으로 말리면서 검은색 끝단의 율동감이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아 김진여가 그린 초상을 나중에 임모한 것으로 추정됨
- 작기미상의 <권상하 초상>은 무늬 없는 화문석이 하단에 그려져 있으며, 이와 동일한 화문석은 국립청주박물관에 기탁되어 있는 한시각이 그린 <송시열 초상>(1863)의 하단에도 그려져 있음



- 권상하는 송시열의 학풍을 계승한 대표적 제자이며, 1694년 갑술환국으로 송시열의 신원이 복권된 이후인 1710년대부터 송시열을 추송하는 분위기가 고조되며 야복본 <송시열 초상>이 적극 이모되기 시작하였는데, <권상하 초상> 2점과 초본 2점은 그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임
- 복건 초본은 김진여가 그린 초상화 정본의 밑그림으로 보이지만, 사방건 초본은 선묘 위주로 그려지면서 안면의 굴곡을 하이라이트로 처리한 것이나 눈꺼풀에 아이라인을 그린 것 등으로 보아 후대에 모사된 것이라 추정됨

#### ○ 문헌자료

- 국립청주박물관 편, 『화양서원과 만동묘』, 2011.
- 국립중앙박물관 편, 『초상화의 비밀』, 2011.
- 문동수, 「속애 김진여(1675-1760)와 18세기 전반 초상화의 일변」, 『美術資料』 81, 2012, pp.
- 「도지정문화재(초상화) 보존처리 용역: 우암 송시열 초상, 수암 권상하 초상」 2014.12.10-2016.03.26, 제천시·장항문화재연구소, 2016.

○ 기 타

- 장항문화재연구소에서 2014년 12월 10일부터 2016년 3월 26일 사이에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32호인 <송시열 초상>과 제333호인 <권상하 초상>을 보존처리하면서 클리닝을 하였고, 액자 상태 이전에 축(軸)이었음을 확인하고 2점을 다시 축으로 장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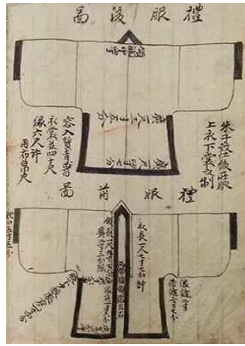
<전신상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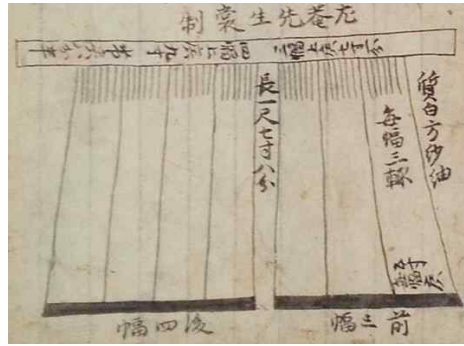
<권상하 초상>(전신좌상 1)

○ 내용 및 특징

- 수암 권상하(1641~1721)의 영정으로 안동권씨 문순공파 중중이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산 33번지 황강영당에 모시다가 제천지역사박물관에 기탁함.
- 1719년(숙종 45) 권상하 79세 때 관서 화사 김진여(金振汝, ??)가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음. 장황을 새로 한 것으로 짐작됨. 상태 양호함.
- 초상에 묘사된 복장은 심의(深衣)로 알려져 있으나 예복 현단복(玄端服)임. 초상의 하단 좌우 무릎 부분의 트임으로 걸감보다 누런 빛을 띠고 있는 속옷이 보임. 이는 치마가 양 옆이 트였기 때문인데 전후 두 조각으로 분리되는 전후상(前後裳, 전3폭 후4폭)임.
- 치마의 옆선에는 흑선이 없고 하단에만 흑선이 있는데 이는 권섭(權燮, 1671~1759)의 『옥소고(玉所稿)』에 우암선생의 예복(禮服) 치마 제도[裳制]라고 명시되어 있는 복제(服制)와 동일함.
- 허리에는 허리 묶음 아래로 늘어진 신(紳) 부분에만 흑선을 두른 심의용 대대와 같은 형태의 대대를 두름. 단 심의 대대에 함께 사용하는 채조(綵組)는 사용하지 않음. 이 역시 권섭의 예복용 대대제도와 일치함.



禮服前·後圖



尤庵先生裳制



大帶

【그림 4】權變의 『玉所稿』 禮服制度

- 권상하의 현단에 표현된 줄무늬는 당시 현단에 사용한 소재의 시각적 특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가로 방향으로 규칙적으로 굵은 선을 표현한 것이 특징임. ①굵은 위사를 사용하여 위사가 강조되었거나 ②위사에 경사와 같은 실과 그보다 밝은 색상의 실을 규칙적으로 반복 사용하여 직조한 교직의 가능성 등이 있음.
- 초상에 표현된 복식 종류는 확인할 수 있었으나 초상의 정확한 제작 시기의 단서는 확인할 수 없었음.



전신상1

현단에 표현된 줄무늬



교직 1



교직 2



<전신상 2>



<권상하 초상>(전신상 2)

- 권상하의 초상 ‘寒水先生眞像’은 대대에 채조가 없고 왼팔 아래로 치마 하단의 흑연이 보이는 것으로 볼 때 심의가 아닌, 현단복을 복건과 함께 착용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음.
- 황강영당본 초상보다는 복식 표현이 섬세하지는 않으나 장황의 문양으로 볼 때 권상하 생시에 그렸을 가능성이 큰 초상으로 판단됨.
- 화문단으로 장황한 것으로 보아 늦어도 1746년(영조 22) 문단 금령 이전에 장황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음. 남색 회장[上回裝]과 백색 회장 모두 부분은 18세기 유행한 석류화문단(石榴花紋緞), 연화문단(蓮花紋緞)으로 확인됨(그림 9).
- 남색 석류화문단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남오성(南五星, 1643~1712) 묘 출토 지요[地褥] 문양(그림 10)과 유사하고 백색 연화문단 역시 남오성 묘 이불깃 문양(그림 11)과 유사함.
- 따라서 장황 시기는 18세기 전기로 판단됨.



전신상 2

회장 문양(남색 회장 석류화문단, 백색 회장 연화문단)



남오성(1643~1712) 묘 지요 문양



남오성(1643~1712) 묘 이불깃 문양

<복건본 초상>



<권상하 초상(복건본)>

○ 내용 및 특징

- 권상하의 반신 소형 초상으로, 복건에 예복 현단복을 착용한 모습임. 앞선 대형본과 형태는 유사하나 얼굴과 가슴 부분만 간략하게 표현하였음.
- 허리띠는 대대를 묘사하고 있는데 윗부분만 보이도록 그림.

<사방건본 초상>



권상하 초상-방건본(좌)과 허리띠(우)

○ 내용 및 특징

- 권상하의 반신 초상으로 방건(方巾)에 도포로 추정되는 대수포를 착용하고 있음.
- 허리띠는 소색 조대(條帶)를 묘사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조대 묶는 방법과 달리, 대대처럼 좌우로 고리를 내어 묶었음.

□

○ 현 상

이번에 조사한 유물은 수암(遂菴) 권상하(權尙夏, 1641-1721)의 초상 정본 2점과 초상 초본 2점이다. 옥에 김진여(玉厓 金振汝, 1675-1760)가 그린 것으로 알려진 <권상하 초상> 정본은 <송시열 초상>과 함께 수암 권상하 후손 집안인 안동 권씨 문순공(文純公)과가 위탁한 유물이다. <권상하 초상> 정본과 <권상하 초상 초본> 2점은 권상하의 조카인 옥소(玉所) 권섭(權燮, 1671-1759)의 후손인 연잠공(淵潛公)과가 위탁한 유물이다.

1. <권상하 초상> 정본 (문순공과 정본)

흰색과 검은 색이 대비되는 심의(深衣)와 복건을 갖추고 공수(拱手) 자세로 바닥에 앉아 있는 전신부좌상(全身跏趺坐像) 정본이다. 얼굴은 좌안칠분면(左顔七分)

面)이나 몸체는 거의 정면시(正面視)에 가깝다. 화면 상단에 “한수옹칠십구세진(寒水翁七十九世眞)”이라는 화제(畫題)와, 화면 우측에 “기해사월일 화사김진여모(己亥四月日 畫師金振汝摹)”라는 관지가 해서체로 적혀 있어, 1719년에 화원 김진여가 79세의 권상하를 그렸음을 알 수 있다. 진한 녹색을 띤 장황 비단의 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바탕 비단과 시간차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작품 제작 이후에 다시 개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 1) 화제와 관지

화면 우측에 세로로 적힌 “기해사월일 화사김진여모(己亥四月日 畫師金振汝摹)”는 바탕 비단이 박락되어 일부 글자가 제대로 안 보인다. 반면 화면 상단에 가로로 적힌 “한수옹칠십구세진(寒水翁七十九世眞)”은 비단이 박락된 이후에 필사된 듯 글씨체가 온전하다. 따라서 가로의 화제는 후서(後書)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 2) 얼굴

얼굴 전체에 피부색을 두텁게 후채(後彩)한 다음, 앞면에서 이목구비를 입체적으로 묘사했다. 얼굴의 중앙부는 붉은 색을 칠하고, 뺨 등은 어두운 색을 칠하여 얼굴의 입체감을 드러냈다. 윤곽선과 주름은 적갈색 세필로 구사되었으나, 이목구비의 경계를 구분하지 않았다. 눈과 코, 코에서 뺨으로 흐르는 부분에 짙은 갈색을 덧칠하여 근육과 주름을 나타내면서 움푹 들어가거나 그늘져 보이게 했다. 눈동자 주변 튀어나온 부위를 밝게 처리하거나 광대뼈와 귀 사이를 어둡게 처리했다. 속 쌍꺼풀과 입술에 붉은 색을 칠했다. 왼쪽 뺨 하관 부분에 호분의 붓질이 슬쩍 지나간 흔적이 보인다.

눈동자의 경우, 동공은 농묵으로, 홍채 부위는 담묵으로 열게 바르고 홍채 가장 자리를 가는 먹선으로 둘러, 강인하면서도 생기 있는 눈을 완성했다. 다만 눈동자와 속눈꺼풀의 경계에 농묵의 세선이 강하게 구사되었는데, 전체적인 눈의 묘사와 사뭇 느낌이 달라 후대에 보필된 것으로 보인다. 수염과 귀밑머리의 경우, 호분의 세선을 중봉으로 내리 긋고 중간 중간에 진한 농묵의 선을 곁들이는 등, 한 울 한 울 정성껏 표현했다.

### 3) 복식, 관모

초상화 속의 권상하는 심의와 복건을 갖추었다. 의복은 굵기가 일정한 담묵의 필선으로 완성되었고, 의습선 옆에 먹이 가미되어 주름의 입체감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표현이 치마까지 이어져서 여러 겹으로 겹쳐지는 옷의 굴곡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심의에 구사된 필선은 심의 속에 입은 저고리의 필선과 매우 다르기 때문

에, 이 초상화가 완성된 이후에 보필한 것으로 판단된다. 화면 우측에 적힌 관지 처럼, 의습선 일부가 박락되었는데 그 위에 다른 선을 그은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심의의 바탕인 삼베의 재질이 표현되었다. 성글지만 규칙적인 삼베의 결이 흰색 물결처럼 묘사된 것이다. 이렇듯 삼베의 흰색 물결 질감은 다른 초상화에서 볼 수 없는 조형성이다. 또한 부드럽고 열은 수묵의 의습선이나 그 옆에 가미된 음영 처리도 초상화 완성 이후에 보필된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음영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비단 바탕에 붓질이 마찰을 일으켜 흰색 물결의 패턴이 일부 뭉개지기도 했다.

보필의 흔적은 깃, 소맷부리 등, 옷의 가장자리에 검은 비단으로 덧댄 선(襷)과, 띠의 윤곽선에서도 발견된다. 그리고 검은 색 띠에 덧칠한 흔적이 있고, 허리에 매듭으로 묶은 흰 색 띠가 다리 밑으로 감겨 들어간 부분에서는 일부 연결되지 않거나, 덜 그린 것 같은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다. 복건의 경우, 농묵의 필선으로 형태와 윤곽을 잡은 뒤 그 위에 진한 먹을 덧입혔다. 그러나 덧입힌 먹색 역시 일부 보필이 가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 2. <권상하 초상> 정본(연잠공과 정본)

복건을 쓰고 흰색과 검은 색이 대비되는 심의 차림의 공수 자세로 바닥에 앉아 있는 전신좌좌상 정본이다. 얼굴은 좌안칠분면이나 몸체는 거의 정면시에 가깝다. 화면 상단에 “한수선생진상(寒水先生眞像)”이라는 화제가 해서체로 적혀 있다. 연잠공과 정본은 권상하의 조카로 18세기 초 제천으로 내려가 세거했던 옥소 권섭(玉所 權燮, 1671-1759) 집안에서 소장했던 작품이다. 복건과 심의를 착용하고 공수 자세를 취한 전신좌좌상의 형식, 눈과 코 주변과 튀어나온 광대뼈 및 귀 부분에 음영을 가해 얼굴을 사실적으로 그린 점 등은 문순공과 정본과 유사하다.

바탕 비단에 접혀있거나 심한 마모로 손상된 부분이 많다. 화면 곳곳에 바탕 비단 밑의 배접지가 그대로 드러나거나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고, 심지어 화면 뒤쪽에 종이테이프가 부착되어 있기도 하다. 장황의 비단에서도 일부 박락이 발견되는 등, 그림과 동일 시기의 것으로 판단된다. 보수가 절실한 작품이다.

또한 이 초상화는 나무로 제작된 상자 속에 보관되어 있는데, 초상화 크기에 비해 나무상자의 크기가 작아 다른 초상화를 보관했던 상자로 추정된다.

### 1) 화제

바탕 비단의 갈라짐이나 박락이 심한 상황에서 화제의 글자체는 온전하고 깨짐이 없어 초상화 완성 이후에 후서(後書)된 것으로 판단된다.

## 2) 얼굴

얼굴 전체에 피부색을 후채(後彩)한 다음, 이목구비를 입체적으로 묘사했다. 앞서 언급한 문순공과 정본보다 피부색이 맑게 채색되었다. 얼굴의 중앙부에는 붉은 색을 칠하고, 뺨과 하관에는 어두운 색을 칠하여 입체감을 살렸다. 윤곽선과 주름에는 적갈색 세필이 구사되었으나, 이목구비의 경계가 구분되지 않았다. 눈과 코, 코에서 뺨으로 흐르는 부분에 짙은 갈색을 덧칠하여 근육과 주름을 나타냈고, 움푹 들어가거나 그늘져 보이게 했다. 눈동자 주변 튀어나온 부위를 밝게 처리하거나 광대뼈와 귀 사이를 어둡게 처리했다. 속 쌍꺼풀과 입술에 붉은 색을 칠했다.

눈동자의 경우, 동공은 농묵으로, 홍채 부위는 담묵으로 열게 표현하고 홍채 가장자리를 가는 먹선으로 그어 눈매를 완성했다. 눈동자와 속 눈꺼풀의 경계에 농묵의 세선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묘사법은 앞서 언급한 문순공과 정본에서도 보이는 데, 이 경우 농묵의 세선이 지나치게 진하고 어색하여 후대의 보필일 가능성이 큰 반면, 연잠공과 정본에서는 매우 자연스럽게 처리되었다. 수염과 귀밑머리에서는 호분의 세선을 중묵으로 내리 긋고 중간 중간에 진한 농묵의 선을 곁들이는 등, 한 올 한 올 정성껏 표현했다.

## 3) 복식, 관모

초상화 속의 권상하는 심의를 입고 있다. 연잠공과 정본에 표현된 권상하의 어깨는 문순공과 정본보다 넓고 왼쪽 어깨가 약간 올라갔다. 하체로 갈수록 몸체는 넓어져 안정감을 준다. 무엇보다도 심의의 의습선이 매우 독특하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초상화의 윤곽선과 의습선은 두께가 일정한 철선묘인데, 연잠공과 정본의 의습선은 도석인물화에서 활용되는 비수, 태세가 다른 빠른 붓질의 절로묘와 유사하다. 게다가 문순공과 정본에서 시도된 의습선 옆의 음영 처리를 위한 붓질도 생략되었다. 이는 굵기가 일정한 담묵의 필선으로 완성된 문순공과 정본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또한 문순공과 정본에서 삼베의 굵은 질감을 드러내기 위해 구사된 흰색 물결 표현도 생략되었다. 오로지 비수, 태세가 다른 활달한 담필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복식을 표현한 셈이다. 복건의 경우, 문순공과 정본에서 높고 둥글게 묘사된 복건보다 다소 낮게 그려졌다.

## 4) 배경

이 작품에서는 권상하가 앉아 있는 바닥에 문양 없는 소박한 화문석이 배치되었다. 문순공과 정본에서 생략된 부분이다. 좌우로 엇갈리게 직조된 화문석의 촘촘한 울들을 담필 세선으로 그렸다.

### 3. <권상하 초상> 연잠공파 초본 ①

복건(幅巾)을 쓰고 심의를 착용한 권상하의 반신상을 유지에 채색으로 그린 초상 초본이다. 비단에 채색으로 완성된 문순공파 정본이나 연잠공파 정본은 박락과 훼손이 심한 반면, 이 초상 초본은 거의 손상된 곳 없이 원형이 잘 보전되어 있다. 눈 주위와 양 볼의 어두운 부분에는 진한 갈색으로 음영을 처리해 입체감을 표현하였고 입술은 붉게 색칠했고 입술 주변의 경계는 밝게 처리하였다. 세밀하고 섬세한 얼굴에 비해 몸체는 자유롭고 대담한 붓질로 처리하였다.

유지 뒷면에서 얼굴과 눈동자, 목 주변의 옷깃이 배채되었다. 안면의 경우 호분과 주사가 혼용된 뒷면 배채를 토대로 섬세함을 더하여 완성되었다. 앞서 언급한 정본 두 점과 마찬가지로 음영을 가미한 입체감이 두드러지게 표현되었다. 오히려 본 초상 초본의 음영이 더욱 강하여 반영되어 얼굴의 굴곡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그리하여 정본 2점보다 늦게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초상 초본을 바탕으로 전신부좌상 정본을 그렸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복식의 경우, 색이 배채된 상태에서 필선만으로 형태가 간략하게 드러났을 뿐, 음영이 전혀 묘사하지 않았다. 의습선은 두께가 동일한 농묵 갈필의 선이며, 붓끝이 노출된 노봉으로 시작한다. 유지 화면에 인물상이 왼쪽으로 쏠려, 왼쪽 어깨가 더욱 넓게 배치되었다. 깃과 복건에는 농묵을 넓게 펴서 발랐다.

### 4. <권상하 초상> 연잠공파 초본 ②

앞서 기술한 3점의 초상과 달리, 방건(方巾)을 쓰고 포를 착용한 권상하의 반신상을 유지에 채색으로 그린 초상 초본이다. 복식과, 방건, 얼굴 등이 모두 배채 처리되었다. 특히 얼굴에 살색이, 눈에 흰색이, 연자복에 청색이 배채되었다. 이렇듯 배채가 된 상태에서 앞면에 가는 필선으로 윤곽을 그리고 얼굴의 눈과 코 주변에 진한 음영을 그려 넣었다. 오히려 비단에 완성된 전신부좌상 정본보다 입체감이 더욱 강렬하여 작품 제작 시기가 늦은 것으로 판단된다.

몸체는 일정한 두께의 담묵 필선이 사용되었고, 의습선 따라 일부 채색이 선염되었다. 방건의 경우도 방건 전체를 먹색으로 칠한 위에 호분을 바른 것으로 보인다.

#### ○ 내용 및 특징

##### 1. 연혁 및 유래

권상하(權尙夏, 1641-1721)는 본관이 안동(安東). 자가 치도(致道), 호가 수암(遂菴), 한수재(寒水齋)다.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직계 문인으로 평생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고 평생 학문과 교육에만 힘썼던 인물이다. 한수재(寒水齋)라는 호 역시 송시열이 권상하의 서재명으로 지어준 것이었다. 권상하는 송시열이 1689년

의 기사환국으로 인하여 귀양길에 오르고 정읍에서 사약을 받자, 송시열의 후명으로 그의 옷과 책을 받았다. 그리고 송시열의 유훈에 따라 만동묘(萬東廟)를 건립하고 대보단(大報壇) 설치에 앞장서는 등, 이이-송시열-권상하로 이어지는 학통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 윤증(尹拯, 1629-1714)이 송시열의 학문을 이를 수제자로 촉망되었지만, 윤증의 아버지인 윤선거(尹宣擧)에 대한 묘갈명에서 비롯한 갈등 때문에 김창협(金昌協, 1651-1708)보다 연장자였던 권상하가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되었다. 권상하는 사후 문순(文純)이란 시호를 받고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서원에 배향되었다. 특히 충주의 누암서원(樓巖祠院) 등에서는 초상을 모시고 배향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문순공과본이 제작된 1710년 후반은 1694년 갑술환국으로 재집권한 노론에 의해 송시열의 신원이 복관되어, 1717년 국가에 의해 『우암집(尤庵集)』이 간행되는 등, 송시열에 대한 존송 분위기가 무르익은 시기다. 이에 힘입어 종종과 서원에 보관되었던 야복 차림의 송시열 초상이 재조명되었고, 그의 학통을 계승한 직계 문인들의 심의 초상화도 연이어 양산되었다. 권상하 초상도 이런 맥락에서 제작되었다. 주자를 존송한 송시열의 학통을 이은 시각물인 셈이다.

문순공과본은 권상하가 79세가 되던 해인 1719년, 어진화사였던 김진여가 그린 것이다. 김진여는 1712년 평양 무열사(武烈祠)에 있는 명나라의 장군 이여백(李如柏) 초상을 모사하여 동지사행(冬至使行)편으로 중국에 보낸 바 있다. 그리고 1713년 숙종 어진을 제작하면서 동반직(東班職)에 임명되었고, 1719년 숙종의 입기로서를 기념한 《기사계첩》 제작에도 참여한 바 있다. 문순공과 정본은 권상하 사후 권상하의 독서처인 한수재에 봉안되었으며 1764년에 화양서원 내 초당에서 이봉되었다가 1770년, 다시 한수재로 환봉된 초상화로 추정된다. 권상하의 정치적 영향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무렵, 직계 자손들과 문하생의 발의나 주문으로 제작된 그림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조선 중기 공신을 비롯한 양반들이 벼슬과 관직을 드러내는 사모에 관복을 그렸다면, 후기에는 학자를 상징하는 복건에 심의를 그린 모습이 많이 그려졌다. 2~3차례의 초상화 제작 과정에서 권상하는 심의와 복건을 착용한 모습으로 형상화되었다. 주자-송시열-권상하로 이어지는 도통을 시각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김진여가 그린 초상화에서는 필선과 선염을 적절히 혼용한 사실적 표현과 전신성의 실현이 발견된다. 예컨대 김진여가 참여한 1719년 《기사계첩》의 기로신 영정은 훈염법을 기본으로 하여 청정한 기로신의 기운을 담아냈다. 심의와 복건을 착용하고 공수 자세를 취한 문순공과 정본에서도 김진여의 이러한 특징이 엿보인다. 그러나 여타 김진여의 초상화와 달리 문순공과 정본에서는 얼굴, 의습 등에서 굴곡의 표현이 강하게 드러난다.



연잠공과 정본도 심의와 복건을 갖춘 채 공수 자세를 취한 전신부좌상의 초상이다. 문순공과 정본에 비해 손상과 박락이 매우 심하지만 오히려 후대의 보필이 발견되지 않아 원래 창작 방식을 살필 수 있었다. 전체적인 얼굴 묘사는 문순공과 정본과 유사하지만 피부색이 더욱 맑고 가볍게 채색되었다. 관모와 복식에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연잠공과 정본의 복건은 상부를 동여맨 형태인 반면, 문순공과 정본은 골무처럼 둥근 형태를 띠고 있다. 옷주름에서도 여타 초상화와 달리 비수, 태세가 분명한 필선이 구사되었고, 음영 표현이 생략되었다. 또한 문순공과 정본과 달리 서로 교차되는 패턴의 화문석이 인물상 주변에 배치되었다.

연잠공과의 유지 초본 2점은 모두 반신상의 구도인데, 1점은 복건과 심의를, 나머지 1점은 방건과 도포를 갖추었다. 2점 모두 배채의 흔적이 남아 있고, 오히려 비단 채색의 전신부좌상본 2점보다 상태가 양호하다. 일부에서는 복건 심의의 유지 초본이 문순공과 정본과 유사한 점을 들어, 정본 제작을 위해 먼저 그린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복건 심의의 유지 초본의 얼굴에 입체감이나 사실적 묘사가 더욱 노골적이라서, 정본보다 제작 시기가 늦은 것으로 판단된다.

#### ○ 참고문헌

- 심경보, 「조선 후기 深衣 肖像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 이성훈, 「조선 후기 사대부 초상화의 제작 및 봉안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9.

참고도판



도 1. 김진여, <권상하 초상>, 1719년, 견본채색, 131×91cm, 안동권씨 종중 기탁,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33호



도 1. 김진여, <권상하 초상> 얼굴 세부



도 2. 작자미상, <권상하 초상>, 18세기, 견본채색, 126×391.5cm(그림), 186×110.8cm(전체), 안동권씨 종중 기탁



도 3. 김창업 초, 진재해 필, <송시열 초상>, 18세기 초, 비단에 색, 97×60.3cm, 삼성미술관 Leeum



도 4. 작자미상, <권상하 초상 초본>, 유지 채색, 56.5×41.1cm, 안동권씨 중증 기탁



도 4. 작자미상, <권상하 초상 초본>, 뒷면



도 5. 작자미상, <권상하 초상 초본>, 유지 채색, 79.2×60.5cm, 안동권씨 중증 기탁



도 5. 작자미상, <권상하 초상 초본> 뒷면

□

## ○ 현 상

‘권상하 초상 및 초본’은 권상하(權尙夏, 1641~1721)의 모습이 재현된 정본 초상화 2점과 초본 2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화사 김진여의 이름이 명기된 정본 초상화 1점과 나머지 초본 2점은 문순공과 종중에서, 화사의 이름이 없는 정본 1점은 연잠공과 종중에서 각각 소유하고 있다.

권상하(權尙夏, 1641~1721)의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자는 치도(致道), 호는 수암(遂菴), 한수재(寒水齋)이다. 이이(李珣)와 김장생(金長生)으로부터 비롯된 송시열(宋時烈) 학문의 정통 계승자로 평가되는 학자이다. 1674년에 효종의 승하 시(1659년)에 있었던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제 문제가 다시 발생해 스승 송시열이 관작을 박탈당하고 덕원(德源)에 유배되는 불운을 당하게 되자 그는 관계에 진출하는 것을 단념하고 청풍의 산중에 은거하며 학문과 교육에 전념할 것을 결심하였다. 1689년에는 기사환국으로 송시열이 사약을 받게 되자 스승의 임종을 지키며 그의 유지를 받았다. 특히 충청도 괴산 화양동(華陽洞)에 만동묘(萬東廟)를 세워 명나라 신종(神宗)과 의종(毅宗)을 제향한 일은 그가 송시열의 유지를 받들어 행한 대표적인 사업의 하나로 꼽힌다. 사후 그는 충주의 누암서원(樓巖書院), 청풍의 황강서원(黃岡書院) 등 10여 곳에 제향되었다. 한편 그는 문하에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였다.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로 불리는 한원진(韓元震)·이간(李柬)·윤봉구(尹鳳九)·채지홍(蔡之洪)·이이근(李頤根)·현상벽(玄尙璧)·최징후(崔徵厚)·성만징(成晩徵) 등이 그의 대표적 문인들이다.

안동권씨 문순공과 종중 소장 <권상하 초상(79세 상)>의 화면 상단에는 “한수옹칠십구세진(寒水翁七十九歲眞)”, 화면 우측 하단에는 “己亥四月日, 畫師金振汝摹”라 각각 적혀 있다. 한편 『寒水齋先生年譜』에는 김진여(金振汝, 1675-1760)가 권상하의 초상화를 그린 시점인 1719년 3월로 기록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김진여는 1719년 3-4월에 이 초상화를 제작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상기의 연보를 검토했을 때 이 시기에 권상하가 상경한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이 초상화는 김진여가 권상하의 거소(居所)인 한수재를 직접 방문해서 그린 것으로 생각된다. 김진여는 평양 출신 화가로 숙종의 어진 및 박세당(朴世堂), 박세채(朴世采), 이만원(李萬元) 등 당대 명사들의 초상화를 도맡아 그렸던 화가 조세걸(曹世傑, 1635~?)로부터 그림을 배웠다. 그 역시 1713년의 숙종 어진 및 1719년의 《기해기사첩(己亥耆社帖)》 제작에 참여할 정도로 당대에 초상화로 이름이 높았다.

문순공과 종중 소장본에서 권상하는 복건과 심의를 착용하고 공수(拱手) 자세로 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재현되었다. 복식에 쓰인 선묘는 초상화에 일반적으로 쓰였던 굵기가 일정하고 유려한 것이 아닌 도석화(道釋畵)에 주로 사용되었던 거칠고 대담한 필치의 것이다. 눈 주변 및 왼뺨 등의 안면 표현에 서양화법인 음영

법이 농후하게 적용되어 있다. 이러한 서양화법은 그가 제작에 참여한 《기해기사첩(己亥耆社帖)》 중 <신임 초상>이나 <김창집 초상> 등에서도 분명히 확인된다. 이 초상화에서 권상하의 얼굴은 좌안칠분면(左顔七分面)으로 그려졌으나 몸체는 거의 정면상처럼 그려졌다. 심의의 검은 색 연(緣) 부분이 마치 둥글게 말린 것처럼 그려진 것은 이 그림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심의에는 흰 색의 실선이 반복적으로 그려져 있다. 특히 권상하의 무릎 부분에서 심의의 일부가 채색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혹은 단순히 미완성된 결과인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 초상화의 표장은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다.

안동권씨 연잠공파 종중 소장 <권상하 초상(79세 상)>에도 화면 상단에 “한수옹칠십구세진(寒水翁七十九歲眞)”의 화제가 적혀 있으나 화가의 이름은 없다. 이 초상화는 나무상자에 넣어져 보관되어 있는데, 이 상자는 조선시대의 것으로 보인다. 이 초상화의 표장은 고식(古式)을 반영하고 있어 이 초상화의 제작 당시에 이루어진 것이거나 적어도 18세기 중반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초상화에서 권상하가 앉은 자세는 문순공파 종중 소장본의 것과 동일하나 그는 화문석에 앉은 모습으로 재현되어 문순공파 종중 소장본의 것과 구분된다. 이 초상화의 안면 표현은 문순공파 종중 소장본의 것과 매우 유사하다. 특히 안면에 적용된 음영법은 두 초상화가 거의 유사하게 표현되었다. 복식 표현에는 문순공파 종중 소장본의 것보다 보다 활달하고 대담한 필치가 사용되었으나 그 주름의 수나 위치는 문순공파 종중 소장본의 것과 거의 동일하다. 이 그림에는 흰색 선 표현이 없고 채색되지 않은 부분도 없어 문순공파 종중 소장본의 것과 대조된다.

## ○ 내용 및 특징

문순공파 종중 소장의 <권상하 초상>은 <송시열 초상>, <한원진 초상>, <윤봉구 초상>, <권육 초상> 등과 함께 황강서원(黃江書院)에서 유전되어 왔다. 황강서원은 1726년에 권상하를 제향할 목적으로 권상하의 독서 공간이었던 한수재(寒水齋) 바로 인근에 세워졌으며 1727년에 사액을 받았다. 황강서원은 고종 대에 훼손되고 그 이후 복설되었다. 황강서원은 원래 제천시 한수면 황강리에 있었으나 1983년 충주댐 건설로 현 위치(제천시 한수면 송계리)로 이건되었다. 현재 이 서원은 크게 수암사(遂菴祠)의 사당, 한수재, 황강영당의 세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한수재는 권상하의 구거(舊居)로 서원 훼손 이전에 건립되어 보존된 건물인 반면에 수암사와 황강영당은 서원 복설 때 지어진 건물로 파악된다.

권상하의 조카인 권섭(權燮, 1671-1759)은 백부(권상하)가 즐기고 황강서원은 아직 건립되지 않은 시점인 1725년경에 한수재 내 한 당(堂)에 백부의 초상을 봉안하고 황강영당(黃江影堂)이라 명명하였다[현재의 황강영당은 한수재 옆에 별도로 건립된 한 건물의 명칭이지만, 이때 권섭이 조성한 황강영당은 한수재 내의 한

방에 마련되었던 것의 명칭으로 여겨진다]. 권섭은 그 영당 내에 백부가 썼던 붓, 벼루, 궤장, 나무잔을 좌우에 두는 한편으로 여러 기명(器皿)과 서책은 벽감에 보관하고 시령은 그대로 두었다. 또한 권상하보다 앞서 졸한 백부의 아들 권욱(權煜, 1658-1717)의 초상화를 그 옆 벽에 걸어두었다. 이때 권섭은 만일 권상하의 문인 중 그의 도를 계승한 이가 있으면 그 문인의 초상화를 그 당에 봉안할 것이란 말하고 또한 학문을 연마하는 후손 및 문인들이 그를 모시고 그의 가르침을 듣는 듯한 모습을 연출할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황강서원에 그의 문인 한원진과 윤봉구의 초상화가 보관된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적어도 이 해 이후로 권상하의 초상화는 황강서원에 줄곧 봉안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1831년에 충청도 황강서원을 방문한 송달수(宋達洙, 1808-1858)는 한수재에 입실한 후 기록을 남겼다. 그는 먼저 한수재에서 권상하의 초상화에 첨배한 뒤 송시열의 초상화를 궤에서 꺼내어 벽에 걸고 봉심하였다. 이루 미루어 문순공과 종종 소장 <권상하 초상>은 1719년 김진여에 의해 완성된 후 줄곧 한수재(혹은 황강서원)에 보관되어 온 바로 그 초상화로 추정된다.

권상하는 생전에 적어도 세 차례 이상 자신의 초상화를 제작하였다. 그는 김진여가 그의 초상화를 그리기 4년 전인 1715년에 이치(李瑄, 1677-1737)로부터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 받았다. 이 해에 그의 아들 권욱(權煜, 1658-1717)은 이치를 시켜 그의 초상화를 그리게 하였다. 이 사실은 권상하의 조카인 권섭(權燮, 1671-1759)의 문집 『옥소고(玉所稿)』의 「초당공유사(草堂公遺事)」에 실려 있다. 화면 우측 상단에 “수암선생칠십오세진, 이치 모(遂菴先生七十五歲眞, 李瑄摹)”라 적혀 있는 <권상하 초상(75세 상)>(참고도판1)이 이때 이치가 그린 작품이다. 이 초상화 역시 안동권씨 문순공파 종종에서 대대로 소장해 왔으나 현재는 도난당해 그 소재를 알 수 없다. 신경(申暲, 1696-1766)은 이치의 전기에서 그가 노론계 학자인 김간(金幹, 1646-1732)을 사사하고 신정하(申靖夏, 1680-1715)와 같은 당대를 대표하는 학자들과도 중유한 인사로 소개하였다. 또한 그는 이치가 김간 외에 권상하, 김창흡 등 당대를 대표하는 노론계 학자들의 초상화를 그린 사실 그리고 화명(畫名)이 서울에까지 알려져 1735년에는 주관화사로 세조 어진 모사에도 참여한 사실 등을 언급하였다. 현재 그가 그린 초상화로는 상기의 초상화 외에 문경 옛길 박물관 소장의 1724년 작 <권섭 초상>이 있다. 한편 문화재청 도난품목록에는 상기 이치가 그린 권상하의 75세 상 외에 권상하의 ‘80세 상’이 함께 언급되어 있다. 이 목록에는 75세 상의 사진은 실렸으나 80세 상의 사진은 실려 있지 않아 이 초상화의 면모를 파악할 수는 없다. 이 두 초상화는 2005년 2월 25일에 함께 도난당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권상하가 1715년과 1719년에 이어 1720년에도 자신의 초상화를 제작했음을 알려준다.

안동권씨 문순공파 종종 소장 <권상하 초상(79세 상)>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표현 중 하나는 심의에 평행하여 반복적으로 그려진 흰색 선의 표현이다. 이 흰색

선들은 그 간격이 균일하지 않아 권상하의 무릎과 소매 근처로 갈수록 더욱 좁은 형태를 보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옷의 굴곡을 반영한 모습으로 정교하게 그려졌다. 특히 권상하의 우측 팔 부분에서 이 점이 가장 두드러지게 확인된다. 이 흰색 선들은 심의(深衣) 옷감의 실 질감을 보여주기 위한 표현으로 보이지만 실물로 현전하는 심의 중에 이러한 실 질감을 보여주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여 이 점을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흰색 선들은 김진여가 직접 그린 것인지 혹은 후대에 다른 화가가 가필된 것인지 또한 정확히 알 수 없다. 한편 이 흰색 선들이 ‘정문입설(程門立雪)’의 고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란 주장도 있다.

안동권씨 연잠공과 소장 <권상하 초상>은 권상하의 동생인 연잠공(淵潛公) 권상명(權尙明, 1652-1684)의 후손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초상화이다. 이 초상화 상단에는 “한수옹칠십구세진(寒水翁七十九歲眞)”이란 화제가 적혀 있다. 권상명의 장남인 권섭은 자신의 별서인 한천장(寒泉庄) 내 건물인 낙유당(樂有堂)의 정면 벽에 조세걸이 그린 외조부 이세백(李世白, 1635-1703)의 61세 상과 김진여가 그린 그의 백부 권상하의 79세 상을, 그 좌우에는 이치가 그린 종형 권욱(權煜, 1658-1717)의 58세 상과 외숙 이의현(李宜顯, 1669-1745)의 초상을, 마지막으로 자신과 동생 권영(權瑩) 형제의 초상을 벽 끝에다 각각 걸어두었다. 현재 연잠공과 종중은 이의현과 이세백 그리고 권욱의 초상화를 제외한 권상하의 79세 상, 권섭의 64세 상, 권영의 56세 상 등 초상화 3점을 소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록에 언급된 김진여 필 권상하의 초상화가 바로 연잠공과 소장 <권상하 초상>일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 점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의 기록은 김진여가 그린 권상하의 초상화가 황강서원 외에 또 다른 장소에 봉안되어 있었던 사실, 즉 김진여가 적어도 2점 이상의 권상하 초상화 정본을 제작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초상화의 복식 표현은 문순공과 종중 소장본의 것과 다소 다르지만 안면 표현에서 확인되듯이 음영법의 구사 방식에서 두 초상화는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특히 연잠공과 종중 소장본에서도 음영법은 그 화가가 그 화법의 원리를 매우 잘 이해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매우 정교하게 구사되어 있다. 연잠공과 종중 소장본의 이러한 양식적 특징 및 앞서 언급한 권섭의 기록은 이 초상화가 문순공과 종중 소장본의 이모본이 아닌, 김진여가 그린 또 하나의 정본 초상화일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 더욱이 영조 대 이전의 것으로 보이는 고식의 이 초상화의 장황 형식은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높여 준다.

문순공과 종중 소장 <권상하 초상 초본(복건본)>은 복식 표현 및 안면 표현이 문순공과 종중 소장 <권상하 초상>와 매우 유사하여 김진여가 1719년에 이 정본의 초상화를 제작할 때 함께 생산한 초본으로 생각된다.

문순공과 종중 소장 <권상하 초상 초본(방건본)>은 권상하의 75세 상 및 79세 상과 그 도상과 화풍이 다르다. 인물의 코 윤곽선이 뚜렷이 그어져 있는 점에서 75세 상과 유사하지만, 눈과 귀와 코 그리고 입술의 형태 및 안면에 음영을 넣는

방식에서는 79세 상과 비슷하다. 그러나 수염이 좀 더 풍성하며 우측 뺨 아래턱 수염이 좀 더 성글게 난 모습으로 표현된 것이나 눈 주변의 음영 표현에 보다 많은 세선(細線)이 쓰인 점 등에서 이 초상화는 79세 상과 구분된다. 따라서 이 초상화는 1719년에 김진여가 그린 또 다른 하나의 초본이기보다는 또 다른 어느 시점에 또 다른 어느 화사가 제작한 작품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2005년 도난당한 80세 상의 초본이 바로 이 초상화일 가능성도 제시해 볼 수도 있다.

## ○ 문헌자료

『寒水齋先生年譜』

權燮, 『玉所稿』, 雜著4 「草堂公遺事」

權燮, 『玉所稿』, 亭閣錄1 「樂有堂記」

申暲, 『直菴集』 卷20, 傳 「僉知李珣傳」

權燮, 『玉所稿』, 文1 「黃江影堂記」

宋達洙, 『守宗齋集』 卷7, 雜著, 「江巖奉審錄」

국립중앙박물관 편, 『초상화의 비밀』, 국립중앙박물관, 2011.

문동수, 「玉珪 金振汝(1675-1760)와 18세기 전반 초상화의 一變」, 『미술자료』 81, 2012.

이성훈, 「조선 후기 사대부 초상화의 제작 및 봉안 연구」, 서울대박사논문, 2019.



## 16. 김해 대성동 91호분 출토 마구장식 일괄 (金海 大城洞 九十一號墳 出土 馬具裝飾 一括)

### 가. 검토사항

‘김해 대성동 91호분 출토 마구장식 일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김해 대성동 91호분 출토 마구장식’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8.10.15.)이 있어 관계 전문가 조사(19.4.5./5.3./7.22.)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 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김해 대성동 91호분 출토 마구장식 일괄  
(金海 大城洞 九十一號墳 出土 馬具裝飾 一括)
- 소유자(관리자) : 3개 처로 분산 보관
  - ① 금동원판·각종 꾸미개 등 34점 : 국유(대성동고분박물관)
  - ② 금동방울 및 청동꾸미개 4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③ 금동방울 : 1점 : 국유(국립김해박물관)
-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의길 126 대성동고분박물관 등
- 수 량 : 39점  
(금동제 원반형 말얼굴가리개 1점, 금동 및 청동 말띠 꾸미개 26점, 청동운주 3점, 금동방울 5점, 청동방울 4점)
- 규 격 : 현황표 참조
- 재 질 : 금동, 청동
- 조성연대 : 4세기 전반 경



(대성동고분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김해 대성동 91호분 출토 마구장식 일괄>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미흡)

김해 대성동 91호분 출토 금동제 및 청동제 마구 장식 일괄은 2012년 대성동고분 박물관에서 제7차 발굴 조사 결과 4세기의 목곽묘에서 토기나 철기 등의 공반 유물과 함께 발굴되어 금관가야를 대표하는 말갖춤으로서 출토지와 출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해당 마구 장식품은 금동제 32점과 청동제 7점이고 용문운주 2점, 말띠꾸미개 6종 26점, 마령 9점, 마면 2점이 출토되었는데, 그동안 금관가야 유적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은 장식용 말갖춤이라는 점에서 희귀한 사례에 해당되며, 이를 통해 착장자의 신분적 위상이나 지배계층의 위세와 권위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학술적인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유물들이 도굴 구덩이에서 수습되었기 때문에 말갖춤새의 일괄 유물인지 그것들의 결구법이 정확한지, 동일 유구의 유물인지도 확인이 어려워 유물의 성격을 분명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처럼 김해 대성동 91호분 출토 마구 장식 일괄은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지가 분명하지만 발굴 당시부터 이미 도굴된 상태에서 수습되었기 때문에 유물이 일괄품인지 여부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한다.

### ○ (지정 가치 미흡)

- 1) 김해 대성동고분군은 3-5세기 금관가야의 왕족 및 귀족들의 공동묘역이다. 1990년의 1차 조사 이후 장기간에 걸친 학술조사가 진행되었는데, 2012년에 진행된 7차 조사에서는 85-91호분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목곽묘

2기, 수혈식석곽묘 5기가 발굴조사되었다.

- 2) 85-91호분이 조사된 구역은 대성동고분군의 북편에 해당된다. 서로 중복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88호분과 91호분이 대형이며 목곽묘이다. 이 두 무덤은 대성동고분군에서 가장 위계가 높은 부류에 해당되며 금관가야의 왕릉급이다. 88호분에서는 왜계 유물이 많이 출토되었으며 91호분에서는 선비족의 삼연문화와 관련된 북방계 유물이 많이 출토된 점이 특이하다. 연대는 모두 4세기 무렵이다.
- 3) 91호분에서 출토된 유물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금동제 마구류와 그 부속이다. 1건 39점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재질은 금동제와 청동제이다. 이와 유사한 마구는 중국 요령성 조양일대의 선비족이 남긴 삼연문화, 그리고 고구려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금관가야에 북방계 기마문화가 끼친 영향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학술적 가치가 높다.
- 4) 다만 1건 39점의 유물이 모두 일괄로서 하나의 마구 세트인지가 불분명한 점, 일부 금동의 상태가 불량한 점, 삼연계 마구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가 부족한 점 등이 아쉽다.
- 5)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유물들이 금관가야의 역사, 고대 동북아시아 문물교류사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임은 분명하지만, 잔존상태 및 조형적 수준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미흡)

- 1) 이 유물은 김해 대성동91호분에서 출토된 일괄유물로 출토지가 확실하고 발굴 과정을 통하여 부장양상을 알 수 있는 유물이나 한 세트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는 유물이다.
- 2) 금동마구로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인 4세기대의 유물이다.
- 3) 일괄유물 중 가장 많은 수인 29점의 운주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중 금동제 용문장식 운주는 직경 4.5cm 반구형 중앙에 방형의 투공을 뚫었으며 투공 외부에 방형의 테두리가 있다. 또 금동 삿갓형 방울(5점)은 평면형태가 삿갓모양이며, 삿갓부의 높이는 1.2cm, 직경은 4.4cm이다. 여기에 방울이 달린 형태이다.
- 4) 현재 이 일괄유물은 대성동고분박물관에 34점, 국립중앙박물관에 4점, 국립김해박물관에 1점 등으로 분산 전시되고 있다.
- 5) 비교적 이른 시기인 4세기대의 유물이며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좋은 자료이나, 한 세트인지 의문이며 금동의 탈락이 심하고 결실되는 등, 기술적이나 예술적으로도 뛰어난 작품으로 보기 어려워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 ○ (지정 가치 미흡)

김해 대성동 91호분에서 출토된 금동 및 청동제 마구장식 일괄품은 4세기 전반 금관가야시대의 초기 마구 양상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렇지만 출토 위치로 볼 때, 3곳 이상에서 나누어 출토되었으며, 상당수의 유물이 도굴갱에서 출토되어 마구인지 아니면 다른 장식품인지에 대한 확증이 없다. 또한 대성동 91호분에서는 비교적 완호한 상태의 철제 및 녹각제 재갈이 4점이나 출토되었기 때문에, 이 마구 장식들은 적어도 네 세트의 마구의 부속품의 일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마구 장식들은 이번에 지정신청하지 않은 철제 및 패각제 운주들과도 함께 사용되었던 것으로, 이 마구장식들의 조합은 원래의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동일 유구의 동일 재질 유물이라는 것 이외의 공통점이나 의미를 찾기 어렵다. 또한 제작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일부 유물들은 북방계 수입품설, 혹은 가야 자체 제작설, 그리고 또 다른 일부 유물들은 일본계, 혹은 동남아계라는 설과 가야 자체 제작설 등이 있어서 아직까지 이들의 성격에 대해서도 연구가 부족하고 가야의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로서의 성격을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대성동 91호분 출토 마구장식들은 당시 금관가야 문화의 국제성을 보여주는 문화교류사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있긴 하지만, 패각제 운주들이 함께 신청되지 않았고, 마구에서 제일 중요한 재갈들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이 금동제와 청동제만 일괄로 지정신청된 상태이다. 게다가 이 유물들은 출토 당시부터 이미 도굴에 의해서, 현재의 상태가 워낙 파편화되어 있고 보존상태도 상당히 좋지 못하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대성동 91호분 출토 금동 및 청동제 마구장식 일괄품은 일괄품이라고 할 수 없으며, 보물로 지정하기에도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미흡)

대성동 91호분에서 출토한 여러 종류의 금동·청동 말띠꾸미개는 우리나라의 남부 지방에서 출토된 장식 말갖춤새중 시기가 가장 올라가는 4세기의 말갖춤새이자 금관가야와 북방 지역과의 교류관계를 나타내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무덤 내부가 도굴의 피해를 입어 이곳에서 출토된 말갖춤새의 정확한 사용 부위와 결구 방법을 알 기 어렵고, 완전한 1식을 구성하는지도 알 수 없는 등 불분명한 점들이 많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의 지정은 어렵다.

## 마. 의결사항

### ○ 부 결

## 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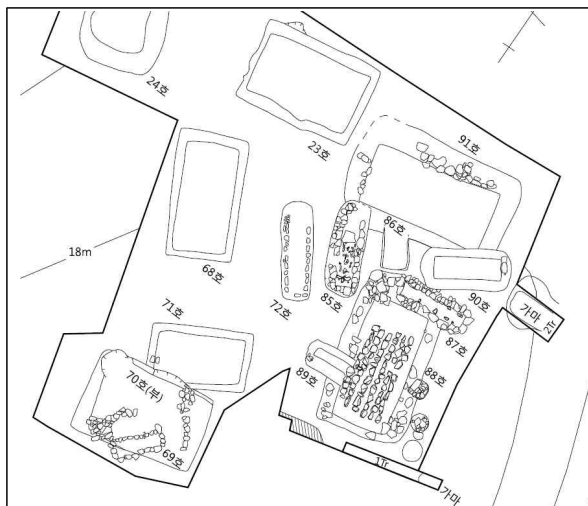


### ○ 형 식

사적 제341호로 지정된 김해 대성동 91호 고분에서는 마구 장식 일괄품이 출토되었다. 금동제 용문양 말띠꾸미개는 1쌍의 용이 투조되어 있고, 모조기법으로 비늘과 털을 조각하였다. 금동제 용문 말띠꾸미개는 반구형이고 전면에 도금을 하고 방형 테두리와 주연부에 용 2마리가 투조되어 있고 몸통과 꼬리는 모조기법으로 되어 있다. 운주 26점은 6종류로서, 1) 금동제 말각장방형 3점, 2) 금동제 마제형 5점, 3) 청동제 단면 타원형 결속 운주 2점, 4) 금동제 말각장방형의 결속 운주 3점, 5) 금동제 삼각형 운주 11점, 6) 금동제 새발형 장식운주 2점이다. 그리고 금동제 방울 5점은 입형(笠形)이고 공모양 방울은 4점이다. 마구 장식 일괄 유물은 종류와 형식이 다종다양하여 말갖춤의 전체 형태나 용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편이다.

### ○ 조성연대

김해 대성동 91호 고분은 도굴의 피해가 심하나 발굴 결과 대형의 목곽묘임이 확인되었고 이곳에서 토기 등의 공반 유물이 출토되었고 이것들은 4세기 금관가야 지배층의 묘역으로 편년하고 있어, 이 금동제 32점과 청동제 7점의 마구 장식 일괄의 제작 시기는 4세기로 비정하고 있다.



김해 대성동 고분 제7차 발굴조사(85-91호분)



대성동 91호분 전경

### ○ 유물의 출토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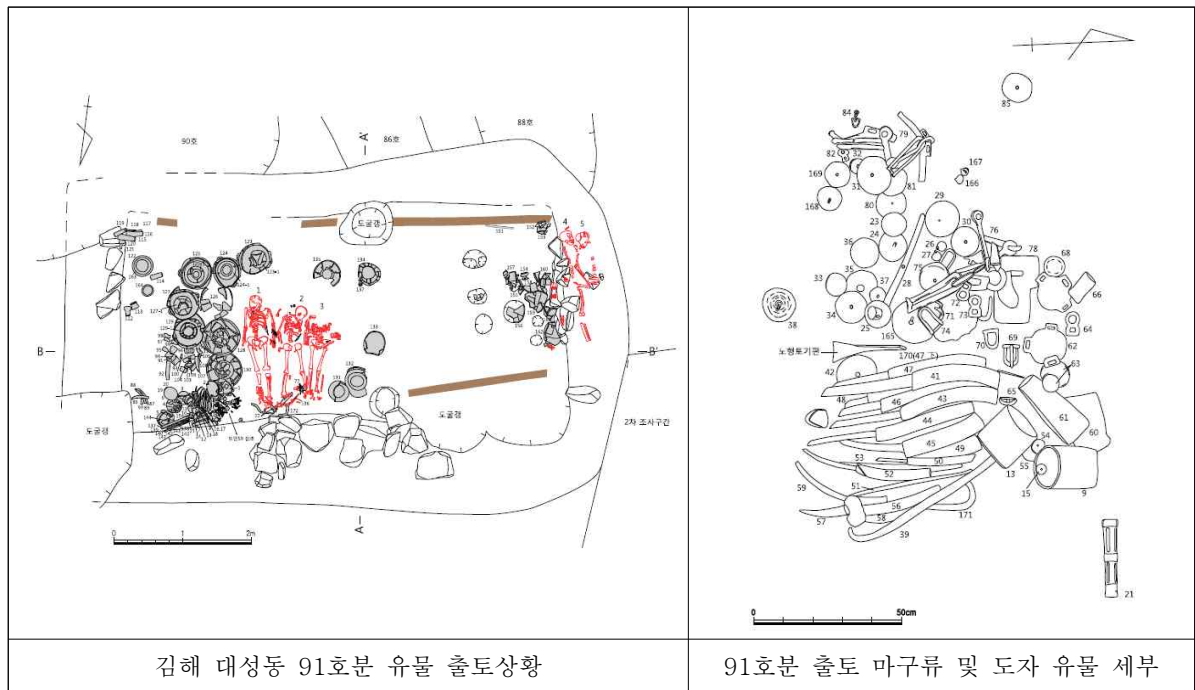
김해대성동 고분은 경상남도 김해시 대성동 434번지에 위치한 구릉에 위치하며, 이곳으로부터 약 600m 정도 북쪽에 가야의 건국설화가 깃들어 있는 구지봉(龜旨峰)이, 동쪽으로 300m 떨어진 곳에 김수로왕릉이 위치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곳을 ‘애꼬(꾸)지’, ‘애구지’ 등 작은 구지봉이라 불리는 곳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이전까지는 밭으로 개간되다가 일제강점기부터 철저히 도굴 파괴되어 전체적인 유적의 보존 상태는 나쁜 편이다. 이곳에 대해서는 1990년 6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1차 발굴을 통해 대형 목곽분인 1호분과 2호분을 발굴하였고, 같은 해 1990년 11월에 사적 제341호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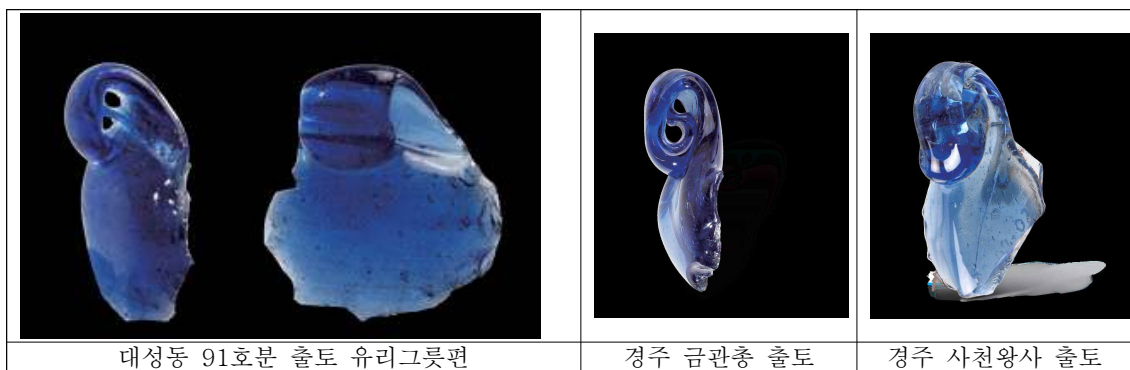
2012년 5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2012년 6월 4일 착수하여 9월 26일까지 대성동고분박물관에서 제7차 발굴조사를 완료하였고, 발굴 결과 85호부터 91호까지 조사하게 되었다.

이 중 대성동 91호분은 동서장축의 덧널무덤으로 바닥에 돌을 깔지 않았다. 그 좌우에 있는 85호분과 90호분에 의해 일부가 파괴되었고, 내부는 도굴로 피해가 심하여 봉토의 층위를 찾을 수 없었다. 다행히 동쪽 단벽 부분은 도굴의 피해가 심하지 않아 동쪽 상부와 북쪽 도굴갱 내에서 인골편이 수습되었다. 목곽흙과 충전토 그리고 유물의 부장위치 등을 참조하여 목곽묘의 구조를 추정할 수 있었다. 주인공은 덧널 중앙에 놓이고, 유물들은 주피장자의 사방에 놓인 것으로 추정된다. 덧널 내 중앙의 동쪽에 인접하여 총5명의 순장자가 조사되었는데, 머리가 남쪽에 위치하는 순장자 3인과 서쪽 충전토 상부에 순장자 2인이 그들이다. 순장자는 총 5명의 순장자가 확인되었는데, 1번은 성년 여성, 2번은 약년 남성, 3번은 성년 남성, 4번과 5번은 성년 남성과 여성으로 추정되었다.

동서 단벽에서 금동,청동제 마구류 33점을 비롯, 조개 운주 24점, 단경호 5점, 노형 기대 8점 등이 발견되었다. 목곽 바닥이 없이 계속 들어가고 남쪽 구덩이에 서 금동 용문 장식 운주와 삼각형 장식 운주 등이 수습되어 주혈은 두더지에 의해 교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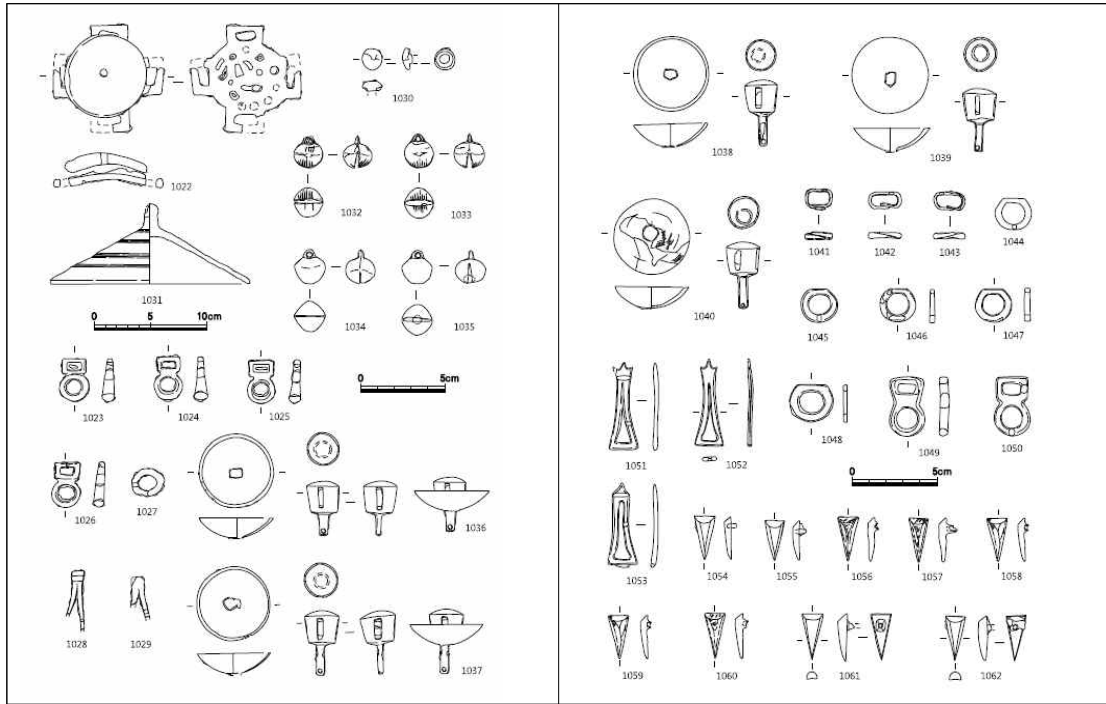


김해 대성동 91호분의 주장자가 안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노형기대 1점, 단경호 4점, 교구 1점이 부장되었다. 남쪽 노형기대 부근에 주장자의 금동 용문교차 운주, 마제형 결속운주, 삼각형 장식운주, 철개, 운모, 서역계 유리용기편이 수습되었다. 대성동 고분군에서 출토되는 대륙 유물은 중원계 유물과 북방계유물로 구분된다. 금관가야에서 출토되는 중원계 유물로는 청동그릇, 금박구슬, 금동제 허리띠 등이고, 북방계 유물로는 청동술, 금동관, 금동 및 청동제 말갈춤이 있다.



대성동 91호분에서는 유리그릇편이 출토되었는데, 이것은 경주 금관총 출토품이나 경주 사천왕사 출토품과 비교되는 것이다. 이처럼 대성동 91호분에서는 중원계 유물과 북방계 유물이 모두 출토되어 4세기 가야 고분 중 가장 많은 대륙계 유물이

부장되었고, 서역계 유리그릇도 확인되어, 당시 중원의 동진(東晉)과도 교류한 최고 신분임을 상징하는 중요유물이 부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성동 91호분 출토 유물

대성동 91호분 출토 마구장식



대성동 91호분 출토 마구장식 일괄



<p>〈도면84〉 91호분 출토 유물(1063~1068·1071:1/2, 1069·1070:1/1)</p>	
<p>91호분 출토 용문 말띠 가리개</p>	<p>대성동 91호분 출토 마구</p>
<p>김해 대성동 91호분 출토 용문양 말띠꾸미개[龍文交差雲珠].</p>	<p>김해 대성동 91호분 출토 용문양 말띠꾸미개[龍文雲珠]</p>

남쪽의 도굴 구덩이에서 출토된 용문교차운주[龍文交差雲珠]는 부분적으로 도금이 벗겨졌으나 완형이다. 용문교차운주는 직경 6.0cm, 두께는 0.5cm, 중량은 26.9g이다. 전체 형태는 둥근 원형에 사방으로 십(十)자형 고리 걸개가 있으며, 안쪽 원형 부분에 2마리의 용이 교차하는 모습이다. 문양은 중앙의 용머리를 중심으로 꼬리를

서로 물고 돌아가는 형태로 투조하였고, 모조(毛彫)기법을 사용해서 비늘이나 털을 세밀하게 새겨 용의 몸체를 명확히 표현하고 있다.

용문양 말띠 꾸미개(龍文雲珠)는 거의 완형이며 이 또한 전면에 도금을 하고 있다. 용문운주의 크기는 직경 4.5cm이고, 높이는 1.05cm이다. 전체적으로 납작한 반구형인데, 가운데 중심부는 방형이 뚫려있고, 외곽은 원형으로 구획되어 있어 마치 조선시대 동전의 형태와 유사하다. 중앙의 방형테두리와 주연부 사이에는 용 2마리를 서로 투조하여 대칭으로 배치하고 있다. 중앙으로부터 대칭되게 전면 중앙부터 머리부터 꼬리까지 위치하며, 용머리에는 눈, 귀, 입,鬃을 표현하고, 몸통과 꼬리의 비늘은 모조(毛彫) 기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연부는 모조기법으로 빗금을 새겼다. 주연부 내면의 중앙에 삼각상의 홈이 하나 있다.



대성동 91호분에서 말띠 꾸미개[雲珠]는 여러 점이 출토되었다. 청동제 방원형 결속 운주는 2점이 출토되었고, 길이는 3.45-3.5cm, 사각폭은 1.85-1.95cm, 중량은 10.14.1g이다. 사다리꼴형 결속 운주는 3점이고, 길이는 4.7-5.1cm, 최대폭은 1.6-1.8cm, 두께 0.2cm이며, 중량은 6.0g 내외이다. 말각방형은 3점이며, 길이는 0.9-1.2cm, 너비는 1.6-1.9cm, 두께는 0.3cm, 중량은 1.0g 정도이다. 말발굽형 운주는 총5점이다.

그중 4점의 경우 길이는 2.05-21cm, 너비는 1.85-1.95cm, 두께는 0.3cm 정도이다. 나머지 1점은 길이는 2.2cm, 너비는 2.5cm, 두께는 0.3cm이다.

대성동 91호분의 도굴 구덩이에서 출토된 금동 삼각형 장식운주는 11점이 수습되었다. 뒷면의 가운데 끈에 고정할 수 있게 삼각판과 수직되게 자금(刺金)이 있다. 금동 새발모양 운주도 도굴 구덩이에서 2점이 수습되었고, 뒷면 가운데에 끈을 고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새발 모양 장식 운주는 2점이 출토되었고, 높이는 1.1cm, 폭은 1.1cm, 중량은 1.5g 정도이다.



금동제 말방울[馬鈴]은 삿갓 모양[笠形] 5점과 공모양[球形] 4점이 출토되었다. 특히 삿갓모양 방울에는 막대기 모양의 골각기편 1점이 확인되었다. 삿갓모양 말방울을 삿갓부의 높이는 1.2-1.4cm, 직경은 4.3-4.4cm, 방울의 높이는 3.3-3.9cm, 방울의 폭은 1.95-2.05cm, 중량은 31.9-33.7g이다. 공모양 방울 4개는 길이 1.7-1.8cm, 높이는 1.9-2.0cm, 중량은 6.7-7.37g이다.

이와 같은 말갓춤은 말을 부리기 위해 말에게 장착했던 각종 마구 장식은 말머리나 목, 등, 엉덩이를 꾸몄다. 말갓춤은 기능과 사용 목적에 따라 제어용의 재갈과

고삐, 안정용의 안장과 등자와 행엽, 장식용의 꾸미개로 구분된다. 그중 김해 대성동 91호분 출토 말갖춤은 장식용으로서, 말머리꾸미개[馬面], 말띠꾸미개(雲珠), 말띠드리개(杏葉), 말방울(馬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대성동 고분군의 대형 덧널무덤에서는 재갈이나 등자, 안장, 교구 등은 출토되었지만, 도굴 때문에 말띠꾸미개나 말띠드리개 및 말방울 등 장식용이 확인된 예가 매우 드물다. 그런데 이러한 장식용들은 크기가 비교적 작고 발굴 당시에도 산재되어 수습되기 때문에 전체 구조나 원래의 위치나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더욱이 대성동 91호분 출토 마구 장식 일괄품은 도굴 구덩이에서 수습되었기 때문에 원형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 ○ 참고문헌

- 대성동고분박물관, 『동아시아 교역의 가교! 대성동 고분군』, 대성동고분박물관, 2013.
- 대성동고분박물관, 박물관 학술총서 제15책 『김해대성동고분군-85호분-91호분』, 대성동고분박물관. 2015.
- 대성동고분박물관, 『대성동고분박물관 재개관 기념 ; 비밀의 문 다시 두드리다』, 대성동고분박물관,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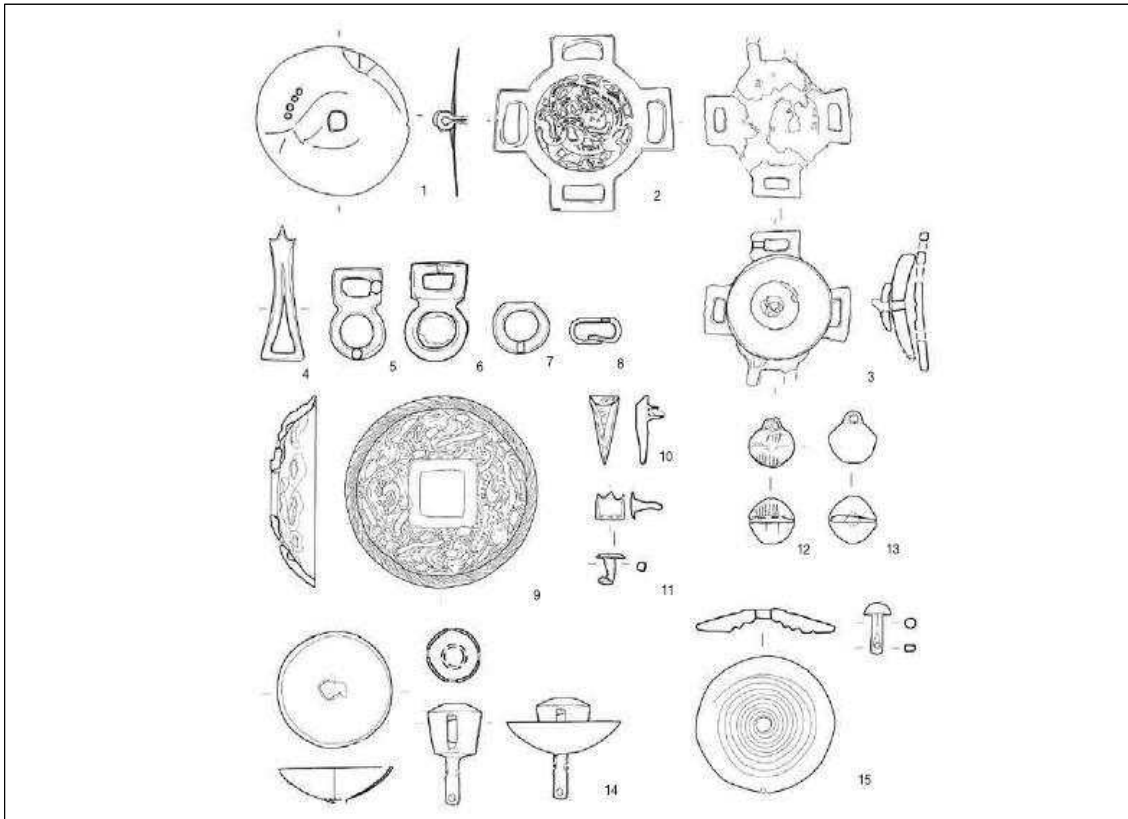
#### ○ 현 상

청동제품과 금동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금동제 운주의 경우 금동이 많이 탈락 됨.

#### ○ 내용 및 특징

이 유물은 김해 대성동 91호분(목곽묘)에서 출토된 마구 및 장식으로서 그 시기가 4세기 무렵이므로 한반도 중부 이남에서는 빠른 편에 속한다. 정식 발굴과정을 통하여 수습한 유물로 학술적인 가치도 높다. 대부분은 말띠꾸미개로서 다양한 형식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금동제 용문 말띠꾸미개는 용이 대칭으로 화려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조형적인 아름다움이 높은 편이다.

그런데 이 무덤은 정식 발굴조사 이전에 이미 심하게 도굴된 상태여서 일부 유물은 도굴구덩이에서 발견되었다. 따라서 1건 39점으로 정리된 이 유물들이 과연 하나의 마구 세트를 구성하는지가 불확실하다.



<그림 1> 김해 대성동 91호분 출토 장식마구 일부(15번은 이번 신청에서 제외)



<그림 2> 김해 대성동 91호분 출토 금동제 말얼굴가리개(좌) 및 금동제 용문 말띠꾸미개(우)

○ 문헌자료

대성동고분박물관, 2013 『동아시아 교역의 가교! 대성동고분군 - 대성동고분박물관 10주년 기념 특별전』.

신경철, 2014 「대성동 88, 91호분의 무덤과 의미」 『고고광장』 4, 부산고고학연구회.

대성동고분박물관, 2015 『金海大成洞古墳群 -81호분~91호분』.

심재용, 2016 「금관가야의 외래계 위세품 수용과 의미」 『영남고고학』 74, 영남고고학회.

대성동고분박물관, 2017 『비밀의 문 다시 두드리다 -대성동고분박물관 재개관기념』.

## ○ 기 타

정식 학술발굴조사에 의한 출토품임.

## □

### ○ 현 상

청동제품과 금동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금동제 운주의 경우 금동이 많이 탈락 됨.

### ○ 내용 및 특징

이 마구장식 일괄(39점)은 김해 대성동91호분에서 출토된 유물로 출토지가 확실하고 발굴과정을 통하여 부장양상을 알 수 있는 유물이다. 금동마구로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인 4세기대의 유물이다. 가장 많은 수의 운주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금동제 용문장식운주는 직경 4.5cm 반구형 중앙에 방형의 투공을 뚫었으며 투공 외부에 방형의 테두리가 있다. 금동 삿갓형 방울(5점)은 평면형태가 삿갓모양이며 삿갓부의 높이는 1.2cm, 직경은 4.4cm이다. 여기에 방울이 달린 형태이다.

### ○ 문헌자료

대성동고분박물관, 2015, 『金海大成洞古墳群 -81호분~91호분』.

□

○ 형 식 : 마구 장식품으로 보이는 각종 금속장식들로서, 정확한 세트나 용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도 1).



도 1. 대성동 91호분 출토 마구장식 일괄. 대성동 고분 박물관 조사품.

이 유물들은 형식이 다양하고 종류도 많기 때문에, 각 유물의 형식과 크기는 다음의 <표 1>로 정리한다. 형식적 특징으로는 ①금동 원판 1점, ②용문장식 원형 투각 운주 1점, ③용문장식 십자형 교차 투각 운주 1점, ④말각 방형 운주 3점, ⑤말굽형 운주 5점, ⑥방원형 운주 2점, ⑦제형 운주 3점, ⑧삼각형 운주 11점, ⑨조족형 운주 2점, ⑩이형 운주 1점, ⑪입형 방울 5점, ⑫원형 방울 4점 등 12 종류로 나누어진다.

이들의 용도는 다소 논란이 있는데, 크게는 마구의 장식으로 매다는 운주와 소리가 나는 방울 등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표의 명칭 아래의 괄호속 번호는 발굴보고서의 일련번호를 따른 것이며, 출토위치를 함께 표기하여 제시한다.<sup>22)</sup>

22) 발굴보고서는 대성동고분박물관, 2015, 『金海 大成洞古墳群 - 85호분 ~ 91호분』, 김해: 대성동고분박물관 참조. 도판은 발굴보고서 및 대성동고분박물관, 2013, 『동아시아 교역의 가교! 대성동 고분군』 대성동고분박물관 1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 김해: 대성동고분박물관; 대성동고분박물관, 2017, 『대성동고분박물관 재개관 기념 비밀의 문 다시 두드리다』, 김해: 대성동고분박물관 참조.

표 1. 대성동 91호분 출토 마구장식 일괄품 현황표

	명칭	사진	재질	크기	기타
1	금동원판 (#1068) 출토위치 165		금동 철	지름 7.16-7.65cm 두께 0.7mm 중앙 구멍 : 비정형 지름 11.2x9.6mm.	2019. 4. 5. 대성동 고분박물관 조사. 평면 타원형의 원판. 가운데에 철제 고리 있 음. 현상 참조.
2	용문장식운주 (#1070) 도굴갱 출토		금동	지름 4.55cm. 높이 9.7mm. 중앙 구멍 폭 : 9.7mm. 두께 2.2-5mm.	2019. 4. 5. 대성동 고분박물관 조사. 현상 참조.
3	용문교차운주 (#1069) 도굴갱 출토		금동	가로 6.09cm. 세로 5.9cm. 원형부 지름 : 3.21cm. 두께 2mm.	2019. 4. 5. 대성동 고분박물관 조사. 현상 참조.
4	말각방형 운주 1 (#1041) 도굴갱 출토		금동	길이 1.2cm. 폭 1.6cm. 단면 두께 : 1.5x3.5mm	2019. 4. 5. 대성동 고분박물관 조사
5	말각방형 운주 2 (#1042) 도굴갱 출토		금동	길이 0.9cm. 폭 1.9cm. 단면 두께 : 1.5x3.5mm	2019. 4. 5. 대성동 고분박물관 조사
6	말각방형 운주 3 (#1043) 도굴갱 출토		금동	길이 1.1cm. 폭 1.8cm. 단면 두께 : 1.5x3.5mm	2019. 4. 5. 대성동 고분박물관 조사
7	말굽형 운주 1 (#1044) 도굴갱 출토		금동	길이 2.05cm. 폭 1.85cm. 두께 0.3cm.	2019. 4. 5. 대성동 고분박물관 조사. 단면 방형의 납작한 고 리모양인데, 윗면이 평 평하게 되어 있음. 결속 용 운주로 추정. 도금 상태 좋음.



	명칭	사진	재질	크기	기타
8	말굽형 운주 2 (#1045) 도굴갱 출토		금동	길이 2.1cm. 폭 1.95cm. 두께 0.3cm.	2019. 4. 5. 대성동 고분박물관 조사. 단면 방향의 납작한 고 리모양인데, 윗면이 평 평하게 되어 있음. 결속 용 운주로 추정. 도금 상태 좋음.
9	말굽형 운주 3 (#1046) 도굴갱 출토		금동	길이 2.1cm. 폭 1.9cm. 두께 0.3cm.	2019. 4. 5. 대성동 고분박물관 조사. 단면 방향의 납작한 고리모양 인데, 윗면이 평평하게 되어 있음. 결속용 운주 로 추정. 도금 상태 좋음.
10	말굽형 운주 4 (#1047) 도굴갱 출토		금동	길이 2.1cm. 폭 1.9cm. 두께 0.3cm.	2019. 4. 5. 대성동 고분박물관 조사. 단면 방향의 납작한 고 리모양인데, 윗면이 평 평하게 되어 있음. 결속 용 운주로 추정. 도금 상태 좋음.
11	말굽형 운주 5 (#1048) 도굴갱 출토		금동	길이 2.2cm 폭 2.5cm. 두께 0.3cm..	2019. 4. 5. 대성동 고분박물관 조사. 단면 방향의 납작한 고 리모양인데, 윗면이 평 평하게 되어 있음. 결속 용 운주로 추정. 도금 거의 없고 상태 나 쁨
12	방원형 운주 1 (#1049) 출토위치 : 71		청동	전체 높이 3.48cm. 방형 폭 1.85cm. 원형 폭 2.03cm. 두께 0.5cm.	2019. 4. 5. 대성동 고분박물관 조사. 위는 방형, 아래는 원형 을 한 운주로, 역대 결 속에 사용함.
13	방원형 운주 2 (#1050) 출토위치 : 72		청동	전체 높이 3.4cm. 방형 폭 1.95cm. 원형 폭 2.06cm. 두께 0.5cm.	2019. 4. 5. 대성동 고분박물관 조사. 위는 방형, 아래는 원형 을 한 운주로, 역대 결 속에 사용함.

	명칭	사진	재질	크기	기타
14	제형 운주 1 (#1051) 도굴갱 출토		금동	길이 4.8cm. 폭 1.71cm. 두께 0.2cm.	2019. 4. 5. 대성동 고분박물관 조사. 긴 사다리꼴의 결속 운주 로, 윗부분에 교침이 있 음.
15	제형 운주 2 (#1052) 출토위치 : 40下		금동	길이 4.6cm. 폭 1.64cm. 두께 0.2cm.	2019. 4. 5. 대성동 고분박물관 조사. 긴 사다리꼴의 결속 운 주로, 윗부분에 교침이 있음.
16	제형 운주 3 (#1053) 출토위치 : 70下		금동	길이 5.01cm. 폭 1.7cm. 두께 0.2-0.22cm.	2019. 4. 5. 대성동 고분박물관 조사. 긴 사다리꼴의 결속 운주 로, 윗부분에 교침이 있 음. 윗부분 약간 파손됨.
17	삼각형 운주 1 (#1054) 도굴갱 출토		금동	길이 2.55cm. 폭 1.23cm. 잔존고 0.7cm.	2019. 7. 22. 국립중앙 박물관 조사. 표면에 금동이 남아 있 음. 삼각형의 운주로, 뒷면 에 작은 꼬다리가 달려 있던 흔적 있음.
18	삼각형 운주 2 (#1055)도굴갱 출토		금동	길이 2.58cm. 폭 1.13cm. 잔조고 0.85cm.	2019. 7. 22. 국립중앙 박물관 조사. 표면 대부분이 초록색 녹이 나 있음.

	명칭	사진	재질	크기	기타	
19	삼각형 운주 3 (#1056) 도굴갱 출토		금동	길이 2.6cm. 잔존고 0.9cm	2019. 4. 5. 대성동 고분박물관 조사.	
20	삼각형 운주 4 (#1057) 도굴갱 출토		금동	길이 2.55cm. 잔존고 1.05cm. 폭 1.13cm.	2019. 4. 5. 대성동 고분박물관 조사.	
21	삼각형 운주 5 (#1058) 도굴갱 출토		금동	길이 2.6cm. 잔존고 0.85cm.	2019. 4. 5. 대성동 고분박물관 조사.	
22	삼각형 운주 6 (#1059) 도굴갱 출토		금동	길이 2.55cm. 잔존고 0.65cm.	2019. 4. 5. 대성동 고분박물관 조사.	
23	삼각형 운주 7 (#1060) 도굴갱 출토		금동	길이 2.55cm. 잔존고 0.75cm.	2019. 4. 5. 대성동 고분박물관 조사.	
24	삼각형 운주 8 (#1061) 도굴갱 출토		금동	길이 2.7cm. 잔존고 1.0cm.	2019. 4. 5. 대성동 고분박물관 조사.	
25	삼각형 운주 9 (#1062) 도굴갱 출토		금동	길이 2.6cm. 잔존고 0.8cm.	2019. 4. 5. 대성동 고분박물관 조사.	
26	삼각형 운주 10 (#1063) 도굴갱 출토		금동	길이 2.5cm. 잔존고 0.7cm.	2019. 4. 5. 대성동 고분박물관 조사.	
27	삼각형 운주 11 (#1064) 도굴갱 출토		금동	길이 2.2cm. 잔존고 0.6cm.	2019. 4. 5. 대성동 고분박물관 조사.	
28	조족형 운주 1 (#1066) 도굴갱 출토			금동	세로 1.1cm. 가로 1.1cm. 높이 1.05cm. 판 두께 1.5mm	2019. 4. 5. 대성동 고분박물관 조사. 山자형 장식판 아래에 새 다리 모양의 꼬다리가 달린 형식
29	조족형 운주 2 (#1067) 도굴갱 출토			금동	세로 1.1cm. 가로 1.1cm. 높이 1.1cm. 판 두께 1.5mm	2019. 4. 5. 대성동 고분박물관 조사. 山자형 장식판 아래에 새 다리 모양의 꼬다리가 달린 형식

	명칭	사진	재질	크기	기타
30	이형 운주 (#1065) 출토위치 : 84		청동 철	전체 길이 4.04cm. 고리 두께 2.3mm. 고리 길이 2.5cm. 수하식 길이 1.9cm. 수하식 폭 1.4cm.	2019. 4. 5. 대성동 고분박물관 조사. 청동 봉을 구부려 만든 고리와 아래의 사다리꼴 수하식이 연결된 독특한 장식이다. 수하식 아래 부분에는 철제 연결금구가 부착되었던 흔적이 있다.
31	입형 방울 1 (#1036) 출토위치 : 23		금동	높이 1.2cm. 샷갓 지름 4.4cm 방울 높이 3.3cm. 방울 폭 2.0cm.	2019. 4. 5. 대성동 고분박물관 조사. 샷갓은 주조후 구멍을 뚫음.
32	입형 방울 2 (#1037) 출토위치 : 24		금동	높이 1.2cm. 샷갓 지름 4.3cm 방울 높이 3.8cm. 방울 폭 2.0cm.	2019. 4. 5. 대성동 고분박물관 조사. 샷갓은 주조후 구멍을 뚫음.
33	입형 방울 3 (#1038) 출토위치 : 25		금동	높이 1.4cm. 샷갓 지름 4.31cm 샷갓 높이 1.36cm. 방울 높이 3.85cm. 방울 폭 2.02cm.	2019. 5. 3. 국립김해박물관 조사 X-Ray 촬영. 샷갓은 주조후 구멍을 뚫음. 연결부에 혁띠 흔.
34	입형 방울 4 (#1039) 출토위치 : 168		금동	높이 1.3cm. 샷갓 지름 4.37cm 방울 높이 3.9cm. 방울 폭 1.95cm.	2019. 7. 22. 국립중앙박물관 조사 샷갓은 주조후 구멍을 뚫음. 방울 안에 원형 설이 들어 있음.
35	입형 방울 5 (#1040) 출토위치 : 169		금동	높이 1.3cm. 샷갓 지름 4.38cm 방울 높이 3.88cm. 방울 폭 1.95cm.	2019. 7. 22. 국립중앙박물관 조사 샷갓은 주조후 구멍을 뚫음.
36	원형 방울 1 (#1032) 출토위치 : 26		청동	지름 1.7cm. 높이 1.9cm.	2019. 4. 5. 대성동 고분박물관 조사. 쌍범으로 주조. 내부에 석영제 혀가 들어 있음.

명칭	사진	재질	크기	기타
37 원형 방울 2 (#1033) 출토위치 : 27		청동	지름 1.8cm. 높이 2.0cm.	2019. 4. 5. 대성동 고분박물관 조사. 쌍범으로 주조. 내부에 철제 혀가 들었음.
38 원형 방울 3 (#1034) 출토위치 : 166		청동	지름 1.8cm. 높이 2.0cm.	2019. 4. 5. 대성동 고분박물관 조사. 쌍범으로 주조. 입이 닫혀있음. 내부에 석영제 혀가 들어 있다고 함.
39 원형 방울 4 (#1035) 출토위치 : 167		청동	지름 1.8cm. 높이 1.95cm.	2019. 4. 5. 대성동 고분박물관 조사. 쌍범으로 주조. 내부에 석영제 혀가 들어 있음.



도 2. 금관가야의 말갖춤 추정 도면.

출처 : 대성동고분박물관, 2017, 위의 책, p. 88.

이 금동 및 청동제 마구 장식들은 말을 장식하기 위한 위세품들로서, 말의 머리와 목, 엉덩이 부분을 장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도 2). 기본적으로 마구는 말을 부리기 위한 재갈과 말 위에 앉기 위한 안장, 그리고 등자와 행엽 등으로 구성되는

데, 마구의 장식은 목과 엉덩이 부분을 장식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현존하는 마구들은 대부분 말과는 별도로 흩어져서 출토되기 때문에 원래의 장식 위치를 정확하기는 어려운 편이다.

대성동 91호분 출토 마구 장식들은 대부분 엉덩이 부분을 장식하는 운주(雲珠)로 알려져 있지만, 유물별로 다양한 형식이 있어서 이들이 모두 운주였는지는 사실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대성동 91호분에서는 마구의 기본이 되는 재질이 3점이나 출토되었기 때문에 현존하는 장식들은 3세트 이상의 마구에 사용되었던 것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출토 위치도 도굴갱과 동쪽단벽쪽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들이 어떤 구성의 어떤 마구에 사용되었는지는 다소 불분명한 점이 많다.

○ **조성연대** : 이 마구 장식들이 출토된 대성동 91호분은 대성동 고분군에서도 비교적 시기가 이른 대형목곽묘이다(도 3). 2012년 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91호분의 남동쪽과 남서쪽 위에 85호분과 90호분이 조성되었고, 서쪽 상부에는 86호분이 출토되었으므로, 이들보다 먼저 조성된 고분이다. 고분의 구조와 주요 출토유물의 성격으로 볼 때, 4세기 전반경으로 추정된다.<sup>23)</sup>

○ **현상** : 현재 지정 신청된 39점의 금동 및 청동제 마구 장식들은 대성동고분박물관에 34점, 국립김해박물관에 1점, 국립중앙박물관에 4점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대부분의 유물들은 위의 형식 기술 항목의 <표 1>에서 개략적인 현상을 함께 기술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표에서 다루지 못한 1, 2, 3번의 유물 3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고찰한다.

#### (1) 금동원관 (#1068)

둥근 금동관으로, 가운데에 구멍이 있고 철제 고리가 끼워져 있다. 앞면에서 보면 원관은 살짝 휘어 있으며(도 4), 앞면과 뒷면(도 5)에 모두 심하게 표면이 쓸린 흔적이 남아 있다. 철제고리는 부식이 심한 편이며, 단면 장방형의 납작한 봉을 구부려서 만든 것이다. 둥근 원관은 표면이 전반적으로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것을 복원한 상태이다.

가운데의 구멍은 장방형에 가까운 타원형으로 길이 11.2mm, 높이 9.6mm의 크기이다. 원관 한쪽에 작고 둥근 구멍 네 개가 일렬로 뚫려 있는데, 구멍 지름들은

23) 발굴보고서에서는 4세기 2/4분기로 설정했으나(대성동고분박물관, 2015, 위의 책, p. 202), 최근 연구에서는 그보다 좀 더 빠른 시기로 보고 있다. 권오영은 2014년 91호분에서 출토된 유리와 관련하여, 대성동 91호분을 4세기 전반으로 편년하였으며, 최근 박광춘·김다빈의 논문에서는 대성동 91호분을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반으로 보기도 하였다. 권오영, 2014, 「고대 한반도에 들어온 유리의 고고, 역사학적 배경」, 『한국상고사학보』 85, p. 149; 박광춘·김다빈, 2019, 「가야 로만 글라스와 진식대금구 유입 시기와 교역로 연구」, 『석당 논총』 75, p. 97. 유물의 성격으로 볼 때, 최근 이 유적과 유물은 발굴보고서의 견해보다는 좀 더 이른 4세기 전반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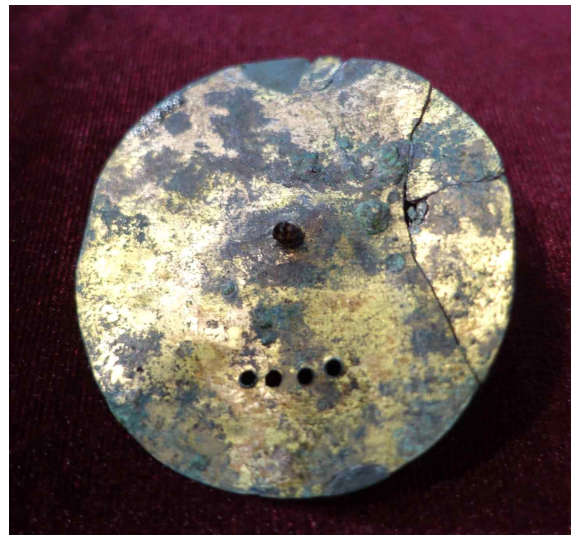


도 3. 대성동 91호분 발굴 상태. 사진: 대성동고분박물관.

한쪽에서부터 지름 2.8mm, 3.1mm, 2.2mm, 2.8mm의 크기로 각각 다르다. 말의 얼굴을 장식하는 마면으로 보기도 하는데, 용도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도 4. 금동원판. 앞면.



도 5. 금동원판. 뒷면.

(2) 금동용문장식운주(金銅龍文裝飾雲珠) (#1070).

남쪽 도굴갱에서 출토된 동근 운주로서, 주조기법으로 제작한 후 도금한 것이다. 형태는 중앙의 방형 구멍을 중심으로 두 마리의 용을 상하로 배치하고, 테두리는 노끈을 이은 듯한 문양을 장식하였다(도 6). 반원형에 가깝게 불룩한 형태의 장식으로, 뒷면 중앙에는 길이 3.6mm 정도의 작은 홈이 나 있다(도 7).

두 마리의 용의 바탕 부분은 구멍을 뚫어 놓았는데, 이것은 주조할 때부터 구멍 뚫린 형태로 만든 것이다. 조각은 다소 둔탁하며, 용의 표현도 간략하고 그다지 섬세하지 못한다. 용 몸체의 문양은 조금기법(彫金技法)으로 장식된 것으로 보인다. 말의 엉덩이 부분을 장식하는 운주의 일종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용문 운주는 국내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의 예로서 주목되며, 중국 동북지역의 삼연(三燕)시대 마구장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 6. 용문투조금구. 앞면.



도 7. 용문투조금구. 뒷면

(3) 금동용문교차운주(金銅龍文交差雲珠) (#1069).

금동용문장식운주(#1070)과 함께 남쪽 도굴갱에서 출토된 동근 운주로서, 주조기법으로 제작한 후 도금한 것이다. 형태는 중앙의 원형을 중심으로 사방에 장방형의 장식을 배치하여 전체적으로는 십자 형태에 가까운 형상으로 만들었다(도 8). 앞뒤면 모두 도금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부식으로 인하여 상태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다.

중앙의 원 안에 표현된 주문양은 꼬리를 물고 있는 용인데, 녹으로 인하여 문양이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는다. 몸의 비늘이나 눈은 정을 이용하여 새긴 듯하지만, 자세한 상태를 파악하기 힘들다. 뒷면은 녹이 상당히 심한 편이고 별다른 조



형이 없다(도 9). 역시 주문양인 용의 여백 부분은 투각하여 구멍뚫린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주조기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앞면 가운데 부분이 약간 불룩한 느낌을 주지만 전체적으로는 두껍고 평평한 판의 느낌이 강하다. 사방에 달린 십자형의 고리에 끈을 매달아 마구를 장식 및 연결하던 장식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역시 이러한 형태의 용문투조장식구는 한반도 남부지역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예로서 주목된다. 이러한 교차운주는 중국 동북지역의 삼연(三燕) 시대 유적 출토품과 비교되는 예들로서, 북방계 마구장식으로 알려져 있다.

#### (4) 기타

그외 각종 장식들은 대부분 주조하여 제작한 것으로, 도금이 남아 있는 경우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출토 위치 및 주요 특징에 대해서는 위의 <표 1>의 각 항목을 참조하기 바란다.

#### ○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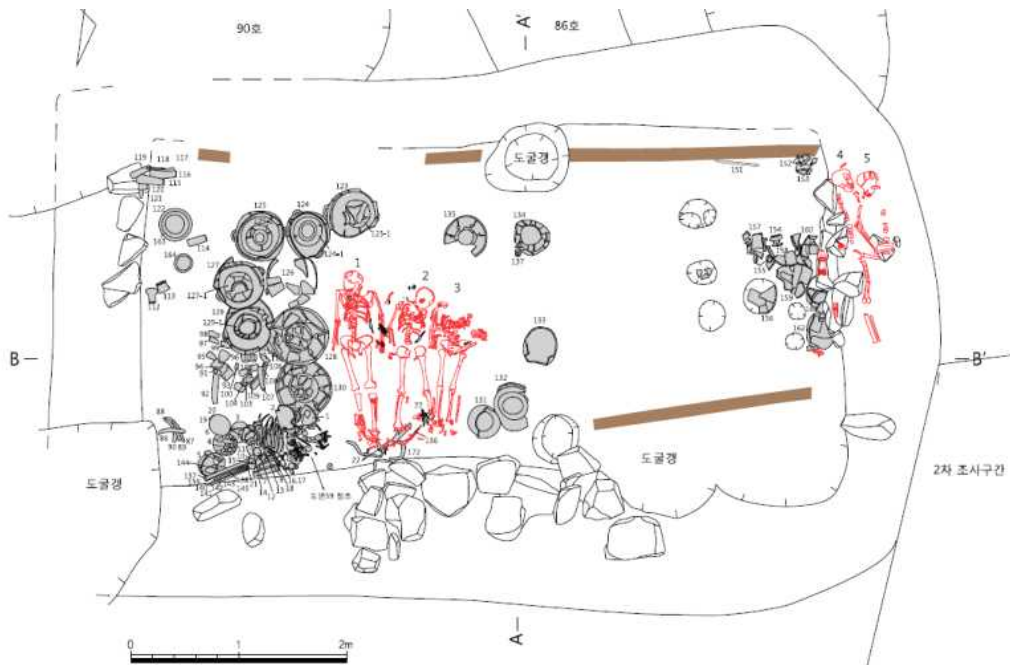
이 마구 장식 일괄품이 출토된 김해 대성동 91호분은 2012년 대성동고분박물관에서 발굴한 유적으로, 내부에서 순장 인골 5구와 로만 글라스 편, 그리고 각종 패각제 운주를 비롯한 마구 장식들이 다수 출토된 곳으로 유명하다. 아쉽게도 고분의 상당수가 도굴을 심하게 당한 상태였으며, 후대의 고분들이 중첩해서 축조되었기 때문에 원래의 상태를 잘 알 수 없다는 아쉬움이 크다.



도 9. 금동용문교차운주. 뒷면



도 8. 금동용문교차운주.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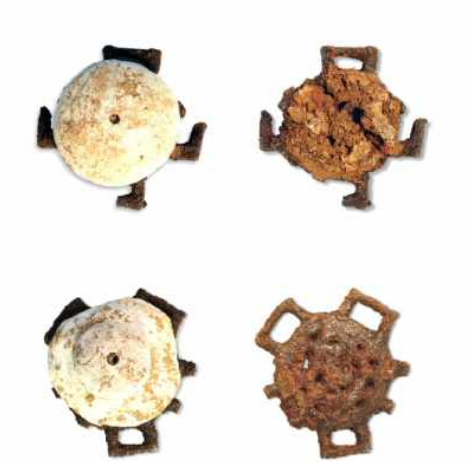
도 10. 대성동 91호분 유물 출토 분포도.

도면 출처: 대성동고분박물관, 2015, 위의 책, 도면 57.

이번에 조사된 금동 및 청동제 마구장식들은 대부분 남쪽의 도굴갱에서 출토되었으며, 그외의 유물들은 고분 동쪽벽에 잇닿은 유물군에서 출토되었다(도 10). 이 고분에서는 모두 4개체의 재갈이 확인되어, 4세트 이상의 마구가 부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재갈은 녹각제와 철제로 제작되었고, 출토위치도 동쪽벽 인근에서 나온 것과 순장인물 발 아래에서 나온 것 등 여러 곳이다. 재갈의 출토 위치로 볼 때, 이 마구 장식들은 재갈과 한 세트가 되는 마구들이 여러 개 뒤섞인 것으로 보이며, 지정 신청 대상이 된 39점의 마구장식들도 원래는 한 세트가 아니라, 4세트 이상의 마구 및 기타 장식품들이었을 것이다.

대성동 91호분에서는 이번에 지정신청된 금동 및 청동제 마구 이외에도 철제 운주와 패각제운주 등이 다수 출토되었다. 특히 철제교차운주 3점은 원형 장식 주위에 사방, 혹은 오방으로 방형 장식을 만든 교차운주이며, 윗판에 패각(貝殼) 장식을 부착한 것으로 주목된다(도 11). 이렇게 패각장식 운주는 중국 동북지역에서는 출토되지 않기 때문에 김해 지역에서 자체 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 아쉽게도 이번 지정신청에서는 이 패각장식 운주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비교자료로 함께 조사한 상태를 보면, 철제품이기 때문에 보존 상태는 그다지 좋지 못하다.

이와 함께 별도의 패각제 운주 24점이 함께 출토되었는데(도 12), 이들은 패각을 원형으로 가공하여 마연하고 가운데에 구멍을 뚫고 금속제 장식을 달아서 사



도 11. 패각장식 철제운주.  
위 : 사방형. 아래 : 오방형.  
대성동 91호분 출토.  
대성동고분박물관 소장.



도 12. 패각제 운주. 대성동 91호분 출토.  
대성동고분박물관 소장.

용하는 것이다. 여기에 사용된 패각들은 아열대 바다에서 서식하는 이모가이와 고후우라 패각을 이용한 것으로, 류큐 이하 동남아 지역에서 수입된 패각을 사용한 점이 특징이다.<sup>24)</sup> 이와 같이 패각을 이용해서 만든 운주는 김해 지역에서 비교적 이른 예들이 보이고, 일본 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어서, 김해 지역이 일본 및 동남아 지역과 일찍부터 해상 교역의 중심지로 발전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패각제 운주들도 보존상태가 좋지 못하고, 지정 신청서에서도 누락되어 있었다.

이번 지정 신청된 대성동 91호분 출토 마구장식 중에서는 용문장식운주와 용문교차운주, 그리고 입형장식 등이 중국 동북지역의 삼연계 마구 장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또한 지정 신청 대상품은 아니지만, 동남아와 일본과의 해상 교역 관계를 보여주는 패각 장식 운주들, 그리고 로만 글라스 파편 등도 김해지역에서 발전한 초기 가야의 국제적 문화 교류 양상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이기는 하다.<sup>25)</sup> 그렇지만, 심하게 도굴된 고분의 상태로 인하여 유물의 보존 상태도 좋지 못하며, 원래의 마구 상태를 이해하기도 어렵다. 또한 제작지와 제작배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

○ 문헌자료: 명문자료나 관련 문헌자료는 없음.

24) 이 패각들의 분석에 대해서는 木下尙子, 2017, 「金海大成洞91號墳出土のゴホウラ・イモガイ製品 - 貝裝馬具とその位置付け」, 『金海大成洞古墳群 - 추가 보고 및 종합 고찰』, 대성동고분박물관, pp. 175-202 참조.

25) 권오영, 2014, 「고대 한반도에 들어온 유리의 고고, 역사학적 배경」, 『한국상고사학보』 86; 심재용, 2016, 「金官加耶의 外來系威勢品 受用과 意味」, 『영남고고학』 74; 김일규, 2018, 「금관가야 고분 출토 외래유물의 성격과 의의」, 『호남고고학보』 60.

□

○ 현 상

말 등의 가죽띠가교차하는 곳을 묶고, 장식을 꾸미는 금구로서 용문장식이 있는 것(용문교차운주·용문장식운주), 통형의 금동방울을 샷갓모양으로 감싸고 있는 것(금동입형령), 말각장방형·마제형·방원형·제형·삼각형·조족형 등의 꾸미개(결속운주)와 금동얼굴가리개(마면) 등으로 이루어진 말갖춤새이며, 재질은 청동판 위에 도금한 금동제와 청동제가 있음.

용 문양 장식이 있는 말띠 꾸미개(용문교차운주·용문장식운주)는 형태가 완전하나 일부는 도금막이 떨어져 나가 청동녹이 있음. 금동얼굴가리개는 3개의 편을 복원하였고, 중앙부에 삽입된 철봉으로 녹이 쓸었음. 통형의 금동방울을 샷갓모양으로 감싸고 있는 말띠 꾸미개는 방울과 샷갓모양 덮개가 분리된 것이 있고 청동녹이 쓸었음. 이외의 말띠 꾸미개는 일부가 결실된 것도 있으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함.



용문양 말띠 꾸미개

용문양말띠 꾸미개(좌:표면, 우: 이면)



금동 말 얼굴가리개

금동 말띠 꾸미개

금동 및 청동 말띠 꾸미개

## ○ 내용 및 특징

대성동 91호분에서 출토한 여러 종류의 금동·청동 말띠꾸미개는 우리나라의 남부 지방에서 출토된 장식 말갖춤새중 시기가 가장 빠를 뿐만 아니라 4세기의 유일한 자료로서 평가됨. 특히 이 말갖춤새는 중국 랴오닝성 차오양(朝陽)의 라마동 선비 무덤에서 동형 또는 유사한 사례들이 확인되어 선비계 말갖춤새의 특징이 있어 금관가야와 북방 지역과의 교류관계를 나타내는 자료임. 이런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무덤 내부가 도굴의 피해를 입어 이곳에서 출토된 말갖춤새의 정확한 사용 부위와 방법을 알기 어렵고, 완전한 1식을 구성하는지도 알 수 없는 등 불분명한 점들이 많아 당시의 말갖춤새 전모를 알려주는 자료로 보기 어려움.

## ○ 문헌자료

대성동고분박물관 2013, 『동아시아 교역의 가교 대성동고분군』 대성동고분박물관 1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 도록

대성동고분박물관 2015, 『金海 大成洞古墳群-85호분~91호분』

심재용 2016, 「金官加耶의 外來系 威勢品 受用과 意味」 『嶺南考古學』 74, 영남고고학회

## ○ 기 타

김해 대성동고분군 M5호분 출토 말띠 꾸미개 2012년 6월부터 9월 26일까지 실시한 대성동고분군 제7차 학술발굴조사 시 91호분에서 출토되었고, 국가귀속 대상 매장문화재임